#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1)

로잘린과 제럴드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 신관 로잘린은 일족의 참전에 동의를 표하는 바요.”

듣고 있던 엘레나도 손을 들었다.

“나 녹색눈 일족의 엘레나 역시 일족의 참전에 동의하오.”

반대하던 노란눈 일족의 장로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장로 이벨린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제럴드가 뒤를 돌며 말했다.

그곳엔, 이벨린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싹 여윈 얼굴에 기묘한 빛이 번뜩였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장로 이벨린.”

노란눈 일족 장로의 부름에 이벨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설명할 것 없소. 들어 알고 있으니.”

“…….”

이벨린은 제럴드를 응시했다. 샛노란 눈의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를 선봉에 세워 주시오.”

핏발이 선 눈에서 기어이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잔펠의 시신을 수습하며, 이벨린은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틀어막아야만 했다.

온몸에 가득한 수십 개의 구멍, 힘줄이 차례차례 끊긴 자국, 모두 빠져 버린 치아, 여기저기 남은 고문의 흔적까지.

잔펠은, 죽지 못해 살아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들은 그를 죽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지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벨린은 뭉툭한 팔목으로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오르센의 왕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나를 선봉에 세워 주시오! 내가, 선봉에 서겠소!”

바싹 말라 제 몸 하나 가누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 그녀가 심장을 두드려 대며 절규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라 해도 좋소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는 그녀에게 제럴드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마른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봉에 서려면 이리 귀신같은 몰골이어서야 곤란하지 않겠소.”

“…….”

“잘 먹고 잘 쉬어 체력을 보충하시오. 손으로 검을 들 수 있고, 홀리를 탈 수 있다면…….”

“…….”

“반드시 선봉에 세워 드리겠소.”

이벨린이 입술을 세게 짓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신단수를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신이시여. 저는 수호가 아닌 복수를 위해 검을 들 것이니,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십시오. 더불어 부디 오르센의 왕도 지옥으로 인도하소서.’

\* \* \*

오르센 진영에 은밀한 전령이 도착했다. 그는 곧장 솔 악센을 독대했고, 습격 사건에 대한 일을 알렸다.

“뭐?!”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솔 악센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다.

전령은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조아렸으나, 솔 악센의 화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그가 전령의 멱살을 와락 움켜잡으며 으르렁거렸다.

“그래서, 그래서?! 살아 있던 한 놈마저 없어졌단 말이냐?!”

“예.”

“그럼… 그럼 연구하던 놈들이랑 그 기록들은?”

“모두 죽거나 불에 타 버려 소실되었습니다.”

“…….”

“죄송합니다, 전하.”

전령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솔 악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라…….”

누가 했을까? 그토록 외진 곳을 굳이 찾아가서 기록, 연구, 샘플만 골라서 없애 버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파란눈…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거야. 이 세상 어딘가에.”

솔 악센은 별안간 막사를 박차고 나와 빠르게 2곽이 보이는 성루로 달려갔다. 희미한 백야의 밤을 가로질러 저 멀리 2곽이 보였다.

칸 브록타를 절명시킨 코르벨라 황녀의 움직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땀과 피에 젖은 새파란 눈동자가 분명 선명하게 빛났다.

“저기, 저기에도 있어. 황녀가 그것이야.”

솔 악센은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의 두 눈에 핏발이 섰다.

‘황제가 되려면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있어야 코르벨라를 집어삼킬 수 있어.’

그것들이 필요해.

그것들이 있어야 해.

심장이 들끓었다.

“칸 베르베르나를 불러와라.”

왕의 음산한 명령에 가까이 있던 병사가 재빨리 움직였다.

이윽고 칸 베르베르나가 그의 곁에 다가오자, 솔 악센은 명령을 내렸다.

“전투을 재개한다. 루카스 모데라토에게 연락을 취해.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나감과 동시에 3곽을 점령하라고.”

칸 베르베르나는 허리를 펴며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존명!”

“그리고 황녀, 코르벨라의 독립8군단장을 반드시 생포해라. 팔다리는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 숨만은 붙어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코르벨라가 전쟁을 준비한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원을 사병 육성에 할애했기에 각 병사에게 맞는 군복과 군마, 무기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무기와 군마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군복은 사병 가문에서 직접 제작하여 나눠 주었다.

그로 인해 현재 코르벨라군은 각기 다른 군복을 입고 있는 실정이었다.

루카스 모데라토는 검은 군복을 입은 군대를 밤중에 은밀하게 이동시켰다.

코르벨라의 국기를 든 그들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블라디미르의 국경을 통과해, 코르벨라 땅에 발을 들였다.

섭정이 5군성과 6군성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 3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나이젤의 호위로 일했던 루카스는 누구보다 코르벨라 군 상황에 빠삭했고, 어딜 보아도 코르벨라 사람처럼 보였다.

“어디 소속이요?”

“우린 4군단 소속 사병으로, 지원 요청이 와서 3곽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발할라 후작이 직접 만들어 준 위조 문서는 아주 감쪽같아서 누굴 만나든 무사 통과였다.

루카스 모데라토는 3곽 인근의 작은 성곽에 진을 쳤다. 그의 주인께서 신호를 보내 오시는 그 순간,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습관적으로 혓바닥을 굴려 입천장을 쓸자, 볼록한 흉터가 느껴졌다.

세상의 중심, 제 삶의 이유. 자신은 오직 신을 위해 일할 뿐이다.

비록 나이젤 코르벨라, 자색 눈의 그가 마음에 걸렸으나 그게 신을 배반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둥근 원을 그린 뒤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다. 긴 기도가 이어졌다.

오르센 군대의 공격은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그들은 아예 모든 병력을 끌고 나와 코르벨라가 지키고 있는 2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이젤은 까마득하게 몰려 나와 1곽과 2곽 사이의 광야를 모두 메워 버린 오르센의 대군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탓에 코르벨라군은 성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궁수!”

카이사르의 커다란 외침에 화살이 다시 한번 비처럼 쏟아졌다.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기어오르던 오르센의 군사들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다리를 오르는 적에게 검을 찔러 넣은 멜로디는 아예 성벽 위로 훌쩍 뛰어올라 사다리를 있는 힘껏 밀어 버렸다.

“으아아아악!”

“으악!”

“비켜!”

철제 사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긴 멜로디는 성벽 아래를 바라보았다.

오르센 군대는 아군의 시체를 치워 가며 무모한 전투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때로는 죽은 아군의 시신을 방패 삼아 사용하기도 했고, 밟고 올라서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2곽 성벽 아래에 죽어 쌓여 있는 오르센 군인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다.

그런데도 오르센군은 앞으로, 앞으로 진군했다. 쏟아지는 화살 비에 겁을 먹은 병사가 뒤로 빠져나가기라도 하면, 장군들은 직접 그들의 목을 내려쳤다.

“물러나면 즉처한다! 진군하라!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 코르벨라의 2곽을 부숴 버려라!”

오르센 병사들에게 선택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다.

“미쳤어. 왕국의 남자는 모조리 끌고 온 것 같네.”

타는 듯한 더위가 작열했다. 각종 보호구에 투구까지 쓴 멜로디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그녀는 잠시 뒤로 물러나 투구를 벗고 아예 물을 머리에 쏟아부었다.

성벽에 서서 그들의 전투를 지원하던 리아나가 쏜살같이 달려와 멜로디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오드가 온몸을 순환하자, 그래도 몸이 좀 가뿐해졌다.

“다 털어 쓰면 안 되니까 너도 아껴.”

“걱정 마.”

“고맙다, 리아나.”

멜로디는 다시 검을 잡았다. 그녀가 성벽 위로 달려 올라온 순간, 코르벨라의 병사 한 명이 화살을 맞아 아래로 추락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전투에 병사들은 기진맥진했다. 멜로디가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교대!”

그녀의 명령에 최전선에서 싸우던 이들과 후방에서 지원하던 이들이 서로 위치를 바꿨다.

끔찍한 중노동에 시달린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투구를 벗었고, 최전선으로 나온 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무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둑한 새벽 시작된 전투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르센 대군의 전법은 오직 하나, 인해전술이었다. 오르센군은 마치 노도처럼 밀려들어 성벽을 두드렸고, 그 끔찍한 인간 파도에 코르벨라군은 점점 지쳐 갔다.

오르센의 피해도 컸으나, 장시간의 전투에 코르벨라군의 피해도 상당했다.

사상자가 속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데이모스 코르벨라였다.

전투를 지휘하던 중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어깨를 관통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 군사 회의가 시작되었다. 데이모스는 어깨에 부목을 대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것이 맞는지 얼굴이 창백하고, 붕대는 피로 흥건했다.

“괜찮으냐?”

나이젤의 물음에 데이모스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5군성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원군이 필요합니다.”

“아예 봉화를 올리겠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봉화를 올려라.”

나이젤의 명령에 데니스 그라스가 재빨리 달려 나갔다.

데이모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다.

“데이모스, 후방으로 빠져 치료에 전념해라.”

나이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령하자, 데이모스가 서둘러 그를 붙잡았다.

“차라리 제가 남아 있는 발할라의 사병들을 직접 데리고 오겠습니다.”

“발할라의 사병?”

“예, 전하. 발할라군은 4군단으로, 위치상으로도 5군성보다 가깝습니다.”

“그들은 블라디미르 국경 지대를 수비 중이지 않은가?”

“수비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비군을 데려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5군단이 지원을 오면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

나이젤은 잠시 고민했다.

“어차피 제가 남아 있어 봐야 오른팔을 다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발할라의 사병은 전하의 휘하로 편재하겠습니다. 저 대신 통솔해 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정답 같은 말이었다.

나이젤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빠르게 명했다.

“좋다. 데이모스 코르벨라, 지금 당장 발할라의 사병 일부를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데이모스가 재빨리 몸을 돌려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멜로디가 중얼거렸다.

“…너무 정답 같은 말이라 이상하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2)

카이사르도 데이모스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하다가 시선을 돌렸다.

“오르센 뒤쪽의 군사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들도 잠시 쉴 틈이 필요하니 해가 지면 곧 물러갈 겁니다. 날이 밝으면 또 진격해 올 가능성이 높으니, 성벽 안에서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과 음식이 거의 동났으니, 3곽에 연락해 보급대를 보내라 하겠습니다.”

“알겠네, 사령관. 그런데… 전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오지 않으면 어찌할 예정인가?”

그 물음에 카이사르는 고개를 저었다.

“전령이 제때 도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혹 사고가 생겼더라도 5군단은 3곽으로 진군할 겁니다. 제가 미리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시각에 맞춰 마츠 마이어가 군대를 끌고 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늦어도 모레 새벽엔 5군단이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전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간파한 뒤, 전령에 대한 믿음을 빠르게 버렸다.

그는 각 군단장들에게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명령해 두었다.

“역시 대단하군, 사령관.”

나이젤은 그의 판단을 치하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까맣게 몰려든 오르센군이 평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 다시 코르벨라를 지키러 가 보세.”

\* \* \*

한편, 데이모스는 욱신거리는 어깨에 이를 악물었다.

“좀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그는 제 팔을 스스로 찔러 피를 냈다. 워낙 혼잡한 상황이었고, 어느 틈에 화살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그의 상처를 의심하지 못했다.

데이모스는 붕대를 새로 간 뒤, 곧장 말을 달려 2곽을 벗어났다. 비록 발할라의 사병들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데이모스는 호위 다섯을 이끌고 그대로 3곽을 통과했다.

그는 3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일렀다.

“곧 4군 소속 사병들이 당도할 것이니 성문을 개방해 두어라.”

“예, 알겠습니다. 전하!”

3곽을 통과한 뒤, 서서히 말을 멈춘 데이모스가 호위 중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코르벨라의 국기를 든 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3곽을 통과했다 전하고, 그들의 수장에게 이 문서를 전해라.”

“예, 전하!”

그가 빠르게 멀어지자, 데이모스는 또 다른 호위에게 문서를 건네며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너는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달려 이것을 황궁의 로쉐 황후 폐하께 전달해야 한다. 발할라 후작을 비롯한 그 누구와도 마주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로쉐 황후 폐하께 이것을 전달해라. 알겠느냐?”

“예, 전하.”

“일이 잘 해결되면 너희의 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마.”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데이모스가 준 종이를 품속에 잘 넣은 뒤, 빠르게 말을 달려 사라졌다.

데이모스는 황궁으로 향하는 호위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어디로 가십니까?”

“잘 들어라. 지금부터 데이모스 코르벨라는 잠시 죽은 사람이다.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되니, 우리는 은밀히 숨어 황궁으로 향한다.”

데이모스 코르벨라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냉철했다. 그는 망토에 달린 후드를 깊게 눌러쓴 뒤 큰길을 벗어나 외곽을 향해 말을 몰았다.

데이모스가 은밀하게 수도로 향하던 그 무렵, 3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있던 루카스 모데라토는 데이모스의 연락을 받았다.

마침 3곽을 점령하라는 신의 명령도 있었던 터라, 데이모스의 연락은 아주 시기적절했다.

루카스는 발할라 후작이 보내 준 전령 세 사람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너는 지금 당장 4군성 봉화로 달려가라.”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5군성 봉화입니다만?”

“5군성 봉화는 2곽에서 바로 보인다. 봉화가 오른 것을 섭정이 알아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4군성으로 가서 정확하게 3일 뒤, 다섯 개의 봉화를 올려라.”

“다섯 개?!”

다섯 개의 봉화라는 말에 전령의 눈이 커졌다.

“그래, 다섯 개.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전령은 떨리는 눈으로 침을 꿀꺽 삼키고는 재빨리 말에 올라 4군성으로 향했다.

루카스는 곧 다른 전령에게도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너는 지금 당장 황궁으로 달려가서 섭정과 카이사르 베델,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과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부고를 전하라.”

다섯 개의 봉화는 황제 혹은 섭정의 전사를 의미한다.

루카스 모데라토의 명령을 받은 전령은 떨리는 숨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서둘러 말을 달렸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죽지 않은 이들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 전령들이 달려가고 있으니, 이제 그는 부고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루카스 모데라토는 말에 올라 3곽을 향해 달렸다.

얼마 뒤, 3곽의 성문을 지키던 4군 2사단장은 4군단의 깃발과 코르벨라의 깃발을 함께 든 군대가 다가오자 화색을 띠며 기뻐했다.

“4군단으로 배정된 사병들인 모양이다!”

성루에 선 사단장은 그들을 샅샅이 살폈다. 군복의 모양새가 익숙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4군단 소속 발할라의 사병들이요! 지원 요청을 받아 왔으니 문을 열어 주시오!”

루카스 모데라토의 말에 3곽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어서 오시오!”

오르센의 군대는 환영을 받으며, 3곽 정문을 통해 당당히 입장했다.

4군 2사단장이 성루에서 빠르게 내려왔다. 예상보다 많은 사병의 수에 그는 반색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리도 빨리 데려오다니. 고생 많았소!”

그는 웃는 얼굴로 루카스 모데라토의 정면에 섰다. 기쁘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려던 사단장은 문득 그의 얼굴이 참 낯익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단장이 눈을 깜빡이며 루카스를 바라보자, 루카스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때, 2곽에서 섭정 나이젤이 보낸 전령이 빠르게 3곽 후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섭정 전하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보급대를 2곽으로 보내십시오! 저는 지원 봉화를 올리러 가야 합니다!”

“알았다!”

4군 2사단장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자, 말 위에 있던 전령은 다시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루카스 모데라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과 함께 온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전령이 나가지 못하도록 3곽의 정문을 막아 버렸다.

“아니, 이 무슨 짓이오!”

황당한 행동에 사단장이 화를 내자, 루카스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소?”

4군 2사단장은 그 은밀한 속삭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오싹한 소름이 오소소 돋으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야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루카스 모데라토?”

“오랜만이오.”

4군 2사단장은 곧장 뒤로 물러나며 검을 빼 들었다. 본능적으로 눈앞의 이가 아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전원, 검을 들어라!”

소란한 쇳소리와 함께 코르벨라군은 곧장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코르벨라의 국기를 들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의아하긴 했으나, 3곽의 군인들은 충실히 사단장의 명을 따랐다.

“루카스 모데라토, 왜 전령을 가지 못하게 막는가? 당장 전령의 길을 터라. 또한 섭정 전하의 명으로 직위가 박탈된 그대가 도대체 어떤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그의 나직한 물음에 루카스가 답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뭐?”

“전령을 죽여라!”

루카스의 명령에 전령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그에게 화살을 쐈다. 전령은 단말마의 비명만을 남긴 채 죽어 버렸다.

4군 2사단장은 죽음을 직감하며 이를 세게 물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성문을 연 스스로를 저주하며, 그는 검을 치켜 들고 루카스 모데라토에게 달려들었다.

“적군이다! 공격하라!”

그와 루카스의 검이 허공에서 부딪치며 3곽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 \* \*

2곽 성벽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끝도 없는 공방전에 모두가 지쳐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1곽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은 이미 곳곳이 부서져, 안쪽에서 얼기설기 덧대는 방식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듯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군이 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에르데, 슈테언!”

멀리서 멜로디의 부름이 들리자, 에르데와 슈테언이 곧장 달려왔다. 성곽에 걸린 갈고리 쇠줄을 확인한 에르데와 슈테언은 신중하게 검을 겨눈 뒤 힘껏 내리쳤다. 요령 좋게 쇠줄을 끊어 내자, 오르센 쪽에서 아쉬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성벽을 타고 넘어오기 위해서는 철제 사다리를 걸거나, 갈고리가 달린 쇠줄을 걸어야 하는데, 오르센군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았다.

사다리가 보이기만 하면 귀신같이 달려와 발로 차 버리는 독립8군단장에, 쇠줄도 단번에 끊어 버리는 괴력의 소유자가 둘씩이나 버티고 있어서 번번이 실패했다.

거기다 화살을 귀신같이 쏘는 사람도 있었다. 장교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하면 놓치지 않고 숨을 끊어 놓는 바람에, 오르센 장교들은 아예 성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오르센의 피해도 막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솔 악센은 루카스 모데라토가 한시라도 빨리 2곽의 정문을 공격해 주기를 바랐다.

현재 코르벨라 2곽의 모든 군력은 1곽과 마주 보고 있는 2곽 후문 쪽 성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2곽 정문 성루엔 몇몇 병사들만 남아 언제쯤 보급대와 지원군이 올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성루에서 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3곽을 바라보던 병사는 멀리서 보이는 군대의 행렬에 잠시 숨을 멈췄다가 크게 환호했다.

“와아아아아아아!”

“어우!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원군, 원군입니다!”

“뭐?”

그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하자, 옆에 서 있던 병사들도 성벽에 매달려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앞을 주시하던 그들도 높이 솟은 코르벨라의 깃발과 몰려오는 군대의 모습을 보고 두 팔을 치켜들며 환호했다.

“원군이 왔습니다!”

“당장 섭정 전하와 사령관께 이 사실을 알려!”

“네!”

말단 병사는 꽁지에 불이 붙은 짐승처럼 재빨리 성루를 내려가 있는 힘껏 달렸다. 그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지원군이 왔습니다아아! 지원군이 왔습니다! 3곽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3곽 방향을 바라보았다.

“지원군?”

“지원군이 왔다잖아!”

“와아아아아아!”

며칠째 밤낮없이 이어진 공방전,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 제대로 잠들 수조차 없는 지독한 백야, 부족한 음식과 물,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으며 나는 끔찍한 악취와 죽음의 공포.

전쟁은 지옥의 단면이었고, 지옥은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갔다.

병사들은 광분하여 환호했다. 그들의 함성이 2곽을 뒤흔들었고, 오르센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함성에 놀라 잠시 주춤했다.

솔 악센은 코르벨라군의 함성에 비웃음을 날리며 중얼거렸다.

“마음껏 환호해라. 곧 절규로 바뀔 것이니.”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3)

나이젤과 카이사르도 전투를 지휘하다가 몸을 돌려 3곽 방향을 바라보았다.

소식을 알리러 달려온 병사는 나이젤보다 카이사르를 먼저 발견했다. 그는 서둘러 사령관에게 달려갔다.

“사령관님!”

“지금 제정신인가?!”

환희에 차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던 병사는 카이사르와 노성에 깜짝 놀라 주춤했다. 카이사르는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냈다.

“원군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은 한 것이냐! 설령 맞다 한들 온 성곽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이냐!”

“죄송합니다.”

병사는 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고, 카이사르는 냉철한 얼굴로 시간을 헤아렸다.

지금 원군이 왔다면 5군단은 아닐 것이고,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요청하러 간 4군단 소속 사병 집단일 것이다.

“원군이 맞다면 4군단 소속 사병들일 것이다. 정확하게 확인 후 성문을 열어라. 알겠느냐?”

“예, 사령관님.”

잔뜩 기가 죽어 옹송그리고 있던 병사가 서둘러 몸을 돌려 3곽 정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카이사르는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결국 가까이에 있던 사단장 중 한 사람을 불러 직접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이사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들썩이는 군을 보며 커다랗게 소리쳤다.

“전군, 제 위치를 지켜라!”

그의 노성에 코르벨라군은 그제야 진정하고 다시 전투에 집중했다.

카이사르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데이모스가 데리고 온 사병이 맞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그가 가자마자 군대가 출발했다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과연 블라디미르 국경을 지키고 있던 군대를 새로 재편해서 차출하는 것이 이토록 빠를 수 있나?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이럴 때를 대비해 군대를 미리 준비시켜 놓고 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카이사르는 몸을 돌려 2곽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보낸 사단장이 작은 쪽문을 통해 서류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카이사르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는 보통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판단을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직감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때론 직감이 이성적 판단보다 정확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본능과 직감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다녀올 테니 잠시 지휘를 맡거라.”

카이사르는 보좌 사단장에게 지휘를 맡긴 뒤, 곧장 2곽 정문을 향해 홀로 달리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사단장은 너무나 확실한 서류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카이사르의 말처럼 4군단 소속 사병들이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보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사령관님은 가끔 너무 철저하시단 말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옆에 있던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열어라.”

그의 명령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병사들이 쇠사슬 고리를 잠갔던 걸쇠를 풀었다.

“멈춰라! 아직 문을 열지 마라!”

저 멀리서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단장과 병사들은 의아한 얼굴로 몸을 돌렸다. 카이사르 베델이 다급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에 덜컥 겁이 난 병사들이 재빨리 풀리고 있는 쇠사슬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문의 걸쇠는 그들의 손을 떠난 후였다.

“아직, 아직이다!”

카이사르의 다급한 말과 달리, 정문의 잠금장치가 열려 버렸다. 그것을 알아챈 성문 너머의 군인들은 있는 힘껏 정문을 열었다.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뒤로 코르벨라의 국기를 든 군인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령관님, 확실히 원군 맞습니다.”

날듯이 달려와 흉흉한 눈으로 문 너머를 바라보는 카이사르에게 사단장이 말했다.

카이사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군대의 선봉에 서 있는 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선봉에 선 기사는 완전 무장을 한 채 투구를 쓰고 군마 위에 올라타 있었다.

“투구를 벗어라.”

카이사르가 명령했다.

투구를 쓴 자, 루카스 모데라토가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카이사르는 다시 명령했다.

“투구를 벗고 신분을 밝혀라. 명령이다.”

나직한 힘이 실린 위압적인 명령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숨 막히는 침묵 사이로, 카이사르와 루카스의 시선이 날카롭게 허공에서 교차했다.

한편, 성벽 뒤에서 리아나와 함께 꾸준히 전쟁을 지원하던 이지스는 한순간 온몸이 허공을 부유하는 듯한 느낌에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다.

숨을 멈춘 이지스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온통 백색인 공간에서 이지스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피안의 영역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이자 하얗던 시야의 끝단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지스가 붉은 물이 드는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카이사르 베델이었다.

카이사르는 끝끝내 명령에 불복하며 투구를 벗지 않는 그를 노려보다 검을 빼 들었다.

“사령관님!”

주위의 병사들이 놀라 소리쳤으나, 카이사르의 시선은 오직 루카스에게 향해 있었다.

루카스 모데라토는 카이사르 베델에게 진심으로 감탄했다. 적이고 아군이고를 떠나서 기가 막힌 감이었다.

그는 투구 속에서 싱긋 웃었다. 이곳에서 그들 모두가 죽더라도, 카이사르 베델을 죽이고 죽는다면 충분히 값진 죽음일 것이다.

다행히 카이사르 주변엔 병사들도 몇 명 없었다.

루카스는 순식간에 검을 빼 들며 말의 배를 발로 찼다.

“성문을 잡아라!”

성문을 열어 주었던 사단장과 병사들은 갑작스럽게 돌변해 달려드는 루카스와 군인들에게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지하기도 전에 사단장의 목이 바닥을 굴렀고, 병사들은 군마에 짓밟혔다.

“적군이다!!”

카이사르는 이를 악물며 검을 고쳐 잡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군마를 피해 몸을 돌리며, 오드가 실린 검으로 군마의 목을 내리쳤다.

허물어지는 군마 위에서 루카스가 재빨리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 검을 겨누었다.

루카스를 따르는 이들이 카이사르 주위를 둘러싼 탓에, 그는 홀로 고립되고 말았다.

“사령관을 죽여라!”

루카스의 명령에 좁은 성문으로 들어온 기사들이 일제히 카이사르에게 검을 겨눴다.

카이사르는 온 사방을 둘러싼 적군 사이에서 신중히 숨을 가다듬었다.

“이야아아!”

뒤에 있던 누군가가 그에게 검을 휘두르자, 카이사르는 빠르게 몸을 틀어 검을 그어 내렸다.

적군의 검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카이사르에게 달려들던 기사의 몸이 허물어졌다.

그의 주위를 둘러싼 기사들은 일대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듯 떼로 달려들었다.

일 대 다수의 비겁한 싸움이었으나,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기사도 따위는 사치였다.

카이사르는 죽음을 직감했다. 냉혹하게 검을 휘두르며 하나씩 죽여 나가고는 있으나, 시야에 보이는 적군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군은 너무 멀리 있고, 적군은 목전이었다.

또 한 사람을 죽여 잠시 시간을 번 그는 재빨리 천으로 검을 손에 동여맸다.

짧은 찰나, 떠오르는 이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실 어머니. 담담한 듯 배웅해 주시던 아버지.

‘멜로디.’

멜로디. 나의 영혼, 나의 전부.

그대를 지키러 온 길이었는데. 내가 그대 앞에서 죽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카이사르의 두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 다시 검을 휘둘렀다.

두셋씩 몰아치는 기사들의 빠른 공격에 카이사르의 몸 곳곳에 긴 상처가 생겨 났다.

제아무리 소드마스터라도 앞, 뒤, 옆에서 동시에 몰아치는 공격을 모두 피할 재간은 없었다.

카이사르가 이를 악물고 한 사람의 배에 검을 박아 넣었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둔 기사가 카이사르의 팔을 와락 움켜쥐었다.

“지, 지옥으로 함께 가, 자.”

죽음을 코앞에 둔 기사가 피를 토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가 카이사르의 팔을 붙잡은 찰나의 순간, 가까이 있던 몇 명의 기사들이 일제히 카이사르에게 검을 내리쳤다.

“죽어라!”

“사령관님!”

적군의 침입을 깨달은 장교들이 서둘러 달려오며 절규하는 소리가 카이사르의 귓가에 들려왔다.

“멜로디! 멜로디!”

이지스가 멜로디에게 다급히 달려온 그때, 2곽 정문에 적군이 나타났다는 믿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왔다.

“멜로디!”

“이지스, 무슨 일이야?!”

멜로디는 아예 투구를 벗어 버렸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녀가 이지스의 어깨를 와락 붙잡자, 이지스는 본 것을 재빨리 말했다.

“카이사르의 죽음이 보였어!”

“…뭐?!”

“그의 죽음이 보였어. 내가 죽음을 보고 나면 당장이야. 어서 그를 찾아, 멜로디!”

이지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멜로디는 온 세상을 멈췄다. 까마득한 대군을 앞에 두고도 흔들림이 없던 멜로디의 심장이 거칠게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 동서남북의 방향조차 잃어버린 아득한 공포 속에서 멜로디는 홀로 방황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어?’

멜로디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카이사르 베델을 당장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간을 멈춘 멜로디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의 뺨을 철썩 때렸다.

“정신 차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멜로디는 카이사르가 있을 만한 곳을 빠르게 생각했다.

시선을 돌려 그가 늘 있던 성루를 확인했으나 그곳엔 없었다. 다른 성루는 나이젤이 지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 2곽 정문에 적군이 있다고 했다. 멜로디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재빨리 2곽 정문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적군에 둘러싸인 그를.

그에게 겨눠진 많은 칼날과 죽음 직전의 그를.

“카이사르!”

멜로디는 계단을 무시하고 수직으로 뛰어내려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온몸의 에너지를 모조리 사용한 듯한 빠르기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오드는 거의 바닥 난 상태였다.

그녀는 너무 오래 전쟁을 치렀고, 그사이 오드를 많이 소진했다. 온몸이 경고를 보내 왔다.

하지만 멜로디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멈추는 순간, 시간이 다시 흐르는 순간 카이사르는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적군의 칼날이 그의 목, 등, 팔, 다리 모든 곳에 겨눠져 있었다.

멜로디는 날듯이 달려가 적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적군의 칼을 빼기 위해 놈들의 손을 붙잡았으나, 멜로디의 악력으로도 시간이 멈춘 그들의 검을 뺄 수는 없었다.

멜로디는 결국 시퍼런 검을 치켜들었다.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4)

카이사르를 옮길 시간도 없을뿐더러, 사방에 겨눠진 칼날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멜로디는 망설임 없이 금기를 행했다.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검을 겨눈 이들의 팔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멈춰진 시간 속, 기이하게 흩어지는 핏방울.

서걱, 그녀가 자른 팔이 시간을 거슬러 툭 하고 떨어지자, 누군가 심장을 발로 짓밟는 듯한 가혹한 통증이 몰아쳤다.

울컥. 비릿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래도 멜로디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적군의 팔을 향해 검을 내리쳤다.

또 한 번의 죄가 더해지자, 이번에는 눈알이 뽑혀 나갈 것만 같았다. 의지와 달리 무언가가 줄줄 흘러내렸다.

멜로디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카이사르에게 겨눠진 마지막 검까지 쳐 냈다.

그리고, 그녀의 마법이 풀렸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카이사르는, 별안간 눈앞에 나타난 누군가의 등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에게 검을 휘둘렀던 오르센의 기사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낭자한 선혈과 멜로디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 그는 숨을 멈추고 멜로디의 몸을 돌려세웠다.

“…….”

그의 얼굴이 차게 식었다.

멜로디는, 그의 멜로디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두 눈과 귀, 코와 입에서 끊임없이 검은 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녀는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카이사르의 손을 뿌리친 멜로디가 검을 들어 올렸다.

“악마다!”

“아, 악마야!”

갑자기 나타난 이는 검붉은 피를 흘리며 야차 같은 모습으로 검을 치켜들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팔이 잘린 오르센의 기사들이 그 앞을 뒹굴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오르센 기사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카이사르의 두 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죽음을 각오했던 기사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올려 그녀를 공격하려는 적에게 검을 휘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멜로디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오르센 기사들은 더욱 거세진 그의 공격에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코르벨라의 지원군이 오르센군을 휩쓸기 시작했다.

다급히 달려온 에르데와 슈테언이 카이사르를 도와 함께 검을 휘둘렀고, 곧 발트와 블라우도 합세했다.

“멜로디!”

간신히 서 있던 멜로디는 메어가 뒤에서 끌어안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메어의 품에 안긴 멜로디의 몸이 덜덜 떨렸다.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입에서 솟구치는 광경에 메어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적에게 검을 휘두르던 카이사르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차게 식어 끊임없이 피를 토하는 멜로디를 부여잡고 덜덜 떨었다.

입술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의 모든 사고가 한순간 아득하게 멀어져 버렸다.

어느 순간에도 냉철하던 사령관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아예 투구를 벗어 버리고 검도 내려놓았다.

“멜로디, 멜로디, 제발… 멜로디.”

떨리는 음성으로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나, 멜로디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온몸이 축 늘어진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빛을 잃었다.

“제발… 제발……. 제발.”

카이사르는 그저 신께 빌고 또 빌었다.

메어는 발을 동동 구르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리아나를 발견하고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다.

날아오는 창과 검을 메어가 막아 내는 사이, 리아나는 무사히 멜로디에게 닿았다.

재빨리 멜로디의 상태를 살핀 리아나가 그녀를 끌어안고 있는 카이사르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금기를 써서 그래요. 신단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빨리 가면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카이사르가 절박한 얼굴로 리아나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살릴 수 있느냔 말입니다!”

리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멜로디에게 급하게 오드를 불어넣었다. 오드를 불어넣자,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오드를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었다.

금기를 행한 자에게는 신단수의 오드가 필요하다.

“메어!”

리아나의 부름에 메어는 제가 할 일을 눈치채고 단번에 불편한 갑옷을 모조리 벗어 버렸다.

리아나가 재빨리 멜로디의 몸에 감긴 갑옷을 벗기는 사이, 아니타가 달려왔다. 아니타는 멜로디의 상태에 흥분해서 연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니타, 네가 우리를 좀 데려가야겠다.”

메어의 말에 아니타가 그녀의 어깨를 콧등으로 밀었다. 빨리 타라는 신호였다.

카이사르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멜로디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니타의 위에 탄 메어에게 그녀를 넘겨주었다. 메어는 떨어지지 않도록 멜로디를 단단히 붙잡았다.

“1곽엔 군대가 너무 많아! 차라리 3곽 방향으로 나가서 아뷔브로 돌아가자! 내가 따라갈게!”

발트가 재빨리 자신의 홀리에 오르며 말하자, 카이사르는 자신의 검을 들어 올렸다.

사방이 아비규환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이사르가 빨리 알아챈 덕분에 정문을 통해 들어온 적군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에르데, 슈테언, 블라우!”

발트가 호명하자, 셋 역시 홀리에 올라 검을 치켜들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볼테르!”

카이사르의 절규와도 같은 부름에, 저 멀리 대기 중이던 볼테르가 달려왔다. 그는 날듯이 볼테르 위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코르벨라 군대가 곳곳에서 적군과 교전 중이었다.

카이사르를 필두로 한 세 일족은 별안간 2곽 정문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르고 거센 공격을 퍼부으며 지나가는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텅 빈 길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메어와 발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네 사람의 뒤를 따랐다.

정문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이들을 온몸으로 막아 냈다.

에르데와 슈테언, 블라우도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공간을 마련했다.

그 틈에 멜로디를 안은 메어와 발트는 정문을 빠져나와 광야를 가로질러 질주하기 시작했다.

멜로디가 등장한 이후, 성곽 안 전투의 어려움을 직감한 루카스 모데라토는 이미 성곽 밖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그는 두 필의 말이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말을 잡아라!”

한 무리의 기마병들이 메어와 발트를 쫓기 시작했다.

그때, 성문 뒤에 있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문을 닫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들의 말에 블라우와 슈테언, 에르데가 말머리를 돌렸다. 그 와중에도 카이사르의 시선은 멀어지는 멜로디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에르데가 그에게 날아드는 검을 쳐 내며 소리쳤다.

“카이사르 베델!”

그 소리에 겨우 시선을 돌린 카이사르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기사의 목을 검으로 벤 뒤, 말머리를 돌려 성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병사들이 서둘러 성문을 닫았다. 성벽 안의 교전은 다행히 소강상태였다.

그때, 지휘를 하던 나이젤이 소식을 듣고 직접 달려왔다.

그는 상처투성이의 카이사르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다가, 다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곧 그의 자색 눈이 황망하게 떨렸다.

없었다.

그의 누이가 없었다.

멜로디는 어디에 있느냐고 누군가라도 붙잡고 다그치려던 나이젤은 카이사르의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코르벨라의 사령관이, 그 어떤 대군을 앞에 두고도 의연하던 사령관이 소리 없이 통곡하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으나 그렇게 보였다.

카이사르는 누군가 건네주는 투구를 받아 천천히 머리에 썼다. 그리고 혼란한 전쟁터를 핏발 선 눈으로 응시했다. 코르벨라의 국기가 위태롭게 펄럭였다.

앞뒤로 적군이 포진해 있고, 물과 식량마저 부족한 최악의 상황.

죽음 목전에서 돌아온 카이사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전군, 위치로! 반드시 2곽을 사수한다!”

짧은 명령을 내린 카이사르는 재빨리 3곽 광야가 보이는 성루로 달려 올라갔다.

메어와 발트를 뒤쫓는 무리들이 지축을 울리며 달리는 것이 보였으나, 감히 홀리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메어와 발트는 그들과 점점 더 거리를 벌리며 아뷔브 산맥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온몸과 마음이 들끓었다.

세상에 태어나 오늘만큼 처절하게 무력했던 적이 있었던가. 오늘만큼 무너졌던 날이 있었던가.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윽고 눈을 뜬 카이사르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코르벨라의 국기를 들고 있던 적군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코르벨라의 국기를 바닥에 처박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3곽엔 코르벨라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배신자가 있었구나.”

발할라를 조심하라고 했다던 말을 떠올린 카이사르는 두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 \* \*

2성 봉화를 지키던 수비대는 두 눈을 깜빡이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지금 저게 몇 개야?”

멍하니 눈을 깜빡이던 병사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훑은 뒤,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봉화의 숫자를 헤아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야?”

마주 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 어쩌냐?”

두 사람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멀리 타오르고 있는 3성 봉화를 몇 번이나 더 확인했다.

“확실히 다섯 개다.”

“…우리 일이 뭐냐. 어떤 소식이든 정확히 알리는 것 아니냐. 보이는 대로 봉화를 태우자.”

“그, 그래.”

이윽고 두 사람은 다섯 개의 봉화에 불을 붙였다.

기름을 먹으며 거세게 타오르는 봉화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던 두 사람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섭정 전하께서 전사하시다니…….”

“전쟁 상황이 어려운 모양이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럼 다음 황제는 누가 되는 거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5)

마틸다 보뱅 코르벨라는 오랜만에 나이젤이 태어나 처음 입었던 옷을 꺼내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아기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정작 나이젤은 이렇게 몇 번 안아 주지도 못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틸다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

첫 아이인 나이젤을 낳고 몸이 좋지 않았던 마틸다를 대신해 젖도 유모가 먹였으며, 잠도 유모가 재웠다. 그녀는 그저 유모 품에 안긴 나이젤을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아기를 안은 듯 가만가만 품에 안은 옷을 쓸어내리자, 목이 멨다.

“폐하.”

직속 시녀가 안쓰러운 시선으로 황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좀 참았어야 했다. 내가, 좀 참았어야 했어.”

“…….”

“나이젤이 내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 애가 나에게 제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마틸다 황후의 눈이 붉어졌다.

“없었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그 말을 무시했어…….”

마틸다의 눈물에 나이젤의 옷이 젖어 들었다.

“마음이 급했어. 내 아들을 못 믿고, 그저 내 마음이 조급하여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황후 폐하.”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무심하고 못난 어미인가.”

시녀는 황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황후 폐하, 섭정 전하께서는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시거든 잘 돌아왔다고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마틸다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물을 닦아 냈다. 그리고 나이젤의 옷을 다시 곱게 개어 담겨 있던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래, 그래야겠다.”

그녀는 시녀가 건네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술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럼에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자, 마틸다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다.

“불편하십니까?”

“이상하구나. 왜 이리… 가슴이 불안하게 술렁이는지 모르겠다.”

“섭정 전하께서 전쟁터에 계시니 불안하신 것이 당연하지요.”

마틸다는 길게 심호흡을 하며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

“제가 의원이라도 불러오겠습니다. 약을 드시면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말한 시녀가 문 밖으로 나가려던 때였다. 다급한 발소리가 소란하게 복도를 울리더니, 누군가 문을 요란하게 두드려 댔다.

마틸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들어와라!”

그녀의 허락에 문이 열리자, 시종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마틸다의 음성이 잘게 떨렸다.

시종은 다급히 들어온 것과 달리, 말을 고르듯 잠시 침묵했다.

그 찰나의 순간조차 못 견디게 불안해, 마틸다는 체통도 잊고 달려와 그의 어깨를 와락 붙잡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느냐!”

시종은 호흡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봉화 다섯 개가 올랐습니다.”

“…….”

마틸다의 움직임이 멎었다. 시종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식으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발아래가, 그녀의 하늘이, 그녀를 둘러싼 온 세상이 무너진 듯했다.

“뭐라고?”

시녀의 황급한 물음에, 시종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같은 말을 내뱉었다.

“봉화 다섯 개가 올랐습니다.”

봉화 다섯 개.

그것은 참전 중인 섭정의 전사를 의미했다.

“화, 황후 폐하!”

시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쓰러지는 마틸다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제발, 어머니. 제발…….”

흐려지는 의식 속, 일그러진 눈동자의 아들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녀의 가슴이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이젤.

나이젤…….

“빨리 의원을 불러라, 어서!”

마틸다는 그 소리를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

\* \* \*

섭정의 전사 소식에 코르벨라 황궁이 발칵 뒤집혔다.

황궁의 총괄 관리 업무를 임시로 위임받은 베델 공작은 냉철한 얼굴로 궁을 단속하며, 뒤이어 올 전령의 소식을 기다렸다.

섭정이 전사했다면 봉화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의 문서가 전령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모두가 전령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 로쉐 황후에게도 은밀한 소식 한 통이 전달되었다.

그것은 아들 데이모스의 전언이었다.

로쉐는 데이모스가 보낸 편지를 차분하게 읽은 뒤 숨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데이모스의 편지를 불에 태워 없앤 로쉐가 시녀를 불러 명했다.

“지금 당장 발할라 후작을 데려와라. 내가 꼭 보잔다고 전해. 그리고 발할라 후작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제인 베일라를 불러들여라. 잠드는 약도 함께 준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잠드는 약은 제인 베일라의 차에 타야 한다.”

“네, 폐하.”

로쉐는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순서를 헤아리다 문득 웃음을 터트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얼마나 홀로 웃었을까?

마침 궁 안에서 일을 보고 있던 발할라 후작이 그녀의 부름에 곧장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황후 폐하.”

조금 전까지 미친 사람처럼 웃던 로쉐는 어느새 불안하고 다급한 가면을 뒤집어쓰고 그를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오라버니!”

“황후 폐하, 무슨 일입니까?”

로쉐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직접 문단속을 했다. 닫힌 창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방의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근 뒤에야 발할라 후작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데이모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

발할라 후작의 움직임이 멎었다. 로쉐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로쉐 발할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후작의 반응을 살피면서, 불안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카이사르 베델과 멜로디 황녀 모두 전사했답니다. 1곽부터 3곽까지는 모두 점령당했고, 데이모스… 우리 데이모스만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황자님께서는 무사하다 하십니까?”

“그럼요. 데이모스는 물론 무사합니다.”

“그럼 황궁으로 달려오시거나 지원군을 요청하셔야지, 어찌하여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 말에 로쉐는 속으로 웃으며 은근하게 속삭였다.

“데이모스가, 꼭 외숙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숙을 뵙고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더군요.”

로쉐가 조금 더 후작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솔 악센과의 일’에 대해 외숙과 논의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에 발할라 후작의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멀어지는 황후의 얼굴을 냉혹한 표정으로 응시했다.

발할라 남매 사이에 날카로운 시선이 오갔다. 차갑고 어두운 침묵 속에서 후작의 입술이 서서히 곡선을 그렸다.

“그렇군요. 그럼 만나 뵈어야지요. 데이모스 황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발할라 남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 \* \*

섭정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또 다른 끔찍한 소식이 코르벨라의 수도에 전달되었다.

참전했던 사령관 카이사르 베델과 독립8군단장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전사 소식과 더불어 제록스 3곽이 모조리 점령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섭정 나이젤이 죽고, 다음 서열인 데이모스의 부고까지 전해졌으니, 자동승계법에 따라 카이산 코르벨라가 임시 섭정이 되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 같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카이산은 서관 자격으로 자신을 찾아온 아들러를 차분한 얼굴로 맞이했다.

섭정 카이산은 나이젤이 앉아 집무를 보던 집무실 책상을 천천히 쓸어 보았다.

가슴이 들끓었다. 저 아래에서 벅찬 것이 끓어올라 카이산은 두 눈을 꾹 눌러 감았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으나, 그에겐 외숙이 있었다.

이윽고 마음을 가라앉힌 카이산은 목을 가다듬은 뒤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을 선포한다. 빠른 결정을 위해 중신 회의를 잠정 중단하고,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아래로 이관한다. 군 통솔권자는 섭정 카이산 코르벨라이며, 임시 행정대신에 그렌트 발할라 후작을 임명한다.”

아들러는 그의 말을 받아 적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멈칫했다.

“임시 행정대신에 그렌트 발할라 후작을 임명할 생각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현재 행정직 총괄은 헨베스트 베델 공작이 맡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이를 임명하시면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헨베스트 베델 공작을 제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

아들러의 날카로운 질문에, 카이산은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죽지 않았나. 그의 정신이 온전할 것이라 나는 믿을 수 없을뿐더러, 공저를 수습해야 하는 이를 황궁에만 붙잡아 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

“내가 말한 대로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아들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또한 오르센이 제록스 국경 3곽 이남으로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군은 현 위치를 유지한다. 각 군단은 각 군성에 머물며 수비에 초점을 맞춘다.”

“…제록스 3곽을 탈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섭정 전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신 수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여력이 없네. 탈환은 군을 재정비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

아들러와 카이산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교차했다.

아들러는 카이산 코르벨라의 눈 깊은 곳에서 어둡게 꿈틀거리는 광기를 읽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광기가 폭발하듯 튀어나온다면, 카이산 코르벨라의 광기는 수면 아래에서 넘실거렸다.

카이산도 눈앞의 아들러가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관이란 직책만 아니라면 당장 파면하고 싶으나, 그의 환심을 사 두어야 한다는 외숙의 당부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

“어서 적게, 아들러.”

아들러는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가, 이내 펜에 잉크를 묻혔다.

그의 직책은 서관. 황제의 인장을 관리하는 자임과 동시에 황제의 신변을 관리하는 자지만, 황제의 의견에 반대할 권한은 없었다.

그는 통탄하는 심정으로 카이산의 명령을 정리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6)

베델 공가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통곡 소리를 내지 못했다.

베델 공작과 공부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노라 선언했기 때문이다.

늦은 저녁, 아들러는 비밀리에 공작을 찾아와 제명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연달아 전해진 비보에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아들러는 그저 눈짓으로만 작은 위로를 전한 뒤 돌아갔다.

공작은 그 이야기를 이안에게 모두 전했다.

“5군단과 6군단이 그대로 포진하고 있는데 지원 요청도 하지 않고 점령을 당했다? 카이사르가 일을 그렇게 했을 리 없소. 심지어 4군단의 일부 병력이 블라디미르 국경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할 거요.”

이안은 그의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작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필사적으로 눈물을 누르고 있던 이안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울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이안은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집어넣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집안은 제가 단속하겠습니다. 카이사르와 멜로디는… 당신 말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갈 아이들이 아녜요. 저는 믿습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녀는 그리 믿고 버틸 것이다.

입을 고집스럽게 다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는 이안을, 공작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리저리 바쁘게 집안을 단속하던 이안은 잠시 짬이 나자,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걷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별관 테라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테라스 식탁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선했다. 새파란 눈을 길게 휘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건네던 쾌활한 그녀가 떠올랐다.

그 뒤로 무뚝뚝한 얼굴의 아들이 들어오는 게 참 보기가 좋았다.

사이 좋은 부부 주위로 햇살이 동동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치솟자, 이안은 서둘러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다.

안 된다.

안 돼.

울 수 없어.

울면 이 무참한 소식이 사실이 되어 버릴까 두려워, 이안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 냈다. 거칠게 얼굴을 문지른 이안은 속에서 치미는 뜨거운 것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앉았던 의자를 조심스럽게 쓸면서 간절히 소망했다.

“어서 돌아오세요, 멜로디. 어서 돌아와라, 카이사르. 어서.”

\* \* \*

데이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은데, 반대로 머리는 텅 비어 버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공문 한 장조차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데이지는 결국 오늘 처음으로 휴가를 썼다.

점심도 굶은 채 하염없이 걷고 걸어 멜로디 궁의 뒤뜰에 도착한 데이지는 한참이나 뜰을 바라보았다.

멜로디의 궁 뒤뜰엔 아직도 철제 의자 세 개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데이지는 철제 의자에 앉아 멍하니 뜰을 바라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던 그녀의 세상이 일렁이더니 눈물이 툭툭, 턱을 타고 떨어졌다.

“멜로디…….”

데이지는 젖은 목소리로 그녀의 자매를 불렀다.

“야, 멜로디.”

공허한 부름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데이지는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주 고약한 거짓말을 들은 기분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한참 멍하니 앉아 막연히 거짓말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리던 데이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정지했던 사고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 생각해라. 데이지 코르벨라. 이 이상한 기분이 무엇인지.’

이 묘한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던 데이지가 뭔가를 깨달은 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데이모스 오라버니도 죽었다는데 어머니는……!”

데이지의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마틸다 황후는 섭정의 전사 소식을 듣고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했다.

어머니, 로쉐 황후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데이지가 본 어머니는 어딘가 날이 선 모습이었지,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다.

데이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생각했다.

그녀의 금빛 눈동자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데이지는 빠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5군단이 지원을 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

지원도 받지 않고 모두가 3곽 이북에서 소리도 없이 죽었다?

게다가 데이모스의 전사 소식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어머니라니.

그녀는 차분하게 경우의 수를 헤아렸다.

카이산과 발할라 후작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아느냐 묻던 어머니의 말이 별안간 뇌리에 꽂혔다.

데이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자리를 서성이며 이 상황에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한 사람을 떠올렸다.

아들러는 데이지 코르벨라의 독대 요청에 내심 당황했으나 곧바로 응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황녀님.”

데이지는 시종장 아들러를 빤히 쳐다보았다. 형형할 정도로 강렬한 시선에 아들러는 황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데이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말씀을 베델 공께 드려야 하나, 아니면 시종장께 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무슨…….”

“한데 베델 공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에 대해 감정이 섞이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 시종장께 온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에 아들러는 침묵하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데이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고가 이상합니다.”

“부고가 이상하다니요?”

“나이젤 섭정 전하께 지원 요청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병력이 더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그곳에서 외롭게 싸우다 죽었다는 것이 시종장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

“나는 가능성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만일 모두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원 요청을 못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둘째, 만일 그곳에서 모두가 죽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전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전령이 반드시 진실되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나요?”

데이지는 무척 냉정하고 차분했다.

아들러는 문득, 인장을 보관할 자신이 없으면 데이지에게 맡기라던 황제의 말이 떠올랐다.

“예, 황녀님.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둘째, 만일 그곳에서 모두가 죽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역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아직 모두가 살아 있거나, 혹은 누군가만 살아남았거나.”

데이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전자라면 이런 짓을 꾸민 자는 부고를 먼저 보내고 내부가 혼란해진 틈을 타 부고를 사실로 만들려 할 거예요. 후자라면 이미 목적한 바를 이루었으니 혼란한 상황에 득세를 하려 들겠지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제게 말씀하시는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한 가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르벨라 내부에 적이 숨어 있다. 그 적은 전령 체계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이 혼란을 틈타 득세를 노리는 사람이다.”

데이지 코르벨라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데이모스 코르벨라는 살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있다면 나는… 아직 다른 이들도 죽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만일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원군이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데이모스 황자님께서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라.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로쉐 황후께서 조금도 울지 않으셨어요.”

“…….”

“시종장, 나는 전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전령이 가져온 소식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부고 역시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녀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저를 택하셨습니까?”

그 물음에 데이지는 차분히 눈을 깜빡이더니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코르벨라의 배신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황제께서 승하하셔야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폐하의 죽음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져 보았을 때 시종장, 당신이 가장 적합하거든요.”

아들러의 눈이 조금 커졌다.

“다행히 폐하께서는 아직 무사히 살아 계시고, 그것은 그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일이죠. 따라서 나는 시종장이 배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아들러는 데이지의 냉철한 판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미간을 문지르다가 그녀에게 말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미 대부분 베델 공과 이야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그러나 로쉐 황후 폐하의 일은 저희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신가요?”

“현재 코르벨라는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군 통솔권이 카이산 황자님께 있지요. 황자님은 5군단의 진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이지는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

“혹 오르센군이 남하할지도 모르니 요새인 5군성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함구하겠습니다.”

데이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 역시 완벽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 확신할 수 없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뭔가 내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들러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예. 감사합니다, 황녀님.”

\* \* \*

그렌트 발할라는 으슥한 밤 카이산을 찾아왔다.

“외숙!”

자리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던 카이산이 반색하며 달려왔다.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말씀드린 일은 잘 처리하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모든 군은 각 군성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놈들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예, 예.”

그렌트는 순종적인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카이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곧 폐하가 되실 겁니다.”

“다 외숙 덕입니다.”

“별말씀을요.”

발할라 후작이 은밀하게 몸을 기울이자, 덩달아 카이산도 그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데이모스가 살아 있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제록스 국경 지대를 벗어났다 하더군요.”

예상치 못했던 데이모스란 이름에 카이산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발할라 후작은 그를 진정시켰다.

“걱정 마세요, 전하.”

“어찌합니까, 외숙. 어찌하면 좋습니까? 혀, 형님이… 그, 그가 돌아오면…….”

“전하.”

그렌트가 다정하게 자신을 부르자, 카이산은 절박한 얼굴로 후작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외숙, 외숙. 꼭, 반드시, 꼭…….”

“걱정 마십시오.”

발할라 후작은 안심하라는 듯 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준 뒤에 몸을 돌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7)

으슥하게 어두운 여름밤.

그렌트 발할라는 정예 중의 정예들을 이끌고 데이모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별장을 향해 말을 달렸다.

꼬박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발할라 가문의 여름 별장은 이미 문이 열려 있었다. 이 별장은 선대 후작이 가장 아끼던 곳이었다.

후작이 그의 뒤를 따라온 열 명의 정예들에게 신호하자, 그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발할라 후작은 쓰고 온 망토를 벗어 여유롭게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깊은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부드럽게 열리는 정문을 지나 별장의 내부로 들어서자, 2층 응접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후작이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날카로운 쇠붙이의 마찰음이 들려왔다.

“역시.”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날카로운 소음 속에서도, 그렌트 발할라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만큼 데리고 온 정예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후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정리한 뒤,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

문을 열고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선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이 어렸다.

그렌트 발할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이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의 누이이자 코르벨라의 황후인 로쉐 발할라 코르벨라였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제 오라비를 반겼다.

“어서 오세요, 오라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가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렌트 발할라는 그런 누이를 싸늘하고 냉정한 얼굴로 노려보았다. 그의 주위로 정예들이 다가왔다.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쉐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 혹시 데이모스를 기다리십니까?”

“…….”

“없어요, 그 애.”

나긋한 목소리였으나, 발할라 후작은 어쩐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로쉐는 후작이 데려온 정예들에게 명령했다.

“내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마. 저자, 코르벨라의 반역자를 지금 죽여라.”

“…….”

방 안을 에워싸듯 서 있는 정예들 사이에서도 로쉐 발할라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되레 정예들이 당황했다.

로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예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뭣 하느냐? 나는 코르벨라의 황후, 로쉐 발할라 코르벨라다. 저자, 그렌트 발할라는 오르센과 내통하여 국가를 혼란에 이르게 했으니 반역자니라. 지금 당장 죽여라. 너희가 저자를 죽인다면, 너희는 반역의 죄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정예들은 당황하며 그렌트 발할라를 쳐다보았다.

그는 보기 드물게 화가 난 얼굴로 두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아, 오라버니. 그래도 누이라고 저를 죽이란 명령은 못 하시겠습니까?”

“…로쉐.”

“아니지, 그래서가 아니지. 내가 궁에 무슨 말을 전해 놓고 왔을지 모르니 그것이 두려운 것이겠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절 죽이면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오라버니는 황후 시해범이 되어 북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절구절 절절한 편지를 써 놓고 왔거든요.”

나긋하게 속삭이는 말에 그렌트 발할라가 버럭 화를 냈다.

“로쉐 발할라! 데이모스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데이모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왜? 알면 가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서 어디에 처박아 두려고?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데이모스가 황제가 되면 너라고 무사할 것 같으냐?!”

“닥쳐!”

그렌트 발할라는 로쉐 발할라를 노려보다가 정예들에게 명령했다.

“죽여라.”

“예?”

정예들이 놀라 되묻자, 그렌트 발할라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당장 로쉐 발할라를 죽이란 말이 들리지 않느냐! 못 하겠다면 내가 하마!”

그렌트 발할라는 제 혈육을 증오스러운 눈으로 노려보며 검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로쉐도 지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실소했다.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 알아?”

로쉐는 그렌트 발할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침대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작정이었다.

마치 선물 상자를 여는 아이처럼, 로쉐는 침대에 덮혀 있던 이불을 슬그머니 끌어내렸다.

자, 어서 보여 줘.

자, 어서 네 얼굴을 보여 줘.

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

그렌트 발할라의 시선이 침대에 누운 여자에게 닿자, 로쉐 발할라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트렸다.

그의 참혹해지는 얼굴을 보자 가슴이 술렁이고 들끓어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왜?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

“모른다며? 누군지 모른다며? 응? 그렌트?”

로쉐는 깔깔거리며 그렌트를 조롱했다.

“너!”

그렌트가 포효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자, 로쉐는 번개처럼 빠르게 단도를 꺼내 제인 베일라의 목덜미를 겨눴다.

“더 가까이 와 봐.”

“제인!”

그렌트가 시뻘게진 눈으로 죽은 듯 누워 있는 제인 베일라를 불렀다.

“제인!”

그의 거센 외침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게 내 눈앞에 소중한 것을 들이밀지 말았어야지. 약점을 먼저 내보인 건 너야. 날 무시한 것은 너라고. 내가 제인 베일라와 너의 관계를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

“그 검, 치워.”

“아니, 잘 봐. 네가 나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로쉐는 죽은 듯 누워 있는 제인의 심장에 있는 힘껏 검을 박아 넣었다.

“안 돼!!”

그렌트는 광인처럼 광분하며 재빨리 제인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제인의 가슴에 꽂혀 있는 검을 차마 뽑을 수가 없었다. 제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울컥울컥 쏟아졌다.

“제인, 제인, 제인!”

그렌트가 애달픈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대며 머리를 끌어안자, 로쉐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그렌트가 서 있던 곳으로 몸을 피했다.

“로쉐!”

분노한 그렌트가 포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여 버리겠다!”

피를 나눈 남매는 세상 무엇보다도 증오하는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았다.

격노한 그렌트 앞에서 로쉐는 입술을 씰룩이며 말했다.

“아버지 말씀 기억나?”

“…….”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사랑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모두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세상 유일하게 믿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다.”

로쉐가 싱긋 웃었다.

“정말 맞는 말이야. 내가 여기 올 때, 제인 베일라와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아?”

로쉐는 가까이 있던 상자를 별안간 발로 쾅 차서 열었다.

뚜껑이 열린 상자 속에는 수많은 금화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그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본 그렌트 발할라의 정예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잘 봐. 사랑을 좇던 자가 돈에 어떻게 지는지.”

로쉐의 의도를 알아챈 그렌트가 다급히 정예들을 향해 소리쳤다.

“기다려라!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를 키운 것은 나다!”

로쉐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렌트 발할라를 죽여라! 그를 죽인다면 이 금화는 모두 너희의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평생의 부를 약속하겠다!”

“거짓말이다! 로쉐 발할라의 말을 믿지 말아라! 로쉐 발할라를 여기에서 죽이고 돌아가면 저따위 것보다 훨씬 많은 금화를 주마! 나는 발할라의 주인이다!”

“여기에서 그렌트 발할라가 죽으면, 발할라의 주인은 나다! 그렌트 발할라가 황후를 시해한 너희를 그대로 둘 것 같으냐? 내가 죽고 나면 다음은 너희 차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여 입을 막는 것이니. 너희도 그 동안 보아 왔으니 잘 알고 있을 터!”

“아니다!”

당황한 그렌트 발할라는 다급하게 부정하며 정예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점점 매서워지자 절망했다.

“아니다, 아니야.”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리는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여유롭게 등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로쉐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예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죽여라.”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황후 폐하.”

“걱정 마라. 잊지 않으마.”

“안 돼!”

그렌트 발할라가 악에 받쳐 포효했으나, 정예들은 이미 계산을 끝낸 뒤였다.

그들은 바람 같은 움직임으로 그렌트 발할라에게 달려들었고, 일격에 그의 심장에 검을 박아 넣었다.

“커, 컥…….”

박동하는 심장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자, 로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로쉐를 노려보았다.

그의 심장에서 쏟아진 붉은 피가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이루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붉음에 로쉐는 한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다.

“너, 너도… 지옥으로 갈 거…다…….”

마지막 말까지 저주라니.

로쉐는 물끄러미 그렌트 발할라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를 무시했던 너.

나를 무시했던 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세요? 결국 누가 이겼는지?

이윽고 그의 거친 숨이 멎자, 로쉐는 입술 끝을 끌어올려 웃었다.

“나의 승리다.”

나를 무시한 너와 아버지, 당신의 패배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던 곳에서, 당신이 가장 인정했던 자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정예들에게 일렀다.

“금화를 챙기고 이 별장에 불을 질러라.”

로쉐는 몸을 돌리기 전 침대에 누운 제인 베일라와 후작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희에게 어울리는 마지막이구나. 지옥에서 만나거라.”

그녀는 피 냄새 때문에 어지러운 머리를 손으로 꾹꾹 누르며 그곳을 벗어났다.

로쉐는 별장을 벗어나 시원한 여름 바람을 크게 들이마셨다.

어둠에 잠겼던 별장이 곧 벌겋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로쉐는 품에서 금화 하나를 꺼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네가 그리도 아끼던 것이니 가져가라.”

\* \* \*

이른 새벽 5군성, 마츠 마이어는 멀리 제록스 3곽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의 문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5군성을 지키라는 섭정 카이산 발신의 명령서였고, 나머지 하나는 은밀히 3곽 이북을 확인하라는 베델 공작의 편지였다.

수도에 전해졌던 비보는 마찬가지로 5군성의 마츠 마이어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때, 그가 기다리고 있던 이가 나타났다.

“군단장님!”

“그래. 확인했느냐?”

“예,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5군성 봉화는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3곽에서 전해진 소식이 5군성 봉화를 거치지 않고 곧장 4군성에서 타올랐다?”

마츠 마이어는 실소하며 곧장 몸을 돌렸다. 그리고 투구를 쓰며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은밀히 제록스 3곽으로 진군한다. 우리의 진군 소식을 수도에 알리지 않는다. 너는 지금 당장 정예군을 보내 4군성 봉화 수비대 전원을 체포하라.”

“하지만 군단장님,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이 일이 수도에 전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자칫…….”

“내가 책임지겠다.”

마츠 마이어가 말한 책임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비상 상황에 군 통솔권자인 섭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니, 마츠 마이어는 군단장의 직함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고 처형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것을 모를 마츠 마이어가 아님에도 그는 단호했고, 부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존명!”

그날 아침, 5군성의 대군이 은밀하게 북진하기 시작했다.

\* \* \*

그 시각, 메어는 필사적으로 멜로디를 붙잡고 산을 달리고 있었다.

아니타가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멜로디와 함께 낙마하지 않기 위해, 메어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갈기를 세게 붙잡았다.

갈기를 세게 움켜쥐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아니타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에 화를 내지 않았다.

메어는 자꾸만 숨이 미약해지는 멜로디를 안타깝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멜로디, 조금만 힘내. 다 왔어. 제발… 멜로디. 조금만, 조금만 힘을 내.”

짙은 숲, 금기를 깬 멜로디를 안고 달리는 메어는 간절히 신에게 빌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발, 제발요.’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8)

한편, 참전을 결정한 일족은 빠르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 아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제럴드는 전쟁 준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다.

참전할 인원이 금방 정해졌고, 흩어진 마을에서 전사들이 일제히 공통 마을로 모여들었다.

생각보다도 많은 인원이 모였다. 단일 전사들의 합이 거의 오백 명에 이르니, 일족 입장에서는 이만한 대군이 없었다.

클레어도 상비약과 기타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참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산 너머로 백야의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내일 해가 뜨면 출발할 것이니 오늘 밤엔 푹 쉬어라!”

제럴드의 말에 전사들이 흩어졌다. 제럴드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클레어는 잠시 입술을 말아 물었다가 조용하게 속삭였다.

“제럴드.”

두 사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클레어의 속삭임은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보다도 작았다.

그럼에도 제럴드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그랬다.

클레어, 그녀의 부름에 제럴드는 단 한 번도 허투루 답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과 귀는 늘 그녀에게 닿아 있었고, 그녀의 작은 반응에도 그는 늘 크게 화답했다.

클레어는 생각해 보았다.

그녀 인생의 한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던 제럴드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그 자리를 과연 메울 수 있을까.

그녀 인생의 한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던 제럴드는, 그녀에게 그저 당연한 사람일 뿐일까?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답니다.”

그것은 자신이 멜로디에게 해 준 말이었다.

클레어의 가슴이 거칠게 뛰었다. 내일 해가 뜨면 제럴드는 전쟁터로 달려갈 것이다. 그곳은 사선이니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밤, 백야의 희미한 어둠을 틈타 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클레어는 천천히 걷다가 불현듯 마음이 급해져 달리기 시작했다.

제럴드는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클레어의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어 어쩔 줄을 몰랐다.

“클레어?”

대체 무슨 일일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가까이 다가온 클레어가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다정한 웃음에 제럴드는 아득해져 버렸다. 그는 늘 클레어의 뒤를 좇았다.

그의 눈과 귀는 늘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한 가지 색이 아니었다.

“클레어.”

꽉 잠긴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자, 클레어는 입술을 말아 물었다.

붉어진 눈가가 잘게 떨리고 긴 속눈썹이 나비 날개처럼 나붓하게 움직이자, 제럴드는 뜨거운 것이 배 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것만 같았다.

클레어는 가슴속에 담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쓸어 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에 닿자, 제럴드는 숨을 멈추었다.

천천히 제럴드의 뺨을 쓰다듬던 클레어가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잡아끌자, 남자는 속절없이 끌려갔다.

클레어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에 발아래가 이지러지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몰아쳤다.

제럴드는 감히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치 첫 입맞춤을 하는 소년 같은 모습이었다.

이윽고 입술을 뗀 클레어가 그런 그의 얼굴을 찬찬히 쓸며 말했다.

“반드시 돌아와. 다치지 말고.”

백야, 그 환한 밤 아래 제럴드의 모든 영혼이 송두리째 타올랐다. 그는 참지 못하고 클레어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다급히 입을 맞췄다.

얼마나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인지 너는 모를 것이다.

얼마나 하염없이 네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는지도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다.

그 미련하고 지독한 집착을 몰라도 상관없어.

제럴드는 아득해지는 정신의 끝을 붙잡고, 클레어의 몸을 끌어안았다.

간신히 클레어가 고개를 뒤로 물리고서야, 제럴드는 그녀의 몸을 놓아 주었다. 붉어진 눈가와 입술이 한없이 선정적이었다.

가뿐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때였다.

때아닌 다급한 말발굽 소리에 열기에 들떴던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차갑게 식었다.

“클레어!!”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클레어!! 로잘린!! 엘레나!!”

클레어와 로잘린, 그리고 엘레나.

세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에 클레어는 어깨를 움찔, 떨었다. 그 셋을 이렇게 다급히 찾는다는 것은 필히 누군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었다.

싸늘하게 식은 불안이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내달렸다. 클레어가 몸을 돌려 달리자, 제럴드도 그녀의 뒤를 따라 함께 달렸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졌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고원 평야를 가로질러 두 필의 말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클레어!!”

아니타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메어였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누군가가 늘어지듯 안겨 있었다.

아니타의 갈기에 가려졌던 얼굴이 문득 드러났다.

클레어의 심장이 저 높은 하늘에서 바닥으로 삽시간에 쿵, 추락했다.

“멜로디!!”

클레어가 절규했다.

제럴드는 메어에게서 멜로디를 건네받았다. 그는 축 늘어져 이리저리 흔들리는 멜로디를 살피며 필사적으로 신단수를 향해 달렸다.

클레어 역시 이를 악물고 제럴드의 뒤를 따라 달렸다.

멜로디의 두 눈과 귀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로잘린!”

제럴드의 부름에 로잘린이 서둘러 달려 나와 그의 옆을 따라 달렸다.

우람한 신단수 아래에 도착한 제럴드는 로잘린의 안내에 따라 멜로디를 신단수 뿌리 위에 눕혔다.

온몸이 축 늘어진 멜로디는 간헐적으로 떨다가 울컥 피를 토했다.

그 모습에 클레어는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클레어는 그녀의 심장에 손을 얹고 오드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로잘린은 신단수 뿌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의 오드를 내보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신의 힘을 빌어 신의 피조물을 상하게 한 죄를 부디 용서하소서.

로잘린은 간절하게 빌며 신의 나무에 힘을 밀어 넣었다. 신관의 오드에 반응한 오래된 나무가 천천히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한여름, 새파랗게 우거진 수천 수만 장의 잎이 일제히 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윽고 완전히 금빛으로 신단수가 물들자, 로잘린과 일족들은 신단수에서 일제히 멀어졌다.

금빛으로 물든 신단수가 쓰러진 멜로디를 품기 시작했다. 뿌리를 타고 흐르는 신단수의 오드가 멜로디의 심장을 감싸자, 멜로디의 온몸이 순간 금빛에 휩싸였다.

“…생명을 해친 것은 아니야?”

멜로디에게로 옮겨지는 신단수의 오드를 살피던 로잘린이 메어와 발트에게 묻자, 메어가 대답했다.

“상해를 입혔어. 죽인 것은 아니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정말.”

“어때, 로잘린?”

클레어의 절박한 질문에 로잘린이 대답했다.

“신단수 오드를 쏟아부었고, 생명을 해친 것은 아니니 내일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날 거야. 죗값은 수명으로 치렀으니까.”

“…수명이… 얼마나 깎였는데?”

“알잖아, 클레어.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클레어의 눈이 붉게 물들더니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축 늘어져 힘없이 흔들리던 멜로디가 떠오르자, 누군가 가슴을 짓밟는 것만 같았다.

제럴드는 죗값을 수명으로 치렀다는 말에 가슴이 턱 막혔다.

“멜로디가 왜 금기를 쓴 거야?”

제럴드의 질문에 발트가 대답했다.

“이지스가 카이사르 베델의 죽음을 보았고, 멜로디가 금기를 써서 그것을 막았어.”

“상황이 좋지 않아?”

발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간신히 빠져나왔어. 지금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거야. 코르벨라군은 현재 2곽에 고립된 상태이고, 1곽쪽엔 오르센 본대가 포진하고 있어. 3곽으로 오르센군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오르센군의 공격을 받고 있어.”

제럴드는 심각한 얼굴로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샛노랗게 타오르던 신단수의 오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금빛에 휩싸였던 멜로디의 몸이 보이기 시작하자, 로잘린이 가까이 다가갔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신단수의 금빛 오드가 허공으로 흩날리자, 이윽고 나무는 본래의 색을 되찾았다.

거대한 뿌리에 감기듯 누워 있던 멜로디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얼굴 색과 숨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져 있었다.

엘레나와 클레어, 그리고 제럴드가 서둘러 다가왔다. 클레어는 기다렸다는 듯 오드를 멜로디에게 쏟아부었다. 텅 빈 바다에 물을 붓듯 그녀의 오드가 쏟아지자, 엘레나가 클레어를 제지했다.

“이제 내 차례다, 클레어.”

탈진할 것같이 숨을 몰아쉬는 클레어를 제럴드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런 일을 또 시키다니, 너무한 것 아니니. 멜로디.”

엘레나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간 친구가 떠올라 가슴이 쓰렸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 멜로디의 심장에 오드를 쏟아부었다.

신단수의 오드와 두 녹색 일족의 오드가 동시에 몸으로 스며들자, 멜로디의 육체는 서서히 힘을 되찾았다.

지친 얼굴로 멜로디의 상태를 확인한 로잘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일단은 괜찮을 거야.”

제럴드가 앞으로 걸어 나와 멜로디의 몸을 들어 올리자, 메어가 말했다.

“멜로디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달려갈 거다. 그런 상황이었어.”

그녀의 말에 제럴드가 단호하게 답했다.

“이번엔 나도 함께 갈 거다. 메어, 발트. 수고 많았어. 너희도 어서 쉬어라.”

“수고 많았다니? 멜로디 따라 또 갈 건데?”

“당연한 거 아냐? 너, 우리 두고 가기만 해라?”

“알았다. 알았으니 너희도 어서 가서 쉬어.”

제럴드는 멜로디를 클레어의 침대에 눕혀 준 뒤에 돌아갔고, 클레어는 침대가에 앉아 물끄러미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조금 더 야위고,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몸 곳곳에 났던 생채기도 모두 치유가 되어 말끔하건만 왜인지 아파 보여서, 클레어는 좀처럼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멜로디.”

“…….”

“멜로디.”

“…….”

단어가 영혼을 품으니 그것은 마법이라.

클레어는 멜로디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깎인 수명만큼 내 수명을 나눠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야윈 뺨을 어루만졌다.

“네가 상처를 입으면, 그 고통이 차라리 내게 왔으면 좋겠어.”

전쟁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평온한 뜰에서 햇살 받으며 그리 살라고, 너는 네 이름처럼 한 자락의 노래처럼 살라고.

한편으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전한 적 없는 클레어의 마음속 생각이었다.

부모도, 자식도, 연인도, 친구도 그 누구도 서로의 길을 대신 걸어 줄 수 없기에, 길을 정하는 것은 그 길을 직접 걸을 당사자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멜로디가 스스로 정한 길이 이것이라면, 비록 그 길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다 한들 클레어는 멜로디의 길을 인정하고 지켜볼 것이다.

클레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니까.

클레어는 잠든 멜로디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낡았지만 잘 관리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시퍼렇게 날이 선 검 한 자루가 천에 싸여 있었다.

그것은 지브릴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검이었다. 그녀의 사후, 클레어는 지브릴의 유품으로 그것을 보관해 오고 있었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검을 꺼내 상한 곳은 없는지 찬찬히 살피다가, 대답 없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지브릴.”

‘그래, 클레어.’

“저렇게 누워 있는데 꼭 너 같아서… 네가 그립고, 가슴이 아프다.”

‘미안해. 고맙다.’

“보고 있니?”

‘…….’

“보고 있으면, 지브릴.”

‘…….’

“제발 멜로디를 좀 지켜 줘.”

클레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까지, 양육자가 가져야 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말이야. 나는 어쩌면 그날 네 부탁을 거절했을지도 몰라.”

클레어는 검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니까 제발, 지브릴. 제발……. 멜로디를 좀 지켜 줘.”

까맣게 마른 얼굴로 죽어 가던 친우가 떠오르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파 왔다. 클레어는 숨죽여 오열했다.

제럴드도, 멜로디도 전쟁터로 향할 것이다. 이 약한 육신은 검 하나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슴을 태우는 것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차라리 함께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클레어는 자조하며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녀는 결국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09)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죽은 듯이 잠을 자던 멜로디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파란색 위에 녹색과 금빛이 어른거리는 신비로운 눈동자가 드러났다.

신비로운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클레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며 다정하게 웃었다.

“안녕, 멜로디?”

“…클레어?”

클레어의 다정한 웃음을 보자 멜로디는 왜인지 눈물이 차올랐다.

“클레어…….”

울며 몸을 일으키는 멜로디를 클레어는 다정하게 꽉 안아 주었다.

그녀가 등을 토닥이자, 멜로디는 클레어의 등을 마주 끌어안으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고생했어, 고생했다. 멜로디.”

익숙하고도 그리웠던 냄새에 멜로디는 얼굴을 묻었다가 이내 번뜩 몸을 일으켰다.

“클레어, 얼마나, 얼마나 지났어요?”

“어제 왔어. 메어와 발트가 데려왔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가 봐야 해요.”

다급하게 몸을 일으키는 멜로디에게 클레어는 서둘러 긴 검을 내주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멜로디가 검을 받아 들자, 클레어가 말했다.

“검도 없이 메어에게 안겨 돌아왔어. 당장 쓸 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지브릴이 사용하던 검이란다.”

어머니의 이름에 멜로디가 검을 찬찬히 살폈다. 투박한 검이나, 어쩐지 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와 닮은 것도 같아서 멜로디는 입술 끝을 올려 웃었다.

“고마워. 고마워요, 클레어.”

그때,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클레어가 서둘러 나가 문을 열자, 멜로디도 재빨리 따라 나왔다.

제럴드는 클레어 뒤로 따라 나오는 멜로디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멜로디.”

“외숙!”

녹색과 금빛이 어른거리는 파란 눈이 길게 휘자, 제럴드는 멜로디를 꼭 끌어안았다. 멜로디가 건강하게 숨 쉬는 것을 확인한 그는 멜로디를 놓아 주며 물었다.

“갈 수 있겠니?”

“한시가 급해요.”

단호하게 이어지는 말에 제럴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가자니요?”

멜로디는 그제야 제럴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래위로 살펴보았다.

날렵한 옷을 입고 몸 곳곳을 체인 갑옷으로 보호한 그의 모습은 마치 출전하는 전사 같았다.

“외숙?”

의문 섞인 부름에도 제럴드는 그저 싱긋 웃을 뿐이었다.

제럴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던 클레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 모습에 멜로디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제럴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클레어가 깜짝 놀라 제럴드를 밀어내자, 그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건강히 돌아올 테니 걱정 마, 클레어.”

“…조심히 다녀와, 제럴드.”

나직한 말에 제럴드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거칠게 박동하는 심장을 꾹 누르며 몸을 돌렸다.

멜로디도 클레어에게 인사를 건넸다.

“걱정 마세요, 클레어. 조심히 다녀올게요.”

클레어는 멜로디를 다시 한번 안아 주며 기도했다.

그녀의 짧은 기도가 끝나자, 멜로디는 몸을 돌려 제럴드의 옆에 바짝 따라붙어 달려 나갔다.

수명을 죗값으로 치른 멜로디는 하루 만에 기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클레어는 문가에 기대어 서서 타는 가슴을 내리쳤다.

“참 너무하십니다. 죗값으로 수명을 무 자르듯 잘라 가 버릴 것이라면 차라리 이능도 주지 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달리던 멜로디가 팔꿈치로 제럴드의 팔을 쿡 찌르며 말했다.

“오~ 외숙, 드디어 성공하신 거예요?”

멜로디의 말에 제럴드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는요?”

“…….”

난감하여 미간만 찌푸리고 있는 제럴드의 모습에 멜로디는 씩 웃었다.

“저를 지키시느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고생이 많으셨죠? 감사해요, 외숙.”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한 때 제가 편지 배달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 내가 뜯어 보지 말랬는데 기어이 뜯어 본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

“갈 때마다 편지를 쥐여 주면서 꼭 전달하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 아녜요?”

“으, 하… 정말.”

제럴드는 장난스럽게 웃어 대는 조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다가 결국 함께 웃어 버렸다.

두 사람은 그 와중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참, 메어와 발트는요? 왜 이렇게 소란하죠?”

“가 보면 알 거다.”

두 전사는 눈 깜짝할 사이 마을의 싸리 울타리를 벗어났다.

탁 트인 드넓은 고원 평야, 여름의 햇살과 바람이 울컥 멜로디의 온몸에 부딪히는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그대로 멈춰 서 버렸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고원에 수백 명의 전사들이 긴 검을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홀리의 아름다운 갈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제각각 무장한 일족의 전사들은 떠오르는 햇살 아래 소리도 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수풀을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고원에서 저 멀리, 아니타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다.

아니타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멜로디가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순식간에 가까워진 아니타는 멜로디의 얼굴에 콧잔등을 비벼 댔고, 멜로디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꼭 끌어안으며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멜로디는 콧잔등이 시큰해져 잠시 숨을 고른 뒤,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외숙,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족이 참전할 이유는 없어요.”

제럴드는 멜로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단호한 태도로 홀리에 오르며 말했다.

“이건 너의 싸움임과 동시에 일족의 싸움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귀신, 일족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맞았어.”

“…….”

“몇 주 전, 우리는 오르센 영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여덟을 찾아냈다. 그리고 알아냈지. 오르센은 그 여덟에게서 꾸준히 피를 빼 귀신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야.”

멜로디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제럴드는 홀리를 앞으로 몰았고, 멜로디도 서둘러 아니타의 등에 올라 그의 뒤를 따랐다.

“일족의 피를 빼고, 멀쩡하게 잘 살아 있던 자국민들을 역병이란 이름으로 감금한 뒤 얻어 낸 피를 주입했다고 하더구나. 심장에 구멍이 나는 순간 일족의 피를 넣으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일 때 귀곡에 묻으면 ‘귀신’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듣기만 해도 역겨운 일이었다.

“이제 귀신은 없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 오르센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멜로디는 자신을 잡으라고 발악하던 솔 악센을 떠올렸다.

“그자는 제가 파란눈인 것을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그 말에 제럴드가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그의 홀리가 제럴드의 마음을 읽었는지 멈추어 서자, 아니타도 함께 멈췄다.

오백의 전사들이 제럴드와 멜로디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여름 바람 사이로, 산의 냉기를 머금은 칼날 같은 것이 섞여 그들의 주위를 맴돌다 떠나갔다.

제럴드의 시선이 매서워졌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구나.”

멜로디와 제럴드의 시선이 날카롭게 교차했다.

반듯하게 허리를 편 제럴드는 냉철한 눈으로 멜로디를 응시하다가, 별안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멜로디를 호명했다.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

갑작스러운 호명이었으나, 멜로디는 침착하게 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깨를 쫙 폈다.

“나는 아뷔브 파란눈 일족의 장로 제럴드. 아뷔브 일족은 오르센의 솔 악센을 주적으로 공표하는 바이며, 동시에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의 아뷔브 산 인계를 적극 도울 것이오! 하여 이 순간부터 아뷔브 일족은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을 도와 코르벨라의 편에 서서 오르센과의 전쟁에 참전하고자 하니, 그대는 우리의 공조를 받아들이겠소?”

그의 말에 멜로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배 속에서부터 솟구쳐 명치를 치고 올라왔다.

멜로디는 용암처럼 뜨거운 것을 간신히 삼키며 지적했다.

“자칫 일족 전체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럴드의 표정은 단호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찌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소.”

멜로디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까마득한 고원 평야를 가득 메운 일족들을 훑어보았다.

바람을 타고 그들의 투지가 전해졌다. 형형한 투지에 멜로디의 심장이 함께 들끓었다.

그 투지에, 멜로디는 깨달았다.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단호한 결단. 더는 숨어 웅크리고, 손발이 묶여 억압당하는 굴욕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다.

멜로디는 심장에 손을 얹으며 일족을 향해 다짐했다.

“피에 미치지 말고, 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수호를 목적으로 하리라!”

그녀의 다짐에 제럴드를 비롯한 고원 평야에 모인 일족의 전사들이 일제히 심장에 손을 얹었다.

“피에 미치지 말고, 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수호를 목적으로 하리라!”

전사의 다짐이 고원의 고요한 새벽을 뒤흔들어 깨웠다.

“나,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 그대들의 공조에 응하는 바이오!”

“선봉에 서시오, 멜로디! 우리를 오르센 왕 앞으로 안내하시오!”

제럴드의 말에 멜로디는 아니타의 배를 가볍게 발로 찼다. 그러자 아니타는 부드럽게 움직여 당연하다는 듯 전사들의 선봉으로 자리를 옮겼다.

떠오르는 해가 그들의 뒤를 비추었고, 일족의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졌다.

금빛으로 빛나는 아니타의 갈기를 바라보던 멜로디는 문득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이를 바라보았다.

메어와 발트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고마워요.”

“별말씀을.”

그리고 그들 너머로 일전 만났던 이가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벨린.”

멜로디의 부름에 이벨린은 샛노란 시선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봉에 서라 하지 않았나?”

그녀의 말에 멜로디는 재빨리 말을 정정했다.

“예, 장로 이벨린.”

“정정 한 번 빠르군.”

그때, 두 사람 사이로 제럴드가 불쑥 홀리를 타고 나타났다.

“어서 가자.”

그의 말에 멜로디는 시선을 돌려 정면을 바라보았다. 부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멜로디가 외쳤다.

“가자, 아니타!”

그녀의 말에 아니타가 폭발하듯 도약했고, 그 뒤를 따라 일족들이 거세게 산을 달리기 시작했다.

오르센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일족은 거친 첫 발을 내디뎠다.

비록 그것이 피의 길일지라도, 누구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단단한 결단으로 일족은 산 아래를 향해 내달렸다.

새파란 분노가 온 산을 뒤덮을 듯했다.

그 선봉에 선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은 동시에 간절히 염원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0)

에르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카이사르 베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사람, 쉰 적이 있나?”

“아뇨, 전혀요.”

에르데의 상처를 치료하던 리아나가 대꾸하자, 그는 입을 꾹 말아 물었다.

카이사르는 멜로디가 산으로 떠난 후, 종횡무진 전쟁터를 휘저으며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의 눈엔 핏발이 섰고, 턱은 베일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하긴 여기 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에르데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저 멀리 또 한 사람의 아군이 비명을 지르며 성곽 아래로 떨어졌다.

“성문 이음새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성문을 막아야 합니다!”

성벽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까이 있던 병사들이 절규했다.

“안 돼!”

“우린, 우린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카이사르는 다급히 성문으로 달려 내려갔다.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몸으로 막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 보였다.

고립된 2곽의 상태는 참혹했다. 오르센 군대가 양쪽에서 번갈아 몰아붙이는 탓에, 2곽의 코르벨라군은 밤이고 낮이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성을 사수해야만 했다.

탈진하여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죽은 아군의 시신조차 처리할 수가 없어서 성벽 안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더불어 물과 식량마저 동이 나 버린 상황이라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카이사르는 핏발 선 눈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살폈다.

이대로 문이 열려 2곽에서 고립된 상태로 오르센군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카이사르는 재빨리 3곽 방향 성루를 지키고 있는 나이젤에게 달려갔다.

“전하!”

나이젤의 상태도 처참했다.

온 얼굴이 새카만 먼지와 피, 땀으로 뒤덮인 나이젤이 핏발 선 눈으로 카이사르를 돌아보았다.

“사령관!”

“전하! 더 늦기 전에 2곽을 버리셔야 합니다!”

“2곽을 버리다니?”

“성문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1곽에서 밀려오는 대군이 2곽으로 들어오면, 3곽에 진을 치고 있는 오르센군은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2곽의 문을 밖에서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립된 채 꼼짝없이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말에 나이젤의 표정이 구겨진 종이처럼 일그러졌다.

“오르센 군대가 3곽으로 오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라디미르 국경 지대를 통과해서 왔을 겁니다. 배신자들의 눈속임만으로 1만이 넘는 대군을 몰래 들여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3곽에 포진하고 있는 오르센군의 수는 많아야 5천 정도일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을 뚫고 3곽 평야 지대로 나가십시오. 제가 평야 지대에서 오르센군을 막는 동안, 전하께서는 3곽을 넘어 코르벨라 본토로 후퇴하시는 겁니다.”

“자네가 방어막이 되는 동안 3곽을 홀로 넘어가라, 이 말인가?”

“3곽이 뚫린다면 말입니다.”

“우리 멜로디가 돌아오면 달려와 내 멱살을 잡고 흔들겠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전하,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멜로디는, 멜로디는 돌아오는 것인가?”

나이젤이 물었다.

전쟁을 지휘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종횡무진 전장을 뛰어다니던 누이는 보이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그저 돌아올 것이라는 염원 같은 말만 되뇌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멜로디지만, 나이젤은 안다. 멜로디가 그 ‘힘’이라는 것을 털어 쓴 뒤에 어떤 상태가 되어 버리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멜로디가 떠오르자, 나이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카이사르는 그의 질문에 목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소란한 전쟁이, 코르벨라가, 오르센이, 도대체 그따위 것들이 모두 무슨 상관인가 싶었다.

멜로디가 없다면 말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탓에 가뿐 호흡을 내쉬며 카이사르는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

“돌아오실 겁니다, 반드시.”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단단하게 맞물렸다.

“그래, 그렇겠지. 오겠지.”

“그러니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나이젤이 카이사르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다.

“같이 살아남는 거다.”

카이사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까이 있던 3, 4군단장과 장교들을 일제히 불러모았다.

“우리는 2곽을 버리고 3곽으로 달릴 것이다! 3곽 저지대까지 직선으로 달려 오르센군과의 거리를 벌린 뒤, 1군단과 8군단이 나와 함께 후방을 맡는다! 3, 4군단은 전하를 도와 3곽의 성문을 공격하여 코르벨라 본토로 퇴각하라!”

“존명!”

그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빠르게 제 위치로 달려갔고, 카이사르도 재빨리 자신의 위치로 향했다.

그러던 중 그는 에르데를 발견했다.

“에르데.”

새파란 눈의 전사는 멜로디의 빈자리를 훌륭히 채워 주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숨을 고른 뒤 빠르게 말했다.

“2곽을 버릴 겁니다. 그대는 일족을 이끌고 그 틈에 산으로 돌아가십시오.”

“2곽을 버리면 병사 한 사람이 아쉬워질 텐데.”

“죽을 위험이 커지니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서 일족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시오. 그동안 도움받은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이리 인사할 수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에르데는 연한 하늘색의 눈동자를 물끄러미 응시하다가, 그의 등을 커다란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가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 그대는 그대 일이나 신경 쓰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멜로디는 살아 돌아올 거요. 신단수 오드를 받았을 테니.”

“…….”

“어서.”

한시가 바쁜 카이사르는 잠시 에르데와 시선을 마주하다가 이내 달려가 버렸다.

에르데가 긴 대검을 어깨에 비스듬히 걸치자, 슈테언이 다가왔다.

“가라고 하나?”

“어. 위험해질 것이라고.”

“흠.”

슈테언은 어깨를 으쓱이더니, 자신의 홀리를 손짓으로 불렀다. 에르데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으쓱했다. 두 사람의 새파란 눈동자에 따뜻함이 섞여 들었다.

“난 저 친구 마음에 들더군.”

“나도 그래.”

에르데와 슈테언은 긴 검과 창을 한 손에 든 채, 답답한 투구를 벗어 던져 버렸다.

그들이 달려 나갈 준비를 하자, 멀리서 싸우던 블라우와 이지스, 리아나도 홀리를 타고 달려왔다.

“성격 급한 우리 멜로디는 곧 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2곽의 코르벨라군은 장교들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퇴각할 준비를 끝냈다.

길게 도열하는 기병대의 선봉에는 데니스 그라스와 다니엘 그라스, 그리고 섭정 나이젤이 섰다. 후방에는 카이사르 베델을 비롯한 1군단과 8군단이 자리를 지켰다.

쾅,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지금까지 2곽을 막아 주고 있던 문이 쪼개지기 시작했다.

카이사르가 뒤에서 크게 외쳤다.

“문을 열어라!”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걸쇠를 풀었다.

서서히 입을 여는 문 너머로 아귀 같은 오르센의 군대가 검을 고쳐 잡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르벨라군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말을 달려 길을 뚫어라!!”

죽음을 각오한 코르벨라군은 함성을 지르며 3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죽여라!”

“궁수!”

그들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오르센군의 화살과 창, 날카로운 검에 코르벨라의 군마들이 쓰러지고, 병사와 기사들은 피를 내뿜으며 죽어 갔다.

그럼에도 코르벨라는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죽음의 행군 같은 모습으로 죽어 쓰러진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백야의 태양 아래, 2곽의 코르벨라 국기는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달리는 코르벨라군과 그 뒤를 맹렬히 쫓는 오르센군의 말발굽 소리가 광야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루카스 모데라토는 코르벨라 사병 옷을 벗어 던졌다. 대신 미리 준비해 둔 코르벨라 기병대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몰래 코르벨라군 사이로 숨어들었다.

각자 앞만 보고 달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누구도 그의 잠입을 예상치도, 알아채지도 못했다.

코르벨라군은 드넓은 광야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신출귀몰한 8군단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오르센 군대를 붙잡아 두는 동안, 나이젤을 중심으로 한 3, 4군단은 3곽을 향해 내달렸다.

카이사르는 3, 4군단과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볼테르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며 신호를 보냈다.

긴 호각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지자, 1군단과 8군단이 속도를 줄여 멈춰 섰다.

그들은 오르센군을 응시하며 길게 도열했다. 마치 벽을 만든 듯한 모습에, 솔 악센은 카이사르의 의도를 단번에 눈치챘다.

“화살받이가 돼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심산이로군. 하지만 그러기엔 숫자가 부족하지.”

솔 악센은 눈에 불을 켜고 멜로디를 찾았다.

“어디로 간 거야?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군! 일단, 나머지 놈들은 잡아라! 산 채로, 꼭 산 채로 잡아야 한다!”

그는 칸 베르베르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오르센은 이 전투에서 결판을 보려는 듯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광야에 늘어섰다.

오르센군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그들은 너무 오래 전쟁을 치렀다.

코르벨라 이전, 제록스를 상대로도 오랜 기간 전쟁을 치렀기에 많은 수가 죽었을 뿐만아니라, 살아 있는 병사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었다.

반드시 이 전투에서 결판을 보아야만 했다.

수도에서는 라 이르마가 끊임없이 회군하라는 공문을 보내 오고 있었지만, 솔 악센은 무시했다.

아직 섭정의 숨통을 끊어 놓지 못했을뿐더러, 파란눈들을 생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코르벨라의 섭정과 사령관을 죽여라! 그 목을 가져오는 이에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다!”

솔 악센이 포효하자, 오르센군은 있는 힘껏 함성을 내질렀다.

카이사르는 마지막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병을 바닥에 버렸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늘어선 병사들을 응시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만 보였다.

“위대한 코르벨라의 병사들이여! 검을 들어라!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적을 막아 낸다!”

그 말을 하는 카이사르도, 듣는 병사들도 죽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물러날 곳도 없었다.

코르벨라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검을 고쳐 잡으며, 악에 받친 소리를 내질렀다.

칸 베르베르나가 군마를 타고 달리며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전군! 돌격하라!!”

노도처럼 몰려드는 적군에 맞서 코르벨라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주 달려 나갔다. 카이사르도 볼테르와 함께 밀려오는 적군의 파도에 온몸으로 맞섰다.

소란한 쇳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이젤을 비롯한 3, 4군단은 3곽 성벽을 뚫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적군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였다. 3, 4군단은 방패로 온몸을 가린 채 성문을 도끼로 두드려 댔다.

다니엘 그라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1군단과 8군단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카이사르가 지휘하는 두 군단이 필사적으로 오르센 대군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길진 못할 것이다.

“3군단은 후방 전투 지원을 가겠습니다!”

나이젤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니엘 그라스는 있는 힘껏 호각을 불었다.

“3군단! 전원, 후방 전투를 지원한다!”

성벽 앞에 도열해 있던 3군단은 군단장의 명령에 재빨리 몸을 돌렸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투장에 뛰어들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1)

카이사르는 날아오는 검을 피해 몸을 숙였다가, 그대로 적의 심장에 검을 박아 넣었다.

종횡무진 달리는 볼테르의 몸 곳곳에도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볼테르의 목덜미를 두드리며 사과했다.

“미안하다.”

그는 적당한 시기를 보아 볼테르를 놓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병사들이 그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가까이 있던 블라우가 귀신같이 그것을 쳐 냈다.

“조심해!”

벼락같은 목소리로 카이사르를 다그친 그가 옆으로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다.

“멜로디가 곧 올 것인데 살아남아야지!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같이 있잖아! 검 똑바로 쥐고, 눈 똑바로 뜨고! 이런, 미친! 상도덕도 없는 것들 같으니!”

그는 별안간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창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잡아 빼며 욕을 내뱉었다.

카이사르는 이를 악물고 다시 검에 오드를 불어넣었다. 형형하게 빛나는 검을 길게 휘두르자, 적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두 눈을 부릅뜬 카이사르 주변으로 일족들이 모여들었다. 에르데와 슈테언은 그의 양옆에 서고, 블라우와 이지스, 리아나는 그의 후방을 보호하듯 둘러쌌다.

카이사르는 그들의 공조에 감사를 표하며 전세를 읽었다. 끝도 없는 대해 같은 적군의 모습에 아득한 절망이 휘몰아쳤지만, 블라우의 말처럼 죽을 수는 없었다.

너의 새파란 시선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함께 말을 타고 드넓은 광야를 달릴 수만 있다면.

“전군! 검을 고쳐 잡아라!”

“코르벨라군을 쓸어 버려라!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코르벨라군의 진영은 점차 뒤로 밀렸다. 8군단은 거의 전멸 직전이었으며, 수가 많았던 1군단도 궤멸 직전이었다.

익숙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사단장과 여단장들의 시신이 장교라는 이름 아래 적들의 창에 난도질을 당해 전시되었고, 그때마다 오르센 진영에선 함성이 터져 나왔다.

‘멜로디!’

카이사르는 간절히 그녀를 불렀다.

‘멜로디!’

한편, 나이젤도 악전고투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직접 활을 들고 성벽 위에서 화살 비를 쏘아 대는 적군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3곽의 문을 뚫어야 최소한 살아남을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4군단은 필사적으로 성문에 매달렸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루카스 모데라토는 가지고 있던 단도를 꺼냈다.

모두가 피에 절고, 피에 미친 상황. 아군이든 적군이든 검 한 자루 들고 있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이곳저곳에서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이나 가볍게 교차되고 있었다.

그 탓에 루카스 모데라토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멀리 오르센의 군대를 바라보았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곳 어딘가에 그의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감히 넘겨짚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루카스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것이 이 생의 마지막 걸음이 되리라. 습관적으로 혀로 입안을 쓸자, 둥근 흉터가 느껴졌다.

이윽고 눈을 뜬 그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섭정에게 다가가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나이젤이 루카스의 존재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루카스가 군마의 목덜미를 겨냥한 뒤였다.

아차 하는 순간, 루카스는 있는 힘껏 군마의 목덜미를 그었고, 군마의 목에서 분수 같은 피가 쏟아졌다.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나이젤이 타고 있던 군마가 그대로 고꾸라졌다.

말 위에 앉아 있던 나이젤은 재빨리 발을 빼고 반대쪽으로 뛰어내렸으나,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루카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전하!”

“섭정 전하를 지켜라!”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이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반사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아니, 그러려 했다.

“커, 컥…….”

나이젤은 허리에서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 통증에 숨을 멈췄다. 휘두르려 했던 그의 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이젤은 치뜬 눈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전하!”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사들이 루카스를 나이젤에게서 떼 냈다.

“의원! 의원!”

“이 개새끼가!”

분노한 기사들의 음성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이젤은 고통에 몸을 옹송그렸다.

갑옷 이음새 사이로 파고든 단검이 나이젤의 허리를 깊게 파고들었다.

“신을 위하여!”

루카스 모데라토는 기사들에게 잡힌 상황에서 두 팔을 높게 치들며 외쳤다.

분노한 데니스 그라스가 그의 머리를 일격에 날려 버렸다. 그의 몸뚱어리는 두 팔을 높게 치든 그 모습 그대로 천천히 고꾸라졌고, 머리는 피바다를 굴렀다.

“섭정이 죽었다!”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르센군이 거세게 외치자, 곧이어 엄청난 함성이 들려왔다.

“그렇지!”

솔 악센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했다.

“나의 신도가 결국 성공했구나!”

함성의 파도가 코르벨라군 전체를 뒤덮었다.

카이사르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3곽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섭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리아나가 다급히 성벽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거품 물고 달리는 홀리를 더 채근했다.

“빨리, 빨리!”

백야의 태양이 절정에 치달은 그 순간, 궤멸 직전의 군대에게 전해진 섭정의 전사 소식은 희미하던 한 자락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찬란한 햇살 아래, 희망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때, 희망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던 그때.

긴 고동 소리가 물안개처럼 자욱하고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오르센군의 호각도, 코르벨라군의 호각도 아니었다.

뱃고동 같기도 하고, 미지의 동물이 내는 울림 같기도 한 그 신비로운 고동 소리에 요란하게 광야를 뒤흔들던 오르센군의 함성이 잦아들었다.

함성이 잦아든 광야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카이사르—!”

외로운 산을 홀로 울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였다.

“나이젤—!”

카이사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급히 광야와 인접한 아뷔브 산을 바라보았다.

“멜로디다!”

“왔어!”

일족들이 반색하며 외치기 무섭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짐승 떼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에 코르벨라군도, 오르센군도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자욱한 운무를 헤치고 선봉에 선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기가 도는 거대한 말을 타고 지축을 울리며 달려오는 그녀는, 틀림없이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이었다.

투구를 벗어 버린 말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그녀를 보며, 코르벨라군은 일시에 함성을 내질렀다.

“우와아아아아아!”

이윽고 그녀 뒤로 수백 명의 전사들이 산을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름다운 긴 갈기를 흩날리는 거대한 말과 함께 내달리는 전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와아아아아아아!”

멜로디가 데려왔다면 그들이 누구건 아군이라는 뜻이기에, 코르벨라군은 미칠 듯이 환호했다.

“제럴드!”

“제럴드야!”

“일족이 참전할 모양인데?!”

에르데와 슈테언, 발트가 각각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카이사르는 말을 달려 내려오는 멜로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좇았다.

멀리서도 선명한 맑은 얼굴, 날렵한 움직임을 보자 꺼져 가던 그의 심장에 다시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한편, 내려오던 중 섭정이 죽었다는 목소리를 들은 멜로디는 다급히 카이사르와 나이젤을 찾았다.

다행히 카이사르는 무사했다. 그러나 나이젤은 성벽 인근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옆에 리아나가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아니타, 더 빨리!”

멜로디의 채근에 아니타는 푸르릉거리며 훨씬 먼 거리를 단번에 도약했다.

“우왓!”

깜짝 놀란 병사들이 주변으로 물러나자, 그의 상황이 더 잘 보였다. 나이젤이 보이자, 멜로디는 아니타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달려 갔다.

“오라버니!”

나이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리아나가 그런 그에게 다급히 오드를 쏟아붓고 있었다.

“리아나!”

“단도에 깊이 찔렸는데, 독이 묻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독은, 오드로 해독하지 못해.”

“방법은?”

“…일단은 마을로 데려가 볼게. 우린 해독제가 많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멜로디의 손을 나이젤이 꽉 붙잡았다.

“…멜로디.”

꺼질 듯한 목소리에 멜로디는 이를 세게 악물었다.

“말하지 마요.”

그는 울컥 치미는 것을 꾹 눌러 삼키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오라버니!”

멜로디가 거세게 소리쳤음에도 나이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리아나가 그를 부축하자, 나이젤은 그녀의 손에 의지해 두 발로 땅을 짚고 섰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악착같이 선 그는 죽을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새하얗게 질린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까마득한 적군을 바라보다가, 멜로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누이가, 다시 돌아왔다. 단단한 얼굴을 하고서.

섭정은 이 집단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가 죽으면 전쟁은 필패한다.

아득해지는 시야, 멀어지는 청각. 나이젤은 죽음을 직감했다. 설령 지금 당장 죽지 않더라도, 의식불명의 선봉장은 이 전투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그는 빠른 결단을 내렸다. 오직 코르벨라를 위한 결단을.

나이젤은 온 힘을 끌어올려 어깨에 달고 있던 섭정의 망토를 떼 냈다.

“…오라버니.”

황망한 멜로디의 표정을 보며, 나이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멜로디의 어깨에 섭정의 망토를 둘러 주었다.

섭정의 붉은 망토가 멜로디의 어깨에서 펄럭였다.

세상에서 가장 간결하고 갑작스러운, 피 묻은 위임식이었다.

그는 멜로디의 두 어깨를 손으로 짚고, 반쯤 그녀에게 기댄 채 말했다.

“나, 섭정 나이젤, 코르벨라가, 큭… 명하니, 지금부터 너는 베델이 아닌 코르벨라다. 나의 모든… 섭정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이 순간부로… 멜로디 코르벨라에게 위임하는 바이니…….”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모습을 코르벨라군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나이젤은 투구를 벗어 던졌다. 그의 보라색 눈동자가 멜로디의 눈을 직시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코르벨라의 섭정이다. 섭정 멜로디, 전쟁을 지휘하고… 살아 돌아가서 코르벨라를, 안정시켜라. 알겠느냐?”

멜로디의 입술이 떨렸다. 나이젤은 피 묻은 손으로 멜로디의 뺨을 쓸었다.

차갑기 그지없는 손으로 멜로디의 얼굴을 쓸어내린 나이젤은 그대로 무너졌고, 멜로디는 그의 온몸을 끌어안았다.

“리아나!”

멜로디의 비명 같은 외침에 리아나는 서둘러 홀리에 올라 나이젤을 받아 안을 준비를 했다.

멜로디는 나이젤의 두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절박하게 말했다.

“죽지 마라, 죽지 마. 절대 죽지 마. 살아남아. 알겠어? 약속해!”

그러나 나이젤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멜로디가 서둘러 그를 리아나의 품에 안겨 주자, 리아나는 거세게 말을 달렸다.

"나이젤!"

멜로디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멀어지는 리아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몇몇 일족이 그녀의 뒤를 호위하듯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들끓는 불안과 걱정이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지만,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올려 자신의 어깨를 만져 보았다. 붉은 망토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부는 바람에 섭정의 망토가 등 뒤에서 펄럭였다.

무겁다.

그것은 아주 무거웠다.

제 몸보다 더 큰 군장을 멨을 때도 무겁지 않았는데, 이 붉은 망토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웠다.

나이젤은 필사적으로 일어나 그녀에게 섭정의 자리를 위임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녀가 온전히 이 전투를 책임져야만 한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2)

멜로디는 입을 굳게 다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적이었다.

3곽에도, 2곽의 광야에도 적군이 가득 몰려들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멜로디의 가슴 저 아래에서 시퍼런 불길이 솟구쳤다.

갑작스럽게 섭정의 자리를 위임받은 황녀는, 단호한 태도로 홀리에 올랐다.

코르벨라군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파란 불꽃이 일렁이는 파란 눈으로 상황을 살피던 멜로디가 검을 꺼내 높게 치켜들었다.

“대열을 정비하라! 4군단장 데니스 그라스! 최단 시간으로 성문을 격파하라! 1, 3, 8군단! 부상자는 4군단에 합세하고, 힘이 남은 자들은 검과 방패를 다시 들어라!”

새로운 섭정의 단호한 명령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있던 코르벨라군이 일시에 움직였다.

“예, 전하!”

한 줌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라도 보였다면, 코르벨라군은 불안함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섭정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붉은 투지와 분노였다.

붉은 망토를 두른 섭정 멜로디는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사선을 향해 달려갔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병사들과 기사들은 새로운 섭정에게 길을 내주며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카이사르는 섭정의 망토를 두른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푸른 갈기의 거대한 말. 까마득한 대군을 앞에 두고도 흔들림이 없는, 오히려 격노의 불꽃이 일렁이는 새파란 두 눈. 위엄이 넘치는 붉은 망토.

그녀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임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그가 무릎 꿇어야 하는 주군이 되어 나타났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목덜미에 고개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다.

그녀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며,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싶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 모든 마음을 내리눌렀다.

지금 그녀는 그의 아내기 전에 주군이었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카이사르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섭정 전하.”

멜로디는 정중히 고개를 숙인 카이사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고요한 하늘색 눈동자가 오롯이 자신을 담아내고 있었다. 멜로디는 그 담담한 물빛 아래에 어떤 불안이 감춰져 있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연인은 간결하게 재회했다.

멜로디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제럴드를 필두로 한 일족이 대열을 맞춰 서 있었다.

지친 몸으로 검을 잡은 코르벨라군은 다시 한번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오르센군을 노려보았다. 멜로디가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위대한 코르벨라의 병사들이여!”

그녀의 목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죽음 직전, 그들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섭정은 피바다를 딛고 일어나 검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죽음이 두려운가? 언젠가 도래할 죽음이지만, 그것이 결코 오늘은 아닐 것이다! 패배가 두려운가? 언젠가 패배할 날이 올지 모르나, 그것이 결코 오늘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코르벨라의 섭정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세게 외쳤다. 그녀의 포효가 코르벨라 병사들의 혈관에 스며들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나, 멜로디 코르벨라가 그대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다! 검과 방패를 들어라! 우리의 국토를, 피로 물들이도록 둘 것인가! 가자! 그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힘이 빠져 검을 내리고 있던 병사들도 그 말에 다시 검을 움켜쥐었다.

심장 박동 소리를 닮은 대북이 둥둥 울리고, 코르벨라군은 호각을 길게 불었다.

“섭정 전하 만세!”

“코르벨라 만세!”

죽음과 패배의 두려움을 이기려 코르벨라 병사들은 있는 힘껏 외쳤다.

솔 악센의 시선이 집요하게 한 곳을 향했다. 그는 섭정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현 코르벨라군 상황이 어떤지보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저렇게 많았어…….”

그는 눈을 크게 치뜨고 중얼거렸다.

“저렇게 많았던 거야. 저것들이 저렇게 많다면, 굳이 귀신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것들만 있으면 돼.

저것들만 있으면 대륙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어.

저것들만 있으면, 저것들만 있으면.

이 세상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어.

“칸 베르베르나! 저것들, 저것들을 모조리 잡아라! 저것들을 지금 당장 모조리 잡아!”

솔 악센은 일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광분했다. 수십 년에 걸쳐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자 결국 왕은 이성을 잃었다.

시력과 청각이 뛰어난 일족들은 그들을 보며 광분하는 오르센의 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선봉에 서 있던 이벨린이 이를 갈았다.

“저자다. 우리의 원수, 오르센의 왕.”

아뷔브 일족의 피가 들끓었다. 그들의 분노를 감지한 홀리들이 발로 거칠게 바닥을 굴렀다. 포식자들의 본능이 분노를 연료 삼아 터져 나왔다.

“이까짓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 저것들만 있으면, 저것들만 내 손에 넣으면!”

포악하지만, 교활하게 정세를 잘 읽어 내던 솔 악센이다. 그랬기에 선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비록 무너져 가던 왕국이라 하나 제록스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광기를 불러일으켰고, 왕의 이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를 일으켰던 새파란 눈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칸 베르베르나는 왕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코르벨라 새 섭정의 넘실거리는 분노와 투지가 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도 선명한 새파란 시선에 칸 베르베르나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정체불명의 기사 수백 명이 더 왔다 한들, 그래 봐야 천 명도 되지 않는다.

칸 베르베르나는 검을 높게 치들며 우렁차게 외쳤다.

“전군, 돌격하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전투가 그의 명령에 재개되었다.

오르센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그에 맞서 일족과 코르벨라군도 함성을 내지르며 야차같이 맞섰다.

멜로디는 전세를 눈으로 읽으며 카이사르에게 소리쳤다.

“사령관! 군을 이끌어라!”

그녀의 명령에 카이사르는 1, 3, 8군단을 통솔했다.

그 틈에 멜로디는 어딘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뷔브 일족의 참전은 고작 수백 명의 원군이 아니었다. 홀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기병들을 짓밟았고, 아뷔브 전사들의 검은 오르센 병사들을 단번에 휩쓸어 버렸다.

대열도, 법칙도 없이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오백의 전사들은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뭉치며 지칠 대로 지친 오르센 군대를 순식간에 박살 내 버렸다.

“대열을 지켜라! 무너지면 안 된다!”

오르센 장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했으나, 악귀 같은 모습으로 달려드는 의문의 전사들은 오르센군이 대열을 갖출 틈조차 주지 않고 휘몰아쳤다.

참혹하게 죽어 돌아온 일족의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멜로디는 제럴드를 향해 달려갔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검을 휘두르던 제럴드는 멜로디가 다가오자 잠시 검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솔 악센을 노려보았다.

“준비됐어요?”

“물론이다, 멜로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야 해요.”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달려 내려오며 멜로디는 제럴드에게 작전을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새파랗게 타오르는 두 쌍의 눈동자가 오르센의 심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솔 악센을 향해 정면으로 군대를 헤치고 나아갔다. 엄청난 도약력으로 병사들의 머리 위를 뛰어넘는 두 마리의 홀리는 날카로운 창과 검도 겁내지 않았다.

멜로디와 제럴드가 군대를 헤치고 나아가자, 일족들은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달려 나갔다.

무시무시한 기세에 오르센의 병사들이 밀리고 넘어지며,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저것들을 막아라! 저것들을 막아!”

칸 베르베르나가 위기를 느끼고 크게 고함을 질렀지만, 일족이 워낙 거친 기세로 달려들다 보니 막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선봉에 선 멜로디는 점점 가까워지는 솔 악센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신중하게 거리를 계산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좁혀졌다는 판단이 든 순간, 멜로디는 제럴드에게 손을 뻗었다.

“외숙!”

가까이에서 말을 달리던 제럴드가 곧장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췄다.

두 사람은 검을 단단히 쥔 채 홀리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멈춘 세상 속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르센의 단단한 빗장뼈를 열고 들어가 심장의 코앞에서 멈춰 섰다.

멜로디는 검을 쥔 손으로 솔 악센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눈을 부릅뜬 채 멈춰 있던 솔 악센이 그녀의 마법에 걸려들었다.

“뭐, 뭐, 뭐!”

그의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나타난 꼴이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는데, 어찌 저 멀리 있던 이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단 말인가?

그의 군대는, 그의 기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멜로디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나를 그렇게 찾았다며, 솔 악센.”

그녀의 새파란 눈동자가 그의 목을 움켜쥐자, 동물적인 본능이 경종을 요란하게 울려 대기 시작했다.

‘도망쳐라, 죽기 싫으면.’

입술이 달달 떨리고, 소름이 온몸을 내달렸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는 순간, 멜로디 뒤로 또 다른 맹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솔 악센의 본능은 그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사, 살려 줘. 살려 줘, 제발, 살려 줘.”

“…….”

말없이 그를 노려보는 제럴드에게 솔 악센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잘못했다, 잘못했어. 살려 줘. 제발, 제발 살려 줘.”

그 모습에 멜로디와 제럴드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어금니를 세게 문 제럴드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풀어, 멜로디.”

제럴드의 말에 멜로디는 마법을 풀었다. 멈추었던 새가 다시 비행을 시작하고, 정지했던 바람이 전쟁터를 휘감아 도는 그 순간.

제럴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솔 악센의 배에 검을 박아 넣었다.

“컥—.”

솔 악센의 근위대들조차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채 인식하기 전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 공격당한 그들의 왕.

“저, 전하!”

그들이 달려들기도 전에 제럴드는 빠른 속도로 다시 검을 찔러 넣었다.

“으억!”

솔 악센은 두 눈을 부릅뜨며 덜덜 떨었다. 제럴드가 거친 손길로 검을 빼내자, 멜로디는 제럴드와 솔 악센에게 손을 댄 채 다시 마법을 걸었다.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제럴드는 솔 악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고통에 신음하는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서서히 죽어 가라. 네가 내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지옥의 업화를 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 솔 악센.”

그토록 갈망하고 탐내던 힘에, 스스로가 파멸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생전 느껴 보지 못한 가혹한 통증에 솔 악센은 숨을 헐떡였다.

제럴드는 그의 머리채를 털어 내듯 놓아 버렸다.

대군을 호령하던 일국의 왕이 바닥에 처박혔다.

악마적으로 이능을 이용한 멜로디와 제럴드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몸을 돌렸다.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멈춘 세상 속을 빠르게 내달려 다시 홀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채 1분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홀리에 오르자, 온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하!”

비명 같은 외침에 오르센군이 술렁였다.

칸 베르베르나가 서둘러 왕에게 달려갔다.

“오르센의 왕이 쓰러졌다!”

“우와아아아아아!”

“오르센 왕이 쓰러졌다!”

노도와도 같은 함성이 이번엔 코르벨라에서 오르센으로 몰아쳤다.

전세는, 그렇게 역전되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3)

그 무렵, 3곽 성문을 공격하던 데니스 그라스는 무언가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중지!”

그가 소리치자 성벽에 붙어 도끼질을 해 대던 보병들이 재빨리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났다.

데니스 그라스는 매서운 눈으로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의 수가 급감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만큼 많이 죽인 것인가?

이질감을 느낀 데니스 그라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군단장님!”

“쉿!”

“……?”

데니스 그라스는 눈을 감고 성벽 너머의 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다.

가만히 청각을 곤두세운 그는 소란한 뒤쪽의 전쟁 소음과 별개로, 성벽 너머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챘다.

번쩍 눈을 뜨는 그의 얼굴에 환희가 차올랐다.

원군, 원군이 왔다!

데니스 그라스의 생각은 정확했다.

마츠 마이어가 이끄는 5군단이 3곽에 도착했을 때, 3곽을 점령하고 있던 오르센군은 몹시 당황했다.

대부분의 병력이 모두 광야로 나가 전투를 치르고 있는 탓에, 3곽 내부에는 소수의 병력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군단장님, 전투를 벌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란한 쇳소리가 3곽 너머에서 들려왔다. 코르벨라군이 전멸했다던 수도의 전언과 부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런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마츠 마이어는 곧장 3곽을 공격했다. 다행히도 3곽 공격은 다른 성곽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왜냐하면 다른 성곽들은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작은 틈도 없는 데 비해, 코르벨라를 보고 있는 3곽의 문은 적군이 공격해 올 가능성이 적기에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곳곳에 쪽문이 나 있고, 그 앞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로로 들어가라! 쪽문을 모두 공격해! 서둘러 3곽을 넘어야 한다!”

마츠 마이어의 명령에 5군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3곽을 사수하던 오르센군은 필사적으로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항전했으나, 수로와 쪽문을 뚫고 들어오는 다수의 병사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5군단은 노도처럼 성곽 안으로 밀려들었고, 3곽을 사수하고 있던 오르센군은 곧장 투항했다.

빼앗겼던 3곽을 탈환한 마츠 마이어가 2곽 광야와 맞닿은 성문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광야로 나가자! 문을 열어라!”

그의 명령에 곧 단단하게 입을 닫고 있던 3곽의 성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열리는 문 너머를 본 마츠 마이어가 이를 갈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위태롭게 펄럭이는 코르벨라의 국기, 거의 빈사 상태로 검을 쥔 채 싸우고 있는 동료들, 난무하는 비명 소리와 비릿한 피 냄새.

“호각을 불고, 대북을 울려라! 우리가 왔음을 알려라!”

마츠 마이어의 명령에 5군단은 호각을 길게 불며 대북을 울렸다.

“원군이 왔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마츠 마이어의 얼굴을 확인한 데니스 그라스가 들끓는 목소리로 포효했다.

“원군이 왔답니다!”

“원군이다!”

“3곽이 열렸다!”

활짝 열린 3곽 성문 너머로 코르벨라의 원군이 달려 나오자, 죽을힘을 다해 싸우던 기사들과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우와아아아아!”

엄청난 함성을 뚫고 마츠 마이어가 가장 먼저 달려 나왔다. 그는 몰골이 엉망인 데니스 그라스에게 곧장 달려갔다.

“그라스 경!”

“마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꽉 쥐었다.

전투를 지휘하던 카이사르와 멜로디도 기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카이사르는 서둘러 멜로디에게 달려갔다.

가까이 있던 기사가 섭정의 깃발을 높이 들자, 마츠 마이어와 데니스 그라스, 다니엘 그라스 역시 곧장 깃발 아래로 달려왔다.

마츠 마이어는 섭정의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나이젤이 아니라 멜로디라는 사실에 놀랐으나, 이내 침착하게 표정을 갈무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섭정 전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주었다. 병력은?”

“기병 3만, 보병 4만, 궁병 1만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멜로디는 고개를 돌려 오르센을 바라보았다.

솔 악센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탓에, 칸 베르베르나가 총지휘를 맡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코르벨라의 원군 소식에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왕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오르센의 사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기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령관, 이 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소. 지금, 여기에서 결판을 낼 것이오.”

멜로디의 말에 카이사르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조언했다.

“기력이 떨어진 1, 3, 4, 8군단을 후방에 배치하시고, 5군단의 기병을 앞세워 오르센군보다 먼저 1곽에 도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오르센군은 말과 사람 모두 지칠 대로 지쳐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들이 성곽을 사수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전쟁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말을 들은 멜로디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결단을 내렸다.

“3군단장 다니엘 그라스, 4군단장 데니스 그라스!”

“네, 전하!”

“귀관들은 남아 1, 3, 4, 8군단을 통솔하라. 부상자를 가려내 치료하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라! 사령관 카이사르 베델!”

“네, 전하!”

“나와 함께 5군단의 기병대를 이끌고 곧장 1곽을 탈환한다!”

“존명!”

“5군단장 마츠 마이어!”

“네, 전하!”

“보병과 궁병을 데리고 후방을 보완하라!”

“존명!”

마츠 마이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직접 호각을 길게 불었다. 그의 호각 소리에 5군단의 기병 수만이 전우들을 헤치고 나와 빠르게 도열했다.

“카이사르, 준비됐어요?”

멜로디가 낮게 속삭이자, 카이사르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때, 제럴드를 필두로 한 오백의 전사들이 그들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를 빼고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제럴드와 에르데, 메어, 발트, 블라우, 슈테언 그리고 이지스가 차례대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칸 베르베르나가 이끄는 오르센군은 급기야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대열을 갖춰 후퇴하라는 장교들의 외침을 병사들에게 닿지 못했다.

장엄하게 늘어선 수만의 기병과 악귀같이 몰아치는 의문의 전사들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향해 달려올 것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으아아아악!”

“비켜, 비켜!”

오르센 병사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오르센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다. 이성을 잃고 도망가는 군중에 불과했다.

멜로디는 검을 치켜들었다.

“우리는 이대로 달려 곧장 1곽을 탈환할 것이다! 투항하는 자는 살려 주고, 공격하는 자는 섬멸하라! 코르벨라의 땅을 다시 되찾으러 가자! 피에 미치지 말고, 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수호를 목적으로 하리라!”

거세게 외친 멜로디 코르벨라가 대지를 박차고 달려 나갔다. 아니타의 푸른 갈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달려드는 바람에 붉은 망토가 거칠게 펄럭였다.

검을 치켜든 손은 성한 곳이 없었고, 그녀의 몸 곳곳에도 수십 개의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따위 상처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녀 옆으로 카이사르가 검을 쥔 채 말을 몰았고, 제럴드와 일족들도 망설이지 않고 함께 달렸다.

코르벨라의 섭정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도망가는 오르센의 뒷덜미를 낚아채 빼앗겼던 2곽을 단숨에 탈환하였다.

칸 베르베르나는 죽어 가는 솔 악센을 데리고 1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최대한 빨리 1곽에 숨어들어 성문을 걸어 잠그려 했던 그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려오는 코르벨라의 섭정 때문에 아예 1곽을 버리고 제록스 영토로 도망을 쳤다.

1곽 근처에 미처 도망치지 못한 자국 병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칸 베르베르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일단 제 살길만 도모했다.

섭정 멜로디 코르벨라는 빼앗겼던 1곽 마저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1곽을 수복한 멜로디는 성루에 올라 게양되어 있는 오르센의 국기를 노려보았다.

“오르센의 국기를 내리고, 코르벨라의 국기를 게양하라!”

그녀의 명령에 기사들이 재빨리 오르센의 국기를 내리고, 코르벨라의 국기를 게양했다.

카이사르가 그녀 옆을 지키고 섰다. 멜로디는 멀리 도망치는 소수의 오르센 본대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코르벨라의 기사들을 내려다보았다.

참혹한 흔적이 곳곳에 남은 성벽 위, 힘차게 펄럭이는 코르벨라의 국기 아래에 섭정과 사령관이 굳건하게 섰다.

비록 두 사람의 몰골은 엉망이었으나, 기사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선명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눈에 비친 멜로디도 그러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엉망이 되어 버린 머리카락, 이리저리 해진 옷.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멜로디는 베델이 아닌 코르벨라였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대신, 그녀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가 그녀에게 정중히 무릎을 꿇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기사들도 말 위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사히 살아남아 1곽을 탈환한 섭정에게 보내는 기사들의 경례는 엄숙했다.

멜로디는 고개 숙인 수만의 기사들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있는 카이사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정중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이사르, 고개를 들라.”

카이사르는 그녀의 부름에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멜로디는 군주다운 위엄이 어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맑은 눈이 깊은 곳에서 출렁이는 것을 본 멜로디는 한 손으로 그의 뺨을 찬찬히 쓸었다.

날카로운 턱을 쓸던 멜로디는 그대로 그의 턱을 붙잡은 채, 몸을 숙여 입을 맞췄다.

그 모습에 아래에서 올려보던 기사들은 환호를 보냈다.

“섭정 전하 만세!”

“코르벨라 만세!”

환호는 함성이 되었고, 함성은 1곽과 2곽을 넘어 3곽까지 번져 갔다.

“코르벨라 만세!”

“섭정 전하 만세!”

거대한 함성이 아뷔브 산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 엄청난 함성 속에서, 카이사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멜로디를 으스러지도록 세게 끌어안았다.

참혹한 전쟁터 한복판이었지만 그녀를 끌어안자 편안해졌다.

그녀가 누구든, 어떤 존재든 카이사르에겐 의미가 없었다.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이름이든, 황제든 평민이든, 심지어 악마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녀는 그저 그녀일 뿐이니.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카이사르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고, 멜로디도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이마를 맞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잠시 기대었다.

잠시 후, 엄청난 함성의 물결이 잠잠해질 무렵 두 사람은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바쁘게 움직이던 멜로디는 시선을 돌려 아뷔브 산을 바라보았다.

힘없이 축 늘어지던 나이젤이 떠오르자, 가슴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죽지 말고 살아남아.’

들리지 않을 말이었으나, 멜로디는 마치 기도라도 하듯 속으로 되뇌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4)

한편, 며칠 전 코르벨라 황궁.

로쉐는 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이모스가 숨어 있던 곳으로 가 그를 황궁으로 데려왔다.

아들의 어깨엔 상처가 있었고, 로쉐는 그 모습에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후작은 죽었습니까?”

“물론이지. 별장과 함께 불태웠단다.”

그 말에 데이모스가 피식 웃었다. 로쉐는 금빛 눈을 번뜩이며 데이모스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다.

“이제 데이모스, 네 세상이란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 두면 모두가 3곽 너머에서 죽을 거야.”

“그렇죠. 그렇겠죠.”

“너는 황제가 되고 나는 태후가 되는 것이지.”

“…….”

데이모스는 속삭이는 듯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입술을 끌어올려 웃었다.

로쉐는 의자에 깊숙하게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봐 줘야 하나. 마틸다? 이안 럭셀로 베델? 아니면… 그래, 황제. 황제의 얼굴을 먼저 봐야겠구나.’

그녀는 숨죽여 웃기 시작했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아… 그나저나 냄새가 없어지질 않네.”

그녀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코를 문질렀다.

피에 미치고, 피에 취한 로쉐 발할라의 두 눈이 어두운 빛으로 번뜩였다.

카이산은 눈앞의 베델 공작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분명 당신을 제명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날 찾아온 거요?”

“제록스 3곽 이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조사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오르센군이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는 그 이후에 한다 하지 않았소!”

“오르센군이 남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비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언제 남하할지, 얼마만큼의 대군이 있는지! 우리의 병력은 전멸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시고 그저 문만 걸어 잠그고 계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늘 담담하던 헨베스트 베델이 거세게 화를 내며 항의했다.

카이산은 부들부들 떨다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내가 섭정이오!”

그 말에 베델 공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가 꽉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섭정이면 섭정답게 행동을 하셔야지요.”

“뭐?”

카이산은 그의 나직한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얼굴로 되물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베델 공작은 두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발할라 후작은 이런 자를 섭정으로 내세워 놓고 뒤에 앉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자 했단 말인가.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황족 모독죄를 물을 것이다!”

카이산이 이성을 잃고 베델 공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를 냈으나, 근위대들은 감히 공작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아들러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뿐,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베델 공작 뒤로 함께 들어온 중신들은 싸늘한 얼굴로 카이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전하.”

“베델 공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전령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이 역시 중대한 문제이니, 중신 회의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발할라 후작께서는 이 시국에 어딜 가셨단 말입니까?”

쏟아지는 말에 카이산은 황망한 얼굴로 눈만 껌뻑였다.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는데, 왜 찾아와 이러지?

어떻게 해야 하지?

외숙, 외숙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그동안의 모든 길은 외숙이 안내해 주었다. 카이산은 외숙이라는 등불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섭정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외숙이 없어졌다. 외숙은 없어졌고, 중신들은 찾아와 감히 섭정인 자신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화를 내며 물러가라 소리를 쳤음에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되레 더 거친 항의를 해 오니, 카이산은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들러!”

다급한 호명에 아들러가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조아렸다.

“바, 발할라! 발할라 후작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은 그를 찾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어려우시다면 당장이라도 중신 회의를 소집하여 중신들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셔야 합니다!”

베델 공작이 다시 그를 다그치자, 카이산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발할라 후작을 모셔 와라!”

“전하!”

“발할라 후작, 내 외숙! 어디에 계시느냐! 당장 그를 모셔오라 이 말이다!”

이성을 잃은 카이산이 크게 고함을 지르는 그 순간, 열린 문 너머로 누군가가 불쑥 들어왔다.

“그럴 필요 없단다.”

소란한 상황이었기에 누구도 그들의 방문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카이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중신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로쉐 발할라 황후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걸어 들어오더니 카이산 앞에서 멈춰 섰다.

“어머니…….”

“얘야, 카이산.”

“…….”

“외숙을 기다릴 필요 없단다.”

“그 무슨……?”

카이산의 두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싸늘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얼굴 너머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놀라 숨을 들이켜는 중신들과 시종들의 탄식이 들려오자, 카이산은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이가 살아 돌아왔다.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가 결국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그자, 데이모스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걸어와 섭정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카이산을 내려다보았다.

카이산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데이모스를 올려다보았다.

카이산의 두려움을 읽어 낸 데이모스가 입술을 길게 끌어올려 웃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 일어나거라, 카이산. 내가 왔으니 더는 그 자리에서 네가 힘들 이유가 없다.”

“…….”

카이산이 말이 없자, 데이모스는 몸을 기울여 그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광기로 번들거리는 금빛 눈동자가 카이산의 숨통을 옭아매었다.

“일어나라. 그 자리는 네 것이 아니니.”

데이모스는 허리를 다시 세우며 가까이 서 있던 아들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서관 아들러. 자동승계법에 따라 카이산 코르벨라가 아닌 나,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섭정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섭정 전하께오서 승하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데이모스가 위협적으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으르렁댔으나, 아들러는 동요하지 않고 냉철한 얼굴로 데이모스를 바라보았다.

“데이모스 황자님의 부고도 수도에 전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리 무탈히 돌아오신 것을 뵈오니, 한없이 기쁩니다. 동시에 혹 다른 부고 역시 거짓이 아닌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주 기적적으로 탈출했네.”

“하면 다른 분들께서는, 코르벨라의 본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충격에 할 말을 잃었던 중신 중 한 사람이 다급히 묻자, 데이모스는 침통한 표정으로 턱을 매만졌다.

“수도에 어떻게 말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섭정 나이젤 전하께서는 적군의 칼에 전사하셨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네. 3곽 이북은 완전히 오르센의 손에 넘어갔고. 나는 보다시피 전쟁 중 어깨를 다쳐 후방으로 물러나 치료를 받던 중이었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지.”

“…….”

“…….”

섭정의 집무실에 모인 이들의 표정은 형용할 수 없이 참담했다.

데이모스는 베델 공작을 응시하며 안타깝다는 어조로 말했다.

“베델 공, 아들과 며느리의 일은… 유감이오.”

“…….”

베델 공작은 여전히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한 자락의 슬픔조차 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데이모스를 응시하자, 데이모스는 입술을 씰룩이며 시선을 돌렸다.

“아무튼 아들러, 한시가 급하네. 내가 섭정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데이모스는 정중한 얼굴을 벗어 던지고 카이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카이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을 쳤다.

데이모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섭정의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중신들을 돌아보았다.

“아! 아까 오다 들으니 3곽 이북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물론입니다. 조사단을 파견하여 아군이 어떠한 상황인지, 적군의 상태는 어떠한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네. 암, 충분히 이해하지.”

데이모스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카이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명령을 내리지. 카이산 코르벨라!”

갑작스러운 호명에 깜짝 놀란 카이산에게 데이모스가 명령을 내렸다.

“너에게 수도 방위대의 일부를 내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제록스 3곽으로 가라. 가서 상황을 살핌과 동시에 제록스 3곽을 탈환하라!”

“전하! 상황을 살핌과 동시에 3곽을 탈환하라니요?!”

“이리 급하게 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도 방위대는 말 그대로 수도 방위를 위한 병사들입니다. 뷔안이 어찌 될지도 모를 상황에…….”

“시끄럽다! 카이산이 놈들을 막고 있는 동안, 내가 원군을 더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전하!”

데이모스는 별안간 책상을 거세게 내리쳤다. 그 굉음에 집무실의 모두가 입을 다물자,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카이산을 바라보았다.

“가서 3곽을 반드시 탈환해라. 알겠느냐? 네가 3곽을 탈환한다면 말이다. 내,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카이산의 본능 저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공포가 결국 수면 밖으로 튀어나왔다.

데이모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카이산은 누구보다도 기민하게 알아챘다. 그가 눈빛이 바뀔 때면, 카이산은 감히 그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아치자, 카이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집무실 밖으로 도망쳤다.

꼬리에 불이 붙은 짐승처럼 빠르게 도망가는 카이산의 뒷모습을 보며 데이모스가 그를 비웃었다.

“저, 저. 저런 못난 꼴이라니.”

로쉐 발할라는 사라지는 카이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데이모스에게 말했다.

“카이산은 참전 경험이 전무하니, 보낸다 한들 도움이 되지 못할 겝니다. 다른 장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녀의 조언에 데이모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나요?”

그녀의 물음에 데이모스가 눈을 길게 휘며 웃었다.

“황후 폐하.”

그 웃음이 섬뜩해서 로쉐는 저도 모르게 팔을 문질렀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서 쉬시지요.”

“전하.”

“좋게 말할 때 가십시오.”

“…….”

“데이모스가 황제가 되면 너라고 무사할 것 같으냐?!”

발할라 후작의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로쉐의 입술이 잘게 떨렸다.

데이모스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아들러를 바라보았다.

“아들러, 인장을 가져와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5)

그 말에 아들러를 비롯한 중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아들러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배에 힘을 단단히 주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인장을 넘겨받음으로써 내가 정식적으로 황권을 승계받아야 이 국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섭정의 지위는 공고하지 못하며, 황좌가 공석인 나라가 어찌 굳건할 수 있겠는가?”

“…….”

“당장 가져와!”

그가 거칠게 소리치자, 보고 있던 베델 공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황위 자동 승계는 첫째, 황제 폐하의 의식이 6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하였거나 승하하신 경우. 둘째, 제 1계승권자가 공식적으로 계승권을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니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지 않나. 바로 서관과 중신들이 승계를 인정하여 인장을 찍을 경우! 지금은 말일세, 공작. 하루라도 빨리 비어 있는 황좌에 누군가 앉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때네!”

“비어 있다니요? 황제 폐하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말에 데이모스가 피식,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가 근위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자를 끌어내라.”

“전하, 공의 말씀이 이치에 어긋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베델 공 뒤에 서 있던 중신이 반발하자, 데이모스는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 들고 야차같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둔탁한 잉크병으로 중신의 머리를 가격했다.

“으아아악!”

갑작스러운 공격에 중신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자, 데이모스는 잉크병이 깨질 때까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감히, 감히! 감히!”

“섭정, 섭정!”

“이거 놔!”

로쉐 황후가 놀라 그에게 달려들어 팔을 부여잡자, 데이모스는 거칠게 그 팔을 뿌리쳤다.

“꺅!”

그 바람에 로쉐 황후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데이모스는 그런 그녀에게 한 줌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공격을 받은 중신은 피와 잉크가 뒤섞인 참혹한 모습으로 기절하여 축 늘어졌다.

그 모습에 베델 공작은 눈을 크게 뜨고 입안을 세게 짓씹었다.

데이모스는 씩씩거리며 베델 공작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네 아들과 며느리처럼 뒈지기 싫으면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아들어?”

그 말에 헨베스트 베델의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두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며, 나직하게 되받아쳤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요.”

“후회? 하!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뭣들 하나! 군 통솔권자는 나다! 지금 당장 이자를 끌어내!”

그의 발악에 근위대들이 어쩔 수 없이 다가와 베델 공작 앞을 서성이자, 베델 공작은 거칠게 몸을 돌렸다.

“됐다. 내 발로 갈 것이다.”

몸을 돌리던 공작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치자, 아들러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윽고 공작과 중신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로쉐 황후 역시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집무실을 나섰다.

데이모스는 혼자 남겨진 아들러에게 건들거리며 다가갔다.

“인장, 가져와.”

“못 합니다.”

“가져와!”

광기 섞인 포효에 아들러는 죽음을 각오하며 다시 말했다.

“그리는 못 합니다. 자중하십시오.”

그 단호한 말에 데이모스는 불쑥 손을 들어 아들러의 얼굴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서관. 그가 없이는 정식으로 승계를 받을 수가 없기에, 데이모스는 감히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으아아아아악!”

데이모스는 닥치는 대로 집무실을 부수기 시작했다. 탁상을 내리치고, 서류를 찢고, 유리병들을 있는 대로 내던졌다.

깔끔하던 섭정의 집무실이 초토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크윽!”

날아오는 유리병에 얼굴을 가격당한 아들러가 신음하며 얼굴을 부여잡자, 뜨뜻한 것이 주르륵 쏟아졌다.

한쪽 눈이 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자, 아들러는 이를 악물며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다.

그 모습을 본 데이모스가 다가와 별안간 아들러의 목을 움켜쥐었다.

우악스러운 힘에 아들러는 숨이 막혀 꺽꺽댔다.

“너, 내가 황제가 되면 네놈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성벽에 내걸고야 말 것이다. 알겠느냐? 나이젤, 그 새끼가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겠지만 희망을 버려. 그 새끼, 이미 죽었으니까. 알겠어?”

데이모스는 그의 목덜미를 탁, 털어 내며 손에 묻은 피를 아들러의 상복 재킷에 문질러 닦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러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집무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폐하… 폐하…….’

통탄이 섞인 긴 한숨을 내쉬던 아들러는 혀를 세게 물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날, 데이모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제 형제들의 황위 계승권에 손을 댔다.

황위계승법은 넓은 범위에서 코르벨라의 호적법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계승권에 손을 댈 수 있는 자는 호적상의 부모인 황제와 모후뿐이었다.

나이젤 코르벨라와 멜로디 코르벨라는 부고가 전해졌기에, 현재 계승권을 가진 생존한 황족은 로쉐 황후 소생의 데이모스 코르벨라, 카이산 코르벨라와 데이지 코르벨라뿐이었다.

데이모스는 카이산과 데이지의 황위 계승권을 완전히 말소시켜 버렸는데, 로쉐 발할라 황후의 인장이 증명으로 찍혔다.

데이모스는 이것에 의문을 표하는 신료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낸 뒤, 북성에 가둬 버렸다. 그 결과 누구도 그의 의견에 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많은 일이 몰아친 하루였다. 아들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것은 엉망이 된 침실이었다.

감히 서관이자 시종장의 침실을 보란 듯이 엉망으로 만든 것은 데이모스가 보내는 경고였다.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황제의 인장을 찾아내 승계를 받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아들러는 어금니를 물며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인장, 인장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이 황궁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황제의 전언이 떠올랐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저히 인장을 관리할 자신이 없어지면 데이지 코르벨라에게 그것을 맡기라던 말씀이 떠오른 아들러는 은밀히 데이지를 찾아갔다.

그의 방문에 깜짝 놀란 데이지에게 아들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황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잠시만요, 시종장. 도대체 얼굴이!”

데이지는 붕대를 감은 시종장을 충격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깨달았다는 듯 참담한 숨을 몰아쉬었다.

“데이모스, 그자의 짓이로군요.”

데이지는 더 이상 데이모스를 ‘오라버니’나 ‘전하’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카이산 오라버니를 수도 방위대와 함께 3곽으로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출발할 것이라던데, 괜찮은 건가요?”

아들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본대가 전멸한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죽으러 가라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데이지는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을까 봐 서둘러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데이지는 신중한 얼굴로 아들러를 채근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들러는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투박한 색의 그것을 손바닥에 올린 아들러는 조심스럽게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데이지의 눈이 화등잔만 하게 커졌다.

“시종장, 이것은!”

“황녀님, 현 섭정께서는 황위 자동 승계를 받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황녀님과 카이산 황자님의 계승권마저 박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섭정께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인장만 찍어 승계를 받으려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

“오늘 제 침실을 누군가 뒤졌습니다. 폐하께서는, 도저히 인장을 관리하기 힘든 순간이 온다면 이것을 황녀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폐하께서요?”

“네, 그렇습니다.”

“…….”

데이지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며 두 눈을 부릅떴다.

아들러의 두 손에 들린 검은 색의 묵직한 인장엔 시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데이지는 황제의 심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것을 숨죽인 채 응시하다가 천천히 받아 들었다.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가벼운 인장이 데이지의 손에 들어왔다.

데이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아들러를 바라보는 금빛 눈동자가 아주 단단한 빛을 띠었다.

그녀는 서둘러 아들러에게서 주머니를 넘겨받아 인장을 넣고 잘 동여매었다.

“이것을 어디에…….”

“아뇨, 황녀님. 그것은 저조차 모르게 하십시오.”

“…시종장.”

“저조차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들러는 데이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녀님.”

“아니에요.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줘요.”

용건을 마친 아들러는 주위를 살피며 서둘러 돌아갔고, 홀로 남겨진 데이지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고민에 잠겼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별안간 일어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벗어 던진 이후로 찾지 않았던 코르셋을 옷장에서 꺼낸 데이지는 재빨리 옷을 벗은 뒤 코르셋을 착용해 보았다.

이 답답한 것을 어떻게 입고 다녔나 싶을 만큼, 코르셋은 데이지의 허리를 조였다.

조이는 만큼 무언가를 넣는다면 흘러 빠지지 않을 것이다.

데이지는 황제의 인장을 자신의 코르셋 안에 집어넣었다. 탄탄한 코르셋 때문에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데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을 모조리 뒤진다 한들, 자신의 옷을 벗겨 검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는 데이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명예가 떨어진 황녀는 제값을 받고 팔아넘기기가 어려울 테니.

데이지는 두 눈을 꾹 감았다.

심장이 요란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문처럼 읊조렸다.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나이젤 오라버니, 멜로디. 제발 죽지 않았다고 좀 해 줘. 살아 있다고, 살아 있다고 제발 알려 줘.’

간절하게 소원하던 데이지는 불현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인장마저 마음대로 갈취하려 드는 폭군이 무언들 못 할까.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만 한다.

그녀는 서둘러 겉옷을 입은 후 궁을 박차고 달려 나갔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6)

아들러의 판단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시 자신의 침실로 돌아온 아들러를 무장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심이 만 하루도 안 되어 바닥난 데이모스는 아들러의 구속을 명했다.

북성으로 끌려간 아들러를 기다리는 것은 잔인한 고문이었다.

“서관 아들러를 당장 풀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베델 공작이 거칠게 항의하자, 데이모스는 그 즉시 황족 모독죄란 죄명의 씌워 그조차 북성에 가둬 버렸다.

“모든 일엔 명분과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명분과 절차를 무시하는 군주를 무어라 일컫는지 아십니까?”

그는 과연 카이사르 베델의 아버지였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광기에 젖은 섭정 앞에서 그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폭군이라 일컫습니다! 전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서관을 이유도 없이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베델 공작의 말에 데이모스는 결국 베델 공가의 모든 출입마저 통제해 버렸다. 폭군 앞에 명분과 절차는 의미가 없어졌다.

베델 공작의 거친 항의에도 아들러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었다. 그만큼 데이모스는 인장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입을 열었나?”

“그것이… 아직…….”

“뭐야?! 그까짓 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감히 선대 황제의 시종장이자 서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역사는 전무했다. 고문관들조차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였다.

“반드시 알아내. 알겠어?!”

그는 고문관들을 윽박지른 뒤, 축 늘어진 아들러의 목을 움켜잡았다.

“순순히 말하는 것이 좋을 거다. 알겠나?”

아들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침묵했다.

“말해!”

“쿨럭, 컥. 모…모릅니다.”

“서관인 네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야! 이 새끼가!”

데이모스는 광분하여 날뛰었다.

황궁의 북성에서는 그의 광기 어린 포효가 몇 차례나 더 울려 퍼졌다. 황궁의 시중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황제 우르바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데이모스의 패악질에 몸져 누웠던 로쉐 황후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제야 데이모스가 자신의 인장을 사용해 두 형제들의 계승권을 말소시켰다는 사실과, 서관 아들러 및 베델 공작을 북성에 가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잠시 말이 없던 로쉐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가슴 저 아래에서 불안한 것이 꿈틀거리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서둘러 목걸이를 꺼냈다.

작은 포켓을 열어 어린 데이모스의 초상화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로쉐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분신, 내 희망, 내 모든 것.”

비틀린 모정이었다.

“우리 데이모스는 말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던 아이다.”

시녀가 말없이 고개를 조아렸다.

“그런데 내가 그 애에게 그런 말투로, 그런 표정으로 매달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

“나를 밀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것이야.”

‘그랬다면 최소한 괜찮으신가 살피셨겠지요.’

시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를 밀친 것에 대해 스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을 게야.”

로쉐 황후는 최면을 걸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로쉐는 데이모스를 찾아갔다.

“섭정.”

로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으나, 데이모스는 그녀를 본체만체했다.

“섭정.”

로쉐가 섭정의 책상 바로 앞에 섰을 때에야, 데이모스는 시선을 들어 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끔하게 잘생긴 얼굴에 어제와 같은 광기는 보이지 않았다. 로쉐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아침은 먹었나요?”

“왜 오셨습니까?”

아침은 먹었느냐는 질문에 데이모스는 왜 왔느냐고 되물었다.

로쉐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혹시라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시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섭정.”

“마틸다 황후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셔도 일단은 참으세요. 그건 황제께서 승하하신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니.”

“…….”

“더 할 말이 없으면 나가십시오. 안 그래도 바쁘니 말입니다.”

데이모스는 신랄한 말투로 그렇게 쏘아붙인 뒤,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물었다.

“도, 도대체… 왜 내게 이러는 것이냐, 데이모스. 어미에게 왜…….”

그녀의 애달픈 말에 데이모스의 화가 별안간 치솟았다.

그는 쾅, 소리가 나게 책상을 내리치더니 야차같이 황후에게 달려왔다.

예측할 길 없는 분노의 폭발에 로쉐는 얼어붙었다.

데이모스는 어머니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

“태후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후가 되게 해드린다고요!”

“데이모스!”

“그걸 원하는 거잖아? 어머니, 당신도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잖아?! 나이젤? 뒈졌어! 뒈졌다고! 이제 죽은 새끼랑 나랑 비교할 셈이야?! 마틸다 황후? 황제만 죽어 버리면 내가 황궁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 준다고! 그럼,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어?!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냐고!”

“…….”

“외숙은, 당신이 직접 죽였잖아.”

로쉐의 금빛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데이모스는 그런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낄낄거렸다.

“하아, 정말. 어머니.”

“…….”

“나는 말이죠. 어머니, 당신의 그 눈이 싫어. 나이젤, 그 새끼랑 비교할 땐 한없이 싸늘하다가,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척하는 그 눈. 그 눈이 나를 미치게 만들지.”

“…….”

“내 안에 들끓는 불이 아무리 애를 써도 꺼지지가 않아! 내 안에 들끓는 용암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 답답한!”

데이모스는 입고 있던 재킷을 우악스럽게 벗어 던지고, 셔츠를 찢어 발겼다. 그 광기에 로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무슨 짓을 해도 더워. 아무리 해도 더워 미칠 것만 같단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가 이 미칠 것 같은 기분을 알아요?”

데이모스는 책상 위에 있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요란하게 컵을 내려놓은 그가 책상에 걸터앉더니, 연초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복사꽃 냄새가 섞인 그것은 로쉐도 익히 아는 것이었다. 그는 기어이 다시 그것에 손을 댔다.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자, 광기에 젖었던 금빛 눈동자가 일순 몽롱하게 변했다.

“하아…….”

길게 뱉는 숨에 자욱한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공중에서 흩어졌다.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여기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로쉐는 결국 덜덜 떨리는 걸음으로 섭정의 집무실을 벗어났다.

카이산의 출전을 막아 볼 요량으로 왔던 길이건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발할라 후작의 말처럼, 그녀는 데이모스의 목줄을 쥐지 못했다.

로쉐 황후가 앉았던 자리를 가만히 노려보던 데이모스는 연달아 연초를 두 개비나 태운 뒤, 엉망이 된 상복을 새로 갈아입었다.

그는 홀로 바빴다.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중이었다. 황제의 인장을 찾는 작업 역시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는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궁의 모든 곳을 뒤졌다. 마틸다 황후와 로쉐 황후, 데이지의 궁을 비롯해 황제의 침실마저 예외는 아니었다.

샅샅이 뒤져 반드시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린 데이모스는 이윽고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데이모스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재정청이었다.

권력을 장악하려면 두 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군권력이며, 나머지 하나는 경제력이다.

전자는 비상 상황을 선포함으로써 획득하였고, 남은 것은 후자였다.

재무대신 리암 벨로르가는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섭정이 여러 차례 바뀐 탓에 아직까지 재무대신의 자리는 공석이었다.

데이모스는 무장한 병사들을 대동한 채 재무대신의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업무를 보고 있던 아쉬 타하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이모스는 놀란 기색이 없는 아쉬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차분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데이모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나?”

“연락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예, 전하.”

가만히 아쉬를 바라보던 데이모스가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기대며 명령했다.

“데이지를 불러와라.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왔는데, 건방진 것이 인사할 줄도 몰라.”

그 말에 아쉬는 싸늘한 시선을 감추며 시종에게 눈짓했다.

데이모스는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쉬를 물끄러미 보다가 은근하게 속삭였다.

“리암 벨로르가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재무대신의 자리가 공석이라던데.”

“그렇습니다.”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볼 생각은 없나?”

“인사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닌가. 앉아 볼 생각 없나?”

“…….”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데이모스가 싱긋 웃더니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남은 예산 총액, 모두 가져와 봐.”

그 악마 같은 속삭임에 아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간밤, 데이지가 급하게 그를 찾아왔었다. 아쉬는 최근 몇 달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궁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온 데이지가 다급한 얼굴로 말했다.

“섭정 데이모스는 분명 남은 예산 총액을 탈취하려 들 거예요. 서류를 재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수로 서류를 재작성한단 말입니까. 이미 완결된 서류들입니다. 재작성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인장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서기관님은 걱정 마시고 서류만 다시 준비해 주세요. 인장은 제가 알아서 해 올 테니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재작성했다.

아쉬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상대가 도박판에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진한 데이모스다 보니, 황녀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국고를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했다. 이런 시국에 국고마저 비어 버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믿지 못할 부고가 연이어 들려온 탓에 과연 데이모스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암울한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아직 우르바시 황제께서 승하하신 것이 아니므로, 아쉬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재작성된 서류 더미를 전달받은 데이지는 잠시 사라졌다가 이내 황제의 인장을 모조리 찍어 왔다.

도대체 어떻게 찍은 것이냐고 물었으나, 끝끝내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위조된 서류가 이토록 빨리 사용될 줄은 아쉬도 예상치 못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서류를 차분하게 데이모스 앞에 내려놓았다.

데이모스는 다리를 꼬며 서류를 집어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살피던 그는 빠르게 몇 장을 넘기더니, 곧 얼굴을 와락 구겼다.

서류를 세게 움켜쥔 그가 몸을 일으키며 벼락같이 노성을 지르려던 찰나, 집무실의 문이 열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7)

침착한 태도로 집무실에 들어선 데이지는 붉으락푸르락 변한 데이모스의 얼굴을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섭정 전하.”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태도에 데이모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묘한 시선으로 데이지와 아쉬를 번갈아 쳐다보던 데이모스는 품을 뒤져 연초를 하나 꺼냈다. 그러고는 연초에 불을 붙이며 눈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네.”

데이지는 데이모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

두려움에 숨죽이며 그의 눈치를 본 세월이 그녀의 인생 절반을 훌쩍 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주 작은 것으로 무너졌던 그녀는, 이제 아주 작은 것으로도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데이지는 숨을 가다듬으며 두 손을 배 앞에서 모아 포갰다.

단단한 인장이 손바닥에 느껴지자, 마치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만 같았다.

데이모스는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자, 다시 시선을 서류로 돌렸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를 냈다.

“총액이 이게 다야?”

“갑작스러운 사병 육성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데이모스는 입술을 짓씹었다.

그는 맹랑한 데이지와 아쉬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대놓고 난동을 부릴 작정이었다.

설마하니 탈취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데이모스는 신경질적으로 증명이 될 만한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서류는 앞뒤가 딱딱 들어맞았다. 단돈 은화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어금니를 세게 짓씹은 데이모스는 짜증 섞인 손길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완벽한 서류에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남은 예산 총액을 섭정 명의로 돌려놓아라.”

아쉬와 데이지는 그 말에 공손히 고개를 조아렸다.

“예, 전하.”

이 순순하고 고분고분한 태도에 데이모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뭔지 모를 찝찝함이 관자놀이를 긁어 댔지만, 고분고분하다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했다.

데이모스는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

집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데이지와 아쉬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누구도 대안이 없다면… 그땐 어찌합니까.”

아쉬의 물음에 데이지의 눈이 어두워졌다. 불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걷는 심정이었다.

데이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바람처럼 속삭였다.

“올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바람인지 그도, 그녀도 모르지 않았다.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서기관님은 황궁을 빠져나가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시한 서류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지면 두 사람 모두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어디 추궁뿐이겠는가?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데이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 \* \*

그리고 그날 정오, 임시로 꾸려진 군대와 함께 카이산 코르벨라가 3곽 조사 및 탈환을 위해 출전하였다.

2군단장 로벨 루치는 ‘이것은 죽으러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으나, 막을 방법이 없었다.

\* \* \*

완벽하게 승리한 전쟁이란 없다. 코르벨라는 자국의 영토를 지켜 내는 데 성공했으나,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 적군과 아군의 시신이 산을 이뤘고, 피가 강을 이뤘다.

전서구를 통해 전해진 황궁 상황에 대해 듣던 멜로디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제록스 3곽이 적군의 손에 넘어갔으며, 섭정을 비롯한 아군 전체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황궁에 전해졌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낸 지원 요청은 받은 바가 없고.”

“네, 전하.”

“이런!”

“이것은 반역입니다!”

데니스 그라스와 다니엘 그라스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분통을 터뜨렸다.

“데이모스 코르벨라는 홀로 생환했다?”

“예. 수도엔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전해졌으므로, 자동승계법에 따라 생환하신 데이모스 황자님께서 섭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상 상황임이 선포되었으며, 실은 5군단에도 출전 금지 및 성벽 방어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깊은 한숨을 몰아 쉰 멜로디가 우직하게 앉아 있는 마츠 마이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것이로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맙네.”

“저… 그런데 나이젤 황자님께서는…….”

마츠 마이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멜로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루카스 모데라토, 기억하나?”

그의 머리를 일격에 날려 버렸던 데니스 그라스가 침통한 어조로 묻자, 마츠 마이어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데니스 그라스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마츠 마이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멜로디는 신중하게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블라디미르 국경 지대를 몰래 통과해 들어온 오르센군, 갑작스럽게 오른 4군성의 봉화, 보낸 적 없는 전령.”

“그 이전부터 전령 체계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지적에 멜로디는 숨을 고르며 눈을 꾹 눌러 감았다.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안간힘을 썼구나.”

침통한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배신자들의 손에 황좌를 쥐여 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어찌할 셈이오?”

아뷔브 일족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제럴드가 물었다.

세 군단장은 이 신비로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으나, 감히 묻지 못했다.

멜로디는 잠시 입술을 말아 물며 생각을 정리한 뒤, 단호하고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5군단의 병력을 반으로 나눈다. 3군단장, 5군 병력의 절반을 데리고 이곳을 사수하라. 5군단장은 홀로 은밀히 5군성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고 대기하라. 4군단장, 5군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 지금 당장 블라디미르 국경으로 가라. 배신자들을 색출해서 구속하고 블라디미르 국경 지대를 원천 봉쇄하라.”

그녀는 카이사르를 바라보았다.

“사령관.”

“네, 전하.”

“그대는 나와 아뷔브 산맥을 통과해 수도로 향하다가, 6군성에 은밀히 잠입하여 6군단을 이끌고 수도 밖 광야 지대에서 대기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멜로디는 신중히 고민했다. 그녀는 산맥을 손으로 짚어 가며 찬찬히 날짜를 헤아렸다.

“가장 빠르게 수도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소?”

“군대 없이, 단독으로?”

“그렇소.”

제럴드는 아뷔브 산맥을 손으로 짚어 가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윽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3일하고도 절반.”

그의 단호한 말에 멜로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전달할 만한 빠른 사람 둘, 구해 주실 수 있겠소?”

“물론이오. 기다리시오.”

제럴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일족에 널렸다며 재빨리 막사 밖으로 나갔다.

멜로디는 곧장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윽고 일족 두 사람이 들어오자, 멜로디는 두 개의 편지를 각각 맡기며 말했다.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 하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이것은 황궁의 데이지 코르벨라에게, 다른 하나는 베델 공가의 공작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전해 주게.”

멜로디의 편지를 품에 넣은 두 사람은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긴 뒤 재빨리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멜로디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황좌를 탈취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 \* \*

리아나는 품에 안은 남자를 자꾸만 내려다보았다. 거칠던 숨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더니, 이젠 너무나 미약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오드를 그에게 불어넣었다. 차갑게 식어 가던 몸이 잠시 따뜻해졌다가 이내 식어 버리기를 반복했다.

“나이젤, 나이젤!”

리아나는 대답 없는 그를 몇 번이나 불렀다.

대체 무슨 독일까?

오드로 상처 부분을 최대한 막아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더 빨리 달려 줘!”

리아나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홀리를 더욱 채근했다.

\* \* \*

한편, 카이산 코르벨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의 등불, 외숙 그렌트 발할라는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처럼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흔적을 뒤지던 중 발할라 가문의 여름 별장이 전소했으며, 그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몇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카이산은 누군가 숨통을 틀어막기라도 한 것처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어, 도저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허,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를 기사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단 한 번의 참전 경험도 없는 선봉장이라니.

2군단 소속 사단장과 여단장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카이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카이산을 선봉으로 한 조사단은 이른 아침 수도를 떠나 제록스 3곽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충분한 병력도 없이 막연히 3곽을 조사 및 탈환하라는 말은 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다.

카이산은 내리쬐는 여름 햇살 아래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을 호소하며, 몇 킬로미터 가지 못하고 쉬기를 반복했다.

“죽을 것 같구나.”

2군 1사단장은 그늘에 주저앉아 연신 냉수를 들이켜는 그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카이산은 까마득한 지평선을 눈에 담았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외숙은 돌아가신 것일까?

그래, 돌아가셨을 것이다. 살아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야.

누가 죽였을까? 그토록 강인하던 외숙을.

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 그가 죽였을 것이다. 마치 후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던가.

카이산에게 데이모스가 내린 명령 역시 죽음이었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황자님!”

2군 1사단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카이산은 이미 그의 반응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목을 옥죄는 무거운 갑옷을 우악스럽게 잡아 뜯듯 벗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야.”

선봉에 선 카이산의 끔찍한 말에 뒤따르던 기사들과 병사들이 술렁였다.

“나는, 나는… 죽기 싫다.”

카이산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와 고통이었다.

그는 초조하게 제자리를 서성이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에게서 데이모스와는 또 다른 광기가 보였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어디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지?!

카이산은 번뜩, 한 곳을 떠올렸다.

“그곳으로 가야겠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8)

“황자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사단장의 물음에도 카이산은 답하지 않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방향을 헤아렸다.

그러다 잘 모르겠는지, 사단장을 돌아보며 다급히 물었다.

“발할라 성으로 갈 것이다! 어디로 가야 그곳이 나오느냐?! 어서 앞장서거라!”

“하지만 섭정 전하께서 내리신 명령은…….”

“시끄러워! 당장 발할라 성으로 갈 것이니 앞장서라!”

카이산은 광기에 젖은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다.

인간의 본성은 한 줌의 빛마저 사라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카이산의 본성이 죽음의 위기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사단장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끔찍한 상황이었다.

“당장 나를 발할라 성으로 안내하란 말이다!”

카이산의 발악에 사단장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가늠하여 발할라 성이 있는 곳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가서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곳은 요새이니 가능해, 가능하다. 숨어 있으면 될 거야. 그래, 그러면 된다.”

카이산 코르벨라는 정신을 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말을 몰았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 길을 걷는 기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라가… 망해 가는 것 같군.”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어쩌다가…….”

\* \* \*

럭셀로 후작, 아리안 후작, 보뱅 공작을 비롯한 중신들은 코르벨라 궁의 홀을 지키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섭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데이모스 코르벨라는 그들의 면담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나, 중신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어찌하여 면담 요청을 거절하십니까!”

아리안 후작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의 외침이 코르벨라 궁의 웅장한 아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섭정께서는 우리의 면담 요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럭셀로 후작이 뒤이어 외치자, 뒤에 늘어선 중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베델 공작과 서관 아들러를 석방하십시오! 또한 서관 아들러에 대한 잔인한 고문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제록스 3곽 이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하시고, 우리의 땅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이젤 황자님과 베델 소공작 내외의 시신을 찾아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셔야 합니다! 코르벨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십시오!”

“섭정!”

중신들의 묵직한 외침이 황제의 궁을 뒤흔들자, 계속 무시하던 데이모스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섭정!”

누군가 섭정을 외치자, 귀를 틀어막고 있던 데이모스가 그대로 책상을 거세게 내리쳤다. 그 바람에 잉크병이 넘어져 책상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감히, 감히!”

데이모스는 집무실을 박차고 나와 중신들이 모여 있는 홀로 달려갔다.

그가 2층 난간에 모습을 드러내자, 한마디씩 의견을 내던 중신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섭정과 중신들의 팽팽한 대치에 시종들과 기사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데이모스의 금빛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다.

보뱅 공작은 어깨와 가슴을 반듯하게 편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크게 외쳤다.

“어찌하여 이제야 모습을 보이십니까!”

“뭐라?”

“제아무리 황제라 한들,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드시다니요!”

“비상 상황이잖소!”

데이모스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으나, 보뱅 공작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마틸다 황후는 앓아누워 식음을 전폐했고, 나이젤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고작 저 정도의 외침에 두려워 떨기엔, 보뱅 공가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럼 이해 가능한 명령을 내리셔야지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를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데이모스는 찢어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보뱅 공작을 노려보았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꺾으며 홀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왔다.

코르벨라의 심장, 권력의 핵. 이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인데.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신인데.

데이모스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걸음을 옮겼다.

보뱅 공작은 그런 그를 마주 보며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데이모스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마가 보뱅 공작의 이마에 닿을 때까지 계속 걸었다.

무례한 행동에 중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으나, 데이모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 무엇이?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오?”

“지금 섭정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당장 베델 공과 아들러를 석방하십시오.”

“죄명도 못 들었나? 황족 모독죄요!”

“그들이 한 어떤 행동이 황족 모독이란 말입니까?”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아리안 후작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직언을 하는 신하를 모독죄로 취급하시는 것은, 폭군이 되시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럭셀로 후작도 한 걸음 다가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인장 관리 문제로 서관 아들러를 고문 중이라 들었습니다! 서관의 고유 권한을 마음대로 탈취하려 드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에 항의하는 베델 공을 모독죄로 북성에 계속 가두시겠다면, 이곳에 있는 중신 모두를 함께 가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할라 후작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그의 행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데이모스는 양쪽에서 몰아치는 중신들의 다그침에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황제 우르바시와 함께 국사를 논하던 제국의 중신들이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아버지, 황제를 대할 때 그들은 정중했었는데.

그가 본 중신들의 모습은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던 것이었는데.

가만. 섭정 나이젤 앞에서 이들은 어떠했지? 감히 그 앞에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 항의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데이모스는 눈을 꾹 눌러 감으며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아… 나라서, 내가 섭정이라 다들 이렇게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게로군.”

한숨처럼 중얼거리는 말에 중신들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 다들 나라서 무시를 하는 거야. 위대한 내 아버지 황제 폐하와 나이젤 그 새끼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던 네놈들이!”

중얼거리던 데이모스는 종국엔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러 댔다.

그의 고함 소리에 아치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잘게 흔들릴 정도였다.

럭셀로 후작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제정신이다!”

“섭정 전하!”

데이모스는 본때를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두를 북성에 가두어라!”

“섭정 전하!”

“왜? 북성에 가두라니 이제 와 두려운가?! 감히 신하란 것들이 황제가 될 섭정에게 이따위로 몰려와 어깃장을 놓은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본때를 보여주마! 뭣들 하느냐?! 당장 이자들을 북성에 가두란 말이 들리지 않느냐!”

홀에 모인 중신들만 어림잡아 스물이 넘는다. 대부분이 중요 가문의 가주들이며, 나라의 요직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는 신료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모두 북성에 가두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아리안 후작은 정말 황당하다는 얼굴로 데이모스에게 물었다.

“지금 이곳의 모두를 북성에 가두시겠단 말씀이십니까?”

“못 할 것 같소?”

“우리를 모두 가두면, 전하의 권위가 더 오롯이 설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데이모스는 그의 물음에 살기등등한 시선으로 답했다.

“지금이라도 내게 고개를 숙이고 사죄한다면 없던 일로 해 주지.”

몇몇 중신들이 탄식하며 눈을 감았다.

아리안 후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 몸을 돌렸다.

“제 발로 북성으로 가겠습니다, 전하. 한데 이 많은 중신들을 감금할 방이 남았을지 모르겠군요.”

그가 몸을 돌려 걸어 나가자 다음은 보뱅 공작이, 이어서 럭셀로 후작마저 몸을 돌려 북성으로 향했다.

“그럼 저도.”

“저도 제 발로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데이모스는 당황하여 눈을 크게 치떴다.

스물이 넘는 중신들이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홀을 나가 버리자, 텅 빈 홀에 홀로 남은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우왕좌왕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볼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누구든 황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젤, 그가 앉아 있을 땐 그 어떤 것보다도 쉬워 보였던 자리건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데이모스의 격노는 인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인장이 없어서, 인장이 없어서 나를 섭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데이모스는 황제의 인장을 허락받지 못해, 모든 문서에 자신의 서명으로 인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가 처리한 문서는 완결이 아닌 미완결 서류로 분류되었다.

그는 쉴 새 없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애꿎은 시종들에게 화를 풀었다.

보다못해 달려온 로쉐 황후에게도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다.

재정 문제로 아쉬가 아닌 데이지를 지명해 집무실로 불러들인 데이모스는 끝내 데이지에게까지 화풀이를 했다.

“너, 인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제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진짜 모른다?”

데이지는 시선을 내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데이모스의 광기가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힐끗 살핀 섭정의 책상에는 막대한 양의 서류가 이리저리 쌓여 있었다.

모든 중신들을 북성에 가둔 결과였다. 각계의 결정권자가 사라지자, 결국 모든 서류가 섭정에게 몰리게 된 것이다.

“예, 모릅니다.”

그녀의 고분고분한 태도에 데이모스는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시선을 내리고 있는 데이지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속삭였다.

“너도 내가 섭정인 것이 못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아닙니다.”

“아니긴. 네가 아무리 고분고분한 척하고 있다고 해도 내 눈엔 다 보인다. 지금도 참고 있잖아?”

“…….”

“불쌍하고 어리석은 데이지. 멍청한 데이지.”

데이지는 눈을 감고 침착하게 숨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네가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그 누구도 말이다.”

“…….”

“네 혼처 자리를 금방 찾아 줄 테니 결혼해서 죽은 듯이 살아. 네까짓 것이 재정청 관료랍시고 이리 다니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를 거다.”

데이지는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어. 네가 아무리 나를 하찮게 여겨도 나는 하찮지 않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데이지 코르벨라. 네가 만일 남자였다면…….”

데이모스가 서늘한 손으로 데이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숨이 막힐 만큼 세게 쥔 것이 아님에도 위협적인 손길에 데이지는 급히 숨을 들이마셨다.

데이모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카이산보다 너를 먼저 죽였을 것이다.”

데이모스는 느긋하게 손을 풀며 데이지의 뺨을 한 번 쓰다듬었다.

뺨에서 떨어진 손이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짝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뺨을 내리치며 움켜쥐는 통에, 데이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뺨이 붉게 변했다.

“데이지 코르벨라, 인장을 찾아와라.”

“전하께서도 못 찾으시는 것을 어찌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지는 붉어진 뺨으로 악에 받쳐 으르렁댔고, 데이모스는 여유롭게 웃으며 세게 쥐고 있던 그녀의 뺨을 놓아 주었다.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쩐지… 어쩐지 네가 알고 있을 것만 같구나.”

“…….”

“가 봐.”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19)

데이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입술을 세게 짓씹으며 섭정의 집무실을 박차고 나온 데이지는 잠시 방황하다 결국 황제의 침실로 달려갔다.

침실을 관리하는 이들은 눈 밑이 거무죽죽해져 있었다. 아들러가 잠시도 황제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말을 남긴 채 북성으로 끌려가 버린 탓에, 황제의 직속 시종들은 필사적으로 황제를 지켜 내고 있었다.

“황녀님, 뺨이!”

시종 한 사람이 놀라 데이지에게 달려왔으나, 데이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황제를 바라보았다.

“폐하와 독대를 하고 싶은데.”

“오래는 곤란합니다.”

“잠시면… 잠시면 돼.”

이윽고 시종들이 모두 자리를 비켜 주자, 데이지는 무너질 듯한 걸음으로 황제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몰아쉰 데이지는 인장을 매만졌다.

“아버지.”

“…….”

“일어나세요.”

“…….”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테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마시고,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감은 데이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빛도 길도 없는 칠흑 같은 산길을 걷는 것같이 막막했다.

잠시 그렇게 숨을 가다듬은 데이지는 아버지의 손을 한 번 세게 쥔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대충 손으로 정리한 그녀는 눈물 자국을 닦아 낸 뒤 침실을 나섰다.

문이 달칵 열리며 시종들이 다시 들어온 그 순간, 황제의 눈썹이 잠시 파르르 떨렸다.

\* \* \*

베델 공작과 서관 아들러를 비롯한 다수의 중신들이 황궁 북성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남편이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각자 베델 공가로 향했다.

막연히 떠오른 사람이 베델 공부인뿐이라 일단 공가로 오긴 했는데, 막상 오고 보니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 방문이라 무척이나 난감했다.

베델 공부인이야말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식 부부의 부고를 들음과 동시에 남편마저 북성에 감금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몇몇 부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무례를 깨닫고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다.

“공부인께 아뢰지 말게. 내가 너무 무례하게 찾아뵈었네.”

럭셀로 후작 부인이 그리 말한 뒤 몸을 돌리자, 때마침 공저를 찾았던 다른 부인들도 각기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몸을 돌렸다.

“잠시만.”

공저의 정문을 나서려던 부인들은 뒤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안이 서두름 없는 차분한 걸음으로 그녀들에게 다가왔다.

럭셀로 후작 부인이 대표로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안은 사사로이는 올케가 되는 럭셀로 후작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어찌하여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까?”

“다급하니 떠오르는 분이 공부인뿐이라 이미 무례하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셔야지요. 예까지 왔다 그냥 가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그녀는 다른 부인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다들 들어오세요.”

베델 공저는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웃음은 사라졌으나, 그렇다고 절망과 우울함이 가득하지도 않았다.

후계 부부가 전사하고, 가주마저 감금당한 가문의 분위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이안 럭셀로 베델이 집안을 다스리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무너짐 없이 스스로와 집안을 단속하며, 공작이 해 오던 가문의 일들을 홀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부인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이 부끄러워져서 서둘러 얼굴을 닦아 냈다.

이안은 부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했다.

“드세요. 입맛이 없더라도 뭐든 먹어야 지켜 낼 힘도 나는 법입니다.”

“예, 부인.”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셨다고요.”

부인들은 이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은 이안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앞다투어 어떻게 중신들을 모조리 가둘 수가 있냐 한탄하며, 어떻게 하면 남편을 빼낼 수 있을지 물었다.

그러나 사실 이안이라고 뾰족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저라고 어찌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두려움에 잠식되어 떨고 있으면 찰나의 순간 지나가는 해답마저 볼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 떨고, 슬픔에 젖어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모스 섭정께서 그대로 황제가 되시면요? 지금 상황으론 그리되지 않겠습니까?”

“제아무리 황제가 대단하다 한들, 중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생사에 대한 걱정은 넣어 두세요.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 저는 제 두 눈으로 본 것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으니 불어오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단 말입니다.”

이안은 또렷한 눈빛으로 부인들과 차례차례 시선을 맞추었다.

단단한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부인들은 크게 심호흡을 하여 스스로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네, 부인. 알겠습니다.”

“차분히 주위를 살피세요. 언제나 그랬듯, 이 순간에도 해답은 우리 주변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윽고 부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안도 그녀들을 배웅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정문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한 이안은 한참이나 먹먹한 가슴을 가라앉히려 애를 썼다.

잠시만 방심해도 가슴이 새카맣게 물들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새카맣게 물든 자리에서 시뻘건 피가 배어 나올 듯했다.

목구멍을 태울 것처럼 뜨거운 울분이 치밀자, 이안은 입술을 세게 짓씹으며 그것을 내리눌렀다.

뜨거운 한숨과 함께 가까스로 가슴을 식힌 이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조용히 침실의 문을 닫고 돌아서던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눈을 치떴다.

“누구냐?!”

그녀의 침실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다.

오랜 시간 거친 황야를 달린 듯한 몰골의 남자가 두건을 벗자, 이안은 부들부들 떨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더러워진 얼굴 사이에서도 새파랗게 빛나는 눈동자가 아주 익숙했다. 세상의 모든 파랑을 집어삼킨 듯 선명한 파란 눈동자에 이안은 곧바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내게 멜로디와 카이사르의 소식을 전하러 온 건가요?!”

이안의 다급한 물음에 남자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살아 있나요? 살아 있어요? 제발, 제발 살아 있다고 말해 주세요.”

그녀는 덜덜 떠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진정하시오.”

남자는 서둘러 품에서 멜로디의 편지를 꺼내 그녀에게 전달했다.

“둘 다 살아 있소.”

편지를 두 손에 쥔 이안은 그 한마디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필사적으로 버티던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한마디의 말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이안은 손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오열했다.

일족은 잠시 당황해서 머뭇거리다가, 주저앉아 우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렇게 참아 왔던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이윽고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아 낸 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맙습니다.”

이안은 일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 뒤 편지를 펼쳤다.

편지 첫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부고가 전해진 것으로 압니다. 저와 카이사르, 둘 다 모두 건강하게 살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안은 편지에 얼굴을 묻고 끝없는 감사를 보내다, 혹여 잉크가 눈물에 번지기라도 할까 서둘러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 가며 편지를 꼼꼼하게 읽었다.

시간이 촉박했던지, 미사여구도 없이 간결한 상황 설명만 적혀 있었다.

이안의 눈물은 편지의 끝으로 시선이 갈수록 말라 갔다.

이윽고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쉰 뒤에 편지를 가져온 일족을 바라보았다.

“그럼 멜로디, 아니…….”

이안은 떨리는 가슴을 꾹 눌러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다.

“섭정 전하께서는 언제 수도로 오시나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틀 후일 것이오.”

“이틀.”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품에 잘 넣었다.

“고생 많았어요. 쉴 곳을 내어드릴 테니 충분히 쉬다 가세요.”

“아니오. 황궁의 데이지 황녀에게 편지를 전달한 일족을 만나야 하오.”

“데이지 황녀? 섭정께서 황녀님께도 편지를 보내셨단 말인가요?”

“그렇소.”

“또 다른 이에게 보낸 것은 없나요?”

“내가 알기론 없소.”

이안은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제안했다.

“급한 일이 없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함께 온 일족과 함께 이곳에서 머물러도 좋아요. 에르데, 슈테언, 메어, 발트, 블라우, 이지스도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답니다.”

자연스럽게 호명되는 일족의 이름에 남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호오. 그들도 이곳에 머물렀단 말이오?”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족은 아까와 달리 흔쾌히 그녀의 제안에 응했다.

“이곳은 멜로디의 집이니, 멜로디의 친구들이라면 언제 어느 때든 환영입니다.”

\* \* \*

한편, 또 다른 일족도 어렵지 않게 데이지의 침실에 잠입했다.

지친 얼굴로 잠시 침실에 돌아왔던 데이지는 낯선 이의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다.

일족은 당황하여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데이지가 거세게 저항하자, 일족은 얼굴을 가렸던 두건을 벗으며 다급히 말했다.

“멜로디가 보내서 왔소!”

온몸을 버둥거리며 저항하던 데이지가 멜로디라는 말에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녀가 움직임을 멈추자, 일족은 그녀의 입에서 손을 떼며 사과를 건넸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데이지가 다급히 물었다.

“멜로디가 살아 있나요?”

“그렇소.”

“……!”

데이지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다.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왔소.”

일족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자, 데이지는 서둘러 편지를 받아 펼쳤다.

그러고는 숨도 쉬지 않고 편지를 읽어 내렸다.

미사여구조차 없는 간결한 편지였으나, 그 무엇보다도 반가워서 데이지는 편지를 소중하게 쥐었다.

한 줌의 빛도 없는 칠흑 같은 길에서 선명하게 반짝이는 별을 본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입술이 달달 떨렸다.

“나이젤 전하께서는 돌아가신 건가요?”

“본 바가 없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소만,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섭정이란 자리를 멜로디에게 위임했다는 것만 아오.”

“…그럼, 그럼 멜로디는, 아니, 섭정께서는 언제 궁에 도착하시나요?”

“대략 이틀 후면 도착할 것이오.”

“이틀, 이틀이라.”

자리에서 서성이며 날짜를 헤아리던 그녀가 불현듯 물었다.

“이 소식을 나 외에 또 누가 알죠?”

“베델 공가의 공작 부부 중 한 사람에게도 편지가 전해졌소.”

이 소식을 데이모스가 알게 되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섭정의 귀환을 막으려 들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군요. 전해 줘서 고마워요.”

“그럼.”

일족은 소리 없이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데이지의 침실을 빠져나갔다.

데이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의 금빛 눈동자가 침착하게 가라앉았다.

‘자, 지금부터 신중해야 해. 데이지 코르벨라.’

데이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0)

데이지와 이안에게 은밀한 편지가 전해진 그 무렵, 데이모스에게도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뭐라!”

그는 책상을 거세게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카이산 코르벨라가 발할라 성으로 회군했다고?!”

“예, 전하.”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회군을 해?!”

데이모스는 늘 화가 나 있었다. 섭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으나, 그 자리에 앉은 후 그는 더욱 화가 많이 났다.

끝도 없이 밀어닥치는 서류 더미에, 이젠 종이와 잉크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치밀 지경이었고, 때론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렸다.

모진 고문에도 서관 아들러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인장은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신료들은 아들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섭정인 자신을 비난하며 제 발로 북성에 들어가 버렸다.

이 와중에 카이산 코르벨라의 회군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으아아아아아악!”

데이모스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씩씩댔다.

“이 김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 주마. 뭐? 감히 회군을 해? 내 군사들을 제멋대로 이끌고서?!”

“…….”

“이것이 반역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데이모스는 손을 덜덜 떨며 품에서 연초를 찾아 입에 물었다.

“로쉐 황후 폐하, 로쉐 황후 폐하를 불러와라. 지금 당장!”

그는 비명 같은 명령에 시종은 황급히 집무실을 벗어나 로쉐 황후의 궁으로 내달렸다.

데이모스는 또 다른 시종을 불러 명했다.

“2군단장 로벨 루치에게 가서 수도에 있는 모든 2군 병력을 무장시키라고 전해라. 내, 직접 반역자를 처분하러 갈 것이다.”

손을 덜덜 떨며 연달아 두 번째 연초에 불을 붙이는 데이모스는, 그의 인생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해 보였다.

잠시 후 한달음에 달려온 로쉐는 방 안에 자욱한 복사꽃 냄새에 숨을 참으며 직접 창문을 열었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섭정, 섭정.”

눈 밑이 검게 변한 상태로 연신 연초를 피워 대던 데이모스가 눈앞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거친 손길로 쓸어넘기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요.”

“제가 없는 동안 황궁을 좀 지켜 주셔야겠습니다.”

“없는 동안이라니요?”

데이모스는 연초를 비벼 끈 뒤,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는 소매로 입가를 훔친 뒤, 대답 대신 벽에 걸린 검을 집어 들었다.

“섭정?”

그 모습에 불안해진 로쉐의 음성이 잘게 떨렸다.

“반역자를 처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반역자라뇨?”

“카이산 코르벨라가 제 명을 어기고 회군했다 합니다.”

“……!”

“감히 제 명을 어기고 발할라 성으로 회군해 문을 걸어 잠그다니. 명백한 반역이 아닙니까!”

“서, 섭정!”

로쉐는 부들부들 떨리는 숨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데이모스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이 어미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예? 노여움을 거두세요. 말했잖습니까? 카이산이 워낙 겁이 많아 그런 것입니다. 반역이라니요? 감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할 못난 녀석이에요. 어미가, 직접 다녀올 테니…….”

“직접 가서 죽여 주실 겁니까?”

“…….”

“못 하시겠지요?”

“데이모스…….”

“생각해 보세요. 저 북성에 가둔 중신들, 그 중신들도 외숙처럼 모두 카이산에게 붙을 겁니다. 모두가 카이산에게 붙을 거예요. 절 끌어내리려 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할라 성에 숨어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고요!”

“…….”

“모두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내가 어떻게 코르벨라의 이름을 가진 카이산을 그대로 살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계승권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는 무엇도 될 수 없어요…….”

“아니, 아닙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도… 데이지도…….”

자리가 주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데이모스는 그 자리에 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로쉐가 울며 매달리려던 그때, 시종이 다급히 뛰어 들어와 2군단장 로벨 루치가 그를 만나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발할라의 사병들을 황궁에 들여 놓으세요. 이미 서류도 다 만들어 두었으니 발할라의 사병으로 황궁을 지키고! 이 자리, 내 자리를 단단히 쥐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섭정!”

데이모스는 로쉐의 울음 섞인 부름을 무시하며 검을 들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로쉐는 황망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너, 너도… 지옥으로 갈 거…다…….”

빌어먹을 그렌트 발할라의 마지막 저주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의 저주가 그대로 로쉐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끝도 없는 지옥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2군단장 로벨 루치는 코르벨라 궁 밖에 서 있었다. 데이모스는 한 손에 검을 쥔 채 그를 향해 악귀같이 달려왔다.

로벨 루치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배에 힘을 단단히 주었다.

“출전 준비를 하랬더니, 이 꼴로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전하, 출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라?”

“현재 2군단은 수도 방위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군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나가신다면, 수도가 텅 비게 됩니다.”

“임시로 발할라의 사병을 배치해 두었다. 그들로 그 공백을 메꾸면 될 것 아니냐.”

“더불어 이 시국에 내전이라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2군단의 병력 일부가 카이산 전하와 함께 출전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로벨 루치의 말에 데이모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카이산, 그 자식이 어떤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더 주라고?

데이모스는 별안간 웃음을 갈무리하며 위험한 눈빛으로 로벨을 노려보았다.

“명령권자는 나다. 나는 네놈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없어.”

“전하.”

“감히 군단장 따위가 말이 많구나. 어서 돌아가서 군장이나 싸라. 딱 30분 주지. 30분 후, 우리는 발할라 성으로 향한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을…….”

안타깝게도 로벨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폭발적으로 튀어나온 폭력성이 그대로 로벨을 가격했다. 데이모스는 검집으로 사정없이 로벨을 후려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명령권자는, 나다! 네놈이, 아니라!”

로벨 루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데이모스는 그럴수록 더 화가 나 우악스럽게 검집을 휘둘러 댔다.

“크윽.”

목덜미를 가격당한 로벨이 쓰러지자, 데이모스는 급기야 그를 발로 밟기 시작했다.

“전하!”

로벨을 따라온 사단장과 여단장들이 데이모스를 말렸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분이 풀릴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이 흐른 후에야 그는 발길질을 멈추었다.

로벨의 상태는 처참했다.

“이런, 씨.”

한참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데이모스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너, 2군단장. 너를 최하위 병사로 강등한다. 말에 탈 생각 말고, 네 발로 걸어서 따라와라. 사단장이 누구냐?”

로벨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2군 2사단장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너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네놈이 2군단장이다. 알겠어?”

“…….”

“30분, 딱 30분 후에 발할라 성으로 진군한다.”

“…….”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저 새끼도 반드시 끌고 와라. 섭정의 명이다.”

엉망이 되어 버린 로벨 루치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명령을 내린 데이모스가 궁으로 들어가자, 사단장과 여단장들은 이를 악물며 로벨을 부축해 일으켰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군단장님.”

“…….”

로벨 루치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삼켰다. 그러나 별수 없었다.

현재 군의 최고 통솔권자는 데이모스 코르벨라였다. 군인의 신분으로 그의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다.

잠시 뒤, 데이모스는 남은 2군단 전원을 이끌고 발할라 성으로 진격했다.

2군단장 로벨 루치는 다친 몸으로 걸어서 그 행군을 따라야만 했다.

\* \* \*

그로부터 며칠 전.

솔 악센과 함께 도망치듯 후퇴한 오르센 군대는 멀지 않은 제록스의 작은 성에 숨어 문을 걸어 잠갔다.

1곽 이남에 갇혔던 오르센군의 대다수는 투항하여 포로가 되었다.

섭정이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지킬 것을 명했기 때문에, 코르벨라군은 오르센군에게 의미 없는 폭력과 고문을 자행하지 않았다.

코르벨라군은 섭정과 사령관의 지휘 아래 빠르게 움직이며 제록스 국경 3곽을 정리해 나갔다.

1곽 성루에서 먼 곳을 바라보던 멜로디는 섭정의 망토를 잠시 매만지다가, 몸을 돌려 일족에게 다가갔다.

그녀 뒤로 코르벨라의 사령관과 세 군단장이 따랐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일족은 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제럴드는 섭정의 망토를 휘날리며 다가오는 멜로디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홀리에서 내렸다.

“코르벨라의 섭정.”

그가 손을 내밀자, 멜로디는 외숙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다. 똑같은 색채의 눈동자가 서로를 향해 빛났다.

“고맙소.”

“우리의 일이기도 하오.”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다.”

제럴드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중간까지는 함께하겠소.”

그때 에르데와 슈테언, 메어, 발트, 블라우, 이지스가 앞으로 나섰다.

“우린 시작부터 함께했으니,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멜로디는 차마 어떤 말로도 감사를 전할 길이 없어서 정중하게 묵례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싸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형제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담긴 뜻을 일족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싸움은 피투성이가 된다 한들 제 손으로 해내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형제를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이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는 일이다.

메어는 물끄러미 멜로디를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단단한 등을 천천히 쓸어 주었다.

“멜로디.”

아주 작게 속삭이자,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맹세는, 언제까지고 유효하다.”

“…….”

“언제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달려오마.”

“감사해요. 갚을 길이 없을 만큼… 감사해요.”

메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멜로디를 꽉 안아 주고 뒤로 물러나자, 지켜보고 있던 카이사르가 말했다.

“가려면 지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르벨라군 일부가 이곳을 향해 진군하다가 방향을 틀어 발할라 성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연락을 서로 끊어 놓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전하.”

카이사르의 부름에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타와 볼테르를 불렀다.

이곳저곳 상처가 가득했던 두 녀석이 어느새 말끔하게 나아 건강해진 모습으로 달려왔다.

멜로디는 녀석들의 콧잔등을 쓸어 주었다.

“계속 고생했는데, 좀 더 부탁해도 될까?”

아니타는 당연하다는 듯 머리를 치켜들며 푸르릉거렸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서둘러 녀석들의 등에 올랐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 말게.”

산의 지리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일족이 안내를 자처했다.

두 사람은 일족의 틈에 끼어 아뷔브 줄기로 향했다.

섭정과 사령관이 동시에 빠져나간 것을 병사들이 알아 봐야 좋을 것이 없기에, 두 사람은 몰래 국경 성곽을 벗어났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1)

오백의 전사들과 코르벨라 섭정 부부는 울창한 산림을 빠르게 달렸다.

코르벨라 섭정의 붉은 망토가 아뷔브의 홀리 위에서 펄럭이자,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일족 중 누군가가 말했다.

“코르벨라의 섭정과 아뷔브 산을 함께 달리는 날이 올 줄이야.”

장로 이벨린은 앞서 달리는 멜로디와 카이사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은 함께 오르센에 맞서 싸웠고, 오르센의 솔 악센은 멜로디와 제럴드의 검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

제럴드가 마음먹고 찌른 것이니, 솔 악센은 곧 죽을 것이다.

물론 이벨린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코르벨라인들에 대한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쉽게 지워질 상흔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벨린은 해묵은 원한과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류에 편승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냉철하게 눈을 부릅뜨고, 새 국면을 지켜볼 때가 되었다.

그 중심에, 멜로디 코르벨라가 있었다.

“이곳에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소!”

한참 달리던 중 제럴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앞서 달리던 이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였다.

아니타와 볼테르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며 멈추자, 제럴드가 홀리를 탄 채 그들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그대들은 저쪽 방향으로 가야 하니 이쯤에서 인사합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곧 이행하겠소. 귀곡에 대한 정리 역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알겠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그리고…….”

멜로디는 간절한 표정으로 제럴드를 바라보았다.

“나이젤, 나이젤 코르벨라를 잘 부탁하오. 곧 그를 데리러 가겠소.”

“최선을 다하겠소.”

그때, 장로 이벨린이 홀리를 몰아 제럴드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일전, 나의 무례를 부디 용서하시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의 사과에 카이사르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제 선조들이 아뷔브 일족에게 자행한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으니, 어찌 코르벨라가 일족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카이사르는 수백의 전사들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코르벨라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벨린의 사과에, 카이사르도 사과로 답했다. 어두웠던 그 시절을 겪었던 일족들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삶은 늘 우리를 예기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는군.”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빼곡한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멜로디가 카이사르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 카이사르가 고개를 들자, 멜로디는 그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장로 이벨린, 나 역시도 그날 당신께 무례를 저질렀으니 부디 나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오.”

이벨린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의 아픔에, 감히 그대의 길을 헤아리지 못하고 못나게 굴었소. 용서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맞으니, 그런 말 마시오. 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갈 테니 연락하길 바라오. 코르벨라와 파란눈의 멜로디.”

멜로디는 입술을 말아 물며 아뷔브의 전사들 천천히 훑어보았다. 위기의 순간, 그녀를 믿고 달려와 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제럴드, 에르데, 메어, 슈테언, 발트, 블라우, 이지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왜인지 목이 메었다. 멜로디는 한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심장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말했다.

“나, 멜로디 코르벨라는 과거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 심장을 바치겠소.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면, 내가 가장 앞서 달려오리다.”

붉어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 주위로, 흐드러지던 신단수의 금빛 향연이 환상처럼 떠돌았다.

십수 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받았던 맹세를 다시 돌려주었다.

담담한 손길로 제 심장을 툭툭 내려친 멜로디는 울 듯한 얼굴로 씩 웃더니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멜로디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카이사르도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아니타!”

아니타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으로 도약했고, 볼테르 역시 그 옆을 바짝 따라붙었다.

섭정 부부는 수도를 향해 거친 아뷔브 산길을 바람처럼 질주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에르데와 슈테언은 붉어진 눈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돌렸고, 메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조그마하던 것이 언제 저만큼 커 가지고…….”

붉어진 눈으로 연신 훌쩍이는 그녀를 발트가 다독였다.

\* \* \*

한편, 섭정의 권한 대행이 된 로쉐 발할라는 시뻘게진 눈으로 섭정의 집무실을 서성였다.

카이산은 숨었고, 데이모스는 제 동생을 죽이겠다며 군대를 이끌고 가 버렸다.

“카이산, 이 바보 같은 것! 그리 행동해서 어쩌자고. 어찌 그리 멍청한 것이야, 어찌!”

“…….”

“데이지, 데이지. 이 어미에게 말 좀 해 다오. 어찌하면, 어찌하면 좋겠니?”

“…어머니.”

“그래.”

“…….”

로쉐의 요청으로 섭정이 집무실을 찾았던 데이지는 물끄러미 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늘 곱던 그녀의 얼굴이 그새 많이 상했다.

데이지의 눈이 붉게 물들자, 로쉐는 미간을 찌푸렸다.

“됐다. 울지 말거라. 지금 네가 우는 것까지 이 어미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니.”

그녀의 매몰찬 말에 데이지는 눈을 감으며 허탈하게 웃어 버렸다.

“데이지?”

아… 차라리 이름도 없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태어나 가진 것이라고는 가족의 어깨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는 삶이 나았을까?

멜로디는 귀환할 것이다. 데이지는 누구보다 앞서 그녀의 귀환을, 정당한 섭정의 귀환을 반길 작정이었다.

과연 멜로디의 귀환 이후, 어떤 피바람이 황궁에 불어닥칠 것인가.

데이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금니를 세게 물며 로쉐에게 물었다.

“어머니, 외숙은 어디로 가셨나요? 전소한 여름 별장에서 몇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시신 중 외숙이 계신가요?”

“…….”

로쉐는 침묵했고, 데이지는 그녀의 침묵 속에 들어 있는 답을 읽어 냈다. 데이지는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었다.

가진 것이 많아 욕심의 크기도큰 걸까? 욕심과 욕망이 덩치를 불려 제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셨을까?

“어머니, 외숙과 카이산 오라버니가 전쟁을 틈타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일전에 제게 말씀하셨었죠.”

“…….”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반역이라니, 반역이라니! 코르벨라 황궁을 내어줬느냐, 황좌를 내어주었느냐! 어디 겁도 없이 감히 반역이란 말을 입에 담는 것이야!”

“…데이모스 오라버니가 기적적으로 홀로 생존해 귀환한 것은… 진정 사실인가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게야?!”

“데이모스 오라버니 홀로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이 맞느냐고요!”

로쉐는 황망하게 커진 눈으로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살얼음이 언 듯도 하고, 뜨거운 불길이 이는 듯도 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도대체… 도대체 데이모스와 무슨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로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데이지에게 달려들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어머니!”

“너는!”

로쉐가 데이지의 입을 우악스럽게 막으며 억눌린 어조로 낮게 말했다.

그녀는 누가 들을세라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이젤이 황제가 되면, 상황이 이보다 나았을 것 같니?”

데이지는 있는 힘껏 로쉐의 팔을 뿌리친 뒤 낮게 으르렁댔다.

“보세요, 어머니. 누가 데이모스를 섭정으로 인정하는지! 그가 섭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그녀의 말에 로쉐는 한순간 이성을 놓았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데이지의 뺨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로쉐는 씩씩대며 딸을 노려보았다.

“감히 네 오라비에 대해 그따위로 말한다면 아무리 너라도 절대 용서치 않을 거다. 알겠어?”

데이지는 얼얼한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로쉐는, 데이지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다.

후두둑 쏟아지는 눈물에 데이지는 혈육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털어 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쓸데없는 소릴 할 거라면 돌아가거라.”

데이지가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로쉐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섭정의 책상으로 향했다.

데이지는 울면서 웃었다. 젖은 입술에서 짠 눈물 맛이 났다.

데이지는 등을 돌리고 선 어머니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넨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에 시종들이 놀라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데이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무실 문이 달칵, 닫히자 로쉐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이라니, 기분 나쁜 소릴 하고 있어.”

로쉐는 입술을 잘근잘근 짓씹으며 데이지가 했던 말을 찬찬히 되짚었다.

“누가 데이모스를 섭정으로 인정하는지!”

딸의 말이 떠오르자 로쉐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거친 숨을 토해 냈다.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문득 등 뒤가 싸늘하게 식을 만큼 커다란 공포가 몰아침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만? 누구도 그들의 시신을 확인한 적이 없잖아.”

데이모스는 3곽이 오르센의 군인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이젤의 군대가 전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늘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만약 나이젤 코르벨라가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데이모스는 자동승계법에 따라 섭정이 된 것이니, 나이젤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한다.

데이모스도 그것을 빌미로 카이산이 차지했던 섭정의 자리를 이양받지 않았던가.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안 돼!”

데이지의 말이 떠오르자, 로쉐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가 서둘러 입을 틀어막았다.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날 만큼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다.

나이젤이 돌아온다면, 데이모스는 섭정의 자리를 넘겨줌과 동시에 홀로 귀환하고도 3곽 이북을 나몰라라 한 일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다.

자칫 죽은 발할라 후작이 한 짓까지 데이모스가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데이모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 돼…….”

로쉐는 거칠게 고개를 흔들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럼… 그럼, 방법은…….”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혹시 모를 나이젤의 귀환보다 앞서 데이모스가 황제의 자리에 앉는 것.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연신 손톱을 물어뜯던 로쉐의 움직임이 불현듯 멎었다. 핏발이 선 채 불안하게 흔들리던 로쉐 발할라의 눈동자가 냉혹하게 빛났다.

“우르바시… 당신이 죽어야 해.”

그동안에도 황제를 죽이려 계속 시도했으나 모두 간접적이었고,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황제를 지키는 그의 시종들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갔다.

“황제는 죽어야 하고, 황족 중 누구도 궁에 들어와서는 안 돼. 황제가 죽은 뒤,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제아무리 나이젤이 돌아온다 해도 쉽게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인장… 인장만 찾으면…….”

붉어진 눈으로 결론을 내린 로쉐는 떨리는 손으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물이 쏟아져 드레스를 적셨으나, 로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밖에 누구 있느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종이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조아리자, 로쉐는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발할라의 사병을 황궁 곳곳에 배치했느냐?”

“네, 황후 폐하.”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누구도 황궁에 들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발할라 후작저로 달려가 황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불러들여라.”

“그저 ‘황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 말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예, 황후 폐하.”

‘황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녀와 손잡고 발할라 후작을 죽였던 이들을 뜻했다.

시종이 나가자 로쉐는 포켓 목걸이를 습관적으로 손에 꽉 쥐었다.

“반드시, 반드시 황좌를 안겨 드릴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2)

데이지는 섭정의 집무실을 벗어나자마자 곧장 황제의 침실로 달려갔다.

데이지 황녀가 황제를 뵈러 오는 것은 워낙 자주 있던 일이기에, 시종들은 익숙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어딘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다.

“황녀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들러를 대신해 시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종이 묻자, 데이지는 잠시 그를 따로 불러냈다.

황궁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했다.

데이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후 은밀하게 속삭였다.

“상황을 보아 폐하를 다른 곳으로 모셔야 한다.”

그 한마디의 말에, 시종은 깨달았다. 지금까지보다 더 과감하고 대담한 시도가 곧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시종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오래 버티지 않아도 돼. 곧, 곧 끝날 테니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정오…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 서둘러 아무도 모르게 폐하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

“알겠습니다, 황녀님.”

은밀히 명령을 내린 데이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제의 침실로 들어갔다.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가 오늘따라 야속하게 느껴져서,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나와 버렸다.

코르벨라 궁을 벗어나자. 곳곳에 무장한 발할라의 사병들이 보였다. 2군단의 빈자리에 발할라의 사병을 채워 넣은 것이다.

재정청으로 가야 하는데, 도저히 앉아서 서류를 볼 자신이 없었다.

황궁은 그녀의 집이자, 상처였다.

데이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잠시 멈춰 섰다가, 이내 멜로디의 궁으로 향했다.

이 넓고 넓은 황궁에서 잠시나마 마음 놓고 쉴 곳은 외딴 궁의 소박한 뒤뜰뿐이었다.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멜로디 궁의 어귀에 다다르자, 누르고 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인적이 드문 외딴 길을, 데이지는 엉엉 울면서 걸었다.

그런데 누구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녀님.”

길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궁의 뜰로 들어서던 데이지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 울음을 멈췄다.

“…황녀님.”

아쉬였다.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데이지는 서둘러 눈물을 소매로 닦았으나, 한 번 터진 울음은 쉬이 멈출 줄을 몰랐다. 왜인지 그를 보자 더 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쉬는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황녀를 보자, 누군가 제 가슴을 거칠게 헤집는 것만 같았다.

최근,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데이지를 보아 왔다. 그렇기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혈육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쉬는 그녀가 속이 상하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을 그간의 대화를 통해 알아챘다.

로쉐 황후의 부름에 자리를 비운 데이지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아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 누구도 없는 외딴 길에서 홀로 소리 내어 울고 있는 데이지를.

그런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영혼이 눈보라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것처럼 덜덜 떨렸다.

아쉬는 소매에 얼굴을 묻고 우는 데이지를 조심히 끌어안았다. 몸이 냉기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곧 바스라질듯 가녀린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쉬는 좀 더 세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러자 그녀가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었다.

아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데이지의 등을 쓸어 주었다.

데이지는 온몸에 힘을 빼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더 우셔도 됩니다.”

아쉬의 따뜻한 말에 데이지는 눈을 감았다. 새어 나온 눈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다.

한참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데이지가 공허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한 줌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나는 한 줌의 흙이었으면 좋겠어요.”

“…….”

그녀의 말에 아쉬는 손을 풀고 몸을 뒤로 빼 데이지를 가까이에서 내려다보았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한쪽 뺨이 유난히 붉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누가 그랬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 황궁에서 데이지 코르벨라의 뺨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한 줌의 바람, 한 줌의 흙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아쉬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데이지의 눈가를 쓸었다. 투명한 눈물이 손끝에 맺히자, 그의 마음 어딘가에 파문이 일었다.

데이지가 금빛 눈동자를 들어 아쉬를 마주 보았다. 아쉬는 연신 데이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 주며 말했다.

“한 줌의 바람, 한 줌의 흙이 되고 싶으신 날엔 그리하셔도 됩니다. 온몸의 힘을 풀고 나른하게 누워 그저 한 줌의 바람, 흙처럼 그리 계셔도 괜찮습니다.”

“…….”

“그런 날엔, 제가 옆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데이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 버렸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엉엉 울던 데이지는, 그의 작은 말에 가볍게 웃었다가 이내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끄덕임을 본 아쉬가 작게 속삭였다.

“원하신다면, 꼭 그리하겠습니다.”

텅 빈 외딴 궁의 소박한 뜰.

한 줌의 바람, 한 줌의 흙이 되고 싶은 여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주겠다는 남자의 곁에서 찰나의 평화를 누렸다.

\* \* \*

한편, 그 무렵 오르센의 왕성.

오르센이 코르벨라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대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솔 악센의 적자 솔 비알테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못했다.

“어쩌지? 어쩌면 좋단 말이냐?”

칸 차록타는 죽었고, 칸 베르베르나가 부상을 입은 솔 악센을 데리고 제록스 영토의 작은 성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에 솔 비알테는 혼란스러워했다.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아버지의 대패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다.

“뷔안 앞에 모여 있는 군대를 원군으로 보내는 것은 어떠하냐?”

차마 자리에 가만히 앉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서성이던 그의 입에서 내뱉어진 말에 중신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 병사들을 모두 모아 봐야 10만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솔 비알테는 반쯤 우는 목소리로 절망했고, 중신들은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어린 왕세자의 반응에 탄식했다.

그때, 붉은 휘장 사이에서 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누이가 도와주련?”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에,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솔 비알테의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그는 입술을 덜덜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붉은 천을 가르자, 흑단 같은 머리채를 가진 여인이 까만 눈을 빛내며 나타났다.

건강해 보이는 혈색이 좋은 뺨과 붉은 입술, 그와 대조적으로 까마귀처럼 검은 눈동자의 그녀는 죽었다고 전해졌던 왕녀 솔라 테올라였다.

솔 비알테는 효수되었다던 누이가 살아 있자, 입을 크게 벌리며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누, 누님…….”

“그래, 비알테. 퍽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누님!”

나이 차이가 나는 이복누이를 솔 비알테는 제법 잘 따랐었다. 그는 한달음에 솔라 테올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살폈다.

“정말, 정말 누님이 맞으십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 듯싶니?”

“아아… 누님, 누님!”

솔 비알테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자, 테올라는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 암담한 순간 나타난 테올라의 존재가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다.

솔라 테올라는 동생에게서 몸을 떼며 다정하게 물었다.

“비알테, 그림은 잘 그리고 있니?”

다정한 그녀의 물음에 비알테는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솔 악센이 학을 떼며 싫어하는 그것을, 솔라 테올라만큼은 잘한다고 칭찬하며 인정해 주었다.

“요즘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그림이 궁금한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을 지금 가지고 와 주련?”

왕의 권한 대행인 솔 비알테는 사실 그 자리가 버거워 숨이 막혔다.

그런데 구원처럼 나타난 누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묻자, 솔 비알테는 어느 때보다 기쁜 얼굴로 냉큼 답했다.

“예! 누님, 제가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가져오렴.”

솔 비알테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접견실을 박차고 나가자, 그를 지지하던 귀족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라 이르마는 한 마리의 흑표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좌중을 휘어잡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솔라 테올라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자, 테올라는 붉은 입술을 끌어올려 매혹적으로 웃었다.

그러고는 중신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테올라가 싱긋 웃었다.

“지옥에서 기어 나왔지요.”

“…….”

솔라 테올라는 비어 있는 왕좌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물었다.

“내가 앉을 곳이 없는데… 이곳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느긋한 음성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중신들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죽어 간다는 솔 악센.

누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림을 가지러 간 솔 비알테.

지옥에서 기어 나왔다고 말하는 솔라 테올라와 그녀의 추종자들.

솔 비알테를 모시던 신료 중 누군가가 정중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왕녀님.”

“라 올겐, 오랜만이군요.”

“무탈하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가요? 고맙네요.”

솔라 테올라는 솔 악센이 차지하고 앉았던 왕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금빛 손잡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차가운 감촉이 마음에 들었다.

테올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중신들을 바라보며 왕좌에 기대어 앉았다.

푹신하게 몸을 감싸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왕의 자리에 앉은 그녀가 라 이르마를 바라보며 고압적인 음성으로 명령했다.

“라 이르마,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니.”

“예, 전하.”

대관식도, 임명도 받지 않은 솔라 테올라는 아주 당연한 듯 국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3)

6군성을 지키는 6군단장 미하엘 발락은 카이사르 베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비록 카이사르의 부고를 들은 이후긴 하나, 미하엘은 사령관이자 대장인 카이사르의 명령을 여전히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개인적인 충성심이기도 했으나, 카이사르가 각 군단장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와 로벨 루치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전쟁 예측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카이사르의 명령은 군단을 네 개로 나눠 한 무리는 뷔안으로, 한 무리는 블라디미르로, 한 무리는 제록스 국경 지대로 보내고, 마지막 한 무리는 남아 6군성을 수호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5군성으로 보낸 전령은 마츠가 카이사르의 명령에 따라 제록스로 몰래 진군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미하엘 발락은 은밀히 군단을 분리시켜 블라디미르 국경과 제록스 국경 지대로 원군을 보낼 준비를 끝마쳤다.

뷔안의 경우, 수도와 가까워 들킬 확률이 높기에 일단 보류했다.

미하엘은 군장한 상태로 성루에 올라 제록스 방향을 응시했다.

이대로 출병하면, 자신은 군단장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칫 목숨마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

수도에서 그들의 출병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테니.

“에이. 그렇다고 마츠 마이어가 갔는데, 내가 쫄보처럼 남아 있을 수 있나.”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린 뒤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어깨를 활짝 폈다.

출병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전방을 주시하던 병사가 다급히 그를 불렀다.

“군단장님! 저길 좀 보십시오!”

“왜, 뭐?”

미하엘은 병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어어? 군단장님!”

“저분 혹시?”

성루에 올라 있던 사단장과 여단장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몸을 성벽 가까이 바짝 기대었다.

무언가를 알아챈 미하엘의 눈이 화등잔만 하게 커졌다.

말 한 필이 6군성 앞의 너른 평야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다.

선명한 백색 갈기를 가진 거대한 군마를 모는 누군가는, 미하엘과 군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대장님!”

미하엘이 온 평야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성루에 올라 있던 병사들은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환호했다.

“대장님!”

죽었다고 전해졌던 코르벨라의 총사령관, 카이사르가 달려오고 있었다.

\* \* \*

으슥한 밤, 베델 공가에 은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며칠 전 베델 공부인을 찾아왔던 가문의 안주인들로, 이안의 부름에 약속된 시각에 공가를 찾아온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이안은 정중한 태도로 그녀들을 맞이했다.

부인들은 공저에 감도는 비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소리마저 죽인 채 공부인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그녀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말문을 열었다.

“정당한 코르벨라의 섭정께서 살아 계십니다.”

“……!”

“……!”

공부인의 말에 부인들은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다. 몇몇은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몇몇은 눈을 감으며 신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살아, 살아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베델 소공작 부부는요? 무사하십니까?”

“오, 공부인.”

그녀들이 앞다투어 묻자, 이안은 잠시 침묵했다.

다급한 마음에 한마디씩 말을 더했던 부인들은 공부인의 침묵에 그제야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다.

모두가 조용해지자, 이안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이젤 전하께서 전쟁 중 멜로디 황녀님께 섭정의 자리를 위임하셨습니다.”

“……!”

아리안 후작 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그럼… 나이젤 전하께서는 어찌 되셨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받은 것은 한 통의 편지뿐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럼, 공부인. 상황이 어찌 되고 있는 건가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섭정 전하와 총사령관께서 제록스 3곽 이북을 모두 탈환하고 국경 지대를 안정시킨 뒤, 몰래 수도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녀의 말에 부인들은 눈을 감으며 탄식했다.

“아아… 얼마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나이젤 전하께 정당하게 위임을 받으셨다면, 자동 승계보다 그쪽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데이모스 전하께서 섭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 아시다시피 현재 중신들과 서관 아들러가 북성에 감금되어 있으며, 황궁은 발할라의 사병들이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아요……. 로쉐 황후께서는 멜로디 전하의 승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실 겁니다. 발할라의 사병이 황궁을 이미 점거하고 있으니 원…….”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연유가 이것 때문이시지요, 공부인? 생각하신 바를 부디 말씀해 주세요.”

충격에 빠져 눈을 감고 있던 아리안 후작 부인마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배에 힘을 단단히 주었다.

“우리 역시 한 가문의 주인이며, 코르벨라 귀족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숨어 눈물만 흘린다면, 우리 두 손에 쥐여진 권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럭셀로 후작 부인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전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섭정께서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황궁에 도착하실 겁니다. 규범을 무시하고 발할라의 사병을 황궁에 입성시켰으니, 우리는 그에 충분히 항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수도에 있는 각 가문의 사병을 통솔하여 우리가 직접 황궁 앞으로 갑시다. 가문의 인장을 떼어 내고 대신 그 자리에!”

이안이 품에서 코르벨라의 국기가 그려진 천을 꺼내 들었다.

“코르벨라의 국기를 붙입시다. 사사로이 가문의 부흥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코르벨라의 귀족으로서 옳지 않은 일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병을 대동하여 황궁 앞을 지키고 있으면, 감히 황후께서도 섣불리 발할라의 사병을 움직이시기는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피를 흘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보지 않기 위해 사병을 이끌고 황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리안 후작 부인이 이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좋아요, 공부인. 갑시다. 아리안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누가 선두랄 것이 없어요. 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요. 다 같이 갑시다. 꼭대기에 앉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군요. 우선 사병들의 가슴에 붙일 국기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은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안료를 이용해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눠 가져갑시다.”

“좋아요.”

한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부인들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들은 거친 무명천을 한 아름씩 품에 안아 들었다.

\* \* \*

그리고 그 시각, 황제의 시종들과 기사들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밀히 코르벨라 궁의 곳곳을 봉쇄한 그들은 죽은 듯이 누워 있는 황제를 내실로 모시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궁의 내실은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었다.

내실엔 입장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미로에 갇히기 일쑤였다.

그렇기에 사실 황제의 병간호를 생각하자면, 내실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장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으므로, 시종들은 황제를 내실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황제의 시종들은 그 밤, 누구도 모르게 황제를 내실로 옮긴 후 봉쇄를 풀었다.

더불어 황제의 최측근인 카이사르가 남기고 간 정예 근위대는 황제의 침실 곳곳에 몸을 숨긴 채, 은밀하게 숨어들 암살자들을 기다렸다.

칠흑같던 밤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으슥한 새벽.

황제의 침실에 은밀한 방문객들이 들었다. 그들은 살금살금 주변을 살피며 빼꼼 창문을 열었다.

어슴푸레하게 날이 밝아 올 무렵이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보다 모두가 몽롱하게 취한 어두운 새벽이 이런 일을 처리하기엔 더 좋았다.

주변을 샅샅이 살핀 우두머리는 침실 한편에서 졸고 있는 시종과 불룩하게 솟은 침대를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황제는 의식이 없다고 했으니, 조용히 다가가 급소를 공격하고 달아나면 될 일이었다.

우두머리인 남자가 밖으로 신호를 보내자, 발할라의 정예들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코르벨라의 근위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좀 빨리빨리 올 것이지. 밤새 기다렸잖아.’

오래 기다린 탓에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다.

가장 먼저 창을 넘은 자객 하나가 퇴로를 확보하려는 듯 창문을 붙잡고 대기했다.

그를 제외한 네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황제가 누워 있으리라 예상되는 침대로 향했다.

황제는 엎드려 있는 듯 보였다.

침대를 신중히 살피던 남자가 품에서 송곳처럼 생긴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정확하게 목 뒤의 동맥을 겨냥했다.

그가 손을 높이 치켜들 무렵이었다.

창문이 덜컹, 하는 소리를 내었다.

깜짝 놀란 자객들이 재빨리 전투 태세를 갖췄으나, 이미 그들은 독 안에 든 쥐 꼴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제의 근위대가 어두운 침실 곳곳에서 튀어나오더니 무참히 검을 휘둘렀다.

발할라의 정예들 역시 우수한 실력자들이었으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와 심리적인 위축,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검과 검이 맞부딪치는 쇳소리조차 얼마 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제압한 근위대가 검에 묻은 피를 털어 낼 무렵, 내실의 침상에서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우르바시가 천천히 눈을 떴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잠들지 않고 대기하던 시종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폐하!”

우르바시는 몽롱한 표정으로 느릿하게 눈을 깜빡였다.

“…여기가… 어디냐.”

꽉 잠긴 목소리로 그가 묻자, 시종은 이곳은 내실임을 알리며 무슨 연유로 그를 이곳에 모시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우르바시는 눈을 감고 그의 설명을 듣더니,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등받이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르던 우르바시가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아들러, 아들러는 어디 있느냐?”

그의 질문에 시종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을 삼키는 듯한 모습에 우르바시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듯했다.

“어서 말하라.”

“북성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짐의 서관을, 북성에 감금했단 말이냐?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느냐?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라.”

그의 명령에 시종은 지금까지의 일을 소상히 아뢰기 시작했고, 우르바시의 표정은 점점 더 참담해져만 갔다.

“그럼… 나이젤과 멜로디의 부고가 전해졌다는 말이냐?”

짙은 슬픔이 묻은 질문에 시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 모습에 우르바시는 축 늘어져 버렸다.

짙은 새벽이 물러가고, 한 줄기의 빛이 황궁을 비출 무렵의 일이었다.

\* \* \*

이른 아침, 데이지는 황궁의 북서 성벽에 걸쳐진 암벽 앞에 와 있었다.

곳곳을 지키고 있는 발할라의 사병들은,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암벽만을 바라보고 있는 데이지 황녀를 의문 섞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뭐 하시는 거지?”

“낸들 아나?”

데이지는 가만히 인장을 매만졌다.

로쉐 황후는 코르벨라 황궁의 작은 쪽방까지 뒤졌으나, 결국 인장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찾는 인장이 딸의 품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지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암벽을 응시했다.

[나는 암벽을 통해서 궁으로 들어갈게, 데이지.]

데이지는, 자신의 가족이자 친구인 멜로디 코르벨라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4)

그리고 그 무렵, 황궁 밖에서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황궁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제각각 다른 사병 옷을 입었으나,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코르벨라의 국기가 달려 있었다.

사병들의 선두엔 단정한 검은 옷을 입은 가문의 안주인들이 엄정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수도의 시민들은 그들의 엄숙한 행군을 삼삼오오 모여 지켜보았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 보이네요.”

“높으신 분들이 모두 북성에 감금되셨다던데, 그 가문의 안주인들이세요.”

그들이 황궁 정문 앞에 다다르자, 정문을 지키고 있던 발할라의 사병대는 서둘러 이 소식을 로쉐 황후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정문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안 럭셀로 베델! 사병을 황궁에 들이고 문을 걸어 잠그신, 로쉐 황후 폐하를 뵙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인들도 한 걸음씩을 앞으로 나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목소리를 내었다.

“설령 황제 폐하라 하실지라도 국난 상황에 이리 황궁 문을 걸어 잠그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장 문을 열고, 중신들을 석방하십시오! 모두의 의견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공부인의 낭랑한 외침이 황궁의 굳건한 성벽을 강타했다.

발할라의 사병들은 난감하여 발만 동동 굴렀다.

“어서 빨리 전해라!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라는 것인지…….”

노도처럼 몰아친 단호한 외침은 성벽을 넘어 코르벨라 홀의 황좌를 차지하고 앉은 로쉐의 귀에까지 전달되었다.

데이모스가 떠난 뒤, 로쉐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자신의 방을 서성이다가 결국 섭정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천장이 높지 않은 집무실이 어찌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던지. 그녀는 결국 넓은 코르벨라 홀로 향했다.

높은 아치 천장과 웅장한 샹들리에.

아름답게 장식된 코르벨라 홀의 상석엔 제국의 심장, 황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로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황좌 앞에 도달했다.

불안으로 들끓던 가슴이 황좌를 보자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이 의자에 내 아들 데이모스가 앉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내 아들 데이모스가 앉아 만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황태자 혹은 섭정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황좌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다.

앉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 앉고 보니 그저 의자일 뿐이다.

“하하, 이것도 별것 아니구나.”

그녀는 피식 웃으며, 어두운 밤의 긴 걸음을 하나씩 헤아렸다.

지금쯤, 그는 죽었을까?

지금쯤, 자객들이 그를 죽여 주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여, 그녀는 결국 황좌에서 일어나 불안하게 홀을 서성였다.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기에, 사람을 보내 일의 경과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칠흑 같던 밤은 어느새 짙은 새벽이 되었고, 짙은 새벽은 어느새 이른 아침이 되었다.

간절히 우르바시의 죽음을 기다린 로쉐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뭐야?!”

베델 공부인을 필두로 한 사병들의 행군 소식에 로쉐 황후는 분노하여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감히, 감히! 황궁 정문 앞을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황후 폐하.”

그때, 또 다른 사병이 달려오더니 급박한 얼굴로 수도 밖 소식을 전해 왔다.

“지금, 6군단의 일부 병력이 수도 앞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야?! 섭정께서 어떠한 명령도 내리신 바가 없거늘! 누가, 누가 선두에 서 있다 하더냐?!”

“…그, 그것이…….”

망설이는 듯한 사병의 모습에, 로쉐의 척추를 타고 공포와 소름이 찌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황좌에 주저앉았다.

“빨리, 빨리 말해라!”

악다구니를 쓰는 황후의 모습에 사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사령관 카이사르 베델이 선두에 서 있다 합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에 로쉐는 황좌의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물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더냐?”

“예, 사령관 카이사르 베델뿐이라 합니다. 그 뒤로 6군단 일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쉐는 저도 모르게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이를 딱딱 부딪쳤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몇 번이나 고른 후, 겨우 말을 내뱉었다.

“황궁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모조리 구금해라. 특히, 베델 공부인을 비롯한 귀족 가문 안주인들의 신변을 확보해. 그토록 남편이 보고 싶다 하니, 보게 해 주어야지.”

부모가 잡혀 있는 것을 알면, 제아무리 카이사르 베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하던 로쉐는 고하러 왔던 사병이 대답을 않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눈을 번뜩 떴다.

도대체 뭐 하느냐고 다그치려던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병들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맹수라도 만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로쉐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거세게 뜀뛰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 앞에 고개를 조아렸던 사병 두 사람이 재빨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로쉐는 후들거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나 뒤로 돌았다.

“……!”

로쉐의 두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턱이 덜덜 떨려 이가 맞부딪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우르바시 코르벨라가 형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두 다리로 설 기력이 없어서 바퀴 의자에 앉고, 거무죽죽하게 변한 얼굴엔 죽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

그녀가 하려던 모든 일들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황제가 돌아왔으니, 감히 누구도 이 붉은 의자에 앉을 수 없으리라.

로쉐는 덜덜 떨리는 걸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계단을 헛디뎌 휘청이면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쳐 상석에서 내려섰다.

그런 로쉐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우르바시가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 황좌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숨을 몰아쉰 우르바시는 육신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올려 명했다.

“지금 당장 북성에 갇힌 중신들을 석방하고, 서관 아들러를 데려오라. 그리고 데이지 코르벨라를 들라 하라.”

“예, 황제 폐하!”

시종은 큰 소리로 답한 뒤 빠르게 달려 북성으로 향했다.

우르바시는 황망한 눈으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로쉐와 시선을 맞추었다.

“어찌, 어찌…….”

우르바시는 멍하니 중얼거리는 로쉐에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최소한 우르바시만큼은 로쉐에게 비난을 퍼부을 자격이 없었다.

그것을 알기에, 우르바시는 차라리 눈을 감아 버렸다.

\* \* \*

베델 공작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한 평 남짓한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니,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를 자꾸만 어둡고 파괴적인 곳으로 이끌었다.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아들과 멜로디가 떠올라 때론 숨조차 쉴 수 없이 괴로웠다.

이안, 그녀는 잘 있을지 또한 걱정스러웠다. 조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홀로 고독한 것은 싫어하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에서 그녀는 혼자 과연 어떤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인가?

베델 공작은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뜨겁고 냉혹한 지옥을 산 채로 걷고 있었다.

아들러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하고도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북성의 간수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신력이었다.

“과연 서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군.”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요 며칠은 고문이 없었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데이모스 전하께서 안 계셨잖아.”

“대신 발할라 사병들이 작은 쪽방까지 뒤지고 다닌다더군.”

간수들이 서로 속닥거리며 지나갔다. 그들의 목소리를 엿들은 아들러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피식 웃었다.

황제 폐하의 결정은 옳았다. 인장을 데이지 황녀에게 맡긴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녀에게 인장이 있을 것이라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까.

‘아마 절대 못 찾으실 겁니다.’

아들러는 시선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도 없는 북성에 갇힌 탓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다.

벽에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씻지 못한 자신의 몸에서도 피와 땀이 섞인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와 코끝을 맴돌았다.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아니. 그에 대한 미련은 이곳으로 끌려옴과 동시에 버렸다.

폐하께서는 어떻게 되셨을까? 제록스 국경 지대로 출병했던 섭정 전하와 멜로디 황녀님, 그리고 사령관을 비롯한 코르벨라 병사들은 모두 전사한 것이 맞을까?

데이모스 황자가 황제가 되려 하는 것을 고작 인장을 숨기는 정도로 막을 수 있을까? 만약 막아 낸다 해도, 이후에는 어찌해야 할까.

생각은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언제나 과거로 이어졌다.

“아… 지브릴 부인, 당신의 말을 좀 더 신경 써서 들을 것을.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아들러는 뒤늦은 후회를 했다.

창문 하나 없어 온통 칠흑같이 어두운 북성에 갑작스러운 빛이 쏟아졌다.

다급히 달려와 정문을 벌컥 열어젖힌 시종은 북성의 꼭대기까지 들릴 만큼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벼락 같은 외침이었다.

“지금 당장 모든 중신들과 서관 아들러를 석방하라는 황제 폐하의 명이오!”

북성이 휘청일 만큼 커다란 목소리에 꼿꼿하게 앉아 있던 베델 공작은 물론이고, 허탈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있던 아들러를 비롯한 다른 중신들 역시 벌떡 일어났다.

시종은 다시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외쳤다.

“황제 폐하께서 지금 당장 모든 중신들과 서관 아들러를 석방하라 하셨소!”

북성의 총책임자가 빠르게 달려 내려와 그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다.

“황제 폐하라 하시면…….”

“이 제국에 황제 폐하가 두 분이시기라도 하단 말이오!? 폐하께서 깨어나셨소! 그러니 어서 황제 폐하의 명을 이행하시오!”

“폐하께서 깨어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이것은 폐하의 명령이니, 섭정 전하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소. 허니 걱정 말고 어서 중신들과 서관을 풀어 주시오!”

시종의 단호한 말에 총책임자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간수들에게 외쳤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폐하의 명을 이행하라!”

그의 명령에 간수들은 재빨리 열쇠를 들고 돌아다니며 중신들이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 주었다.

중신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베델 공작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중신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뒤,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서관 아들러는 어디에 계시는가?”

“베델 공, 저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독방에서 아들러가 걸어 나오며 답했다.

베델 공작은 단숨에 그에게 달려가 몸을 살폈다.

“이런…….”

“죽을 정도는 아니니 염려치 마십시오.”

“…죽을 정도가 아니니 염려치 말라니.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

“정말입니다.”

아들러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보이는 몸 곳곳에도 화상과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가 빼곡했다.

서관의 참혹한 모습에 다른 중신들조차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다.

“걸을 수 있겠소?”

아들러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걷기 시작했다.

황제를 오랜 시간 보필해 왔던 시종장은, 황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했다.

“이대로 행군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폐하께서 깨어나셨다 하니 어서 가시지요.”

반듯하게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면 누구도 그가 잔혹한 고문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베델 공작은 서둘러 그의 옆으로 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긴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가자 소식을 전하러 왔던 시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종장님…….”

아들러의 처참한 모습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폐하께 안내하게.”

“…예.”

그는 굳게 닫힌 북성의 육중한 정문을 있는 힘껏 밀었다.

문이 열리자 환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뜨겁고 환한 빛에 아들러와 베델 공작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어둠에 적응되어 있던 두 눈은, 찬란한 햇살에 적응하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쏟아 냈다. 하지만, 고작 그까짓 눈물이 대수랴.

아들러와 베델 공작은 시린 눈을 부릅뜨고 환한 햇살 아래로 성큼, 걸어 나갔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5)

죽음 같은 싸늘한 침묵이 웅장한 코르벨라 홀에 맴돌았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등장에 혼비백산했던 로쉐 황후는 황제가 침묵하자 마음을 가라앉히며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황좌에 기대어 앉은 황제는 극도로 쇠약해 보였다. 불꽃이 사그라들기 직전 반짝 타오르는 것처럼, 사람도 죽기 직전이 되면 잠시간 기력이 솟는다고 했다.

우르바시는 누가 보아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로쉐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황제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의 생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는, 움츠렸던 어깨를 억지로 펴며 황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폐하.”

“…….”

우르바시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섭정께서 서관을 감금한 이유는, 감히 서관이 섭정께 인장을 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인장을 인계하지 않다니요. 이는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만.”

우르바시가 로쉐의 말을 끊었다.

“하오나 폐하, 부디 제 말을 들어…….”

“그만해라, 로쉐.”

“…….”

로쉐와 우르바시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부부의 인연으로 서로를 만나 자식을 넷이나 낳았다. 그 인연을 어찌 가볍다 할 수 있겠는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인연에, 우르바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다. 동시에 로쉐 발할라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대와 데이모스, 발할라 가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되짚어갈 것이다.”

그것은 로쉐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얼굴로 그에게 바짝 다가가 애원했다.

“현재 코르벨라의 섭정은 데이모스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되짚는다 하십니까, 폐하!”

“제아무리 황제라 해도 잘못한 일엔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거늘, 섭정이 대수인가?”

우르바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로쉐를 바라보았다. 로쉐는 그런 우르바시를 죽일 듯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던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소란하게 들려오더니 굳게 닫혔던 코르벨라 홀의 정문이 열렸다.

로쉐와 우르바시의 시선이 천천히 열리는 정문으로 향했다.

아들러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빠르게 홀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스물이 넘는 제국의 중신들이 따라 들어왔다.

“……!”

“……!”

황좌에 앉은 황제와 중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비록 편을 나누어 싸우고, 서로를 헐뜯는 날도 많았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한 시대를 함께 주름잡았던 노장들이다.

피가 날 정도로 서로를 물어뜯었을지언정, 이토록 참담한 몰골로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던 사이.

우르바시는 그들을 향해 온 힘을 끌어올려 외쳤다.

“어서 오시게. 고생이 많았네.”

중신들과 아들러는 엉망진창인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황제를 향해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다.

우르바시는 아들러가 가까워질수록 누군가 심장을 세게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숨을 삼켰다.

퉁퉁 부은 얼굴과 온몸에 가득한 상처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로쉐마저도 서관의 참혹한 몰골에 입술을 달달 떨었다. 데이모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서관에 대한 고문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들러는 극도로 쇠약해진 우르바시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폐하.”

우르바시가 그런 아들러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들러. 이리, 이리 가까이 오라.”

그의 부름에 아들러가 계단을 올라 그의 곁으로 다가가자, 우르바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는 아들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이 많았어. 미안하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폐하.”

“미안해.”

“아닙니다, 폐하.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들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좌의 옆에 보필하듯 서자, 우르바시는 베델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베델 공작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것은 우르바시도 마찬가지였다.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 두 사람은 동시에 입술을 짓씹었다.

우르바시는 눈을 감아 치미는 뜨거운 울음을 삼키며 가까스로 말했다.

“제록스 국경 지대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고하라.”

내 아들, 내 딸…….

아비가 죽은 듯 잠든 틈에… 너희는 어디를 헤매고 있느냐.

\* \* \*

멜로디는 산을 열심히 달리던 중, 이안의 편지를 가지고 오던 일족과 마주쳤다.

이안이 보낸 편지엔 현재 황궁의 상황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데이모스가 베델 공작과 서관 아들러 및 중신들을 북성에 감금했다는 소식에 멜로디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 그런데 홀로 가도 괜찮겠어?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아뇨. 홀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멜로디는 편지를 배달해 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 주위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와 아니타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깨웠다.

한참을 직선으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갈림길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타!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암벽이 나와! 거기에서 멈춰 줘!”

멜로디의 외침에 아니타는 더욱 빠르게 달렸다. 멜로디는 당연히 녀석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던 녀석이니까.

그런데 아니타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은 뒤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타! 저 앞은 절벽이야! 높아, 높다고! 멈춰!”

놀란 멜로디가 다급히 갈기를 붙잡았지만, 아니타는 멜로디의 말을 무시한 채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

마치 도약을 하려는 듯한 동작에 멜로디는 저도 모르게 바짝 몸을 숙이며 이를 악물었다.

“너!”

신음 같은 외침에 아니타가 푸르릉거렸다. 어쩐지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알고?’라며 웃는 것만 같았다.

깎아지른 암벽의 끝을 향해 내달리니, 마치 찬란한 하늘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일었다.

멜로디는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자신의 오드를 아니타의 네 발과 몸통으로 빠르게 옮겼다.

아니타의 몸이 멜로디의 푸른 오드에 휩싸인 그 순간, 아니타는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하염없이 암벽을 바라보고 있던 데이지가 별안간 몸을 일으켰다.

깎아지른 거대한 암벽 위에서 새파란 무언가가 하늘을 날듯 도약하는 것을 본 순간,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찌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었다.

멜로디의 귀환 이후 불어닥칠 피바람을 걱정하던 데이지는, 그녀를 보는 순간 기쁨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멜로디!”

데이지의 외침이 암벽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저, 저게 뭐야!”

“침입자다!”

“막아라!”

발할라의 사병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의문의 물체를 경계하며 날카로운 창과 검을 바짝 치켜들었다.

허공으로 날아오른 아니타는 기가 막힌 균형 감각으로 몸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대지를 향해 뒷다리를 내밀었다.

멜로디는 그녀의 충격을 줄여 주기 위해 아니타의 등에서 옆으로 떨어져 나왔다.

하나였다가 둘이 된 의문의 물체가 지상으로 가까워질수록, 발할라 사병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푸른 갈기를 휘날리며 허공을 날아온 거대한 군마는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착지하더니, 우아하게 머리를 치켜들었다.

“마, 말?”

깜짝 놀란 병사들이 탄성을 내지르는데, 그 뒤를 이어 누군가가 쏜살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닥을 짚었다.

“이,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반듯하게 허리를 펴자, 그의 어깨에 걸린 붉은 망토가 바람에 휘날렸다.

섭정의 망토를 어깨에 두른 채 나타난 사람은, 새파란 눈을 번뜩이며 어깨와 허리를 당당하게 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발할라의 사병들은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창과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 말도 안 돼…….”

“분명 부, 부고가 전해졌는데…….”

그녀는 분명 죽었다고 전해졌던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이었다.

발할라의 사병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

마치 군신처럼 하늘에서 말과 함께 나타난, 섭정의 망토를 두른 멜로디 황녀에게 그들은 감히 창을 들이밀 수가 없었다.

대지를 두 다리로 굳건하게 디디고 선 멜로디를 보자, 데이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그녀는 있는 힘껏 달려가 멜로디를 와락 끌어안았다. 멜로디도 그런 데이지를 힘껏 마주 끌어안았다.

두 황녀는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눈을 감았다.

“어서 와. 어서 와, 멜로디.”

“데이지.”

두 사람이 잠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던 그때, 발할라 사병의 책임자가 떨리는 가슴을 겨우 붙잡으며 창을 세웠다.

그의 직속 상관은 로쉐 황후였기에 누구도 궁에 들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무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황후 폐하께 허가를 받으셔야 입궁이 가능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 데이지의 눈이 삽시간에 형형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병의 책임자를 응시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보고도 모르겠느냐! 제국의 정당한 섭정이 누구신지! 누가 감히 섭정 전하의 귀환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는 데이지의 말에 침을 꿀꺽 삼키며 멜로디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거친 황야를 달려온 전사 같은 모습에서 짙은 야성마저 느껴졌다.

잘 벼려진 한 자루의 명검 같기도 하고, 한 마리의 맹수 같기도 한 그녀의 어깨엔 이리저리 해진 붉은 망토가 매달려 있었다.

비록 누더기처럼 해졌으나, 선명하게 새겨진 코르벨라 섭정의 문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데이지는 한 걸음 물러난 뒤, 멜로디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섭정 전하.”

이윽고 고개를 든 데이지가 몸을 돌려 길을 막고 있는 사병들에게 외쳤다.

“길을 열어라. 코르벨라의 섭정 전하시다!”

발할라 가문의 데이지 코르벨라 황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다.

총책임자는 당황한 얼굴로 데이지와 멜로디를 번갈아 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창을 내리고 옆으로 물러났다.

그가 물러나자, 길을 막고 서있던 다른 사병들도 일제히 창과 검을 거두며 물러났다.

멜로디와 데이지의 앞에 긴 길이 만들어졌다.

“가시지요.”

데이지가 앞장서 멜로디를 안내하려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며 데이지를 불러 댔다.

“데이지 황녀님! 어디에 계십니까?! 데이지 황녀님!”

다급한 부름에 데이지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여기네!”

그녀를 발견한 시종이 부리나케 달려왔다. 그는 한참이나 데이지를 찾아 헤매었는지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숨을 가다듬으며 데이지에게 소식을 전하려던 시종은 그녀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두어 번 눈을 깜빡이던 그는 별안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탄성을 내질렀다.

“메, 메, 멜로디 황녀님!”

“섭정 전하시네.”

데이지의 지적에 그는 그제야 멜로디 등 뒤에 매달린 섭정의 망토를 알아챘다.

시종은 혼란한 눈으로 멜로디와 망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참다못한 멜로디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아! 죄, 죄송합니다!”

“빨리 말해 보게.”

두 황녀의 채근에 시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황제 폐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

“……!”

멜로디는 찌릿한 전율에 두 손을 불끈 움켜쥐었다. 삽시간에 붉게 물든 데이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넘쳤다.

“어디에 계시는가?! 당장 앞장서게!”

섭정 멜로디의 명령에 시종은 큰 소리로 대답한 뒤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멜로디와 데이지가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6)

로쉐는 중신들과 시종들이 그간의 일을 차례대로 고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데이모스를 변호하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황제는 데이모스의 출병과 관련한 보고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현재 데이모스는 발할라 성에 숨은 카이산을 끌어내고자 군대를 이끌고 출병했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짐의 군대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렇습니다.”

쇠약한 상황에서도 우르바시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노성을 터트렸다.

“이런, 무도한!”

“폐하, 진정하셔야 합니다.”

우르바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하자, 아들러가 급히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우르바시는 황좌 등받이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 캄캄하고 아득한 어둠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여, 그는 억지로 눈을 부릅떴다.

삶은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때, 시종 중 한 사람이 미처 전하지 못한 소식을 전하고자 앞으로 나왔다.

“하오나 폐하, 제록스 3곽 이북의 소식은 완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종은 부고가 전해졌던 카이사르 베델이 6군단을 이끌고 수도 밖 평야에서 대기 중이란 사실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닫힌 문밖 대리석 복도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구둣발 소리에 말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황제, 로쉐 황후, 베델 공작, 아들러를 비롯해 홀에 모인 모든 중신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닫힌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그뿐만 아니라 입구를 지키고 있던 기사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당황하던 그들은 이내 정중하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누군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상황에서 황좌에 기대어 있던 우르바시가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

“세상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등장이었다.

중신들 중 누군가는 입을 크게 벌렸고, 누군가는 신을 찾았으며, 또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크게 떴다.

보뱅 공작은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손에 묻었고, 로쉐 황후는 황망한 표정으로 흔들리는 붉은 망토를 응시했다.

베델 공작의 두 눈이 삽시간에 붉어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이젤과 함께 제록스 국경 지대에서 전사했다 전해졌던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이 섭정의 붉은 망토를 걸친 채 코르벨라 홀에 나타났다.

거친 야산과 황야를 가로질러 온 듯 온통 흙과 먼지투성이였으나, 그녀의 새파란 두 눈 만큼은 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다.

아들러는 숨을 들이마시며 황제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우르바시는 죽었다던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슴이 벅차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딸의 등 뒤에서 펄럭이는 붉은 망토를 보고 숨을 멈추었다.

흐릿한 시야였으나 우르바시는 단번에 그것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것은, 섭정의 망토였다.

섭정의 망토가 어찌하여 멜로디의 어깨에 걸려 있는가?

나이젤은 왜 보이지 않는가?

멜로디가 섭정의 망토를 걸친 채 홀로 귀환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르바시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은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

작금의 제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고약한 자리구나…….’

딸을 보고 마음이 일렁였던 아버지는, 눈을 한 번 감았다 뜸으로써 냉철한 황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달려가 딸의 어깨를 꽉 끌어안아 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황제의 얼굴을 가장한 채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어서 오거라.”

황제와 섭정의 시선이 멀리서 교차했다.

“잘 돌아왔다, 섭정.”

그의 선언과도 같은 호명에 로쉐가 비명을 질렀다.

“섭정이라니요! 누가 섭정입니까! 누가요!”

하지만 그녀의 공허한 비명에 누구 하나 답하지도, 동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황제 앞에 모여 있던 중신들은 멜로디가 황제에게 갈 수 있도록 양옆으로 물러났다.

시종들과 기사들 역시 그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로쉐가 머리를 부여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섭정은, 내 아들 데이모스야!”

로쉐 황후의 난동에도 멜로디는 굴하지 않고 어깨를 반듯하게 폈다. 비록 먼지투성이로 귀환하였으나, 멜로디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홀을 가로질렀다.

섭정의 망토가 걸음마다 묵직하게 흔들렸다.

그런 멜로디 뒤를 황녀 데이지가 따랐다. 멜로디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데이지의 모습에 난동을 부리던 로쉐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데이지…….”

공허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데이지는 로쉐 황후를 바라보지 않았다.

“데이지!”

비명 같은 부름에 멜로디가 멈춰 서서 데이지를 돌아보았다.

걱정이 묻어나는 멜로디의 시선에 데이지는 작은 끄덕임으로 답했다.

데이지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멜로디에게 향했고, 멜로디는 그녀가 자신의 옆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다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두 황녀가 함께 홀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황제를 향해 걷던 멜로디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델 공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감금되어 있었다더니,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섭정과 공작은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살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걱정의 파도가 포말처럼 부서져 눈물에 섞여 내렸다.

“카이사르는, 살아 있습니다.”

멜로디가 작게 속삭이자, 공작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공작은 섭정으로 돌아온 멜로디에게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멜로디는 공작을 지나쳐 황제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황제의 병색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쇠약해졌음에도 그의 보라색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났다.

냉혹하리만치 형형한 시선에, 멜로디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섭정의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이 순간, 황제가 그녀에게 원하는 모습은 딸이 아니라 ‘섭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멜로디는 단상 바로 앞에 멈춰 선 뒤, 정중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심장에 손을 얹었다.

“섭정 나이젤 코르벨라로부터 섭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멜로디 코르벨라가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중신들은 입술을 세게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나이젤의 부고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며 몇몇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제는 멜로디를 향해 손짓했다.

“일어나서 제록스 국경 지대의 상황에 대해 고하라.”

그의 명령에 멜로디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 배에 단단히 힘을 주었다.

“제록스 3개 관문을 모두 탈환하였으며, 10만에 이르는 오르센군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르센의 솔 악센은 제록스 영토의 버려진 작은 성에 숨어들었으며,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코르벨라는, 오르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멜로디의 간략한 보고와 선언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중신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중얼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이젤… 나이젤 전하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보뱅 공작이 한 걸음 다가오며 간절하게 묻자, 멜로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황제 우르바시는 빠르게 제국의 정세를 계산하며 멜로디와 보뱅 공작을 나란히 시야에 담았다.

황제이기에, 아들의 부고조차 황제로서 계산해야만 한다.

그에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작금의 제국 상황은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멜로디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황제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잠깐.”

우르바시는 멜로디가 아니라 데이지를 향해 물었다.

“데이지 코르벨라, 인장은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에 로쉐가 고개를 갸웃하며 황제와 데이지를 번갈아 보았다.

“인장이라니? 그것을 왜 데이지에게 물으십니까?”

머리끝까지 오소소 소름이 돋고, 온몸에 한기가 들어서 로쉐는 자신의 팔뚝을 문질렀다.

“응? 데이지, 왜 너에게 인장을 물으시는 게야?”

그녀의 질문에 데이지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감정이란 참 이상하기도 하지.

‘한때는 나의 우주이자, 전부였던 어머니.’

그랬던 그녀인데, 이젠 털어 내고 싶은 과거의 존재가 되어 버렸다.

데이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털어 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억압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지는 간절한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담담하게 고백했다.

“왜냐하면 제가 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네가 왜?”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뭐?”

황망하게 되묻는 황후에게서 데이지는 차분하게 시선을 돌려 버렸다.

놀란 것은 비단 황후뿐만이 아니었다. 중신들을 비롯해 멜로디까지 깜짝 놀란 얼굴로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허리 쪽 단추 하나를 풀고 손가락을 옷 사이로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생각보다 가볍고 작은 그것은, 로쉐와 데이모스가 아들러를 고문하면서까지 찾아내려고 했던 황제의 인장이었다.

“세상에.”

“데이지 황녀님께서…….”

중신들은 놀란 표정으로 데이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일 저 인장이 데이모스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아들러는 데이지에게서 인장을 받아 들며, 그녀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의 무리한 청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녀님.”

그 말에 데이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결국 로쉐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황제의 인장이 딸의 손에 있었다니.

“너였어… 너였어…….”

“…….”

“네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나의 헌신에 대한 너의 답이더냐! 이 배은망덕한 것!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데이지 코르벨라!”

로쉐는 분노에 차서 데이지를 향해 소리를 질러 댔다.

분에 못 이긴 그녀가 벌떡 일어나 데이지에게 달려들었으나, 가까이 있던 기사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이 배신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뻔히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숨기다니!”

그녀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데이지는 끝내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보다 못한 황제가 로쉐에게 홀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발할라 사병의 해산 역시 명했다.

“폐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어요! 폐하!”

데이지는 끝까지 달라붙는 어머니의 음성에 눈을 감고 두 주먹을 세게 쥐었다.

우르바시는 깊은 한숨을 몰아쉰 뒤, 섭정과 아들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섭정과 서관 아들러는 지금 황제의 방으로 들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7)

코르벨라 홀의 뒤편에 마련된 황제의 방.

황제는 방에 마련된 황좌에, 서관은 그의 옆에, 그리고 섭정 멜로디는 단상 아래에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르바시는 끝내 딸을 황제의 모습으로 대할 작정인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 모습에 먹먹한 슬픔을 느낀 멜로디는 시선을 내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우르바시는 찬찬히 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도 날렵하고 단단해졌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고개를 들라, 섭정.”

그의 말에 멜로디가 고개를 들자, 우르바시는 단호하게 물었다.

“나이젤 코르벨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연유로 섭정의 지위를 위임받게 된 것인지 소상히 고하라.”

그의 질문에 멜로디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차분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일족의 참전, 자신의 부재, 블라디미르 국경 지대의 배신과 전령의 배신, 루카스 모데라토의 습격과 섭정의 위임.

이야기가 끝나 갈 무렵 황제는 이를 악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황권을 다지겠다고 두 가문에서 황후를 보아, 사랑이 아닌 권력을 위해 자식을 낳은 그의 업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다.

“그럼 나이젤은 지금 일족의 마을에 있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회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

우르바시는 황좌의 등받이에 깊게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하던 그는 곧 결단을 내렸다.

“나이젤의 부고에 관한 내용을 정정하지 말라.”

“하오나 폐하……!”

“이것은 황명이다, 반문은 허용치 않겠다. 너는 섭정의 자격으로 황위를 양위받아 황제가 되어라.”

그의 말에 멜로디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이젤 오라버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황위를 이어받으라니요!”

“그의 생사가 불투명하니 더욱 그리해야 한다.”

“제가 섭정의 자리를 위임받은 순간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섭정마저 사라지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 틀림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위임을 받은 거라고요.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니라.”

“…….”

“황좌가 비어 있던 동안 이 황궁이 얼마나 암흑이었는지, 작금의 제국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보고도 모르겠느냐?”

“…….”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폐하!”

“내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설령 남았다 하더라도 언제 또 의식이 사라질지 모르니,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지금도 너무 늦었어.”

우르바시는 이미 전쟁 중 나이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랬기에 출전하는 나이젤에게 황좌를 양위하지 않았다. 섭정의 전사와 황제의 전사는 그 무게가 다르기에.

그는 나이젤이 영웅으로 귀환하여 차기 황제가 되어 주길 바랐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더 있다면 나이젤을 기다려 보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

“황제의 자리를 양위받아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발할라 성으로 가라. 이 시국에 내전이 발생하면 그것은 곧 파국이다. 황제의 관을 쓰고 달려가 내전을 막고, 제국을 안정시켜라.”

“그것은 섭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보지 않았느냐. 공허의 황좌와 섭정만 있는 제국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

“시간이 없다. 작금의 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겠느냐?”

그 말에 멜로디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치밀었다. 멜로디는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삼켰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깨에 섭정의 망토를 걸쳐 주던 나이젤이 떠오르자, 가슴이 타는 것처럼 쓰라렸다.

멜로디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침묵하자, 우르바시는 조용하고 나직하게 쐐기를 박았다.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그 말에 눈을 번뜩 뜬 멜로디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황제를 바라보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시선이 이어졌다.

황제는 치밀하게도, 멜로디의 역린을 잘 알고 있었다.

멜로디는 결국 숨을 짧게 들이마시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저는, 나이젤 코르벨라가 돌아오면 황위를 양위할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네가 결정할 일이다. 하나, 네가 황좌에 앉아 있는 동안 나이젤은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모후 마틸다 보뱅 코르벨라에게조차 함구하라.”

권력이란 이토록 냉정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멜로디의 대답을 들은 우르바시가 아들러에게 명령했다.

“아들러, 멜로디 코르벨라에게 황위를 양위할 것이다.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준비하라.”

“예, 폐하.”

아들러가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자, 황제의 방엔 멜로디와 우르바시만 남았다.

멜로디는 아버지를 노려보듯 응시했다. 원망이 섞인 딸의 눈빛에 우르바시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 모습에 멜로디의 눈도 붉어지며, 투명한 것이 차올라 일렁였다.

부녀는 일렁이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짜 이러시기예요?”

“…….”

“정말 이러실 거예요?”

“…….”

계속된 물음에도 우르바시에게선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멜로디의 두 눈에서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입술을 꽉 말아 물고 소리도 없이 우는 딸의 모습에 우르바시는 손을 내밀었다.

“이리,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버지의 부름에 멜로디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바싹 말라 등이 굽은 아버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제 다리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 딸의 얼굴을, 우르바시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목처럼 거칠었다.

“울지 마라, 멜로디. 울지 말거라.”

우르바시는 멜로디의 눈물을 손으로 쓸어 주다가,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멜로디의 이마를 적셨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리 안아 반기지는 못할망정 모진 일을 시켜 미안하다…….”

“…나이젤 오라버니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그래.”

“죽으면 안 돼요.”

“암, 그렇고말고.”

“아버지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말고 이렇게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 그러마.”

멜로디도, 우르바시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스스로를 겨우 다독였다. 어쩌면 이런 순간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졌다.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살살 쓸어 주던 우르바시는 문득, 손끝에 감각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미 두 다리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르바시는 울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숨을 참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러가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황제 곁에 기대어 있던 멜로디가 몸을 일으키자, 아들러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신들은 무어라 하던가?”

“황제 폐하의 뜻에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그들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우르바시는 멜로디와 시선을 맞추었다.

“가자.”

한 줌의 미련, 한 줌의 걱정과 슬픔은 오로지 개인의 것으로 남겨 두고, 우르바시는 다시 황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엄숙한 분위기의 코르벨라 홀.

허리가 굽을 정도로 쇠약해진 황제 앞에 흙먼지 묻은 전투복을 입은 섭정이 무릎을 꿇었다.

중신들은 손과 얼굴에 묻은 먼지와 얼룩을 급히 닦아낸 뒤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상처투성이의 서관이 역사상 가장 간단하게 진행될 대관식의 시작을 알렸다.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황제를 대신하여 서관 아들러가 무릎을 꿇고 앉은 멜로디의 어깨에 붉은 융단으로 만들어진 망토를 둘러 주자, 황제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대에게 내렸던 베델의 이름을 회수하니, 그대는 오직 코르벨라다. 동의하는가?”

“네, 폐하.”

“좋다, 멜로디 코르벨라. 나, 우르바시 코르벨라는 섭정 멜로디 코르벨라에게 나의 모든 황제로서의 직함과 권한, 귀속된 모든 권리를 양위함을 선언한다. 그대는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맹세하라.”

그의 말에 멜로디는 심장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곧 담담한 맹세가 이어졌다.

“저, 멜로디 코르벨라는 코르벨라의 황제로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이룩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살피되, 양옆으로는 넓게 보라. 황제란 사랑하는 자이자, 조율하는 자이며, 선택하는 자다. 주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무리 하찮은 자의 말일지라도 허투루 듣지 마라. 권위란 오만과 자만, 억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포용,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이를 늘 염두에 둠으로써 옳은 황제가 되기 위해 성심을 다하라.”

우르바시는 실록에 기록된 성군 도두 2세의 말을 인용했다.

그조차도 지키지 못한 말이나, 그것이 참된 황제의 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멜로디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말을 마쳤다.

동시에 우르바시의 호흡이 다시 가빠졌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자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렸다.

그는 서둘러 아들러가 들고 있는 황제의 관을 두 손으로 들어 꿇어앉은 멜로디의 머리에 얹었다.

마침내 황제의 관이, 멜로디 코르벨라에게 씌워졌다.

멜로디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관의 무게를 가느끼며, 고개를 들어 우르바시의 보라색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우르바시는 현명하게 빛나는 새파란 눈동자를 보며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 온몸의 힘을 끓어올려 선언했다.

“멜로디 코르벨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코르벨라의 황제다. 부디, 성군이 되길 바란다.”

그의 선언에 아들러가 멜로디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새로운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아들러의 외침에, 홀에 모였던 모든 이들 역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크게 외쳤다.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멜로디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았다.

웅장하고 거대한 코르벨라 홀의 상석에, 새로운 황제가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섰다.

화려한 식도, 우아한 의상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어깨에 두른 묵직한 황제의 망토와 머리에 쓴 황제의 관이 그녀가 제국 유일의 황제라는 것을 증명했다.

새로운 황제는 결연한 의지가 깃든 표정으로 중신들을 훑었다.

중신들과 차례로 시선을 맞춘 멜로디는 어깨와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배에 힘을 단단히 주었다.

빠르게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한 멜로디는 황제로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비상 상황을 해제하겠소. 중신 회의를 재개하고, 각계 대신들의 결정 권한을 허가하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시오.”

“네, 폐하.”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8)

“베델 공.”

멜로디가 베델 공작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헨베스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궁을 비운 사이, 행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을 그대에게 잠시 위임하겠소. 권한 대행이 되어 나 대신 황궁을 관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보뱅 공.”

“네, 폐하.”

“사령관이 돌아올 때까지 군의 권한을 그대에게 부여하는 바이니, 수도 내의 사병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수도 방위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중신 회의에 난입했던 것이 이렇게 빛을 발할지는 그녀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중신 회의에서 보아 왔던 이들이다. 덕분에 그들의 역량과 역할이 멜로디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멜로디가 막힘없이 지시를 내리자, 중신들을 비롯하여 우르바시마저도 눈을 크게 뜨고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단호한 태도로 빠르게 지시를 내린 멜로디는 몸을 돌려 아들러를 바라보았다.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아들러, 짐을 따라 행군할 수 있겠나?”

황제의 물음에 아들러는 심장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대륙을 넘어가신다 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코르벨라군을 데려오려면 그녀가 황제라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할 터.

멜로디는 잠시 그의 상태를 살피며 고민하였으나, 아들러의 고집스러운 표정에 걱정을 잠시 접어 두기로 했다.

멜로디가 머리 위의 관을 두 손으로 내려 그에게 내밀자, 아들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제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려 발할라 성으로 갈 것이네. 그러니 그대가 잘 들고 따라오게.”

“예, 폐하.”

그제야 아들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제의 관을 받아 들었다.

멜로디는 황좌에서 내려온 우르바시에게 눈길을 잠시 주었다가, 몸을 돌려 홀의 정문을 직시했다.

데이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멜로디는 데이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준 후, 낭랑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발할라 성으로 가서 내전을 막고, 제록스 국경 지대를 살핀 후 돌아오겠소! 그동안 그대들에게 코르벨라의 수도를 맡길 테니,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오.”

“예, 폐하!”

중신들의 우렁찬 외침을 들은 황제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내려와 홀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걸음마다 묵직한 황제의 망토가 펄럭였다.

서관 아들러와 황제의 깃발을 든 근위대 두 명이 멜로디의 뒤를 따라 걸었다.

중신들은 코르벨라의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디디는 황제를 향해 깊게 고개를 조아렸다.

상황(上皇: 후계에게 자리를 물려준 황제)이 된 우르바시는 바퀴 의자에 앉아 멀어지는 멜로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열린 문으로 빛이 들이치는 홀의 끝에 도달한 멜로디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우르바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교차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부디 건강하시라는 말도 나눌 수 없는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멜로디는 이내 몸을 돌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대리석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셨다.

새로운 황제가 황궁을 활보하자, 황궁의 시중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히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때마침 머리 위로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우뚝 솟은 코르벨라 궁의 첨탑을 바라보았다.

탑에 앉아 있던 비둘기들이 종소리에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다.

곧 새로운 황제를 의미하는 금빛 깃발이 높이 솟아올랐다.

우르바시는 딸이 사라진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명령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음을 만천하에 알려라.”

그의 명령에 코르벨라 궁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종이 울리고,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의미하는 금빛 깃발이 게양되었다.

장엄한 종소리를 잠시 듣던 우르바시가 베델 공작과 중신들에게 말했다.

“내 재위 기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당시의 황제였던 나에게도 결정권이 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

그는, 새로운 황제가 처리하기 곤란한 일들을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해결해 주고 갈 생각이었다.

\* \* \*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생의 의지를 놓은 듯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마틸다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종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더냐.”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코르벨라 궁의 첨탑이 보이는 테라스로 달려가 있는 힘껏 테라스 문을 열어젖혔다.

아니나 다를까. 첨탑에는 새 황제의 즉위를 의미하는 금빛 깃발이 높게 게양되어 있었다. 마틸다 황후의 눈에 두려움이 스쳐 갔다.

‘설마…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황제의 자리를 승계한 것인가?’

나이젤의 부고 이후, 그녀는 완전한 칩거 생활에 들어가 버렸다.

고치 속 애벌레처럼 한 발자국도 자신의 침실을 벗어나지 않고 몸을 옹송그렸다.

그랬기에 그녀는 현재 황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황궁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 스스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나이젤의 부고가 전해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마침 그때, 코르벨라 궁 방향에서 바쁜 걸음으로 달려오던 시종들이 테라스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마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그들을 다급히 불렀다.

“이보게!”

시종들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다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예, 황후 폐하.”

반사적으로 대답했던 시종은 서둘러 자신의 실수를 정정했다.

“아, 죄송합니다. 태후 폐하.”

“그렇지 않아도 상황 폐하의 명으로 태후 폐하께 상황을 고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선 마틸다의 손이 잘게 떨렸다. 자신이 황후이건, 태후이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황제가 되신 것이냐?”

그녀의 물음에 시종들은 잠시 시선을 교환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태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멜로디 코르벨라 전하께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셨습니다.”

“멜로디?”

생각지도 못한 이름에 마틸다가 반문하자, 시종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혼란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던 그녀가 다급히 다시 물었다.

“멜로디 역시 부고가 전해지지 않았더냐? 그럼, 나이젤 소식은 아는 것이 있느냐?!”

“…….”

“…….”

나이젤에 대한 질문에 시종들은 침묵하며 깊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태후 마틸다는 난간에 고개를 묻었다.

“폐하…….”

시녀들이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소리 없이 오열하던 태후는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다시 침실로 들어왔다. 바싹 마른 몸의 그녀를 시녀들이 다시 침대에 눕혀 주었다.

마틸다는 베개에 파묻혀 눈물을 쏟아 냈다.

그녀가 우는 사이, 시녀들이 그녀를 대신하여 코르벨라 궁의 시종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폐하, 상황 폐하께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지금 코르벨라 궁으로 가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다 전해라.”

“폐하…….”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무엇이 궁금하겠느냐? 그러면 나이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더냐?”

“…….”

마틸다는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황후건, 태후건 그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누가 황제가 되었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다.”

마틸다는 나이젤이 아기 때 입었던 옷을 가슴에 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먹먹한 어둠 속을 헤매는 마틸다는, 마치 사방이 막힌 관에 누운 것만 같았다.

나이젤, 나이젤.

그는 마틸다의 전부였다.

“내가 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조차… 네가 그토록 하기 싫어하던 일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니. 나이젤, 기어이 어미가 너를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기어이 내가……. 그까짓 황좌가 뭐라고, 그까짓 권력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제발, 어머니. 제발…….”

그의 고통스럽던 목소리가 떠오르자, 마틸다는 결국 비명을 질렀다.

놀란 시녀들이 달려 들어와 들썩이는 마틸다를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마틸다의 통곡은 그칠 줄을 몰랐다.

“나이젤, 나이젤, 나이젤!”

회한과 통탄, 슬픔으로 점철된 마틸다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였다.

‘이 어미도 데려가거라, 나이젤.’

자신의 궁으로 쫓겨 온 로쉐는 의자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독한 술을 꺼내 꿀꺽꿀꺽 마셨다. 도저히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폐하, 폐하!”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독한 술을 마셔 대는 그녀를 시녀들이 다급하게 말렸으나, 로쉐는 막무가내였다.

넘치는 술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 상복을 적시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병의 절반을 순식간에 비운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하… 정말… 빌어먹을 세상.”

로쉐는 울면서 웃었다. 시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주춤주춤 방을 나가 버렸다. 홀로 남은 로쉐는 끊임없이 깔깔댔다.

“그렌트, 지옥에서 웃고 있느냐? 네 웃음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언제, 어느 순간의 선택이 이런 파국을 불러온 것일까?

그때 문득,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비교만큼 아이의 싹을 죽이는 것도 없으니 아이를 그 자체로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맹랑한 소리에 로쉐는 퍽 기분이 상했었다.

평소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몸을 사려 처신 하나는 잘한다고 여겼건만, 그날만큼은 로쉐의 심기를 언짢게 했다.

로쉐는 네 자식이나 잘 간수하라며 쏘아붙였고, 그 여자는 그 뒤로 다시는 로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하. 마틸다… 네 자식도, 내 자식도 아닌 그 여자의 자식이 황제가 될 줄은 너도 몰랐겠지?”

잠시 침묵하며 과거를 되짚던 로쉐가 입가에 비웃음을 걸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어. 내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 냈어! 내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삶은 늘 그녀에게 가혹했다.

로쉐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때였다.

장엄한 종소리가 수도에 울려 퍼졌다.

로쉐는 비틀거리며 테라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술에 취해 시야가 흔들렸다. 온 세상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아, 그녀는 난간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금빛 깃발이 높이 게양되자, 로쉐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29)

황궁의 정문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안은 황궁 내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비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발할라 사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가까이 있던 부인들도 그들을 주시했다.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불안한 듯 중얼거리는 부인들 사이에서, 럭셀로 후작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녜요. 이대로도 괜찮을 듯싶어요. 보세요.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으니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그때, 베델 가문의 집사가 병사들 사이를 헤치며 이안에게 달려왔다.

“마님!”

“무슨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집사의 등장에 이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자, 그는 벅찬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 입술을 덜덜 떨었다.

“집사.”

이안의 얼굴을 마주한 집사의 두 눈이 벌겋게 물들었다. 가슴이 벅차 목이 메는 듯,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에 이안의 두 눈도 붉어졌다.

베델의 오랜 집사는 카이사르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공작 부부와 함께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에게 가진 애정이 각별했다.

그랬기에 카이사르와 멜로디의 부고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절망했던 이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

벅차서 말도 잇지 못하는 집사의 모습에, 이안은 그가 가져온 소식의 정체를 쉽게 눈치챘다.

“카이사르가, 그 애가 왔나요?”

공부인의 말에 집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작게 흐느꼈다.

“예, 마님. 도련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 성문 밖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울며 소식을 전하는 그의 말에, 이안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가슴이 떨려 눈물이 차올랐다.

지켜보던 부인들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축하를 보냈다.

이안은 집사를 다독였다.

“그래, 그래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저는… 저는 정말이지…….”

주름진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던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안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작은 마님께서도 혹시…….”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황궁 앞에 모여 있던 수많은 인파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일정한 박자에 맞춰 천천히 울려 퍼지는 장엄한 종소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닮았다. 모두의 가슴을 뒤흔드는 울림에 누군가가 외쳤다.

“새로운 황제 폐하께서 등극하셨나 봐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황궁 앞이 한순간 소란해졌다.

“새로운 황제 폐하?”

“누구? 누구시지?”

“누가 황제가 되신 거야?”

“그럼, 우르바시 폐하는 어찌 되신 거지?”

이안마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성벽을 바라보았다.

불안하게 움직이던 발할라의 사병들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시종들이 나타나 성벽에 금빛 깃발을 게양했다.

높이 올라가는 금빛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자 군중은 더 소란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인들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안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웅장한 황궁의 정문 앞에 선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서서, 하늘 꼭대기에 걸린 듯한 금빛 깃발을 바라보았다.

찬란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금빛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심장 고동 소리를 닮은 종소리가 엄숙하게 온 수도를 뒤흔들었다.

이안의 심장도 그에 맞춰 두근거렸다. 손에서 땀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성문 위에 기사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긴 호각을 있는 힘껏 불었다.

장엄한 종소리와 더불어 우렁찬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굳게 닫혀 있던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란하던 주변이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두 숨을 죽이며 열리는 성문 너머를 응시했다.

부인들 중 누군가는 긴장하여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이안은 두 눈을 부릅뜨고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불던 바람도 잠시 길을 멈춘 것만 같았다.

모두의 심장을 울리던 장엄한 종소리도, 긴 호각 소리도 그 순간엔 들리지 않았다.

열린 문 너머, 푸른빛이 도는 거대한 군마 위에 붉은 망토를 입은 새 황제 멜로디 코르벨라가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 그녀의 오른편에는 서관의 검은 망토를 입은 아들러가, 그녀의 뒤로는 황제를 의미하는 긴 깃발을 든 근위 기사 두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에, 황궁 앞에 모인 수많은 인파는 순식간에 장악당했다.

이안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을 더 다가갔다. 황제와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이안 럭셀로 베델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얼굴로,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처럼 서 있었다.

과연 그녀라고 생각하며 멜로디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 이안은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입술을 꾹 말아 물었다.

뜨겁고 벅찬 것이 가슴을 울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안 럭셀로 베델은 울면서 커다랗게 외쳤다.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성루에 선 기사가 다시 길게 호각을 불었고, 서관 아들러가 있는 힘껏 외쳤다.

“코르벨라의 새 황제 폐하시오!”

서관의 선언에 황궁 앞에 모인 부인들이 허리를 깊게 숙였다. 뒤에 모인 사병들도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삼삼오오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던 코르벨라의 백성들도 새로 등극한 황제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예를 표했다.

정중한 공경의 물결이 들녘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번져 나가는 것을 멜로디는 심장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여름이 끝나 가는 계절, 제법 선선해지기 시작한 바람이 불어오자 황제의 망토가 펄럭였다.

멜로디는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제록스 3곽 이북의 전쟁은 코르벨라의 승리로 끝났다! 나는, 지금 당장 발할라 성으로 달려가 내전을 막고 제록스 국경 지대를 정비한 후 돌아올 것이다!”

백성들과 사병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제의 말을 되짚다가, 이내 환희에 찬 목소리를 내었다.

“오르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패배했다더니 아니었나 봐!”

“코르벨라가 이겼다잖아!”

수많은 중얼거림에 멜로디는 다시 외쳤다.

“오르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코르벨라는 승리하여 제록스 3곽 이북을 모두 탈환하였으며, 영웅들은 곧 귀환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영위하라! 나는, 코르벨라의 황제로서 그대들의 평안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새 황제는 마치 군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멀리서도 빛나 보이는 새파란 눈빛과 거대한 군마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냉정함이 깃든 단단한 표정에 군중은 전율했다.

누군가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했다.

“코르벨라 만세!”

그의 환호에 베델의 노집사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황제 폐하 만세!”

환호의 함성은 들불처럼 번져 갔다.

“코르벨라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전쟁 소식에 위축되었던 수도의 백성들은 당당히 승리를 선언하는 황제에게 엄청난 함성과 환호로 화답했다.

그 함성과 환호에 수도의 하늘을 뒤흔들던 종소리와 호각 소리조차 묻혀 버렸다.

외곽 성벽 곳곳에도 금빛 깃발이 하나둘씩 게양되고, 각 성루마다 기사들이 올라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호각을 불었다.

성난 들불처럼 번지는 엄청난 환호와 장엄한 종소리, 물결치는 금빛 깃발과 웅장한 호각 소리.

바야흐로 코르벨라의 수도는 새 황제의 등극으로 들끓었다.

서관 아들러는 반듯한 자세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 엄청난 함성과 환호를 온몸으로 받아 내는 새 황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반듯하고 당당한 뒷모습이 아들러가 기억하는 누군가와 참 많이 닮아 있었다.

감히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었던 사람이 떠오르자, 아들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을 떠올릴 만한 존재로 성장했다면, 이 선택은 어쩌면…….

아들러는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커다랗게 외쳤다.

“모두, 길을 여시오! 폐하께서 지나가실 것이오! 수도의 정문을 열어라. 폐하께서 지나가실 것이다!”

서관의 명령에 모여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물러나자, 직선 도로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던 인파도 양옆으로 갈라지듯 물러났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장관에, 성루에 서 있던 기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멜로디는 긴 길의 앞에 서 있는 이안에게 다가갔다.

아니타 위에 앉은 황제를 올려다보던 이안은 깊게 고개를 숙였고, 멜로디는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공부인, 고개를 드시오.”

황제의 호명에 이안은 고개를 들고 멜로디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 쥐었다.

황제의 손은 거칠었다. 이안은 그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고생 많았소.”

“아닙니다. 폐하께서 고생이 많으셨지요. 부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곳은 저희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베델 공과 중신들도 모두 무사하니 걱정 마시오.”

그녀의 말에 부인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기뻐했다.

황제는 웃음기를 지운 단호한 얼굴로 수도 정문까지 이어진 길고 곧은 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망토의 매듭을 한 번 매만진 뒤, 아니타의 목덜미를 두드렸다.

“아니타!”

그에 아니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 길을 내달렸다.

하늘을 나는 천마처럼 아름답고 거대한 말이 질주를 시작하자, 수도 사람들은 넋을 놓고 황제를 바라보았다.

푸른 갈기와 황제의 붉은 망토가 펄럭였다. 서관과 두 근위 기사가 황제 뒤를 바짝 쫓았다.

새로 등극한 코르벨라의 황제는, 발할라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수도의 거대한 정문은 그녀의 질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입을 벌렸다.

성문 밖 드넓은 평야가 보이기 시작하자, 아니타는 거친 바람을 가로지르며 길게 도약했다.

장엄한 종소리와 호각 소리, 엄청난 함성 소리가 코르벨라 수도의 높은 성벽을 넘어왔다.

수도 외곽 평야 지대에서 대기 중이던 카이사르와 6군단의 시선이 수도 성벽으로 향했다.

온 수도가 새 황제의 등극으로 들끓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다.

수도 외곽 성벽마다 금빛 깃발이 게양되고, 기사들이 성벽에 올라 호각을 불었다.

6군단 역시 수도 성벽을 넘어오는 함성에 동조했다.

“황제 폐하 만세!”

“코르벨라 만세!”

카이사르는 그 엄청난 소리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서 길고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매서운 시선으로 성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어! 성문이 열립니다!”

수도의 정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본 누군가가 외쳤다.

잠시 후, 하늘을 찢을 듯한 거대한 함성 소리 사이로 거칠고 빠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 볼테르가 뒷발로 땅을 차 댔다.

카이사르가 볼테르의 갈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상체를 조금 숙이는 그 순간, 열린 문 너머에서 네 필의 말이 쏜살같이 튀어나오더니, 드넓은 평야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푸른 군마를 모는 이의 등에는 황제를 의미하는 붉은 망토가 거칠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기사들은 황제를 의미하는 긴 깃발을 등에 짊어지고 있었으며, 서관의 검은 망토가 황제의 오른쪽에서 펄럭였다.

그녀는, 황제가 되어 나타났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0)

그녀는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나, 온 마음을 다해 질주하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빠르게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포효하듯 외쳤다.

“황제 폐하를 따라라!”

그의 명령과 동시에 볼테르가 아니타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미하엘을 따라 수도 방위대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한 절반의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카이사르의 뒤를 따랐다.

황제 멜로디를 필두로 수많은 기사들이 대지를 박차며 달리자, 마치 땅에서 천둥이 치는 것만 같았다.

점점 거리를 벌리며 앞서는 아니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볼테르뿐이었다.

볼테르는 질 수 없다는 듯이 달려갔고, 곧 아니타의 곁에 바짝 따라붙었다.

앞만 보고 달리던 멜로디가 제 오른쪽에 나타난 그를 드디어 바라보았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세상에 그가 나타나자, 멜로디는 엄청난 무게로 양어깨를 짓누르던 망토의 묵직함을 한순간 잊어버렸다.

자신이 악마든, 요정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던 남자를 마주하자 어깨를 짓누르던 망토의 무게도, 등 뒤에 달라붙던 장엄한 종소리와 호각 소리도 몰아치는 바람에 실려 가 버린 것만 같았다.

그래서 멜로디는 그의 맑은 두 눈을 보며 싱긋 웃었다.

카이사르는 붉은 황제의 망토를 두른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들이 처음 인사를 주고받았던 때가 떠올랐다.

들이치는 오후의 햇살 아래, 새파란 눈의 황녀는 그에게 성큼 다가와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자신을 향해 길게 휘는 새파란 눈이 얼마나 깊고 맑던지, 카이사르는 한순간 그 새파란 시선에 매료되었다.

그때와 달리 등 뒤에선 종소리와 호각 소리가 들려오고, 그녀의 어깨엔 황제의 망토가 매달려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었던 그 순간처럼.

멜로디 코르벨라는 멜로디 코르벨라 베델이 되었다가 다시 멜로디 코르벨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카이사르는 멜로디의 미소에 미소로 답했다. 그가 웃자, 입술 끝에 작은 보조개가 드러났다.

부부는 똑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저히 웃지 못할 상황인들 어떠한가?

그들의 웃음은 서로에 대한 위로이자 응원이었고, 믿음이자 사랑이었다.

황제와 사령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며 자세를 낮췄다. 아니타와 볼테르는 나란히 바람을 가로지르며 내달렸다.

황제와 그녀의 기사들이 발할라 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 \* \*

약 일주일 전, 발할라 성.

성에 도착한 카이산은 발할라 성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

발할라 성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성문 폐쇄에 당황하고 있을 때, 카이산 코르벨라는 성의 모든 남자들을 징집을 명하며 검과 방패를 떠안겼다.

“모두 성문에 집결해라! 막아, 막으라고! 알겠어?!”

“도대체 누가 발할라 성을 공격할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올 거다. 모두 무기를 들고 성벽에 섰다가 공격하면 막아,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황자님,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배제하는 것이…….”

“그렇게 예외를 두면 다 빠져나갈 것 아니냐! 지금도 모자라단 말이다!”

카이산은 막무가내로 우겼으나, 병사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암암리에 배제했다.

그럼에도 간간이 앳된 소년이나 쇄약한 노인들이 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자, 2군 1사단장은 거칠게 화를 냈다.

“미쳤다, 미쳤어!”

카이산 코르벨라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동과 쇠약한 노인마저 최전방으로 내몰고는, 홀로 영주 성의 깊숙한 곳에 꼭꼭 숨었다.

그러고는 식사도 거른 채 덜덜 떨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를 죽일 거야. 외숙… 외숙, 어디 계십니까?”

카이산 코르벨라가 그렇게 숨은 사이, 얼떨결에 검을 들고 성벽에 서게 된 소년은 날카로운 검이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서 이리저리 만져 보다가 결국 손을 베이고 말았다.

“아얏!”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1사단장이 한숨을 푹 쉬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예, 예?”

정예 중의 정예라는 근위대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자, 소년은 상처의 쓰라림도 잊어버렸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검을 쥐고 성벽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분명한 소년의 얼굴을 보자, 1사단장은 일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손.”

그의 짧은 말에 소년은 얼른 다친 손을 내밀었다. 1사단장은 피가 배어 나오는 손바닥을 살펴보다가 말했다.

“오른손잡이지?”

“예.”

“이래 가지고는 검을 들지 못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예? 하지만…….”

“쓰라려서 어디 검을 들 수 있겠냐? 마감도 좋지 않은 것을 억지로 들었다간 덧난다. 어서 돌아가서 상처부터 치료해라.”

“…….”

“명령이니 따라라. 이 녀석, 돌려보내.”

1사단장은 옆에 서 있던 2군단 병사에게 말한 뒤 소년을 지나쳐 걸어가 버렸다.

병사는 멍하니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얼른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이 정도 상처에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계단을 내려가던 소년이 문득 뒤로 돌며 병사에게 묻자, 병사는 씁쓸한 얼굴로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인마, 네가 지금 검 들고 피 흘리며 싸울 때냐?”

“…저 어린애 아니거든요?”

“얼씨구? 그럼 어른이냐?”

“곧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은 아직 네가 할 일이 아니야.”

“…….”

병사는 곧 사라졌고, 소년은 터덜터덜 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저 멀리서 그의 어머니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며칠 뒤,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발할라 성에 나타났다.

병사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발할라 성문에 게양된 국기와 데이모스가 이끌고 온 군대가 든 국기를 번갈아 보았다.

여기나 저기나 코르벨라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우리 왜 이렇게 대치하는 거야?”

“나라고 아나.”

카이산에게 다녀온 병사가 성문 위에 서 있는 2군 1사단장에게 달려와 말을 전했다.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뭐?!”

1사단장이 버럭 화를 내자, 병사도 답답한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성문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막아라, 무조건.’ 이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미친!”

1사단장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데이모스가 이끌고 온 대군을 바라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대군을 살피던 그는, 그들이 다름 아닌 2군단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투구에 가려져 있다 한들, 오랜 전우를 못 알아볼 리 없었다.

“제길…….”

1사단장은 울화가 치밀어서 욕을 내뱉었다. 그는 타는 듯한 가슴을 가라앉히며 신중하게 누군가를 찾았다.

“군단장님…….”

사단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계속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군단장 로벨 루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데이모스 쪽에 서서 성문을 바라보고 있는 2군단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당황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저기 성문에 2군단 아닙니까?”

“맞다.”

“우리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

병사들과 기사들이 입술을 깨물며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데이모스가 발할라 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카이산 코르벨라! 당장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

성문 위에 서 있던 1사단장이 그의 외침에 얼른 답했다.

“카이산 코르벨라 황자님께서는 나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반역으로 간주해 발할라 성을 공격하겠다!”

그의 끔찍한 말에 성벽에 서 있던 2군단이 크게 동요하며 웅성거렸다.

“우리가? 반역이라고?”

“우리가 왜?”

“카이산 황자님을 따라 나온 것은 데이모스 전하의 명이었잖아!”

1사단장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전하! 2군단이 카이산 황자님을 따라 종군하게 된 것은 전하께서 명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반역이라니요! 카이산 황자님을 따르라 하셨던 명을 철회하시고, 발할라 성의 문을 연 다음 카이산 황자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상식적으로 그 말이 옳았다. 하지만 데이모스는 카이산의 회군 소식에 수도 방위대 전원을 이끌고 발할라 성으로 달려온 인물이다.

그는 냉혹한 얼굴로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외쳤다.

“카이산 코르벨라,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발할라 성을 공격할 것이다! 이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단 한 명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침에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카이산 코르벨라를 만나러 온 것인지, 이 기회를 빌미 삼아 발할라의 모든 것을 없애 버리겠다고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1사단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카이산 황자님과 우리에게 내렸던 명령은… 가서 죽으라는 것이었다.”

가서 죽으라는 명령을 우회적으로 돌려 한 것이었으니,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명령을 어긴 셈이었다.

1사단장이 입술을 세게 짓씹었다. 결국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다.

가장 뒤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로벨 루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입고 왔던 모든 갑옷과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맨몸으로 대열을 가로지르며 앞으로 향했다.

군단장이 걸어 나오자, 열을 맞춰 서 있던 병사들은 정중히 묵례하며 그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었다.

상황 판단의 귀재 로벨 루치조차 먹먹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하늘과 땅, 동서남북의 방향조차 사라진 깊고 어두운 심해를 마주한 것만 같았다.

까마득한 두려움이 몰아쳤으나, 로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발할라 성벽 위에 있던 2군단은 저 멀리서 홀로 대열을 헤치고 나오는 자를 알아보았다.

“군단장님이시다!”

“군단장님께서 왜 저런 모습으로…….”

“왜 뒤에서 나오시는 거야?”

말조차 허락받지 못한, 말단 보병의 모습으로 나타난 로벨 루치는 애타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전우들을 마주 보았다.

기어이 가장 앞쪽으로 걸어 나온 로벨은 발할라 성문 위에 서 있는 1사단장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발할라의 성문을 열어라! 싸울 이유가 없으니, 싸울 필요도 없다! 성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나와라!”

갑작스러운 외침에 데이모스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로벨 루치는 몸을 돌리더니 함께 온 전우들과 시선을 맞추며 커다랗게 포효했다.

“보아라! 발할라 성에 있는 이들은 우리의 전우들이다! 싸울 필요도, 이유도 없다! 성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나오는 전우를 맞이하자!”

“너, 이 새끼가!”

“1사단장!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검을 들지 말고, 차분히 문을 열고 나와라! 알겠나!”

데이모스가 화가 난 얼굴로 말에서 내려 그에게 달려왔다.

로벨은 그 모습에 어금니를 세게 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곳에선 오직 자신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의미 없는 희생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 2군단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1)

스스로에게 다짐한 로벨 루치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이곳의 모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뭐야?!”

“카이산 황자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발할라 성에 있는 모든 코르벨라의 죄 없는 백성들과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데이모스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머리끝부터 시작된 찌릿한 소름이 발끝까지 퍼지자, 그의 전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어금니를 세게 악물며 성난 맹수처럼 로벨 루치에게 다가갔다.

이 새끼를, 그날 죽였어야 했다.

로벨 루치는 성난 데이모스의 모습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외쳤다.

“이 시국에 의미 없는 희생을 만드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아니셔야 합니다! 코르벨라의 죄 없는 백성들과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십니다! 발할라 성의 주민들도, 2군단도! 모두 코르벨라의 백성들입니다!”

데이모스는 야차처럼 달려와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로벨 루치가 쓰러지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2군단은 울분을 삼켰다.

로벨 루치는 다시 일어나 외쳤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절대 너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미친 새끼가!”

데이모스는 급기야 가까이 서 있던 병사의 방패를 우악스럽게 빼앗아 로벨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제아무리 정예라 할지라도, 맨몸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로벨은 이내 쓰러져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다.

그 끔찍한 모습에 군단장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았던 기사가 이를 악물고 달려 나와, 데이모스와 로벨 사이를 가로막았다.

“너는 뭐야!”

분노한 데이모스가 포효했으나, 그는 경직된 얼굴로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군단장의 망토 역시 벗어 땅에 내려놓았다.

“뭐 하는 새끼야!”

데이모스가 길길이 날뛰자, 로벨은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말했다.

“너… 당장, 들어가라…….”

로벨의 말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마치 로벨처럼 포효했다.

“의미 없는 싸움을 당장 멈추시고, 수도로 돌아가십시오! 누구도, 이 싸움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의 외침에 데이모스가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하, 젠장. 다들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봐? 너, 감히 누굴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광기에 그곳에 있던 모두의 주먹이 떨렸다.

이런 자가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지,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렸다.

그때, 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대열을 맞춰 서 있던 병사들이 소리가 난 곳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병사 중 한 사람이 입고 있던 갑옷과 무기를 바닥에 버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모습에 다른 병사들 역시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둘씩 검을 내려놓으며 갑옷을 벗었다.

말을 타고 있었던 기사들은 아예 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맨몸이 된 병사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자, 성벽 위에 서 있던 2군단도 그들을 따라 무기를 바닥에 내려 놓고, 갑옷을 벗어 버렸다.

방패로 로벨의 몸을 있는 힘껏 내리치던 데이모스는 무릎을 꿇고 앉은 군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황망한 표정으로 연신 두리번거렸다.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누가 무장을 해제하라고 했나! 당장 다시 무장해! 무기를 들란 말이다!”

가장 앞 열에 있던 병사들과 기사들의 가슴팍을 밀치며 데이모스가 거칠게 항의했으나, 병사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시선만 내릴 뿐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데이모스는 눈을 껌뻑이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섭정인데.

자신이 권력의 중심인데.

중신들도 자신을 무시하더니, 이젠 한낱 병사들마저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네놈들이,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게로구나.”

그 말에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로벨이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네놈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서 이러는 것이지!”

데이모스는 부들부들 떨며 땅에 떨어져 있던 검을 집어 들었다.

그는 검을 뽑아 코르벨라군에게 겨냥하더니,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오냐. 잘 보아라. 감히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로벨 루치에게 걸어갔다. 그러고는 검을 쥐지 않은 왼손으로 로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그의 목에 검을 들이밀었다.

“죽는 것이 소원인 듯하니, 내 친히 네놈을 지옥으로 보내 주마.”

로벨을 죽이려는 듯한 행동에 2군단 중 누군가가 다급히 외쳤다.

“그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외치자, 다른 병사들도 군중 속에 숨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발할라 성벽에 서 있던 병사들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러 댔다.

“로벨 루치를 살리소서!”

대군의 함성이 노도처럼 몰려와 데이모스를 강타했다.

자신이 늘 업신여겼던 군중의 성난 함성에, 데이모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머리끝이 쭈뼛 설 만큼 거대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더욱 분노하여 로벨의 머리채를 단단히 쥐어 잡았다.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이놈을 죽여,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데이모스는 있는 힘껏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일격에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마음으로 오른손에 힘을 주던 그 순간이었다.

길고 우렁찬 호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더니 곧 땅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쇠붙이들이 잘게 흔들리며 소리를 내었다.

점차 땅의 진동이 거세지며, 동시에 대지를 두드리는 거친 말발굽 소리가 우레처럼 몰려왔다.

우렁찬 호각 소리가 길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자 병사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로벨의 머리를 잡고 있던 데이모스도 그의 머리를 거칠게 밀어 버린 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갔다.

발할라 성 인근엔 깊고 울창한 삼림 지대가 있는데, 호각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거친 숲을 가로질러 그들에게 달려오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이 위급한 순간, 과연 누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인가!

발할라 성벽에 서 있던 병사들도, 성벽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병사들도, 데이모스 코르벨라도 숨을 죽인 채 짙은 녹음의 숲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짙고 어두운 숲속, 잎사귀에 조각난 햇살 몇 줄기가 땅으로 내리꽂혔다.

저 멀리 발할라의 성이 보일 무렵, 멜로디는 아니타를 멈춰 세웠다.

멜로디는 아들러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그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었다.

아들러는 곧장 말에 매달려 있던 함의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황제의 관을 꺼내어 멜로디에게 바쳤다.

왕관의 보석이 조각난 햇살에 반짝였다.

“…머리에 쓰고 달리면 떨어지겠지?”

“그럴 듯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멜로디는 왕관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검을 잡았다.

검과 왕관을 양손에 쥔 그녀는 빛이 들이치는 숲의 끝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 같다고 모두 생각했다.

짙은 숲속,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햇살 몇 줄기에 무언가가 반짝인 것 같다 생각할 무렵, 누군가가 불쑥 숲의 어둠을 찢고 달려 나왔다.

푸른 갈기를 가진 거대한 군마가 거친 바람을 가로지르며 내달리자, 그 위에 앉은 이의 붉은 망토가 펄럭였다.

“어?”

누군가의 탄성과 동시에 다섯 필의 말이 숲의 어둠을 가로지르며 나타났다.

“어어?!”

“저, 저분은!”

멜로디가 발할라 성이 제대로 보이는 곳에서 멈춰 서자, 서관 아들러가 그녀의 오른쪽에, 사령관 카이사르가 그녀의 왼쪽에 섰다.

황제의 깃발과 호각을 든 근위 기사 두 사람이 그 뒤를 지키듯 섰다.

그들을 따라온 6군단의 병사들 역시 그 뒤에 도열했다.

멜로디는 들고 있던 왕관을 천천히 머리에 썼다.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황제의 관과 등 뒤에서 펄럭이는 붉은 망토.

서관과 사령관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녀는 다름 아닌 코르벨라의 황제였다.

멜로디는 천천히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카이사르와 아들러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6군단은 여기서 대기하라.”

무릎 꿇은 병사들과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데이모스 코르벨라, 그의 발치에 쓰러진 누군가.

“호각을 불어라.”

멜로디의 나직한 명령에 기사가 길게 호각을 불자, 그에 맞춰 아니타가 구보를 시작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멜로디는 데이모스에게 다가갔다.

병사들은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적막할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 다섯 필의 말발굽 소리만이 일정하게 공기를 흔들었다.

멜로디는 붉게 물들어 이글거리는 데이모스의 두 눈을 직시했다. 두 사람은 팽팽하게 서로를 노려보았다.

아니타가 적당한 선에서 멈춰 서자, 멜로디는 데이모스에게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짐의 병사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 중인가, 데이모스 코르벨라.”

그녀의 나직한 말에 그곳의 모두가 전율했다.

병사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억눌린 탄성을 내질렀고, 데이모스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뭐?! 짐?”

“…….”

“네까짓 것이! 감히 어디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감히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느냐!”

그의 말에 서관 아들러가 있는 힘껏 호통을 쳤다.

“코르벨라의 새로운 황제 폐하십니다! 무례를 거두고,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십시오!”

데이모스는 서관 아들러의 호통에 기가 막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손에 쥔 검을 내팽개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가 섭정이다! 나,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섭정이야! 나를 두고 네까짓 것이 어찌 황제가 될 수 있어!”

“너는 섭정이 아니다.”

“뭐?”

“데이모스 코르벨라, 어찌하여 제록스 3곽 이북이 적에게 넘어갔다고 알렸나? 어찌하여 나를 비롯한 모두가 전사했다고 거짓을 전한 건가?”

갑작스러운 추궁에 데이모스는 당황하여 머뭇거렸다. 멜로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리를 높였다.

“원군을 부르러 간다던 그대는 어찌하여 모두가 죽었다는 거짓을 전하고, 수도로 달려가 섭정의 자리를 찬탈하였는가!”

“아니, 아니… 그것은!”

“그대는 단 한순간도 섭정이었던 적이 없다! 나, 멜로디 코르벨라가 나이젤 코르벨라에게서 섭정의 자리를 위임받았다. 코르벨라엔, 단 한순간도 섭정의 자리가 공백이었던 적이 없다!”

“……!”

“그러니 그대가 스스로를 섭정이라 칭하며 내렸던 모든 명령은 위법이다.”

멜로디는 무릎을 꿇고 앉은 병사들과 발할라 성벽에 서 있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코르벨라의 위대한 백성들이여! 우리끼리 검을 겨누고 피를 흘려서야 되겠는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 발할라의 성문을 개방하라!”

그녀의 명령에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단장이 큰 소리로 답했다.

“예, 폐하!”

“2군단장 로벨 루치, 어디에 있느냐!”

황제의 호명에 쓰러져 있던 로벨이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2군단장 로벨 루치. 여기 있습니다, 폐하.”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이가 다름 아닌 로벨 루치였다.

카이사르는 참혹한 로벨의 모습에 이를 갈았고, 멜로디도 데이모스를 노려보았다.

“2군단장 로벨 루치, 모습이 왜 그러한가?”

카이사르의 물음에 로벨은 그저 씩 웃어 버렸다. 그 모습에 카이사르는 2군단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군단장의 망토를 가져오고, 그가 탈 군마도 함께 데려와라!”

데이모스는 자신의 명령을 정면에서 뒤엎어 버리는 멜로디와 카이사르의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멜로디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인정 못 해! 감히 서녀 출신의 너 따위가 코르벨라의 황제라는 것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조금도!”

데이모스의 무례한 말에 모두가 분노했지만, 황제 멜로디만큼은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네 인정은 조금도 필요치 않다.”

“…….”

“모르겠는가, 데이모스 코르벨라? 나는, 너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2)

차갑고 냉정한 말에 데이모스는 입술을 덜덜 떨었고, 군중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전율했다.

“코르벨라 만세! 멜로디 코르벨라 황제 폐하 만세!”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며 외치자, 평야와 성벽을 가득 메운 병사들과 주민들이 일제히 두 손을 치켜들며 따라 외쳤다.

“코르벨라 만세! 멜로디 코르벨라 황제 폐하 만세!”

엄청난 함성의 물결 속에서, 오직 멜로디와 데이모스만이 고요함을 유지하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멜로디는 데이모스를 똑바로 노려보며 명령했다.

“수도로 돌아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달게 받으라.”

선언과도 같은 황제의 말에 데이모스는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다.

화기가 치미는 탓에 목과 가슴이 답답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끓어오른 열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가혹한 두통이 몰려들며, 이명이 들렸다.

데이모스는 온몸을 비틀어 대며 두 손으로 제 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행동에 연신 코르벨라와 멜로디를 연호하던 사람들이 두 손을 내리며 침묵했다.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던 데이모스는 별안간 바닥에 떨어진 검을 쥐고 멜로디에게 달려들었다.

“으아아아악! 죽여 버리겠어, 멜로디 코르벨라!”

그의 광기에 카이사르가 곧장 볼테르에서 내리며 유려한 검을 꺼내 들자, 멜로디가 다급히 말했다.

“생포하라, 사령관. 그자는 살아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예, 폐하.”

데이모스는 있는 힘껏 검을 휘둘렀으나, 카이사르와 1합도 겨루지 못하고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멀리 날아가 땅바닥에 처박힌 그는 몸을 옹송그리고 신음하다가, 온몸에 힘을 빼고 그대로 누워 버렸다.

멍한 시선이 하늘에 닿았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지 하늘이 유난히 청명하고 푸르렀다.

자신의 속은 천길 불 속인 듯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하늘은 이토록 시리게 푸르다니. 데이모스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정말… 이 빌어먹을 세상…….”

수도로 돌아가서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스운 소리.

나를? 이 데이모스 코르벨라를 재판에 세우겠다고?

데이모스는 한참을 웃다가, 별안간 손을 더듬어 떨어트렸던 검을 거꾸로 잡아 쥐었다.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검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버렸다.

“컥.”

그의 행동에 곳곳에서 충격 어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검에 베인 그의 목덜미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져 삽시간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깊게 탄식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

데이모스의 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창공을 향해 있었다.

‘하… 이제야 좀… 시원하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멜로디는 씁쓸한 얼굴로 데이모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의 시선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멜로디는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광활한 창공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데이모스는 이 창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멜로디는 문득 자신의 머리에 씌워진 묵직한 왕관을 매만졌다.

그가 진정 원하던 것은 이것이었을까?

그는 왕관을 쓰고 황좌에 앉아 무엇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멜로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시신을 거둬라.”

“예, 폐하.”

2군단은 카이사르의 명령 아래 빠르게 수도로 돌아갈 준비를 끝마쳤고, 카이산을 따라 왔던 이들도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로벨 루치, 수고 많았다.”

멜로디의 말에 로벨은 씩 웃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리 다시 뵈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폐하.”

카이사르는 처참한 몰골의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치료부터 받아라.”

“아, 겉으로는 이래 보여도 속은 괜찮습니다.”

“…치료나 받아.”

“옙!”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발할라 성에 들어가지 않고 대열을 다시 재정비했다.

“아들러.”

“예, 폐하.”

“그대는 발할라 성에 있는 카이산 코르벨라를 데리고 수도로 돌아가게. 카이산 코르벨라와 발할라 후작의 죄에 대해서는 현재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재판을 열 것이네.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거주지를 그의 궁으로만 한정하겠어. 내 뜻을 전하고, 그를 수도로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2군단장 로벨 루치.”

“네, 폐하!”

“2군단 전체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가, 수도 방위대의 업무로 복귀하라.”

“알겠습니다.”

“나와 사령관은 6군단 병력을 이끌고 제록스 국경 지대로 갈 것이다. 포로들의 신변 문제 및 복구 상황을 살핀 후 수도로 귀환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황제의 막힘없는 지시에 상황은 빠르게 수습되었다.

서관 아들러가 기사 몇을 대동하고 발할라 성으로 간 사이, 멜로디는 카이사르와 함께 수도 성벽으로 돌아가 성벽 앞에 대기하고 있던 6군단의 선봉에 섰다.

이윽고 황제와 사령관을 비롯한 6군단은 제록스 국경 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종횡무진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행보였다.

\* \* \*

한편, 솔 악센이 숨어든 작은 성.

제럴드가 사용한 독은 일족이 짐승을 사냥할 때조차 사용하지 않는 검은 살모사의 독이었다.

왜 짐승에게조차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그 독은 환각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상대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가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 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냥감에게조차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독이 바로 검은 살모사의 독이었다.

그런 독을 솔 악센에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일족이 그에게 가진 원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솔 악센은 계속 비명을 질러 댔다.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라! 으아아아악!”

을씨년스러운 성에 울려 퍼지는 왕의 비명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병사들조차 두려움에 떨었다.

간신히 데려온 의원은 도저히 독의 종류를 알아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솔 악센의 상처는 급기야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하, 수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으아아아악!”

“전하, 돌아가란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전하께서는 지금 당장…….”

“안 돼!”

새파란 악마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환각 속에서도, 솔 악센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못 가! 못 간다! 그 악마 새끼들을 잡기 전엔, 절대 한 발자국도 돌아갈 수 없다!”

“전하!”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라, 오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다. 제발…….”

솔 악센은 소리를 지르다가 흐느끼다가 졸도하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칸 베르베르나는 고뇌에 빠졌다.

그는 급하게 밖으로 나와 다급히 시종을 불러 물었다.

“수도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느냐?”

“아직…….”

“이곳은 몸을 숨기기엔 부적절하다. 하아…….”

그때였다.

기사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제록스의 왕이 에릴성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뭐?!”

“에릴성 내에 오르센군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간밤에 에릴성을 공격하여 탈환했다고 합니다.”

“안 돼!”

칸 베르베르나가 절규했다. 에릴성이 제록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퇴로가 끊어졌음을 의미했다.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록스 왕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칸 베르베르나는 서둘러 솔 악센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그러나 환각에 시달리는 왕은 결코 파란 악마를 잡기 전엔 돌아갈 수 없다고 소리쳤다.

칸 베르베르나는 절망했다.

“왜 코르벨라가 우리를 그냥 두고 보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며 손바닥에 머리를 묻었다.

코르벨라는, 솔 악센이라는 배가 닻을 잃고 서서히 침몰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솔 악센은 환각 속에서 끊임없이 사죄하며 눈물을 흘려 댔다.

그리고 그 무렵, 코르벨라와 제록스의 국경 지대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당연한 듯 오르센 왕의 인장을 손에 쥔 그녀, 오르센의 솔라 테올라는 코르벨라와 제록스의 국경 지대로 향해 힘차게 말을 몰았다.

\* \* \*

멜로디는 제록스 국경 지대로 가는 내내 일족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전령 체계를 재정비하기 전이었으므로, 발이 빠른 일족들이 곳곳의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멜로디에게 직접 소식을 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에릴성을 제록스 왕이 탈환했다라…….”

멜로디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카이사르도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버려진 성에 숨어든 솔 악센은 이제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었군요.”

“오도 가도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비명 속에서 죽어 가고 있을걸요?”

“맞아. 장로께서 쓴 독이 검은 살모사의 독이었다며? 지옥 속을 걷고 있을 거야.”

소식을 가져왔던 일족 두 사람이 신랄하게 말했다.

카이사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잠시 고민하던 그가 지도를 손으로 짚으며 멜로디에게 말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폐하.”

진지한 얼굴로 지도를 내려다보던 멜로디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블라디미르는 오르센과 손을 잡고 키옌 지방의 문을 열어 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르센은 자국의 수많은 병사들이 코르벨라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제록스 역시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본토를 되찾으려 하겠지만, 군사력이 부족할 터.

멜로디는 깨끗하고 정갈한 종이 세 장을 꺼낸 뒤 펜과 잉크를 준비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

멜로디는 카이사르와 함께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가며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일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대륙 정복도 하겠는데?”

그의 말에 멜로디가 피식 웃자, 또 다른 일족 한 사람이 어깨를 쭉 늘리며 말했다.

“자, 이제 달려 나갈 준비를 하면 되지요?”

“고마워요. 계속 신세만 지네요.”

“아유~ 신세라뇨, 폐하?”

농담 섞인 말에 멜로디가 소리 내어 웃었다.

“어디로 배달하면 되는데요?”

“황궁에 있을 베델 공작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사람이랑 똑 닮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족이 카이사르를 가리키며 말하자, 멜로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요. 바람처럼 달려 배달할 테니.”

“고마워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누군가가 불쑥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역시도 파란눈 일족이었다.

멜로디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온 이유를 밝혔다.

“장로 제럴드가 보내서 왔소. 나이젤 코르벨라에 관한 소식이오.”

멜로디는 그 말에 숨을 멈췄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어서 말해 주세요, 어서!”

다급히 묻는 멜로디의 모습에, 일족은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3)

그날.

나이젤을 안고 마을에 들이닥친 리아나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로잘린 이모! 엘리나 이모!”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놀란 로잘린과 엘레나, 그리고 클레어가 달려 나왔다.

리아나는 나이젤을 안아 들고 신단수를 향해 달렸다.

“리아나! 무슨 일이야!”

클레어가 빠르게 달려오며 물었지만, 리아나는 제대로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나이젤은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따뜻해지지 않고, 그의 숨은 곧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리아나는 자초지종을 묻는 장로들을 모두 뿌리치고 무작정 신단수 뿌리에 나이젤을 올렸다.

“리아나!”

“살려 주세요!”

장로 중 누군가의 외침에 리아나도 맞서 외쳤다. 오는 동안 얼마나 오드를 털어 썼는지 곧 기절할 것처럼 창백한 리아나가 별안간 나이젤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대고 그의 숨을 헤아렸다.

“안 돼, 안 돼…….”

리아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심장에 손을 얹자, 막 달려온 로잘린이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아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에 로잘린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비켜. 내가 할 테니.”

로잘린의 말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소리를 높였다.

“로잘린!”

그러자 로잘린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되받아쳤다.

“왜요? 하면 안 돼요? 신단수 힘도 결국 내가 끌어오는 것인데, 내 마음이지.”

“그래도… 일족이 아닌데…….”

“이 사람, 멜로디의 형제예요. 제발요.”

리아나의 말에 로잘린이 그녀를 다독였다.

“제발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랬지? 진정해.”

“검에 찔렸어요. 독이 묻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독인지 모르겠어요.”

로잘린은 신중하게 나이젤의 몸을 살폈다. 클레어와 엘레나도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때였다. 나이젤이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경련과 발작에 로잘린이 다급히 자신의 오드를 신단수에 밀어넣었다.

멜로디 때와 마찬가지로 신단수가 로잘린의 오드에 반응해 금빛으로 물들었다. 곧이어 나이젤의 몸도 금빛에 휩싸였다.

잠시 후, 신단수의 신력과 로잘린의 오드가 모조리 나이젤의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는 겨우 발작을 멈추었다. 흐드러지던 금빛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동거리던 리아나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다.

신단수와 신관의 오드를 그대로 흡수한 나이젤은 미약하게나마 숨과 온기가 돌아왔다.

“다행이다…….”

리아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그런 그녀를 엘레나가 의문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리아나와 나이젤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비켜 봐, 리아나. 이젠 우리 차례다.”

“아, 네. 이모.”

경험이 많고 오드 운용이 탁월한 클레어와 엘레나가 치유의 오드를 불어넣자, 나이젤의 창백했던 뺨에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왔다.

로잘린은 그 틈에 일족 최고의 독 전문가를 불러왔다.

나이 지긋한 파란눈 일족의 전사는 나이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자를 찌른 검을 가져왔니?”

그의 물음에 리아나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뇨…….”

“저기, 잘 모르시겠소?”

로잘린의 질문에 그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다.

“찌른 칼이 있다면 거기에 뭐든 묻어 있을 테니 조사하면 될 텐데……. 그게 없으니 결국 증상을 보고 추측을 해야 할 것 아니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신력과 오드를 잔뜩 밀어 넣어 그 증상을 없애 버리지 않았소.”

“…그거야 급했거든…….”

“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오. 이자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지 않소? 좀… 아파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말에 리아나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숨도 미약해졌고요!”

“독이 다 그렇지.”

“…….”

“헛소리를 하지는 않던?”

“그건 아니었어요. 의식은 금방 잃어버렸는데… 그게 독 때문인지, 찔린 상처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경련이나 발작은?”

그 질문엔 로잘린이 대답해 주었다.

“방금 경련과 발작이 있었소.”

그는 턱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해독제라는 것도 결국 독을 중화시키는 독이라, 의미도 없이 모든 해독제를 주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치료를 계속하시오.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 사람 스스로 독을 이겨 낼 수 있거든. 옆에 붙어서 미약한 증상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잘 기록하여 그때마다 내게 보내주시오. 그럼 나는 최대한 비슷한 독 종류를 모아 해독제를 마련해 보겠소.”

그의 말에 리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이 사람 증상을 잘 기록해서 매번 가져다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클레어가 리아나의 얼굴을 쓸며 다정하게 말했다.

“너도 일단은 쉬어야지, 리아나.”

“저요? 괜찮아요. 저는 전혀 문제없어요.”

“옆에 붙어서 누군가를 계속 관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요.”

“…….”

“마침 저도 독립해서 집이 있으니 잘됐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어르신, 이 마을에 계속 계실 거죠?”

“그래.”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찾아뵐게요. 로잘린 이모, 혹시 상황이 심각해지면… 좀 부탁드려요.”

리아나의 똑 부러지는 말에, 로잘린이 뺨을 긁적이며 되물었다.

“근데 그걸… 왜 네가 부탁하는데?”

로잘린의 말에 엘레나와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반응에 리아나 본인도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이젤을 가리켰다.

“제가 저 사람을 이 마을로 데려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저 사람이 이 마을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보호자인 거죠?”

“…….”

“네, 그래서예요. 네, 그러네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야, 너 자신에게 설명하는 거야?”

“아! 몰라요, 몰라.”

리아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나이젤에게 다가가 그를 번쩍 안아 들었다.

“아참, 리아나. 전쟁 상황은 어떠니?”

클레어의 걱정 어린 물음에 리아나는 잠시 상황을 떠올리다가 답했다.

“아마 멜로디와 일족이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모두 죽었을지도 몰라요.”

“…….”

“적절한 시기에 잘 와 주었어요. 아! 그리고 ‘섭정’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 사람이 쓰러지기 적전에 멜로디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르벨라의 섭정은 멜로디예요.”

“……!”

그 말에 클레어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다급히 말했다.

“우선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다. 아직 연락은 없었지?”

“응. 일단 사람들을 좀 내려보내야겠어.”

사람들이 잠시 분주해진 사이, 엘레나가 리아나의 등을 떠밀었다.

“너는 가서 좀 쉬어. 집에 침대 몇 개야?”

“간이로 하나 더 있어요.”

“이따가 내가 들를게. 아… 그런데 이 사람, 일단 씻겨야 할 것 같은데?”

엘레나의 현실적인 지적에 리아나는 잠시 난감한 얼굴이 되었다.

“제가 하면 좀 실례겠죠?”

“그래, 그건 좀 그렇다. 있어 봐. 내가 남자들한테 부탁할 테니.”

엘레나는 녹색눈 일족의 남성들에게 서둘러 달려가 부탁을 했고, 그들은 흔쾌히 그녀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어… 그럼 리아나, 네 집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니?”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아직 몸속에 독이 있는 상태니까, 잘 살피셔야 해요!”

“걱정 마라.”

잠시 후, 나이젤을 깨끗하게 씻긴 남자들이 그를 리아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고원 평야가 보이는 작고 소박한 리아나의 집.

리아나는 정갈한 나무 침대에 눕혀진 나이젤을 리아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리아나는 그의 숨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그의 심장 박동을 들어 보기도 하고, 혈색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둠이 찾아왔다.

리아나는 침대 맡에 머리를 대고 잠시 기대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그의 손을 바라보던 리아나가 따뜻하게 속삭였다.

“꼭 살려줄 테니 걱정 마.”

어두운 밤이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으나, 나이젤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리아나가 주로 그를 돌봤고, 그녀가 잠시 잠을 자는 틈엔 클레어가 와서 나이젤의 곁을 지켜 주었다.

그의 육체는 대부분 리아나나 클레어의 오드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쇠약해지는 날엔 로잘린이 들러 신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가 잠든 사이 참전했던 일족들은 무사히 돌아왔고, 코르벨라의 수도에선 멜로디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제가 된 멜로디는 어수선한 제국 곳곳을 수습하러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리아나는 물끄러미 나이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엘레나의 말마따나 굳이 자신이 왜 간병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엘레나에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엘레나는 흔쾌히 이 역할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나이젤이 갑작스럽게 인상을 찌푸리며 신음하자, 리아나는 얼른 그의 심장에 손을 얹고 오드를 불어넣었다.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나이젤.”

“그렇게까지…….”

“나이젤.”

“…….”

리아나는 부드러운 음색으로 달래듯 나이젤을 불렀다. 괴로워하던 나이젤은 곧 리아나의 오드에 기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

리아나는 따뜻한 수건으로 나이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 준 뒤, 자신의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나른하게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나무 문 사이로 비쳐 들자, 리아나는 수첩을 꺼내 그의 상태를 기록했다.

[꿈을 꾸는 듯함. 환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음.]

수첩과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리아나는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뜨거웠던 한여름이 지나고, 부는 바람의 끝자락에 가을이 묻어났다.

“빨리 해독제를 찾아야 할 텐데.”

\* \* \*

이야기를 다 들은 멜로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아직 독 종류는 알아내지 못한 것이군요.”

일족이 고개를 끄덕이자, 멜로디는 간절히 부탁했다.

“부디 잘 살펴 주세요. 일이 수습되는 대로 그를 데리러 갈 테니.”

“그런데 현재 그는 녹색눈 일족의 오드와 신관 로잘린의 신력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 산을 내려가게 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소.”

그의 말에 멜로디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알겠어요. 미안하지만 그의 상태를 종종 전해 줄 수 있나요?”

“알겠소. 그럼 또 오지.”

그 약속을 끝으로 일족은 조용히 사라졌다.

멜로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카이사르와 함께 두 사람의 막사로 향했다.

제법 늦은 시각인 데다가, 그간의 일로 피로도가 극에 달한 멜로디는 막사에 들어가자마자 침상에 누워 버렸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곁에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폐하.”

그의 부름에 눈을 감고 있던 멜로디가 느른하게 눈을 뜨고 카이사르를 바라보았다.

“…멜로디.”

그녀의 말에 카이사르는 곧장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멜로디.”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4)

“멜로디.”

카이사르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멜로디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이윽고 카이사르가 입술을 떼자, 멜로디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카이사르.”

“말씀하십시오.”

“상황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황제의 자리에 있는 동안 나이젤 코르벨라는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

“분란을 걱정하시는 것이겠죠.”

잠시 짙어진 눈으로 생각에 잠겼던 카이사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 듯합니다.”

멜로디의 눈이 슬픔에 잠겨 혼탁해지자, 카이사르는 그녀의 눈가를 천천히 쓸어 주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카이사르의 말에 멜로디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그의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던 멜로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멜로디는 카이사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의 뺨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다.

눈썹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쓸다가 이전보다 날렵해진 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카이사르가 눈을 감았다.

“카이사르.”

“네, 폐하.”

“카이사르.”

“…멜로디.”

멜로디는 눈을 감고 있는 카이사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멜로디 코르벨라.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멜로디 코르벨라인 동안엔 그대도 코르벨라다. 그대에게 코르벨라의 이름을 부여하니 카이사르 베델 코르벨라, 눈을 떠라.”

황제의 명령에 카이사르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단단한 눈매를 검지로 쓸던 멜로디가 고개를 기울여 그에게 입을 맞췄다.

“카이사르 베델 코르벨라.”

속삭이듯 호명하는 목소리에, 카이사르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네.”

그가 꽉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답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카이사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으며 더 깊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베델이건, 제가 코르벨라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그저, 저와 당신이 같은 이름 아래 묶여 있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카이사르 베델이 카이사르 베델 코르벨라가 된 밤이었다.

\* \* \*

한편, 그 무렵 솔라 테올라는 은밀히 에릴성 인근을 지나 제록스와 코르벨라의 국경 지대에 도착했다.

“저곳이냐?”

“예, 왕녀님.”

솔라 테올라는 대담하게도 다섯 명의 호위 기사만을 이끌고 솔 악센이 숨어들었다는 작은 성의 성문을 두드렸다.

경계하는 기사들에게 솔라 테올라는 당당히 후드를 벗어 자신의 얼굴을 내보였다.

“나는 솔라 테올라다. 아버지, 솔 악센 왕을 만나 뵈러 왔다. 그 전에 칸 베르베르나를 만나야겠는데, 그는 어디에 있느냐?”

“와, 왕녀님?!”

그녀는 깜짝 놀라는 기사를 냉정하게 스쳐 지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놀라지 마라. 지옥에서 기어 나왔으니.”

칸 베르베르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왕녀를 마주 보았다.

한 마리의 흑표범 같은 왕녀는, 시집가기 직전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오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꼰 그녀는 칸 베르베르나를 서늘한 눈으로 응시했다.

“장군, 그동안 노고가 많았소.”

“왕녀님.”

“이제 어찌할 생각이오? 에릴성이 제록스의 손에 다시 넘어갔으니 무장한 기사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어려울 터. 그렇다고 아뷔브 산을 가로질러서 갈 생각은 아니겠지.”

“…….”

“10만이 넘는 오르센의 군사들이 코르벨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들었소. 솔 악센, 내 아버지가 왕인 상태에서 코르벨라의 황제와 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오?”

“…….”

“내가 코르벨라의 황제라면… 글쎄. 이곳에서 죽어 가는 것을 관망할 것 같은데. 악감정이 쌓일 만한 일을 서슴지 않았더군. 제록스는 또 어떠한가? 제록스 왕이 오르센에 가진 악감정에 대해선… 장군께서 더 잘 알 것이라 믿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오르센은 대패했소.”

“…….”

“기근이 들어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아사하는 인구가 엄청날 거요. 더불어 우리는 포로로 잡힌 군사들을 반드시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지.”

“…….”

“즉, 오르센은 전쟁에서 대패한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소.”

솔라 테올라는 새까만 눈을 번뜩이며 칸 베르베르나에게 속삭이듯 선언했다.

“내가, 감당할 것이오.”

“…….”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에 칸 베르베르나는 시선을 내리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가 솔라 테올라와 시선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솔라 테올라가 붉은 입술을 끌어올리며 매혹적으로 웃었다.

“솔 악센, 내 아버지에게 나를 인도하시오.”

솔 악센은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었다.

울부짖을 힘이 없다면 차라리 이대로 기절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의 온몸에 파고든 검은 살모사의 독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잔혹한 환각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를 몰아붙였다.

“흐아아아…….”

솔 악센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제럴드의 검에 찔렸던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푸르게 변한 지 오래였다.

“죽여 줘… 제발…….”

솔라 테올라는 비참한 몰골로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왕을 차디찬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때, 신처럼 느끼던 이다.

한때, 그를 세상의 중심처럼 여겼었다.

그랬기에 그녀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제록스로 팔려 가듯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보니 생각만큼 기분이 좋지는 않군요.”

“흐어어어어…….”

“아버지.”

“…….”

고통스러워하던 솔 악센이 ‘아버지’라는 말에 가까스로 눈을 떴다. 고통으로 혼탁해진 눈에 딸의 모습이 비치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솔라 테올라를 올려다보다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하다 하다 네 모습까지 보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에 솔라 테올라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환각 같으세요?”

“…테올라?”

솔 악센이 눈을 크게 뜨자, 솔라 테올라는 그의 머리맡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가 죽으라셔서 죽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요.”

“…….”

“제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제가 여자라서, 아버지가 손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

“그런데 왜. 제가 여자라서, 아버지 기준에 순종적이지가 않아서, 남동생보다 똑똑하다는 고작 그런 이유로! 그 거지 같은 곳으로 시집을 간 것으로도 모자라 죽어 주기까지 해야 해요?”

“너!”

“보세요. 이제 오르센의 왕은 당신이 아니라 저, 솔라 테올라예요.”

“네가 감히!”

“이젠 아버지가 죽어 주셔야 할 때랍니다. 저는요, 새로운 오르센의 왕으로서 아버지 시신을 들고 제록스며 코르벨라에 사정을 하러 다녀야 하거든요.”

“…….”

“‘선왕이 귀국에 한 만행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는 바이니, 부디 억류된 군사들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요.”

“솔라 테올라!”

“오르센은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지켜 낼 테니.”

“…….”

“잘 가세요. 아마도… 지옥으로 가시겠죠?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솔라 테올라는 그 말을 끝으로 무릎을 털고 일어나 방을 나가 버렸다.

솔 악센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핏발 선 눈으로 응시하다가 허탈하게 웃어 버렸다.

“하하하, 정말… 별 희한한 환각까지 보는구나……. 으아아아아아악!”

그리고 얼마 후, 솔 악센은 황량한 작은 성의 어느 방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없었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 또한 아무도 없었다.

\* \* \*

솔 악센이 비명횡사한 그 무렵, 코르벨라의 상황 우르바시 코르벨라는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과도 같은 명령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제 바퀴 의자에 앉을 힘도 없는 우르바시가 자신의 뜻을 말로 풀어 설명하면, 그가 지정한 시종 두 사람이 그의 뜻을 받아 적었다.

“로쉐 발할라 코르벨라에게서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귀속된 권리와 권한을 박탈한다. 로쉐 발할라의 거주지를 발할라의 사유지인 드모르네로 한정하니, 로쉐 발할라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드모르네를 벗어날 수 없다. 그녀의 죄명은 비밀에 부치는 바이니, 죄명은 적지 말라.”

“예, 폐하.”

그녀의 죄명은 황제 시해 미수죄였다. 반역의 죄이므로, 현 코르벨라 법에 의하면 연좌제에 해당되는 죄목이었다.

로쉐가 황제 시해 미수죄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녀의 자식들 모두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울 것이 자명하기에, 우르바시는 그녀의 죄명을 불상에 부쳤다.

시종이 황제에게 작성된 종이를 보여주자, 우르바시는 확인 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데이모스 코르벨라에 대한 처벌이다.”

“예, 폐하.”

“그의 죄목은 국가 내란죄다. 섭정의 자리가 공석이 아님을 알면서도 섭정의 자리를 찬탈한 죄, 사병을 마음대로 황궁에 들인 죄, 국가 예산을 찬탈한 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종이 필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던 우르바시는, 그 소리가 끝나자 다시 말을 이었다.

“하여, 데이모스 코르벨라에게 부여된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함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귀속된 권리와 신분, 권한을 박탈한다. 이 권한의 박탈은, 혹시 있을지 모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더불어 데이모스를 백궁에 가두어라. 기한은 그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다. 이에 대한 모든 결정은 우르바시 코르벨라가 내린 것임을 명시하라.”

데이모스의 자식들에게까지 코르벨라의 이름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영원히 황실에서 추방하겠다는 뜻이었다.

시종들이 빠르게 필기를 하는 동안, 우르바시는 긴 숨을 몰아쉬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발할라 후작 살인죄, 군사 기밀 유출죄, 적국 내통죄 등.

그러나 이것은 모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죄목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르바시에겐 증거를 확보할 만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면 새 황제는 등극하자마자 형제와 명목상의 어머니를 죽여야만 한다.

직접 손에 피를 묻혀 가며 황제가 되어 보니, 그것만큼 발목을 잡고 오점을 남기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우르바시는 멜로디를 대신해 그들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처벌하고 갈 생각이었다.

다만 카이산 코르벨라와 그렌트 발할라의 문제만큼은 멜로디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수도 밖의 일이라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탓이었다.

“예, 폐하. 다 적었습니다.”

시종이 다시 종이를 우르바시에게 건넸다. 꼼꼼하게 확인한 우르바시는 종이를 돌려주며 마지막 항목을 읊었다.

“다음은… 나이젤 코르벨라에 관한 내용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5)

그 말을 입에 담자 우르바시는 가슴이 욱신거렸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이내 결심한 듯 결연하게 말했다.

“나이젤 코르벨라의 죽음을 우르바시 코르벨라가 확인했다 적으라.”

“…….”

“우르바시 코르벨라가 나이젤 코르벨라의 죽음을 확인한 바, 우르바시 코르벨라는 황가 코르벨라 호주(戶主)의 권한으로 나이젤 코르벨라에게 귀속된 모든 계승권과 권한을 말소하는 바이니, 이에 관한 권한은 오직 황가의 가주에게 있음을 명시하라.”

시종마저 손을 멈칫할 내용이었다.

그의 사후, 멜로디의 재위 기간 동안 나이젤의 존재는 끊임없는 불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멜로디와 나이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다.

시신 없는 죽음을 공인하는 방법은, 호주의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뿐이다. 호주가 죽음을 인정하고, 그에 귀속된 모든 권한과 신분을 말소하는 것.

언젠가 나이젤이 살아 돌아와서 멜로디가 그에게 황위를 양위한다 한들,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일을 위해 분쟁의 싹을 그대로 두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무엇 하느냐? 적어라.”

“예, 폐하.”

시종은 우르바시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적었다. 이윽고 그가 종이를 내밀자, 우르바시는 누운 채로 그것을 확인했다.

“가장 하단에 인장을 찍어 공표하라.”

“예, 폐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죽음을 공인했다.

시종이 그의 명령서를 들고 나가자, 우르바시는 눈을 감았다. 인생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모두 일곱이나 보았다.

꽃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 주었던 딸 둘은 먼 이국으로 시집을 갔다.

릴리는 아이를 낳았다던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로즈, 그 아이는 잘 있을까?

데이지, 너를 좀 더 아껴 줄 것을 그랬다.

그리고 멜로디. 네 어머니는 네가 한 자락의 노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비가 힘든 일만 잔뜩 주고 가서 미안하구나.

나이젤, 데이모스, 카이산.

나이젤과 데이모스에게선 모든 권한을 회수하였으며, 카이산에 대해선 처벌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라 일렀다.

이 관계가 부자 관계인지, 원수지간인지 모르겠다.

부인들은 또 어떠한가?

그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

마틸다? 로쉐? 아니면…….

“지브릴…….”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인생을 대변한다 했다.

우르바시는 문득, 온기 하나 없던 선황제의 장례식을 떠올렸다. 싸늘한 한기가 느껴질 만큼 차가웠던 장례식.

자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던가?

최소한 나는 당신과 다를 것이라 다짐하지 않았던가?

“아아… 제가… 아버지,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나 봅니다.”

그때, 망가진 심장이 다시 한번 발작을 하듯 들썩였다. 우르바시는 숨을 삼키며 몸을 뒤틀었다.

“허억…….”

깨어난 후로 억지로 잠들지 않은 우르바시의 기력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폐하!”

교대로 들어온 시종이 다급히 그를 향해 달려갔으나, 우르바시는 이미 힘을 모두 소진한 듯 완전히 늘어져서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상황의 공표는 파문을 일으켰다.

“로쉐 발할라 코르벨라에게서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귀속된 권리와 권한을 박탈한다. 로쉐 발할라의 거주지를 발할라의 사유지인 드모르네로 한정하니, 로쉐 발할라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드모르네를 벗어날 수 없다.”

“하…하하.”

로쉐는 자신의 궁에서 상황의 명령을 들으며 허탈한 얼굴로 웃었다.

“내 죄목은?”

“그것은 비밀에 부치라 하셨습니다.”

“비밀이라… 큭큭. 참으로 관대하기도 하시지.”

로쉐 발할라는 미친 듯이 킥킥거리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한참을 키득거리던 그녀가 별안간 몸을 일으키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물었다.

“데이모스! 데이모스에 대한 처벌도 명령하셨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보다 그것이 더 궁금하고 걱정스러운지 로쉐는 이미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였다.

전언을 전하던 시종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꺼내 들었다.

“데이모스 코르벨라의 죄목은 국가 내란죄이다.”

“뭐야?!”

“…….”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애가 국가 내란죄라니?”

“섭정의 자리를 찬탈한 죄, 사병을 마음대로 황궁에 들인 죄, 국가 예산을 찬탈한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쉐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으나, 시종은 무시하고 계속 상황의 명령을 읽어 내렸다.

그의 말이 끝나자 로쉐 발할라는 야차처럼 달려와, 그에게서 종이를 우악스럽게 빼앗으려 했다.

“진정하십시오!”

“이리 내, 이리 내라! 명령이다, 어서 내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명령이라는 말에, 시종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더는 태후가 아니십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쉐는 이 끔찍한 현실이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

꿈일 거야. 지독한 악몽일 거야. 이런 것이 악몽이 아닐 리가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참으로 가혹하다. 그는… 참으로 가혹해. 우르바시 코르벨라… 이 나쁜…….”

“상황 폐하에 대한 예를 지키십시오!”

그 말에 격노한 로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예를 지키게 생겼느냐? 그 새끼는 마치, 이 모든 책임이 나와 데이모스에게만 있다는 듯 행동하잖아! 이게 왜 모두 내 책임이고, 데이모스의 책임이란 말이냐!”

감정이 무섭게 범람했다.

“그가 내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적이 있느냐, 데이모스에게 아비로서의 의무를 다한 적이 있느냐! 버려 두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까워서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것이 누구인데!”

로쉐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울부짖었다.

“나와 데이모스를 코르벨라에서 도려내겠다고!? 그럼, 그 스스로도 코르벨라의 이름을 거두라 해라! 그가, 그 이름을 짊어지고 있을 자격이 있느냐!”

로쉐 발할라는 발악했다.

시종들과 기사들은 난감하여 머뭇거렸다.

“나는 지금 나가지 않을 거다! 내 아들 데이모스가 돌아올 때까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녀의 어깃장에 난감해진 시종이 잰걸음으로 코르벨라 궁으로 달려갔을 무렵이었다.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어수선한 코르벨라 궁의 분위기에, 시종은 직감적으로 상황께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냐?”

지나가던 시종을 붙잡고 묻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상황 폐하께오서 위독하십니다.”

마틸다에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명령이 전해졌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는 나이젤 죽음에 대한 공인서를 받아 들었다.

흐를 수 있는 눈물이 더 있을까 싶었는데, 그녀의 베개가 다시 축축하게 젖어 들었다.

“…말소하겠다고?”

“…예, 태후 폐하…….”

“내 아들의 이름도, 권한도,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고?”

“…….”

마틸다는 멍하니 가슴에 품고 있던 나이젤의 옷을 꺼내 들었다.

“어떻게…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단 말이냐?”

“…….”

“어떻게 이 애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

“…….”

“우르바시 코르벨라… 그에게 있어 자식은… 그저 대를 이을 후계, 필요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게지…….”

마틸다는 가슴을 두드리며 오열했다. 며칠 동안 묽은 스프 몇 숟갈을 먹은 것이 다였던 그녀는 소리를 칠 힘조차 없었다.

오열하는 것조차 버거운 듯 그녀가 숨을 헐떡이자, 시녀들은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폐하,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마틸다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울었다.

시녀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던 마틸다가 간신히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지옥으로 가라 해라…….”

“…….”

시녀는 그녀의 말을 똑똑히 들었으나, 듣지 못한 척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도 지옥으로 갈 테지만, 그곳에서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나이젤… 나이젤…….’

마틸다는 끊임없이 아들을 그리다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다.

상황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데이지에게도 전해졌다. 업무에 복귀하여 본인의 일을 하고 있던 데이지는 한달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어수선한 궁과 다급한 의원들, 알싸한 약 냄새.

데이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황녀님, 어서 오십시오.”

황족 중 한 사람은 증인을 겸해 임종을 지켜야만 하는데, 현시점에 상황의 곁을 지킬 사람은 데이지뿐이었다.

관례대로라면 생존한 부인들 중 누군가가 오는 것이 맞으나, 로쉐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마틸다 태후는 제 몸 하나 가눌 힘조차 없었다.

시종은 얼른 데이지에게 의자를 내주며 머리를 숙였다.

데이지는 그가 내주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어둡게 변한 안색의 아버지는 마치 송장처럼 보였다.

“…….”

상황의 숨은 극히 미약했고, 의원들이 어떻게든 그에게 약을 먹이려 노력하고 있었으나 우르바시는 조금도 삼키지 못했다.

그때,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실낱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이제 나를 그냥 두어라…….”

그에 데이지도, 의원도, 시종들도 몸을 기울여 우르바시를 바라보았다.

“예? 폐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제 나를 그냥… 가게 둬…….”

그의 말을 알아들은 의원이 침묵하자, 우르바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의사를 알아들은 시종이 슬픈 눈으로 우르바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죽음이 내려앉은 방에 데이지와 우르바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데이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아버지.”

데이지의 부름에 우르바시는 온 힘을 다해 두 눈을 떴다.

그는 데이지의 금빛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왔느냐, 나의 딸.”

그의 다정한 말에 데이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우르바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눈물을 닦아 내며,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했다.

이미 전했던 말이지만, 아버지가 잠들어 계실 때 전했던 말이니 다시 전해야만 했다.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르바시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데이지는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6)

“누구도 감히 저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저에게 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켰어요.”

“당연한 말이었다.”

‘내 너에게 아비 노릇을 한 것이라곤 고작 그 말뿐이구나…….’

우르바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데이지는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제가 관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가 쟁취한 것이다, 데이지.”

데이지는 잠시 입술을 말아 물었다가 말을 이었다.

“길고 어두운 동굴을 걷는 것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도 모를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겐 빛이 되었어요.”

“…미안했다.”

“감사했어요.”

“아비가 못나 너 또한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니요. 감사해요, 아버지.”

데이지는 입술을 말아 물고 눈물을 닦아 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인장을 맡기라 하셨어요?”

우르바시는 그녀의 물음에 눈을 감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다… 듣고 있었다…….”

우르바시는 깊고 깊은 무저갱으로 온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식이 쑥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까무룩 어둠이 찾아오더니, 별안간 눈이 멀 듯한 빛이 번쩍였다. 온몸이 꺼지는 것과 동시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생에 만난 인연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아버지!”

데이지가 얼른 우르바시의 손을 잡아 쥐었다. 그의 손은 검게 변한 것도 모자라,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데이지는 서둘러 시종을 불렀고, 곧 우르바시 주변으로 시종과 의원들이 몰려들었다.

소식을 들은 중신들 역시 하나둘씩 달려왔으나, 태후 마틸다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석양이 비치는 늦은 오후, 코르벨라의 상황 우르바시는 중신들과 데이지가 보는 앞에 숨을 거두었다.

상황의 죽음을 알리는 검은 깃발이 금빛 깃발 옆에 게양되었다.

\* \* \*

이번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과 기사들에게 멜로디와 카이사르의 존재는 군신, 그 자체였다.

아무도 모르게 수도로 달려가 어지러운 상황을 바로잡고 있다는 말조차 신화처럼 느껴졌다.

“이야! 네가 그걸 못 보다니, 너무 아쉽다!”

“아, 빨리 이야기해 줘 봐!”

“그러니까 말이지, 우리가 그때 딱 죽게 생겼었거든! 1곽 쪽에서는, 어?! 오르센군이 크으… 얼마나 많았냐면 마치 개미 떼처럼 새까맣더라고! 그렇게 잔뜩 몰려왔다니까. 더구나 그자식들이 어떻게 3곽을 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오르센군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 3곽 문은 안 열리지, 오르센군은 몰려들지, 딱 궁지에 몰린 쥐 꼴이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짐승의 울음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기 저 아뷔브 산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신묘한지 오르센 놈들도 넋을 잃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더라고! 피리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오더니 엄청난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리면서!”

“울리면서!”

“멜로디 섭정 전하께서, 아, 그 당시에는 8군단장이셨지만 아무튼!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거야!”

“와이씨! 그걸 못 봤네, 그걸!”

“섭정 전하 뒤로 마치 하늘의 기사들? 도무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왔어.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이 한 번 뛰면 땅 위의 말이 세 번 뛰는 것만큼 멀리 뛰고, 그들이 검을 한 번 휘두르면 주변이 초토화가 되더라, 이 말이야! 요정? 엘프? 와… 뭐랄까. 그냥 막 후광이 번쩍번쩍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섭정 전하랑 닮았다며?”

“맞아, 닮았어.”

말단 보병부터 장교급 기사들까지 모였다 하면 멜로디와 카이사르의 무용담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5군단 소속 장교급 기사 두 사람은 성벽 위에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 병사들을 힐끗 보았다가 못 본 척했다.

그러고는 아닌 척 그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것이… 나이젤 전하께서는 어찌 되셨기에 멜로디 전하께서 섭정이 되신 거냐?”

“…우리 군복을 입고 있던 첩자가 있었다더라고.”

“이런 나쁜 새끼들!”

“심지어 그 첩자가 오랫동안 나이젤 전하를 모신 기사였대. 물론 의심스러우셔서 내보내긴 하셨다지만. 아무튼 그자가 급소를 찔렀는데……. 워낙 깊게 찔리신 데다가, 가까이에서 본 놈들 말이 독이 묻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 살아 계시다면 오시겠지만 글쎄……. 아무튼 그 신묘한 사람들이 전하를 모시고 갔어.”

나이젤의 마지막 모습을 본 이들은 생각보다 소수였다. 데니스 그라스를 비롯한 4군단의 일부가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나이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필사적으로 멜로디에게 섭정의 자리를 위임하던 나이젤의 상태는 그만큼 심각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성루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병사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어어?”

“왜?”

“저기! 저기를 좀 보십시오!”

그가 가리키는 먼 곳을 가만히 주시하던 5군단 소속 기사 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저 깃발, 황제 폐하의 깃발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은데?”

“폐하께오서 저렇게 말을 빨리 몰아 달려오실 수 있…….”

“……?!”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덕분에, 성루에 선 기사들은 곧 달려오는 이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선봉에서 푸른 말을 타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은, 멜로디 코르벨라였다. 그녀의 옆으로 카이사르 베델이 보였다.

기사들은 그들의 얼굴과 황제의 깃발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틀림없는 황제의 깃발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펄럭이는 망토 역시도 황제의 망토였다.

아무도 모르게 수도로 갔다던 섭정이 황제가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배에 힘을 주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황제 폐하께서 오신다! 성문을 개방하라!”

“황제 폐하시다!”

그들의 외침에 3곽 성벽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이들이 빠르게 성벽 위로 올라왔다.

황제의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돌아오고 있는 이는, 그들과 죽기 살기로 함께 싸워 결국 승리를 쟁취해 낸 멜로디와 카이사르였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누군가가 벅찬 마음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질렀고, 그의 함성은 곧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우와아아아아아아!”

“황제 폐하!”

피와 땀을 나누며 함께 싸웠던 이들이 보내는 환호는 포효에 가까웠다.

멜로디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친 환호에 오른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화답했다.

3곽과 2곽, 1곽의 문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멈추지 않고 1곽을 향해 달렸다.

그들이 3곽을 통과할 때, 병사들과 기사들은 달려 나와 연호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마치, 영웅의 귀환 같았다.

“어서 오십시오, 폐하.”

국경 지대의 수비 및 공사를 진행 중이던 그라스 형제가 달려 나와, 황제가 되어 돌아온 멜로디를 정중히 맞이했다.

두 사람은 공사 진행 상황, 부상자와 사망자 처리 상황, 오르센 솔 악센의 움직임 및 주변 상황에 대한 보고를 쉴 틈 없이 이어 갔다.

“솔 악센 쪽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예.”

“아마 지금쯤은 죽었을 텐데.”

“예?”

“그는 지금쯤 죽었을 것이다. 후계가 솔 비알테라고 했던가?”

그녀의 질문에 카이사르가 답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뷔안 지역의 국방을 강화해 둔 상태입니다만, 아직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마 당장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만이 넘는 자국민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 그렇겠지. 솔 비알테가 솔 악센이 숨어 든 성으로 직접 찾아올 가능성은?”

“그는 아버지의 등쌀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잡니다. 솔라 테올라마저 죽은 상황이니, 실세는 라 이르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솔 비알테가 왔다면 아마도 라 이르마도 함께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라 이르마라…….”

멜로디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오르센 후계가 선왕을 버리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왕의 시신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고자 할 터. 그럼 라 이르마든, 솔 비알테든, 아니면 그 누구라도 몰래 성으로 오지 않겠나?”

“제 생각도 같습니다, 폐하. 더불어 이미 에릴성이 제록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까지 오려면 소수의 인원으로 은밀히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개를 끄덕인 멜로디는 그라스 형제가 제시한 보고서 중 포로 수용과 관련한 것을 찾아 다시 읽었다.

10만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포로에 대한 폭행, 고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폐하의 명령이었다 하니 말단 보병들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터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던 적군이었다 한들, 무기 하나 없이 자유를 빼앗긴 그들을 죽이는 것은 광기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냉정해야 한다. 의미 없는 살인만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으니.

포로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우하는 것과, 오르센 왕에게 침략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니, 책임도 국가적으로 지는 것이 옳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오르센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그들을 오르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롭겠군.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 말이 더 잘 통하겠어. 물론, 책임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르센 쪽으로 사람을 보낼까요?”

카이사르의 물음에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1곽 성루에 황제의 깃발을 게양하고, 성으로 사람을 보내 오르센의 총 책임자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예. 알겠습니다, 폐하.”

성으로 기사 두 사람을 파견한 지 꼬박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막사에서 일을 처리하던 멜로디에게 데니스 그라스가 급히 달려왔다.

“폐하!”

“무슨 일인가?”

“오르센 쪽으로 보냈던 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여섯 필의 말이 함께 달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르센의 책임자가 함께 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말에 카이사르가 중얼거렸다.

“마음이 급했나 보군요.”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그럼 우리도 맞이할 준비를 해 볼까?”

제법 번듯한 막사가 신속하게 꾸려졌다.

멜로디는 상석에 황제의 망토를 두른 채 앉았고, 그녀의 옆으로 카이사르 베델과 그라스 형제가 황제를 지키듯 섰다.

승전국의 황제가 침략국이자 패전국의 책임자를 만나는 자리이므로, 오르센 측에 제공되는 자리는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이 왔는지 막사 밖이 묘하게 어수선해지자, 데니스 그라스가 양해를 구한 뒤 직접 막사 밖으로 나갔다.

“망토 및 얼굴을 가린 후드를 벗지 않으면 절대 입장할 수 없소.”

밖에서 들려오는 데니스의 목소리에 멜로디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온 모양이군.”

“그런 상태로 폐하를 뵙게 할 수는 없지요.”

그때였다.

“알았네.”

들려온 목소리에 멜로디가 눈을 가늘게 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7)

저음이긴 하나, 분명 여성의 목소리였다.

“라 이르마는 남자였지?”

카이사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예, 폐하.”

그때, 밖에서 데니스 그라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불어 신분을 밝히시오.”

“글쎄… 황제께서 청하신 것은 오르센의 책임자가 아닌가? 지칭하여 나를 부르지는 않으셨으니, 내가 나의 신분을 자네에게 알려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황제께 직접 하겠네.”

나긋한 목소리가 차분히 말을 내뱉자, 데니스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막사로 들어와 황제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리하게.”

멜로디의 허락이 떨어지자, 데니스는 오르센의 책임자를 막사 안으로 들여보냈다.

호위들이 열어 주는 길을 통해 막사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흑요석처럼 요요히 빛나는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중한 걸음으로 다가와 멜로디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금의 굴욕도 느끼지 않는 듯 보였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다가와 인사를 올린 후 허리를 드는 여자의 얼굴은 지극히 차분했다.

더구나 그녀는 멜로디가 황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새 황제께서 등극하신 모양이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긋한 음성으로 조곤조곤 말하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멜로디가 느긋하게 물었다.

“그대가 솔라 테올라요?”

황제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그라스 형제가 황제를 슬쩍 바라보았다.

당사자인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니 이내 길게 웃었다.

“편견이 없으시군요.”

솔라 테올라는 매혹적으로 웃으며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다.

“저는 오르센의 솔라 테올라, 현 오르센의 섭정입니다.”

“나는 멜로디 코르벨라, 코르벨라의 황제요.”

“예, 존함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찌 제가 솔라 테올라라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죽었다고 전해졌을 텐데요.”

그녀의 물음에 멜로디가 씩 웃었다.

“그냥 그래 보였거든.”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인가?”

“제가 저답게 보였다는데,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라 테올라의 검은 눈이 느른하게 휘자, 그녀의 본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천성이 지배자로 태어난 듯, 오만한 말조차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사람이었다.

멜로디의 본성에 숨어 있던 맹수의 기질이 앞발톱과 송곳니를 내밀었다.

맹수의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이 시선을 맞대자, 막사엔 팽팽한 기류가 맴돌았다. 몇몇 기사들은 그 기운에 압도당해 연신 입술을 혀로 축였다.

잠시 후, 멜로디가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어 앉으며 말했다.

“오르센의 섭정에게 의자를 내주고, 탁상을 가져와라.”

“네, 폐하.”

코르벨라의 황제와 사령관은 죽이 척척 맞았다.

그들은 전쟁과 관련한 코르벨라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며, 전쟁 배상금의 최소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최소 금액마저 막대한 탓에, 솔라 테올라는 죽은 솔 악센에게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중간중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서 솔라 테올라는 몇 번이나 손으로 입을 가려야만 했다.

카이사르는 그즈음 포로 수용에 관한 내용을 읊고 있었는데, 코르벨라 최고 문관의 아들답게 어찌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지 솔라 테올라는 반박조차 할 수가 없었다.

듣고 있던 솔라 테올라가 간절한 얼굴로 말했다.

“코르벨라의 황제 폐하, 오르센은 선왕의 만행으로 인해 농번기를 놓쳐 기근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굶주릴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많은 배상금을 과연 제때에 갚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갚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멜로디는 싸늘한 얼굴로 솔라 테올라를 바라보았다. 솔라 테올라는 멜로디가 바라는 답을 차라리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차라리 배상금 명목으로 뷔안과 접하고 있는 국경 지대의 일부를 코르벨라에 넘기겠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내겠지만, 솔 악센은 전쟁을 위해 국고를 탕진한 상태였다.

그는 승리하여 전쟁 배상금으로 국고를 충당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꾸었겠지만, 현실은 반대가 되고 말았다.

텅 빈 국고를 보며 솔라 테올라는 분노해 길길이 날뛰었으나,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차라리 이 편이 나았다.

그녀의 제안에 카이사르가 기다렸다는 듯 지도를 펼치자, 멜로디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영토를 말하는 거요?”

손으로 지도를 짚으려던 솔라 테올라가 멜로디를 응시하며 되물었다.

“폐하께서 생각하시는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에 멜로디는 망설임 없이 뷔안과 접한 국경 지대 4개의 성을 짚었다.

솔라 테올라가 뭐라고 반박하기도 전에, 코르벨라의 사령관은 그들이 요구하는 4개의 성의 가치가 최소 배상금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황제와 사령관이 이만큼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올 줄은 몰랐다. 솔라 테올라는 애초에 그녀가 생각했던 세 개의 성보다도 더 늘어난 탓에 속이 쓰렸다.

하지만 그녀는 패전국의 책임자였고, 상대는 승전국의 황제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섭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르센으로 돌아가 회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요. 나 또한 돌아가 중신들과 회의를 해야 하지. 아마 그대가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거요. 다만 포로를 송환해 주는 것에 대한 값은 섭정, 그대의 공인 아래 지금 받아야겠소.”

“…예, 말씀하시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이사르가 문서화된 청구서를 내밀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포로 송환 비용에는 그간 그들에게 들어간 의식주 비용을 비롯하여, 그들을 송환하는 데 드는 코르벨라 측 인력비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다.

솔라 테올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성 하나는 더 드려야 계산이 맞겠군요.”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말에, 멜로디는 무표정으로 응수했다.

솔라 테올라는 뷔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 능선의 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값으로 이 성은 어떠십니까?”

솔라 테올라는 성의 가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고, 황제는 사령관과 잠시 논의한 뒤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좋소. 그 성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요구할 것이 있소. 아뷔브 산맥은 엄연히 코르벨라의 영토임에도, 오르센 군인들이 몰래 들어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죄송하지만 금시초문입니다, 폐하.”

“오르센 선왕은 우리 몰래 아뷔브 산의 이곳, 오르센 명칭으로는 블랙벨리라고 하던데. 이곳에 군사를 들여 갖가지 실험을 자행했지. 자세한 사항은 돌아가 확인하면 금방 알게 될 거요. 그러니 즉시 이곳의 군사를 모두 물려 주시오. 이것까지 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진 않겠지.”

“알겠습니다, 폐하.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도 제록스 왕은 곧 코르벨라에 원군을 요청할 것이오.”

“…….”

“그리고 나는 그 요청에 응할 생각이오.”

“폐하!”

“그러니 그대는 제록스 왕과 절충선을 찾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소. 나는 내 병사들이 타국의 영토 전쟁에 휘말려 죽는 것을 원치 않거든.”

솔라 테올라는 입술을 짓씹었다. 솔 악센의 무리한 전쟁으로, 오르센은 얻은 것도 없이 잔뜩 잃게만 생겼다.

코르벨라의 황제는 여유로운 얼굴로 마지막에 선심을 썼다.

“오르센의 10만 국민들을 제록스 국경 지대가 아닌 오르센과 인접한 뷔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소.”

무기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제록스 국경 지대로 추방당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제록스와 전쟁을 치르며 오르센으로 돌아가야 한다.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솔라 테올라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모종이 될 만한 작물들을 구호로 보내줄 테니, 내년엔 기근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호의였다.

솔라 테올라가 고개를 번쩍 들어 코르벨라의 황제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코르벨라의 황제는 어깨를 으쓱이며 씩 웃었다.

사나운 맹수처럼 날카로운 얼굴과 장난기가 섞인 웃는 얼굴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솔라 테올라는 멜로디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것을 택했다.

“아, 그리고 오르센에 블라디미르와 솔 악센 왕의 밀약서가 있을 것이오. 그것을 좀 찾아다가 내게 보내 주시오. 뭐… 올가을이 지나기 전엔 가능하겠지? 어차피 배상금 문제로 코르벨라에 와야 할 테니 그때 들려 보내면 되겠군. 책임자가 내게 오면 그가 돌아가는 길에 모종을 보내 주겠소. 빈 수레를 넉넉히 들려 보내시오.”

“…….”

그러니까 그 밀약서를 보내지 않으면 모종도 보내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멜로디 코르벨라는 정실 소생도 아닌 황녀였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술을 대체 언제 어디에서 습득한 건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솔라 테올라가 긍정의 답을 내놓자, 멜로디는 곧장 이 내용을 문서화 한 뒤 자신이 먼저 인장을 찍었다.

“오르센의 섭정, 인장은 가져왔소?”

그러자 솔라 테올라가 품에서 인장을 꺼내며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물론입니다.”

“이 약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이오.”

“믿음의 증거로, 선왕의 시신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섬뜩한 말에 멜로디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난 그런 증거는 필요 없소.”

“예, 그렇다면 부디 저를 믿어 주시지요.”

솔라 테올라는 한숨을 푹 내쉬며 문서를 들고 일어났다. 한 장의 종이가 어찌나 무거운지, 이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심란하게 했다.

인사를 정중히 건넨 솔라 테올라는 막사를 나가려다가, 다시 몸을 돌려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새파란 눈동자의 젊은 황제는 비록 적국의 황제긴 하나, 그녀가 늘 그리던 모습으로 황좌에 앉아 있었다.

그 탓일까. 그녀는 잠시 손에 든 문서의 무게를 잊어버렸다.

“제 아버지, 솔 악센은 말입니다.”

“…….”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인물이었답니다.”

“별 희한한 말도 다 있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로 인해 저는 이 자리에 앉고도 내심 불안했었는데, 폐하를 뵈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는군요.”

“내가 그대에게 기꺼운 존재는 아닐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갚고, 오르센을 다시 강건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 말을 하는 솔라 테올라의 두 눈이 어찌나 형형하게 빛나는지, 멜로디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반듯하게 폈다.

“그리하여 솔 악센, 제 아버지의 저주 같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꼭 증명하고야 말 겁니다.”

그녀의 단단한 말에 멜로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솔라 테올라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멜로디는 오른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솔라 테올라는 내밀어진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마주 잡았다.

멜로디가 씩 웃으며 말했다.

“건투를 빌겠소.”

“지옥에서도 기어 나왔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솔라 테올라는 끝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다.

멜로디는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중얼거렸다.

“솔 악센은 참으로 멍청한 자로군. 딱 봐도 왕의 재목인데, 저런 사람을 왜 제록스로 보낸 거지?”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성별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였군요.”

카이사르의 신랄한 말에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8)

비록 중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사안이긴 하나, 현재 군의 최고 결정권자 두 사람이 합의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포로 송환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포로 송환 임무는 멜로디를 따라온 6군단 병력이 담당하기로 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병사들은 귀환이 결정되었다.

바야흐로, 치열했던 여름 전쟁이 끝난 것이다.

비밀 협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새벽, 포로 송환이 시작되었다. 국경 지대의 문이 활짝 열렸고, 포로들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지막 행렬이 문을 통과한 시점은, 정오가 다 되어 갈 무렵이었다.

포로들이 멀어지는 것을 3곽 성루에 홀로 올라 바라보던 멜로디에게 카이사르가 말했다.

“이제 환궁하셔야지요.”

“생각보다 일정이 금방 끝났네요.”

“이곳에 오르센의 섭정이 와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지개를 쭉 켰다.

“자, 이제 돌아가면 할 일이…….”

기지개를 쭉 켜면서 먼 곳을 바라보던 멜로디가 말끝을 흐리자, 카이사르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왜 그러십니까?”

“…….”

높이 들어 올렸던 손이 힘없이 떨어지더니, 먼 허공을 바라보던 새파란 눈가가 붉어졌다.

“멜로디.”

“…….”

그녀는 분명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멜로디의 시선을 좇아 허공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시야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멜로디는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때, 꽉 잠긴 목소리로 멜로디가 중얼거렸다.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말은 목이 멘 탓에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하고 입술만 벙끗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삽시간에 세상이 일렁였다.

카이사르는 힘없이 늘어진 멜로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쥐었다.

온 세상이 어룽지더니, 기어이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카이사르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쓸어 주자, 멜로디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붉게 번진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던 그녀가 간신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화가, 여섯 개 올랐어요.”

“……!”

카이사르가 놀라 시선을 돌렸다. 때마침 5군성 봉화가 하나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목격한 기사들 중 누군가가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봉화다! 5성 봉화가 올랐다!”

“몇 개야?”

“아직, 기다려 봐!”

불길은 하나둘씩 번지더니, 기어이 여섯 개를 채우고서야 멈췄다.

벌겋게 타오르는 여섯 개의 봉화에 병사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붉어진 눈에서 눈물이 차오를 새도 없이 떨어졌다.

카이사르는 멜로디를 끌어안았다. 한 품에 들어오는 등허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카이사르는 묵묵히 멜로디의 눈물을 받아 주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에게 달려왔던 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러갔다. 이내 국경 지대의 성벽엔 검은 깃발이 하나 더 게양되었다.

상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북 소리가 천천히 온 제국에 울려 퍼졌다.

멜로디는 숨죽여 울었다.

아아, 아버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익숙해지지 않는다.

매분, 매초 떠올리며 가슴앓이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며칠에 한 번, 또 몇 달에 한 번, 그러다 특정한 순간에만 떠올리게 되겠지.

떠올리고 그리워하다가,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겠지.

“별을 봐라, 멜로디.”

제럴드는 어머니를 여의고 몸져누운 조카를 번쩍 안아 들고 뜰로 나왔다. 그는 화창하게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멜로디에게 말했다.

“이렇게 밝은데 별을 보라니요, 외숙.”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이토록 화창한 것이 야속하여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멜로디가 불퉁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제럴드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하늘을 가리켰다.

“찾아봐라, 멜로디. 별이 있나, 없나.”

“…있기야 있겠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밤엔 잘 보이지만, 낮엔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지금 저 하늘에 별이 없는 것일까?”

그의 물음에 어린 멜로디는 고개를 저었다. 자꾸만 뺨을 적시는 여린 눈물을 다정하게 손으로 쓸어 준 그가 조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말해 주었다.

“그래, 그거야.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

“네.”

“네 어머니는, 이제 찬란한 한낮의 별이 된 거야.”

“…밝아서 좋겠네요.”

“그래.”

멜로디는 카이사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애도했다.

“…한낮의 별이 되셨네요, 아버지…….”

저는 또 한동안 익숙해져야겠군요. 그리움의 공백이 성큼 멀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울며 애도하던 멜로디는 카이사르의 앞섶을 흥건히 적신 뒤에야 몸을 일으켰다.

멜로디는 얼굴을 말끔하게 닦아 낸 뒤, 숨을 크게 내쉬었다.

카이사르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서 입술을 달싹였다. 차라리 소리 내어 울고 슬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녀는 또한 황제이기에 그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텅 빈 외딴 궁에서 엉엉 울던 멜로디가 떠오르자, 카이사르의 두 눈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자리에 치여, 여린 속이 시꺼멓게 썩으면 안 되는데.

카이사르는 멜로디의 뺨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가져다 대자, 세상에 오로지 두 사람만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멜로디.”

“…….”

“황제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싶으신 날엔 언제든 제가 곁에 있을 테니, 눈물을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위로에 멜로디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저는 당신이기에 괜찮습니다.”

멜로디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카이사르는 멜로디의 이마에, 눈가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춘 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젖은 얼굴을 닦아 낸 멜로디가 천천히 눈을 떴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세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전쟁터 한복판 같은 치열한 인생에서 언제 어느 순간이고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이자 위안이었다.

정직하고 맑은 얼굴.

내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멜로디는 은은하게 웃으며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가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 전속력으로 달릴 거예요.”

“물론입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언제든.”

\* \* \*

상황의 장례는 멜로디 코르벨라가 귀환할 때까지 잠시 보류되었다.

그사이 데이지 코르벨라의 지휘 아래, 우르바시의 시신은 지하의 차가운 얼음 방으로 보내졌다.

그의 시신이 얼음 방으로 보내진 그날 오후, 서관 아들러를 필두로 한 행렬이 수도에 도착했다.

그 행렬엔 수레에 실린 검은 관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아들러가 보낸 소식을 통해 발할라에서의 일을 전해 들은 중신들은 씁쓸한 얼굴로 관을 바라보다가 아들러의 등을 두드렸다.

카이산은 발할라 성에서 나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데이모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자 번개처럼 달려 나왔다. 그리고 데이모스의 시신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데이모스의 시신을 확인한 카이산은 형의 시신을 기묘한 눈으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아…….”

데이모스의 시신을 재차 확인한 카이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물고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형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숨죽여 킥킥거렸고, 그 모습을 뒤에서 본 아들러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고생 많았소, 아들러.”

“아닙니다. 공께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폐하께서도 부고를 봉화로 확인하셨을 테니 아마도 달려오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베델 공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폐하께서 보내신 문서 세 통을 막 받아 본 참이었소.”

일족이 배달한 세 통의 서신을 읽은 중신들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보뱅 공작은 턱을 문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대륙 통일도 하시겠소.”

나이젤의 권한 말소에 보뱅 공작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것이 의아했으나, 베델 공작은 최근 마틸다 태후와 보뱅 공작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떠올리고 어느 정도 수긍했다.

마틸다 태후는 나이젤의 부고가 전해진 날, 자신을 찾아온 보뱅 공작을 문전박대했다고 했다.

데이모스 혹은 카이산이 황제의 자리에 앉았더라면 보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편도 아니었던 멜로디가 황제의 자리에 앉았기에, 그는 조카의 권한 말소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아들러와 중신들이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누군가가 다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모스!”

동시에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섬뜩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데이모스!”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서고, 발가락이 오므라들 만큼 소름이 돋는 절규였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듯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소리였다.

“내 아들, 어디에 있느냐! 데이모스, 데이모스!”

로쉐 발할라는 이곳저곳을 살피며 머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행렬의 곳곳을 살피는 그녀를,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제국 최고의 권력과 부를 양손에 거머쥐었던 여인이 바로 그녀다.

붉은 드레스를 단정하게 갖춰 입고, 늘 고개를 반쯤 치켜든 도도한 모습으로 세상을 발아래에 두었었다.

그랬던 로쉐 발할라가, 맨발로 아들의 시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발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돌아다니던 그녀의 눈에, 바닥에 놓인 검은 관이 들어왔다.

부산하던 로쉐의 움직임이 멈췄다.

“…….”

로쉐 발할라의 세상도 함께 정지했다. 그 새카만 관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로쉐의 세상엔 그녀와 관, 오직 두 개밖에 없었다.

로쉐는 저 관을 열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관을 뒤로한 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갈등하던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렸다.

시꺼먼 것이 불길하여 로쉐는 입술을 세게 짓씹었다.

그래, 저건 아니야. 저런 것일 리 없어.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으며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때였다.

“엄마!”

“……!!”

밝고 건강한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엄마!”

로쉐의 뺨이 온통 눈물로 얼룩졌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돌았다.

그 음성은, 그녀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의 것이었다.

그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면, 로쉐는 설령 그곳이 불구덩이라 하더라도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39)

로쉐는 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검은 관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쓸던 그녀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있는 힘을 다해 뚜껑을 들어 올렸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열렸다. 로쉐는 멍하니 데이모스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차가운 체온을 느끼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로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악!”

그녀는 몇 번이나 울부짖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울부짖음은 모골을 송연하게 할 만큼 오싹했다. 그 탓에 그 누구도 그녀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데이지도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로쉐는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 별안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카이산이었다.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카이산에게 달려든 로쉐가 그의 멱살을 세게 움켜쥐며 발악했다.

“이 멍청한 것! 이 모진 것!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네 형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죽인 거다, 네가 죽인 거야!”

그녀는 끝끝내 카이산에게 모질었다.

카이산은 이를 악물고 로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로쉐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카이산은 비참하게 나동그라진 로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누가 죽였다고요? 하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

“데이모스 코르벨라. 그의 광기가 싹을 보일 때, 광기가 터져 나올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방관자였어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게 똑똑한 것이라 착각하셨나?”

“카이산.”

“그 광기가 죽인 거예요. 그 광기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라고요!”

“카이산!”

“저를 단 한순간도 아들로 여긴 적 없으시니,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거세게 외친 카이산은 로쉐를 지나쳐 서관 아들러에게 다가갔다.

“자,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나? 북성? 그래, 북성이겠지? 어딘들 상관없네. 데이모스 코르벨라가 없는 세상이라면 그곳이 어딘들 내겐 아늑한 곳이니.”

로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카이산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한때 황후였던 여인의 몰락을 많은 이들이 호기심 깃든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데이지는, 누군가가 목을 세게 움켜쥐는 것만 같아서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입술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가까이 있던 시종들에게 일렀다.

“다시 궁으로 모시거라.”

그녀의 명령에 시종들이 서둘러 로쉐에게 다가가 일으키는 사이, 데이지는 천천히 데이모스의 관으로 다가갔다.

시종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로쉐는 데이모스에게 다가가는 데이지를 보고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야멸차게 데이지를 비난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

“이제 속이 시원해? 네 오라비가 죽고 나니 속이 시원해?!”

“…….”

“배신자. 내,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네 오라비를 배신해!”

그녀의 세상은 늘 그녀를 기준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 번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이 바라는 데이지 코르벨라가 아니라, 그저 한 존재로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이해였으나, 이제 와 그것을 되짚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가슴이 헤져 툭 떨어질 것만 같았다.

데이지는 로쉐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데이모스의 시신을 확인했다.

그는 틀림없이 데이모스였다.

유감스럽게도 데이지는 그의 죽음에 조금의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데이지에게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시종을 손짓해 불렀다.

“황제 폐하께서 돌아오실 때가지 대리를 맡은 나, 데이지 코르벨라가 데이모스의 시신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미 코르벨라의 이름을 박탈당했으며, 동시에 죄인의 신분이니 황족의 장례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 그의 장례 절차는 황제 폐하께서 귀환하시면 결정하실 것이니, 지하 보관소로 시신을 옮겨라.”

“예, 황녀님.”

말을 마친 데이지는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절대 로쉐에게 닿지 않았다.

그 냉혹하고 냉정한 모습에 로쉐는 결국 무너졌다.

데이지만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절대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태를 빌어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로쉐는 데이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나, 데이지는 끝끝내 로쉐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딸이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말이,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작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로쉐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 \* \*

발할라 성에서 온 행렬이 황궁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재무대신 권한 대행인 아쉬 타하람에게도 전해졌다. 그 소식엔 데이모스의 죽음도 함께 실려 있었다.

잠시 멍하게 눈을 깜빡이던 아쉬가 들고 있던 펜을 받침대에 놓으며 물었다.

“그의 시신을 누가 확인하였나?”

“데이지 코르벨라 황녀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아쉬가 나직하게 탄식했다.

최근 그녀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재정청에 휴직계를 낸 상태였다.

아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급한 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서기관님?”

“곧 돌아오겠네.”

웬만한 일로는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는 그가 잉크병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가 버리자, 시종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잉크병 뚜껑을 대신 닫아 주었다.

아쉬는 바쁜 걸음으로 외진 궁을 향해 걸었다.

사실 그에게 있어 멜로디가 사용하던 궁은 상처였다. 이제 와 아쉽다거나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사랑의 실연은 그의 마음에 명백히 상흔을 남겼다.

그 궁으로 향할 때면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어쩐지 속도 울렁였다.

그러나 지금, 그곳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속이 울렁이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곳에서 홀로 울고 있을지 모를 그 사람 때문이었다.

또 홀로 울고 계시려나.

한 줌의 바람, 한 줌의 흙이 되고 싶으신 날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옆을 지켜드리기로 했는데 늦으면 어떡하나.

그가 뛰는 듯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쩐지 온종일 날이 어둡더라니, 결국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쉬는 우산을 가지러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뛰기로 했다.

땅을 점점이 수놓던 빗방울이 점차 거세졌다. 아쉬 타하람은 모든 체면을 벗어 버리고 내리는 비 사이를 가로질렀다.

데이모스의 시신을 확인한 데이지는 이끌리듯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염없이 걷고 걸어 소박한 궁에 도착한 데이지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뒤뜰로 향했다. 비어 있는 궁이라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인지, 뒤뜰은 여전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철제 의자 세 개도 그대로였다.

데이지는 나이젤이 앉았던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의자의 끝을 가볍게 쓸어 보았다.

가슴이 욱신거리고 아파서 곧 손을 거둔 데이지는 의자에 깊숙하게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관에 누워 있던 데이모스의 시신은 처참하고 비참했다.

그의 존재가 폭력이었을지언정, 그 모습을 보고 유쾌한 마음이 들 리 없었다.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섬뜩하던 어머니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서 메아리쳤다.

아버지는 쓸쓸히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온갖 죄를 저질러 권한을 박탈당했다.

두 오라비 중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으며, 또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 북성에 유폐되었다.

그녀는 문득 홀로 이렇게 살아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스스로의 생각에 깜짝 놀란 데이지가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시리도록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니, 몸이 덜덜 떨렸다.

그때,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그녀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자, 또 한 방울이 떨어져 이번엔 뺨을 적셨다.

“…비가 오네.”

멍하니 중얼거리고 있자니, 곧 거센 비가 쏟아졌다.

데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다른 곳은 모두 비가 들이치지만, 궁의 정문 앞은 위층의 테라스 때문에 비를 피할 만했다.

정문으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천천히 주저앉았다.

비가 제법 많이 내렸다. 멍하니 비 오는 세상, 외딴 길을 바라보던 데이지는 추위에 몸을 옹송그렸다.

온 세상이 빗소리로 가득했다. 무릎에 이마를 기대자, 그녀 홀로 세상에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숨 막히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데이지는 입술을 세게 짓씹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세상을 가득 메우는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릎에 이마를 대고 있던 데이지가 그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다.

“……!”

느리게 뛰던 심장이 별안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궁으로 이어지는 외딴 길을 따라, 그가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두 눈은 오직 그녀에게 닿아 있었다.

데이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올랐다.

숨 막힐 듯 답답하던 가슴에 파문이 일며 온 마음이 술렁였다. 결국 눈매가 허물어졌다.

온통 비에 젖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데이지 앞에 섰다. 데이지는 주저앉은 상태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다.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에 아쉬는 가슴이 일렁여서 숨을 참았다.

그는 데이지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의 눈높이가 비슷해지자, 데이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그를 타박했다.

“비가 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녀의 타박에 아쉬가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를 맞고 오면 어떡하느냐고요!”

데이지가 울면서 작게 소리치자, 아쉬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려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다가 자신의 손이 온통 젖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난감한 얼굴로 손을 거뒀다.

그는 늘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괜찮은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늘 살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알아차렸다.

데이지는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것을 간신히 삼켰다.

홀로 무언가를 삼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녀를, 아쉬는 꼭 끌어안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 말을 건넸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0)

그 다정한 말에 데이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완전히 붉어진 눈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데이지에게 그는 빗방울에 젖은 투명한 잎사귀처럼 웃어 주었다.

그의 담담하고 맑은 미소에 데이지는 지금껏 자신을 무겁게 누르던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

“나무가, 필요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젖으셔서……. 이대로 있다간 감기 걸리고 말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녀의 말에 아쉬는 입술을 말아 물고 눈을 깜빡이더니, 어색한 손짓으로 비를 가리켰다.

“이 비를 뚫고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그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의 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데이지가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두드렸다.

아쉬는 그녀의 옆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데이지는 그런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재차 자신의 옆자리를 두드렸다.

그러자 아쉬가 난감한 얼굴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너무 젖어서 황녀님도 젖으실 겁니다.”

그의 말에 데이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답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주신다면서요. 얼른 오세요.”

결국 아쉬는 머뭇거리다가 데이지의 옆자리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 아쉬가 숨을 삼켰다.

그의 온기가 곁에서 느껴지자,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던 빗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것은 설렘과 동시에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다.

“…비가 그치는 것을 기다릴 겸… 재미없는 이야기이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실래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나직한 답에 데이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버지나 멜로디에게마저 꺼낸 적 없던 이야기건만, 어깨 너머의 온기에 기대어 하고 싶어졌다.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쉬는 데이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물렸다. 서로의 온기가 서로에게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자욱하게 사위를 메우는 빗방울은 마치 그들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흔들리는 시선이 서로를 옭아매었다.

아쉬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을 필사적으로 내리눌렀다.

“듣고 싶습니다, 황녀님의 이야기를.”

그의 대답에 데이지는 시선을 내리며 길고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 줄 이야기를 시작했다.

녹음이 젖어 드는 외딴 궁의 계단에,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 \* \*

포로의 긴 행렬은 제록스 국경 지대에서 시작되어 뷔안까지 이어졌다.

그들 뒤로 승리를 쟁취한 병사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상황의 죽음으로 숙연한 분위기임에도, 코르벨라의 국민들은 코르벨라를 지켜 준 이들을 따스히 환영했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어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병사들은 대신 짜릿한 영웅담을 들려 주었다.

“아니 그럼! 우리 폐하께서 나타나시니 놈들이 싸그리 도망을 갔다, 이 말이요?”

“아, 그렇대도!”

전쟁에선 오직 영웅만이 남는 법이다.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는 나이젤 코르벨라에 대해선 묻는 이도, 이야기하는 이도 없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모든 행렬을 무시하고 수도를 향해 달렸다.

마을을 지나갈 때면 인근의 주민들은 달려 나와 코르벨라의 국기를 흔들며 그들을 환영했다.

“코르벨라 황제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온 나라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들끓었다.

상황의 부고도, 나이젤 코르벨라의 부재도 무용했다.

곧 황제와 사령관이 홀연히 수도 인근에 나타났다. 아니타와 볼테르의 속도를 능가하는 말이 없기에, 그들은 전령보다도 앞서 수도에 도착했다.

수도의 정문이 열림과 동시에 황제의 귀환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다.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황궁 인근에 도달했을 무렵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센의 포로 행렬, 전해지는 짜릿한 승전보, 마치 천마 같은 말을 타고 달려나가던 젊은 황제, 소드 마스터이자 황제의 부군인 사령관.

자극적이고 짜릿한 이야기일수록 빠르게 퍼지는 법인데, 하물며 그 주인공이 젊은 황제와 그의 부군이니 오죽할까.

그들을 기다리던 인파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내질렀다.

“황제 폐하!”

“대공 전하!”

아직 대공의 칭호를 수여하기 전임에도, 백성들은 카이사르를 대공 전하라고 칭했다.

당사자인 카이사르마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연호했다.

두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 나온 이안은 수많은 인파와 수도를 무너뜨릴 듯한 기세의 함성에 한 번 놀라고, ‘대공 전하’라는 칭호에 한 번 더 놀랐다.

“모두 비키시오! 베델 공부인께서 지나가실 것이오!”

집사의 외침에 황궁 정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가, 일제히 옆으로 물러나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안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공부인. 공부인께서 가장 앞에 계시는 것이 맞지요.”

그녀는 황궁의 정문 앞을 지키고 서서 두 사람의 귀환을 바라보았다.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때때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뭔가가 울컥 치밀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이안은 서둘러 눈물을 삼켰다.

카이사르는 두 손을 꽉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부쩍 야위신 어머니는, 아마 단 한순간도 편히 발을 뻗고 주무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조차 너무 늦은 것임을 이제는 안다.

카이사르는 가슴이 저릿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멜로디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붉어진 얼굴로 그녀와 카이사르를 연호하고 있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함성을 듣던 멜로디는 문득 황궁의 정문 위에 게양되어 있는 깃발을 올려다보았다.

새 황제의 즉위를 의미하는 금빛 깃발과, 상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깃발이 나란히 게양되어 함성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나이젤 코르벨라는 없었다.

황제라는 직함은 생각보다 정말 별것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만큼 헛되고 허망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금과 흑의 깃발이 모두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직 코르벨라의 국기만이 그녀의 뇌리에 남았다.

“황제란 사랑하는 자이자, 조율하는 자이며, 선택하는 자다.”

상황의 죽음이 깔린 길, 우레와 같은 함성이 깔린 길 위를 걷는 젊은 황제는 결국 유언이 되고 만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다.

업무를 보던 중신들도 들끓는 함성 소리에 놀라 일제히 달려 나왔다.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일 정도로 엄청난 함성 사이로, 황제와 사령관의 모습이 보였다.

베델 공작은 아내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이 황제와 사령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자, 뒤따라 나왔던 데이지와 아들러를 비롯한 중신들 역시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몰려 있던 인파도 잠시 침묵하며 예를 올렸다.

수도가 삽시간에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다.

멜로디는 베델 공작 부부 앞에서 아니타를 멈춰 세웠다. 그러고는 훌쩍 뛰어내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베델 공작에게 다가갔다.

멜로디가 베델 공작의 왼쪽 어깨에 오른손을 올리자,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멜로디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폐하야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멜로디는 이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어 준 뒤, 카이사르를 돌아보았다.

카이사르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안은 당연히 그가 무뚝뚝한 인사를 건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 다녀왔니? 카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오직 그녀 개인의 것으로 남겨 놓고, 담담히 인사를 건네려던 이안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끌어안는 아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

“어머니.”

그토록 간절하던 아들의 목소리에 꾹꾹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막을 새도 없이 터져 나왔다.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한참이나 아들의 등을 세게 끌어안고 울던 이안이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카이사르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말에 이안은 쏟아지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어서 오렴, 카이사르.”

모자의 재회를 바라보던 이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죽었다 전해졌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멜로디도 두 사람의 재회를 부드러운 얼굴로 바라보다가, 마중 나온 중신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우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아들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했네.”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폐하.”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이번엔 데이지에게 다가갔다.

야윈 모습으로 나타난 데이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멜로디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데이지.”

“…걱정 마십시오, 폐하. 괜찮습니다.”

멜로디는 그렇게 마중 나온 중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다시 아니타 위에 오른 멜로디가 수많은 인파를 향해 몸을 돌렸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천천히 좌우를 살핀 뒤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분명 환호해야 할 말이나, 황제의 담담한 어조와 진중한 표정에 군중은 환호 대신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집중했다.

“또 언제 어디에서, 이 코르벨라를 위협하는 적이 나타날지 모르나, 그것이 오늘은 아니다. 나는, 코르벨라의 황제로서 그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들어도 좋다. 나는 매일이 그런 나날이 되도록 온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연신 황제와 대공을 연호하던 군중은 그녀의 선언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멜로디는 이내 결심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대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입술을 꾹 말아 물고 잠시 침묵하던 황제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 자리에 없는 나이젤 코르벨라, 그를 기억하라.”

그녀의 말에 그곳에 모인 모두가 잠시 숨을 멈추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1)

“앞으로 2주간, 선황제의 장례 기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선황제의 장례 기간에 대한 선포까지 마친 멜로디는 아니타를 돌려 황궁 안으로 들어갔다.

카이사르를 비롯한 모든 중신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황궁으로 들어가자, 황궁의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닫혔다.

돌아온 황제를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일거리였다.

오랜 기간 야외에서 생활했던 황제와 사령관은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들러는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상황이 유언장처럼 남긴 세 통의 문서를 황제에게 내밀었고, 멜로디는 상복 차림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로쉐 발할라에 대한 처벌, 죽은 데이모스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나이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죽음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말소한다라…….”

멜로디는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몰아쉬었다.

“일단 장례부터 진행하겠네.”

“예, 폐하.”

우르바시의 시신은 코르벨라 궁의 정북 방향에 위치한 지하 얼음 방에 보관되어 있었다.

지하 얼음 방의 입구에 다다르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곧장 지하로 향하려는 멜로디에게 아들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곧 시신을 관에 모시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폐하. 그렇게 되면 더는 상황 폐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

“홀로 인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들러의 배려였다. 멜로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후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맙네.”

멜로디는 어두운 지하를 향해 한 발을 내디디다가 고개를 돌려 한 발 뒤에 있던 카이사르를 바라보았다.

“제가 같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이자, 카이사르는 곧장 멜로디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얼음 방이 있는 지하까지 내려왔을 땐, 한겨울처럼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시신을 지키고 있던 장례사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자리를 비켜 주게.”

그녀의 부탁에 장례사가 지상으로 올라갔다.

멜로디는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기만 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카이사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자, 멜로디는 입술을 말아 물었다.

이내 긴 숨을 몰아쉰 그녀가 결심한 듯 아버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아직 얼굴을 가리지 않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검게 변해 바싹 여윈 얼굴은 오래된 고목처럼 거칠어 보였다.

차디찬 지하에 누운 아버지는 죽음 그 자체로 보였다.

온 수도를 뒤흔들던 함성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황제의 직함도, 무수한 영광도 더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왕궁 터엔 명군(名君)의 영혼이 떠돌고, 황량한 성벽 위엔 명장(名將)의 영혼이 떠도네. 헛되고 헛되노라. 허무에서 태어나 허무로 돌아가니 우리는 죽음으로조차 잃을 것이 없도다.

아버지, 남편, 하다못해 만족스러운 개인의 삶조차 황제라는 이름 아래에 두셨던 분인데.

그 이름이 이토록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어느 시점에 깨달으신 것일까.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으셨던 그때가 아닐까?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였다. 아들의 권한과 존재마저 소멸시키는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그것마저 황제로서 제국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안배였으니.

멜로디는 새삼 황제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렸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 목 놓아 통곡하지는 못할망정 우두커니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녀 자신은 어떠한가.

멜로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뺨을 만져 보았다.

깜짝 놀랄 만큼 차갑고 딱딱했다. 그 차가움과 딱딱함이 슬퍼서 울음이 치밀었다.

멜로디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아버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아버지.”

기어이 차오른 눈물이 망자의 뺨을 적셨다.

“아버지…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죽음은 상실이라 이런 모습으로조차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임을 알지만, 그녀는 일어나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억누른 채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는 그녀를, 카이사르는 아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상황 우르바시 코르벨라의 장례는 멜로디의 참관 아래 빠르게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를 끝마친 상황의 시신은 관례에 따라 수도 밖 아리엘 협곡에 묻혔다.

황제는 우르바시의 초상화를 선황제들의 초상화를 모신 궁에 안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신관의 주재 아래 행해진 절차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멜로디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황제의 침실로 향했다.

“국서께는 어디의 침실을 내어드리면 되겠습니까, 폐하?”

아들러의 정중한 질문에 멜로디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나와 같은 침실을 쓸 것이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국서께 별도의 궁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멜로디는 지친 와중에도 피식 웃으며 카이사르를 가리켰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왜 내게 묻나?”

“아, 그렇지요. 어떠십니까? 궁이 필요하십니까?”

그에 카이사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상하게 답했다.

“번거롭게 굳이.”

멜로디는 그다운 답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필요하거든 말해요.”

“알겠습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서로 시선을 맞추더니, 나란히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공저로 갔던 멜로디의 시녀들은 궁으로 돌아와 황제의 직속 시녀가 되었다. 그들이 멜로디의 환복을 도왔다.

늘 말이 많은 이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말도 없이 빠르게 모든 채비를 끝마쳤다.

“그럼 쉬십시오.”

그들이 모두 물러간 황제의 침실.

멜로디는 넓고 넓은 침대 끝에 우두커니 앉았다.

카이사르는 그런 멜로디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그렇듯 오늘도 내내 그녀에게 닿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선 장군처럼 보였다.

수천 수만 대군을 눈앞에 둔 긴박한 순간, 장군이 이성과 냉철함을 잃으면 전쟁은 지는 것이다.

그러니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은 제아무리 속이 들끓고 불안함이 요동쳐도,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녀가 오늘 그래 보였다.

전쟁은 끝났는데, 그녀의 전쟁은 마치 이제 시작인 듯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전쟁을 치르다 보면, 황제는 어느 순간 신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카이사르는 두려워졌다.

드넓은 광야를 가로지르며 새파란 눈을 길게 휘던 이다. 작고 소박한 쿠키 선물에 두 손을 번쩍 들며 기쁨을 표현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마치 한여름의 햇살 같던 그런 사람이 서늘해지다 어느 날 꽁꽁 얼어 버린 극지의 한겨울이 되어 버리면 어쩌나.

황제란, 꼭 신의 가면을 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

카이사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넓은 침대를 돌아 그녀의 정면에 선 카이사르가 멜로디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높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멜로디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는 카이사르를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그녀를 향해 눈을 휘며 웃었다.

그가 웃자, 멜로디 역시 따라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

“왜 웃어요?”

“당신이 제 웃음을 좋아하시니까요.”

그의 대답에 멜로디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아 물론, 그야 그렇지만.”

“보조개가 들어간다며 좋아하셨잖습니까?”

그 말에 멜로디는 실소하듯 웃어 버렸다.

카이사르는 그런 멜로디를 웃는 얼굴로 바라보다가,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아 쥐었다.

“카이사르?”

그는 그 부름에 답하는 대신, 그녀의 발을 자신의 무릎에 올린 뒤 손으로 부드럽게 주물렀다.

생경한 감각에 멜로디가 어깨를 움츠렸으나, 카이사르는 꼼꼼히 그녀의 발을 어루만졌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눈물도 많은 분이신데, 하루 종일 눈물을 참으시느라…….”

멜로디의 발을 내려다보며 말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말에 차오를 새도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새파란 눈이 일렁이며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멜로디 코르벨라는 소리도 내지 않고 하염없이 울었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발을 놓고 일어나, 이번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었다.

침대 위로 올라간 그는 멜로디를 품에 안고 누워 그녀의 등을 끌어안았다.

“황제가 별겁니까. 그 이름을 등에 짊어진 당신이나, 그저 자유롭던 당신이나 저에겐 멜로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앞섶이 축축하게 젖어 드는 것을 느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울고 싶으신 날엔 우시고, 웃고 싶으신 날엔 웃으시고, 또 언젠가 다 내팽개치고 드넓은 광야에서 말을 달리고 싶으신 날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멜로디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폭군이 되는 것 아녜요?”

카이사르가 피식 웃으면서 되물었다.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시기에?”

“…….”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땀에 젖을 만큼 달리신 뒤, 허기가 질 무렵 차려진 맛있고 푸짐한 식사. 식사가 끝난 뒤엔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낮잠을 주무시는 것.”

그는 멜로디의 행복을 정확하게 짚어 냈다.

“그 옆에 제가 있다면 더 좋으시겠지요.”

가만히 그의 말을 듣던 멜로디는 눈꼬리에 눈물을 매단 채 몸을 뒤로 뺐다. 그러고는 코끝이 빨개진 상태로 남편을 쳐다보며 새초롬하게 눈을 떴다.

“아닙니까?”

“…너무 정확해서요.”

카이사르가 또 웃었다.

멜로디도 덩달아 웃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당신은 아무리 원하는 것을 하신다 한들 폭군이 되실 리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멜로디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 오늘 울고 싶으시면 마음껏 우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 그렇게 우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멜로디의 눈매가 다시 허물어졌다.

한참을 그의 품에서 울던 멜로디가 작게 중얼거렸다.

“권력은, 이 자리는… 참으로 야만적이에요. 다들 궁금할 텐데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나이젤 오라버니에 대해서.”

발할라 측에 서서 데이모스를 지지하던 귀족들은 나이젤이 황제가 되느니 멜로디가 황제가 되는 편이 신상에 이로웠고, 나이젤 측근들은 보뱅 공작이 침묵하니 덩달아 침묵하고 있었다.

거기다 중도파 귀족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델 공작이 멜로디의 뒤를 지키고 있으니, 권세는 자연스럽게 멜로디 쪽으로 기울었다.

“나이젤 황자님의 빈자리가 계속 신경 쓰이시는군요.”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이자, 카이사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안을 하나 했다.

“그럼 매일 나이젤 황자님께 편지를 쓰시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런 편지가 쌓이고 쌓이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황자님께서 깨셨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멜로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중얼거리며 생각을 정리하더니, 슬리퍼도 신지 않고 책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서랍 이곳저곳을 뒤져 종이를 꺼내 펼치더니, 조심스럽게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쓰다가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쓰다가 또 생각을 정리하며 신중하게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런 멜로디의 모습을 침대에서 바라보던 카이사르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저 밝고 긍지 높은 영혼이 풍파에 헤지지 않게 부디 살펴 주십시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2)

일이 몰아쳤다.

“원래 이런 것인가?!”

황제가 머리를 감싸며 묻자, 시종장이 웃으며 답했다.

“원래보다 좀 더 많습니다.”

“아, 어째서!”

“…….”

“그래, 전쟁 직후지.”

아들러는 그저 웃었다. 그는 며칠 만에 황제 멜로디를 모시는 데 완벽하게 적응했다.

황제는 우선 체력이 아주, 매우, 대단히 좋았다.

단언컨대, 황제 폐하만큼 체력이 좋은 사람은 며칠 전 대공의 칭호를 수여받은 국서 카이사르를 제외하면 제국 내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체력이 좋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속도 역시 어마어마했다.

황제가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 쉬다 오라고 밖으로 내보내면 되었다.

그러면 황제는 근위대로 달려가 적당히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그사이 아들러는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고, 그에 기분이 좋아진 황제는 힘을 내어 다시 일에 매진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쉬면서 체력까지 보충하니, 아들러는 마음이 뿌듯했다.

실상 멜로디 코르벨라는 후계자 교육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

아들러는 내심 그것이 걱정스러웠는데, 멜로디를 보좌하면서 모든 것엔 명과 암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관례에 따른 편견이 없고, 스스로의 능력을 맹신하지도 않았다.

“아, 짐이 이것에 대해 잘 모르오. 가르친다 생각하고 찬찬히 알아듣게 설명 좀 해 보시오.”

더불어 황제는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한 편이었기에 늘 설명을 요구했고, 자문을 구하는 일에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 싸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기에, 중신을 대함에 있어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했다.

“폐하, 공석인 재무대신의 자리에 벨로르가 가문의 차남인 로로위 벨로르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벨로르가 가문은 대대로 발할라 가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발할라 측에 서서 힘을 보태던 이들 중 누군가가 망나니로 소문난 로로위 벨로르가의 이름을 꺼내자, 몇몇 대신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자는 제 아버지의 재산마저 탕진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자입니다.”

멜로디는 로로위 벨로르가의 신상이 적힌 종이를 받아 들고 읽었다. 사실 읽을 것도 없었다.

한 장의 간략한 문서를 대충 눈으로 읽은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로로위의 이름을 꺼낸 이를 직시했다.

“이자를 왜 추천하려는 거요?”

“폐하, 벨로르가 가문은 대대로 재무대신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능한 재무대신이었기에 그의 아들인 로로위 벨로르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리암 벨로르가라고 아시오?”

“…….”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멋지게 도망을 가 버린 자가 바로 그요.”

신랄한 황제의 말에 몇몇 중신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고개를 급히 숙였다.

재무대신 대리 신분으로 앉아 있던 아쉬 타하람은 표정 변화 없이 황제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인적 사항을 보니 가족 사항이 특기 사항이구려.”

“크흠흠.”

아들러마저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 뭐. 아버지가 황제라는 이유로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은 내가 할 말은 아니네만.”

“으하하하, 크흠흠.”

결국 웃음이 터진 누군가가 웃음을 갈무리하고자 애썼다. 다른 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중신들은 하나같이 어깨춤을 추며 고개를 숙였다.

이 와중에 베델 공작과 대공, 황제만이 여유로웠다.

“짐이 지금 아주 바쁘오. 일거리가 쌓이고 쌓여서 잠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중요한 재정청의 수장이 그저 누구의 아들이어서는 도저히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소.”

멜로디는 쌓여 있는 수많은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로로위 벨로르가의 이름을 꺼냈던 이는 리암 벨로르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절하는 황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저… 그럼 폐하, 혹 누구를 재무대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뱅 공작이 조심스럽게 묻자, 멜로디는 대답 대신 아쉬 타하람을 바라보았다.

그에 자연스럽게 중신들의 시선 역시 하나둘씩 아쉬에게 향했다.

아쉬는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이를 지켜보던 베델 공작과 대공이 그녀의 의사에 동조했다.

“재정청에 아쉬 타하람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국가 예산은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전쟁 배상금과 관련하여 재정청은 더 바빠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너무 파격적인 인사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으나, 황제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좋소. 그럼 후보들의 인적 사항을 가져오시오. 단 특기 사항이 가족 사항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아쉬 타하람보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하오.”

“하오나 폐하, 관례가…….”

누군가 말하자, 황제는 곧장 쌓인 문서를 손으로 다시 한번 가리켰다.

“내가 지금 잠도 줄여 가며 일하고 있는데 관례 같은 소리나 하면서 일 속도를 늦추면, 나는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쉬란 말이오?!”

대군을 호령하던 기백으로 새파란 눈을 번뜩이며 말하니, 정계를 주름잡던 중신들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황제는 성격이 급했다.

‘빨리빨리, 속전속결, 빠르고 정확하게’가 입에 붙은 사람이었다.

“자, 반대하는 사람 있소? 아쉬 타하람, 할 수 있겠나?”

“아, 그게 폐하…….”

“어차피 계속 해 오던 일이니 바뀔 것도 없네.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네. 이의 있으면 따로 찾아오고.”

“…예.”

“다음!”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회의에 모두가 체력 고갈로 고통스러워했으나, 황제와 대공은 지칠 줄 모르고 회의를 진행했다.

“다음!”

“다음!”

한 번 했다 하면 반나절 동안 쉴 틈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통에, 몇몇 중신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두면 대공 전하와 더불어 대륙 통일을 하실 거라니까.”

늘 패를 나누어 싸우기 바빴던 일부 중신들은 네 편 내 편의 개념이 없는 황제 앞에서 입도 떼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말꼬리를 잡아 공방전을 하려 들면, 귀신같이 이를 눈치챈 황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할 거면 나가서 싸우고 오시오.”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한 판 싸우고 들어오라 이 말이오! 지금 이게 안 보이시오? 쌓인 안건이 이만큼인데! 나는 이걸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회의를 끝내지 않을 거요!”

황제의 으름장에 중신들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뭐? 불만 있소?”

그에 마음이 급해진 건 오히려 중신들이었다.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오늘 집에 가기 싫소? 대충하고 그만두시오!’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던 이들은 결국 입을 닫고 자라처럼 목을 쑥 집어넣었다.

멜로디 코르벨라 앞에서 유용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은 능률적으로 효율성 높게.’

그녀는 권력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내 세력을 불려 무언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황제 멜로디가 관심 있는 것은 코르벨라 전체의 삶이었고, 그녀에게 있어 ‘황제’란 전체적인 것을 조율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자였다.

멜로디 개인의 삶은 ‘황제’라는 이름과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다음!”

낭랑한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황제가 해결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엔, 국가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국가를 혼란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공 카이사르가 이와 관련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일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 수록 그는 이를 갈았다.

그렌트 발할라와 카이산 코르벨라는 적극적으로 오르센의 왕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나이젤을 비롯해 출전했던 모든 이들을 죽일 생각이었다.

다만 로쉐 발할라와 데이모스의 내통죄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카이사르는 죽은 루카스 모데라토와 데이모스 사이의 접합점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문제는 둘 모두 죽어 버려 죄를 캐낼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황제는 카이산 코르벨라에게 내통죄를 물어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함은 물론, 노역형을 내렸다.

그가 평생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책임이 그에게 있으므로 일부 대신들은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모든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은 그렌트 발할라였다.

카이산 코르벨라를 사형에 처하기엔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렌트 발할라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로쉐 발할라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황제 시해 사건 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를 자백한 것이다.

그렌트 발할라는 본인이 죽음으로써 공소권이 사라졌으나, 황제는 그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라 일렀다.

멜로디는 로쉐 발할라의 처벌에 대해선 선황제 우르바시의 명령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렌트 발할라 살해죄가 추가되었으나, 처벌 수위엔 변함이 없었다.

데이모스의 장례는 평민의 장례에 준하여 치러졌고, 그의 묘소는 어머니 로쉐 발할라의 청에 의해 드모르네로 정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멜로디에게 달려와 사정했고, 멜로디는 그녀의 청을 들어 주었다.

다만, 데이모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죄가 황제의 명에 따라 실록에 쓰이는 불명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로쉐가 데이모스의 관을 들고 황궁을 떠나던 날, 데이지는 먼 곳에서 그녀의 쓸쓸한 퇴궁을 바라보고 있었다.

“데이지.”

갑작스러운 부름에 화들짝 놀란 데이지가 뒤를 돌아보자, 멜로디가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건넸다.

“놀랐어? 미안.”

“폐하!”

폐하라는 호칭에 멜로디가 씩 웃었다.

“너한테 폐하 소리를 들으니 영 어색하네.”

“…….”

“가자. 부탁할 것이 있어.”

멜로디는 데이지를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갔다.

아들러까지 내보낸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데이지에게 한 통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

“……?”

데이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서를 집어 들었다. 빳빳한 봉투를 열어 속에 든 종이를 읽던 그녀의 두 눈이 점점 커졌다.

“멜로디!”

“가주의 죄로 인해 발할라의 모든 권한과 자본 등은 국가로 환수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워낙 발을 뻗은 곳이 많다는 데 있어.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여 환수하려면 환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을뿐더러, 관련한 많은 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해.”

“…….”

할 말을 잃은 데이지에게 멜로디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발할라를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데이지.”

“…중신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야.”

“환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게 그들이야. 더구나 네가 황제의 인장을 보관한 공과 국가 예산을 데이모스로부터 지키려 했던 공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지. 더불어 발할라의 적법한 승계자로 치면 너만 한 사람이 없어. 너는 현재 발할라의 유일한 상속자야.”

데이지의 금빛 눈동자가 흔들렸다.

“발할라를 맡아 줘, 데이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겠지만,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데이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새파란 눈동자를 한참 동안 마주했다.

“너는… 늘 내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 주었지.”

“그야, 그래 보였거든.”

“그 말이 내게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

“나는 그 말에 약해.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

데이지의 말에 멜로디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 억지로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할게.”

“응?”

“줘, 내게.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내 외숙의 재산을, 보란 듯이 국가를 위해 쓸 테니 내게 맡겨 줘.”

금빛 눈동자를 빛내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멜로디는 그런 그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며 유쾌하게 말했다.

“좋아. 앞으로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폐하.”

두 자매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괜찮아?”

물끄러미 데이지의 눈을 바라보던 멜로디가 묻자, 데이지는 씁쓸한 얼굴로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괜찮지 않을 것은 또 뭐야.”

“…….”

“가족… 인연이란… 참 어려운 것 같아.”

“…….”

“솔직히… 완벽하게 괜찮을 수는 없어. 문득 생각나고, 문득 떠오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련이 남지는 않아. 미련 같은 것이 남기엔 너무 멀리 왔어.”

데이지의 표정은 단호했다. 가족을 자신의 인생에서 덜어 내 버리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멜로디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기에,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런데 멜로디.”

“응.”

“나이젤 오라버니는… 어떻게 되었어?”

데이지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던 멜로디가 씁쓸한 얼굴로 답했다.

“나는, 기다리는 중이야.”

그것은 참으로 모호한 대답이었으나, 데이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3)

멜로디가 황제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이 있으니, 바로 아뷔브 산맥에 관한 문제였다.

코르벨라 법상 황제는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황제는 영주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황제가 영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수도가 유일하다.

이것은 황제가 수많은 땅과 사람을 독식하여 황권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

선황제 우르바시가 아뷔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뷔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아뷔브는 황제의 소유가 될 수 없다. 황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곳에 영주를 두어야만 한다.

일전에 아뷔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족이 멜로디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일족 편에 보냈었다.

그에 제럴드가 직접 궁을 방문했다.

“외숙!”

오랜만에 만나는 외숙이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가자, 제럴드는 멜로디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하하, 잘 지냈니?”

“그럼요!”

“어디 보자. 아이고, 얼굴이 야위었는데? 일이 많구나?”

함께 있던 카이사르가 싱긋 웃으며 제럴드에게 인사를 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소. 흐음… 부부가 똑같이 고생 중인 것 같소만.”

제럴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리자,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서로를 마주 보며 씩 웃었다.

세 사람은 황제의 비밀 응접실에 모여 앉았다.

“다들 잘 계세요? 클레어는요?”

“잘 있지. 그렇지 않아도 편지를 줘서 가져왔단다.”

멜로디가 반색하며 클레어의 편지를 받아 들자, 제럴드는 더 있다며 한 뭉치의 편지를 더 꺼냈다.

“자! 이건 메어, 이건 슈테언, 이건 에르데. 발트, 블라우는 같이 썼고… 그리고 이건 리아나가 보낸 거다.”

멜로디가 리아나의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자, 카이사르가 제럴드에게 물었다.

“나이젤 황자님께서는 아직이십니까?”

“해독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써 보고 있는데……. 글쎄, 아직은 차도가 없소. 당장 위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았지.”

제럴드가 씁쓸한 어조로 답하자, 멜로디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참, 그리고 귀곡에 있던 오르센 군인들이 모두 철수했다.”

“그래야죠. 아! 외숙,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는 장로분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멜로디의 질문에 제럴드는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기대며 턱을 문질렀다.

“의견이 반반이야.”

“반반이라면…….”

“나는 일족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는 여태껏 숨어 사는 것을 택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 그렇다면 어찌 되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 네 말대로 우리는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현재 제국의 황제가 너니까.”

“반대 의견은요?”

“말 그대로 반대다. 우리가 참전할 당시엔 네가 영주가 된다는 전제하였잖니.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네가 아닌, 일족과 코르벨라의 역사를 모르는 자가 영주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지. 일족의 역사를 모르는 이는 일족을 지배하려 들 것이 틀림없으며,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게지.”

“…….”

“멜로디, 우리를 지배하려 들면 일족과 코르벨라는 다시 원수가 될 거다.”

담담하고 단호한 말에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이다.

그들과 최선의 합의점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두 집단 사이에 서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

코르벨라와 일족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기 힘든 일이다.

“잘 알고 있어요.”

“…….”

“…….”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일족과 코르벨라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가 제국 내에 몇이나 될까?

현재 그 관계를 이해하는 자는 황제와 대공이 전부였다. 문제는 황제도 대공도 아뷔브의 영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데 있었다.

한참 고민하던 멜로디가 제럴드에게 물었다.

“아니면 외숙께서 공로를 인정받아 귀족의 작위를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제럴드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황제를 직시했다. 멜로디 역시 지지 않고 그의 눈빛을 받아 내며 말을 이었다.

“귀족의 작위를 하사받음과 동시에 아뷔브 영주의 자격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입지를 다지며 아뷔브의 영주가 될 자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럴드는 입술을 그러 물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그것 역시 나 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돌아가 상의해 보마.”

“좋아요. 상의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일족의 공로를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젤 오라버니가 깨어나시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다.”

그는 곧장 일어나지 않고 물끄러미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작은 발로 빠르게 산을 달려오던 조카를 한 품에 안아 든 날, 작고 통통한 얼굴에 박힌 새파란 눈동자가 어찌나 예쁘던지. 이 어여쁜 녀석을 왜 이제야 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랬던 녀석이 어느 날 훌쩍 큰 것도 모자라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으니, 비록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언정 제럴드는 만족스러웠다.

“클레어는 네가 의젓하게 독립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황제 역할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펑펑 울었단다.”

그리운 이름에 멜로디가 조금은 힘겨운 미소를 지었다.

“무섭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나저나 외숙, 클레어랑은…….”

“크흠흠.”

멜로디가 음흉하게 눈을 뜨며 운을 떼자, 제럴드는 얼굴을 붉히며 거세게 헛기침을 했다.

그의 반응에 멜로디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고, 제럴드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타박했다.

“하여간, 너 이 녀석!”

멜로디와 제럴드는 웃으며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카이사르는 그런 두 사람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제럴드와 일족의 존재가 기꺼웠다.

그들은 자신과 더불어 멜로디가 자신을 잃지 않도록 닻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야겠다.”

“오자마자 가시려고요?”

“가서 논의를 해 봐야지.”

“…….”

“참, 그리고 멜로디.”

“네.”

잠시 말없이 멜로디를 바라보던 제럴드가 손을 뻗어 멜로디를 꼭 안아 주었다. 천천히 등을 쓸어내리는 그의 손길에 멜로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르바시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

“네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했다, 멜로디.”

멜로디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럴드는 멜로디를 다시 한번 꽉 안아준 뒤 뒤로 물러나더니, 카이사르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대도 건강하시오.”

그가 솜씨 좋게 황궁을 벗어나는 것을 멜로디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해결되지 못한 일족의 문제가 멜로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 \* \*

한편, 그 무렵 아뷔브 산.

엘레나는 물끄러미 리아나를 바라보았다. 리아나는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남자를 살피고 또 살폈다.

“리아나.”

나직한 호명에 리아나가 고개를 들었다.

“네?”

불러 놓고 말이 없는 이모를 리아나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엘레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음을 잘못 주면, 길고 긴 네 인생이 아파진다.”

엘레나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리아나가 펄쩍 뛰며 무슨 소릴 하는 것이냐고 타박할 줄 알았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다.

그런데 조카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입술을 세게 짓씹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에 엘레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간 것이냐고, 언제 깨어날지 기약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슨 마음을 품은 것이냐고 다그치고 싶었다.

설령 그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수명 차이가 극명한 사람을 상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할 생각이냐 화를 내고 싶었다.

그러나 리아나는 이미 성인이고, 독립했다.

제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독립한 성인을 상대로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없었던 엘레나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묻고 싶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왜…….”

그 짧은 한마디의 물음에 리아나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처럼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랑에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와 처음 시선이 마주쳤던 날, 말을 달리며 리아나는 생각했다.

‘아, 세상엔 보랏빛 눈동자도 있구나.’

노랑, 초록, 파랑의 눈동자만 보고 살아온 그녀는 완전히 색체가 다른 보랏빛 눈동자에 한순간 매료되었다.

그의 치료를 전담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어쩌면 그저 아름다운 눈동자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한때 로맨틱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꿈꾸었던 여자는, 죽은 듯이 잠든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스스로의 감정에 허탈해했다.

자신은 대체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와 어떤 관계이기를 바라기에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바보 같죠.”

고뇌가 담긴 목소리에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리아나에게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했으나, 그것을 리아나에게 내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엘레나는 조카에게 다가가 그녀를 꽉 안아 주었다.

“그렇게 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보일 거란다.”

“…….”

“형체도 이유도 없는 것이 사랑이지.”

“…….”

리아나는 이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긴 숨을 내쉬었다. 한참이나 그녀의 온기에 기대어 있던 리아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거다, 뭐 그런 대단한 감정은 아니고요! 그냥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다예요. 깨면, 어서 내려보내야죠.”

리아나는 수북하게 쌓인 편지를 가리켰다.

“보세요. 멜로디가 저렇게 편지를 보내오는걸요.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코르벨라로 가야 해요. 전, 그냥 이 사람이 깨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요.”

스스로 다짐하는 듯한 말에 엘레나는 리아나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남몰래 긴 한숨을 내쉰 그녀는 잠든 나이젤을 쳐다보았다. 삶은 늘 알 수 없는 길로 그녀를 인도했다.

엘레나는 리아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자, 이젠 내 차례란다. 너는 가서 좀 쉬렴.”

그로부터 며칠 뒤, 코르벨라로 갔던 장로 제럴드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을 마중하기 위해 나와 있는 클레어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클레어!”

클레어는 그런 그의 모습에 부드럽게 웃었다.

“잘 다녀왔어?”

“그럼. 멜로디에게 편지도 잘 전달했지.”

“어때? 건강해 보여?”

“잘 지내.”

제럴드는 클레어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클레어는 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제럴드가 전쟁에서 돌아온 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했다.

“크흠흠. 거, 그런 것은 좀 집에 가서 하지.”

클레어와 함께 마중을 나왔던 로잘린이 대놓고 타박하자, 그제야 그녀의 존재를 인식한 제럴드와 클레어가 얼굴을 붉히며 떨어졌다.

“바로 회의해야지?”

제럴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로잘린은 몸을 돌려 걸으면서 커다랗게 외쳤다.

“장로 회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4)

완연한 금빛으로 물든 신단수 아래, 여섯 장로와 신관 로잘린이 모였다.

제럴드는 멜로디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장로들에게 설명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엘레나가 마른세수를 했다.

아뷔브 일족이 원하는 것은 일족이 제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아 의무와 권리를 획득하되, 일족의 기본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후자인 ‘일족의 기본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구에게도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의 바탕이다.

그러나 과거 그들의 존재를 알아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던가?

가장 먼저 일족의 존엄성을 박탈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멜로디가 영주가 된다면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일족과 코르벨라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녀라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그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늘 제럴드 편에 서서 그와 의견을 같이했던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다.

“일단 보류합시다.”

로잘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제국 사람은 멜로디와 그녀의 반려 카이사르 둘뿐인데, 그 둘은 영주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하니 제삼자를 골라야 한다는 뜻이 되오. 우린 그럴 만한 사람을 모르고, 설령 멜로디가 인정한 사람이 있다 한들 우리가 믿지 않겠지.”

“그래, 일단 보류합시다. 그리고 원래 황제의 자리를 이으려던 사람은 나이젤 코르벨라라 하지 않았소? 그가 깨어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 우선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소.”

제럴드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멜로디에게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지.”

“어차피 우리의 참전은… 일족의 원수를 갚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었으니까. 귀곡의 군사들도 물러갔고.”

결국 일족은 멜로디에게 현 상태를 당분간 벗어나지 않겠노라는 뜻을 전했다.

\* \* \*

제럴드가 돌아간 뒤, 멜로디는 종횡무진 움직이며 문제들을 처리했다.

그중엔 데이지 코르벨라와 발할라 가문의 문제도 끼어 있었다.

“…하여 데이지 코르벨라에게 발할라 가문을 그대로 상속하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

생각보다 순순히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아, 그럼요! 폐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가주의 죄로 인해 직계자손이 상속받지 못할 경우, 방계 자손 중 제1의 상속권자에게 우선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니 데이지 코르벨라 황녀님께 상속하는 것은 논의를 거칠 일이 아니라, 지엄한 법률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로로위 벨로르가를 추천했던 이였다.

‘데이지가 상속받으면 무슨 금화 하나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저러나?’

멜로디는 비딱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지만, 차마 마음속의 말을 내뱉을 수는 없었다.

어찌 되었든 그가 바람을 잡은 덕에 몇몇 대신들도 동조했고, 결과적으로 데이지의 상속 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하시고 발할라의 이름을 부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던 베델 공작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지자,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성격 급한 황제는 대신들을 둘러보며 곧장 이렇게 물었다.

“모두 찬성한다면 나는 내일 당장 데이지 코르벨라에게 발할라의 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최근 몇 주간 성격 급한 황제에게 적응된 대신들은 ‘당장 내일’, ‘당장 오늘’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어차피 상속하실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지요.”

급기야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멜로디는 흡족한 얼굴로 아들러에게 말했다.

“발할라 상속과 관련한 것들을 준비해 주게.”

“예, 폐하.”

그리하여 그날 오후, 멜로디는 데이지를 불러 발할라 상속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식으로 그녀에게 발할라 후작 작위를 수여하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데이지 코르벨라에게서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하고, 대신 발할라의 이름을 내린다. 데이지 발할라, 그대는 발할라 후작으로서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가?”

발할라 가문의 망토를 어깨에 걸친 데이지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말했다.

“맹세합니다.”

멜로디는 더 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잠시 생각하다가, 씩 웃으며 그녀를 직접 일으켰다.

코르벨라와 발할라의 망토를 걸친 자매는 신뢰가 깃든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발할라 후작.”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폐하.”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던 멜로디가 데이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더니 낮게 속삭였다.

“아, 그리고 말이야. 몇몇 대신들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찬성을 했단 말이지.”

“과하게요?”

“음, 아주 과했어.”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냐면…….”

데이지는 신중하게 멜로디의 말을 듣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다.

“왜? 혹시… 국가에 환수되지 않는 자본 중 그들의 자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데이지가 그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셈이 당장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수도의 발할라 저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녀의 짐이 저택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방문객이 그녀를 찾아왔다.

“방문객?”

짐 정리를 하던 데이지가 고개를 갸웃하자, 임시 고용인도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예. 가주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누구라 하던가?”

“본인을 후베로티 백작의 차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어찌할까요?”

데이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모르고, 지금 그를 만나야 할 이유도 없으니 돌아가라 전하게.”

“예.”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또?”

“예. 본인을 샐로티 백작의 삼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주님을 꼭 뵙고 싶다 청하며 꽃을 이렇게…….”

데이지는 기가 막힌 얼굴로 꽃다발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저었다.

“돌아가라 전하게. 그 꽃도 돌려보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뒤로도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귀족 가문의 차남, 삼남, 때로는 사남까지 찾아와 꽃이나 장신구를 내밀며 데이지를 만나고자 했다.

참다못한 데이지가 소리쳤다.

“나는 오늘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예 ‘방문 사절’이라는 팻말을 정문에 붙여 놓게!”

데이지는 아픈 머리를 꾹꾹 눌렀다.

대신들이 그녀의 상속을 반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보다.

데이지 발할라는 이제 명실공히 제국 최고의 신붓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장남에게 상속을 해 주고 나면 차남, 삼남, 사남은 꿔다 놓은 자루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데, 그런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대가 바로 미망인 혹은 여성 상속자였다.

그런데 웬걸. 발할라 가문을 상속받은 여인이라니. 이보다 좋은 신붓감이 어디에 있겠는가?

데이지 발할라라는 사람을 잡기만 한다면, 발할라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

데이지는 실소하며 몸을 돌렸다.

거대하고 웅장한 집무실을 둘러보며 그녀는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때때로 몰아치는 아득한 공허.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갑자기 숨쉬기가 버거워서 데이지는 주저앉아 헐떡였다.

한참이나 몸을 옹송그리고 있던 그녀는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다.

“아참!”

데이지는 별안간 몸을 일으키더니 밖으로 달려 나갔다.

방문객을 모두 몰아내고, 데이지의 명에 따라 팻말까지 붙이고 돌아오던 고용인은 황급히 달려 나오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방문객 중에 아쉬 타하람이라는 자가 있었나?”

“아쉬 타하람… 아뇨.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

데이지가 말꼬리를 늘이자, 고용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 아쉬 타하람이라는 분이 오시면 안내할까요?”

“음… 그래 주게.”

데이지는 본관으로 들어가다 말고 몸을 돌려 몇 번이나 정문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발할라 저택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뤘다.

물론 방문 사절이라는 팻말에 막혀 저택 안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했다.

대신 그들이 주고 간 초대장이며 연서가 책상 한편에 수북이 쌓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데이지 발할라가 원하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

꼼꼼히 편지의 발신인을 확인한 데이지가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태워 버리게.”

“하지만…….”

“나에게 관심 있는 이들이 아니니, 마음도 담겨 있지 않네. 그러니 태워도 상관없어.”

“예, 각하.”

고용인이 수북한 편지들을 통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데이지는 불퉁한 마음이 들어 중얼거렸다.

“나 참……. 무슨 나무가 되어 준다느니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싹튼 불퉁한 마음은 기어이 과거 그의 행적으로까지 이어졌다.

멜로디 앞으로 청혼서를 보냈던 그의 과거까지 떠오르자, 데이지는 괴로워서 얼굴을 손바닥에 묻었다.

마음이 손바닥 한 뼘만큼 작아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재정청 관료직을 사퇴한 상태였다.

발할라 후작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도저히 재정청 일까지 맡을 수가 없었다.

거주지까지 옮겼으니, 데이지는 이제 마음먹지 않으면 그를 볼 수조차 없다.

깊은숨을 몰아쉬던 데이지는 도저히 가슴이 들끓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서성인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왜 올 것을 기다리나?

내가 가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 모든 것이 쉬워졌다.

한 뼘만큼 작아졌던 마음이 다시 넓어졌다.

데이지는 간편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황궁으로 향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5)

아쉬는 드물게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자꾸만 들려왔다.

데이지 코르벨라가 데이지 발할라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구애자들의 연서가 그녀 앞으로 날아들지, 타하람 가문의 차남인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발할라 후작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느냐고 은근히 묻지 않았던가.

하지만 아쉬는 도저히 편지를 쓸 수도, 후작저를 방문할 수도 없었다.

동시에 마음이 들끓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제 마음을 호기롭게 내보였던 청년은, 상처가 아물었음에도 선뜻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겁났다. 거절당함은 정말이지 아픈 것이었다.

아쉬는 괴로움에 머리를 부여잡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감정일지 모른다. 홀로 그리고, 홀로 애달픈 것인지 모른다.

자신 홀로 마음을 키워 부풀 대로 부풀었으나, 상대 역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이 욱신거려서 아쉬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때였다.

똑똑, 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시종이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재무대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다.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

“그런데 얼굴이 너무…….”

“아프다고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아쉬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시종 옆으로 불쑥 모습을 드러낸 이는 그가 그토록 열렬히 떠올리던 이였다.

데이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달려와 아쉬 앞에 섰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쉬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정말 어디 아픈 것 아녜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아쉬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창백하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지고, 늘 담담하던 눈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시종은 그런 그의 모습에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러나 크게 당황한 아쉬는 시종이 나가는 것도 몰랐다.

평소와 달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데이지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결혼 따윈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 어찌나 결혼, 결혼 해 대는지 그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눈앞의 남자가 그녀를 거부한다면, 데이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데이지는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 용기 있게 말할 차례였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데이지는 그동안의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아쉬 타하람.”

나직한 호명에 아쉬가 얼어붙었다.

감히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데이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연서가 쏟아지더군요.”

“…….”

“방문객이 하도 많아서 방문 사절이라는 팻말을 붙였답니다.”

아쉬는 입술을 꽉 물고 가만히 데이지의 말을 들었다.

금빛 눈동자의 발할라 후작은 선명한 시선으로 재무대신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왔어요.”

그 말에 아쉬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어찌나 심장이 거칠게 뛰는지 아득한 현기증이 일 정도였다.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 거침없던 청년은,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입술만 덜덜 떨었다.

“…각하, 저는…….”

“아쉬 타하람.”

“…….”

“당신을 원해요.”

“…….”

“당장 결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아쉬는 숨을 멈췄다.

거칠게 뛰던 심장도 박동을 멈춘 것만 같았다.

마주치는 시선에 섞인 서로를 향한 감정이 같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자 행운이다.

아쉬는 데이지의 투명한 눈동자를 숨도 쉬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믿을 수 없어 되묻는 바보 같은 질문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신을 바라보아도 괜찮으십니까?”

온 마음을 탈탈 털어 내보인 물음에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 멈췄던 심장이 폭주했다. 혈관 하나하나에서까지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아쉬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찔하게 교차했다.

코끝이 닿을 정도의 거리, 그의 뜨거운 숨이 느껴지자 데이지는 자연스레 눈을 감았다.

아쉬는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잡고 다급히 고개를 기울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에, 그는 전율했다.

내보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복잡하고 일렁이던 감정이 모두 터져 나왔다. 아쉬는 그녀의 등을 끌어안고 깊은숨을 탐했다.

이윽고 잠시 떨어져 깊은 숨을 몰아쉬던 두 사람은 열기에 들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서 이마를 맞대고 한참이나 웃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기적이라고 했다.

데이지도 아쉬도, 서로의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입을 맞췄다.

\* \* \*

황제 멜로디의 치세 아래 제국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더불어 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했다.

먼저 오르센을 상대로 모두 다섯 개의 성을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 냈다.

제록스에서는 토목과 관련한 인력을 파견하고 원군을 보내 주는 대가로, 국경 지대와 인접한 성 네 개를 받아 냈다.

그리고 오르센의 왕에게 협력해 키옌 지방의 문을 열어 준 블라디미르 왕에게는 공식적으로 항의 문서를 보냈다.

그에 블라디미르 왕은 답서를 통해 구구절절한 사과를 전하며, 몇 년간 자신들의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국에 부여했다.

할 일이 쏟아졌다.

늘 모자랐던 국고는 다시 그득하게 쌓여 갔고, 황제 멜로디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사령관이자 대공인 카이사르를 필두로 한 제국의 군대가 황제에게 보내는 충성심 역시 하늘을 뚫을 기세였다.

늘 패를 나눠 싸워 대던 귀족들도 멜로디의 치세 아래에선 싸울 수가 없었다.

패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발할라 가문의 후작이 누구보다 든든하게 황제의 곁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뱅 공작마저 황제의 우군이 되어 그녀를 보필했다.

보뱅 공작이 멜로디의 우군이 된 이유는, 황제가 오르센으로부터 양도받은 다섯 개의 성 중 세 개를 보뱅 가문에 맡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정은 중도파의 수장 격인 베델 공작이 맡고 있으니, 그야말로 권력의 세 축이 황제를 돕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다.

그러나 멜로디 코르벨라는 늘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메어, 아직도예요?”

“음… 오기 전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해독제 하나를 만들어 투약했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 봐.”

나이젤의 어머니인 마틸다 태후는 먼 이국인 아이젠으로 떠났다.

나이젤의 전사 소식을 접한 후로, 그녀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마치 산송장 같았다.

그 무엇으로도 그녀를 일으킬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다.

로즈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그녀를 일으켰다.

“황제. 꽤 오래 아이젠에 가 있을 생각이니, 아이젠의 황제에게 서신을 넣어 주시오.”

멜로디는 그녀의 청을 선뜻 들어 주었고, 마틸다 태후는 가을이 지나기 전 이국의 땅으로 떠났다.

“…그것도 그렇고, 다들 절 위해 싸워 주셨는데 제가 일족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멜로디. 모두 각자의 삶을 위해 싸우는 거야. 난 내 맹세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고, 일족은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일 뿐이란다. 너 역시 네 일념을 위해 싸운 거잖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

메어는 싱긋 웃으며 멜로디의 등을 꽉 끌어안아 주었다.

“참, 시간 되면 언제 한 번 들러. 클레어가 네가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났으니.”

황제가 되고 나니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클레어는 아직 회복이 덜 되었기에, 당분간은 좀 더 산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했다.

산 아래에서 버틴 십여 년이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꼭 들를게요.”

“그래. 이거 가져가면 되지?”

“네.”

클레어와 제럴드, 일족들에게 쓴 편지와 나이젤에게 쓴 편지를 합치니 한 뭉치였다.

메어는 수북한 편지를 한 아름 짊어지고 황제의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멜로디는 빈방에 우두커니 앉아 공허한 가슴을 매만졌다.

모두가 그녀를 연호할 때조차 멜로디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

필사적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 자신의 어깨에 피 묻은 망토를 둘러 주던 그가 멜로디의 가슴 한편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직도……. 대체 어딜 헤매고 있는 거야, 나이젤 코르벨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잠까지 줄여 가며 일을 하는 실정이라 그럴 수가 없었다.

멜로디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마른세수를 했다.

\* \* \*

계절은 신묘했다.

가을이 언제 왔나 싶었는데, 어느새 찬기가 돌더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에 산으로 갔던 아니타와 볼테르는 한겨울이 되자 영악하게도 공저로 돌아왔다. 북풍이 몰아치는 산보다, 금이야 옥이야 두 녀석을 살피는 공저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식들이 약아서는.”

그 소식을 들은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실소했다.

\* \* \*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데이지 발할라와 아쉬 타하람은 새순이 돋는 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멜로디 코르벨라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나, 신랑 신부보다 격이 높은 하객은 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로써 아쉬 타하람은 아쉬 발할라가 되었으며, 타하람 백작은 신이 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 \* \*

그리고 다시 봄.

산에도 봄이 찾아왔다.

제법 따뜻해진 바람이 불어오자, 리아나는 나이젤의 이불을 꼼꼼히 점검해 준 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부는 바람이 상쾌했다.

마른 초목마다 파르라니 여린 것들이 올라와 온 세상을 연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봄이 되면 늘 보던 풍경이건만, 자연의 신묘함은 볼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넋을 놓고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던 리아나는 코끝이 시린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환자가 있는데 너무했다 싶어 서둘러 몸을 돌린 그녀는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보랏빛 눈동자 한 쌍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아름다운 보랏빛 눈동자 위로 녹색과 금빛이 어른거렸다.

그 아름다운 색체에 잠시 넋을 놓았던 리아나가 이내 싱긋 웃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일족은 이런 인사를 건넨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

“나이젤.”

몽롱함에 눈을 깜빡이던 나이젤은 가까이 다가와 앉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얼굴에 박힌 녹음의 눈동자를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리아나.”

“정신이 좀 들어요? 다행이네. 이 해독제도 소용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해독제?”

나이젤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협소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작은 공간이었다. 1인용 침대 하나와 의자, 협탁, 잠시 누울 만한 간이침대 하나가 다였다.

“…여기가 어디요?”

“제 집이에요.”

그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나이젤은 할 말을 잃고 눈만 깜빡였다. 리아나는 그가 스스로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나이젤은 몽롱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다. 코르벨라가 수세에 몰렸고, 자신은…….

“……!”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6)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다친 허리를 매만졌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한 순간 나타난 멜로디.

자신은 필사적으로 섭정의 자리를 그녀에게 위임했었다.

“전쟁은?! 아니,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지금,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요?”

나이젤의 다급한 질문에, 리아나는 자신이 품은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담담하게 답했다.

“코르벨라가 오르센을 상대로 이겼어요. 시간은… 그러니까 반년도 넘게 걸렸네요. 당신이 깨어나기까지요. 검에 찔린 상처는 금방 아물었는데, 문제는 독이었어요. 해독제를 찾는 데 그만큼 오래 걸렸죠.”

리아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한 리아나는 보여 줄 것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뒤 돌아온 그녀의 두 손엔 상자 가득 담긴 방대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리아나는 날짜 순서대로 잘 정리된 편지를 나이젤에게 건네며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은 현재 코르벨라의 황제가 된 멜로디가 보내온 서신이에요. 일어나면 연락을 달라고 성화였는데, 곧 사람을 보내야겠네요.”

나이젤은 멍하니 편지들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성급한 손길로 첫 편지를 열었다.

[안녕, 나이젤 오라버니. 이 편지가 1번이야.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읽어요.]

“…멜로디가 황제가 되었다고……. 그럼 선황제께서는…….”

리아나는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고, 나이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는 당신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올게요. 멜로디에게 얼른 사람을 보내야죠.”

일어나는 그녀를 나이젤이 다급히 잡았다.

“잠깐만.”

“왜요?”

“잠시만…….”

“……?”

“아직 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말아 주시오. 내가 이 편지를 다 읽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소.”

나이젤의 얼굴이 워낙 다급해 보여 리아나는 알겠다는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그럼 난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읽고 있어요.”

“고맙소.”

리아나가 나가고, 나이젤은 본격적으로 멜로디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꾹꾹 눌러 쓴 멜로디의 편지를 한 장씩 읽던 나이젤의 진지한 얼굴이 어느 순간, 흐트러졌다.

“…멜로디…….”

그것은 그녀가 황제로서 코르벨라를 이끈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그 근거까지 자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그것은 멜로디의 배려였고, 신의였다.

이 편지를 쓰며 멜로디는 그가 돌아올 것임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편지 마지막은 늘 같은 문구였다.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나이젤의 두 눈이 뜨거워졌다. 삽시간에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그의 눈매가 허물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멜로디의 신의가 과분했다.

받는 것에 익숙한 그지만, 꾹꾹 눌러 쓴 수백 장의 신의에 도저히 눈물을 삼킬 수가 없었다.

소리 죽여 울던 그는 잠시 뒤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읽는 것조차 이토록 오래 걸리니, 멜로디는 이 편지를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잠을 더 줄여야만 했을 것이다.

마지막 장까지 읽은 나이젤은 멍하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멜로디, 대단하구나.”

작게 중얼거린 나이젤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누군가 목을 꽉 움켜쥔 것처럼 목이 메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날카로워진 턱을 타고 떨어졌다.

[일어나서 돌아와.]

“아니… 멜로디……. 아니야…….”

나이젤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선황제가 죽음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권한을 말소시킨 이유를, 유감스럽게도 나이젤은 누구보다 이해했다.

개인적인 속상함을 넘어 현명한 선택이었다.

중신들이 그의 존재를 입에 올렸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멜로디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제국의 흘러가는 정세가 그러했다.

돌아가면 멜로디는 분명 자신에게 황위를 넘겨줄 것이다.

하나, 자신이 황좌에 앉게 되면 간신히 봉합해 두었던 나라가 다시 양분될 것이 자명하다.

그가 돌아가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코르벨라의 이름을 영구히 버려야만 한다.

나이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한순간 사라졌으나, 그것은 또 다른 공허를 몰고 왔다.

길고 치열했던 과거가 참으로 헛되게 느껴지자, 나이젤은 온몸이 덜덜 떨렸다.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던 리아나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들어왔을 때, 나이젤은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나이젤.”

리아나가 곁으로 다가왔으나, 나이젤은 도저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반년 만에 깬 몸으로 먹은 것도 없이 눈물을 쏟으면 육체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리아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오드를 그의 몸으로 옮겼다.

나이젤은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한 오드에 간신히 고개를 들어 리아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무엇을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

“…….”

“돌아가선 안 돼.”

“멜로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더 안 되지. 내가 돌아가면, 멜로디는 황좌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그 이름마저 내려놓아야 해. 이…이, 수백 장의 신의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리아나는 나이젤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물어봤어?”

“뭐?”

“황좌, 이름……. 당신이 돌아감으로써 멜로디가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그녀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인지 멜로디에게 물어봤느냐고.”

“…….”

“대체 그런 것이 삶에 있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깨어났는데 죽은 것처럼 그녀를 속일 거야? 그것이야말로 신의를 저버리는 짓 아닌가?”

나이젤은 붉어진 눈으로 리아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덜덜 떨며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그럼… 차라리 정말 죽을까?”

“뭐?!”

“내 존재는 결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제 와서 제국에도, 멜로디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 존재는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 차라리,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게…….”

짝!

“……!”

나이젤의 말을 듣던 리아나가 벌떡 일어나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짝, 하고 내리쳤다.

단언컨대 태어나서 처음 맞아 봤다. 깜짝 놀란 나이젤이 눈을 커다랗게 떴다.

“정신 차려!”

분노로 물든 녹음의 눈이 사납게 치켜 올라가자, 나이젤은 당황하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린 건 미안한데!”

리아나는 씩씩거리면서 협탁 서랍을 열어 거울을 꺼냈다. 그러고는 그 거울을 나이젤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다.

“잘 봐! 지금 당신 눈동자 색이 어떤지!”

얼떨결에 거울에 시선을 둔 나이젤은 깜짝 놀라 거울을 받아 들었다.

“내 눈동자 색이…….”

보랏빛 눈동자 위로 녹색이 어른거렸다. 희미한 금빛도 섞여 있었다.

“오드를 퍼부었어. 당신이 누워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을 살려 보겠다고 오드를 퍼부었다고! 뭐, 물론 죽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살리진 못 해.”

리아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내 존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바보 같은 말이나 지껄이면서, 차라리 죽겠다는 헛소리나 하는 멍청이에게 반년 동안 오드를 퍼부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야겠어!”

그 말을 하는 리아나의 두 눈이 붉어졌다.

“삶의 존재 가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는 거야.”

“…….”

“황좌? 무슨 권력?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잘 모르지만.”

“…….”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잖아, 당신.”

“…….”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맞아?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니.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어? 돌아와서 환영한다고 했잖아! 기껏 애써서 살려 놨더니!”

마구 화를 내는 리아나를 보며 나이젤은 입도 벙끗할 수가 없었다.

자색과 녹색, 금색이 한데 일렁이는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남자를 리아나는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다.

“하아…….”

길게 한숨을 쉰 리아나는 그제야 자신이 때린 등이 신경 쓰이는지, 나이젤의 등을 힐끔힐끔 보다가 손으로 슥슥 문질러 주었다.

“미안해요.”

나이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리아나는 그의 주변에 있던 멜로디의 편지를 주섬주섬 정리했다.

그녀가 정리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이젤은 문득 오드를 털어 쓴 멜로디가 힘겨워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 오드라는 것 말이오.”

편지를 정리하던 리아나가 그를 쳐다보았다.

“많이 쓰면 힘든 것 아니오?”

“그렇죠.”

“반년이나 내게 오드를 썼으면 힘들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애써서 살려 놨는데 죽네 마네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리아나의 타박에 나이젤은 눈을 깜빡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내렸다.

그러다 다시 시선을 들어 편지를 정리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시선을 느낀 리아나가 그를 마주 보자, 나이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리아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편지를 한쪽에 놓았다.

“스프예요.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니까, 못 먹겠으면 한두 술만 뜨고 말아요.”

“…별로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있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져온 성의를 봐서라도 몇 번은 먹어요. 먹어야 힘이 나죠.”

리아나의 성화에 나이젤은 결국 스프를 조금 먹었다.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가 몇 수저 뜨지 못하고 쓰러지듯 침대에 눕자, 리아나는 한 번 더 오드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른한 포근함과 안락함 속에서 나이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삽시간에 흩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늦은 인사를 건넸다.

“…고맙소…….”

\* \* \*

리아나는 그가 잠든 틈에 장로들에게 가서 나이젤이 깨어났음을 솔직하게 알렸다.

나이젤은 알리지 말아 달라 했으나, 한 마을 안에서 완벽하게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멜로디에게 알려야지!”

장로들의 말에 리아나가 다급히 청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네.”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당장 내려가고 싶지 않겠어?”

그 말에 리아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뇨. ‘차라리 죽어 버릴까.’라고 하던데요.”

“…뭐?”

일족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 다들 황당한 얼굴로 리아나를 바라보았다.

그에 리아나는 나이젤이 일어나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설명이 끝나자 제럴드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연유로 그가 그러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군.”

“너는 지금 저 말이 이해가 된다고?”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만, 클레어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제럴드는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 서둘러 클레어를 데려왔다.

리아나는 클레어에게 나이젤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클레어는 깊게 탄식했다.

그 모습에 로잘린이 가슴을 팡팡 치며 다그쳤다.

“설명 좀 해 봐봐, 클레어. 기껏 살려 놨더니 이제 와서 죽어 버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왜 안 내려가겠대?”

그러자 클레어는 장로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선황 우르바시 재위 시절의 권력 다툼과 코르벨라 형제들의 다툼,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그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듣고 있던 엘레나가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나이젤 코르벨라가 귀환하면 나이젤 편에 선 귀족들과 멜로디 편에 선 귀족들이 또 싸울 거라는 거야?”

“아마도.”

“그럼 결국 둘 중 누군가는 모든 권한을 스스로 버리고, 이름도 영구히 버려야 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도 불안하니 역대 무수히 많은 황제들은 분란이 될 만한 제 형제들을 죽였어.”

“와… 진짜…….”

묵묵히 듣고 있던 제럴드가 입을 열었다.

“그럼 어찌 되었든 나이젤 코르벨라가 한 죽겠다는 말은, 이제 와 멜로디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건가?”

“그렇지 않을까? 황좌에 앉으려면 그는 지금껏 애써 준 멜로디에게 황좌를 내놓으라 함은 물론이고, 코르벨라의 이름마저 두고 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가족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예요?”

리아나의 질문에 클레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천천히 끄덕였다.

“글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군요.”

엘레나는 조카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클레어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경청할 때조차, 엘레나의 시선은 조카에게 닿아 있었다.

“나는, 나이젤 코르벨라에게 시간을 주었으면 해.”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7)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의 시선이 엘레나에게 닿았다.

“당장 달려가 황좌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최소한의 신의를 아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시간을 좀 주자. 뭐든 성급하면 일을 망치는 법이야. 시간을 주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 한두 달, 늦게 깨어난 셈 치면 되지. 멜로디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상황이 급박하게 흐를 거야.”

“하지만 그가 깨어난 상태로 마을에 머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지 않겠소?”

한 장로의 말에 리아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거주 구역을 제 집으로만 제한할게요. 어… 사실 제가 오드라는 것은 이미 알거든요. 일족과의 상관성은 모르니까… 되도록 일족과의 만남을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나눴다. 다들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혹시 나이젤 코르벨라의 거주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이지스가 홀연히 서 있었다.

신단수가 최근 그녀의 오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로잘린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대로 신단수를 관리하는 신관은 노란눈 일족에서 배출되었다. 당대 신관의 기력이 쇠해 갈 무렵, 신단수는 다음 신관을 스스로 간택했다.

이지스는 가장 유력한 차기 신관이었다.

이지스가 걸어 들어오자, 로잘린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와, 이지스.”

“그가 깨어났군요?”

로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모든 설명을 묵묵히 듣던 이지스는 장로들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리아나의 말대로 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녀의 샛노란 눈동자는 눈앞의 현실, 그 너머의 것을 보는 듯했다.

이지스가 시선을 돌려 리아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결정권을 리아나에게 주었던 그날과 같이 물었다.

“리아나, 너는 어쩌고 싶어?”

리아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어차피 그녀 마음속의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만, 그것을 요구해도 되는지가 헷갈릴 뿐이다.

그녀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지스가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아.”

그것은 꿈결 같은, 의미 모를 말이었지만 리아나는 홀린 듯 답했다.

“그에게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에 이지스가 싱긋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리아나는 잠든 나이젤 곁에 앉았다.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리아나는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육체가 조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리아나는 더 이상 나이젤 코르벨라를 환자 취급 하지 않았다.

“반년이나 누워 있었으면 이제 일어날 때도 됐죠.”

그의 특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 나는 코르벨라고 뭐고 잘 몰라요.”

더불어 당당하게 치료한 대가를 요구했다.

“내가 당신을 치료했으니, 대가도 내 기준에서 청구할 거예요.”

어찌나 기백이 넘치는지,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겠소.”

“정말 당장 코르벨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아…….”

“내 집에서 한숨 금지.”

나이젤은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깜빡였다.

“자, 그럼 어디서 지낼 건데요?”

그 물음에 나이젤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건만, 한순간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다.

그가 멍하니 눈만 깜빡이자, 리아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지낼 곳 없죠?”

“…….”

“내가 저쪽 방을 내줄 테니까 잠시 이곳에서 지내도 좋아요.”

“…고맙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내가 지난 반년 동안 내 침대를 당신한테 내주었거든요.”

그 말에 나이젤은 화들짝 놀라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쩐지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는 그에게 리아나가 여상히 말했다.

“그런데 도저히 더는 저 간이침대에서 못 자겠어요.”

나이젤의 시선이 한쪽에 마련된 긴 의자에 닿았다. 그제야 반년 동안 그녀가 저곳에서 잠을 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정말 미안한 얼굴로 버벅댔다.

“아, 그… 정말… 정말 미안하오.”

“아마 당신도 저 간이침대에선 못 잘걸요? 뭐, 그거까진 내가 모르겠고.”

“…….”

“자, 내 집에서 지내려면 먼저 당신 침대부터 만듭시다.”

“침대를 만든다고?”

“만들어야죠?”

“…….”

“그러려면 체력부터 키워야 할거예요. 암튼 난 오늘부터 내 침대에서 잘 거니까, 당신은 저쪽 방에서 저 간이침대를 놓고 자요. 체력을 키워야 침대를 만들 수 있으니 명심해요.”

나이젤 코르벨라는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침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새벽녘에 잠이 들었던 나이젤을 리아나가 깨웠다.

“일어나요.”

“으음?”

“아침 준비할 거예요. 도와야죠?”

“…….”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나이젤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으나, 리아나는 거침없었다.

“안 먹고 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단호한 녹음의 눈동자를 마주한 나이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를 직접 만든다.’

이 단순한 목표 아래 리아나는 나이젤이 우울할 틈을 주지 않았다. 정말 우울할 틈이 없었다.

지금 나이젤 코르벨라는 갈 곳이 없고, 리아나의 집에서 지내려면 침대를 직접 만들어야만 한다.

간이침대는 심지어 길이도 짧아서, 키가 큰 나이젤은 아예 바닥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리아나와 함께하는 하루는 정말이지 너무나 짧았다.

일어나 삼시 세끼를 해 먹고, 체력 보충이라는 명목 아래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해가 저물었다.

덕분에 나이젤의 체력은 금방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리아나는 신분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황제란 때맞춰 피는 들꽃 한 다발보다 의미가 없는 것이 틀림없었다.

“와… 나이젤, 하늘 좀 봐요.”

리아나의 말에 나이젤은 시선을 들었다.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은 석양이 분홍색이네요.”

“그렇구려.”

리아나는 기분이 좋아 흥흥거리며 웃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이젤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하늘이 분홍색인 것에 기분이 좋아진 거요?”

“그럼요. 어쩌다 한번 보는 것인데 기분 좋죠.”

“그렇소?”

리아나는 길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 색이 돌아왔네요?”

“…….”

“나는요, 당신 처음 본 날 ‘아, 세상엔 저런 눈동자 색도 있구나.’ 했어요.”

나이젤이 눈을 깜빡였다. 리아나는 그런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내가 봤던 모든 색을 통틀어 가장 예쁜 색이라 놀랐다고요.”

봄이 듬뿍 묻은 산 정상의 바람이 불어왔다.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나이젤은 숨을 삼켰다.

달처럼 고운 얼굴이 부드럽게 휘자, 나이젤은 투명한 녹음의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체력은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으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침대를 만들어 봅시다!”

그즈음, 리아나의 집에 이방인이 산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리아나의 집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도 결국 마을 안이었기에, 완벽하게 숨기기는 어려웠다.

장로들이 나서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며 사람들을 단속했으나…….

“얼씨구, 퍽이나 통하겠다.”

발트가 귓구멍을 후비며 말했다.

“내 말이.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잖아?”

메어가 동조했다.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내 수명이 준다, 줄어!”

엘레나가 신경질을 내자, 두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이미 파란눈 일족의 꼬맹이들이 몰래몰래 리아나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에 엘레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포효했다.

“네 이놈들! 당장 돌아오지 못해?!”

“꺄아아아~”

“들켰다아~~”

“들켰으니 가 보자아아아~~~”

“들켰으니 가 보자니!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의 말이 그렇게 돼?!”

“아, 어차피 들켜서 혼날 거니까 가서 보고 혼나야지. 그래야 덜 억울하잖아?”

“맙소사…….”

엘레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탄식했다.

당황한 것은 나이젤도 마찬가지였다.

웬 꼬마들이 잔뜩 몰려와 창문 너머로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노골적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 리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그는 멜로디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던 차였다.

그는 태어나서 저런 노골적인 시선은 처음 받아 봤다. 누가 감히 코르벨라의 황태자를 저리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빤히 쳐다볼 수 있었겠나.

“…….”

나이젤과 꼬마들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시선을 주고받던 그 찰나, 한 아이가 발랄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인사에 나이젤은 어색하게 눈을 깜빡였다.

“어… 그래, 안녕?”

나이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꼬마들은 앞다퉈 손을 흔들어 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미예요! 우리 집은 저~기 있어요.”

“형! 형이 지브릴 대장의 딸의 형제예요?”

“뭐, 뭐?”

“우와아아~ 눈동자 색이 보라색이야아?! 너무 예뻐!”

“아니, 형이 지브릴 대장의 딸의 형제냐고요?!”

“야, 너 조용히 좀 해 봐!”

“내가 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나이젤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머나! 너희 여기 있었어? 여기 있으면 어떡해?”

“퍼미, 형이랑 같이 가야지?”

일족의 젊은 사람들이 괜히 아이들 핑계를 대며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장로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야, 제럴드. 너희 일족 책임져.”

“저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

“모르겠고, 하여간 책임져.”

“참나, 저기 녹색눈 일족은 없는 줄 알아?”

“…옮았어.”

“옮기는?”

한편, 나이젤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베르딕이에요.”

“나는 나이젤 코르벨라요.”

“오오, 멋진 이름이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멜로디와 똑같은 색체의 새파란 눈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반짝였다.

“리아나는 어디 갔어요?”

누군가의 질문에 나이젤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를 만한 나무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며 숲에 갔소.”

“자를 만한 나무? 왜요? 땔감이 부족한가?”

나이젤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숨길 것이 없었기에 순순히 설명했다.

“침대가 필요하거든.”

“침대? 아! 리아나 집엔 침대가 하나밖에 없을 거야!”

“맞아. 지난번에 우리가 준다고 해도 어차피 방에 침대가 두 개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거절했잖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누군가의 말에 나이젤이 멈칫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하려는 찰나였다.

“근데 왜 굳이 만들어? 우리가 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되지.”

“…준다고?”

나이젤이 되묻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 집에 침대가 2개나 남거든요. 하나 줄까요?”

“아, 고맙소만… 내가 그걸 지금 당장 살 능력이…….”

“파는 것이 아니고 준다고요.”

“줄 수 있소?”

“지금 가져다줘요? 아, 그런데 진짜 이상하네. 리아나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때였다.

“뭐야? 왜 다 여기 있어?!”

숲에서 돌아오던 리아나가 놀라서 달려왔다.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몰려든 사람들과 저 멀리 선 장로들을 번갈아 보았다.

“왜 여기 왔어?!”

“궁금하잖아!”

“아, 정말…….”

“왜? 지브릴 대장 딸, 멜로디의 형제라며?”

“…….”

“됐고, 리아나. 너 왜 침대 달라고 안 했어? 준다고 했잖아?”

그 말에 리아나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무슨 침대를 또 만들어? 가져다줄게.”

리아나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그를 노려보았다가, 천천히 나이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보랏빛 눈동자가 아주 가늘어졌다.

“흠흠.”

“…….”

“준다는데 받지 그러오?”

“…….”

잠시 뒤 리아나가 탄식하며 시선을 돌리자, 나이젤은 씩 웃었다. 그리고 침대를 주겠다는 남자를 돌아보며 감사를 전했다.

“아주 고맙소.”

오늘 밤부터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된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꽉 물었다.

그럼에도 솟구치는 광대를 누를 수가 없어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헛기침을 했다.

웃음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8)

그렇게 지내기를 어언 한 달.

나이젤은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반년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어 약해졌던 육체는 리아나의 배려(?) 아래 튼튼해졌다.

육체가 건강해지니 그의 정신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졌다.

한 달 만에 그는 마을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다.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는 이웃(?)도 생겼다.

“나이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오!”

“아침은 먹었어요? 이거 갓 구운 빵인데 가져가서 먹어요.”

때때로 요동치던 심장도 평온해졌다.

그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부드러운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차가운 느낌이 들 만큼 늘 표정을 관리하던 남자는 ‘형아는 왜 매일 화가 나 있어요?’라는 꼬마의 말에 인상을 풀었다.

무엇보다도…….

“나이젤!”

처음부터 그의 이름을 편안하게 부르던 여자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게 보이자, 나이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이게 다 뭐요?”

“봄 딸기, 봄 딸기.”

“봄 딸기?”

“이제 막바지예요.”

“같이 갈 걸 그랬군.”

“먹어 봐요.”

나이젤이 바구니에 들어 있던 봄 딸기를 집어 입에 넣자, 리아나는 기대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꽤 좋아 웃자, 그녀는 더 크게 웃었다.

“맛있죠! 맛있죠?!”

나이젤이 고개를 끄덕이자, 리아나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빨리 와요! 앉아서 먹게!”

그는 한 번도 이곳이 정확히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멜로디는 처음 리아나를 소개하며 그녀에 대해 묻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그래서 나이젤은 이곳이 어디인지, 이 신비로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혹시 이것은 환상이 아닐까?

자신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못했고, 이것은 그의 내면이 만들어 내는 꿈은 아닐까?

드넓은 고원, 완연한 봄이 몰아친 이곳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들녘을 수놓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파르라니 오르는 새순에 온 세상이 연녹색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사심 없이 웃고, 의심하지 않고 말했다. 의심할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다.

그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때, 앞서 가던 리아나가 돌아보며 그에게 손짓했다.

“빨리 와요, 나이젤!”

나이젤은 지나가는 바람에 눈이 시린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청량한 녹음처럼 웃었다.

진주같이 희고 가지런한 치아가 드러나게 웃는 리아나를 나이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이 자꾸만 수도에서 멀어졌다. 오늘도 수도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 \* \*

한편, 그 무렵 코르벨라 황궁.

바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덕분에 드디어 여유가 좀 생긴 멜로디는 어떻게 하면 잠시 산에 다녀올 수 있을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나이젤 오라버니가 아직도 의식불명이라니 걱정도 되고, 클레어와 외숙도 무척 보고 싶었다.

가만, 어떻게 짬을 낸담?

중신 회의 중, 저도 모르게 딴생각을 하고 있던 멜로디에게 누군가가 말했다.

“저… 그런데 폐하, 부군을 더 맞이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말에 카이사르가 두 주먹을 꽉 쥐며 어금니를 세게 물었고, 데이지도 고개를 번쩍 들었다. 베델 공작마저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딴생각을 하던 멜로디는 한 박자 늦게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을 꺼낸 자를 쳐다보았다.

“뭐요?”

로로위 벨로르가를 추천했던 후베로티 백작이었다. 백작은 살기등등한 대공의 시선에 침을 꿀꺽 삼켰으나, 애써 무시하며 입을 열었다.

“역대 무수히 많은 황제들께서 부인을 여럿 두셨던 이유는 모두 황권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황권이 든든해야 제국도 안정되는 법. 그러니 폐하께서도 부군을 더 두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멜로디의 새파란 눈이 가늘어졌다.

이래서 역대 황제들이 죄다 심장병으로 죽은 것이다. 인간 같지 않은 말본새 보게?

멜로디는 슬쩍 시선을 돌려 카이사르를 보았다. 울분이 치미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야, 이 자식아! 네 집안이나 신경 써라!’라고 소리를 질러 주고 싶은데, 황제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황권 강화?”

“예, 그러합니다.”

황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답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던데?”

“…예?”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지 않소?”

몇몇 중신들이 헛바람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아…그, 그렇기는 한데…….”

“역시 백작도 동의하시는구려?”

“…….”

“그리고 내가 남편을 고르는 기준이 있소. 아주 까다롭지.”

그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중신들이 호기심 깃든 얼굴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안건을 논의할 때보다 번쩍거리는 시선에 멜로디는 실소했다가 서둘러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진중한 얼굴로 대공 카이사르를 가리켰다.

카이사르마저도 갑작스러운 황제의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들 놀라거나 말거나 황제는 진지하게 말했다.

“첫째, 잘생겨야 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바람 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베델 공작마저도 웃음이 터져서 고개를 숙였다.

“제국 제일의 미남인 대공만큼 잘생겨야 하고.”

카이사르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둘째! 몸도 좋아야 해.”

베델 공작은 이제 아예 대놓고 웃기 시작했다. 데이지와 아쉬, 아들러마저도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보는 것이 좀 많은가? 근데 어쩌겠소, 내가 황제인 것을?”

“으하하핫, 크흠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소!”

“…….”

“나보다 검술 실력도 좋아야 해. 난 나보다 약한 남자는 싫거든.”

결국 진지한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다. 베델 공작은 보기 드물게 입을 벌리고 껄걸 웃었고, 데이지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이 와중에 딱 세 사람만 웃지 않았는데 진지한 표정의 황제가 그러했고, 부군 소리를 입에 담았던 백작이 그러했으며, 마지막으로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하는 대공이 그러했다.

“권력? 나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소.”

“…….”

“난 선황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소. 황제란 사랑하는 자이고, 조율하는 자이며, 선택하는 자다. 그 어디에도 권력을 탐하라는 말씀은 없었소. 아니 그런가?”

“예, 그러합니다. 폐하.”

아들러가 정중하게 답했다.

“황제가 신의가 없으면 어디 쓰겠소?”

“…….”

“결혼은 사랑과 신의요. 그렇지 않소?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하다 했소. 하니 내게 황제로서 신의를 저버리라는 청은 하지 말길 바라오.”

황제의 말에 후베로티 백작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멜로디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들러에게 물었다.

“서관, 더 처리할 안건이 있나?”

“오늘은 없습니다.”

멜로디가 이번엔 베델 공작을 바라보며 물었다.

“공,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처리할 급한 사안이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폐하.”

“그렇소? 그렇다면 내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다녀오겠소.”

“휴가요?”

“너무 지쳤소. 너무너무 지쳤소. 좀 쉬고 싶은데 이곳에선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 잠시 어디 좀 다녀오리다.”

“아니, 그래도 폐하!”

“그대들도 쉬고 싶으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내면 될 것 아니오.”

난데없는 황제의 휴가 선언에 다들 당황하는 사이, 베델 공작이 얼른 그녀의 편을 들어 주었다.

“뭐든 휴식이 필요한 법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폐하. 폐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치 빠르게 얼른 아들도 챙겨 주었다.

“대공께서도 함께 가시는 것이지요?”

멜로디는 눈치 빠른 시아버지에게 눈을 찡긋거리며 답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황제는 누가 붙잡을세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공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붉어진 얼굴이 수습되지 않은 카이사르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멜로디는 그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움켜잡았다.

“카이사르, 휴가 갑시다.”

씩 웃으면서 황제는 대공의 손을 잡아끌었고, 카이사르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 걸었다.

회의장을 벗어난 카이사르가 자신의 손을 움켜쥔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거참, 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릴 자주 한단 말이죠.”

“…….”

“암튼 기분 풀어요.”

멜로디가 싱긋 웃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황제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다. 새파란 눈이 길게 휘며, 붉은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거기다 황제였다.

카이사르는 부군을 더 들이라는 소리보다, 멜로디에게 다른 부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부군을 들이겠다고 한다면, 제국은 들썩일 것이 틀림없었다.

남자의 마음이 치졸하게 작아졌다.

“…저보다 잘생기고, 몸도 좋고, 검술 실력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카이사르는 귀까지 붉게 물들인 얼굴로 시선도 맞추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말했다.

그 모습을 보는 멜로디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입도 점점 벌어졌다.

‘아니, 무슨 질투를 이렇게 귀엽게 해!’

그 모습에 멜로디는 그를 더 놀려 주고 싶었다.

아니, 그랬다가 울면 어떻게 해? 아, 그것도 괜찮…….

멜로디는 웃음을 꾹 누르며 그의 뺨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는 속절없이 끌려왔고, 멜로디는 망설임 없이 그의 입에 입을 맞췄다.

황제 부부의 파격적인 행보에 주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

“역시 폐하…….”

“크으… 역시 폐하셔.”

가볍게 입을 맞춘 멜로디가 카이사르에게 속삭였다.

“사랑해요.”

카이사르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꽃잎 같은 속삭임에 그의 불안과 들끓음이 한순간 녹아 버렸다.

“휴가지, 내가 정해도 돼요?”

“어딜 가시든,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아뷔브, 거길 좀 가려고요.”

카이사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멜로디 코르벨라가 퍽 오래 참았다.

\* \* \*

사실 멜로디가 휴가를 선언한 시점은 그녀가 블라우 편에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 무렵, 블라우가 멜로디의 편지를 들고 산에 도착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다.

“멜로디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듯싶던데.”

그녀는 당장이라도 산으로 달려올 기세였다.

“나이젤 코르벨라도 이만하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것 아닌가?”

이벨린의 말에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홀로 생각에 잠겨 있던 로잘린이 블라우에게 말했다.

“이지스를 좀 불러 줄 수 있겠어?”

“넵!”

잠시 뒤 장로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지스에게 로잘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지스, 왜 나이젤 코르벨라를 이곳에 머물게 하라고 했니?”

“…….”

“왜 리아나에게 그것을 선택하게끔 했는지 알고 싶어.”

이지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본 미래에 그가 있었어요.”

“그라면… 나이젤 코르벨라를 말하는 거야?”

“네.”

“그가 어디에 있었기에?”

이지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장로들과 신관은 침묵한 채 그녀를 주시했다.

이내 눈을 뜬 이지스가 진중한 어조로 명확하게 말했다.

“그가 리아나와 함께 이곳, 아뷔브에 있었어요.”

차기 신관으로 유력한 이지스의 예지를 장로들은 허투루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지스가 본 미래는 최선의 미래일 거예요.”

“그가 아뷔브에 있었다는 것이, 혹 영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로들은 침묵했다.

한참을 각자 고민하던 중, 제럴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순리대로 둬 봅시다.”

“순리대로?”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둬 봅시다.”

그러니까 나이젤 코르벨라에게 어떠한 압력도 넣지 말자는 뜻이었다.

서로 시선을 주고받은 장로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블라우가 가져온 편지가 나이젤에게도 전해졌다.

멜로디의 인내심이 동났다는 것은 편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도 안 일어났어?!]

얼마나 꽉꽉 눌러 적었는지 종이가 그 부분만 우둘투둘해서 나이젤은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다 다시 마음이 무거워져서 두 눈을 꾹 눌러 감았다.

그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리자, 리아나가 흥얼거리며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소박한 나무집, 작은 것에도 웃는 그녀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나날.

매일 한 걸음씩 멀어진 마음은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 천 리 길이 되어 있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49)

나이젤은 안다.

그가 누리는 이 찰나의 평화와 행복이…….

‘행복?’

스스로가 떠올린 말에 나이젤은 멍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지금껏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떠올렸다. 의식적으로 저 먼 곳으로 밀어 버려 떠올리지조차 않았던 것들을 이제야 다시 떠올렸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처음엔 지나온 나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커다란 공허가 몰아쳤다.

그러나 그 공허를 인식하기도 전에, 리아나는 그에게 일상을 선사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로 억지로 끌고 나와 침대를 만들라고 종용하고, 운동을 시키고, 음식을 먹여 재웠다.

공허는 햇살로 메워졌고, 따뜻한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나이젤은 이제 다른 것이 욕심났다.

동시에 그 결심이 굳어졌다.

지난날을 송두리째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으나, 참 우습게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망설임은 길었으나 결심은 순간이었다.

흥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 내리쬐는 평화로운 햇살, 의심도 확인도 필요 없는 나날이 아등바등 두 손에 쥐려 했던 권력보다 소중해졌다.

그날, 나이젤은 멜로디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적을 수가 없었다.

단 한 줄도.

“…….”

한참을 고민했으나, 나이젤은 결국 그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이다.

산에 도착한 멜로디는 문지기에게 자신이 왔음을 미리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클레어를 깜짝 놀라게 해 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두 사람이 신나게 달려 드넓은 고원 평야에 도착했을 때, 산은 늦봄으로 흐드러져 있었다.

늦봄에 피는 꽃이 곳곳에 피어 바람 따라 흔들리니, 마치 파도의 잔물결을 보는 것만 같았다.

“으아! 좋다!”

멜로디가 기지개를 쭉 켜며 외치자, 카이사르가 소리 내어 웃었다.

“좋으십니까?”

“좋아요!”

새파란 눈이 생기로 반짝이자, 카이사르도 기분이 좋았다.

마구 손을 흔들며 신나 하던 멜로디가 시선을 돌려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은 멜로디에게 고향처럼 느껴졌다.

웅장한 산세를 둘러보던 멜로디가 문득 눈을 가늘게 떴다. 기지개를 켜던 팔도 천천히 내려왔다.

뚫어져라 한 곳만 바라보는 모습에 카이사르가 그녀의 시선을 따르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

그녀가 답이 없자, 카이사르는 다시 그녀를 불렀다.

“멜로디…….”

다시 마주한 멜로디의 새파란 눈에는 투명한 것이 가득 차 있었다. 파란 물감이 번지듯 그녀의 눈이 번지더니, 결국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입술을 덜덜 떨며 크게 숨을 들이마신 멜로디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나이젤!”

그 커다란 고함 소리에 리아나를 도와 빨래를 널던 나이젤이 얼어붙었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몸을 돌리니,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나려 하자, 따뜻한 손이 그의 등을 저지했다.

나이젤이 시선을 돌리자, 짙은 녹음의 눈이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이젤은 입술을 세게 물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멜로디는 무서운 기세로 마을의 야트막한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어 리아나의 집이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나이젤의 시야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녀의 표정이 들어왔다.

“…….”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멜로디가 엉엉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이젤은 눈가가 삽시간에 뜨거워지며 목이 메었다.

“넘어져, 넘어진다! 조심해!”

나이젤도 멜로디를 향해 달렸다.

멜로디는 더 힘껏 달렸다.

그리고 그를, 지금껏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를 있는 힘껏 와락 끌어안았다.

있는 힘껏 달려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끌어안는 멜로디를, 나이젤도 마주 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참을 엉엉 울던 멜로디가 별안간 몸을 떼더니 그를 구석구석 살폈다.

“괜찮아? 괜찮아요? 다친 곳은? 독은? 심장은? 어때, 어떤데?”

나이젤은 흐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블라우가 왔을 때만 해도 못 일어났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거 맞아요?”

“…….”

나이젤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왜, 왜? 아니야? 아직 아파요?”

“…….”

그가 이상했다.

멜로디는 그 순간 나이젤의 흐트러진 보랏빛 눈동자 너머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멜로디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자 간신히 맺혀 있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발치에 피어 있던 보라색 들꽃을 적셨다.

“폐하.”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멜로디의 시간이 얼어붙었다.

멜로디가 젖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뭐?”

간신히 그렇게 묻는 멜로디 앞에 나이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달려왔던 카이사르마저 그 모습에 얼어붙었다.

멜로디의 입술이 사정없이 떨렸다. 나이젤의 두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멜로디는 이를 세게 악물며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일으켰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격노한 멜로디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섬광 같은 깨달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정신 차려! 내가 보낸 편지, 못 봤어?!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너한테 그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

간신히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녀는 울면서 화를 냈다.

“봤지, 봤어. 네가 보낸 수백 장의 신의를 내가, 봤어.”

울음 섞인 그의 말에 멜로디는 고개를 숙여 뜨거운 것을 억지로 삼켰다.

“그런데…….”

“그러니.”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고개를 든 멜로디는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나이젤을 옭아매었다.

“제국에서, 오라버닌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렇게 잘 살아있는 오라버니 널, 죽었다고 하라고?”

“…….”

“네가 죽지 않은 것을 아는데, 죽었다는 문서를 그대로 뒀어. 그게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기에 그대로 뒀어. 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어! 그게… 얼마나, 얼마나!”

멜로디가 주먹으로 가슴을 콱콱 쳤다.

“내 가슴에 구멍을 내고 있었는지 알아?!”

“멜로디, 멜로디.”

세게 제 가슴을 쳐 대는 손을 나이젤이 다급히 잡아 쥐었다.

“구멍이 난 것 같아. 바람이 드는 것 같다고! 죽지도 않은 오라버니 널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알아?!”

“…….”

“폐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다시 받아 가.”

멜로디가 으르렁거렸다.

화가 난 몸짓으로 몸을 휙 돌리는 멜로디에게 나이젤이 다급히 말했다.

“다시 분란이 생길 거야.”

“…….”

“다시, 분란이 생길 거다.”

멜로디가 멈춰 서자, 나이젤은 그녀의 정면으로 달려가 간곡히 말했다.

“내가 가면 너를 따르는 무리와 나를 따르는 무리로 다시 분열될 거야. 지금 코르벨라엔 너라는 구심점이 생겼어. 너는 훌륭한 지도자다, 멜로디.”

“…내가 이름을 버리면 될 문제야. 어차피 버리려고 했었어.”

“아니.”

“거짓말 아니야. 나는 어차피 버리려고 했었어. 내가 하려던 일은 따로 있었다고!”

“그게 뭐기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네가 황좌를 가져가면 될 일이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멜로디 앞에서 나이젤은 한참이나 망설이며 온몸을 떨었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멜로디가 멈칫하자, 나이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못 하겠어.”

“…뭐?”

“나는 너에게 이미 섭정의 자리를 위임했어. 빌려준 것도 아니고, 언제 받아 가겠다고 한 적도 없어. 난 적법하게 너에게 넘겨주었고, 너는 받았어. 그리하여 황제가 된 것이다. 그 자리는, 네 거야.”

그에 멜로디의 두 눈이 다시 새파랗게 타올랐다.

“미친놈.”

“…….”

“이런 미친놈.”

멜로디가 거칠게 몸을 돌렸다.

“멜로디!”

“따라오지 마!”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나이젤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를 수가 없었다.

멜로디의 눈에서 악에 받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이를 악물며 휘청휘청 걷자, 카이사르가 서둘러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남매의 대치를 바라보고 있던 클레어가 멜로디에게 달려왔다.

“멜로디!”

그립고 그리웠던 목소리에 멜로디의 시선이 번뜩 그녀에게로 향했다.

“클레어!”

“멜로디.”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는 와락, 멜로디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머리며 등을 살뜰하게 쓸어내린 클레어는 멜로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쥐며 이끌었다.

나이젤은 언덕 어귀에 서서 멜로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형아, 뭐 잘못했어요?”

나이젤은 벌써 며칠째 클레어의 집 앞을 서성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가 다가와 묻자, 나이젤은 어색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며칠씩 그러고 있대요?”

머리를 긁적이던 아이는 몸을 돌려 제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뭔 잘못을 단단히 했나 봐?”

“그치? 무슨 잘못을 해 가지고 사과하러 온 것 맞지?”

“응, 그렇대.”

나이젤이 그 모습에 실소했다.

멜로디는 아예 그와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화가 단단히 난 것이 틀림없었다.

카이사르마저도 자신이 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어 버리니, 그로서는 이제 멜로디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멜로디는 나이젤이 문 앞을 서성이자, 처음에는 ‘저 미친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라며 화를 내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아, 몰라. 자기가 무슨 마음이든 난 상관없어.’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다 며칠 뒤 이불 밖으로 기어 나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

나이젤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일족들이 그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아도,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코르벨라라는 이름을 등에 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그가 의자도 없이 흙바닥에 앉아 있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0)

“그는 사실 한 달 반 전에 깨어났어, 멜로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클레어가 말했다.

“…….”

“눈을 뜨자마자 네 편지를 읽었다고 했어. 그 편지를 모두 읽은 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코르벨라에도, 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고 했대.”

“나한테 물어는 봤고?”

“…….”

“누구 마음대로 죽어 버리겠다는 거야?”

“멜로디.”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클레어가 멜로디의 등을 끌어안았다.

“평생 끌어안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놓아? 심장이 망가져 가면서도 아등바등 두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놓느냐고? 마음이 편하질 않아, 클레어. 내가 꼭 빼앗은 것 같잖아!”

클레어는 물끄러미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멜로디의 내면을 살폈다.

얼굴, 표정. 멜로디를 기른 클레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녀의 작은 버릇마저도 금방 알아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동안 멜로디가 황제로서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이다.

단순히 충실한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그런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중신 회의에 멋대로 들어가던 그때, 멜로디는 분명 그들이 부럽다고 했었다.

“멜로디? 이야, 잘 해내고 있던데?”

“더 생기 있어 졌어. 날아다니던데?”

그녀에게 다녀왔던 일족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클레어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만약 황제로서의 삶이 불행했더라면, 멜로디는 이미 바싹바싹 말라 가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겉으로 티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

황제로서 열심히 살다가, 문득 나이젤 생각에 괴로웠겠지.

황제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동시에 그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일족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을 터.

멜로디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양가적인 감정을 클레어는 단박에 눈치챘다.

클레어는 멜로디의 어머니였다. 모든 가치 앞에 멜로디를 두는 사람이었다.

“그럼 물어봐.”

“…….”

“내가 그랬지?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어.”

“…….”

“잘 생각해 보렴. 지금 나이젤 코르벨라에게 무조건 화낼 때가 아니야.”

멜로디는 클레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나이젤을 바라보았다.

멜로디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자, 나이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나이젤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따라와.”

나이젤은 그 말에 얼른 멜로디의 뒤를 따랐다.

인상을 찌푸린 채 성큼성큼 걷는 멜로디와 그 뒤를 쫓는 나이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일족의 꼬마들은 나이젤이 몹시 걱정스러웠다.

“때리면 안 돼요!”

한 아이가 크게 소리치자, 다른 아이도 덩달아 외쳤다.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나이젤 형아 다친다고요!”

“맞아요! 때리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오오~”

잔뜩 인상을 쓰고 씩씩대며 걷던 멜로디가 기가 막혀 멈춰 섰다.

“나이젤 형아?”

멜로디가 몸을 돌리며 눈을 가늘게 뜨자, 나이젤은 어색한 얼굴로 콧잔등을 긁적였다.

멜로디는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방방 뛰는 아이들과 나이젤을 번갈아 보았다.

“친구야?”

“글쎄. 내 눈동자 색이 예쁘대.”

“…….”

입술을 꾹 말아 문 멜로디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몸을 돌려 걸었다.

“어디 가는 거야?”

“허락받으러.”

“무슨 허락?”

멜로디는 답하지 않고 더 빨리 걸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시작한 거대한 신단수 앞이었다.

마침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멜로디는 거침없이 그들에게 걸어갔다.

“코르벨라의 황제로서 온 거요? 파란눈 일족의 멜로디로서 온 거요?”

로잘린의 물음에 멜로디는 단호하게 말했다.

“파란눈 일족의 멜로디로서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로잘린은 진중한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웃었다.

“무슨 일이니?”

“허락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허락?”

멜로디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나이젤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자에게 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그녀의 물음에 장로들은 나이젤을 바라보다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 순리대로 두기로 했잖아?”

엘레나의 말에 로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동의하세요?”

그러자 이벨린이 피식 웃으며 신랄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숨길 것은 또 무에야. 이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럴드가 멜로디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도 좋다.”

장로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멜로디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멍하니 자신을 보고 있던 나이젤의 팔을 잡아끌며 커다랗게 외쳤다.

“아니타!”

나이젤은 신비로운 말 위에서 이러다 딱 죽겠구나 생각했다. 말은 깎아지른 협곡 위를 날듯이 내달렸다.

문제는 그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었다. 안장도 없이.

믿을 것이라고는 멜로디의 팔이 다였다. 그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팔은 충분히 강인했으나, 나이젤은 졸도할 것만 같았다.

“거참, 그럼 차라리 눈을 감아!”

“이게 눈을 감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눈을 뜨든지!”

“눈을 뜨면, 으윽!”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이윽고 아니타가 멈추자, 나이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멜로디는 훌쩍 뛰어내린 뒤 나이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멜로디의 손을 맞잡고 땅으로 내려왔다.

멜로디는 아니타의 목덜미를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아니타는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왕처럼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이젤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천천히 숨 쉬어. 기절할지도 몰라.”

한참 만에 호흡을 가다듬은 나이젤이 당당히 서 있는 아니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말이 절벽을 뛰어다녀?”

“홀리야.”

“홀리?”

“저 녀석에게 말이냐고 물으면 뒷발로 걷어차일걸? 심지어 왕의 자식이라고.”

“…….”

무슨 말인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다.

멜로디의 등 뒤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협곡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 위로 봄볕이 떨어졌다. 오늘은 운무도 없었다.

새파란 하늘엔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선 멜로디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새파란 눈이 요요히 빛났다.

그것은 기묘한 위화감을 주었다. 나이젤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자, 멜로디는 붉은 입술을 끌어올리며 나직하게 물었다.

“내가, 인간처럼 보여?”

“…뭐?”

“시간을 멈추고, 한 손으로 창을 던져 적군의 가슴을 관통시키고, 이렇게 까마득한 산을 누벼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내가 인간처럼 느껴지냐고.”

나이젤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멜로디가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나름의 정의를 지키려는 자이며, 동시에 긍지 높은 존재라는 것이다.

지금껏 보아 온 누이는 그랬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 들었던 기묘한 위화감을 밀어냈다.

나이젤이 한 걸음, 멜로디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인간인지 뭔지 그런 것 말고, 넌 그냥… 넌 그냥 나의 누이 멜로디 코르벨라지.”

한때, 그녀의 힘을 보고 권력을 탐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듯, 때론 사람도 바뀌는 법이다.

“이곳이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네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대답에 멜로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두었던 그에 대한 한 줄기 의심과 편견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멜로디는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았다.

산이 내뿜는 청량하고 시원한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맴돌고 지나갔다.

“…이곳은 아뷔브. 아뷔브야.”

자리를 옮겨 그늘에 앉아 드넓은 협곡을 바라보던 멜로디가 나이젤에게 물었다.

“오라버니,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아?”

“…….”

나이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긴 시간 황제가 되기 위해 달려와 놓고, 고작 몇 달 만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나?”

남매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에게 황제가 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었잖아. 황제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참고 억눌러 왔잖아. 코르벨라를 위대하고 강건하게 만들겠다며.”

그 물음에 나이젤은 시선을 내렸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멜로디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의 침묵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나이젤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화살 같은 삶이었어.”

“…….”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날아가고 있는데, 시위를 당긴 건 내가 아니었지.”

“…….”

“황제가 되지 못하면 죽는 선택지밖에 없었어. 어머니, 외숙…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지. 모두가 내가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나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줄 알았어.”

“…….”

“한 달 반……. 짧아. 짧은 시간이야. 나조차 어이가 없는데.”

“…….”

“생각나지 않아. 그립지 않아. 아쉽지가 않아.”

“나한테 물어는 봤어?”

“…….”

“그래, 좋아. 다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놨다고 쳐. 나한테 물어는 봤냐고?”

나이젤은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멜로디는 나무 기둥에 머리까지 기대며 눈을 감아 버렸다.

“마틸다 폐하는 궁금하지 않아?”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 나이젤이 시선을 내렸다.

“…어떠셔?”

“보뱅 공과 의절하셨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로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젠으로 가셨어.”

“로즈가 아이를 가졌대?”

“응.”

“잘됐구나.”

“그래. 축하 인사는 내가 대신 보냈어.”

“…….”

“마틸다 폐하께라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잘했어.”

“이제라도 말씀드릴까 싶은데.”

“아니, 그러지 마.”

냉혹하리만치 단호한 그의 태도에 멜로디는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맴돌았다.

뺨을 스치는 바람에 마지막 땀 한 방울이 날아갈 때쯤, 나이젤이 다시 운을 뗐다.

“네가 하려던 일, 그게 뭐야? 황제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황제라서 할 수 없는 일.”

“…….”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있으려고?”

“…….”

“지금처럼 여기 있으려고?”

“…….”

여태껏 눈을 감고 있었던 멜로디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따라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려면 최소한 이곳이 어딘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더불어 내가 하려던 일도.”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1)

멜로디가 나이젤을 이끌고 간 곳은 널따란 상판처럼 생긴 돌 위였다.

아뷔브의 거대한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은 바람이 휘몰아쳐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그 옆으론 수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나무마다 빼곡하게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나이젤이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다.

“이곳이 어디야?”

“돌아가는 곳.”

“돌아가는 곳?”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니, 이곳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곳.”

멜로디는 오랜 기억을 더듬어 수많은 푸른 끈 중 하나를 찾아냈다.

“내 어머니도 이곳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셨어. 지브릴.”

멜로디가 푸른 끈 끝단에 적힌 이름을 손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리자, 나이젤은 할 말을 잃었다.

“일족은 이곳을 찾지 않아. 유해를 이곳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낸 뒤, 표식만 남기고 떠나지.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영혼은 이곳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고 믿거든.”

멜로디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푸른 끈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매만졌다.

“난 어려서 기억나지 않는데……. 외숙 말이 어머니 이름을 푸른 끈에 새길지, 붉은 끈에 새길지 말이 많았대.”

그러고 보니 나무엔 두 가지 종류의 색 끈이 매달려 있었다.

무수히 많은 푸른 끈 사이로 무수히 많은 붉은 끈들이 보였다.

“푸른 끈과 붉은 끈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푸른 끈은 자연이 데려간 이들, 붉은 끈은…….”

멜로디가 말을 멈추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이젤을 바라보았다.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뒷덜미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산 아래 사람들이 앗아 간 이들이야.”

수많은 붉은 끈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멜로디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끔찍했다. 아주 오랜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멜로디가 누구인지, 이곳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자신을 받아 주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이해와 포용이었는지를 깨달은 나이젤은 온몸이 덜덜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리아나의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멍하니 그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멜로디가 그를 찾아와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그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버벅댔다.

“더 생각해. 한두 달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더 지나면 어느새 이 생활도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무료해질지 몰라. 그러다 어느 날, 과거가 그리워질지도 모르지. 그러니 시간을 더 줄게. 1년. 더 늦으면 오고 싶어도 올 자리가 없어져.”

멜로디는 리아나를 비롯한 일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뒤, 카이사르와 함께 산을 내려갔다. 열흘의 짧은 휴가였기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나이젤은 멀어지는 멜로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백지장이 된 듯, 온통 희뿌연 안개에 가려진 듯 흐리던 정신이 그제야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이젤.”

따뜻한 목소리에 나이젤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짙은 녹음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나이젤의 보랏빛 두 눈에서 눈물이 툭 터져 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나이젤?”

사정없이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을 치던 그는 멜로디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았다.

이곳에 있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짓이었는지를 깨달은 그는 무작정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나이젤?!”

리아나가 그의 팔을 붙잡자, 나이젤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했다.

“내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소.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잖소?”

“…….”

흐느끼던 그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가…….”

그때였다.

“그렇게 가 버리시면 그것은 또한 괜찮은 일입니까?”

싸늘하고 나직한 목소리에 울던 나이젤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녹음의 눈을 빛내는 또 다른 여인이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나이젤 황자님.”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서야, 나이젤은 비로소 그녀를 완벽하게 기억해 냈다.

그녀는 멜로디의 곁을 오랫동안 지킨 시녀였다.

“이제야 저를 기억해 내셨군요.”

“…….”

“도망을 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못난 짓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어찌해야 하오?”

“숙고하십시오. 단시간의 부끄러움에 도망을 갈 것이 아니라, 원하던 시간을 버셨으니 그 시간을 버티며 숙고하세요.”

클레어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말한 멜로디의 진심을 배신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살려 낸 리아나의 진심을 배신하지 말고 숙고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 또한 당신의 몫입니다.”

서릿발처럼 냉철한 말에 누군가 머리 위로 얼음물을 부어 버린 것만 같았다.

나이젤은 멍하니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짙은 녹음의 눈은 깊고 울창한 숲의 단면을 닮았다. 그 눈동자의 깊이가 어찌나 깊은지, 나이젤은 마치 거대한 고목을 올려다보는 것만 같아 숨을 삼켰다.

나이젤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마을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들이 드넓은 평야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각자 할 일에 바빴다.

여유롭게 햇살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담소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과거, 제국 사람들은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들어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나이젤은 본 적 없는 환상을 보았다.

마을이 불에 타고, 무자비한 군인들이 이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끔찍하고 슬픈 환상을 보았다.

나이젤의 흔들리는 시선이 리아나에게 닿았다.

이 아름답고 긍지 높은 영혼이 무참히 유린당했더라면.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리아나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덜덜 떨리며 내뻗어진 손은 차마 그녀의 뺨에 닿지 못했다. 나이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를 어찌하여 살린 거요?”

고통에 잠긴 목소리에, 리아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담담히 말했다.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따뜻하고 다정한 말에 나이젤의 눈이 다시 허물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러나 사과해야 하는 일이오.”

“…….”

“깊이 사죄해야 하는 일이었소.”

나이젤이 리아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몰랐던 것조차 미안합니다.”

“나이젤.”

리아나는 고개 숙인 그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녀보다 키가 한 뼘은 더 큰 그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리아나는 천천히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네요.”

나이젤은 리아나의 온기에 기대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다.

이윽고 그녀에게서 몸을 뗀 나이젤이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은 사과를, 드려야겠소.”

녹음이 우거진 거대한 신단수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왔다.

모진 풍파를 모두 이겨 낸 늙은 나무는 참담했던 그 시기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벨린은 그 나무를 오랜만에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삶은 정말 이상하지.”

한때, 그녀는 이 나무를 지독하게 증오했었다.

“신? 당신이 있기는 해?!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그게 방관자지, 무슨 신이야!”

증오로 똘똘 뭉쳐 그렇게 악을 쓰며 괴로워했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나무는 말이 없었다.

“삶은 참으로 이상해.”

묵묵히 시간은 흐르고, 그녀의 증오도 어느 날부터 서서히 옅어졌다.

그저 때때로 ‘아, 그런 날도 있었지.’ 하며 과거를 되짚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엔 불씨가 남아, 그녀의 가슴을 뭉근히 태우고 있었다.

그런 그녀 앞에, 코르벨라의 황족이 섰다.

멜로디도 황족이지만, 그녀는 지브릴의 딸이라는 인상이 더 강했다.

“나이젤 코르벨라, 뭐라 했소?”

로잘린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그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그럼에도 그가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꽉 맞잡은 두 손이 잘게 떨리고, 아래로 향한 시선은 좀처럼 올라오질 못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었던 코르벨라의 황태자는, 선조들의 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이젤은 한참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야만 한다.

목소리를 가다듬는다고 가다듬었으나, 떨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코르벨라의 황족으로서, 한때 코르벨라의 황태자로서, 제 선조들이 자행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깊이 사죄드립니다.”

나이젤은 장로들에게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찬란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날, 한때 코르벨라의 황태자였던 이가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로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럴드는 아직도 허리를 숙이고 있는 나이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나이젤이 그의 눈을 마주 보자, 제럴드는 나이젤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통이 섞인 보랏빛 눈동자에 제럴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어깨를 놓아 주자, 나이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모여든 일족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일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젤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리 숙여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하다’는 그 한마디의 말은, 봄꽃 한 장 같은 말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내려앉은 봄꽃 한 장이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었던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다.

관련자들을 죽이고, 빼앗겼던 일족을 되찾아 와도 녹일 수 없었던 가슴속 응어리가 나이젤의 ‘죄송하다’는 한마디에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앙금을 녹이는 것은 피가 아니라, 꽃잎 한 장 같은 사과였다.

이벨린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이젤 앞에 선 그녀는 뭉툭하게 잘린 손을 내밀었다.

나이젤이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자, 이벨린이 말했다.

“제국 사람들이 뜯어 간 손이오.”

“…아…….”

나이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자, 이벨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다시 내밀었다.

“이제 마치 손이 생긴 것 같으니, 내 이 손으로 당신과 악수하고 싶소.”

나이젤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의 잘린 손목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미안합니다.”

“고맙소.”

“…예?”

“끄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내 가슴을 태우고 있었소. 그래서 괴로웠지.”

“…….”

“어쩌면 이제… 조금씩 꺼질지도 모르겠소. 그러니 고맙소.”

나이젤의 두 눈이 흔들렸다.

이벨린은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아뷔브에 온 것을 환영하오. 나이젤 코르벨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2)

나이젤 코르벨라는 결국 수도로 돌아오지 않았다.

멜로디는 그녀가 약속했던 1년이 되는 시점에 나이젤을 진지하게 회유하고 설득했으나, 그의 의사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완벽히 아뷔브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다.

“얼씨구, 산 사람이 다 되셨네?”

“그럼. 아~ 그런데 아직도 홀리들이 나를 거부하는 건 슬프더라. 카이사르, 어떻게 홀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

“제가 소드 마스터라 가능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참 담소를 나누던 중, 그는 책 한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멜로디에게 불쑥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나이젤은 그녀의 질문에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정중히 말했다.

“계획서입니다, 폐하.”

“나한테 폐하 소리를 할 거면, 제대로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했을 텐데.”

“정식 절차를 밟고자 계획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멜로디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가 건넨 문서의 첫 장을 열었다. 첫 장을 읽어 내리는 멜로디의 눈이 점점 커지자, 나이젤은 담담한 어조로 진심을 담아 청했다.

“아뷔브를, 제게 맡겨 주십시오.”

지난 1년, 그는 진지하게 숙고한 끝에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얼마 후 황제는, 전쟁이 끝난 지 거의 2년 만에 공로를 치하하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밝혔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의문의 존재들에 대해 침묵하던 황제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황제는 그들의 존재를 ‘아뷔브의 소수 민족’이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폐하,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생김새는 우리와 비슷합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멜로디가 싱긋 웃었다.

“똑같소.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다치면 아파하기도 하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이들이오.”

“…….”

“인간의 기준을 생김의 비슷함에만 둔다면 다툼은 끊이질 않을 거요.”

“아… 예, 폐하.”

“그러나 멀리 찾을 것도 없소. 바로 그대들 눈앞에 있으니.”

“…예?”

멜로디가 자신을 가리켰다.

“내 모친께서 그곳 분이시오. 그들의 생김은 나와 같소. 또한 나는 그대들과 같으니, 다를 것이 뭐 있겠소.”

중신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황제는 그런 그들을 느른하게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으로 웃었다.

“이제 와 내가 멜로디 코르벨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지.”

마치 발톱을 숨긴 맹수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서, 중신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멜로디의 옆에 앉아 있던 대공 카이사르가 진중한 표정으로 대신들을 쳐다보았다.

베델 공작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데이지 발할라 후작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중신들은 이미 황제에게 익숙해진 상태였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황제는 싸움을 부추기지도 않았다. 싸우지 않으니, 그들 역시도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는 중이었다.

‘나누어 군림하라. 하면 서로를 견제하여 충성할 것이다.’라는 오랜 지배 명제를 황제는 정면으로 깨부쉈다.

중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로부터 몇 달 후.

“오늘은 무슨 연유로 홀에서 모이는 거요?”

“모르겠소. 홀에서 모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글쎄……. 누가 오나?”

“누가?”

“아, 그리 궁금하시면 폐하께 직접 여쭤보시구려.”

“뭐, 기다리면 될 일이지.”

“그럼 내겐 왜 묻소?!”

“아, 말해 주기 싫으면 말지! 왜 화를 내오?”

중신들이 삼삼오오 코르벨라 홀로 모여들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코르벨라 홀의 상석엔 이미 황제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몇몇 인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코, 늦었네.”

“폐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신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놀랄 게 뭐 있소.”

두 사람이 들어서자, 그들을 알아본 황제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넸다.

“아, 두 분 어서 오시오. 식사는 하셨소?”

“물론입니다, 폐하.”

“좋은 아침입니다, 폐하.”

곧 몇몇 사람이 더 들어오자, 서관이 황제께 모두가 모였음을 알렸다.

보뱅 공작과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던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대공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자신의 자리로 가려던 보뱅 공작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멜로디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곧 올 거요.”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데이지 발할라 후작이 황제를 쳐다보며 물었다.

“폐하, 오늘은 무슨 연유로 이곳에 모이라 하셨는지요?”

황제가 후작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 오는 날이오.”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요?”

멜로디는 어깨를 활짝 펴며 허리를 곧게 세웠다.

그녀의 눈과 귀는 이미 굳게 닫힌 문 너머에 닿아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멜로디는 시선을 돌려 모인 중신들을 차분히 훑었다. 의문 섞인 중신들의 눈빛을 마주하던 멜로디가 담담히 말했다.

“나의 오라버니, 나이젤 코르벨라는 살아 있소.”

“……!”

“……!”

여기저기에서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이 문제를 의논했던 베델 공작과 아들러를 제외한 모두가 깜짝 놀라 허둥댔다.

멜로디는 나이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섭정의 자리를 위임받았는지 솔직하게 설명했다.

중신들은 얼떨떨한 시선으로, 담담히 설명하는 황제를 바라보았다.

왜 굳이 분란이 될 만한 이의 생존을 말씀하시는가?

그의 존재가 작금의 황제에게 도움이 될 리 없는데 어찌 이러시는 건가?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황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선언했다.

“나, 멜로디 코르벨라는 코르벨라 황가의 호주로서 나이젤 코르벨라의 말소된 신분과 권한을 모두 되살리겠소.”

“폐하!”

“죽지도 않은 이를 죽은 이로 만들어 놓고, 나는 늘 괴로웠소.”

“하오나…….”

손을 들어 중신의 말을 막은 멜로디가 외쳤다.

“문을 열어라!”

단호한 외침에 코르벨라 홀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입을 벌렸다.

중신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

“세상에…….”

이윽고 문이 활짝 열리자, 몇몇 이들이 탄식했다.

보뱅 공작 역시 숨을 삼키며,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들이치는 아침 햇살을 등에 지고, 그가 돌아왔다.

아주 오랜만에 코르벨라 황족 복장을 입은 그는, 코르벨라를 등에 짊어지고 달려 나갔던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나이젤은 눈앞에 나타난 코르벨라 홀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늘 익숙했던 곳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을 향하는 수십 쌍의 눈동자들이 낯설었다.

벌써부터 짙은 녹음이 그리웠다. 나이젤은 자신의 굳은 결심을 재차 확신했다.

“어서 오시오.”

멜로디가 상석의 계단을 내려오며 그를 반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때, 나이젤의 오른쪽에 서 있던 제럴드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가시오. 괜찮소.”

왼쪽에 서 있던 카이사르도 그를 격려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이젤은 다시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누이의 존재를 처음 제대로 인식했던 날이 떠올랐다. 바락바락 대들며 울분을 토하던 누이가 떠오르자, 나이젤은 저도 모르게 웃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젤은 성큼 문 안으로 들어섰다.

늘 표정을 관리했던 공간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웃었다.

그 모습에 보뱅 공작은 넋을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중신들이 그러했다.

황태자 나이젤 코르벨라가, 저런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는 가뿐했으며, 두 눈은 길게 휘어 반짝였다.

날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숨에 황제에게 다가간 그는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그대로 황제를 끌어안았다.

“……!”

그 모습에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황제도 그도 신경 쓰지 않았다.

“거참, 늦게도 왔네!”

황제의 타박에 나이젤은 소리 내어 웃더니, 몸을 떼며 정중히 말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나이젤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보뱅 공작과 시선을 맞추었다.

더는 그를 미워할 이유도, 피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 나이젤은 외숙에게 오랜만의 인사를 건넸다.

“외숙,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부드럽게 웃으며 건네는 가벼운 인사에, 보뱅 공작은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황자님. 이리… 이리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하염없이 기쁩니다. 마틸다… 마틸다가 보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는 태후를 이름으로 불렀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공 카이사르가 자신의 자리로 가서 서자, 제럴드는 나이젤 바로 옆에 나란히 섰다.

멜로디는 제럴드와 카이사르에게 한 번씩 시선을 준 뒤, 짐짓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젤 코르벨라, 그대의 말소되었던 신분과 권한을 모두 되살렸소.”

황제의 말에 나이젤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하.”

“당연한 일이오.”

나이젤은 단단한 표정의 누이를 바라보다가 씩 웃었다.

“하오나 저는 오늘 코르벨라의 이름을 내려놓고자 왔습니다.”

중신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닿았다.

“저, 나이젤 코르벨라는 코르벨라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 및 계승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멜로디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소.”

“괜찮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오.”

“압니다.”

나이젤은 가슴을 들썩이며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가벼운 어조로 밝게 말했다.

“하오나 폐하, 저 역시 전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병도 육성했고, 전쟁에도 직접 참여하여 애를 썼고…….”

“인정하지.”

“해서 청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나이젤은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다. 푸릇한 풀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길게 휘는 녹음의 눈동자가 떠오르자, 그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나이젤은 제럴드를 잠시 바라보았다가 다시 황제와 시선을 맞췄다.

“아뷔브, 아뷔브를 제게 주십시오. 그곳의 영주 자리를 공식적으로 청하는 바입니다.”

중신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청이었다. 수많은 부유한 영지들을 두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산을 달라니?

보뱅 공작마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그것을 요청하는 나이젤과 듣는 황제 모두 진지했다. 황제는 중신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의 청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나의 소유였던 아뷔브를 그에게 하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오.”

중신들 입장에선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있자, 황제는 ‘침묵은 긍정이라 판단하겠소.’라고 말하더니 아들러에게 준비한 것을 가져오라 일렀다.

아들러는 커다란 함을 가져왔고, 멜로디는 그것을 열어 묵직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그녀가 서류를 꺼내 들자, 나이젤은 천천히 몸을 낮춰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이젤 코르벨라. 그대에게 아뷔브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바이며,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의 보호 아래에 두는 바이니 이에 동의하시오?”

“동의합니다.”

“또한 짐은 그대에게 주어졌던 코르벨라의 이름을 회수하고, 새로운 ‘아뷔브’의 이름을 하사하고자 하오. 이 역시 동의하시오?”

“동의합니다.”

“좋소. 그대가 가진 직위 중 공작의 지위를 되살려 그대에게 하사하니, 그대는 지금부터 나이젤 아뷔브 공작이오.”

나이젤은 숨을 멈추고 멜로디의 말을 경청했다.

“그대는 코르벨라에 충성함과 동시에, 아뷔브의 영주로서 아뷔브 주민들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맹세하시오?”

멜로디와 나이젤의 시선이 교차했다.

나이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젤 아뷔브, 온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멜로디는 함에 들어 있던 묵직한 망토를 꺼냈다.

리아나가 직접 고안한 아뷔브의 새로운 문장이 새겨진 묵직한 망토를 직접 나이젤의 어깨에 둘러 준 멜로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멜로디는 옆에 서 있던 제럴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제럴드는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길고 오랜 다툼과 미움이 이곳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때, 데이지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아뷔브 공작이 되어 돌아온 나이젤에게 다가간 데이지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시선을 돌린 나이젤은 일렁이는 금빛 눈동자를 마주하고 길게 웃어 보였다.

“발할라 후작.”

“잘 돌아왔어요.”

“…….”

“잘, 돌아왔어요.”

데이지가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던 나이젤도 그런 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마주 안았다.

“고맙다.”

“잘 왔어요, 오라버니.”

“어어? 왠지 나도 끼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긴데?”

황제가 두 사람을 보며 중얼거리자, 제럴드가 속삭였다.

“그런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두십시오.”

\* \* \*

로즈의 출산을 도우며 오랜 시간 아이젠에 머물렀던 마틸다 태후는, 돌아오라는 황제의 명에 며칠 전에 코르벨라로 급히 귀국했다.

자신을 왜 부른 것이냐 물었으나, 황제는 의미 모를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비로소 황제가 그녀를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틸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렸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달렸다.

그리고 코르벨라 궁에 다다랐을 무렵, 마틸다의 걸음이 느려졌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얼굴과 웃음기 하나 없는 메마른 눈빛을, 한때는 진중한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래, 황제라면 그런 얼굴이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도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이의 옷을 매만지며 기억해 냈다. 나이젤은 웃음이 많은 아이였음을 말이다.

그녀의 아이는 말간 뺨을 붉게 물들이고, 보석 같은 눈동자를 휘며 웃던 아이였다.

언제 그 웃음이 자취를 감추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웃음이 사라지기까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어미인 자신조차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썩어 가는 가슴을 끌어안고 자리를 지키던 아들은 살아 있음에도 긴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온 아들은 그때처럼 웃고 있었다.

아주 어렸던 그때처럼.

키가 큰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아들을 향해 마틸다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다가갔다.

그러나 차마 얼마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아들의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를 먼저 알아챘다.

제럴드는 멀리서 나이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나이젤.”

“왜 그러십니까?”

“당신 어머니 아니신가?”

나이젤은 그제야 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보랏빛 눈동자가 어머니에게 닿았다.

고우시던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

그녀의 모습에, 나이젤의 가슴속에 쌓여 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미워할 이유가 이제 없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흐르는 시간에 실려 가 버렸다.

일리아나 아리안과의 약혼은 그의 부고가 전해진 이후 자연스럽게 파기되었다.

코끝이 시큰하고 눈가가 뜨거워져서, 나이젤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이윽고 그는 활짝 웃으며 외쳤다.

“어머니!”

그것은 마틸다를 깨우는 주문이었다.

멈춰 섰던 마틸다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갔다.

황좌가, 권력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이 다 무슨 필요인가?

마틸다는 울면서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나이젤, 나이젤, 나이젤, 나이젤…….”

“어머니.”

“오…오오, 나이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의 어깨를 적시자,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 서로를 미워도 했었다. 그래, 그랬던 날도 있었다.

마틸다는 하염없이 울며 사과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이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나이젤은 어머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 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어머니는 한없이 아들에게 사죄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보뱅 공작과 죽은 선황에게 전가하기도 했으나, 자신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마저 멀리 밀어 둔 채 홀로 죽어 가다가, 로즈의 아이를 안고 얼마나 사무치게 울었는지 모른다.

“나이젤도…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

“로즈, 내가… 네 오라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

“네 오라비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일리아나와 결혼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어. 그게…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 그 자리라는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내가… 다시 한번 그 애를 볼 수 있다면…….”

“엄마가 잘못했어, 나이젤.”

“어머니.”

나이젤은 하염없이 울며 사과하는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렇게 서로를 안아 다독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마틸다는 아들의 등을 꽉 끌어안고, 나이젤을 다시 만난다면 꼭 해 주고 싶었던 말을 울며 쏟아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녀의 속삭임에 나이젤이 답했다.

“어머니, 저 코르벨라의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관없다.”

“저는 더 이상 코르벨라가 아니에요.”

“너는 너이니 상관없어.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단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마틸다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녀에게, 신은 감사하게도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의 초입.

꽁꽁 얼었던 많은 것들이 녹아내린 어느 날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3)

황제 멜로디 재위 4년.

아뷔브 공작령의 영주 성이 완성되었다.

영주 성의 완성과 동시에 아뷔브 공작은 공작 부인을 공식적으로 맞이하였으며, 그녀의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공식 인정하였다.

더불어 황제는 아뷔브 소수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뷔브 공작령을 자치령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를 닮은 녹색 눈이 인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자, 아뷔브 일족의 장로들은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단수 씨앗을 영주 성 마당에 심어 주었다.

아뷔브 공작은 제국의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일족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였다.

이에 황제는 지워진 과거에 대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국의 수장으로서 그들에게 사과하였다.

더불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와 추모비를 아뷔브 곳곳에 세웠으며, 침략이 시작되었던 날을 ‘아뷔브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심었던 신단수의 싹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멜로디는 카이사르와 함께 직접 아뷔브 영주 성으로 향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어머님. 꼭 조심할게요.”

“뛰시면 안 되고, 아무거나 드셔도 안 돼요. 특히 말은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아요.”

“좋은 것만 보셔야 합니다. 물도 따뜻한 물을 드세요. 검을 휘두르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아,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안의 당부에 카이사르가 난감한 얼굴로 나섰다.

“어머니, 제가 폐하를 잘 챙기겠습니다.”

“대공께서 꼭 챙기세요.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이안은 황제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다독이며 그녀의 걸음걸음을 신경 썼다.

황제가 탄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드는 이안에게 공작이 다가왔다.

“조심히 다녀오실 테니 걱정 마시오.”

“아휴……. 저러다 중간에 답답하다며 말을 타시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요.”

“힘드실 텐데 걱정이에요. 아무리 건강하셔도 먼 길인데…….”

이안은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요즘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안 가요. 얼마나 예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답니다.”

공작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고 웃다가, 황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황제는 입덧도, 기분의 변화도 없었으나 딱 한 가지, 잠이 더 늘었다.

그녀는 지루한 시간을 모두 잠으로 채웠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멜로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새근새근 잘 자는 그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그는 살짝 부푼 그녀의 배를 어루만졌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손끝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녀의 배 속에서 무언가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태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카이사르는 도통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가.”

나직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러 본 카이사르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려서 숨을 삼켰다. 어쩐지 코끝이 시큰하여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따뜻한 손이 그의 뺨을 간질이자, 카이사르는 얼른 눈을 뜨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잠들어 있던 멜로디가 반쯤 눈을 뜬 채 그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멜로디.”

“왜 아기에게 인사를 건네다 말아요?”

“아니, 그냥…….”

카이사르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쥐고는 입을 맞췄다.

“더 주무셔야 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깨셨군요.”

“많이 잤죠.”

멜로디가 웃자, 카이사르는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참! 그런데 카이사르.”

“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십니까?”

멜로디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배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던 그녀가 이윽고 카이사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기가 둘인 것 같아요.”

“…예?”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태동이 느껴진 이후로 좀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아기가 둘인 모양이에요.”

갑작스러운 멜로디의 말에, 카이사르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배로 시선을 돌렸다.

“둘이면… 당신이 힘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보단 둘이 좋은데요?”

“둘이라서 싫다는 뜻이 아니라 한 명만 품고 있어도 어머니는 힘이 든다는데, 둘을 품고 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걱정이 담뿍 담긴 그의 말에 멜로디는 그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우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들아, 무럭무럭 자라서 만나자.”

씩씩한 인사에 카이사르는 결국 웃어 버렸다.

“당신도 어서 인사해요.”

멜로디의 재촉에, 카이사르는 웃는 얼굴로 그녀의 배에 대고 인사를 건넸다.

“흠흠.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만나자.”

그의 인사에 멜로디가 깔깔거리다가 배를 매만졌다.

“신나게 움직여도 괜찮으니 걱정 마.”

“안 된다. 힘드셔.”

“괜찮아.”

부부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은 얼굴로 웃었다.

아뷔브를 향해 달리는 마차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아뷔브 산 입구에 위치한 아뷔브 영주 성.

영주 성엔 두 개의 정문이 존재했다. 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문과 산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문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 가운데 푸릇한 신록과 조화를 이루는 영주 성이 세워져 있었다.

영주 성 뜰 한가운데에 심어진 신단수는 제법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 신관 이지스가 그것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신단수에 오드를 쏟아 넣자, 어린싹이 그녀의 오드에 반응하며 순간 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야, 제법 샛노랗게 빛나는데? 오드가 많지 않은 땅이라 걱정했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발트가 기특하다는 듯 말하자, 이지스가 허리를 펴며 웃었다.

“저 녀석이 이 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기특하네요.”

이지스의 말에 발트가 시선을 돌렸다.

리아나와 나이젤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온갖 물건을 다 헤집으며 놀았으나 딱 하나, 이 신단수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나이젤이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를 번쩍 안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영주.”

이지스가 정중한 태도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자, 나이젤도 정중히 인사를 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드까지. 덕분에 신단수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주와 리아나가 살뜰히 보살핀 덕이에요. 오드가 충분하지 않아 신단수가 자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싹을 틔웠네요.”

나이젤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이지스를 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로아 아뷔브, 잘 있었니?”

“네에!”

아이가 이지스에게 손을 뻗자, 이지스는 아이를 번쩍 안아 주었다.

“녀석, 볼 때마다 쑥쑥 크는구나!”

발트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헝클이자, 메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챘다.

“로아는 머리 만지는 것 싫어한대.”

영주 성의 곳곳을 둘러본 제럴드와 클레어도 다가왔다.

“오랜만이오, 영주. 잘 지냈소?”

“장로, 어서 오십시오. 클레어,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리아나! 오랜만이야. 어머나, 로아!”

로잘린, 엘레나, 슈테언, 에르데와 블라우도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

신단수가 싹을 틔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일족이 이미 영주 성을 다녀갔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단수가 싹을 틔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 내려온 참이었으나, 동시에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함도 있었다.

“어디쯤 왔으려나…….”

클레어가 자꾸만 제국 방향을 바라보자, 제럴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래도 마차를 이용해서 오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멜로디의 임신 소식에 클레어는 한달음에 제국으로 달려갔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흐른 터라,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발을 동동거리며 활짝 열린 문 너머를 바라보던 클레어의 두 눈에 마차 한 대가 들어왔다.

기다리던 마음에 파문이 일며 짙은 초록의 눈에 기쁨이 차올랐다.

“멜로디!”

클레어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아득하게 멀었던 마차가 점점 덩치를 키우며 가까워졌다. 일족과 나이젤은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마차를 바라보았다.

나이젤이 로아를 안아 들며 귓가에 속삭였다.

“로아야, 네 고모님이시자 제국의 황제께서 오신다. 오시거든 공손히 인사를 드리거라.”

“네! 아버디!”

혀짧은 발음으로 야무지게 답하는 로아의 머리에 나이젤이 이마를 맞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아나가 다가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이윽고 마차가 영주 성에 도착하자, 클레어와 제럴드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마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카이사르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뒤이어 멜로디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망토를 입은 멜로디가 나타나자 로아는 내려 달라며 버둥거렸다. 나이젤은 순순히 아이를 내려 주었다.

“오오, 멜로디!”

클레어가 멜로디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자, 멜로디 역시 그녀를 마주 안았다.

“클레어!”

“힘들었겠다! 세상에, 얼굴이 야위었나?”

“그건 아닌데.”

“다행이구나.”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웃는 틈에, 제럴드도 다가와 멜로디와 카이사르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때였다.

“꼬모님!”

혀짧은 말소리에 멜로디가 시선을 돌리자, 짙은 녹음의 눈을 가진 예쁜 아이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안아 본 이후로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멜로디는 그간 바빠서 영주 성에 올 시간이 없었고, 나이젤이 수도에 올 때면 아이가 어려 두고 왔었기 때문이다.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가 어찌나 예쁜지, 멜로디는 활짝 웃으며 스스럼없이 손을 벌렸다.

“로아!”

아이는 낯을 가리지도 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어어, 로아야! 천천히, 천천히 가야 해. 지금 네 고모의 배 속엔 아기가 있거든.”

가까이 있던 엘레나가 주의를 주자, 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살금살금 멜로디에게 다가갔다.

멜로디는 앙증맞게 다가온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그녀의 목을 휘감자, 몽글몽글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안녕, 로아!”

“안녕하세요, 꼬모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이젤과 리아나가 다가오자, 카이사르가 먼저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멜로디가 로아를 품에서 놓고 일어나자, 나이젤이 그녀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폐하.”

“아뷔브 공, 그간 잘 지냈소?”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씩 웃었다.

“온다고 고생했어.”

“별말씀을. 리아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그럼, 어서 와.”

“아, 우리는 안 보이냐?!”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이면 제가 이상한 거죠! 오랜만이에요, 메어!”

“나는, 나는!”

“보입니다. 보여요, 발트!”

“으하하핫!”

“경망스럽게 웃지 마라, 배 속 아기 놀란다.”

“뭐얏!? 아, 슈테언 누님이셨군요. 넵, 입을 다물겠습니다.”

영주 성이 한순간에 왁자지껄해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지스가 싱긋 웃자, 옆에 서 있던 블라우가 문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이지스.”

“응?”

“혹시… 그날 네가 봤다던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야?”

짙푸른 신록의 계절이었다. 울창한 숲이 내뿜는 청량한 바람이 가뿐한 웃음 사이를 노닐듯 스치고 지나갔고,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충만한 햇살과 여름의 생명력이 가득한 장면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깎아지른 아뷔브 줄기 아래 지어진 하얀 성에서 녹음의 아이가 누군가에게 달려갔다. 달려오는 아이를 엘레나가 부드럽게 제지하자,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조심히 걸었다.

다가온 아이를 꼭 껴안았던 이가 천천히 시선을 들자, 새파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숙였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남자는 두 눈동자 색이 참 인상적인 이였다. 달처럼 길게 휘며 웃는 눈동자는, 짙은 자색이었다.’

이지스는 그날을 되짚으며 길게 웃었다.

“글쎄, 내가 봤던 장면보다 더…….”

“더?”

“뒤는 네가 생각해.”

그녀의 말에 블라우는 콧잔등을 긁적이다가 소년처럼 씩 웃었다.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完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4)

황제께서 아기님을 가지셨다!

금실 좋은 황제와 대공 사이에서 꽤 오래 아이 소식이 없자, 간혹 우려 섞인 말들이 뒤로 나돌곤 했었다.

그랬는데, 이런 경사스러운 소식이라니!

후베로티 백작은 눈시울을 붉혀 가며 제가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 한참이나 강조하다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자고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는 임신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침실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기분 좋은 소식에 전에 없이 상기되어 있던 베델 공작이 미간을 모으며 후베로티 백작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저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저러나?

백작은 여기저기 시선을 맞춰 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이길 반복하더니, 슬그머니 본심을 꺼냈다.

“한데, 우리 폐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

중신 회의장!!

후베로티 백작은 이제 중신 회의의 ‘중’ 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났다.

성격 급한 황제는 매일매일 얼굴 보는 비효율적인 짓을 왜 해야 하느냐며 일주일에 한 번 중신 회의를 열었다.

대신 한 주 치의 안건을 모조리, 그것도 미리 처리해 버렸다.

제대로 준비를 해 오지 않으면, 황제는 그 무시무시한 파란 눈으로 빤히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하셨소?”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후베로티 백작이었다.

황제께서 임신 기간 만큼이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간절함을 담아 호소했다.

“임신하신 몸으로 중신 회의를 진행하시다니요. 한번 진행하면 어찌나 길게 하시는데, 이는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자칫…….”

열변을 토하던 그는 옆에서 누군가 옆구리를 쿡 찔러 오는 통에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왜, 뭐요?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지.

중신들은 한심한 표정으로 백작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그의 뒤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닌가?

“오셨습니까, 폐하.”

순간, 후베로티 백작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급하게 뒤를 돌았다.

그곳엔 시퍼런 눈을 빛내는 황제와 그녀의 곁을 지키듯 대공이 함께 서 있었다.

“폐, 폐, 폐하!”

황제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툭 내뱉듯 말했다.

“고맙소.”

“…예, 예?”

그러고는 화들짝 놀라 말을 더듬는 백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씩 웃었다.

“백께서 내 건강을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지 몰랐소. 그거참, 아주 고맙군.”

“아, 그, 그럼 물론이지요! 폐하와 아기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후베로티 백작을 일별한 멜로디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큼성큼 상석으로 향했다.

“아, 그러니까 폐하. 건강을 위하여 당분간은…….”

“나는 앞으로 여덟아홉 달을 후베로티 백작 부인처럼 침실에서 지낼 수는 없소.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오? 임부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더군. 하니 내 걱정은 마시오.”

황제가 씩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자 서 있던 중신들도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후베로티 백작도 엉거주춤 자리에 앉으며 혈색 좋은 황제의 얼굴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어딜 어떻게 봐도, 요양해야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보다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우리라.

“그럼, 베델 공. 회의를 시작합시다.”

“예, 폐하.”

시아버지인 베델 공조차 황제에게 쉬시라 간언하지 않으니, 후베로티 백작은 실망하여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바로 그때, 머리 위로 황제의 음성이 날아들었다.

“자, 그럼 후베로티 백작.”

“예?!”

심장이 덜컹 내려앉은 백작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고개를 들자, 황제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제출하지 못했던 증빙 자료가 있었지? 그때 분명 다음 주엔 꼭 제출한다 하지 않았소? 그대부터 시작하시오.”

“…….”

망했어.

망해 버렸어.

침묵이 길어졌다.

백작의 머릿속이 거친 생각으로 출렁이고, 눈빛은 한없이 불안해졌다.

멜로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날카로운 일갈을 던졌다.

“백작, 나 몰래 2주간 휴가 다녀오신 거요?”

후베로티 백작은 고개를 처박을 듯 숙이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실은 그간 제 아내가 아파…….”

“…….”

“커흠흠, 어제 우리 집사람이 후베로티 백작저에 티타임을 다녀왔다던데…….”

“우리 집사람은 그저께…….”

속속 튀어나오는 간증에 백작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멜로디는 깊고 긴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남겼다.

“분명 휴가를 다녀온 게로군.”

다 큰 어른을 상대로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폐하아! 내일까지는 꼭!”

저 말도 몇 번이나 들었나.

멜로디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잘라야 하나…….

작게 고개를 내저으며 중신들을 쭉 둘러보던 멜로디는, 그제야 누군가의 부재를 알아챘다.

“재무대신.”

아쉬는 황제의 부름에 몸가짐을 바로 하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예, 폐하.”

“발할라 후작이 안 보이는군. 무슨 일 있소?”

그에 아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실은 요 며칠 몸이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엔 식사조차 하기가 어려워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님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아뢰어 죄송합니다.”

“그런 거야 의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으니 사과할 것 없소. 아프다고? 일단 알았소.”

멜로디는 텅 빈 데이지의 자리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회의에 집중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 그녀는 돌아가려는 아쉬를 따로 불렀다.

“의원에게 진찰은 받아 봤나?”

“가벼운 몸살이라 생각하여 어제까지는 그저 쉬기만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엔 의원을 불렀으니 지금쯤 진찰을 받았을 겁니다.”

“약재가 필요하면 황궁으로 따로 연락하고, 필요하다면 황궁 의원을 부르도록.”

“감사합니다, 폐하.”

아쉬는 황제에게 인사를 올린 뒤 얼른 몸을 돌려 빠른 걸음을 걸었다.

사실 그는 오늘 회의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다. 데이지는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가 특별히 자주 아픈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며칠 전부터는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른해하더니, 오늘 아침엔 식사를 앞에 두고 속이 메슥거린다며 구역질까지 하고 말았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차에 오른 그는 전에 없이 마부를 재촉했다.

마침내 발할라 저택에 도착했을 때, 아쉬는 튕겨 나오듯 마차에서 내려 한달음에 본관으로 달려갔다.

한데, 저택의 분위기가 어딘지 묘했다.

특히 부부의 침실이 있는 복도에 도착했을 때 어수선하면서도 고요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순적인 분위기가 그를 덮쳐 왔다.

“데이지…….”

그때, 그의 귀가 소식을 들었는지 집사가 복도 끝에서 얼른 다가왔다.

“오셨습니까?”

“후작께서는 어떠신가?”

아쉬가 침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으며 묻자 집사는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느낌에 우뚝 멈춰 선 아쉬가 휙 그를 돌아본 순간, 집사는 그를 향해 빙긋이 웃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기다리고 계시니 들어가 보시지요. 더불어 경하드립니다.”

경하?

멍하니 그 단어를 입에서 굴려 보던 아쉬는 느릿하게 시선을 돌려 침실의 육중한 문을 바라보았다.

경하라니.

마침 침실 문이 열리더니, 하녀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쉬는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멍하니 문가에 섰다.

“아쉬.”

그런 그를 그녀가 반겼다.

밝고 나긋한 목소리로.

들이치는 햇살보다 찬란한 금발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 드리우고, 마찬가지로 영롱한 금빛 눈동자를 반짝이며 그녀가 그를 향해 웃었다.

아쉬는 끌려가듯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지금도 그녀의 몸에 손을 댈 때면, 제가 감히 그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치솟았다. 한 걸음 물러난 곳에서 아쉬는 데이지의 안색을 꼼꼼하게 살폈다.

경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명석한 머리도 이럴 땐 쓸모가 없었다.

“괜찮아?”

멍하니 묻는 질문에 데이지가 눈을 휘며 웃었다.

“이리 와 봐.”

데이지는 그의 손을 쥐더니 조심스럽게 배 위로 가져다 대었다. 그러고는 기울어진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귓가에 속삭였다.

도저히 믿지 못할,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우리 아이가 생겼대.”

아쉬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삐걱삐걱 고개를 돌려 데이지를 마주 보았다. 섬세한 눈썹의 올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더운 숨결이 섞였다.

“아이?”

“응.”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가 거칠게 출렁이더니 기어이 투명하게 차올랐다.

온갖 걱정이 뜨겁고 벅찬 환희로 변해 그의 눈에서 흘러넘쳤다. 데이지는 그의 뺨을 씩씩한 손길로 쓸어 주고는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나른했던 거고, 구역질한 것은 입덧이래. 물론, 몇 달 지나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지만.”

아쉬가 데이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세상에. 아이라니.

내가 아빠가 된다니.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울었다.

참다못한 데이지가 이제 그만 울라고 타박할 만큼.

“아쉬, 그만 울어. 나 좀 놓아주고.”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5)

황제에 이어 발할라 후작까지 아이를 가졌다!

겹경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이복자매는 다른 듯 닮은 점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임신에 대한 자세였다.

멜로디야 그렇다 치고, 의외로 발할라 후작 데이지마저 생각보다 임신에 대해 소탈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데이지 역시 몇 주간의 입덧을 끝으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러고 나자 그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중신 회의에도 참석하고, 후작 본연의 업무도 추진하였다.

임산부의 건강이 좋으니, 이보다 다행인 일이 있을까.

한데, 카이사르와 아쉬는 한숨을 푹 쉬며 발랄한 걸음으로 앞서가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대공, 일전 태교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 드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쉬의 물음에 카이사르는 미간을 굳히며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

두 남자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카이사르의 표정을 읽은 아쉬가 짧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대공께서도 실패하셨군요.”

“참… 지루해하시더군요.”

폐하께서요.

본인 들으라고 읽는 게 아닌데, 폐하께서요.

아쉬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 후작께서도요.”

멜로디는 카이사르가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 주자, 처음엔 눈을 빛내며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은 안 했어도 ‘이런 진귀한 장면을 보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한데 카이사르는 집요한 구석이 있었고, 그 결과 꽤 긴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읽었다. 그리고 멜로디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되자, 멜로디는 점점 표정이 없어지더니 결국 선언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전날까지 읽어야 해요.”

“…….”

아쉬의 표정을 보아하니 발할라 후작 내외의 사정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아쉬가 먼 산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후작께서는 아예 본인이 잠이 들면 읽으라 하시더군요.”

“…….”

“그럼… 저는 언제 잡니까…….”

“…….”

그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황제와 후작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던 대공과 재무대신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휘어졌다.

“대공, 재무대신! 거기서 뭘 하고 있소? 어서 이리 와서 이걸 좀 보시오!”

“세상에! 감히 황궁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고양이가 결국 여기에서 새끼를 낳았네요!”

“오구, 오구! 얘네를 다 낳았어?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가만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새끼를 한 마리씩 물어다가 황제의 발치에 자랑이라도 하듯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제와 후작은 시녀들이 안겨 주는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씩 안고서 보드라운 털에 뺨을 비볐다.

그래. 태교 동화가 다 무슨 소용이냐.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건강한 것이 최고지.

두 사람은 성큼성큼 아내를 향해 걸어갔다.

\* \* \*

무탈하고 감사한 시간이 흘렀다.

멜로디의 산달이 다가오자 클레어와 엘레나가 직접 황궁을 방문했고, 멜로디도 산달만큼은 모든 업무를 대공에게 일임한 뒤 몸조리에 신경 썼다.

물론 자의는 아니었다.

지금껏 참고 인내하던 이들이 산달마저 어물쩍 넘기려 드는 황제에게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폐하, 오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러부터,

“폐하, 걱정되어 잠이 안 옵니다.”

이안도,

“황제, 산달엔 조금만 무리해도 산통이 오는 법이거늘. 좀 쉴 때가 되었소.”

보다 못한 마틸다 태후까지 그녀를 만류하는 통에 멜로디는 성미에 맞지 않는 여유를 억지로 누렸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그날 아침.

카이사르, 클레어, 엘레나와 함께 가벼운 아침을 먹던 멜로디가 별안간 포크를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도 모르고, 멜로디는 제 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입술이 서서히 위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십니까?”

카이사르가 얼른 다가와 묻자, 멜로디는 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휘어 웃으며 마치 선언하듯 말했다.

“카이사르, 준비해요. 드디어 오늘 우리 아기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카이사르는 눈을 크게 치뜨더니 손끝을 잘게 떨었다.

“진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하하하!! 드디어 오늘이로구나!!! 드디어 오늘이야!!!!”

어머니는 신이 난 반면, 아버지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식은땀을 흘렸다.

엘레나와 클레어는 얼굴을 마주 보며 어깨를 으쓱였다.

클레어는 초조하여 안절부절못하는 카이사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그를 안심시키고자 입을 열었다.

“대공.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한시가 급하니 빨리 움직여요. 파란눈 일족은 성격이 급해요.”

“……?”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말이란 말인가?

카이사르가 의문 섞인 눈빛으로 클레어를 바라보자, 엘레나가 거들었다.

“성격이 급해서 아이를 낳는 것조차 후딱후딱 빠르게 해치운다는 소리니, 그대는 어서 가서 예정된 유모와 의원을 데려와요.”

그때, 멜로디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오오! 카이사르, 빨리요! 진짜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아이 정말, 무슨 진통이 오자마자?!”

“대공, 뭐 하고 섰어요?!”

온갖 전쟁을 다 겪어 본 카이사르였으나, 지금만큼 혼이 쏙 빠지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다.

클레어와 엘레나가 멜로디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자, 카이사르는 재빨리 시녀장을 찾아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폐하께서 바로 아이를 낳으실 것 같으니, 어서 준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멜로디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드디어!! 임신에서 해방이야!!”

그러자 클레어의 성난 질책이 곧장 날아들었다.

“일생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소중한 순간이니, 그렇게 방정맞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어? 잠시만, 잠시만! 아이가 나올 것 같아!!!”

문을 뚫고 나온 믿을 수 없는 외침에 시녀장은 졸도할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시녀장, 당장 가서 의원을 데려와라. 그대는 유모를 데려오고, 그대는 출산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와.”

“예!!”

늘 아랫사람들에게 존칭을 사용하던 카이사르의 말이 급격히 짧아졌다. 마치 전시에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기실 그는 현재 그런 상태였다.

“아, 진짜 아프네!!! 클레어, 진짜 아파!!!”

멜로디의 성난(?) 목소리가 우렁차게 문을 뚫고 들려왔다.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아픈데?! 분명 애가 둘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만 말씀하시고 숨을 쉬면서 힘을 주세요!”

“숨을 쉬면서 힘을 어떻게 줘?! 으악!! 잠깐마안!!! 이걸 두 번 해야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만 말하고 힘주는 데 집중해, 멜로디!!!!”

“말을 해야 덜 아프… 으윽!!!”

황제의 목소리가 꺾이자, 대공은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리며 어두운 기운을 넘실넘실 뿜어 대기 시작했다.

“도대체 의원은 언제 오는 건가?”

방금 시녀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정신없는 출산의 순간은 처음 봐…….”

누군가의 혼이 나간 듯한 중얼거림처럼,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소식을 들은 베델 공작 부부, 발할라 후작 부부와 마틸다 태후가 부리나케 황제의 궁에 도착했을 무렵.

“응애응애응애애애애, 응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응…애.”

남달리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궁을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다.

마틸다 태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눈을 깜빡였다.

“내 분명 진통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온 길이건만…….”

그때, 귀빈들의 방문 소식을 전해 들은 시녀장이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쥐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고개를 조아렸다.

“오셨습니까.”

이안이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로 대뜸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떠신가?”

고개를 든 시녀장이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대꾸했다.

“건강하십니다. 두 분 아기님들께서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경하드립니다.”

“오, 세상에!”

베델 공작 부부가 감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사이, 데이지가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기님이 두 분이실 것 같다고 늘 말씀하시더니, 정말이었네요.”

“세 분 모두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쉬가 뒤이어 맞장구를 쳤다.

그 와중에도 우렁찬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응애응애응애응애응애애애애애애애애.”

마틸다 태후가 헛웃음을 흘릴 정도로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부모를 닮아 아주 건강한 모양이야. 아이들 성별은 무언가?”

“한 분은 황자님, 한 분은 황녀님이십니다.”

귀빈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한데 울음소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듯하군?”

마틸다 태후의 물음에 시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황녀님께서 아주 우렁차십니다. 황자님께서도 건강하시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 황제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온 귀빈들 앞에 몹시 지친 듯한 안색의 대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막 전장을 누비다 돌아온 것 같은 아들의 모습에 베델 내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유모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자그마한 아이들에게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오오, 세상에…….”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6)

길게 늘어지는 실크 원피스를 입은 아이들은 신생아답지 않은 보얀 얼굴이었고, 벌써 머리카락이 복슬복슬했다.

쉬이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베델 공작의 눈가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

지친 얼굴로 얼굴을 훑어 내리다 그 모습을 발견한 카이사르는 몰래 웃으며 유모에게서 딸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고는 아버지 가까이 다가갔다.

“황녀입니다, 아버지. 한 번 안아 보시겠어요?”

베델 공작은 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를 차마 어쩌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조심스럽게 안아 보았다.

“이, 이렇게 안는 것이 맞느냐?”

엉거주춤하게 아이를 안아 든 공작이 당황한 듯 다급히 묻자, 마틸다 태후가 다가와 자세를 고쳐 주었다.

“황녀 머리가 꺾이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머리와 목을 받치세요, 공작.”

공작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사이, 공부인은 능숙하게 황자를 안아 들고 몸을 기웃기웃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쁠까……. 세상에…….”

“공작, 지금 공작의 자세가 무너지면 아이가 불편해합니다. 허리를 좀 세우고…….”

“세상에. 어쩜 어머니 아버지 좋은 점만 쏙쏙 빼닮아 인물도 잘생겼고…….”

한쪽에선 황녀를 안은 공작이 엉거주춤하여 보는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황자를 안은 공부인은 그쪽이 그러거나 말거나 황자에게 빠져 홀로 방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쉬와 데이지는 극단적으로 나뉜 양쪽을 번갈아 보다가 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결국 보다 못한 마틸다 태후가 공작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으며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태후와 공부인이 한 아이씩 안고 소파에 앉자, 데이지와 아쉬가 그들의 어깨 너머로 아이를 살폈다.

올망졸망한 얼굴이 어찌나 귀엽고 예쁜지,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폐하께서는 좀 어떠신가, 대공?”

공작의 물음에 카이사르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카이사르는 뻑뻑한 눈을 살짝 찡그렸다가 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모두 염려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무척 건강하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의아했다.

산모도 아이들도 건강하고, 진통도 오래 하지 않았는데, 대공은 어찌하여 저토록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것일까?

“한데 대공,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몹시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쉬의 말에 카이사르는 작게 헛웃음을 흘리더니 그저 웃기만 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다.

“안 돼에에!! 한 명을 더 낳아야 한다니, 이럴수가아아아!! 왜 동시에 나오지 않은 것이냐!!!”

“멜로디!!! 둘이 어떻게 같이 나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집중하라고 몇 번을 말하니!!!”

감히 황제의 존함을, 그것도 성내고 혼내듯 부르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문밖의 모두가 못 들은 척했다.

‘폐하께서 곧 욕을 하시진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성스러운 출산 전쟁의 순간이었다.

이윽고 둘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자, 누군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폐하께선 출산도 전쟁처럼 하시네.”

그 또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었으나, 카이사르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듣지 못한 척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전쟁이었으니,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벅찼다.

그때, 마틸다 태후의 품에 안겨 있던 황녀가 별안간 눈을 떴다. 보기 드문 새파란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를 닮았구나.”

제 형제가 눈을 뜬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부인의 품에 안겨 있던 황자도 눈을 떴다.

“황자님은 아버지를 닮으셨군요.”

이안은 그녀의 얼굴이 투명하게 비치는 옅은 하늘색 눈동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슬고슬한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사랑스러운 냄새가 났다. 이안은 첫눈에 반한 손자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모두가 두 아이에게 폭 빠져 있을 그 무렵.

귀빈들이 아기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에 당장 일어나 달려갈 태세를 취했던 황제는 모두의 간곡한 만류로 방에 머물게 되었다.

“귀빈들께서도 폐하를 뵙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출산 후 일주일간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 겁니다, 폐하.”

황제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클레어가 의원의 말을 빠르게 정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의원이 ‘바람직’이라 하자 엉덩이를 들썩이던 멜로디가 강경한 클레어의 표정을 보고는 슬그머니 몸에서 힘을 뺐다.

놀라울 정도로 부풀었던 배가 푹 꺼지자 살 것 같았다. 멜로디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복부를 슬슬 매만지며 히죽 웃었다.

두 녀석이 드디어 방을 뺐으니(?) 이제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리고 잠시 후,

멜로디는 고생하고 났더니 배가 너무나 고프다며 크고 두꺼운 스테이크를 야무지게 썰어 먹기 시작했다.

출산 후엔 잇몸이 약해진 상태라 스테이크를 바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원의 간곡한 간언도 꼭꼭 함께 씹어 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테이크 두 장을 가볍게 해치운 뒤 차로 입가심을 할 무렵, 귀빈을 맞이하러 갔던 카이사르가 돌아왔다.

카이사르는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를 물끄러미 보다가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간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새파란 눈동자가 어찌나 해사한지, 카이사르는 결국 웃음이 터져 버렸다.

그가 웃자 멜로디의 눈은 더욱 동그랗게 커졌다.

곧 식기를 치우던 시녀들과 엘레나, 클레어에게마저 대공의 웃음이 전염되고 말았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에 멜로디는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만. 이거 왠지 데자뷔 같고, 동시에 언짢은데.”

그녀의 말에 카이사르는 웃음을 꾹 누르며 시녀들에게 눈짓했다. 시녀들은 눈치껏 빠르게 물러갔다.

클레어와 엘레나 역시 물러가자, 거대한 방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말은 언짢다고 했으나, 멜로디의 얼굴에 언짢은 기색은 없었다. 카이사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었다.

“카이사르?”

“아무리 건강하셔도 아이를 낳았는데, 조심하셔야죠.”

“아니, 나는 정말 가뿐하다니까…….”

“엘레나 장로와 클레어 부인 말이, 제아무리 아뷔브 일족이라 한들 몸이 강철은 아니니 조심하여 나쁠 것 없다고 하더군요.”

카이사르는 부드럽게 멜로디의 입을 막은 뒤 그녀를 침대에 내려 주었다. 그러고는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이마와 눈가에 차례로 입을 맞춘 뒤, 아이들을 데려왔다.

궁이 떠나가라 울던 황녀도 어느새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고, 황자도 마찬가지였다.

멜로디는 말없이 자그마한 생명을 들여다보았다.

낳는 순간엔 그녀도 정신이 없었다. 생전 처음 겪어 보는 격통에 몸부림 치고 나니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멜로디의 넋이 나간 듯한 물음에 카이사르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멜로디는 한동안 말없이 눈만 슴벅였다. 복슬복슬한 머리카락과 올망졸망한 이목구비, 동그만 귓바퀴와 보일 듯 말 듯한 속눈썹까지.

아이들의 여린 숨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자, 어쩐지 목이 메었다.

일생에 몇 번 없는 소중한 순간이니,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던 클레어의 조언이 이제야 어렴풋이 실감 났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가 방 뺐다고 좋아한 거… 사과할게.”

눈시울이 붉어진 멜로디의 모습에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던 카이사르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은 손도 간헐적으로 떨렸다.

그러나 멜로디는 무척 진지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바뀐 몸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그랬어. 둘이나 낳아야 해서 힘들다고 한 것도 미안해. 동시에 나오지 않았다고 성낸 것도 미안하다.”

“큭큭.”

결국 카이사르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큭큭거리며 웃었다. 멜로디는 드물게 그를 흘겨보며 타박했다.

“이보게, 대공!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데 어찌하여 웃는가!”

그러자 카이사르의 웃음이 더욱 커졌다. 멜로디도 결국 그에게 머리를 기대며 함께 웃어 버리고 말았다.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부부가 한참을 웃다 보니, 어느새 두 아이들이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었다.

“황녀는 당신을 닮아 오드인 것 같고, 황자는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클레어와 엘레나는 두 아이를 보자마자 한 아이는 오드고, 한 아이는 아니라고 단정했다.

멜로디는 두 아이의 이마에 각각 입을 맞춘 뒤, 손가락으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카이사르.”

“생각해 두신 이름, 있으십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멜로디의 눈빛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멜로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 기쁜 탄생의 순간, 사랑하던 고향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당연한 축하조차 받지 못하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엄마는 행복했다, 멜로디. 나는 행복했어.”

멜로디는 잠시 입술을 그러 물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지브릴.”

그립고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

멜로디가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딸에겐 내 어머니의 이름을 지어 줘도 괜찮을까요?”

카이사르는 조심스럽게 멜로디의 뺨을 손으로 감싸 돌려 눈을 맞췄다. 가득 고였던 투명한 눈물이 툭 떨어져 그의 손가락을 적셨다.

카이사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지브릴. 저는 좋습니다.”

멜로디는 눈을 감으며 그의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카이사르, 우리 아들 이름은 당신이 지어 줘요.”

그에 카이사르는 두 손을 맞잡고 아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엘빈.”

“엘빈?”

카이사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들썩이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들었다. 살짝 울려던 아이는 아버지의 품이 편안한지 이내 고요해져 눈만 깜빡였다.

“코르벨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장군의 이름입니다. 도두 2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영웅의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지어 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멜로디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안긴 아들의 뺨을 톡 건드렸다.

“좋네요, 엘빈.”

그 순간, 저만 소외되었다 느꼈는지 별안간 누워 있던 지브릴이 우렁찬 울음을 터트렸다.

“응애애애애애애애애 응애응애응애애애애애애애!!!”

전조도 없이 터져 나오는 우렁찬 울음에 당황한 멜로디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아이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카이사르는 얼른 엘빈을 침대에 뉘어 놓고 지브릴을 일으켜 안아 들었다.

“쉬이 쉬이.”

“응애으애애애애 흐에에에 응애애애애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유모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대기하지 않아도 들렸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더니 얼른 들어와 황녀를 안아 들었다.

“어허, 그 울음이 너였구나.”

멜로디는 혼이 쏙 빠진 얼굴로 계속 흐느끼는 딸을 바라보았다.

“응…애.”

그 와중에 엘빈은 한 번 울더니 다시 잠들었다.

어쩐지 황녀의 유모를 맡게 된 이의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변하는 듯했고, 황자의 유모를 맡게 된 이의 얼굴은 활짝 피는 것 같았다.

운명이란 때론… 제비뽑기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7)

베델 공작 부부의 손주 사랑은 실로 엄청났다. 황실에서 따로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더불어 제국 최고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발할라 후작의 물량 공세가 이어졌고, 아뷔브 공작도 뒤질세라 온갖 진귀한 것들을 보내 오니, 그야말로 황녀와 황자의 물품이 차고도 넘쳤다.

결국 보다 못한 황제가 발할라 후작과 아뷔브 공작에게 “그만해.”라고 의사 표현을 하고서야 물량 공세는 끝이 났다.

다만, 황제도 차마 베델 공작 부부에겐 그만하란 말을 하지 못하였다.

“로아야, 그렇게 예쁘니?”

리아나는 능숙하게 엘빈을 안아 들고 몸을 기웃기웃 움직이며 웃었다. 그녀의 곁에 매달려 눈을 반짝이던 로아가 쑥스러운 웃음을 매단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러자 멜로디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달랑 들어 올려 통통한 볼에 볼을 마주 비볐다.

“아유,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로아!”

“윽, 폐, 폐하아!”

“꼬모님, 해 봐. 꼬모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오…….”

“저번에 봤을 땐 꼬모님 꼬모님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왜 이젠 폐하야?”

나이젤은 지브릴을 안고 있는 카이사르와 대화를 나누다가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돌렸다.

그런데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멜로디가 로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래도 되나 싶어서 카이사르를 돌아보자, 그는 어쩐지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다.

“폐하께서 아직은…….”

“다음 주에 중신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십니다. 예……. 그다음 주엔 말… 아니, 아니타와 좀 놀고 오시겠다 공언하셨고요.”

“괜찮나?”

“더 말리면 암벽 타고 도망가실 것 같습니다.”

“아… 하긴. 파란눈 일족들 성미가 보통은 아니더군.”

나이젤은 지브릴의 새파란 눈동자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겨울이 되면 파란눈 일족들은 산이 너무 춥다며 종종 아뷔브 영주성을 방문(이라기 보단 침략……)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은 참다못한 리아나의 분노에 줄행랑을 치며 돌아가는 결말을 맞이하곤 했다. 나이젤은 리아나가 가시나무를 들고 파란눈 일족의 뒤를 맹렬히 쫓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카이사르는 최대한 멜로디가 산후 관리에 공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건 그의 바람일 뿐, 멜로디는 좀이 쑤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클레어와 엘레나마저 포기했으니, 이제 그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내심 제럴드나 메어 등의 일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였으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였다.

멜로디의 얼렁뚱땅 산후조리를 멀거니 쳐다보던 그들은 “이야, 우리 멜로디. 산후조리 제대로 하네?” 따위의 소리나 늘어놓았다.

결국 카이사르는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멜로디의 뜻을 존중하기로 마음먹… 체념했다.

“우리 로아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멜로디는 행여 부서질까 봐 겁이 나서 제 아이들은 제대로 안지도 못했다. 반면, 로아는 이제 부서질 것 같지는 않은지 이리 안았다가, 저리 안았다가 난리도 아니었다.

로아도 그게 좋은지 깔깔거리고 웃었다.

“꼬모님!!!”

기어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멜로디는 로아를 놓지 않았고, 방 안엔 웃음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데이지도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 어머니를 닮은 금발과 금안이 인상적인 사내아이였다. 발할라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데미안이라 지었다.

멜로디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발할라 후작의 물량 공세 못지않게 출산 축하 선물을 보냈다.

마틸다 태후는 데이지의 아이까지 품에 안아 얼러 보다가 싱긋 웃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같은 나날이구나.”

더불어, 참으로 감사한 나날이었다.

\* \* \*

수풀이 잘게 흔들렸다.

뭔가가 수풀 사이에서 반짝이는가 싶었는데, 별안간 조막만 한 손이 불쑥 올라오더니 반짝이는 것을 쑥 밀어 넣었다.

로벨은 웃음을 꾹 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금살금 움직여 가까운 나무 기둥에 몸을 숨겼다.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수풀 틈을 살피자 올망졸망한 어린아이 셋이 몸을 웅크린 채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슬복슬한 금발 셋이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너무 귀여웠다.

“데미안, 머리를 그러케 내밀면 다 아라챈다고.”

“그러타고 내 머리를 그러케 꾹 누르고 그래여?!”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와서 그래?”

“나도 데려가.”

“뭐라는 거야, 데려 왔짜나!”

지브릴과 데미안이 다투듯 목소리를 높이자, 곁에 있던 엘빈이 손을 휘저어 둘을 말렸다.

“조용히 해!”

엘빈의 중재에 지브릴과 데미안은 서로를 불만스럽게 쳐다보았으나, 더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브릴은 고개를 획 돌려 기사들을 살폈다.

“아, 오늘은 안 싸우나?”

곁에 서 있던 로벨은 웃음이 터질 것 같아 얼른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몰래몰래 이쪽을 살피고 있는 미하엘과 마츠에게 작게 손짓하며 입 모양으로 말했다.

‘너희 둘, 좀 싸워 봐!’

그의 신호에 미하엘은 어깨를 으쓱이며 목검을 챙겨 들었고, 마츠는 어색한 웃음을 입에 걸며 작위적인 목소리를 냈다.

“음음, 그럼 미하엘! 오늘 나와 한판 붙어 보겠는가?”

미하엘은 거구의 사내를 한심하다는 듯 일별했으나, 이내 장단을 맞춰 주었다.

“좋지! 오늘도 나의 승리다!”

두 사람의 작위적인 모습에 곁을 지나던 기사들은 몸서리를 쳤으나, 세 명의 어린 귀빈들은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우와, 우와!”

곧 귀빈들께서 고대하시던 시범 시합이 시작되자, 로벨은 가까이 있던 종기사를 손짓하여 부른 다음 속삭였다.

“폐하께 가서 황녀님, 황자님, 발할라 후계 모두 이곳에 있다 전해드려.”

종기사는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빠르게 몸을 돌려 사라졌다.

“우와아!”

연무장엔 귀빈들의 숨죽인(?) 환호가 연달아 이어졌다.

중신 회의가 한창이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펜촉이 굴러가는 소리와 안건을 상정하는 중신의 목소리가 고루 섞여 회의장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다소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운 가운데, 별안간 다급한 발소리가 회의장의 공기를 깨트렸다.

멜로디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미간을 문질렀다. 그녀뿐만 아니라 중신들도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바라보았고, 한창 안건을 상정하며 회의를 이끌던 중신은 아예 자리에 앉아 버렸다.

“내 과거에 대한 대가인가……. 아버지, 늘 이런 기분이셨군요.”

황제의 회개에 베델 공작을 비롯한 나이 지긋한 중신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삼켰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장 문이 열리며 울기 직전의 죄 많은 유모 세 사람이 들어왔다.

어쩌다가 황족의 유모를 맡아서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멍에를 쓴 채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가. 따흐흑.

멜로디는 몇 년 사이 폭삭 늙어 버린 유모들을 차마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훑어 내렸다. 카이사르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했다.

발할라 후작 부부도 유모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좀 까칠하긴 해도 집에 있으면 조용한 편인 아들이 황궁에만 오면 황녀와 황자를 따라다니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데미안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그들과 노는 일이기에, 부부는 유모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입궁하는 날이면 아이를 데려왔다.

황제가 울기 직전의 유모들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애들이… 또 없어졌는가?”

끄덕끄덕끄덕.

“내 어린 시절 쓰던 궁 뒤뜰.”

도리도리도리.

“북쪽 암벽 인근.”

도리도리도리.

“식자재 드나드는 서쪽 출입문 인근.”

도리도리도리.

“마구간.”

도리도리도리.

중신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원죄의 발단은 폐하시구나.

황족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을 어쩜 그리 잘 아시는지. 마구간이 웬 말이야.

그때, 침묵하던 카이사르가 입을 열었다.

“오늘 군단장 세 사람이 관저로 출근했습니다. 며칠 전 지브릴에게 제가 말해 주었고요. 묻기에 생각 없이 대답해 주었는데…….”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로구나.

부부의 판단은 잠시 후 종기사의 등장으로 확인되었다.

우거진 나무에 쪼개진 햇살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빛의 조각을 만들었다.

지브릴의 새파란 눈동자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동시에 아이의 어깨와 몸도 들썩였다.

아이의 눈은 놀랍게도 군단장들의 빠른 검의 궤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소녀의 곁에 있던 쌍둥이 엘빈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는 숨 쉬는 것도 잊을 만큼 집중하여 군단장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로벨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생각했다.

‘부모의 피가 어디로 가겠어.’

한참이나 공방전이 이어지자, 데미안은 지겨운지 아예 땅에 앉아 풀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검지에 긴 풀을 휘감아 툭 끊어 내는데 한층 짙은 그늘이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데미안이 말간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었다.

금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이내 표정이 확 밝아졌다.

“아버디!”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를 가진 아버지가 그를 굽어보며 뽑아 들듯 들어 올렸다.

한창 집중하고 있던 지브릴과 엘빈이 발작하듯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

“……!!”

그늘진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두 아이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8)

“지브릴 코르벨라. 엘빈 코르벨라.”

어머니 곁에 서서 팔짱을 낀 아버지의 표정도 엄격했다.

한 가지 희망이라면 아버지 곁에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인지라, 지브릴과 엘빈의 시선이 자꾸만 그에게 향했다.

베델 공작만큼은 엄격한 부모님과 달리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두 아이의 눈동자에 서러운 울음이 차올랐다.

눈이 벌겋게 변해 입술만 달싹이는 두 녀석의 모습에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파란눈 일족의 피가 들끓어서 그래요. 욕구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랍니다. 황궁 안에만 있어서 답답했던 것, 폐하도 기억하시죠?”

“그럼 엘빈은 왜 그래, 클레어?”

“오드로 발현이 안 된 것뿐이지, 황자님도 폐하 자녀시잖아요.”

클레어의 조언을 반추하던 멜로디는 결국 입고 있던 재킷 단추를 툭툭 풀어 벗으며 카이사르에게 눈짓했다.

“대공, 오랜만에 한번 해 볼까요?”

멜로디의 의사를 알아들은 카이사르도 입고 있던 재킷을 벗으며 아이들 들으라는 듯 말했다.

“좋습니다.”

반쯤 울먹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두 아이가 고개를 치켜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싱긋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카이사르는 손쉽게 두 아이를 들어 올려 안은 뒤, 수풀을 헤치고 연무장으로 나왔다.

“이 녀석들. 그렇게 궁금했어?”

진작부터 그들의 방문을 눈치채고 있던 미하엘과 마츠가 웃음 섞인 표정으로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로벨이 얼른 아이들과 귀빈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자, 카이사르는 아이들을 그곳에 앉혀 주었다.

“잘 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련하는지.”

황제 부부가 각자 목검을 들고 적당한 위치에 서자, 소식을 들은 관저의 기사들까지 구름 떼처럼 몰려나왔다.

오드의 대련을 놓칠 수야 없지!

대련이 시작되자 지브릴과 엘빈의 눈동자가 달아올라 번뜩였다.

베델 공작은 손주들의 여린 등을 다정하게 쓸어 주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데미안은 졸린지 슬슬 눈을 감았다. 아뷔브 쿼터인 두 황족의 뒤를 쫓는 것이 아직 어린 데미안에게는 적지 않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아쉬는 아이가 편하도록 몸을 고쳐 앉으며 신난 얼굴로 검을 맞대는 황제 부부를 바라보았다.

꽈광!

어떻게 목검이 부딪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두 사람 모두 어찌나 빠른지 움직임을 눈으로 좇을 수도 없었다. 보이는 것은 하나, 생명력으로 달아오른 부부의 밝은 표정뿐이었다.

베델 공작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두 사람의 검술 실력을 차치하고, 손주들을 살폈다.

‘역시…….’

두 녀석은 숨도 안 쉬고 부모의 대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검술을 온몸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그날 밤.

멜로디는 침대 헤드에 어슷하게 기대앉아 뭔가를 고민하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카이사르.”

“음?”

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카이사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손으로 턱을 매만지다가 그를 마주 보며 머릿속으로 맴돌던 말을 꺼냈다.

“아뷔브에 다녀오는 거 어때요? 애들 데리고.”

두서없는 말이었으나, 내심 아이들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카이사르는 듣자마자 그녀의 뜻을 알아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뭐랄까, 좁은 유리병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궁 뒤뜰을 수십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뛰어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

카이사르는 높은 성벽을 훌쩍 뛰어내려 성 밖으로 도망치던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니타와 함께 드넓은 광야를 내달리며 온몸으로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는 멜로디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갈까요? 당분간 급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일정 조율해서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사랑하는 멜로디는 곧장 튀어나오는 즉답에 씩 웃으며 그의 입술에 입을 쪽 하고 맞췄다.

“역시 아주 빨라. 어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들 수가 있지?”

그러자 카이사르가 그녀의 뺨을 잡아 깊게 키스하며 그녀 위로 올라왔다.

“이것도 좋으십니까?”

그의 도발적인 말에 멜로디는 배시시 웃다가 이내 그의 목에 팔을 휘감았다.

이러다가 셋째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속에서 잘게 부서졌다.

\* \* \*

그리하여 효율과 빠름의 대명사 황제 폐하께서는 무려 3주일 치의 일을 단 4일 만에 끝내셨다.

대공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 무시한 속도로 일 처리를 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냐 탄원했다.

관련된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일 처리에 비탄하는 사이, 몹시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모들이었다.

“며…며칠이나 걸리신다고요, 폐하?”

“한 삼 주?”

“삼 주?!!”

“…….”

“…오, 오오. 세상에. 그사이 황녀님 보고 싶어서 어쩌지요오?”

“…….”

“가만있어 봐, 일단 제가 짐을 좀 챙길게요. 삼 주, 삼 주면… 으흐흐. 흠흠.”

‘거, 입꼬리부터 내리고 말하지 그래.’라고 하고 싶으나, 황제는 그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너그러이 못 본 척했다.

그리하여 황제 부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황궁을 나설 때, 유모 두 사람은 손수건을 흔들며 눈물을 흘려 댔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오오!”

“잘 다녀오셔야 해요오!”

베델 공작 부부도 친히 배웅을 나왔다. 이안은 아이들의 옷차림을 꼼꼼히 신경 쓰며 당부했다. 특히, 지브릴에게.

“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넵!”

“아무것이나 덥석덥석 주워 드셔도 안 돼요.”

“넵!”

“어디 가고 싶으시면 꼭 어머니나 아버지께 알리세요.”

“녜!!”

지브릴의 우렁찬 대답을 들었음에도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한 것인지.

이안은 멜로디에게 당부를 하려다가 지브릴과 똑같은 새파란 눈에 재미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얼른 우회하여 아들을 바라보았다.

“대공.”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러나 이안은 믿었던 아들이 거대한 말에 손자를 태우고 달려 나갈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는 비탄에 잠겼다.

아들조차 그러하니, 멜로디와 지브릴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안장에 앉아 있었다. 지브릴은 신이 나서 짧은 다리를 허공에 붕붕 내저으며 두 손을 치켜들었다.

이안은 덜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폐하, 황녀를 좀 안전하게 잡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안장 없이 타는데, 너랑 같이 타려고 안장 채운 거야. 지브릴.”

이런 말을 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꺄아아아! 출발! 출발이요, 어머니!!”

지브릴이 기세 좋게 앞을 가리키며 외치자, 아버지의 품에 있던 엘빈도 손을 치켜들며 외쳤다.

“아버지, 가요!!!”

멜로디는 아이들의 채근에 화통하게 웃으며 외쳤다.

“성문을 개방해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이 거대한 입을 열었고, 멜로디를 태운 말이 빠른 구보를 시작했다.

멜로디는 허리를 숙여 지브릴의 뒤통수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자, 지브릴. 정면을 보면서 말의 움직임에 온몸을 맡겨.”

하나, 지브릴은 이미 전방을 주시하며 두 손으론 말의 목덜미를 가볍게 쥐고 있었다. 본능과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멜로디는 아이의 모습에 낮은 웃음을 터트렸다.

“아주 좋아. 이제 달릴 거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렴.”

“네!!!”

아이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을 태운 말이 속도를 높였다. 엘빈을 태운 카이사르도 그녀에게 뒤지지 않게 말을 몰았다.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태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속도로 말을 내달려 사라졌다.

두 기의 말이 내는 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

“…….”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도, 남겨진 유모들과 베델 공작 부부도 멍하니 네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베델 공작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괘, 괜찮을 거요.”

“…….”

그러고는 연민이 묻어나는 얼굴로 곁에 서 있던 유모들을 돌아보았다.

“자네들이 고생 많군.”

유모들은 얼떨떨한 얼굴로 공작을 마주 보다가 생각했다.

‘내가 지금껏 어린 맹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래, 그랬던 거야. 따흐흑.

\* \* \*

처음 부모님과 궁 밖으로 나온 지브릴과 엘빈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이들의 흥분은 아뷔브 초입에서 아니타와 볼테르를 만난 무렵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전대 홀리 왕이 죽어 새로운 왕이 된 아니타가 한껏 고개를 치켜들며 자태를 뽐내자, 지브릴은 홀린 것 같은 눈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나, 나, 나 좀 태어줘어.”

아니타는 도도하게 고개를 치켜든 채 눈을 굴려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그에 멜로디는 아주 정중히 고개를 기울이며 부탁했다.

“나랑 같이 좀 태워 줄래?”

멜로디의 정중한 부탁에 아니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두 사람 주위를 맴돌더니, 우아하게 다리를 구부려 육중한 몸을 바닥에 대고 앉았다.

급격하게 낮아진 눈높이에 지브릴은 황홀한 표정으로 아니타를 마주 보다가 녀석의 얼굴을 와락 끌어안았다.

콧대 높은 녀석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 싶어 멜로디가 눈을 가늘게 뜨며 둘을 살피는데, 웬일로 아니타는 얌전히 지브릴의 포옹을 받아들여 주었다.

곧이어 지브릴은 멜로디가 말하기도 전에 얼른 아니타의 등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녀석의 갈기를 살그머니 잡아 쥐었다.

“호오. 카이사르, 이쪽은 성공…….”

볼테르 쪽은 어떠하냐 묻기 위해 고개를 돌린 멜로디의 눈에, 이미 녀석의 등에 올라앉아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두 남자가 들어왔다.

엘빈은 해사한 웃음을 입에 건 채 볼테르의 목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

“나랑 카이사르 자식들이라고 봐주는 건지, 뭔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59)

멜로디는 가벼운 마음으로 얼른 아니타의 등에 올랐다. 그러자 아니타는 긴 다리를 세워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돌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갈기가 뺨을 간질였다.

“아니타, 지브릴과 엘빈이 아직 어리니까 되도록 평평한 길로 부탁해.”

푸르르르릉.

투레질이 마치 ‘알았어!’라고 하는 듯했다.

“지브릴, 잘 잡아. 엘빈, 너도! 가자!”

멜로디가 녀석의 목덜미를 가볍게 두드리자, 아니타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내 녀석의 강인한 네 다리는 거친 비탈면을 빠르게 박차고 올랐다.

두 기의 홀리와 네 사람은 햇살이 쪼개져 비쳐드는 울창한 산림, 두서없이 자란 나무와 예기치 못한 바위 더미 사이를 부드럽게 유영했다.

지브릴과 엘빈의 작은 심장이 거세게 맥동했다. 뺨을 간질이는 홀리의 갈기와 아뷔브를 스쳐온 청량한 바람, 온몸으로 스며드는 오드.

지브릴의 온몸이 달아올랐고, 엘빈의 하늘색 눈동자에 점점 새파란 빛이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녀석들의 반응을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예민하게 알아챘다.

멜로디는 아뷔브 줄기 어느 곳에서 아니타를 멈춰 세웠다. 지브릴을 안아 땅에 내려 주자, 카이사르도 엘빈을 데리고 볼테르에서 내렸다.

“자, 멜로디. 그럼 우리 한번 뛰어 볼까?”

“뛰어요?”

“그래. 뛰면 얼마나 즐거운데. 너는 정말 잘 뛸 거야. 엄마를 따라와.”

“좋아요!!”

곱게 접은 추억의 한 자락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을 스쳐 갔다.

멜로디는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든든했던 어머니의 등을 떠올리며 곁에 선 지브릴과 엘빈을 굽어보았다.

발갛게 달아오른 뺨, 새파랗게 차오른 오드의 충만한 푸름에서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얘들아, 우리 한번 뛰어 볼까?”

“뛰어요?”

“그래. 뛰면 얼마나 즐거운데. 너희는 정말 잘 뛸 거야. 엄마를 따라와.”

엘빈과 지브릴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가 동시에 그녀를 돌아보며 외쳤다.

“좋아요!!”

멜로디가 카이사르를 돌아보자, 그는 어서 출발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멜로디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아뷔브의 깊은 산자락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여섯 살 아이들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브릴과 엘빈은 삽시간에 멀어지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하더니 씩 웃었다.

아이들은 튕기듯 달리기 시작했다. 빠르게 발을 움직이다가, 너른 바위가 나타나면 가볍게 뛰어넘었다. 깊은 산자락에 우거진 나뭇가지는 그들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천천히, 느리게 보였다.

작은 발이 점점 더 빨라졌다. 처음 온 곳인데도 마치 예전부터 다니던 길인 것처럼 느껴졌다.

숨을 들이켜니 시원했다. 달리면서 난 땀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잎사귀들이 빠르게 그들을 스쳐 지나가고, 나무들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오르막도 서슴없이 올랐다. 때로는 나무를 손으로 잡고 멀리 도약하기도 했다.

마침 커다란 바위가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 지브릴과 엘빈은 더 빨리 달리다가 어느 순간 오른발을 세게 굴렀다. 몸이 화살처럼 튕겨 올랐다.

놀라운 도약력으로 날아오른 그들은 정확하게 바위 위에 착지했다. 아니, 착지하듯 바위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발을 굴렀다.

다시 도약한 뒤, 허공을 날았다. 이후 빠르게 지면으로 내려오던 순간이었다.

“……!!”

누군가가 재빠르게 나타났다. 지브릴과 엘빈은 이미 허공에 있었다.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비키세요!”

비명 같은 외침에도 나타난 이들은 피하기는커녕 두 팔을 벌렸다.

“걱정 마라!”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얼굴이 익숙하여 지브릴과 엘빈은 두 손을 그들에게 뻗었다.

“제럴드 할아버지!!”

“메어!!”

제럴드는 쏜살같이 날아온 작은 소녀를, 메어는 소년을 가뿐하게 받아 냈다.

그들은 새파란 눈을 휘며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안녕, 지브릴?”

“엘빈!!”

두 사람은 각자 안고 있던 아이를 바닥에 내려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날아오는 아이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안으면 놀라잖아!”

그때, 누군가가 제럴드에게 핀잔을 주며 나타났다.

“놀라지 않았어?”

“클레어!!”

지브릴과 엘빈은 클레어에게 달려가 안기며 얼굴을 비벼 댔다. 클레어는 녀석들의 옷에 붙은 작은 나뭇잎들을 떼 주며 머리카락을 살살 쓰다듬었다.

“안녕, 얘들아!”

“야, 네가 그렇게 웃으면 무섭다니까? 우리 애기들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이나 저~기 뒤로 가서 인사해요.”

“시끄러워.”

발트와 블라우가 투닥거리며 나오자, 슈테언이 두 사람을 옆으로 밀어내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안녕!”

다가온 에르데도 무릎을 구부리며 인사를 건넸다.

“지브릴, 엘빈. 잘 지냈니?”

지브릴과 엘빈은 거한의 목에 훌쩍 매달렸고, 에르데는 단숨에 두 아이를 들어 올렸다.

“아저씨! 붕붕 날게 해 주세여!”

가까이 다가온 엘레나가 새파랗게 달아오른 아이들의 눈을 보다가, 곁으로 다가온 카이사르에게 속삭였다.

“궁에서 키우기는 어려웠겠소.”

그에 카이사르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도 따분해하여 데려 나온 참입니다.”

그때, 산비탈 위에 서 있던 멜로디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그들에게 소리쳤다.

“아, 다들 제겐 인사도 안 건네시고 너무하시네!”

그러자 메어, 발트, 블라우가 깔깔거렸고, 다른 이들도 피식피식 웃어 댔다.

“멜로디, 오랜만!”

“멜로디, 안녕!”

“잘 지냈니?”

정신없이 쏟아지는 인사에 멜로디는 화통하게 웃어 젖혔다.

“어머니!!”

그때, 에르데의 품에서 벗어난 지브릴과 엘빈이 단숨에 그녀에게 달려갔다. 멜로디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 들었다가 내려 주었다.

아이들 주위로 금빛 오드가 별 가루처럼 반짝이는 게 보였다.

아뷔브가 아이들을 반기고 있었다.

멜로디는 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두 녀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자, 이제 다시 마을까지 달려 볼까?!”

“네에!!!”

멜로디와 아이들이 달릴 태세를 갖추자 카이사르도 얼른 그녀 곁으로 다가왔고, 일족들도 몸을 낮췄다.

멜로디는 곁으로 다가온 홀리 두 마리와 일족을 둘러보다가 별안간 외쳤다.

“그럼 출발!!”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은 산을 내달렸다.

거친 비탈과 울퉁불퉁한 바위, 길고 짧은 수풀까지. 그 무엇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멜로디는 조금 속도를 늦춰 각자 빠르게 달리는 이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보다 찬란하고 소소한 행복이 그들을 감쌌다. 등을 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바람이 온화했다.

마치 어머니와 함께 처음 산을 내달렸던 그날처럼.

멜로디는 그녀의 등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을 느끼며 새파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 뛰었다.

\* \* \*

맹수를 우리에서 풀어 주기 작전 혹은 어린 맹수 달래기 작전은… 예상했을지 모르겠으나 실패했다.

드넓은 벌판을 보기 전까지, 어린 맹수는 제가 살던 좁고 답답한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더랬다.

그러나 성 밖은 드넓고 자유로웠으며, 무엇보다도…….

“홀이.”

지브릴이 새파란 안광을 번뜩이며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로아가 정정해 주었다.

“홀리.”

“홀이.”

“홀. 리.”

“…나 지금 그렇게 발음하고 이꺼든?”

발끈하는 시퍼런 눈빛을 본 로아는 매년 성을 침략하는 파란눈 일족들을 떠올리며 얼른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래, 그러네.”

반면, 데미안은 억울한 눈으로 사촌들을 훑어보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호이, 그게 먼데여?”

“호이 아니고 홀이.”

“그게 머냐고.”

데미안의 물음에 엘빈이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했다.

“말 같은 거야.”

그러자 지브릴이 발작하듯 떨며 외쳤다.

“홀이가 어떠케 말이야?!”

“생긴 게 말이잖아. 그럼 머라고 설명해?”

“느낌이 다르자나, 느낌이. 홀이는…….”

지브릴은 아뷔브의 거친 산비탈을 평지처럼 내달리던 아니타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니타의 강인한 생명력과 힘을 온몸으로 느껴 본 소녀는 꿈을 꾸듯 몽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비브의 주인이여써.”

“…….”

“…….”

“…….”

부모를 닮아 머리가 좋은 데미안은 지브릴의 발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로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로아 아비브 형아.”

“응?”

“나젤 땀촌이 주인 아니고 말이 주인이어써?”

그러자 로아가 싱긋 웃더니 대답했다.

“아뷔브는 모두의 아뷔브야, 데미안. 홀리도 아뷔브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아뷔브 호랑이도 아뷔브가 자기 것이라 여겨. 아버지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대표하시는 분이야.”

로아의 의젓한 대답이 선뜻 이해 가지 않았던 데미안이 “아비브, 아비브…….” 하고 중얼거리더니, 별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억울한 듯 외쳤다.

“나 빼고 다들 아비브 갔어써여?!!”

“…….”

“지브일!!”

“야… 너는 거기 못 와.”

“내가 왜 못 가!! 에빈!!”

“어, 갈 수 있어.”

“먼 소리야, 엘빈! 데미안이 어떠케 가?!”

“너는 가면서여??!! 흐, 흐에, 로아 형!!”

“나는 거기가 내 집…….”

“흐에에에에엥.”

데미안은 지브릴과 엘빈이 없는 궁이 이해되지 않았다. 삼 주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유모들) 몹시도 짧은 시간이었으나, 데미안에겐 야속하리만치 긴 시간이었다.

그랬는데, 사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비브인지 어딘지에 가서 호이인지 뭔지를 타고 놀았다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라고. 우에에에에에에엥.”

“잘 들어, 데미안 바랄라. 너는, 거기에, 갈 수가, 업따고!”

“아, 진짜. 지브릴! 그렇게 말하면 얘 더 운다고!!!”

“으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앙!!!”

“이것 봐, 더 울잖아!!”

“그런 거로 우는 거 아냐! 뚝!!!!!!”

엘빈은 지브릴에게 화를 냈고, 지브릴은 그러거나 말거나 울음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촌을 얼렀… 아니, 윽박질렀다.

로아는 질린 얼굴로 동생들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러고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어딘가로 달려갔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0)

베델 공작 부부는 공작의 집무실에 옹기종기 모인 아버지들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이리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공작님, 공부인.”

아쉬가 죄송하단 얼굴로 정중히 사과하자, 이안이 손사래를 쳤다.

“신세라니 당치 않아요. 그간 데미안이 얼마나 황녀, 황자를 기다렸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데미안 아버지야 그렇다고 쳐도, 로아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이안이 의문을 품은 눈으로 나이젤을 빤히 보자, 나이젤이 헛웃음을 흘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시더군요.”

“…….”

아버지의 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날을 마음대로 제정하여 눈앞의 세 남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사달의 원인은 아마도 유모들의 집단 몸살이었으리라.

유모들이 앓아누운 사이, 신이 난 데미안과 쌍둥이들이 궁을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간간이 아뷔브 공자도 가세한다던가.

진저리가 난 표정으로 아이들을 각자의 아버지들에게 떠안긴 채 등을 떠미는 황제의 얼굴이 환상처럼 그려졌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세 남자의 기가 막힌 눈빛엔 분명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맞섰겠지.

‘아니꼬우면 황제 하든가.’

이런 의미를 꾹꾹 눌러 담아서.

그리고 발할라 후작과 아뷔브 공부인은 황제의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었으리라.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극성을 가장 손쉽게 누를 줄 아는 이의 집을 무작정 찾아온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노크와 함께 문이 빼꼼 열리더니 녹음을 닮은 아이가 들어왔다. 나이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게 변했다.

로아는 아버지를 힐끔 일별한 뒤, 저택의 주인 부부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베델 공작님, 공부인.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죄송할 것 없어요, 공자. 그래, 무슨 일 있나요?”

이안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춘 채 묻자, 로아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아주 모호한, 하지만 이 자리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꺼냈다.

“아수라장이에요. 도와주세요.”

이안은 로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는 온화한 성정의 부모를 닮았다.

나이젤은 이안의 손을 잡고 걷는 아들을 지켜보다가 카이사르에게 속삭였다.

“로아가 아무리 얌전해도 일족의 피가 섞여서 그런지 저렇게 손잡고 걷지는 않거든. 공부인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네.”

카이사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블라우와 발트, 메어가 어머님과 티타임을 가졌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보고도 못 믿을 소리군.”

블라우, 발트, 메어. 그 셋이 티타임이라니.

로아의 손을 잡고 별채에 들어선 이안은 입구까지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헛웃음을 터트렸다.

아수라장이라던 표현은 정확했다.

공부인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온 아버지들은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소음에 멀거니 눈만 껌뻑였다.

“이 녀석들, 아주 신이 났구나.”

공부인은 어깨를 반듯하게 편 채 우아한 모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더욱 커졌다.

“에빈 이겨라, 지브일 이겨라!!!”

아쉬는 선명하게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멈칫하며 카이사르를 바라보았다.

“…….”

“…….”

나이젤이 어색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대련과 관람의 현장인 것 같은데…….”

카이사르가 얼른 계단을 두어 칸씩 건너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문을 연 것은 이안이었다. 이안은 다급한 카이사르와는 달리 몹시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땐, 새파랗게 어린 맹수 두 녀석이 몸을 낮춘 채 서로에게 달려들기 직전이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이라면 으레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기 마련일 테지만 이안의 반응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다.

“어머나~?”

다정한 음성에 나름 첨예하던 분위기가 와장창 깨졌다.

소파 등받이에 걸터앉아(아쉬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다) 열심히 응원하던 데미안도, 서로에게 달려들기 직전이던 쌍둥이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휙 돌렸다.

이안은 그녀에게 시선이 집중되자 세 녀석을 차례차례 돌아보며 말했다.

“데미안, 그곳에서 내려오렴. 지브릴, 바로 서고. 엘빈, 눈에서 힘을 빼렴.”

음성은 다정했으나 단호했다. 웃고는 있으나, 엄격했다.

커다란 체격의 아버지들조차 그녀의 음성에 저도 모르게 몸가짐을 바로 할 정도였으니, 아이들은 어떠할까.

세 아이는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이안은 다시 세 아이와 눈을 차례로 맞추며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대련은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란다. 응원도 마찬가지.”

“…….”

“대답해야지?”

이에 세 아이는 또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녜.”

“넵.”

“네.”

이안은 그제야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을 풀면서 로아에게 말했다.

“공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오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어 드리지요.”

“네, 공부인!”

로아가 신난 얼굴로 책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자, 세 아이도 얼른 그녀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저는요?”

“할머니, 저도요!”

“함머니, 나도 읽고 시퍼요!”

이안은 곱슬곱슬한 금발 셋을 굽어보다가 그들의 등 뒤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다.

“자기가 어지른 것을 먼저 정리하는 사람부터, 책을 고를 권리를 드리지요.”

그러자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빠르고 착실하게 어지른 것을 정리하였다. 그것은 마치 마법 같았다.

잠시 뒤, 이안의 왼쪽엔 데미안과 로아가, 오른쪽엔 지브릴과 엘빈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다.

“함머니, 함머니! 방금 일근 책, 다시 들려 줘여!”

막 읽은 책이 몹시 재미있었는지 데미안이 손을 번쩍 쳐들며 말하자, 민망해진 아쉬가 아들을 만류했다.

“데미안, ‘공부인’이라고 정중히 불러야지.”

“그치만 나도 함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데미안.”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던 이안이 부드러운 눈짓으로 아쉬를 말렸다. 그러고는 데미안을 굽어보며 말했다.

“그럼. 데미안도 할머니라 불러도 되지. 공자, 공자도 할머니라 부르고 싶으면 그리 부르도록 해요.”

이안의 허락에 기분이 좋아진 데미안이 그녀의 팔에 뺨을 비비자, 아쉬는 연신 손으로 턱을 매만지며 입술을 축였다.

“재무대신, 그리 안절부절못할 것 없어요. 난 손주들이 넷이나 생긴 것 같아 즐거우니.”

아닌 것이 아니라, 이안은 정말로 네 아이를 모두 친손자처럼 대했고, 손쉽게 다뤘다. 아수라장 같던 현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워졌고, 그녀는 네 아이를 동시에 재우는 데에도 성공했다.

아버지들은 침대에 옹기종기 누워 잠이 든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동시에 이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까짓 것이 별거냐는 듯 여유롭게 웃었다.

과연, 파란눈 일족 최고의 말썽꾼 셋을 찻잔 앞에 앉히는 데 성공한 사람다운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네 아이는 종종 베델 공가에 모였다. 로아는 가끔 빠졌으나, 수도에 사는 사촌 셋은 주말만 되면 베델 공가에서 머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일단 주말의 자유를 얻은 유모들의 삶의 질이 급상승했으며, 본디 사람 많은 것을 좋아하는 이안도 아이들이 오는 주말을 사랑했다. 헨베스트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

“할아버지이!!”

이안은 문을 박차고 달려오는 지브릴과 엘빈을 향해 마주 달렸다. 멈춰 서서 두 팔을 활짝 펴고 기다리니, 생명력으로 가득 찬 아이 둘이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며 허리를 끌어안았다.

“오구, 내 강아지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안의 볼에 입을 맞춘 쌍둥이가 이번에는 그녀의 곁에서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온몸을 날렸다.

“어허허, 오셨습니까?”

지브릴과 엘빈이 할아버지의 뺨에도 각각 입을 맞추고 뒤로 물러날 때였다.

“할머니!!!”

쌍둥이의 목소리에 뒤질세라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안은 지브릴과 엘빈에게 그랬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서 두 팔을 펼쳤다.

“어서 오너라, 데미안!”

데미안은 공작 부부에게 줄 선물을 시종에게 건넨 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안을 향해 달음박질쳤다. 이안은 사랑스럽게 빛나는 금안의 소년을 친손자처럼 안아 주었다.

“어머나, 일주일 새 또 자랐구나?”

그러자 소년은 얼른 쌍둥이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황녀, 황자보다 자랐어요?”

그의 물음에 이안은 소년과 눈을 마주한 뒤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이 가장 나쁘다고 했었지?”

그러자 데미안이 머쓱하게 웃으며 답했다.

“비교요.”

“너는 너로 충분하단다, 데미안. 체력을 쌓는 것은 좋으나, 황녀 황자와 몸으로 겨뤄 이기려 들지는 말렴. 네가 잘하는 걸 찾아. 그러면 돼.”

“저는 뭘 잘해요?”

금안에서 강한 인정욕이 흘러넘쳤다. 이안은 빙긋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셈을 잘하지. 어린데도 돈에 대한 이해가 빠르니 아마도 돈을 아주 잘 모을 것 같구나. 무엇보다도 너는 정의로워. 비열한 수를 쓰지 않아. 내 생각에 너는 많은 돈을 벌어 누구보다 의롭게 그것을 쓰는 사람이 될 것 같단다.”

“그건 대단한 건가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지.”

데미안이 그렇게 말하자, 지브릴이 씩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그럼, 데미안. 너는 대단하지. 코르벨라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안과 헨베스트는 손녀의 발언에 서로를 바라보았다가 그녀를 다시 돌아보았다. 새파란 눈동자에 깃든 기운은 고작 여덟 살 소녀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헨베스트의 시선이 엘빈에게로 향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1)

소년은 누이의 말이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사촌의 등을 툭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끝낸 게임 하러 가자.”

“이번엔 내가 이긴다.”

“아니, 이번에도 내가 이겨. 승리는 내 거야.”

“지브릴, 맨날 너만 이기는 건 아니거든?”

“아니, 난 늘 이겨. 왜냐하면 지더라도 거기서 배워서 다시 이기거든.”

오만하게까지 느껴지는 발언이었으나, 소녀의 기세가 그것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했다.

데미안이 화가 나는 것이 눈에 보이자, 엘빈이 끼어들었다.

“그런 건 네 마음속으로나 생각해, 지브릴. 지면 지는 거지, 져도 이기는 거라고 하면 누가 너랑 게임하냐?”

데미안이 곧장 고개를 끄덕이자, 지브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곧장 수긍했다.

“듣고 보니 그러네. 미안.”

멀어지는 세 아이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헨베스트가 중얼거렸다.

“각자 기질의 발로가 확연하군.”

이안도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럼 저는 아이들을 먹일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곧 로아도 도착할 테니까요!”

황족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베델 공가가 떠들썩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아 로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드모르네의 대저택.

저택 내부의 화원에는 짙고 강렬한 색의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농밀하게 피어 있었다. 은은함과 수수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화원은, 그래서인지 숨이 막혔다.

저물 무렵의 햇살을 마주했을 때 밀려드는 알 수 없는 공허. 강렬하고도 농도 짙은 색에서 느껴지는 공허가 그대로 묻어나는 듯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화원의 주인은 화원을 의인화한 것 같은 사람이었다.

로쉐는 제국의 황후 같은 자태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었다. 한 올도 남김없이 틀어 올린 금발, 잘 다듬어진 손톱, 수도의 유행을 고스란히 담아 낸 드레스와 장신구.

그녀가 내쉬는 숨의 결마다 원색이 배어 있는 것만 같았다.

로쉐는 손끝으로 꽃을 이리저리 고르다가 결국 흐드러지게 핀 자주색 작약을 몇 단이나 잘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저택 내부에서도 가장 화사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웅장하고 하얀 문 너머, 각양각색의 화려한 꽃들이 가득한 방 가운데 하얀 석고로 만든 조각상이 서 있었다.

로쉐는 조각상의 발치에 꺾어 온 작약 다발을 내려놓았다. 발끝에서 위로 쓸려 올라간 시선이 조각의 턱 끝에 닿았을 때, 로쉐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데이모스… 내 아들…….”

로쉐는 데이모스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딱딱하기 그지없다.

누군가는 받아들일 때도 되었다 말했으나, 어느 어미가 자식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잠시 그렇게 서 있던 로쉐가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게 정말일까……?”

그때였다. 노크와 함께 사용인이 들어오더니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다.

“수도에서 온 답신입니다.”

로쉐는 서둘러 편지를 건네받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확 펼치자, 그곳엔 정갈한 글씨가 가득했다. 편지를 빠르게 읽어 내리던 로쉐의 미간이 와락 일그러졌다.

“이… 별것도 없던 타하람의 핏줄이……!”

로쉐는 분기탱천하여 서둘러 제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대한 책상에 앉아 거친 손길로 편지지를 꺼냈다. 어찌나 화가 치미는지 손이 달달 떨렸다.

데이지.

그 아이의 어디에 그토록 잔인한 면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녀는 로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로쉐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할 뿐, 로쉐에겐 현금을 운용할 권한은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현금을 쥐여 주면, 그것이 곧 권력으로 바뀌리란 것을 안다는 듯.

그뿐인가?

데이지는 단 한 번도 어미를 찾지 않았다. 일부러 아픈 척도 해 보았으나,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벌써 여덟이라지. 한데, 그 아이마저 보여 주지 않았다.

마틸다가 그녀의 손자를 안아 보았다고 했다. 심지어 이안 럭셀로 베델은 그녀의 손자로부터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밤, 로쉐는 아쉬에게 편지를 썼다.

할머니가 손자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한 번만 데미안을 보여 달라는 구구절절한 편지였다.

그러나 아쉬는 결국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보내 왔다. 데이지가 결사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제 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데이지 몰래 데려오라는 뜻인 것을 왜 몰라!!”

로쉐는 잔뜩 약이 오른 얼굴로 또다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어이 데미안을 보고야 말리라는 의지가 펜 끝에서 새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황제 부부와의 조찬 자리에서 아쉬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벌써 몇 번째인지라, 멜로디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재무대신.”

“하… 아, 예. 폐하.”

“뭐야. 고민을 물어봐 달라고 한숨 쉬던 거 아니었나?”

멜로디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아쉬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또 한숨을 푹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진짜 죄송할 때나 입에 올리고.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지 들어보 자고. 어… 설마 후작이 내 명으로 출장 간 일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폐하.”

멜로디는 물로 입을 가시며 말해 보라는 듯 손짓했다. 결국 아쉬는 차마 데이지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장모의 편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끝내 데미안을 데려올 때까지 편지를 멈추지 않을 모양입니다.”

아쉬는 난처했다. 로쉐에게 아들을 보여 주는 것이 기꺼운 일은 아니지만, 그녀가 데미안의 할머니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데미안이 베델 공부인에게 악착같이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 데미안에게 할머니가 되어 줄 수 있는 아쉬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아이가 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리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로쉐에게 할머니 역할을 바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후작은 결코 드모르네에 발길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데미안은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닌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팔짱을 낀 채로 멜로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녀들이 내준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픽 웃었다. 그러더니 아주 가볍게 말했다.

“드모르네가 몹시도 적적하신 모양이야. 적적한 것이 당연한데 말이지.”

“…….”

“감옥이란, 본디 적적한 것 아닌가?”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하는 건지.

새파란 눈동자에 깃든 냉랭함에 아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 하며 황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실언을 용서하십시오, 폐하. 제가 상황을 명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멜로디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웃었다.

“고개 들어.”

“…….”

“뭐, 이러나저러나 적적하시기야 하겠지. 음…….”

아쉬는 다른 의미로 식은땀을 흘렸다. 턱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는 황제의 냉기 가득했던 눈동자에 재미가 들어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겐 아주 기묘한 통찰력이 있었다. 설렁설렁인 것 같으나,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철사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심지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대게 저런 얼굴일 땐, 그 날카로운 심지가 발동하곤 했다.

잠시 후, 멜로디는 곁에 앉은 카이사르를 힐끔 일별하더니 아쉬를 향해 말했다.

“데미안 데리고 드모르네에 다녀와. 가서 손주를 보여드리고,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오도록.”

도무지 그녀의 의중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아쉬가 눈만 깜빡이자, 멜로디는 씩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애들도 좀 데려가고.”

아쉬는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더듬더듬 되물었다.

“황…녀, 황자 전하를 모시고 말입니까? 드모르네에 갈 것인데요?!”

그는 도와 달라는 듯 대공을 돌아보았으나, 카이사르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만 홀짝였다.

멜로디는 당황한 아쉬를 향해 키득키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적적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적적함이 그립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

“…….”

“가서 신나게 놀고 와.”

아쉬가 다시 항변하려 입을 여는 순간, 황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느덧 황제 그 자체가 되어 버린 멜로디가 이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다.

“명령이야.”

아쉬가 돌아간 뒤, 멜로디는 시녀들조차 모두 물려 버렸다. 카이사르는 생각에 잠긴 멜로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기회를 틈타 조사하시려는 것이지요?”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지는 제 남편에겐 절대 말 못 하겠다고 하더군.”

데이지는 분기마다 멜로디에게 드모르네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는 직접 로쉐를 감시하면서 드모르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했다. 사실 로쉐가 아쉬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일 또한 두 여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뿐인가?

멜로디는 로쉐가 사들인 브로치의 개수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데이모스의 조각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뭐, 그런 것쯤은 눈감아 줄 수 있다. 데이모스의 석상을 만들든, 전기를 쓰든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의문의 존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로벨 루치와 그의 휘하 정보사를 보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말에 멜로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세 녀석을 불러다가 아주 신나게, 밤새, 원 없이 놀라고 해야겠네.”

“눈치 볼 것 없이 이 방, 저 방, 마음껏 휘저어도 된다고 해야겠군요.”

부부는 똑 닮은 얼굴로 동시에 픽 웃어 버렸다.

하얗게 질린 로쉐가 넋이 나간 얼굴로 세 녀석을 바라볼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2)

그리고 두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 그대로, 로쉐는 제집을 찾아온 세 악동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애가 셋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곱슬곱슬한 금발을 하나로 묶은 소녀가 제 몸집보다 큰 목소리로 그녀를 할머니라 불렀다.

“안녕하세요.”

뒤를 이어 차분한 금발을 귀공자처럼 빗어넘긴 소년이 제법 의젓하게 인사했고,

“안녕하세요!!”

두 녀석보다는 체구가 작은 소년이 소녀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우렁차게 인사를 했다.

로쉐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아쉬를 쳐다보았다가, 그의 뒤에 서 있는 군인들을 보고는 미간을 확 일그러트렸다.

“이게 다 무언가, 아쉬 타하람! 내 손자나 고이 데려올 것이지!!”

데이지와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로쉐는 아쉬를 타하람이라 칭했다. 그녀는 아쉬만 아니었더라도 데이지가 최소한 이국의 황후가 되었으리라 종종 말하곤 했다.

아쉬는 씁쓸한 낯을 숨기며 입을 다물었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로쉐가 숨을 끌어올리며 다시 폭언을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지브릴, 데미안. 저 새 좀 봐.”

로벨 루치는 엘빈이 제 형제들의 버튼을 콕콕 누르는 장면을 보고는 입술을 씰룩였다.

“감히 내 집에 군사들을……!”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엄청 화려하게 생겼다아?!”

“책에서 보던 열대새 아니야?! 새장에 갇혀 있다니 불쌍해. 가 보자!!!!!”

목소리 큰 놈은 목소리 더 큰 놈으로 잡는다.

로쉐는 말끝을 흐리며 몸을 홱 돌렸다. 누가 제 혈육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금발 셋이 최근 들여온 앵무새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데, 그 뒷모습이 심상치 않다. 필시 아주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섬뜩함이 엄습하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 뒤를 쫓으며 외쳤다.

“안 돼!!! 이 녀석들, 물러나!!”

“어, 분수다아!!!”

“나 분수 좋아해!! 분수대에서 수영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알지?!”

로쉐가 달려가기 무섭게 녀석들은 맥락도 없이 목적지를 바꿔 정원 중앙으로 달려갔다. 로쉐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희들……! 그 분수는 그냥 분수가 아니야!!

“우와, 인어상이 번쩍번쩍해? 금인가 봐!!”

“아니야~ 금 아니야~”

“금처럼 보이거든!! 깨물어 볼까?”

로쉐는 저 눈 시퍼런 소녀가 인어상을 직접 깨물어 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잠깐.

“저 시퍼런 눈…….”

고상함이라고는 조금도 엿보이지 않는…….

로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분수대를 올려다보고 있는 소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쉬가 다급히 움직이려 하자, 로벨이 슬쩍 입을 열었다.

“일단 두고 보시지요. 우리 황녀 전하께서 어찌 행동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편, 지브릴은 갑작스럽게 제 위로 몰려든 그림자에 몸을 뒤로 돌렸다.

로쉐는 끝이 날렵한 눈매 속 새파란 눈동자를 마주 보며 헛웃음을 터트렸다. 아, 어찌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 어미의 이름을 고스란히 딸에게 물려주었다지.

“지브릴 황녀.”

지금은 드모르네의 죄인으로 전락하였으나, 로쉐는 발할라의 딸로 태어나 제국의 황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 왔던 사람이다.

온기 하나 없는 눈빛과 서늘한 말투를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이 틀림없었다.

서리 같은 기세에 눌려 울거나, 주눅 들거나, 도망치고 말리라.

로쉐는 새파란 눈동자의 소녀에게 늪처럼 검고 진득한 어둠을 내보이며 물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브릴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로쉐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지브릴과 눈을 맞춘 뒤 날카롭게 일갈했다.

“한데, 감히. 네 어찌 내게 할머니라 칭하느냐.”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데미안의 눈썹이 확 일그러졌다. 데미안이 로쉐를 향해 무어라 소리를 치려는 찰나, 지브릴이 고개를 갸웃하며 여상히 답했다.

“그게 제일 낫겠던데요.”

“……?”

“내가 무어라 불러야 할지에 대해 알아봤더니, 모든 호칭의 어감이 별로였어요.”

폐후, 폐서인, 아니면 그냥 드모르네의 로쉐.

로쉐는 예상치 못한 말에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이는 그녀에게 지브릴이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그런 호칭으로 내가 할머니를 부르면요. 할머니는 지금처럼 나한테 하대할 수 없어요.”

“…….”

“반드시 내게 존칭을 사용해야만 할 거예요.”

어디 존칭뿐일까.

죄인의 신분으로 유폐된 자가 감히 황족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로쉐를 비켜 간 햇살이 지브릴의 눈동자를 투명하게 비췄다. 제 어머니의 눈빛을 녹여 담은 듯한 새파란 빛이 로쉐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자 지브릴의 오른편으로 엘빈이, 그녀의 왼편으로는 데미안이 다가와 섰다.

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는데, 그 간극이 그들을 황족으로 보이게 했다.

지브릴은 제 곁으로 다가온 형제들을 느끼며 씩 웃었다.

“그러니 내가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낫겠지요?”

로쉐는 눈썹을 파르르 떨다가 결국은 녀석들에게서 몸을 홱 돌려 버렸다.

일단은 애들과의 실랑이를 멈추고 제집 앞마당을 침범한 군인들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군인들이 증발한 듯 사라지고 없었다.

“구, 군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지나가던 사용인을 붙잡고 날카롭게 묻자, 사용인이 별채를 가리키며 말했다.

“별채에 짐을 풀고 있습니다, 마님.”

“어디 내 허락도 없이!!”

로쉐는 성난 얼굴로 별채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 로벨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아쉬가 먼 곳에서부터 냉기를 폴폴 풍기며 다가오는 장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인사가 늦었습니…….”

“자네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여기에 황녀, 황자를 데려오다니!!”

지브릴 황녀가 있으니, 남자아이 둘 중 하나는 틀림없이 쌍둥이 황자이리라.

로벨은 모든 것이 여전한 로쉐를 차가운 시선으로 일별한 뒤 물러났다.

아쉬는 입을 꾹 다문 채 로쉐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로 별채를 손가락질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데미안, 그 애를 보는 것이었어!! 한데 이 무슨 소란이란 말이야?!”

“…….”

“나는 단지 내 유일한 손자가 궁금했을 뿐이야. 그게 그리도 잘못된 일인가? 이 쥐구멍만 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아 보지도 못했던 내 손자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죗값이란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아쉬는 데미안에게 할머니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잠시라도 흔들렸던 스스로를 질타했다.

로쉐는 아쉬가 수더분한 얼굴로 침묵하자 기세를 몰아 명령했다.

“지금 당장, 군사들은 내 집 밖으로 물리게! 황자 황녀야… 마음에 들지 않으나 별수 없겠지만. 도대체 황제는 무슨 생각으로 황자 황녀를…….”

“말을 조심하십시오.”

“…뭐?”

아쉬는 지친 얼굴을 쓸어내리며 단호히 말했다.

“폐하에 대한 불경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쉐는 그까짓 천한 것이 어찌 황제인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쉬는 그녀가 입도 벙끗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다.

“더불어 드모르네는 발할라의 영지이며, 이 저택의 주인 또한 발할라 후작입니다. 저는 후작의 권한대행 역을 이행하고 있지요. 황녀, 황자 전하의 호위 격으로 따라온 2군 휘하 기사들을 저택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또한 예의 이유로 그리하였으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쉐는 발할라에서조차 제명된 죄인이었다. 기실 드모르네의 저택을 감히 ‘내 집’이라 칭하는 것 또한 아니 될 말이었다. 아쉬는 그 점을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로쉐는 분하여 입술을 떨다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아쉬의 속을 긁었다.

“발할라가 어떤 가문인데 감히 네가 권한대행이야. 데이지, 그 애도 내 피가 아니었으면 발할라를 가질 수나 있었겠니?”

“…….”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너흰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역적의 가문인 발할라를 살린 것은 황제였고, 선황이 로쉐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는 데이지였으리라. 그러니 그녀야말로 최소한 황제와 데이지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쉬는 침묵함으로써 로쉐에게 맞섰고, 결국 로쉐는 쌩하니 몸을 돌렸다.

아쉬는 멀어지는 로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애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거야.”

떠나기 전날, 황제가 그를 불러 문서 한 부를 내밀었다. 아쉬는 문서 속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탄식을 내뱉었다.

“연금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싶지만.”

그 연금된 사람이 한때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던 인물인지라.

“저택 내부를 조사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지. 갑작스럽게 수색대를 보내 저택을 뒤지기엔… 모양이 좀 그렇잖아?”

아무리 폐위되었다 한들 그녀는 선황제의 황후였으며 현 발할라 후작의 친모이니, 멜로디에게도 데이지에게도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

멜로디는 세 악동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피식 웃더니 여상하게 말했다.

“드모르네에 온갖 것이 다 있다지? 애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탐방하고 다닐 거야. 그 틈에 정보사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대는 폐후와 아이들, 그리고 정보사 사이를 잘 살펴보면 돼.”

오르센 억양이 묻은 제국어를 구사하는 의문의 남자.

황제의 보고서에 적혀 있던 문구를 떠올린 아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막 본관으로 들어서는 로쉐의 치맛자락을 보며 중얼거렸다.

“부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3)

본관으로 들어서던 로쉐는 환영처럼 제 앞을 스쳐 가는 금발 셋의 잔상에 멈칫했다. 잘못 본 것인가 싶었으나, 아이들 뒤로 기사 몇몇이 급히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제일 뒤엔 2군단장 로벨 루치가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로쉐는 어슬렁거리는 꼴이 마뜩잖아서 로벨을 향해 화를 냈다.

“황족들이 망둥이처럼 볼썽사납게 뛰어다니게 둔단 말인가!! 이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인……!”

“우와아아! 이 커튼 좀 봐!! 반짝반짝거려!! 금을 뿌려 놓은 것은 아닐까???”

그 커튼은 안 돼!!!

로쉐는 말을 하다 말고 재빨리 아이들이 사라진 계단을 향해 달렸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아무것도!!!”

“…….”

로벨은 전광석화처럼 사라지는 로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잘 뛰시네?”

그리고 그가 2층으로 설렁설렁 올라왔을 때, 로쉐는 텅 빈 복도에서 새로 들여온 커튼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거의 1년이나 기다려서 받은 귀한 커튼이거늘, 올이라도 나갔으면 어찌할 것인가.

“세 분 모두 커튼을 눈으로만 보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마님.”

한 사용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로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또 뭐냐, 또 어디야!!!”

우렁찬 탄성에 로쉐가 발작하듯 떨며 두리번거렸다. 한데 황족들의 호위랍시고 온 자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로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사들을 손가락질했다.

“지, 지금 자네들도 애들을 찾고 있는 겐가?!”

그러자 어슬렁거리던 로벨 루치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세 분 모두 워낙 재빠르신지라…….”

“이 무능한!!! …가만, 왜 이렇게 조용해?”

“…….”

로쉐는 갑작스러운 적막이 두려운 듯 눈을 굴리다가 계단 위를 향해 외쳤다.

“안 돼!!”

그러고는 얼른 로벨의 등을 떠밀었다.

“빨리 찾아, 빨리!!!”

그에 로벨의 눈이 길게 휘었다. 그는 휘하의 기사들을 향해 로쉐 몰래 눈을 찡긋거렸다. 기사들은 상관의 행태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착실히 은밀한 명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황족 셋을 찾는다’는 미명 아래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적막을 가르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와아아아아!!!”

로쉐는 로벨에게 간신히 말했다.

“3층이야. 저놈들 3층에 있…….”

“와와와!! 이리 와 봐! 이거, 물고기잖아?!!”

“4, 4층… 아…….”

“마님!”

로쉐가 벽에 등을 기대며 앓는 소리를 내자, 로벨은 입술을 들썩이다가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다.

“3, 4층까지 모조리 확인하여 세 분을 찾는다!!”

“옙!!”

로쉐는 기사들의 빠른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짚었다. 그러고는 짓씹듯이 중얼거렸다.

“황제… 도대체 내게 뭘 보낸 거야.”

그리고 그녀의 중얼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넌더리 나는 탄성이 또다시 들려왔다.

“우와아아아아아!!!”

“아아…….”

이건, 필시 꿈이리라.

제발.

무능하기 짝이 없는 2군 기사들은 그깟 애들 하나 잡지 못했다. 질려 나자빠져 버린 로쉐는 데이모스의 조각상이 있는 방으로 갔다.

그리고 놈들이 이곳만큼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적막하던 것이 그리울 정도로 저택은 소란스러웠다.

기사들의 군홧발 소리, 소악마들의 탄성 소리가 오후 내내 저택을 쩌렁쩌렁하게 울려 댔다.

로쉐는 소파에 홀로 앉아 세 녀석의 인적사항을 되짚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녀석은 지브릴. 멜로디의 딸. 어미를 빼다 박았다.

“안녕하세요?”

나름 정중하던 소년. 깔끔한 금발과… 옅은 하늘색 눈동자. 가장 차분하던 그 녀석이 제 혈육이라 믿고 싶으나, 아마도 멜로디의 아들일 터. 생각해 보니 제 아비를 닮은 것도 같고.

그렇다면 오매불망 기다리던 데미안은,

“안녕하세요!!”

그래. 그 녀석이다. 금발에 금안을 가진 소년.

“발할라의 색을 물려받았거늘, 내가 왜 너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로쉐가 중얼거리던 그때였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섬뜩해진 로쉐가 얼른 고개를 뒤로 돌렸을 때, 창 너머로 반짝이는 금발 셋의 모습이 보였다.

로쉐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창가로 달려갔다. 저놈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까 싶어서 숨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데미안만을 바라보았다.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할까?”

지브릴이 말하자, 데미안과 엘빈이 질색했다.

“너랑은 그거 안 해! 반칙 쓰잖아!”

“맞아! 눈 감고도 다 보면서 무슨 숨바꼭질이야!”

“나 반칙 안 했어! 그냥 느껴지는 걸 어쩌라고.”

“차라리 술래잡기하자!”

황자의 말에 데미안이 반색하며 손을 치켜들었다.

“좋아! 술래 정하자!”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 어때?”

황녀의 말에 데미안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대신 너희는 달리기 없어!”

세 녀석은 가위바위보를 했고, 데미안이 술래가 되었다. 로쉐는 히죽 웃으며 쌍둥이들을 향해 뛰는 손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발그레한 뺨, 짙은 눈썹, 웃을 때 한쪽만 들어가는 보조개, 자신감 넘치는 눈빛…….

로쉐의 뺨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아이는, 놀랍게도 죽은 외숙부를 닮았다. 꼭 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반드시 잡고 말 거야!”

저 투지 넘치는 목소리조차 닮았다.

로쉐는 풀숲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데미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너질 것 같은 얼굴로 데이모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무렵.

소란한 틈을 타 로쉐의 방을 은밀히 뒤지던 정보사 한 사람이 그녀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 부의 문서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는 문서를 재빠르게 넘겨 읽었고, 상부에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받아 든 로벨과 아쉬는 서로를 마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로쉐가 데이모스를 기리는 와중에도 에너지 넘치는 세 악동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 틈에 눈물도 쏙 들어가 버렸다.

로쉐는 기가 막힌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급기야 목소리를 통해 녀석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첫 번째, 엘빈 코르벨라.

이 녀석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녀석이 나머지 두 녀석을 제멋대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것 봐.”

“아니, 그건 좀 곤란하지 않아? 그것보단 이거.”

녀석은 제 쌍둥이와 사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인 베델 공작을 더 닮은 것 같다.

두 번째, 지브릴 코르벨라.

한마디로 이 녀석은 망둥이, 망아지, 행동대장이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세 번째, 내 핏줄 데미안 발할라.

로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키웠으면, 누가 봐도 차기 황제로 보이게끔 키웠을 거야.”

황녀 황자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도록, 홀로 태양처럼 빛나도록, 외숙을 닮아 훌륭한 아이를 아주 잘 키웠을 것이다.

“정통성에 있어서도 어미의 출신조차 불분명한 멜로디의 자식들보다는 데이지의 아들이 낫지.”

한데, 데미안은 제 사촌들 뒤꽁무니나 쫓기 바쁜 것처럼 보였다. 로쉐는 그게 화가 났다.

그리고 한 가지 다소 의아하고도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세 녀석이 물건을 부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만 보니 그저 입으로 탄성을 내지를 뿐, 저택이 소란한 것에 비해서 피해는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나름의 선이 있는지 과하게 위험한 행동 역시 하지 않았다. 특히 쌍둥이는 데미안에게 위험하니 주의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그것이 모두 이안 공부인 덕분인 것을 알 리 없는 로쉐는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저… 마님, 저녁을 어찌 준비할까요?”

조심스럽게 의사를 묻는 사용인 덕에, 로쉐는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 같아서는 데미안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은데, 사촌들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모양새로 보아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었다.

“황자 황녀와 데미안, 그리고 아쉬 발할라의 식사는 나와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기사들 식사는 별채에 마련해.”

“예, 알겠습니다.”

로쉐는 석양빛을 응시하다가 이마를 짚었다.

소란하기 짝이 없는 하루가 순식간에 저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온종일 저택을 쏘다닌 세 녀석은 식사 때가 되자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쉬와 마주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로쉐가 그 모습을 보고는 헛웃음을 터트렸다.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녀석들이 들어서자 파릇한 풀냄새가 훅 치밀었다. 음식을 본 세 녀석의 눈빛이 변했다.

데미안은 로쉐를 힐끔 보더니 그녀에게서 가장 먼 아쉬의 곁으로 다가갔다.

“데미안. 여기, 할머니 곁으로 오너라.”

로쉐가 아이를 다정하게 불렀으나, 데미안은 고집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마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쉬도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로쉐는 아쉬의 그런 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를 향해 나직이 일갈했다.

“저 훌륭한 아이를 응석받이로만 키우고 있는 모양이군!”

“…….”

“얼마나 나에 대해 나쁜 소리를 했으면, 손자가 할머니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는 게야!”

로쉐가 아버지에게 화를 낼수록 데미안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소년은 머릿속으로 인자하고 다정한 이안 공부인을 떠올렸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지브릴은 모른 척 남겨진 두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고 앉은 뒤 로쉐에게 말했다.

“할머니, 데미안은 그런 거 싫어해요.”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4)

로쉐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소녀를 돌아보았다. 지브릴은 망둥이 같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태도로 냅킨을 무릎에 깔고 있었다.

“데미안은 화내는 걸 싫어해요. 동화책 읽는 건 좋아하니까, 나중에 동화책 읽어 주세요.”

“…….”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지브릴은 뭐랄까, 특이한 구석이 있었다. 아직 어려 위압감, 위엄, 이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존의 후계로 태어난 까닭일까.

로쉐는 아이에게 말린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이미 앉아 놓고…….”

그러자 소녀가 머쓱한 듯 콧잔등을 찡그리며 슬쩍 웃었다. 로쉐는 소녀에게서 고개를 홱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삭막해진 분위기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지브릴이 큰 소리로 인사한 뒤 스푼을 들었다. 로쉐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소녀를 돌아보았다.

와앙.

그런 말이 어울리는 모습으로, 지브릴은 한입 가득 음식을 넣고 맛있게 먹었다. 황족이 무슨 음식을 저리 먹는지!

비딱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던 로쉐는 이내 말없이 소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와앙. 아구아구, 호로록호로록.

종일 새로운 곳을 누비며 온몸으로 논 아이에게선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곱슬곱슬한 금빛 잔머리가 이마에 가득했고, 동그란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반짝였다. 단풍잎 같은 손으로는 제법 야무지게 커트러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을 잠시도 쉬질 않았다. 통통한 뺨은 음식으로 볼록했고, 동그란 입술이 쉴 새 없이 오물거렸다.

로쉐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얼른 지브릴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옆을 보니, 엘빈도 제 앞의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었다.

로쉐의 시선이 식탁의 가장자리를 돌아 엘빈의 건너편에 있던 데미안에게 닿았다.

그 애는 사랑스럽게 웃으며 제 아버지에게서 물잔을 받고 있었다. 그 웃음이 물잔의 물보다도 맑고 순수했다.

저런 맑고 천진한 웃음을, 언제 보았더라.

로쉐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이 장면을 조금 더 뒤에서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들이 그녀의 곁에 몰려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

그래…….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녀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하던 그 어느 날.

릴리, 데이모스, 카이산, 데이지.

아이들의 이름을 되뇌는 순간, 누군가가 천으로 그녀의 뺨을 훔쳤다. 멍하니 돌아보자, 새파란 눈동자의 소녀가 냅킨을 들고 그녀의 뺨을 살살 닦고 있는 것이 아닌가.

로쉐는 그제야 제가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브릴은 로쉐의 뺨을 닦은 냅킨을 툭툭 펼쳐 그녀의 무릎에 올린 뒤, 스스럼없이 떨궈진 손을 잡아끌어 커트러리에 가져다 대었다.

“식사하세요, 할머니. 우시더라도 드시고 우셔야 안 쓰러진대요.”

소녀의 말에 또 헛웃음이 터진 로쉐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감히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자 지브릴이 쑥스러운 듯 웃더니 중얼거렸다.

“혼나서 울다가 들었어요.”

“너는 황녀가 아니냐. 누구도 너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

“어… 그 말씀은 태후 폐하께서 하신 거고요. 어머니도 잘못하면 혼이 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태후?”

“히히. 태후 폐하께로 도망가면 아무도 못 잡거든요.”

마틸다는 은근히 지브릴의 도망을 환영했다. 궁이 아이들로 소란한 것이 좋다나.

로쉐는 멈칫하여 지브릴을 쳐다보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오늘 네녀석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

그러자 지브릴은 큰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더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됐고, 마저 먹어라.”

로쉐는 지브릴이 자리에 앉아 음식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샐러드를 뒤적였다.

잠시 뒤, 식사가 모두 끝났다.

식사 내내 한마디의 말도 없던 아쉬가 로쉐를 향해 인사를 건넨 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로쉐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쉬와 함께 멀어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눈꺼풀을 파르르 떨던 그녀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도, 동화책을 읽어 주련?”

문을 나서던 네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아쉬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었다. 물론 로쉐는 그의 표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사실 동화책은 없지만…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

로쉐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지브릴이었다. 소녀는 씩 웃으면서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좋아요,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엘빈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데미안도 지브릴을 따라 로쉐에게 다가왔다. 로쉐는 제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든 아이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다.

“음…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

내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더라.

로쉐는 어느덧, 아주 오랜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미움도, 회한도, 증오도 없던 그 어느 날로.

그리고 그날 저녁.

로쉐는 세 아이 모두를 친히 제 손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아쉬가 몹시 난감해하며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으나, 로쉐는 밤새 이야기를 해 준다는 말로 아이들을 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아쉬가 물러나려 하지 않자, 그녀는 이런 조건까지 내걸었다.

“아이들 안전이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라면, 침실에 기사를 세워 두어도 좋네.”

단언컨대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조차도 잊어버렸다.

아쉬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으로 로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 패악을 부리던 폐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결국 아쉬는 침실에 기사를 세워 두고 물러났다.

그날 밤, 로쉐는 제 곁에서 잠든 세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오랜 과거, 사랑을 담아 아이들을 부르던 어머니로 돌아갔다. 아이들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살갗에서는 사랑스러운 향기가 났다.

로쉐는 밤새 아이들이 이불을 차지는 않는지, 추운 곳은 없는지를 살피다 새벽녘에나 간신히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로쉐의 하루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수도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아이들의 짐이 마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간다고?’

그저 허망한 물음만이 그녀의 속을 채울 뿐이었다.

아쉬는 무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왜 이리 이르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스스럼없기로는 제국 제일인 지브릴이 와락 로쉐를 안았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도 이야기해 주세요!”

로쉐가 아이를 내려다보기 무섭게 지브릴은 한 걸음 물러나더니 손을 씩씩하게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엘빈은 차분히 인사를 건네었고,

“…올 수 있으면 또 올게요. 그때도 이야기해 주세요.”

데미안은 새초롬한 얼굴로 그녀를 힐끔 올려다보며 작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세 녀석들 모두 몸을 돌려 마차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마차에 오르자, 마지막으로 아쉬가 마차에 탔다.

덜컥.

마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아이들을 태운 마차가 무정하게 멀어졌다.

로쉐는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마차를 향해 빠른 걸음을 옮겼다.

좀 멈춰 봐.

잠시면 돼, 좀 멈춰.

목이 메어 말은 나오지 않고, 잠이 모자란 걸음은 느렸다. 로벨은 로쉐가 마차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으나 끝내 마차를 멈추지는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홀연히 왔던 것처럼 홀연히 사라졌다.

마차가 드모르네의 정문을 넘어가자, 제복 입은 군인들이 정문을 도로 걸어 잠갔다.

로쉐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걸음을 멈춘 채, 굳게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굳게 닫힌 문이 애써 외면하여 잊어버렸던 사실을 일깨웠다.

그녀는 죄인이고, 드모르네는 감옥이라는 것을.

로쉐는 데이모스의 유해를 안고 드모르네에 왔던 그날보다 비참해지고 말았다.

로쉐는 화려한 감옥을 배회하다가 결국 침실로 돌아갔다.

잠이 쏟아졌다.

시간의 흐름이 무성의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그저 태양과 달이 번갈아 떴다가 지는 것에 불과하며, 그녀의 미래는 그것들의 반복일 뿐이기에, 오늘을 살아 내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로쉐는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며, 데이모스의 조각을 바라보다가 밤낮 구분 없이 잠을 잤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

드모르네의 정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다.

로쉐는 놀란 얼굴로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복도에 내려선 그녀의 눈이 잘게 떨렸다. 휘청이는 불빛 아래, 근위대가 도열해 있었다.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로쉐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로쉐는 휘감고 있던 숄을 세게 움켜쥐며 빠르게 복도를 걸었다. 그러다 급기야 벌게진 눈으로 최후의 성전을 향해 달렸다.

성전의 문이 허락도 없이 활짝 열려 있었다.

로쉐는 벌어진 문을 보며 독기 어린 다짐을 했다.

데이모스에게 손가락 하나 대었다면, 그게 누구건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악착같이 다리를 움직여 방에 들어섰을 때, 우습게도 로쉐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추고 말았다.

“…….”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데이모스의 조각상 앞에 한 ‘존재’가 서 있었다. 그자는 데이모스의 조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존재의 곁에서는 어둠마저 얼음 위를 스치는 하얀 냉기처럼 들러붙지 못하고 물러나는 느낌이었다.

뒷모습만으로 로쉐를 압도한 존재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검은 망토가 묵직하게 흔들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5)

어둠을 사이에 두고, 로쉐는 십여 년 만에 황제 멜로디를 마주했다. 특유의 새파란 눈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기이한 전율이 로쉐를 관통했다.

“……!”

놀랍게도 황제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에 비해 조금도 늙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십여 년 전의 나이로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눈빛에 어린 관록과 위엄 때문이리라.

멜로디 코르벨라는 십여 년의 세월 동안 황제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로쉐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자, 멜로디는 데이모스를 힐끔 일별하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당신도, 데이모스도.”

데이모스란 이름 앞에 로쉐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 네가 그래서 찾아온 것이로구나!

로쉐는 눈을 치켜들며 짓씹듯 말했다.

“고작 조각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찾아왔소?! 뭐가 무서워서!!”

그러자 멜로디는 픽 웃으며 소파로 걸어가 팔걸이에 대충 걸터앉았다.

“고작 조각이라.”

가벼운 말이었으나, 로쉐는 목이 졸린 듯했다. 마주한 눈빛이 품고 있는 무정함은 인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포식자 혹은 육식동물의 그것처럼, 그녀의 생사를 기분에 따라 정할 것만 같았다.

멜로디는 바싹 말라 안광만 형형한 로쉐를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옷자락 사이에서 문서 한 통을 꺼내 소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내게 설명해요.”

멜로디가 팔짱을 끼는 사이, 로쉐는 비척비척 다가와 문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첫 문단을 본 순간, 로쉐는 끝까지 읽지 않고도 이것이 무엇인지, 황제가 아이들을 내세워 로벨 루치와 아쉬 발할라를 보낸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섬광처럼 깨달았다.

로쉐는 비틀거리다 결국 멜로디 맞은편의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황제를 마주했다.

“…….”

그녀는 공격 직전의 맹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사위를 감싼 어둠보다도 짙고 무거웠다.

로쉐는 문서를 세게 쥐며 필사의 힘을 쥐어짜 입을 열었다.

“나는 모르는…….”

“당신이 모른다면, 나는 오늘 밤 죄인의 석상을 부술 거요.”

“하.”

탄식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황제는 그녀의 눈물에 한 줌의 동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로쉐는 과거처럼 멜로디에게 폭언을 쏟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멜로디는 로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직이 속삭였다.

“나는 지금껏 당신에게 많은 아량을 베풀고 있었소.”

“…….”

“감옥 안에서 온갖 호사를 누려도 모르는 척했지. 데이모스의 석상을 만들든, 그것을 숭배하든 내버려 두었소.”

“…….”

“그래, 딱 거기까지만 했다면.”

데이지의 친모라는 점과 아버지의 황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리 내버려 두었으리라.

멜로디는 로쉐의 손에 들린 문서를 검지로 툭 튕겼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며 단호히 명령했다.

“설명하시오. 내가 충분하다 여기게끔 설명하지 못한다면, 석상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로쉐는 가련할 정도로 어깨를 심하게 떨더니 별안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했다. 옷차림까지 정리를 끝내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멜로디의 인내심이 동나기 직전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멜로디를 마주하지 못했다. 그저 테이블 어딘가를 응시할 뿐이었다.

“어떤 남자가 찾아왔었소.”

“…….”

“내가 부른 상인인 줄 알았소. 아니, 상인이었소. 한데… 이런 말을 하더군.”

로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눈을 감으며 말했다.

“죽은 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냐고.”

“죽은 자를, 다시 만나?”

“…….”

로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목덜미에 차고 서늘한 것이 닿았다.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엔 대공 카이사르가 서 있었다. 그는 길고 시퍼런 검을 그녀의 목덜미에 겨누어졌다.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었다.

놀라 시선을 돌리다가 칼 너머의 황제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목덜미의 칼날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숨 쉬는 것마저 잊어버린 로쉐에게 황제가 일갈했다.

“드모르네의 죄인 로쉐, 나를 더는 기다리게 하지 마라.”

“…….”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린다는 것인지, 그 남자가 설명했던 모든 것을 내게 토시 하나 빠트리지 말고 고하라.”

죄인은 감상에 젖을 권리 또한 없다.

로쉐는 홀린 듯이 그 일을 털어놓았다.

“…그자는 아직 여, 연구 중이라 했소. 연구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나, 아무튼 연구 중이니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그, 그게 전부요! 두 번… 아니, 세 번쯤 찾아와서 내게 돈을 받아 갔소. 물론 나는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소. 이게 다요!”

“모자라다.”

“그게 전부라니까!”

로쉐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멜로디는 카이사르의 칼날을 손끝으로 치워 내며 로쉐에게 얼굴을 디밀었다.

“설마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왔다고 생각하나?”

한 음절, 한 음절이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시퍼런 눈빛과 냉기 어린 음색이 오랏줄처럼 로쉐의 영혼을 휘어 감았다.

“나는 그자가 오르센 억양이 묻은 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흐읍…….”

“제대로 고하라, 드모르네의 죄인 로쉐!”

황제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면서도 떠보아, 숨기려 하면 죽이려는 것일지도.

로쉐는 사시나무처럼 애처롭게 떨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여인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었으나, 황제와 대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로쉐는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것을 포기하듯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자는 오르센 선왕을 모시던 자라 했소.”

그 말을 들은 멜로디의 눈썹이 천천히 치솟았다.

황제가 떠난 방에 홀로 남은 로쉐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렸다. 소파에 반쯤 눕듯 기대어 거친 숨을 헐떡이는 그녀 앞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인기척을 느낀 로쉐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아쉬 발할라가 서 있었다. 로쉐는 혹 데이지가 왔을까 하여 얼른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로쉐의 눈이 거칠게 출렁이는데, 아쉬가 입을 열었다.

“발할라 후작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경비엔 후작의 허가가 따를 것이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인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너에게 들어야 한단 말이냐.”

“또한 드모르네의 모든 소유권은 후작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더라도 드모르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반출 및 판매는 절대 불허합니다. 후작가의 가신이 분기별로 와 이를 확인할 것이니,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이지를 데려와.”

로쉐는 아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데이지만을 찾았고, 결국 아쉬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데이지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 겁니까!!”

처음 듣는 그의 성난 음성에 로쉐가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을 죽이세요, 폐하.”

아쉬가 문서를 들고 황제를 찾아갔을 때, 보고를 함께 듣던 데이지가 뗀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죄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큽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황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친히 데이지를 일으켰다.

그녀의 금안에 어린 빛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뭉개져 있었다. 데이지의 심정이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차라리 한 줌의 바람, 흙이었으면 좋겠다던 고통 어린 고백이 아쉬의 심장을 긁어 댔다.

결국 황제는 이 일을 공론화하지 않고 제 선에서 끝내기 위해 친히 드모르네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터.

아쉬는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가 거친 손길로 데이모스의 석상을 가리켰다.

“당신은 저 석상을 만들었을 때, 이미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를 지은 겁니다! 폐하께서 용인하지 않으셨다면, 응당 그리되었겠지요!”

“…….”

“당신은 저 석상을 만들며, 데이지가 얼마나 난감할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지 않았겠지요? 한데 이젠 그것으로 모자라 오르센 선왕을 모시던 자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만났……!”

아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다. 로쉐는 그런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텅 빈 물음을 던졌다.

“데이지는, 끝내 나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냐?”

“…….”

“나를,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

아쉬는 깊고 어두운 늪에 발을 담근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가까스로 대답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되돌이켜 생각해보십시오. 용서받을 기회가 어디쯤 있었으며, 그것을 누가 놓았을지에 대해서.”

아쉬는 그 말을 끝으로 늪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로쉐의 곁을 떠났다.

남겨진 로쉐는 필연적으로 그날을 떠올렸다.

아이는 울면서 깊게 고개를 숙였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데이지는 그래도 어미인 자신의 곁을 맴돌았었다. 딱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끊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마지막이라니,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로쉐는 가슴을 부여잡고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그저 꺽꺽대는 울음만을 토했다.

사랑스럽게 웃던 아이들, 어미의 사랑이 고파 단풍잎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얽어 오던 맑은 영혼들.

끌어당겨 안았더라면, 일주일 전 세 아이가 의심 하나 없이 그녀에게 품을 내주었던 것처럼 그녀의 네 자녀 또한 그러했으리라.

그 나날을 어찌 행복이라 여기지 않았을까.

늘 다른 이를 탓하기만 했던 로쉐는, 비로소 제 안을 들여다보고 무너졌다.

그리고 비참하게 눈을 들어 데이모스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를 떠올렸다.

제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웃던 데미안, 사촌들과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며 놀던 아이는 잠들기 전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사촌의 손을 꼭 붙잡고 잠을 잤다.

로쉐는 파리한 달빛으로 물든 데이모스의 석상을 보며 오열했다.

“너 또한… 내가 죽였구나, 데이모스. 너 또한……. 카이산, 그 아이는 지금쯤 어찌 살고 있을까…….”

조금 더 너희를 보듬어 안았다면, 우리에게 다른 미래가 있었을까.

로쉐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죽음은, 차라리 편안한 죄의 대가였으리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6)

“과거 오르센과의 전쟁에서 보았던 귀신……. 그 비슷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드모르네에서 돌아오는 길, 카이사르가 입을 열었다. 멜로디는 팔짱을 낀 채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제럴드와 파란눈 일족은 잔펠이 연금되어 있던 건물을 불살랐으며 그곳에 있던 연구원들을 몰살시켰다.

그래서 사실은 늘 찝찝했다. 책임자는 살려 숨은 연구원들 모두를 색출해 내었어야 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건물 전체를 불사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서만이라도 챙겼어야 했다. 사건 당일 그곳에 없었던 연구원이 분명 있었을 테니.

멜로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일단은 오르센 왕에게 서신을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아뷔브에 다녀오셔야겠군요. 준비하겠습니다.”

카이사르가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했다. 그에 멜로디는 딱딱하던 얼굴 근육을 풀며 사르르 웃었다.

황제의 가면을 벗은 멜로디는, 십여 년 전과 다름없었다.

카이사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오는 멜로디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주무십시오. 도착하면 깨워드릴 테니.”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오르센의 왕 솔라 테올라는 코르벨라 황제가 보낸 서신을 읽다가 헛웃음을 터트렸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녀의 곁에서 업무를 보던 라 이르마가 묻자, 테올라는 어깨를 으쓱이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혈육의 허물을 제대로 정리하라네.”

“…….”

“선왕을 모시던 자들이 돌아다닌다고 해. 하… 진짜, 죽여도 죽여도 나오는 바퀴도 아니고 파도 파도 끝이 안 나는군. 아주 대단해.”

테올라는 휘갈겨 쓴 듯한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딱 이 글씨체 같은 여제를 떠올렸다. 십여 년 전, 선왕을 따라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은 멜로디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려 했다.

“절대, 코르벨라의 황제와 전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여력도 없다. 배상금을 갚기에도 벅찼다.

테올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이르마에게 명령했다.

“전국을 뒤져서 선왕의 끄나풀들을 색출해 내라. 입속에 표식이 있으니까 입을 꼭 벌려 확인해야 해. 블랙 벨리(귀곡) 주변도 샅샅이 뒤져. 수상한 자들은 모두 조사해.”

“알겠습니다.”

“하여간, 코르벨라 황제 눈에 거슬릴 만한 일이 오르센 내에서 일어나선 안 돼. 이제 간신히 궤도에 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말을 마친 테올라는 편지지를 꺼내 답신을 쓰기 시작했다.

매우 신중히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멜로디는 정중한 단어가 가득한 테올라의 편지를 쭉 읽다가 중얼거렸다.

“솔라 테올라가 나보다 제국어를 더 잘 구사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건 자랑이 아니옵니다, 폐하.”

성성한 백발의 아들러가 곧장 황제의 언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멜로디는 그저 히죽 웃을 뿐이었다.

“아, 진짜 잘 썼다니까.”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합니까?”

카이사르가 묻자, 멜로디는 아들러에게 편지를 건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도 선왕의 사람들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은 마뜩잖을 테니.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출발할까요?”

막 테올라의 편지를 태운 아들러가 곧장 멜로디의 망토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둘러 주었다.

“나 없는 동안 잘 좀 지키고 있어 주시오.”

“정말 올해까지만 하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폐하.”

“불경하오.”

“법도를 어기고 계신 분은 폐하십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상하네. 나를 따라 종군할 수도 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파인 노인이 되어 버린 아들러 앞에서, 멜로디는 손녀처럼 장난스럽게 웃었다.

“건강하여 오래도록 내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휴……. 어서 다녀오시지요.”

아들러가 체념한 듯 그녀의 등을 떠밀자, 멜로디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무실을 나섰다.

황제와 대공이 복도를 가로지르자, 곳곳에서 일을 하던 이들이 그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조아렸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한데, 출발하기도 전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약속 지켜요.”

지브릴과 엘빈이 아뷔브에 간다는 소문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데미안이 새벽 댓바람부터 황궁을 찾아와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시위를 하고 있었다.

“데미안,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러는 거니. 그만하렴!”

“어머니. 이건 저와 황녀, 황자 전하와의 약속이에요!”

“데미안, 아버지가 보기에는 서로 무리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곧 폐하와 대공께서 오실 예정이니 물러나거라.”

아쉬와 데이지의 얼굴에 서린 빛이 점점 엄격해지자, 데미안은 간절함이 담긴 눈으로 지브릴과 엘빈을 바라보았다.

‘약속했잖아! 다음번에 아뷔브 갈 때는 꼭 나도 데려가기로!’

지브릴이 엘빈을 흘겨 보며 속삭였다.

“너, 내가 말했지? 어물쩍 약속하는 것으로 무마하면 나중에 큰코다친다고.”

그때, 아들의 고집을 보다 못한 아쉬가 데미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아뷔브에 따라가고 싶은 모양이다만, 그건 안 돼!”

데미안은 억울함에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항변했다.

“늘 저만 두고 아뷔브에 가잖아요! 가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지브릴이랑 엘빈, 로아 형도 갈 수 있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왜요!! 거기에 가려면 잘 걷고 뛸 수 있어야 한대서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매일요!!”

“호오, 거기에 가려면 잘 걷고 뛸 수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어?”

데미안은 갑작스럽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검은 망토를 두른 황제가 방벽처럼 서서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

“폐하!!”

데미안은 크게 반색하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멜로디는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달고 있는 데미안의 머리를 슥슥 쓰다듬은 뒤, 고개를 틀어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머쓱한 얼굴로 제 발치만 보고 있던 엘빈이 슬그머니 실토했다.

“제가 그랬어요.”

“데미안이 아뷔브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체력을 단련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약속한 것도 사실이고?”

“…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녀석이 같이했다. 엘빈은 슬쩍 지브릴을 보았으나, 지브릴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멜로디는 지브릴과 엘빈을 엄격한 표정으로 일별하며 말했다.

“그럼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

“…….”

“말해 봐라,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마 상황을 무마하겠다고 대충 약속으로 둘러댔던 것은 아니겠지?”

지브릴과 엘빈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녀석들은 잠시 몸을 돌려 저들끼리 뭔가를 논의했고, 카이사르는 그런 녀석들을 웃음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뒤, 결심 어린 표정의 지브릴이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데미안이 아뷔브에 오르는 것을 적극 돕겠습니다.”

“너희 힘만으로 가능하겠어?”

“조금 완만한 데에서는 뒤에서 밀고,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저희가 번갈아 업고 갈게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데미안의 눈이 둥글어졌고, 발할라 부부는 난색을 표했다.

“황녀, 황자께서 업고 가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엘빈이 말했다.

“만약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번에 저는 가지 않고 데미안과 남을게요.”

“왜?”

“약속을 한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멜로디는 팔짱을 낀 채 세 녀석을 번갈아 본 뒤, 데이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몹시 난감한 얼굴로 멜로디를 마주 보았다.

“폐하, 힘든 여정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멜로디는 곧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데미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저 홀로 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멜로디는 데미안이 느끼는 박탈감을 이해했다.

그녀는 결국 아이들 몰래 발할라 부부에게 괜찮다는 듯 눈짓했다. 그러자 아쉬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일단 아뷔브 초입까지 가는 길만 해도 험난할 겁니다. 말 두 마리로 어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에 멜로디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옅은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생명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말이라니. 무려 홀리 왕께 그런 불경한 말을.”

아니타가 푸르릉거리자, 멜로디는 살갑게 웃으며 녀석에게 다가갔다.

“아니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지.”

‘아니, 됐어, 인간.’

아니타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었으나, 인간의 왕은 기어이 부탁을 해 왔다.

“날 봐서라도 딱 한 명만 더 태워 줄 수 없을까?”

‘…….’

내가 말인 줄 아나.

아니타는 그런 눈빛으로 멜로디를 쏘아보았다.

실전보다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

데미안은 거대한 말 위에서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황녀, 황자를 보며 처음으로 ‘종의 다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어찌어찌 아뷔브 초입까지 왔는데, 세상에. 멀미가 날 정도로 까마득한 경사의 악산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 너는 거기 못 가.”

그저 저를 따돌리려는 말인 줄로만 알았던 지브릴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쌍둥이가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미안, 걱정 마! 너를 끌고서라도 갈 테니까!”

지브릴의 의욕 넘치는 말에 데미안은 식은땀을 흘렸다.

끌고 가는 건 이쪽이 사양인데…….

그리하여 아뷔브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쌍둥이 역시 실전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코르벨라 황궁의 세 악동은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아뷔브에서.

“이곳까지는 와야 해.”

“여기부터는 우리가 도와주마.”

카이사르와 멜로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몹시 엄격하였기에, 지브릴과 엘빈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다.

악착스럽게 쌍둥이를 따라 아뷔브에 가겠다고 주장했던 데미안 역시 제 주장의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한 가지 웃긴 점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7)

“아니타, 쟤네는 왜 저러고 있냐. 설명 좀 해 봐.”

홀리, 이 요망한 것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세 악동의 고군분투를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니타가 낳은 새끼들도 어느새 제법 커서 무리에 섞여 있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양새가 보통 드센 것이 아니었다.

그 무렵 데미안을 업고 힘겹게 경사를 오르던 지브릴은 아득하게 먼 곳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 힘겨운 짓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지브릴이 맹렬히 머리를 굴리는데, 홀리들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먼지를 일으켜 댔다.

에이, 진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얘들은 왜 이래!

그러다 불현듯 지브릴은 제 주변을 뛰어다니는 홀리들을 보고는 멈춰 섰다.

“가만…….”

뭔가 알 듯 말 듯,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재밌는 것을 찾아서 온 황궁을 뒤지며 뛰어다녔던 존재로서 저 날뛰는 생명체들과의 미묘한 접점이랄까, 교감이랄까. 그런 것이 섬광처럼 지브릴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브릴은 별안간 업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온몸으로 재미를 찾고 있는 망아지 같은 놈들을 쭉 훑어보다가 눈을 반짝였다.

그렇지!

깨달음을 얻은 지브릴은 뒤에 있던 엘빈의 등을 장난스럽게 밀었다.

“꺄하하하! 밀어, 밀어!”

“뭐 하는 거야?”

엘빈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지브릴은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야, 빨리 재밌다고 말해. 무조건 웃어. 완전 재미있는 것처럼 굴란 말이야.”

“아니, 왜?!”

“내가 네 약속 떄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묻지 말고 재미있는 척해, 어서. 데미안, 너도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재미있는 척해. 아하하하하!”

지브릴은 정말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양 깔깔대며 엘빈과 데미안의 등을 떠밀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심지어 홀리들을 향해서도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재밌어 보이지? 재밌겠지?”

엘빈과 데미안은 영문 모를 지브릴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하지만 일단은 각자 지브릴에게 진 빚이 있는 탓에, 그녀를 따라 어색하게 웃었다.

“아하하하.”

“재밌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이, 우습게도(놀랍다기보다는) 아니타의 자식들이 지브릴이 던진 떡밥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이 어린 홀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묘하고 희한한 광경에 홀린 듯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깔깔대며 돌아다니는 지브릴의 등을 머리로 슥 한 번 밀어 보았다.

“꺄하하하하!”

지브릴은 더 크게 웃으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고, 그 반응에 신이 난 홀리도 펄쩍펄쩍 뛰었다.

뭐야, 재밌잖아!

녀석은 계속 지브릴의 등허리를 떠받치듯 밀어 올렸고, 어느새 요령이 생긴 지브릴은 아예 녀석의 힘에 의지해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다. 지브릴은 그저 기세 좋은 함성만 질러 주면 되었다.

“좋아!! 그렇지!! 신난다아!!! 잘한다아!!”

홀리들은 슬그머니 엘빈과 데미안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의 등을 장난처럼 밀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재밌어어어!”

“우, 우와아아아! 너희 정말 멋지다아!”

기가 막힌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카이사르가 아니타와 볼테르를 돌아보았다.

“…….”

“…….”

볼테르 쪽은 제 새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리는 데 반해, 아니타는 뻔뻔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왜, 뭐. 어쩌라고.’

“허참, 아니타. 이건 내 새끼의 문제냐, 네 새끼의 문제냐.”

멜로디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자, 아니타는 그때에도 예의 그 특유의 눈빛으로 그녀를 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즈음, 어린 홀리들의 장난에 떠밀려 온 지브릴이 부모 앞에 도착했다.

녀석은 아주 의기양양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결국 멜로디와 카이사르 모두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뭐, 이러나저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능력 아니겠는가?

재미를 찾아 온 산을 헤매는 어린 홀리들의 장난은 그칠 줄을 몰랐고, 세 녀석은 그 덕분에 쉽게 아뷔브를 올랐다.

마중(이라기보다는 마실)을 나왔던 일족들은 이 보기 드문 광경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노란눈 일족은 홀리의 습성에 대해 한 줄을 추가해야겠다며 수첩을 들었고, 녹색눈 일족은 저러다 애들이 다치면 어쩌나 걱정했으며, 파란눈 일족은… 놀이에 참여했다.

아무튼, 그렇게 세 녀석은 홀리들의 도움을 빙자한 놀이 덕분에 수월하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잘 가! 다음에 또 보자고!!”

“또 놀자, 응?!”

홀리 새끼들은 망아지처럼 세 아이 주변을 뛰어다녔고, 결국 보다 못한 아니타가 앞발을 치켜들고서야 물러갔다.

“세상에……. 너희 도대체 뭘 어쩐 거야?”

로아는 멀어지는 홀리들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고, 마중 나왔던 클레어와 리아나는 흙먼지로 엉망이 된 아이들을 얼른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긴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곧장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데미안과 함께 오게 된 여정인지라, 평소보다 훨씬 늦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장로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서는 멜로디와 카이사르의 표정은, 아이들과 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공.”

소식을 듣고 미리 와 있었던 나이젤이 묻자, 멜로디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일족들의 인명사전, 어딨습니까?”

아뷔브 일족이 산 아래 인류와 교류를 시작한 지 거의 십오 년. 꽤 많은 일족이 리아나처럼 제국인들과 혼약을 맺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제법 되었다.

“이리 인명사전으로 관리하는 것도 길어 봐야 십여 년이라 생각하오.”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글쎄……. 하프 중엔 오드로 발현하지 않는 아이들도 왕왕 있는지라, 아이가 태어나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소. 오드로 발현해야만 이 인명사전에 오르니까.”

“…….”

“도대체 무슨 일이오?”

장로들이 재차 묻자, 멜로디는 먼지 묻은 손을 수건에 닦아 내며 지친 듯 말했다.

“오르센 선왕이 운영했던 연구소, 기억하시죠?”

“그것을 잊을 리가.”

죽어서도 죽지 못한 일족의 유해가 가득하던, 그 악독한 곳을 어찌 잊을까.

“그 연구소의 일원이었다 말하며 연구 자금을 모으는 자가 대륙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의 말이 끝나자,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이젤은 최근 들었던 드모르네 소식을 떠올리며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잠시 후, 카이사르가 인명사전을 덮어 장로들 앞으로 내밀며 침묵을 깼다.

“물론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로 현혹하여 자금만 뜯어내려는 심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조심하여 나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족의 피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작은 소문으로라도 나돌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직접 찾아온 것이고요.”

나이젤이 멜로디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찌하길 바라십니까, 폐하.”

멜로디는 나이젤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들을 쭉 훑어보며 단호히 말했다.

“일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자들의 신변을 확인하세요. 오드로 발현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무조건 신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럴드는 그녀의 다음 말을 예상한다는 듯 대신 말을 이었다.

“귀곡의 흙더미 속을 확인해야겠군.”

장로들과 대화를 끝낸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제럴드와 클레어의 집 인근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온 동네 꼬마들이 죄 몰려나온 것 같은데.”

“아니. 파란눈 녀석들만.”

나이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수십 쌍의 파란 눈을 보며 기가 질린 듯 중얼거렸다.

그의 말처럼 온 동네 파란눈 꼬마들이 죄 몰려와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벌써 자나?”

“깨울까?”

“그래, 깨워 볼까? 좀 더 놀다가 자라고 하면 되잖아.”

“홀리랑 어떻게 놀았는지도 궁금해!”

저들 딴엔 작게 말한 것이겠지만, 다 들렸다. 별안간 1층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엄한 표정의 리아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너희들!”

아뷔브 성에 갔다가 그녀에게 혼쭐났던 경험이 있는 꼬마들은 리아나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얼른 줄행랑을 쳤다.

단, 딱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정도까지만.

리아나가 고개를 작게 저으며 문을 닫자, 녀석들은 또 슬그머니 기어 나와서는 집 앞을 기웃거렸다.

“도대체 저 심리가 뭐야?”

나이젤이 멜로디를 돌아보며 묻자, 멜로디와 제럴드는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동시에 대답했다.

“심심한 게 혼나는 것보다 싫거든.”

“잠깐 혼나더라도 노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 문제인 거다.

외숙과 조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는 픽 웃었고, 나이젤은 왜인지 카이사르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여기서 잠깐.

파란눈이 집 밖에만 있을까?

멜로디와 제럴드는 다 안다는 듯 2층 창문을 지켜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불 꺼진 창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코르벨라 제국의 황녀 전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

나이젤은 카이사르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렸고, 카이사르는 이젠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지 헛웃음을 터트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8)

지브릴은 슬그머니 창문을 타고 넘더니 1층 지붕 위에 바짝 엎드렸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지붕 끄트머리로 이동해 그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꼬마들을 향해 작게 외쳤다.

“야!”

파란눈 꼬마들은 지브릴의 부름에 반색하며 작게 환호했다.

“지브릴이다!”

“지브릴, 지브릴!!”

지브릴은 제 이름을 부르며 팔짝팔짝 뛰는 친구들을 보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놀자, 놀자. 응?”

“안 돼. 클레어 할머니랑 리아나 외숙모가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놀 생각도 말랬어.”

“그러면 지브릴, 너 홀리랑 어떻게 논 거야? 그거만 알려 줘!”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내일 어떻게 놀았는지 보여 줄게.”

“진짜? 그럼 내일 홀리 찾으러 갈 거야?”

한 녀석의 물음에, 지브릴은 슬쩍 집 안의 동태를 살피더니 그들을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와!!”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돌아가.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 알겠지?”

“응!!”

파란눈 아이들은 지브릴의 말에 순순히 인사를 건네고는 각자 사라졌다.

그러자 지브릴도 슬그머니 몸을 일으키더니 재빠르게 지붕을 타고 올라 훌쩍 열린 창문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어찌나 빠른지 흡사 고양이의 움직임을 보는 듯했다.

만약 녹색눈 일족이나 노란눈 일족이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내일 너희끼리 왜 홀리를 찾으러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으리라.

하지만 파란눈 일족의 대표 격인 제럴드는 이 장면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이런 감상평을 남겼다.

“역시. 지브릴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아이답구나.”

눈시울을 붉히며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그 앞에서, 감히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카이사르와 나이젤은 그저 조용히, 이 사건에 대해 클레어에게 언질해 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클레어를 통해 지브릴의 야심 찬 계획에 대해 들은 로잘린이 피식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내가 홀리들과 교류한 것이 어언 백 년이야. 걔들 자존심이 얼마나 세다고. 아직 오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어린애들에겐 눈길 한번 안 줘.”

“로잘린. 실제로 어린 홀리들이랑 지브릴, 엘빈, 데미안이 어울려 노는 걸 본 일족이 한둘이 아니야.”

클레어의 진지한 말에, 로잘린은 웃음을 거두고 눈을 깜빡였다.

“진짜로 놀았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리아나도 봤대.”

“…….”

“일단은 내가 저들끼리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알지?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로잘린은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도대체 그 피엔 뭐가 섞인 거야.”

“네가 좀 도와줘.”

로잘린은 고개를 내저으면서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망토를 챙겨 입으며 긴 지팡이를 꺼냈다.

“좋아. 진짜로 놀았을까? 나도 궁금하긴 해.”

피리 부는 목동, 아니, 지팡이 든 신관 뒤를 아이들 여럿이 졸졸졸 따랐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망아지처럼 굴면 당장 돌려보낼 것이라는 로잘린의 엄포에 아이들은 줄까지 맞춰 서서는 그 뒤를 따랐다.

그 틈에 끼어 있는 데미안 발할라는 황홀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역시 따라오길 잘했어!

한참 마을 뒤편 평원을 걷던 로잘린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다.

멀리 만년설이 꽁꽁 얼어붙은 높은 봉우리가 보이고, 아래로는 운무가 가득하여 마치 구름 위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이는 곳.

로잘린은 제 곁에 선 아이들을 힐끔 바라보았다.

일족이라 한들 그저 고개만 갸웃거리는 데 반해, 지브릴은 수풀 속 어딘가를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로잘린이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보이니?”

“수풀에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죠.”

지브릴은 이능을 가졌다. 다행스럽게도 제 어머니나 할머니가 가진 패널티가 큰 시간의 이능은 아닌 듯했다.

녀석의 이능은 만물에 섞인 오드를 감지하는 능력이었다.

“그럼, 느껴지니?”

“네.”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자 지브릴은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씩 웃었다.

“저기 있잖아요.”

로잘린이 고개를 돌리자, 수풀 사이에서 아니타가 일어났다. 앞발을 세우고 부드럽게 일어나는 모습은 탄성이 나올 만큼 우아했다. 바람이 녀석을 훑고 지나가자, 마치 물결처럼 갈기가 흔들렸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심드렁하기 그지없었다.

‘저것들 또 왔네.’

녀석은 우르르 몰려온 아이들이 지겨운지, 로잘린이 인사를 건네려는 것마저 대충 피해버렸다.

‘됐어, 됐어.’

꼬리를 건성으로 툭툭 쳐 대는 꼴이 딱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급해진 로잘린이 얼른 녀석을 불렀다.

“왕! 잠시만! 얘들이 놀고 싶다는데!! 허락할 거야?”

아니타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꼬리만 탁탁 쳐 대며 멀어질 뿐이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연륜이 쌓인 홀리들은 시끄러운 아이들을 피해 멀어지는 왕의 뒤를 따랐으나, 새파랗게 어린 홀리들은 우습게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꺄아아~ 우, 우리랑 놀건가 봐!”

“아, 설레설레!”

본디 애들 마음은 같은 애들이 가장 잘 아는 법.

로잘린은 서로를 탐색하느라 바쁜 어린애들(홀리, 사람 모두 포함)을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들이 어찌 노나 싶어서 한 걸음 물러나는데, 사람 무리의 대표인 지브릴이 제 쌍둥이의 등을 장난스럽게 밀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엘빈과 데미안 역시 어제를 떠올리며 저들끼리 서로를 가볍게 밀며 웃었다.

어른이었다면 민망해하며 이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던질 법한 모습이었으나, 뭐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은 그저 즐기기 바빴다. 그것만으로도 녀석들은 즐거워 보였다.

“이히히히, 좀 더 밀어 줘~~~”

“나도 나도!”

최근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이던 로아도 그 틈에 끼어서 웃고 떠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망아지의 탈을 뒤집어쓴 홀리들이 겅중겅중 뛰어 아이들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어, 어어!!”

아무리 어려도 홀리는 거대하다. 녀석들이 자칫 아이들을 밟거나 차기라도 하면!

아찔해진 로잘린이 서둘러 지팡이를 휘어잡고 놈들에게 달려갔으나, 홀리들은 이미 아이들의 코앞에 다다라 있었다.

“잠깐!”

놀란 로잘린이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바람 빠지는 웃음을 내쉬며 지팡이를 떨구고야 말았다.

“꺄하하하~~”

“좀 더 높이 밀어 줘어어어어~”

로잘린은 드넓은 고원 평야에 울려 퍼지는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내 평생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네.”

푸른 빛깔의 홀리들은 아이들의 틈을 누비며 녀석들을 떠밀었고, 겨울눈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신비로운 생명체와 어울려 기쁨을 만끽했다.

겨울의 끝자락, 봄꽃이 움트는 평화로운 고원에서 어린 생명들이 뛰노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성이었다.

로잘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신께 기도를 올렸다.

\* \* \*

한편, 아이들이 홀리들과 어울려 노는 사이 어른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다.

나이젤은 일족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아뷔브 성으로 돌아갔고, 귀곡의 영향을 덜 받는 카이사르, 멜로디, 제럴드, 에르데는 귀곡에 가 있었다.

“흠. 문제가 있네.”

멜로디가 귀곡을 힐끔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우리끼리 파헤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차라리 오르센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때요?”

카이사르가 묻자, 멜로디는 생각에 잠겼다가 중얼거렸다.

“꽤 오래 걸릴걸요.”

공문 주고받는 데 최소 몇 달, 파헤치러 오는 데 몇 달.

“그래도 그편이 몇 사람이 파헤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팔짱을 낀 채로 협곡 아래를 보던 에르데가 엄습하는 서늘함에 몸서리쳤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여인의 통곡 같았다.

“언제 와도 기분 나쁜 곳이야.”

“일단 돌아가자. 돌아가서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리하여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기묘하리만치 조용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앞선 제럴드가 지나가던 이를 붙잡고 상황을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러자 그는 멜로디와 카이사르를 힐끔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오늘 종일 온 동네 애들이 평원에서 뛰어놀았거든요. 다들 지쳐서 곯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리 조용해요.”

그는 엘빈도 보통 체력은 아니더라며 멀어졌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서둘러 아이들이 잠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브릴은 작은 방에서 홀로, 데미안과 엘빈, 로아는 조금 더 큰 방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소년들의 몸 위에 이불을 잘 덮어 주고는 그 곁에 잠시 앉았다.

“일단은 내일쯤 장로들과 상의해 보고, 모레쯤엔 돌아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귀곡 을 파헤치려면 오르센에 협조를 구하는 쪽이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준비할게요.”

“그나저나 이 녀석들 잘 자네요. 종일 홀리들이랑 뒹굴었을 거예요.”

“아니타와 볼테르는 질려 하는 것 같던데 말이죠.”

카이사르와 멜로디는 고이 잠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을 때였다.

분명 잠든 줄 알았던 엘빈의 눈꺼풀이 잘게 떨리더니 이내 눈동자가 드러났다. 엘빈은 말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더니 중얼거렸다.

“귀곡…….”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69)

“로아 형, 귀곡이 뭐야?”

엘빈의 질문에 로아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며 차분히 설명했다.

“오드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축적된 협곡이야. 내성이 없는 일족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한다고 해. 그런데 그건 왜?”

엘빈은 길게 자란 잡풀을 아무렇게나 툭 꺾어 휘휘 돌리면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귀곡을 파헤쳐야 하는 데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 오르센에 도움을 청하셔야 한대.”

“응? 너 그건 어디서 들었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낙서를 하던 지브릴이 묻자, 엘빈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어젯밤에. 암튼 그거 때문에 내일쯤엔 돌아가야 한다던데.”

그러자 황홀한 눈으로 아뷔브의 절경을 바라보던 데미안이 휙 고개를 돌렸다.

“내일?!”

“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여기까지 오며 한 고생이 얼만데, 고작 이틀 머물고 가는 것이 말이나 될 일인가! 데미안은 절박한 얼굴로 엘빈의 말을 되새기며 물었다.

“귀곡인지 뭔지를 파헤쳐? 그거, 땅 같은 거야?”

그러자 로아는 대충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협곡 인근은 바위가 많지만, 막상 그 아래엔 그냥 흙이 가득하다고 들었어.”

데미안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내일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최소한 이곳에서 삼 일은 더 있고 싶어.

강렬한 열망에 휩싸인 소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흙더미를 파헤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다 섬광 같은 깨달음이 소년의 뇌리를 치고 지나갔다.

데미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만약 홀리가 한숨을 쉴 수 있었다면, 아니타는 분명 한숨을 깊고 길게 내쉬었으리라. 녀석은 수풀 사이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을 넌더리 난다는 듯 쳐다보았다.

‘저것들 또 왔네.’

오늘은 자리를 피하는 것조차 지겨운지, 녀석은 머리를 땅에 기대며 꼬리만 탁탁탁 쳐 댔다. 그러다 눈까지 감아 버렸다.

‘오든지 말든지.’

왕이 움직이지 않자, 다른 성체 홀리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인간은 교류할 필요성조차 없는 바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데미안, 빨리 말해 봐.”

지브릴이 낮춘 목소리로 묻자, 로아와 엘빈도 데미안을 쳐다보았다.

데미안은 어제까지 그들과 신나게 뛰놀았던 홀리들을 응시하다가, 엉망으로 파헤쳐진 평원을 돌아보았다. 어린 홀리들이 겅중겅중 뛰면서 땅을 어찌나 짓쳤는지, 한눈에 봐도 파헤쳐진 것이 보일 정도였다.

데미안의 시선을 따라 평원을 보던 셋도 엉망으로 파헤쳐진 흙을 보며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았다.

“어린 홀리들을 이용하면 어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홀리들은 귀곡을 싫어해. 어떻게 거기까지 데려가지?”

로아가 반문하자, 손으로 턱을 매만지던 지브릴이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대답했다.

“좋아하는 걸로 꼬시면 되지.”

아주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브릴에겐 그 직관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길 행동력이 있었다.

“쟤네를 뭐로 꼬시면 좋을까?”

그러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엘빈이 한 사람을 떠올렸다.

“홀리가 좋아하는 것?”

“네. 이왕이면 어린 홀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엘빈 코르벨라는 코르벨라의 황자다운 정중한 모습으로 로잘린에게 물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금발,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어린아이 특유의 통통한 볼 사이엔 아주 귀여운 괴리가 있었다.

로잘린이 특유의 냉소 섞인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건 왜 묻지?”

그녀의 샛노란 눈동자가 소년의 눈을 찌를 듯 바라보았다. 한데 소년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제 나이의 거의 스무 배를 넘게 살아 온 이의 관록 어린 눈빛을 그저 편안히 마주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린 홀리들이 따라 주어야 하는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녀석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계획?”

“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계획 단계니까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너희의 계획이라면 필시 위험할 것 같은데.”

“계획을 구체화시키면,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실행시키기 전에 꼭 말한다고?”

“제 이름을 걸고요.”

로잘린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턱을 슬슬 매만졌다.

아뷔브에 와서인지 파란빛이 도는 소년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피식 웃고 말았다.

엘빈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알려 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씩 웃었다. 그러자 아버지를 닮아 어딘지 무뚝뚝해 보이던 인상이 확 변했다.

로잘린은 그의 아부 섞인 웃음에 헛웃음을 터트렸다.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그녀는 어린 소년의 술수에 말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약 그녀를 찾아온 이가 지브릴이었다면 그 재미 가득한 새파란 눈빛에 질려 입을 열기도 전에 내쫓았을 것이고, 데미안은… 이렇게 말하기엔 미안하지만 로잘린 입장에선 어떤 연고도 없는 아이인지라 긴말을 들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엘빈이 저 홀로 그녀를 찾아온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 아, 로아는 이 계획에 동참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으니 예외로 치자.

“기다리거라.”

로잘린은 따라오려는 엘빈을 제지하고는 이런저런 약재를 쌓아 둔 창고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성인의 팔 길이 정도 되는 말린 풀 한 단을 가지고 나왔다.

풀에 고정되어 있던 엘빈의 시선이 로잘린의 얼굴로 미끄러져 올라오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홀리풀이다. 이름이 왜 홀리풀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엘빈이 풀을 향해 손을 뻗자, 로잘린은 손을 조금 위로 들어 소년을 제지한 뒤 싱긋 웃었다.

“이제 그 계획이란 걸 들어 보자꾸나. 들어 보고 줄지 말지를 판단하마.”

그리하여 그 ‘계획’이란 것을 들었을 때, 장로들의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나뉘었다.

녹색눈 일족의 장로들은,

“너무 위험해서 안 돼.”라고 했고,

노란눈 일족의 장로들은,

“위험하고 자시고를 떠나 홀리들이 따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파란눈 일족의 장로들은,

“시도나 해 보지?”라고 했다.

제럴드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멜로디와 카이사르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장로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한 뒤 당당히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아들과 딸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자, 장로들과 로잘린도 침묵했다.

멜로디는 어느새 커서 제법 제 목소리를 내는 두 녀석을 물끄러미 보다가 곁에 앉은 카이사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뜻에 따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멜로디는 두 녀석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홀리를 떠올린 건 누구였지?”

그러자 뒤편에서 로아와 함께 앉아 있던 데미안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저입니다, 폐하!”

“홀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낸 사람은?”

이번엔 엘빈이 손을 들며 대답했다.

“저예요, 어머니.”

“그럼 저 풀을 온몸에 휘감은 뒤 홀리를 잡아 타고 귀곡을 들쑤시겠다고 한 사람은?”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모두의 시선이 지브릴에게로 향했다.

너지.

지브릴은 당당한 표정으로 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할 수 있어요! 해 보겠습니다!”

멜로디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중신 회의에서나 쓰던 진중한 말투로 말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다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

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에 지브릴은 손을 내리고는 어깨를 반듯하게 폈다.

“첫째, 홀리를 어찌 잡아 탈 것이냐. 지금 너는 녀석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으냐.”

더불어 선택을 받았다고 한들, 귀곡까지 가는 것도 홀리 마음이다. 아니타는 귀곡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둘째, 어찌어찌 한 녀석을 잡아탔다고 가정했을 때, 고작 한 마리 데리고 귀곡의 땅을 어찌 파헤칠 것이냐. 귀곡의 땅을 몽땅 파헤치려면 최소한 열다섯 마리는 필요할 터.”

어머니의 지적에 지브릴은 눈을 빛내며 빠르게 대답했다.

“홀리의 왕은 아니타지만, 어린 홀리들이 따르는 녀석은 따로 있어요.”

그러자 장로 몇몇이 로잘린을 힐끔거렸다. 로잘린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지브릴만을 바라보았다.

멜로디가 계속해 보라는 듯 눈짓하자, 지브릴은 배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다.

“어른 홀리들은 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각각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어린 홀리들은 제각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한 녀석만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너는?”

지브릴이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 녀석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녀석을 데리고 귀곡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열다섯 마리? 아니, 어린 홀리 전체가 귀곡의 흙더미 위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리라.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고원 평야. 오늘도 그곳에서 나른한 한때를 즐기고 있는 홀리 무리를 향해 자그마한 아이가 홀로 전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클레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지브릴 혼자 가게 둘 거야, 정말로?!”

누워서 고개만 치켜들어도 아이의 키보다 훌쩍 커지는 존재가 홀리다. 놈들이 자칫 발길질이라도 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지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이를 홀로 보내다니! 아이들의 충동적인 계획을 계획이라 믿어 주다니!!

클레어뿐만 아니라 지켜보던 많은 일족들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말이 없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0)

또다시 염려를 쏟아내려던 클레어는 멜로디의 눈빛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언뜻 냉담하게까지 느껴지는 차분한 눈빛은 잠시 잊고 있던 우르바시 황제를 떠올리게 하였다.

멜로디는 무슨 생각으로 지브릴을 두고 보는 것일까.

클레어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려 홀로 걸어가고 있는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홀리에 비해 턱없이 작고 여리다. 걱정이 치민 클레어가 입술을 짓씹을 때였다.

“클레어, 걱정 마십시오.”

가까이 있던 카이사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브릴은 도전하고 있는 중이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타와 볼테르를 믿으십시오. 녀석들이 지브릴을 다치게 두지는 않을 테니.”

카이사르의 시선이 멀리 홀리들의 왕에게 닿았다.

왕 아니타는 무슨 일인지 겁도 없이 홀로 다가오는 멜로디의 딸을 보며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아니타 입장에서는 몹시 성가신 존재가 그녀였다. 작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자꾸만 주변을 맴도니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었다.

짜증스러워서 꼬리를 탁탁 쳐 대는데, 별안간 녀석이 씩 웃었다.

그때, 문득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자그마한 인간 소녀를 스쳐 온 바람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실어 왔다.

아니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홀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린 홀리들은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중엔 지브릴의 표적도 있었다.

지브릴은 홀리들의 반응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아니타!”

멜로디가 부르면 곧장 달려오는 것과는 달리, 아니타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홀리들은 지브릴에게로 향한 왕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감히 소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브릴은 두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홀리들의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들의 무리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홀리 무리 사이를 누빌 수 있는 이는 그나마도 로잘린이 다였으며, 그녀조차도 그리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로잘린의 시선이 아니타에게 향했다.

느긋하게 앉아서 다가오는 지브릴을 마주 보던 아니타가 별안간 앞발을 세우며 일어났다.

“아, 나는 못 보겠어.”

몇몇 일족은 차라리 눈을 돌려 버렸다.

하지만 로잘린은 눈을 부릅뜬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겁도 없이 홀로 왕의 코앞까지 걸어간 소녀가 불쑥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

로잘린은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왕은 틀림없이 무시하고 돌아가리라. 그나마도 멜로디의 딸이니 그 정도지, 다른 존재였으면 화가 나서 앞발을 치켜들었을지도 모른다.

홀리의 왕이 오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교감을 할 리가 없…는데.

“로잘린.”

누군가의 부름에도 로잘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쯤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고 말았다.

왕이 아이의 손바닥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지, 왜 교감하지?!

로잘린의 눈이 크게 일렁이던 그때, 지브릴은 씩 웃으면서 제 손바닥에 고개를 댄 왕에게 물었다.

“선물의 정체가 뭐~게?”

그러니까 교감… 아니, 냄새를 맡던 아니타가 눈을 들었다. 지브릴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마른 풀 한 줌을 꺼내 아니타 앞에 내밀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홀리들이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다.

지브릴은 눈에 힘을 준 채 고개를 홱 돌리며 소리쳤다.

“너희들!! 내가 왕에게 진상하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들썩이느냐!”

이런 으름장이 통할까 싶겠지만, 소녀의 커다란 목소리 때문인지 홀리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놈들이 좀 수그러든 것 같자, 지브릴은 고개를 돌려 아니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녀석을 둘러싼 오드의 진동이 조금 더 거세지는 것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녀석의 기분을 감지한 지브릴이 히죽 웃으며 풀을 든 손을 조금 더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아주 살가운 목소리를 냈다.

“아니타, 선물이야. 먹어.”

여름 한 철에만 나는 홀리풀. 근 1년 가까이 이 풀 맛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타도 마찬가지였다.

가지고 올 것이면 더 가져올 것이지.

딱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영 마뜩잖았지만, 아니타는 기꺼이 지브릴의 손바닥에 얹힌 풀을 혓바닥으로 싹 쓸어 와서 우물우물 씹어 먹었다.

동시에 녀석의 오드가 급격히 요동쳤다.

지브릴은 반대쪽 주머니를 뒤져 또 한 줌을 꺼내 내밀었고, 아니타는 그것마저 게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리고 그제야, 멜로디의 딸은 본심을 드러냈다.

“더 먹고 싶지, 아니타?”

‘…….’

지브릴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그러고는 어린 홀리들의 우두머리, 아니타의 첫째 자식을 힐끔 눈짓하여 가리켰다.

“나, 쟤랑 좀 놀아야겠어.”

지브릴은 아니타에게 꽤 많은 양의 홀리풀을 선물한 뒤, 기다리고 있던 어른 홀리들에게도 한 줌씩을 나눠 줬다. 거대한 홀리들이 자그마한 소녀 앞에 줄을 선 채 한 줌씩을 받아먹는 광경에 일족의 어른들은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주는 건가?”

어느 일족의 중얼거림에 로잘린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저 녀석은…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

“뭘?”

“어린놈들한테는 주지 않아.”

“지브릴이 홀리 나이를 구분한다고?”

어리다 해도 거대해서 육안으로는 나이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소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구분해 내는 것이 틀림없었다.

“어허! 어른들 먼저야! 돌아가!”

실제로 어린 홀리가 슬그머니 다가오면 지브릴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고, 그럴 때면 주변의 어른 홀리들 역시 옳다구나 하며 지브릴의 편을 들었다.

어린 홀리들이 애가 타서 겅중겅중 뛰어 댔으나, 지브릴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 홀리들이 한 번씩 다 맛을 보았을 무렵, 지브릴은 아니타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머니 가득 풀을 넣고 어슬렁어슬렁 표적에게 다가갔다.

잔뜩 약이 올라 있는 녀석이 콧김을 팍팍 내쉬며 지브릴을 노려보았으나, 지브릴은 주눅 들기는커녕 씩 웃으며 녀석을 부를 뿐이었다.

“아투스.”

왕의 자식이라 이름을 부여받은 아투스는 오만함을 내보이며 지브릴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내가 너랑 좀 놀았기로서니, 친구는 아니지.’

딱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브릴은 분명 보았다. 놈의 눈길이 자꾸만 제 손바닥으로 향하는 것을.

지브릴은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 녀석을 쏘아보았다. 아니타에게 살갑게 웃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브릴은 손바닥을 한 번 더 힘 있게 펼쳐 보이며 단호히 말했다.

“이리 와. 네가 먼저 오면 홀리풀을 줄게.”

‘…….’

아투스와 지브릴은 팽팽하게 맞섰다. 지브릴과 장난을 쳐 대던 아투스였으나, 이번만큼은 결코 뒤로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브릴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더니, 별안간 손을 홱 거둬 버렸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별수 없지.”

그러고는 정확하게 어린 홀리 무리의 서열 2위를 돌아보며 놈을 불렀다.

“디에고!”

침을 줄줄 흘리며 지브릴의 주머니만을 바라보고 있던 디에고가 기다렸다는 듯 겅중대며 달려오자, 마음이 급해진 쪽은 아투스였다.

놈은 달려오는 디에고를 몸으로 막아서며 얼른 지브릴의 손바닥에 코를 디밀었다.

지브릴은 그제야 씩 웃었다. 그러고는 얼른 주머니를 뒤적여 홀리풀 한 줌을 내주었다. 아투스는 순식간에 한 줌을 먹어치웠고, 또 달라는 듯 지브릴의 손바닥을 코로 자꾸만 밀어 댔다.

지브릴의 새파란 눈동자가 아주 영악한 빛으로 일렁였다. 소녀는 살그머니 아투스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쥐며 녀석과 눈을 맞대었다.

그리고 그제야 본심을 꺼냈다.

“더 먹고 싶지이?”

‘…….’

“그럼 나 좀 태워 줘.”

그리고 잠시 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평화롭던 고원 평야에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로잘린은 푸른 갈기와 더불어 휘날리는 금발을 지켜보며 멍하니 선언했다.

“나는 홀리를 모른다.”

어언 백여 년간, 때때로 말구종이란 말을 들어 가면서까지 고수했던 일족 내 홀리 담당 신관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러는 와중에 파란눈 일족들은 휘파람을 불어 대며 환호했다.

“그렇지!!!”

“잘했어어어어!”

위험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일족들마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그저 박수만 쳐 댔다.

“할머니보다 대단해지겠는데!”

“멜로디, 딸 이름을 제대로 지었어!”

멜로디는 작은 웃음을 터트리면서도 지브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닌 척했으나, 그녀라고 왜 마음을 졸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당당히 해내겠다 선언하던 딸을 믿었고, 오랜 친구를 믿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브릴은 홀리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드넓은 평원을 만끽하고 있었다. 안장은 필요 없다. 강인한 생명체와의 뜨거운 교감만이 굴레의 전부였다.

심지어 아투스는 지브릴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는 듯했다. 녀석들은 평원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지금껏 마음 졸이며 그들을 보고 있던 일족 앞으로 다가왔다.

멜로디는 거대한 홀리 위에 위풍당당하게 앉은 딸을 향해 아낌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카이사르는 팔짱을 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의 3할은 성공했구나, 지브릴.”

그러자 지브릴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자신만만하게 대꾸했다.

“나머지 7할도 성공할 테니 지켜보세요, 아버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1)

지브릴은 다음 계획을 착실히 이행했고, 그럴수록 로잘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갔다.

아뷔브의 천마, 아뷔브의 주인, 아뷔브의 영물.

홀리는 그 이름에 걸맞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중 압권은 놈들의 하늘 같은 콧대와 자존심이었다.

한데, 이게 무어란 말인가.

“어, 너~! 기다려!”

“너, 이리로 와. 그렇지! 앉아.”

지브릴은 명확한 제 기준에 따라 홀리들을 일렬로 세우고 앉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홀리가 지브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브릴이 홀리들을 앉히는 사이, 엘빈과 데미안, 로아는 녀석들의 엉덩이 부근에 홀리풀을 끈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이 무슨 괴이하고 희한한 짓이란 말인가!!

결국 보다 못한 로잘린이 지브릴에게로 달려가 물었다.

“지브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얘들이 네 말을 왜 이리 잘 듣지?”

그러자 한참 홀리들을 앉히고 있던 지브릴이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서열 순서대로 앉히고 있잖아요.”

“…서열 순서? 그걸 네가 어찌 알아?”

1, 2위 정도야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어중이떠중이 되는 놈들을 어찌 다 알아?

그러다 로잘린은 이내 깨달은 듯 지브릴에게 되물었다.

“그것도 느껴지는 거니? 아니, 느껴지는구나!”

막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앉히는 데 성공한 지브릴이 히죽 웃었다.

“그냥 보여요!”

발랄하게 대답한 지브릴은 로잘린과 대화하고 있을 틈이 없다는 듯 얼른 아투스에게로 달려가 등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가장 먼저 앉아 준 대가로 홀리 풀 한 단을 얻었던 아투스가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투스가 일어나자, 녀석의 엉덩이에 달린 홀리풀만 보고 있던 디에고가 일어났고, 그 뒤 역시 도미노처럼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로잘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사이, 지브릴이 아투스에게 속삭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면, 아니타에게 줬던 것보다 많은 풀을 줄게.”

그러자 아투스의 뾰족한 귀가 움찔거렸다. 놈은 틀림없이 왕보다 많은 풀을 주겠다는 말을 알아들었다.

지브릴은 몸을 낮춘 채 아투스의 목덜미를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단호히 명령했다.

“아뷔브에서 가장 기분 나쁜 곳으로 가자, 아투스!”

가장 기분 나쁜 곳. 온 산을 누볐을 아투스가 그곳을 모를 리가.

아니나 다를까, 아투스는 기다렸다는 듯 대지를 박차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아투스가 움직이자, 뒤에 선 홀리들도 일제히 움직였다. 놀랍게도 서열대로 맞춰져 있다 보니 대열이 흐트러지지도 않았다. 아주 미묘하게 앞선 놈이 빨랐기 때문이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멜로디와 카이사르도 아니타, 볼테르와 함께 무리의 곁을 따라 달렸다. 일족 중 제럴드와 에르데도 함께했다.

땅을 박차는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안개 같은 먼지가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뒤, 평원을 가득 메웠던 홀리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남겨진 일족이 어딘지 허무해 보이는 로잘린에게로 다가왔다.

“어이, 로잘린. 뭘 그러고 있어.”

발트의 물음에 로잘린이 눈을 깜빡이다가 중얼거렸다.

“아니… 홀리에 대해서만큼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로잘린은 지브릴을 떠올렸다. 무엇일까, 그 어린 소녀가 다루기 힘든 홀리를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엘레나가 말했다.

“아이들은 신의 단면이라잖아. 편견 없이 보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한 것이 들어맞았을 거야.”

그러자 곁에 있던 메어가 다른 의견을 냈다.

“단지 그것뿐일까? 천진하기 짝이 없는 직관이 무서울 정도로 적확했어. 그게 지브릴의 능력인지도 모르지.”

로잘린은 떨리는 가슴을 꾹 누른 채 먼지가 가라앉아 도로 청명해진 고원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느 쪽이든 대단한 능력이다. 열 살도 안 된 어린애가 홀리를 잡아 탔어.”

그러고는 한쪽에서 저들끼리 모여 있는 로아와 데미안, 그리고 엘빈을 돌아보며 길게 웃었다.

이러나저러나 코르벨라의 후대들이 선대들보다 나은 것 같다.

그녀는 청명한 공기를 깊게 들이쉬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과연, 지브릴이 귀곡까지 파헤치고 올까? 궁금하군.”

어렸을 때부터 종종 아니타를 타 보았던 지브릴은 아투스의 등 위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다.

아투스는 때론 험한 길을 골라 가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거칠게 내달렸는데, 지브릴은 그럴 때면 놈의 갈기를 뽑아 버릴 것처럼 세게 움켜쥐었다.

아투스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고개를 잘게 떨었으나, 그런다고 떨어질 지브릴이 아니었다.

“나도 네 갈기를 뽑고 싶은 건 아냐. 근데 네가 굳이 절벽으로 내달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잡을 거라고는 네 갈기뿐이라고!

작은 손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정말로 갈기가 다 뽑힐 것 같았다. 아투스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욕을 내뱉었으리라.

결국 아투스는 소녀의 입맛에 맞는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아투스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는 것을 보며 마음 졸이던 멜로디와 카이사르도 녀석이 그나마 안전한 길로 달리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그렇게 더 달렸을까.

뺨에 닿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새싹으로 파르랗던 숲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황량해졌다.

가장 앞서던 아니타가 더는 들어가기 싫다는 듯 속도를 늦추며 투레질을 했다.

멜로디는 녀석의 목덜미를 달래듯 두드리며 고개를 들었다. 창공을 비상하는 콘도르가 보였다.

아뷔브 동쪽 능선은 늘 을씨년스럽고 황량하다.

멜로디가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아투스를 필두로 한 어린 홀리들의 행렬이 보였다.

멜로디의 뒤를 이어 도착한 카이사르와 제럴드, 에르데도 멈추어 선 채 어린 녀석들의 달음박질을 지켜보았다.

“쟤들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야.”

에르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여기부턴 아뷔브 호랑이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기분이 나빠.”

제럴드도 한마디 거드는 데 반해, 카이사르와 멜로디는 말이 없었다. 대신 부부의 시선은 금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딸에게만 집요하게 닿아 있었다.

지브릴은 아투스의 머리카락처럼 긴 갈기를 하나로 묶어 잡고, 녀석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 딸을 관찰하던 카이사르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멜로디도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딸의 입 모양을 주시했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지브릴이 하는 말을 읊었다.

“…끝까지 가면… 두 배.”

바로 그 순간, 분명 멈추리라 생각했던 아투스와 지브릴이 어른들을 스쳐 지나갔다. 뿐만 아니라, 어린 홀리들 역시 아투스 뒤만 따른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멈추지 않고 내달렸다. 돌풍 같은 바람이 몰아치며 낙엽이 어른들의 얼굴을 때렸다.

“지브릴!”

놀란 어른들이 일제히 소녀를 바라보자, 소녀는 빠르게 멀어지며 한 손을 흔들어 보였다.

“먼저 가요~”

멀어지는 딸의 모습에 다급해진 멜로디가 아니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아니타, 제발 가자. 응?”

‘…….’

“네 자식들도 가고 있잖아?”

그러나 홀리의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듯했다. 그때, 멜로디는 지브릴의 말을 떠올렸다.

‘끝까지 가면 두 배.’

엄마의 눈빛이 딸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빛났다.

멜로디는 한쪽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으며 아니타에게 속삭였다.

“홀리풀, 아쉽지?”

이 영특한 녀석들은 틀림없이 사람 말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아니타가 귀를 쫑긋거리며 반응하자, 멜로디는 녀석의 갈기를 부드럽게 쓸며 나긋하게 말했다.

“귀곡까지 데려다주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줄게.”

에르데와 제럴드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어린 녀석들이야 그렇다 쳐도, 설마하니 홀리의 왕이 그런 말에…….

하지만 다음 순간.

아니타가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본 에르데와 제럴드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각자의 홀리에게 속삭였다.

“홀리풀 줄게. 왕을 따라가.”

카이사르 역시 풀로 유인하여 볼테르를 움직였다.

그리고 고작 그 풀 하나에, 왕을 필두로 한 네 기의 홀리는 기분 나빠서 절대로 가지 않겠다던 곳을 빠르게 내달렸다. 멜로디가 곁에서 함께 달리는 제럴드를 돌아보며 외쳤다.

“이 좋은 방법을 왜 몰랐죠?!”

그러자 제럴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설마하니 홀리가 이런 방법으로 움직여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어린 홀리들이 지나가며 일으킨 먼지가 부옇다. 아니타와 멜로디는 부연 먼지구름 사이를 지났고, 이내 저 멀리 아뷔브에서 가장 기분 나쁜 협곡이 머리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협곡의 초입에 아투스와 지브릴이 서 있었다.

“지브릴, 귀곡의 오드를 네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 봐야 알아. 우리가 먼저 도착하겠지만, 혹여라도 네가 먼저 도착한다면 절대 협곡에 홀로 들어가서는 안 돼. 엄마를 기다려야 해.”

지브릴은 그 약속을 지켰다.

멜로디는 아투스의 지척까지 다가간 뒤, 얼른 아니타에게서 내려 지브릴에게로 달려갔다.

“지브릴!”

지브릴은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발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아?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지는 않니? 어지럽지는?”

“다 괜찮아요.”

멜로디는 한숨을 내쉬다가, 지브릴의 다리를 보았다. 거친 산을 헤쳐 오느라 바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곳에는 생채기가 났는지 피가 맺혀 있었다.

다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위로 향하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성한 곳이 없었다. 손등, 팔, 목덜미, 하얀 얼굴까지 자잘한 상처가 가득했다.

그 자잘한 상처에 맺힌 핏방울이 멜로디의 가슴을 긁는 것만 같았다.

더불어 과거 저 시커먼 흙 속에 무엇이 묻혀 있었나. 갓 죽은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지 않았나. 만에 하나라도 저 아래 그 비슷한 것이 묻혀 있기라도 하다면, 절대 지브릴이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되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어라.’

그리 말하려 시선을 조금 더 들던 멜로디는 새파랗게 빛나는 딸의 눈동자 앞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2)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눈빛에는 뭔가를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가 어려있었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자에게 어리고, 염려스럽다는 이유로 어찌 물러나라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각자 기질의 발로가 확연해졌는데, 멜로디는 내심 후계로 지브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파악이 빠른 엘빈은 황제와 귀족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베델 공가를 물려받는 편이 나을 터.

그랬기에 멜로디는 한 걸음 물러나며 염려 대신 믿음이 서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그리고 딸이 기다리고 있는 말을 건넸다.

“가라, 지브릴 코르벨라. 이제 네 계획을 완성해라.”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지브릴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큰 목소리로 답했다.

“네, 폐하!!”

그러고는 겁 없는 시선으로 위용 넘치는 협곡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가자, 아투스!!”

지브릴의 외침에 아투스가 화답했다.

홀리는 과연 아뷔브의 주인다운 존재였다. 거대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협곡을 타고 내려갔다. 때때로 휘청이는 녀석이 있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추락하지는 않았다.

가장 앞선 아투스는 괜히 서열 1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금의 휘청임조차 없이 귀곡의 바닥을 향해 내달렸다. 녀석의 등에 매달린 지브릴 또한 작은 두려움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스쳐 가는 모든 것이 망막에 맺혔고, 몸이 뜨거울 만큼 강렬한 오드가 소녀의 전신을 휘감듯 돌았다. 거친 바위도, 어두운 기운이 묻은 귀곡의 오드도, 돌풍 같은 바람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저 흙더미를 모조리 뒤집어 버리는 것뿐.

지브릴은 귀곡의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아투스에게서 훌쩍 뛰어내린 뒤, 발로 열심히 흙바닥을 짓쳤다.

소녀의 주변으로 몰려든 홀리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참 발로 흙을 짓치던 지브릴은 아투스의 엉덩이에 묶어 두었던 홀리풀을 꺼내 칼처럼 양손에 쥐고 흔들었다.

“이거 봐! 너네, 여기 다 뒤집어엎으면, 이거 먹고 가는 거고! 아니면, 굶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고는 재빨리 발을 움직여 땅을 짓친 뒤, 들고 있던 풀을 와구와구 먹는 시늉을 했다.

땅 파헤쳐, 그럼 먹는 거야!

혹여 있을 위험에 대비해 따라 내려온 어른들은 지브릴의 선동을 보며 더 이상 헛웃음조차 터트리지 않았다.

저게 무슨 비상식적이고 어린애 장난 같은 일인가 싶겠지만, 딱 그런 방식으로 홀리들을 귀곡까지 몰고 오지 않았나?

역시나 잠시 후, 홀리 몇 마리가 겅중대며 땅을 짓치자 기다렸다는 듯 지브릴이 달려가 홀리풀을 먹여 주었고, 이내 수십 마리의 홀리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흙더미가 훅훅 날아다니는 장면을 바라보던 멜로디가 중얼거렸다.

“…이것들 순 먹보였어.”

그에 아니타가 발끈했으나, 멜로디는 어깨만 으쓱일 뿐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 파헤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해 보지요.”

과연 홀리들을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자던 데미안의 생각은 아주 적절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홀리들 덕분에 시커먼 속흙까지 모조리 겉으로 튀어나왔다.

카이사르는 제 곁으로 쪼르르 달려온 지브릴을 번쩍 안아 든 뒤, 몸에 묻은 낙엽과 흙을 털어 주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아버지가 딸의 곳곳을 살피는 와중에, 딸과 어머니는 똑같은 눈빛으로 주변을 훑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윽고 멜로디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지브릴은 얼른 아버지에게서 내려와 아투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고는 홀리 풀을 흔들어 대며 양 치는 목동처럼 홀리들을 몰았다.

“이제 됐어! 다들 이리로 와!!!”

우습게도 아니타와 볼테르를 비롯한 어른 홀리들까지 슬그머니 움직였다. 지브릴은 당황하지 않고 철저하게 서열대로 풀을 나눠 주기 시작했고, 소녀의 몇 배는 될 법한 덩치의 홀리들은 순한 양처럼 풀을 받아먹었다.

그리고 그 틈에 멜로디와 카이사르, 제럴드와 에르데는 흙더미 속을 샅샅이 살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게눈 감추듯 홀리풀을 먹어 버린 홀리들이 서서히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을 때,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아직까지는 귀곡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폐후에게서 자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던 것일까요?”

“글쎄.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에르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래도 어쨌든 없으니 다행 아닌가.”

“자자, 그럼 슬슬 돌아가자고. 조금 더 지체했다간 홀리들이 모조리 도망가 버리고 말 것 같거든.”

제럴드의 말에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홀리에게로 향했다.

놈들은 마치 줄줄이 묶어 둔 멧돼지들처럼 요란스럽게 움직이며 온몸으로 이곳이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있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브릴도 달려오며 그리 외치자, 네 사람은 얼른 각자의 홀리를 향해 달리며 말했다.

“돌아가자!”

불쾌하여 어쩔 줄 모르던 아니타는 멜로디가 제 등에 오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협곡의 거친 경사를 올랐다.

볼테르, 아투스를 비롯한 다른 홀리들도 일제히 협곡을 오르자 협곡의 공기가 거세게 진동하며 우레같은 소리를 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기라도 하듯, 두려울 정도의 소리였다.

새 몇 마리가 놀란 듯 푸드덕대며 날아오르자, 사철나무가 잘게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새카만 눈동자가 조용히 끔뻑였다. 홀리의 움직임을 따라 눈동자가 위로 향하자, 핏줄 선 흰자위가 보였다.

남자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며 조금 더 몸을 낮췄다.

그리고 코르벨라의 황제 일행이 멀어지길 기다렸다. 그 시퍼런 눈동자가 혹여라도 제게 향할까, 남자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몸을 숙였다.

그러나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별안간 뒤를 돌아보는 지브릴에게 가까이에서 달리던 제럴드가 물었다.

“왜 그러느냐, 지브릴?”

“할아버지,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비릿하고, 쇠 냄새가 섞인 냄새요.”

제럴드는 멀어지는 귀곡을 힐끔 돌아보며 꺼림칙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귀곡은 원래 그래. 원한이 서린 곳이라 그럴지도 모르지.”

“…….”

“앞을 보렴, 위험하니.”

결국 지브릴은 제럴드의 조언에 따라 정면을 바라보았고, 이내 그 냄새는 옅어졌다.

지브릴이 맡았던 비릿하고 쇠 냄새가 섞인 기분 나쁜 냄새의 근원은, 수풀 사이에 몸을 숨긴 남자의 등 뒤에 있었다.

마지막 홀리 한 마리마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남자는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발치를 돌아보았다.

시커먼 자루에서 새어 나온 검붉은 액체가 땅을 적시고 있었다.

“선왕 전하 살아 계실 때, 귀곡을 들쑤신 존재가 다름 아닌 현 코르벨라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친히 이곳까지 와서 귀곡을 확인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루를 쥐고 있던 이가 조용히 말하자, 남자는 짜증스러운 숨을 토해 내며 후회했다.

“제길. 코르벨라의 폐서인에게 자금을 받으려 했던 것이 실책이었다.”

폐서인이 죄인의 석상을 만들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기에, 황제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둔 줄 알았다. 그래서 몰래 다가가 자금을 얻으려 했던 것인데.

“코르벨라의 황제가 솔라 테올라에게까지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 테올라는 관문마다 병사를 배치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속을 뒤지고 있었다. 틀림없이 선왕의 사람들을 색출해 내려는 것이리라.

남자는 입안의 거칠한 자국을 혀로 훑으며 거칠게 욕을 뇌까렸다.

“한끝… 한끝만이 남았어. 그 한끝만 해결하면, 틀림없이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인데!”

더럽고 비밀스러운 연구 결과를 아주 비싼 값에 사 줄 사람은 아주 많을 것이다. 그것도 흔하디흔한 인간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말이다.

바로 그때, 자루를 쥐고 있던 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소를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자는 답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그의 의견을 묵살하지도 않았다. 핏발 선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침묵할 뿐이었다.

\* \* \*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보통 때였으면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겼을 시각이건만, 꽤 많은 일족들이 마을 어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모두 결과가 궁금하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왔다!”

멀리서부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수풀 사이로 거대한 홀리의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타의 위용은 어둠 속에서도 가려지지 않았다. 일족들이 새삼 왕의 자태에 감탄하는 사이, 아니타의 등 위에서 멜로디가 훌쩍 뛰어내렸다. 한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브릴!”

단번에 지브릴을 알아 본 클레어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오자, 멜로디는 얼른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쳐서 잠든 거예요.”

“세상에, 이 상처들……!”

클레어는 서둘러 지브릴을 안아 들었고, 그녀 뒤로 뛰어온 엘빈과 데미안, 로아도 발을 돋우며 지브릴을 살폈다.

“너희는 지금껏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던 거니?”

“말도 마. 어디 이 세 녀석뿐이겠니?”

로잘린이 어깨를 으쓱이며 우르르 몰려나온 일족을 턱짓으로 가리키자,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성공했어요?!”

손으로는 엘빈과 데미안, 로아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며 눈으로는 딸을 살피던 카이사르가 피식 웃었다.

“분명 내기를 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제럴드와 에르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3)

모두가 멜로디만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잠든 줄 알았던 지브릴이 클레어의 품 안에서 손을 치켜들며 잠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성공했죠!”

“지브릴!!”

지브릴이 클레어에게서 내려오자 엘빈과 데미안, 로아는 반색하며 지브릴을 불렀고, 카이사르는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일족들은 삽시간에 웅성거렸다.

“거 봐! 성공했을 거라고 했지!”

“에이. 나도 성공에 걸걸.”

그렇게 일족이 웅성거리는 사이, 엘빈은 지브릴에게 “잘했어.”라고 속삭였고, 데미안은 눈을 빛내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며, 로아는 지브릴을 살피더니 “많이 다쳤네? 약 발라야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넷은 거의 동시에 황제를 바라보았다.

모름지기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르는 법.

멜로디는 한 손을 허리에 얹으며 인정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일은 지브릴 코르벨라, 엘빈 코르벨라, 로아 아뷔브, 그리고 데미안 발할라의 공이 맞다.”

그러자 로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고했다.

“폐하, 저는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멜로디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몇 걸음 물러나 세 아이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런 그를 로잘린이 안아 주었다.

멜로디는 제 나름의 원칙을 고수하는 로아를 향해 웃음을 지어 준 뒤, 나머지 세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셋은 가슴을 활짝 편 채 황제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통통하게 젖살이 오른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자긍심이 가득 묻어 있었다.

멜로디는 마치 중신에게 이야기를 하듯, 아이들을 향해 정중히 말했다.

“그대들의 공을 인정하여, 대가로 한 가지 청을 들어주겠다.”

세 아이가 동시에 눈을 들자, 멜로디는 진중하던 표정을 풀고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거렸다.

“잘 고민하고 합의하여 말하도록.”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의 표정이 확 변했다. 작은 가슴을 부풀리며 눈을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자, 곁에 있던 에르데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허, 요 녀석들. 이미 생각해 둔 것이 있는 모양인…….”

그러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 녀석이 동시에 외쳤기 때문이다.

“여기서 3일 더 있다가 가요!!!”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결국 웃음이 터져 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큭큭 웃었고, 그 웃음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인 셋과 로아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좋아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아니타는 꼬리를 탁탁 흔들어 대며 멀어졌다.

‘저것들 내일 또 오겠네.’

딱 그런 표정을 지으며.

그리고 다음 날.

‘저것들 또 왔네.’

어제의 일로 진저리가 나 버린 아니타는 아예 고원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지브릴은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축했던 모든 홀리풀을 소진하여 더는 풀로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브릴은 빈손으로 아투스를 향해 다가갔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투스가 과연 지브릴을 아는 척이나 할까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지브릴을 따라온 로잘린에게 이지스가 물었다.

“글쎄. 하지만 애초에 지브릴은 왕의 중재를 받지 않고 아투스를 탔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둘만의 교감이 있었을 거야.”

때 묻지 않은 아이와 야생의 생명체 사이의 교감은 이해의 범위 너머의 것이리라.

“자연은 그 자체로 신성이야. 감히 헤아릴 수 없…….”

로잘린의 말끝이 흐려졌다.

늘 어딘가에 냉소가 깃들어 있던 그녀의 샛노란 눈동자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곁에 섰던 이지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신관은 경건한 마음으로 눈앞의 장관을 지켜보았다.

운무가 가득한 고원 평야.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푸르게 보이는 거대한 생명체가 제 다리 길이만큼도 안 되는 소녀의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었다. 소녀는 주저앉아 녀석의 머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투스는 지브릴을 업은 채 긴 앞발을 세워 거대한 몸을 일으켰다.

바람이 불자 녀석의 푸른 갈기와 부옇게 빛나는 지브릴의 곱슬머리가 흩날렸다.

그리고 두 녀석은 드넓은 고원 평야를 함께 뛰놀듯 누볐다.

지브릴은 아투스가 내달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를 붙잡고 있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아 보았다.

작은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아투스의 갈기가 뺨을 간지럽히고, 하늘이 제게로 쏟아지는 것 같다.

지브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뷔브의 모든 것을 만끽했다. 숨 쉬는 곳곳마다 배어 있는 오드의 향연,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홀리,

어른들조차 해내지 못하리라 생각한 것을 기어이 해냈던 어제.

소녀의 눈동자는 긍지로 반짝였고, 가슴은 터질 듯 부풀었다.

“와아아!!”

기쁨이 서린 맑은 목소리로 환성을 내지르자, 아투스가 화답하듯 조금 더 멀리 뛰었다. 지브릴은 얼른 몸을 숙이며 녀석의 목덜미를 잡았다.

대지를 울리는 발굽 소리, 건강한 숨소리, 코끝을 스치는 새싹의 파릇한 향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부끼는 금발.

아이와 홀리를 감싸듯 펼쳐진 하늘은 어느 순간 어두워졌다가 때론 흐려졌으며, 그러다 비가 오고, 다시 맑아지기를 반복했다.

여린 것들이 세상을 물들였던 봄은 푸르고 울창한 여름, 낙조를 담아낸 듯한 가을, 은빛 겨울로 변화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창공을 배경으로 나부끼던 금빛 머리카락도 서서히 길어졌다.

다만, 대지를 울리는 발굽 소리와 건강한 숨소리, 뺨을 간질이던 푸른 갈기의 감촉, 그 사이에서 새파랗게 빛나던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어느 봄, 고원 평야의 봄이 산 아래까지 번진 날.

내리쬐는 봄 햇살이 푸른 홀리를 타고 달리는 여자의 실루엣을 금빛으로 그려 냈다.

반듯한 이마, 오뚝한 콧날, 보기 좋게 자리 잡은 붉은 입술,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빛나는 파란 눈동자.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망토가 힘차게 나부꼈다.

“황태녀 전하, 황자 전하! 조금만 천천히 가 주십시오!!”

등 뒤에서 기사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오자, 지브릴은 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외쳤다.

“천천히 와라!”

기사들의 요구와 달리 아투스는 속도를 높였고, 그에 뒤질세라 엘빈을 태운 디에고 역시 대지를 내달렸다.

햇살은 엘빈의 실루엣도 금빛으로 그려 냈다. 그의 넓고 탄탄한 가슴에 달린 베델 공가의 휘장도 함께 반짝였다.

제국 제일 미남이라 칭송받던 아버지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옅은 하늘색 눈동자로 저 먼 황궁의 지붕을 바라보았다. 엘빈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지겹다, 지브릴. 더 빨리 가자.”

“내 말이.”

짤막한 대화 끝에, 두 사람은 더 빨리 대지를 박차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보는 코르벨라의 황궁을 향해서.

웅성웅성 웅성웅성.

“허, 꽃밭이네.”

회랑을 따라 걷던 멜로디가 황도 정원을 보며 헛웃음을 터트렸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도래한 황궁의 정원. 데이지는 갓 움튼 봄꽃과 그보다 화려한 옷자락들을 힐끔 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꽃을 보고 꽃이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유를 하신 겁니까?”

그러자 그녀의 곁에서 걸음을 맞춰 걷던 데미안이 무정한 눈빛으로 정원을 보며 대꾸했다.

“중의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겠지요, 어머니.”

데미안의 말에 멜로디는 돌연 멈춰 서 버렸다. 황제가 멈추자, 뒤를 따르던 이들 모두가 일제히 멈춰 서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데미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제 어머니를 꼭 닮은 금안이 살짝 커졌다.

올해 쌍둥이들과 함께 열여덟 성년이 된 그는 지나가다가도 도로 돌아가서 쳐다볼 만큼 아름다웠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큰 데다,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와 놀기 위해 혹독한 체력 훈련을 한 덕에 체격도 좋았다.

어딘지 날카로운 기운이 서린 눈매와 턱선이 보기 드문 금안과 어우러져 발할라 가문 특유의 날렵한 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황제의 시선을 뻔뻔하게 받아 내는 배짱까지.

멜로디는 이번엔 아뷔브 공작 옆에 서 있는 로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로아는 갑작스럽게 제게로 향한 시선에 눈을 둥글게 뜨더니 이내 싱긋 웃어 보였다.

데미안이 사납고 앙칼진 기색이 역력한 여우라면, 이쪽은 덩치 큰 갯과다.

현재 아뷔브 공가의 후계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로아는 녹색눈 일족의 느낌이 아주 강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어머니를 닮은 영롱한 녹색 눈동자는 마치 숲의 단면을 보는 듯했고, 그래서인지 그에게선 늘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하고 마음을 내비치며 허물없이 지내지는 않으니, 단정하면서도 단호한 문관 특유의 느낌이 물씬 들었다.

일족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았으니,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멜로디는 로아와 데미안을 한 번씩 더 돌아보며 히죽 웃었다. 카이사르를 제외한 모두가 긴장하는데, 멜로디가 운을 뗐다.

“그, 요즘 수도 사람들 사이에서 연극장이 그렇게 유행이라지? 인기 많은 배우가 나오는 날이면 극장 주변에 한껏 치장한 인파가 그렇게 몰린대.”

“어디서 들은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폐하. 이미 몰래 다녀오신 것을 압니다.”

몇 년 전, 아흔이 훌쩍 넘어서야 은퇴할 수 있었던 아들러를 대신하여 부임한 시종장이 한숨과 함께 말하자, 황제는 오히려 그의 지적을 이용하여 말을 이었다.

“어. 그래, 그랬지. 암튼 배우가 나오니까 인파가 환영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로아와 데미안이 엄습하는 불안함에 각자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자, 멜로디는 손가락으로 정원을 쭉 가리키며 둘에게 속삭였다.

“너희 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리 한 바퀴 돌아 보거라. 왠지 그날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카이사르, 나이젤, 발할라 부부가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그래, 폐하 말씀대로 한 번 걸어보련. 나도 그 장면을 좀 보자꾸나.”

데이지까지 웃으며 거드는 데다가, 황제의 눈동자에 가득 깃든 재미를 확인한 두 청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버렸다.

때때로 그들은 황제가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생각만 해도 재밌는지 키득거리며 몸을 돌리는 그녀에게 로아가 정중히 말했다.

“저희가 하지 않아도 곧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폐하.”

“응?”

황제의 반문에, 데미안이 당연하지 않냐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황태녀 전하와 황자 전하께서 곧 도착하실 테니까요.”

저 멀리, 황태녀가 성곽을 통과했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4)

“오셨다!”

누군가의 억눌린 속삭임에 황제 곁에 선 데미안과 로아를 힐끔거리던 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문으로 향했다.

몇몇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발을 동동 구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남성들은 괜히 어깨를 활짝 펴며 옷매무시를 가다듬느라 정신이 없었다.

데미안과 로아의 말처럼, 그들이 부러 자태를 뽐내지 않아도 환영 인파는 들썩였다.

멜로디와 카이사르는 웅장한 문을 넘어오는 딸과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동시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들의 자식 둘은 보드라운 실크 연미복 대신 마찰에 강한 전투복을 입었고, 광택 어린 구두 대신 투박한 군화를 신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보다 빛났다.

단순히 외모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그러했다.

대공 카이사르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엘빈 코르벨라는 평균 체격이 큰 코르벨라 내에서도 발군이었다.

전투복과 푸른 망토를 걸친 오늘은 한 자루의 명검처럼 보이지만, 연미복을 입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때때로 로아 못지않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덕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절묘하게 섞어 닮았다는 평을 들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베델의 후계가 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몇 걸음 앞엔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걷는 지브릴이 있었다.

그녀의 체격은 엘빈보다 훨씬 작고 가냘팠으며, 생김은 희고 단아하여 도무지 전투복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전투복을 입은 모습에 어떠한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든 해내리란 믿음과 확신이 어린 표정과 눈빛 때문이리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붉은 망토에 짓눌리지 않은 걸음은 가볍고 위풍당당했다. 그것이 그녀를 제국의 차기 황제로 보이게 했다.

상석에 서 있던 멜로디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곁에 선 카이사르와 나이젤에게 속삭였다.

“오래전, 아리엘 협곡에 금관초 따러 갔다 오던 날을 기억해요?”

황태녀와 황자의 등장을 바라보던 두 남자가 황제의 물음에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그것을 어찌 잊겠습니까. 물론 그땐 지금과 달리 이곳에 정원이 없었지만.”

멜로디는 그날, 저 멀리 서 계시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주름진 얼굴을 휘며 웃으셨었지.

그때 그녀의 모습은 지금 저 아이들과 같았을까.

멜로디는 제게로 다가오는 둘과 눈을 맞춘 뒤 환한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리고 그 옛날,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둘을 맞이해 주었다.

“어서 오너라. 무탈이 돌아온 것을 보니 기쁘구나. 지브릴, 엘빈.”

따뜻한 환대를 받은 지브릴과 엘빈 역시 몇 달 만에 마주한 부모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로아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긴 금발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머리를 묶는 게 어떨까?”

그에 성큼성큼 걷던 지브릴이 로아를 일별하며 물었다.

“왜, 냄새나?”

그러자 그녀 곁에서 걷던 데미안이 미간을 찡그리며 즉시 몇 걸음 떨어졌고, 엘빈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로아 대신 대답했다.

“지금 태후 폐하와 할머님 뵈러 가는 거잖아.”

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히 덧붙였다.

“머리가 엉망인 걸 보시면 속상해하시니까.”

지브릴이 대충 고개를 끄덕이더니 중얼거렸다.

“끈 없는데.”

그러고는 지나가는 시녀가 있나 하여 두리번거리자, 데미안이 멀찍이서 뭔가를 슥 내밀었다.

지브릴은 그의 길쭉한 손가락에 걸린 끈을 가느스름한 시선으로 보다가 히죽 웃었다.

“야, 너 연애하냐?”

데미안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다.

“뭐래, 진짜.”

지브릴이 끈을 받으며 되물었다.

“아니, 그럼 머리도 짧은 네가 이걸 왜 들고 다녀?”

“끈이 머리 묶는 데만 쓰이는 줄 아십니까? 서류 묶는데도 쓰이고 쓰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항변에도 지브릴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글맞게 중얼거렸다.

“아닌데? 이 고운 색을 좀 봐.”

데미안이 저 멀리 걸어가는 황제를 일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머리나 제대로 묶어. 하여간 폐하께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

황제에게 혹여라도 떡밥을 던져 보라. 몇 달 굶은 붕어처럼 요란하게 떡밥을 물 사람이 그녀다.

‘데미안이 연애애애? 누구야 누구우~’

잔뜩 신이 난 파란 눈을 떠올린 데미안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는 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휘휘 젓고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폐하 앞에서 연애 비슷한 단어도 꺼내지 마, 알겠어?!”

그러자 다시 걸으며 건성건성 머리를 묶던 지브릴이 짐짓 엄하게 말했다.

“어허, 말이 짧네. 불경하고.”

“부탁드립니다, 황태녀 전하.”

“이상하게 얘는 존대를 해도 존대 같지가 않아.”

“뭘 어쩌란 겁니까?”

데미안과 지브릴이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지브릴 뒤에 있던 로아는 건성으로 묶어 엉망이긴 마찬가지인 머리카락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다시 묶어 줄 수도 없고. 다시 묶으란다고 묶을 지브릴도 아니고.

결국 그는 포기하고, 붉은 망토에 붙은 긴 금실을 슬쩍 손가락으로 떼 주었다.

그가 그러며 걷는 사이, 엘빈은 무표정한 얼굴로 데미안의 어깨를 툭 쳤다. 데미안이 고개를 돌리자, 엘빈이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그러니까 진짜 연애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엘빈, 너까지!”

데미안이 발작하듯 바르르 떨자 엘빈은 싱긋 웃었고, 지브릴도 음흉한 눈빛으로 데미안을 살피며 실실거렸다. 쌍둥이는 다른 듯 닮았다.

사촌 넷이 투닥거리며 오는 사이, 어른들은 이미 거대한 문을 넘어가고 있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던 아쉬가 어서 오라는 듯 그들을 돌아보자, 넷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태후 궁의 응접실.

높다란 아치형 창문을 투과한 빛이 따사롭게 방 안을 비추었다. 각자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마틸다와 이안, 그리고 베델 공작은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자식들을 보며 활짝 웃었다.

익히 보아 오던 얼굴 사이로, 세 사람이 몇 달간 손꼽아 기다린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황태녀, 황자!”

마틸다는 지브릴과 엘빈이 보이자 기쁨이 서린 목소리로 밝게 그들을 불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두 아이가 태후 궁을 제 방 드나들듯 드나들었던 까닭으로 그만 키운 정이 들고 말았다.

그녀는 얼른 소파를 돌아 나와 둘에게로 달려갔다.

“태후 폐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후 폐하.”

지브릴과 엘빈이 동시에 정중히 인사를 올렸으나, 마틸다는 둘의 안색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저런, 둘 모두 여위었구나.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

그러고는 둘이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종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이보게 시종장, 수석 요리사에게 일러 당분간 황태녀와 황자의 식사에 공을 들이라 하게. 아이들 얼굴이 반쪽이 된 것, 보이지?”

“예, 태후 폐하.”

시종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선까지 흔들리는 것은 막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 아이, 반쪽이란 단어는 틀림없이 어폐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후는 엘빈과 지브릴의 뺨에 각각 한 손씩을 대고 있었는데, 키가 큰 엘빈의 경우 부러 등을 수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후가 팔을 뻗다시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태후는 두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로아와 데미안까지 따뜻하게 안아 주었고, 이어 이안이 다가왔다.

“다녀왔어요.”

“할머님, 다녀왔습니다.”

지브릴과 엘빈이 각각 인사를 건네자, 이안은 둘을 꼭 끌어안았다. 둘 모두 장성하여 안기려면 몸을 수그려야 했으나, 여전히 그녀보다 작은 듯했다.

“잘 다녀오신 것을 뵈니 기쁩니다.”

따뜻한 음성이 그녀 뒤에서 쏟아지는 햇살보다도 포근했다. 이안은 태후와 마찬가지로 그들 뒤에 서 있던 로아와 데미안에게도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로아, 데미안.”

그사이 베델 공작도 다가왔다. 과거, 아들에게 눈인사로 모든 인사를 대신했던 그였으나 손주들에겐 아니었다.

“할아버지!”

밝은 음성으로 저를 부르는 지브릴에겐 따뜻한 포옹을 건넸고,

“할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의젓하게 고개를 숙이는 엘빈의 어깨를 안아 주었다.

1대와 3대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 소외된 2대들은 저들끼리 슬쩍 소파에 앉았다. 그러자 태후는 얼른 다과를 대접했고, 조용하던 태후 궁은 다소 소란해졌다.

황제를 위시한 중신 집단이 그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이안은 지브릴을 제 앞에 앉힌 채 대충 묶인 머리카락을 풀었다.

“할머니, 냄새날걸요. 저 머리 못 감은 지 일주일 됐어요. 감을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이안과 지브릴이 앉은 소파 뒤쪽 등받이에 어슷하게 기대어 있던 데미안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한쪽에 서서 베델 공작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엘빈을 돌아보았다.

뭐야. 쟤는 깔끔해 보이잖아?

“그런 이유라기엔, 황자 전하께서는 머리를 감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쟤랑 기사들은 그냥 수돗가에서 대충 물 묻혀 털어도 깔끔해져. 너도 나처럼 머리 길어 봐. 감고 말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이참에 확 잘라 버릴까.”

이안은 쿡쿡 웃으며 엉킨 머리카락을 살살 풀어 냈다. 그러고는 솜씨 좋게 땋은 뒤 곱게 틀어 올렸다. 그 모습을 보던 데미안이 얼른 주머니에서 끈 하나를 꺼내 건넸고, 이안은 다정히 웃었다.

“우리 데미안, 세심하기도 하지. 오늘도 묶을 서류가 많았나 보구나.”

“네, 할머님. 좀 그랬어요.”

이안이 그를 돌아본 순간, 사나운 여우의 기운이 자취를 감췄다. 데미안이 그녀에게 순하게 웃어 보이는 사이, 로아의 시선은 태후에게 닿아 있었다.

할머니의 나른한 손길을 느끼고 있던 지브릴이 문득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지브릴은 로아의 시선을 따라 태후를 바라보았다.

한데 직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그녀가 어딘지 텅 비어 보였다. 더불어 느껴지는 흐름이 가늘고도 툭툭 끊겼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여읜 것은 다름 아닌 그녀 같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5)

“태후 폐하.”

갑작스러운 지브릴의 부름에, 멍하니 있던 마틸다가 얼른 표정을 고치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음?”

“무슨 일 있으세요?”

지브릴이 묻자, 그녀의 안색을 살피던 로아도 거들었다.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할머님.”

두 사람이 그리 말하자, 엘빈과 데미안도 태후를 돌아보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던 멜로디를 비롯한 어른들도 시선을 돌렸다. 다만, 그들은 태후의 표정이 좋지 않은 까닭을 알고 있는 듯했다.

멜로디가 무어라 입을 열려 하자, 마틸다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그녀보다 앞서 말했다.

“황제, 아니에요.”

“태후 폐하.”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과한 요청입니다.”

그러고는 나이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이젤, 그래도 너는 다녀와 주련.”

그녀의 목소리 끝이 어쩔 수 없이 잘게 떨리자, 로아가 얼른 일어나 다가갔다. 태후는 제 손을 붙잡는 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써 웃었으나, 모두가 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놀란 지브릴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멜로디는 눈물짓는 마틸다에게서 고개를 돌려 나이젤을 바라보았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라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틸다가 걱정으로 물든 것은 약 열흘 전, 황제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발신인은 로즈 코르벨라 아이젠이었다.

\* \* \*

달이 밝은 밤이다.

화관 같은 달무리가 진 보얀 달 아래,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하와 궁이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천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하여 천 궁이라고도 불리는 하와 궁은 아이젠 제국의 심장이었다.

성 곳곳엔 성인 두 사람이 안아도 안지 못할 만큼 거대한 기둥이 마치 도열한 기사들처럼 늘어서, 칠흑 같은 그믐밤에도 그 위용을 자랑했다.

태양신의 모습이 음각으로 조각된 특별한 기둥 아래, 아이젠의 황제가 머무는 침실이 있었다.

화려한 기둥 사이로 조각난 달빛이 침실 내부까지 들어왔다. 곳곳에서 타오르는 벽등 보다는 달빛이 훨씬 밝았다.

한편에 마련된 향로에 꽂힌 향이 제 몸을 태우며 가느다란 연기를 자아냈고, 구석에 앉은 악사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종을 간헐적으로 울렸다.

향과 종.

이제 거기까지 왔다.

[…폐하를 습격한 무리의 배후에 마와바타 가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데 깨어났던 호위 무사가 죽기 전,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폐하의 습격자들이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어이 목을 잘라야만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만.]

로즈는 두 눈을 꾹 눌러 감으며 온기라고는 없는 황제의 손을 힘껏 붙잡았다. 말을 전하던 이가 작게 고개를 숙인 뒤 물러갔다.

[쉐르칸…….]

잘게 떨리는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했다. 그러나 어떤 반응도 없었다. 로즈는 눈을 떠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런 순간마다, 그가 진정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만다. 만약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울고 있는 그녀를 그대로 둘 리가 없으니.

“로즈.”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던 날, 막연히 초원을 배회하는 검은 늑대를 떠올렸었다. 곱슬 거리는 까만 머리카락과 붉디붉은 눈동자, 더불어 그을린 듯한 초콜릿색 피부까지.

쉐르칸에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늑대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온몸을 타고 흐르는 관능과 야성이 그가 애용하는 사향 향내와 뒤섞여 멀미마저 일게 했다.

매끈하고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는 코르벨라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처음엔 쉐르칸과의 결혼 생활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걱정은 이내 기우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를 사랑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쉐르칸은 정부를 두지 않았고, 로즈가 아이젠의 황후가 된 지 20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타국 생활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늘 사랑을 주었다.

로즈는 과거를 떠올리다가 또 무너졌다. 달빛이 잔인하게도 쉐르칸 위를 비췄다. 고작 몇 달 만에 우람하고 탄탄하던 근육이 모두 빠져 앙상해져 버렸다.

아주 허무하고 무력하게 손가락 사이로 뭔가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흘러나가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

로즈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막았을 때였다.

정중한 노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 느껴졌다. 로즈는 서둘러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던 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자 조각난 달빛이 그의 발목부터 위로 서서히 드리워졌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누워 있는 쉐르칸 황제와 놀라우리만치 닮은 청년이었다.

구불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새빨간 눈동자, 야생을 떠올릴 정도로 근육이 잡힌 건장한 체격의 청년은 다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부색만 아버지보다 조금 옅었다.

침대 앞에 앉아 있던 로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무르.]

그의 이름은 샨 테무르 아이젠. 쉐르칸 황제와 로즈 황후의 유일한 아들로, 현 아이젠의 섭정이었다.

테무르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데 그의 눈빛에 서린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로즈는 그 까닭을 아는 듯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잠시 벗어 두었던 르와즈를 머리 위에 쓰며 입을 열었다.

[내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옆 방으로 가자.]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창문조차 없는 밀실이라 훨씬 어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로즈는 숨을 가다듬으며 몸을 돌렸다. 촛불이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렸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볼 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테무르였다.

[저 몰래 코르벨라의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셨습니까?]

그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로즈는 정수리 위로 드리웠던 르와즈를 내려 어깨에 걸치며 대답했다.

[그랬단다.]

[무어라고요? 제가 온전히 아이젠의 황좌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입니까?]

아들의 말에 가시가 박혀 있자, 로즈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곳의 모두가 그리하지 않느냐?]

[…….]

[사사롭게는 한 가문의 후계 다툼을 할 때조차 아주 대놓고 외척이 나서지.]

[…….]

[네 아버지, 황제께서 왜 갑작스레 저리 누워 계시니?]

테무르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아이젠은 유목 기마민족의 후예로, 가장 강한 이가 무리를 이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과거 왕국 시절, 왕이 죽고 나면 으레 피비린내 나는 후계 싸움이 이어졌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제국의 형태를 갖추고 난 뒤에도, 그 후계 싸움의 전통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쉐르칸 황제는 테무르 이외의 자식을 두지 않았다.

한데, 황제가 믿었던 그의 아우이자 테무르의 숙부인 모아드 공작이 실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을 줄이야.

[들었단다. 모아드 공작 부인의 친정인 마와바타 가문이 습격의 배후에 있을 거라는 말.]

로즈는 습한 목소리로 허탈하게 웃으며 “우습지.”라고 중얼거렸다.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라면, 숨길 생각도 없다는 의미 아니니?]

시종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로즈는 모아드 공작 부처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 뻔뻔한 얼굴을 후려쳐 버리고 싶었다.

[그게 아주 당연한 아이젠의 문화이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지. 누가 이길지, 치열하게 계산하면서.]

치가 떨렸다.

[그들이 이제 내 남편뿐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까지 대놓고 노리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로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다.

[코르벨라는, 어미의 모국이다. 나의 어머니이자 너의 외조모는 현 코르벨라의 황태후이며, 나의 자매가 코르벨라의 황제니라.]

테무르는 미혼인 데다, 어미의 친정조차 이곳에 없다. 아이젠에서 그가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자, 로즈는 결국 멜로디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아름다운 녹색 눈이 일렁이더니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테무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던 테무르가 한 걸음 물러났다.

손길은 다정했으나, 눈길은 무정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단호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공적인 일이기에 그러했다.

[어머니께서 서신을 보내신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어찌하여.]

[코르벨라의 황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외숙이라면 잠시 오실 수 있겠으나…….]

아뷔브 공작의 방문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테무르는 뒷말을 삼키며 다른 말을 했다.

[어머니, 제국의 황제가 어찌 오겠습니까.]

좋은 날 초청한 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를 위태로운 위치의 타국 황태자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온다 한들…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신경 쓸 일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 괜한 기대와 제 걱정은 마시…….]

[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로즈가 아들의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테무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말을 아끼자, 로즈가 그의 속내를 들춰냈다.

[코르벨라의 황제가 여자이니, 온다 한들 아이젠의 귀족들은 도리어 콧방귀를 뀔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것이지?]

아이젠은 대대로 오직 남성만이 황좌와 가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랬기에 테무르는 부정하지 않았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괜한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테무르는 짙은 피로가 묻어나는 손길로 얼굴을 훑어 낸 뒤, 로즈가 입을 열기 전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평행선인지라, 더는 그녀와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애초에 오지도 않을 코르벨라 황제에게 서신을 보낸 것부터가 위신이 떨어질 일이었으며, 온다 한들 그는 코르벨라 황제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

솔직한 말로, 오지 않기를 바랐다. 신경 쓸 것만 잔뜩 늘어날 귀찮은 일일 터.

더불어 이것은 아이젠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지, 코르벨라인의 싸움이 아니다.

테무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몸을 돌렸다. 그가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그녀를 모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6)

테무르가 등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로즈는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오랜 과거를 되짚듯 몽롱했다.

[너는, 나의 자매 멜로디 코르벨라 황제를 몰라.]

못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그 새파란 눈동자만큼은 어제 본 것처럼 생생했다.

[물론 나도 그녀를 잘 모르지. 하지만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

[…….]

[그녀는 코르벨라 궁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피었는지도 모르게 피어 있었어. 그랬던 그녀가 압도적인 무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황제에 등극했다.]

심지어 오랜 기간 황제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이젤을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었으며, 마틸다 태후의 지지마저도 이끌어 냈다.

[도두 2세의 치세 못지않게 국정 운영도 잘한다는 소식, 너도 들었을 거야.]

촛불을 바라보던 로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다.

[그러니 테무르, 설혹 그녀가 오지 못한다면 내 그것은 이해하마. 하나,]

[…….]

아들을 바라보는 녹색 눈동자가 단단한 빛으로 번뜩였다.

[그녀가 오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구나.]

\* \* \*

로즈가 멜로디를 떠올리던 그 무렵, 멜로디는 그녀가 보낸 편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재 아이젠은 갑작스러운 황제의 부상으로 몹시 혼란한 상황인 듯했다. 정보원들의 보고서 또한 편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코르벨라 황제로서, 아이젠 황후의 요청은 사실 매우 곤란한 것이었다. 태후가 알기 전 이 편지를 보았던 나이젤도 한참 침묵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들어줄 수 없는 요청입니다.”

태후 또한 슬프지만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럼에도 멜로디는 이 편지에 쉬이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잘 살라거나, 조심히 가라거나, 결혼 축하한다거나… 그런 말은 해 주지 않을 거니?”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멜로디는 그날의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했다.

“나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소문이 안 좋게 나도…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부끄러움을 안고 찾아갔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해를 얻었다.

“그게 뭐가 미친 거야. 오라버니들은 당연하게 들어가는 중신 회의인데, 왜 네가 들어가면 난입인 거야.”

생각지도 못한 지지를 받았다.

“소문으로 들리는 너의 이상한 행동들은 사실 다 그런 것들이었어.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한 행동들이 정말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늘 생각했어.”

이름처럼 장미 같던 웃음에 숨이 막혔었다.

“그러니까 멜로디, 나에게 축하한다고 말해 줘. 잘 살라고, 거기 가서는 바지도 입고 말도 타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말해 줄래?”

누구에게도 느껴 보지 못했던 처절한 패배감이 들었다. 하지만,

“로즈, 잘 살아. 아이젠에 가서 누구보다 멋지게 그렇게 살아 줘.”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잘 살기를 바랐다.

떨며 전한 진심에, 그 아이는 무어라 대답했던가.

“물론이지, 멜로디. 너도 잘 살아야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지금 모습이 가장 잘 어울려.”

과거를 회상하던 멜로디는 입술을 세게 짓씹어 물며 편지의 어느 구절을 바라보았다.

[부디, 간청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아…….”

멜로디가 눈을 감으며 통탄 어린 숨을 몰아쉬자, 카이사르가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멜로디.”

멜로디는 그의 품에서 얕은 숨을 내쉬다가 고백했다.

“카이사르, 나는… 로즈에게 빚이 있어요.”

“…….”

“아마도 로즈는 영문을 모를 테지만…….”

카이사르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다가 말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으신 것이지요.”

한데, 명분이 없다.

그녀가 일개 귀족이었다면 이미 배를 타고 아이젠으로 가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황제였고, 그렇기에 명분 없이 움직일 수 없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결국 도울 수 없나.

로즈의 고통을 모른 척 덮을 수밖에 없는가. 제발 도와 달라는 간절한 청을 거절하고, 무거운 마음은 개인의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멜로디가 카이사르의 품에서 몸을 옹송그릴 때였다.

예기치 못한 이들이 찾아왔다.

멜로디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외숙, 아뷔브 공. 무슨 일로……?”

제럴드와 나이젤은 어두운 표정으로 한 통의 문서를 내밀었다. 멜로디는 서둘러 문서를 꺼내 읽었다.

그녀가 문서의 절반쯤을 읽었을 때, 나이젤이 입을 열었다.

“코르벨라 내 거주 일족들은 매년 신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출국한 이들의 신변 확인이었습니다. 출국자는 모두 하프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이는 총 스무 명이었는데, 그중 열넷은 무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섯 명은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카이사르가 묻자, 나이젤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모두 실종된 지 3년은 지났다 하더군요. 바다를 건너간 이들까지 매년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여섯은 어느 일족의 하프인 겁니까?”

“모두 파란눈 일족의 하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국가가…….”

멜로디는 운명의 장난처럼 보고서에 적힌 국가의 이름을 응시했다.

“아이젠입니다.”

오르센과 코르벨라, 심지어 제록스까지 몇 년간 이 잡듯 뒤졌으나 로쉐에게 접근했던 자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사기일지 모른다 방심했었다.

한데 그 사건은 십여 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의문의 실마리를 내보였다.

실종된 파란눈 일족의 하프 여섯.

아이젠.

갑작스럽게 물밀 듯 밀려드는 정보가 별안간 한 퍼즐 안에서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젠… 아이젠이라…….”

미간을 찌푸린 채 중얼거리던 멜로디가 별안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캐비닛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왔다. 그녀는 빠른 손길로 문서를 넘기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그러고는 혼자 문서를 읽어 보더니 이내 세 남자에게 내밀었다.

“여기를 보세요. 아주 짧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세 남자가 동시에 몸을 수그렸고, 카이사르는 멜로디가 가리킨 문단을 소리 내어 읽었다.

“쉐르칸 황제를 습격한 배후엔 마와바타 가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제를 습격한 암살자들은… 팔과 다리가 잘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였으며, 끝내 목을 잘라야만 숨이 끊어지는…….”

카이사르가 말끝을 흐리자, 제럴드가 눈을 번뜩이며 남은 문장을 마저 읽었다.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다.”

네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죽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머리 위로 가라앉았다. 시린 침묵 속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아이젠에, 그들이 막연히 찾던 뭔가가 있다.

황제는 발할라 후작 부부까지 소환하여 이 일에 대해 의논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족 몇의 문제가 아니다. 일족의 피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된다면 그것은 언제고 소문이 날 것이며, 종국엔 과거와 같은 제노사이드를 유발할 것이다.

순혈은 물론이거니와 하프와 쿼터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코르벨라 내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무렵 세력을 확장한 일족의 후예들이 맞서 싸워 결국 내전이 일어나고야 말리라.

“그때 그리 감정적으로 연구소를 불사르지 말았어야 했소.”

제럴드의 후회에 나이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 먼 훗날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고 있던 아쉬가 염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신들입니다. 중신들에게 일족의 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표면적으로 보자면 아이젠 제국의 후계 다툼에 폐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기에 납득시키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에, 어쩌면 그만큼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가 아쉬의 말에 대꾸하자, 듣고 있던 데이지가 동의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국 간 관세 철폐를 제안할 수도 있지요. 최근 아이젠과 교역하는 상단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중신 중에도 관여된 자들이 많아요. 차기 황제 옹립에 도움을 주는 것만큼 큰 투자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데이지는 말끝을 흐리며 멜로디를 바라보았고, 아쉬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럼에도 폐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반대할 겁니다.”

멜로디는 소리 나게 한숨을 내쉬더니 중얼거렸다.

“하여간, 황제가 되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졌어.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하고.”

그녀의 푸념에 모인 이들이 동시에 헛웃음을 터트렸다.

멜로디는 팔짱을 끼더니 시선을 내리깔았다. 장난 섞인 모습이 사라지자, 그녀의 기류가 순식간에 변했다. 본성이 지배자인 듯한 모습은 황제 그 자체였다.

그녀와 농담을 주고받던 이들조차 이런 순간엔 숨을 죽였다. 이런 때에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자는 오직 카이사르뿐이었다.

꽤 긴 침묵 끝에 답을 내린 듯, 황제가 눈을 들었다. 그러고는 곁에 앉은 카이사르를 돌아보았다.

카이사르는 새파란 눈동자에 어린 생각을 찬찬히 읽었고, 이내 입을 열었다.

“지브릴과 엘빈을 보내고자 하십니까?”

그는 늘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을 헤아렸다.

부부를 제외한 모두가 눈을 크게 뜨는데, 멜로디는 천천히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황제는 황태녀와 황자를 불러들였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7)

벌써 여러 날, 마틸다는 밤을 지새웠다. 몇 해 전, 로즈가 보내 온 외손주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락의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로즈, 테무르…….”

내 딸은 잘 살 거라고 외웠던 주문 같은 바람이 정말 바람처럼 흩어져 버렸다.

나는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어미인가.

그 어느 순간에서조차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늙은 심장을 쿡쿡 찔러 댔다. 마틸다는 오늘도 잔인하도록 긴 밤을 버텨 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득해졌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선 기다렸을 소식이건만, 마틸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숄을 가져오너라! 내, 당장 갈 것이니!”

그 무렵, 지브릴과 엘빈은 어머니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늘 여유가 넘치는 어머니였으나, 오늘만큼은 신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곁에 선 아버지의 표정 또한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지브릴과 엘빈은 평소와는 다른 부모님의 기류가 염려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보다 고작 몇 살 많은 나이에 오르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말이다.

지브릴과 엘빈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입술을 끌어올리며 웃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한참 말을 잇던 멜로디는 두 아이의 미소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들었다. 명치끝이 달막이는 것 같은데, 다 쉬어 갈라진 노쇠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고개를 들라, 섭정.”

왜 이런 순간이면 꼭 과거가 떠오르는 것일까.

“고생했다. 이리 안아 반기지는 못할망정 모진 일을 시켜 미안하다…….”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까닭은, 그녀의 시선이 아버지와 나란해졌기 때문일까.

죽음 직전에서조차 황제여야 했던 그를, 황제가 되고 나서야 이해했다.

그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나이젤을 선봉장으로 세워야 했으며, 그의 생사를 묻어야 했고, 딸에게 그 일을 시켜야 했다.

황좌에 구부정하게 앉아 그녀를 배웅하던 마르고 쇠약해진 모습이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그를 끌어안았을 텐데.

그러나 멜로디는 자식들에게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한 주제에, 정작 중요한 말을 앞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카이사르가 등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멜로디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는데, 그녀를 마주 보고 있던 지브릴이 밝은 목소리를 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머니!”

멜로디가 무어라 대답을 하려던 때였다.

문 너머가 소란해지는가 싶더니 벌컥 문이 열렸다.

“태, 태후 폐하!”

시종장의 난감한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사색이 된 마틸다가 방으로 들어섰다.

상석에 앉아 있던 멜로디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브릴과 엘빈도 눈을 둥글게 뜨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틸다는 거의 뛰다시피 다가와 지브릴과 엘빈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후 폐하!”

놀란 지브릴과 엘빈이 그녀를 불렀으나, 태후는 아랑곳하지 않고 멜로디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지금 지브릴과 엘빈을 아이젠으로 보내고자 하십니까?”

“…태후 폐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틸다는 강경하게 외쳤다.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주름진 목덜미에 핏대가 도드라질 정도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

“내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황제. 그것은 무리한 요청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아이젠 황후의 편지를 주세요. 태울 터이니. 그리고 내가 직접 답장을 쓰지요.”

“태후 폐하.”

엘빈이 그녀를 부르자, 마틸다는 표정을 풀고 다정히 말했다.

“염려치 마라, 엘빈. 너의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표정을 가다듬으며 황제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 서린 기운은 그 어느 순간보다 강인했다. 밤새 눈물 지었으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로즈와 테무르가 염려되어 밤을 지새워도, 결국 어떤 회한 깊은 일이 생겨 그녀 평생에 짐을 지더라도, 지브릴과 엘빈에게 그 일을 떠넘길 수는 없다.

암, 그렇고말고.

단언컨대 생각은커녕 일말의 기대조차 해 보지 않은 일이며, 수백 수천 번을 생각해도 절대 안 될 일이다.

지브릴과 엘빈을 온몸으로 가리고 선 마틸다는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같았다.

난감해진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짧은 한숨을 내쉴 때였다.

지브릴이 슬그머니 마틸다의 팔을 붙잡았다.

“태후 폐하, 아니, 할머니.”

다정한 호칭에 힘이 들어갔던 마틸다의 눈매가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마틸다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자, 지브릴은 해사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가슴이 울렁인 마틸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짓씹었다.

“나이젤 숙부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에 군대를 이끄셨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그러했다고 너마저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저는 방금 아이젠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아이젠의 섭정과 황후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틸다가 무어라 말을 하려 입을 여는 순간, 지브릴은 마틸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리며 담담히 말했다.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

때론 증오스러웠던 황족의 다짐 앞에 마틸다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녀의 궁을 마음껏 뛰놀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이 다짐을 읊을 줄이야.

“반드시 코르벨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 김에, 꼭 아이젠의 황후와 섭정에게도 도움이 되고 오겠습니다.”

그 단단한 다짐 앞에 결국 눈물이 고일 새도 없이 주름진 담벼락을 넘었다.

지브릴은 얼른 품을 뒤지며 손수건을 찾았으나 없었다. 엘빈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직접 마틸다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그사이 시종이 의자를 가져왔다.

마틸다가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의자에 앉자, 엘빈은 부모님을 돌아보며 말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으니 곧장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중신 회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건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직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는 더 이상 치기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진중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다고…….”

마틸다가 힘없이 중얼거리던 그때, 인기척과 동시에 열린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금이 필요하실 텐데, 돈은 어쩌시렵니까?”

방 안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화려한 금발이었다. 이런 밤에조차 완벽한 차림새로 나타난 데미안 발할라 뒤로 아쉬와 데이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나이젤과 리아나, 로아가 들어왔다.

여섯 사람은 황제 부처와 태후를 향해 인사를 올렸고, 데미안은 쌍둥이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배에 돈까지 싣고 가려면 인력도 많이 들 것이며, 시일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는 지브릴과 엘빈을 힐끔 일별한 뒤, 황제를 돌아보며 마치 사업가처럼 제 의견을 냈다.

“발할라도 이 일에 투자하겠습니다. 두 분 전하와 함께 아이젠으로 가서, 아이젠에 있는 발할라 상단의 자금을 운용하여 직접 조달하겠습니다, 폐하.”

“오~”

지브릴의 나직한 탄성 소리에 데미안이 눈썹을 꿈틀거렸다.

“오, 데미안~”

“에잇, 진짜. 이런 때조차 도대체 왜 그래요?!”

한 번은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기어이 두 번 건드리는 통에 데미안이 사납게 화를 냈다. 그러자 엘빈이 슬쩍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내버려 둬. 좋아서 저러는 거야.”

“…흠흠.”

지브릴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차가운 귀공자 그 자체인 데미안이 바르르 떨자, 눈물짓던 마틸다마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았다.

엘빈의 중재 같지도 않은 중재가 먹히는 것도 웃겼다.

금발 셋이 저들끼리 투닥이는 사이, 로아도 황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도 이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시는 동안,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폐하.”

로아는 미리 파견된 일족의 정보원들과 은밀한 접선을 할 예정이었다. 마틸다가 그의 손을 붙잡자, 로아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멜로디는 생각지도 못하게 늘어난 인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중얼거렸다.

“…악동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녀의 중얼거림에 카이사르와 나이젤, 발할라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마틸다 또한 눈물 젖은 얼굴로 넷을 둘러보았다.

그곳엔 더는 ‘아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건장한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긍지를 품고 자라, 제각기 다른 색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어른들의 시선에 머쓱해진 데미안이 중얼거렸다.

“아이젠어부터 좀 배워야겠어. 황자 전하와 로아 형은 할 줄 아니까. 전하, 저랑 같이 배우시죠.”

그러자 지브릴이 눈을 껌뻑이더니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시퍼런 눈엔 아주 강렬한 의문이 섞여 있었다.

“넷 중 둘이나 할 줄 아는데, 내가 굳이 왜……?”

“…아니, 이 두 사람이 온갖 시시콜콜한 말을 일일이 통역해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 어차피 거기 도착할 때까지 공부해도 아이젠어 완벽하게 못 해.”

“…….”

이 얼마나 냉철한 자기 분석인가.

“게다가 시시콜콜한 온갖 말을 왜 굳이 나한테 통역해? 농담이나 주고받을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딱 두 가지만 통역하면 돼.”

지브릴이 엘빈과 로아를 향해 검지를 폈다.

“첫째, 중요한 안건.”

“…….”

그녀는 검지에 이어 중지를 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둘째, 욕.”

안건과 욕을 제외하곤 그냥 대충 웃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황태녀의 발언에 어른들의 눈길이 곧장 황제에게로 향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엘빈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으며, 데미안은 진저리 난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는 가끔 전하가 정말 부럽습니다.”

“발할라 후계, 표정과 말을 일치시키지?”

이 모든 장면을 키득거리며 지켜보던 멜로디가 벌써 지쳐 보이는 나이젤을 향해 말했다.

“왠지, 아버지의 날이 떠오르는데.”

“아… 비슷하긴 한데, 아버지의 숫자만 현격히 줄었군요.”

나이젤의 발언에 카이사르와 아쉬가 동시에 피식 웃는 사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버린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멜로디와 나이젤을 비롯한 어른들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움과 염려가 담긴 시선으로.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8)

황위 계승권을 가진 네 황족이 동시에 황도를 비운 채 타국의 정쟁에 관여하러 떠난다는 소식은 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만큼 위험한 처사라며 다수의 중신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소한 황태녀는 두고 황자만 보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을 아는 베델 공작마저도 염려를 표할 정도였으며, 솔직히 멜로디나 카이사르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둘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눈에 띌 만한 군대를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소수의 정예가 아이젠의 수도 인근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그러려면 한 사람만 단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모든 이목이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으면 은밀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둘 중 하나가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어 주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이 의문의 실타래를 풀어내야만 한다.

결국, 멜로디는 하루 반나절에 걸쳐 중신들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무려, 하루 반나절에 걸쳐서.

쉬지 않고.

“…이건 설득이 아니었어.”

“고문에 가까웠지.”

꼬박 날을 새고도 끝나지 않는 회의에 중신들은 질려 나자빠질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남다른 체력의 황제는 중신들의 승인을 받아 내는 데 성공… 아니, 승리했다.

중신들의 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멜로디와 어른들은 예의 그 자랑스러움과 염려가 섞인 눈길로 멀어지는 자식들을 배웅했다.

이안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안녕을 기원했고, 마틸다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내가, 저 어린 것들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닌가…….”

멜로디가 두 노부인을 친히 궁 내부로 모신 뒤 본궁으로 돌아왔을 때, 제럴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이사르와 멜로디는 서둘러 밀실로 그를 안내했고, 들어서자마자 제럴드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오십 명 정도면 되겠니, 멜로디? 기량이 우수하고, 아뷔브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자들로만 구성했다.”

멜로디와 카이사르가 얼른 문서를 확인했다. 그곳엔 일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멜로디는 카이사르와 눈빛을 주고받은 뒤, 종이를 제럴드에게 돌려주었다.

“외숙이 추린 사람들이라면 믿어요. 최대한 빨리 모아 주세요.”

“알았다. 모이는 대로 연락하마.”

과거와 같이 일족의 피로 무언가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물로 쉐르칸 황제를 습격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칼과 방패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숨겨진 뿌리를 통째로 파내어 버리리라.

\* \* \*

오전 내내 쉐르칸의 곁을 지키던 로즈는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다.

의원은 쉐르칸을 두고 ‘경계를 반쯤 넘었다.’라고 표현했다.

영혼과 육신으로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아이젠에서, 경계를 반쯤 넘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의미와 진배없었다.

이미 영혼은 사의 경계를 넘었고, 남은 육신도 영혼을 따라 사의 경계를 넘고 있다는 말이니.

로즈는 궁을 향해 걸으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망막에 맺히다가, 별안간 초점이 돌아왔다.

[…….]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풍경이었다. 긴장감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숙연함도 없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건만, 그것은 그저 착각일 뿐이었나 보다. 이들과 그녀의 괴리가, 서로 다른 피부색만큼이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어찌 일국의 황제가 암살자의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황후 폐하?]

중성적인 느낌이 물씬 드는 낮은 음색에 로즈의 얼굴이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그녀가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 삐걱삐걱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엔 한 무리의 여성들이 서 있었다.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은 로즈와는 달리, 그녀들의 의복은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화려한 이가, 바로 모아드 공작 부인이었다.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길게 이어진 머리 장식 챠리는 금관처럼 번쩍였고, 어깨에 드리운 르와즈의 끝단엔 실금이 자잘하게 달려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렸다. 그녀는 흡사 즐거운 연회에 참석한 사람 같았다.

모아드 공작 부인은 살랑살랑 걸어 로즈에게 다가왔다.

[저런, 간병이 몹시 힘드신 모양입니다. 늘 곱던 얼굴이 유난히 초췌하세요. 폐하께서 어서 쾌차하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모아드 공작 부인의 새카만 눈동자가 비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늘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 친구인 척 그녀의 곁에서 웃음 짓던 이면엔 이런 표정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제 숙부와 숙모를 경계하고 멀리하라던 아들의 말을 일찍이 알아들었어야 했다.

로즈는 공작 부인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한쪽 입술을 끌어올려 웃었다. 아이젠에선 울고 도망치는 자가 지는 것이니,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공작 부인, 나도 모르는 연회가 있는 모양이오?]

[그럴 리가요.]

모아드 공작 부인은 소리 나게 웃었고, 그녀 뒤에 선 부인들도 억눌린 웃음을 터트리며 로즈를 쳐다보았다.

로즈는 그녀를 비웃는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나직이 속삭였다.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그러자 모아드 공작 부인을 비롯한 부인들의 웃음이 일순 멎었다. 로즈는 모아드 공작 부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결국 내 남편도 제대로 죽이지 못했잖니?]

그러나 모아드 공작 부인의 기세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녀는 사나운 미소를 지으며 로즈에게 속삭였다.

[허세 부리지 마시고, 아들 데리고 어찌 도망칠지나 고민하세요. 황후.]

[감히……!]

테무르를 두고 하는 말에 분노한 로즈가 이를 갈며 떨자, 모아드 공작 부인은 뒤에 선 부인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키웠다.

[코르벨라의 황녀도 별것 없어. 황녀면 뭐 해. 정작 중요할 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자 뒤에 선 이들이 일제히 간드러지는 웃음을 터트렸다. 그들이 웃을 때마다 르와즈의 금실이 요란하게 찰랑였다.

로즈는 제 표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저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모아드 공작 부인은 그 모습을 재밌다는 듯 아래위로 훑어본 뒤, 그녀를 스쳐 가는 척 한마디를 더 귓속에 밀어 넣었다.

[네 친정 코르벨라는 절대 안 와. 그러니 행여 부를 생각 말고, 혼자라도 도망쳐.]

로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몸이 따라 주질 않았다. 패색이 짙어진 것이 보이자, 모아드 공작 부인 뒤에 숨어 있던 부인들까지 은근한 조롱을 던졌다.

[와도 소용없을 거예요. 코르벨라인들은 사내들도 백합처럼 희고 낭창하다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자가 황제라잖아요. 사내들이 얼마나 유약하면 그랬겠어요?]

[코르벨라가 우리 대륙에 있었다면,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곳의 피가 섞인 섭정보다야, 마와바타 가문을 외가로 둔 하누만 공자가 훨씬 황제에 어울리죠.]

쉐르칸이 건재할 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매 순간 일어났다.

로즈의 다리가 덜덜 떨렸다. 저 무례한 치들의 뺨이라도 후려쳐야 하건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리어 뺨을 맞은 것은 로즈였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뺨을 후려갈겼다.

[황후 폐하.]

부인들이 물러가고 나서야 몸을 숙이고 있던 시녀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결국, 로즈는 이까짓 싸움에서조차 졌다.

꽃과 음악처럼 살지 않겠다 했으나, 쉐르칸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그녀는 결국 꽃이었던 모양이다.

따뜻한 온실에서 유유자적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해일처럼 잔혹하게 밀어닥쳤고, 로즈는 그것을 맨몸으로 견뎌 내야만 했다.

[서남부 귀족 연합이 전하의 옹립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보내 왔습니다. 사병들이 어제 자정부로 수도를 향한 진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위대장의 보고에 테무르는 눈을 감으며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최근 들었던 모든 소식을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참모 중 한 사람이 안도가 묻은 목소리로 말하자, 또 다른 참모가 염려 섞인 말을 했다.

[이제 모아드 공작파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이고 강경해질 겁니다, 폐하. 어젠 황제 폐하를 공격했던 의문의 암살자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경수비대의 일부를 소환하시는 것은…….]

그에 눈을 감고 있던 테무르가 눈을 뜨며 단호히 말했다.

[국경수비대를 소환하는 순간, 인접한 세 왕국이 기다렸다는 듯 침략해 올 것이다. 국경수비대를 소환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럼… 혹시라도 코르벨라에서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친위대장은 테무르의 서리 같은 기세에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어머니 면을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더라도 아뷔브 공작이 다일 것이다. 그나마도 혹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어머니만이라도 대피시키겠다는 심산일 것이고.]

한 음절 한 음절 이를 데 없이 날카로웠고, 내포된 뜻마저 그러했다.

그러니 그 눈빛은 오죽할 것인가.

섭정 테무르에게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관능과 야성이 뒤섞인 새빨간 눈동자 앞에 우락부락한 체구의 친위대장마저 시선을 내리깔았다.

참모들이 조용해지자, 테무르는 붉은 눈동자를 어둡게 내리깔았다.

수도 귀족 중 4할이 그를 지지했고, 3할은 모아드 공작을, 나머지 3할은 중립을 선언했다.

아이젠의 후계 암투는 전통이라고 할 만큼 뿌리가 깊다. 그만큼 암묵적인 대원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싸우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테무르의 경우, 모아드 공작의 위협이 턱밑에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내릴 수 없었으며, 모아드 공작 또한 대놓고 황궁을 공격하지는 못했다.

이 균형을 중립파 귀족이 맞췄다. 양쪽 중 대 원칙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중립파 귀족은 언제고 상대 진영으로 돌아설 것이다.

문제는 현재 테무르가 포섭 귀족 비율에서는 앞서지만, 병력에서는 모아드 공작에게 밀린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두 달이 고비입니다.]

[두 달 뒤면 서부 병력이 도착하여 모아드 공작이 병력에서 우위를 잃게 되니, 그 안에 어떻게든 전하를 해하려 할 겁니다.]

테무르는 차가운 물로 입을 가신 뒤 물었다.

[폐하를 공격했던 암살자들, 찾았나?]

[죄송합니다.]

[그들부터 찾아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의문의 무인 집단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측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예.]

그때 시종이 또 한 뭉치의 서류를 가져왔고, 펜을 들려던 테무르는 거칠게 얼굴을 훑어 내리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

[잠시만 쉬다 오겠다.]

친위대장이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79)

집무실을 나선 테무르가 뻥 뚫린 회랑을 거침없이 걷자, 지나던 시녀들과 시종들이 일제히 멈춰 서서 깊게 고개를 조아렸다.

가슴이 반쯤 드러나는 헐렁한 튜닉 사이로 더위가 묻은 바람이 새어 들었다. 테무르는 회랑을 지나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던 테무르의 시선에 이질적인 것이 닿은 것은, 어느 화려한 꽃나무 아래에서였다.

새빨간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섭정 전하.]

능글맞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며 다가오는 이는 산 하누만 모아드.

검은 곱슬머리와 우람한 체격, 새카만 눈동자를 가진 하누만은 모아드 공작의 적장자이자, 테무르의 사촌이었다.

테무르는 무감한 시선으로 그를 볼 뿐이었다.

기어이 지척까지 다가온 하누만이 히죽 웃었다.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에 테무르가 픽 웃으며 대꾸했다.

[너와 숙부야말로 바쁜 모양이다.]

[어디 전하만 하겠습니까? 서부까지 연락하시려면 어지간히 바삐 움직이셨겠지요. 백조처럼? 국경수비대라도 부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누만은 이미 승리를 장담하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해 보였다.

테무르는 그의 웃음을 빤히 지켜보았다.

무표정하고, 무감하게.

마치 모래 한 줌, 말 한 필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시선에 하누만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섭정의 외모는 유독 눈에 띄었다. 여인처럼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 수려한 외모와 초원의 늑대를 연상케 하는 날 선 눈동자, 사납게 불거진 근육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기묘한 관능을 자아냈다.

오감을 툭툭 건드리는 형용할 수 없는 기운은 아버지 쉐르칸 황제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결국 말문이 막힌 하누만이 입술만 달싹이자, 테무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나는, 너와 산 바르 모아드와는 다르다. 너와 네 아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음이 명백하지.]

그러고는 몸을 돌리며 나직이 쐐기를 박았다.

[개처럼 떨지 말고 꺼져.]

테무르는 묵직한 걸음을 옮겼다.

잠시 뒤 등 뒤에서 하누만이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나 튜닉 사이에 가려진 그의 주먹은 핏줄이 불거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두 달.

앞으로 두 달을 반드시 버텨야 한다.

버티면 그의 승리이나, 버티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 \* \*

“저 정도면 밤잠 아니냐.”

남들 다 셔츠 차림인 와중에 홀로 완벽한 정장을 차려입은 데미안은, 소파에 드러누워 벌써 몇 시간째 미동도 없는 지브릴을 보며 중얼거렸다.

각자 책을 읽고 있던 엘빈과 로아도 힐끔 지브릴을 일별하였으나, 그게 다였다.

엘빈은 입을 댈 가치도 없다 여기는 것이 틀림없었고, 로아는 잘 자면 좋지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반면 데미안은 아이젠어 교본을 읽다가 자는 지브릴을 보고, 또 시계 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다 기어이 그녀를 부르기에 이르렀다.

“지브릴.”

엘빈과 로아가 곧장 데미안을 휙 돌아보자, 데미안은 머쓱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했다.

“아니, 숨 쉬나 싶어서.”

“…….”

“…….”

“저렇게 낮잠 많이 자는 거 안 좋잖아.”

그러자 엘빈은 픽 웃으며 시선을 책으로 돌렸고, 로아마저도 슬그머니 웃어 버렸다. 두 사람의 다 안다는 듯한 웃음에 데미안의 눈썹이 위로 치솟았다.

“정말로 얘 죽었나 싶어서 부른 거라니까!”

그가 억울하다는 듯 버럭 화를 냄과 동시에 지금껏 미동도 없던 지브릴이 번쩍 눈을 떴다. 그 모습을 목격한 엘빈이 작게 고개를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잠에서 깨는 것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깨는지.”

엘빈의 중얼거림에 등 뒤를 돌아본 데미안은 잠기운이라고는 조금도 묻어 있지 않은 새파란 눈동자와 마주쳤다.

얘 안 잔 거 아냐……?

그때, 그녀의 눈이 길쭉하게 휘어졌다. 그 모습을 본 데미안의 등골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지브릴이 입을 열었다.

“누나 일어나길 기다렸어? 심심해?”

“뭐래, 진짜.”

데미안이 기가 막힌다는 듯 발끈했으나, 그의 귓바퀴는 삽시간에 벌겋게 물들었다.

“나는, 진짜로 네가 죽었나 했다니까?!!”

“네네, 생명의 은인, 감사합니다.”

지브릴이 몸을 일으키며 능글맞게 말하자, 데미안은 말이 안 통한다는 듯 이마를 짚었다. 그러고도 답답한지 정장 재킷 단추를 풀어 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아가 엘빈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심심했나 보네.”

엘빈도 로아를 일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앉은 지브릴이 기지개를 쭉 켜더니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외숙은?”

“아버지께서도 방에서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으음~”

지브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실실 웃으면서 객실 한구석에 마련된 장에서 묵직한 병 하나를 꺼냈다.

“데미안, 잔 좀 꺼내. 그 위에 넣어 놨어.”

“너는 왜 그런 걸 숨겨 놓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데미안의 몸은 지브릴의 명령에 따라 착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엘빈과 로아는 똑같이 팔짱을 낀 채로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지브릴이 퐁 뚜껑을 따더니 황홀한 표정으로 술 냄새를 맡았고, 데미안은 이게 몇 년산이네, 품종이 뭐네 등등을 중얼거리며 지브릴의 잔과 제 잔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술잔을 든 두 사람이 동시에 엘빈과 로아를 돌아보았다.

“어, 됐어.”

“적당히 마셔. 나는 괜찮아.”

엘빈과 로아의 거절에 두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더 권하지 않고 술을 쭉 들이켰다.

“안주는 안 숨겨 놨어?”

“감히 나한테 안주까지 주문하나, 데미안 발할라?”

“예, 예.”

“술은 내가 숨겼으니까, 안주는 네가 알아서 가져와. 내가 자꾸 기웃거리니까 식자재 창고 담당이 의심하더라고. 아, 진짜 올해 성인인데 내가 굳이 숨어서 마셔야 해?”

“외숙께서 은근히 이런 쪽으로 엄격하시잖아. 가져올 때 몇 병 더 가져와.”

“두 병 더 있어.”

엘빈과 로아는 몸만 자란 것 같은 두 악동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비우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꽤 큰 술 한 병을 사이좋게 나눠 마신 두 사람은 빈 잔과 병을 깨끗하게 치우더니 각자 소파 하나씩을 차지하고 누웠다.

기웃기웃 흔들리는 배의 움직임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지브릴은 또 잠들었고, 그렇게 낮잠이 좋지 않다던 데미안도 낮잠을 밤잠처럼 자기 시작했다.

결국 엘빈은 술 냄새가 난다며 방을 나가 버렸고, 로아는 어디선가 담요를 가져와 데미안과 지브릴의 몸 위에 각각 덮어 주었다.

로아가 객실 밖으로 나왔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엘빈이 로아를 보더니 뱃머리를 향해 눈짓했다.

그곳엔 아버지가 홀로 서 계셨다.

로아가 그에게 다가가자, 먼바다를 보고 있던 나이젤이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도로 먼바다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네 고모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다. 이미 충분히 빠르건만, 어쩐지 느린 것 같아서 애가 타는구나.”

그의 보라색 눈동자가 염려로 일렁이고 있었다.

로아는 초상화로만 보았던 고모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림과 실물은 괴리가 있기 마련이라, 쉽사리 형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막연히 할머니, 아버지와 닮은 분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다.

“아버지께서도 오랜만에 뵙는 것이지요?”

“그렇지. 23년만인가……. 아이젠으로 떠나던 모습이 마지막이니.”

로아는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없을 감정에 휩싸인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누이라…….

누이라고는 지브릴이 다이기에, 그는 막연히 지브릴과의 해후를 상상해 보았다.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만나게 된다면, 그 애는…….

술을 잔뜩 마신 채 드러누워 자고 있다.

로아는 의도와 상관없이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아래턱에 힘을 주며 참았다. 그리고 바랐다.

부디 고모가 강녕하시기를.

코르벨라를 떠난 배가 한참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을 무렵, 로아의 바람과 달리 로즈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간밤, 아들은 살아남았다. 사의 경계와도 같은 밤이 벌써 몇 날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독하고 잔혹한 시간을 버티며, 그는 점점 초원의 검은 늑대처럼 변해 갔다.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들어 어미를 마주 보는 그에게선, 막 적의 숨통을 끊어 놓은 자 특유의 야성과 반드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독기 어린 결심이 느껴졌다.

베일 것처럼 날카로워진 턱, 피처럼 붉은 눈동자와 웃음기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은 건조한 표정까지.

쉐르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것들이 매일 밤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괜찮니?]

로즈는 간신히 그리 물어 놓고도 후회했다.

도움이라고는 조금도 되지 못하는 어미가 할 수 있는 물음은 아니지 않은가.

테무르는 긴 숨을 천천히 몰아쉬더니, 눈앞에 드리워진 검은 곱슬머리를 쓸어 올렸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죽지 않을 것이니.]

[…….]

[저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버텨 살아남을 겁니다.]

허스키한 음성이 로즈의 심장을 쿡쿡 찔렀다.

결국, 코르벨라도 그녀를 도울 수는 없는 모양이다.

온실 속에서 유유자적할 것이 아니라 힘을 키워 놓았더라면, 아들에게 칼날을 들이미는 후안무치한 자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로즈가 무력한 심정으로 몸을 돌릴 때였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0)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친위대장이 급히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로즈를 일별한 뒤, 테무르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 하며 가지고 온 소식을 고했다.

[코르벨라가 황후 폐하의 요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코르벨라의 황태녀와 아뷔브 공작이 아이젠의 해역을 항해 중이라고 합니다, 전하!]

[……!!]

[…….]

로즈는 눈을 크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다. 차오를 새도 없이 투명한 눈물이 손등을 타고 툭툭 떨어졌다. 앙상하게 말라 버린 손가락이 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테무르의 눈빛은 심해의 유속처럼 느리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는 한 줌의 환희도 내비치지 않았다. 기실 그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저 무감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거슬린다.

맵시 좋은 입꼬리가 비뚜름하게 치솟았다.

코르벨라의 황태녀와 아뷔브 공작이라.

왜 오는 것일까.

혈육의 정?

우습다. 그 혈육이란 것들이 지금 제 목덜미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정은 무슨.

적당히 와서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쪽에 승산이 있을 것 같으면 추후 그에게 은인 운운하며 이권을 달라 할 것이며,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어머니만 모시고 돌아가려 하겠지.

테무르의 새빨간 눈동자가 냉소로 물들었다. 어머니의 기분을 고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해 주기엔 너무나 지쳤다.

그는 막 처리한 서류를 한쪽으로 넘기며 말했다.

[그들이 머물 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머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살갗을 에는 것만 같았다. 기쁨에 겨웠던 눈물이 그만 버석하게 말라 버렸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 테무르는 그저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마침내 코르벨라의 황태녀가 하와 궁에 도착했다.

지난 일주일간 수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오늘도 살아남은 테무르는 간밤 한숨도 자지 못해 피로한 몸을 이끌고 상석을 지켰다.

그런 그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던 로즈는, 귀빈의 방문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뻥 뚫린 기둥 사이를 바라보았다.

몇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1분이 하루처럼 길게 늘어졌다. 이러다 터지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심장이 뜀뛰었다.

곧, 계단 끝단에서 뭔가가 반짝인다 싶더니 희고 고운 이마와 찬란한 금발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계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얼굴은 몹시도 단아했으며, 보석 같은 눈동자의 빛깔은 로즈의 기억 속 그대로였다.

“…멜로디…….”

그녀는 어머니를 닮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제 그릇을 찾던, 멜로디 코르벨라를 닮았다.

코르벨라 황실을 상징하는 휘장이 가슴에서 번뜩였고, 그녀의 어깨에 매달린 묵직한 붉은 망토가 걸음마다 나부꼈다.

로즈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코르벨라가 왔다.

그녀의 조국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지브릴을 바라보던 로즈의 시선이 조금 옆으로 미끄러졌다. 가슴 저리게 그리웠던 보랏빛 눈동자가 어느덧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를 본 순간, 로즈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울면 안 돼.’

로즈는 어금니를 세게 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세월이 흘러 그도, 그녀도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그의 다정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오라버니…….”

로즈가 입 모양으로 작게 그를 부르자, 나이젤이 입술을 끌어올리며 웃었다.

한데 눈물을 감추며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느껴지는 로즈와는 달리, 그의 뒤에 서 있는 장대한 체구의 청년에게선 냉기가 흐르다 못해 넘쳤다.

지브릴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남자를 치켜 올려다보았다.

피처럼 붉은 눈동자가 결코 호의적인 기운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다. 로아와 사촌지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습의 그는, 먼 길을 온 외숙부와 눈인사도 주고받지 않은 채 오로지 그녀만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마치, 경고라도 하듯.

“저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우리가 달갑지 않은 모양이지.”

지브릴 뒤편에 서 있던 데미안이 낮게 으르렁대었고, 엘빈의 기운도 못지않게 흉흉해졌다. 로아 역시 표정을 굳혔다.

지브릴이 적당한 위치에서 멈추자, 테무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코르벨라의 황태녀.]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허스키했다. 곁에 있던 통역관이 곧장 코르벨라어로 통역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코르벨라의 황태녀.”

지브릴이 막 거친 초원 사막을 거니는 검은 늑대를 떠올릴 무렵, 그가 느른히 말을 이었다.

[시기가 좋지 않은 때에 와 어수선하겠으나, 모쪼록 편히 놀다 돌아가길 바라는 바요.]

그러고는 통역관이 통역을 채 시작하기도 전, 몸을 돌렸다.

“시기가 좋지 않은 때에 와 어수선하겠으나, 모쪼록 편히 놀다 돌아가길 바라는 바요.”

진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허하고 사무적인 환영사를 들으며, 지브릴은 멀어지는 테무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

로즈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엘빈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와 궁의 전반을 둘러보았으며, 데미안은 이를 갈며 테무르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지브릴은 붉은 입술을 끌어올리며 픽 웃을 뿐이었다.

재밌네, 라고 중얼거리며.

로즈는 친히 황후 궁 내에 귀빈들의 방을 준비했다. 침구 하나, 의복 한 점까지도 그녀의 손길이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만큼 그들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코르벨라어로 실컷 이야기했다.

“황태녀, 황자. 이리 와 주어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코르벨라의 황제와 대공께도 감사드려요. 부모님을 많이 닮았군요.”

“어머, 그대가 데이지의 아들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데이지도 잘 있지요?”

“로아, 늘 네가 궁금했단다. 세상에, 오라버니. 어쩜 오라버니 젊었을 적과 이리 닮을 수가 있지요? 공부인을 한 번도 뵙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오라버니, 이건 향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향으로 피우세요. 그리고 이건…….”

“로즈.”

나이젤은 부러 밝게 웃으며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로즈를 차분히 불렀고, 로즈는 멈칫하고 말았다.

“…….”

나이젤은 그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건만, 결국 로즈의 눈매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세상이 일렁일 틈도 없이 눈물이 길을 따라 미끄러졌다.

나이젤은 앙상하게 말라 버린 로즈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당겨 안았고, 로즈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간신히 물을 담아 두었던 제방이 일시에 무너진 것만 같았다.

“이리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오라버니…….”

엘빈이 조용히 일어나자 지브릴과 데미안, 로아마저도 일어났다. 그리고 남매의 해우를 위해 자리를 비켜 주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하와 궁의 시중인들이 얼른 그들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연중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아이젠답게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창이었다. 화려한 색감의 커튼이 길게 늘어진 방을 천천히 둘러본 지브릴이 낮고 푹신한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대대적인 환영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적대적인 것도 곤란한데. 적당히 놀다 가라니.”

“섭정의 협조가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어. 파견된 정보원들과 만나 현 하와 궁 상황을 알아 올게.”

엘빈의 말을 들은 지브릴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데미안을 돌아보았다.

“자금을 얼마나 융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줘, 데미안.”

“알겠어.”

“오라버니는 언제 일족을 접선하지?”

“상황 봐서. 하지만 내일을 넘기진 않을 거야.”

지브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팔짱을 꼈다.

“좋아. 그럼 나는 하와 궁 상황을 안에서 들여다보며 눈길을 좀 끌어 볼게.”

샨 테무르 아이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겼던데. 무엇으로 눈길을 끌어 본담?

[간절하던 원군인데 그리 매정하게 대하셔도 되겠습니까, 전하?]

조롱이 가득 묻은 목소리에 테무르의 걸음이 느려졌다. 복도 어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등 뒤에 선 참모들이 이를 갈았다.

하누만을 위시한 무리 중엔 모아드 공작 부인도 있었다.

테무르는 하누만을 무시한 채 그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숙모님.]

모아드 공작 부인은 정수리에 쓰고 있던 르와즈를 어깨에 걸치며 생긋 웃었다.

[간밤 안녕하셨나요? 이리 강녕한 모습을 뵈니 기쁘군요.]

그에 테무르가 붉은 눈을 길게 휘며 픽 웃었다. 벼려질 대로 벼려진 모습이라 그러한가, 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작은 헛웃음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테무르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매일 밤 안녕할 터이니, 걱정 마시길.]

그러고는 싸늘한 눈길로 하누만을 응시한 뒤 걸음을 옮겼다.

하누만은 한순간이나마 제가 그의 기세에 눌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테무르가 그의 곁을 스치는 순간, 나직이 으르렁댔다.

[간절하던 원군이 참으로 예쁘더군요, 전하? 어여쁜 누이가 오라비를 응원하러 왔나 봅니다.]

그러자 하누만 뒤에 서 있던 자들이 킬킬 저열한 웃음을 터트렸다.

[무엄하다! 감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테무르의 친위대장이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었으나, 모아드 공작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구한 척 말을 건넸다.

[황후 폐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던 친정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리 매정하게 대하시면 어머님께서 슬퍼하실 테니, 그래도 잘 대하셔야지요.]

그 순간, 깊고 서늘한 계곡처럼 찬 웃음소리가 테무르의 저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검은 심해가 둥둥 진동하는 것 같은 묵직한 웃음이 대리석 회랑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자에게선 죽음의 냄새가 났다. 동시에 그 시뻘건 눈동자에선 죽음의 사자마저도 물어 뜯어 버리겠다는 선득한 의지가 느껴졌다.

테무르는 손을 뻗어 하누만의 턱 끝을 건드렸다.

[여유로운 척해도 똥 마려운 개처럼 조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구나, 하누만.]

[…….]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두 눈을 부릅뜬 모아드 공작 부인을 일별한 뒤, 바람을 일으키며 멀어졌다.

남겨진 하누만은 부들부들 떨었고, 모아드 공작 부인 역시 긴 옷자락 사이에 숨겨진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상흔을 남길 정도로 세게.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1)

하와 궁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은밀히 움직였다. 몇 대의 마차를 바꿔 타고, 부러 빙글빙글 돌아가길 한참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이젠의 고대 신전을 형상화한 듯한 건물이었다.

경비가 삼엄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의문스러운 곳이었다.

각기 다른 마차를 타고 온 모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에선 그 어느 곳에서도 맡아 본 적 없는 기묘한 냄새가 진동했다.

모아드 공작 부인은 르와즈의 끝단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그때, 어디선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그냥 죽여 줘……. 그냥 죽여.”

모아드 공작 부인은 소리가 나는 철문을 힐끔 보며 불쾌하다는 듯 걸음을 빨리했다.

[뭐라는 건지.]

[코르벨라어예요. 살려 달라는 소리겠죠.]

어둑한 복도를 가로질러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곳엔 왜소한 체격의 외국인 한 사람과 하누만 못지않게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모자가 들어서자, 외국인이 고개를 깊게 조아리며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했다.

[오셨습니까?]

하누만은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푸르스름한 액체가 든 병을 살피는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말했다.

[아버지,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모아드 공작 부인도 르와즈를 어깨로 내리며 아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섭정이 아주 기세등등하더군요. 자기는 매일 밤 강녕할 것이라던가?! 하!]

모아드 공작이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더니 입을 열었다.

[코르벨라 원군은 어때 보이던가?]

코르벨라란 말에 외국인의 새카만 눈동자가 휙 위로 치솟았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아버지. 몸통이 딱 제 팔뚝만 한 여자가 황태녀랍시고 왔습니다. 아뷔브 공작이란 자는 유약한 황후의 오라비다웠고요.]

[게다가 섭정은 그들을 썩 반기지 않는 것 같으니, 하누만 말대로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저… 마님, 코르벨라의 황제가 온 것은 아니지요?]

모아드 공작 부인은 갑작스럽게 끼어든 외국인을 짜증스럽게 흘겨보더니 르와즈로 얼굴을 가려 버렸고, 하누만이 대신 대답했다.

[아니다.]

모아드 공작은 손에 쥔 약병을 외국인에게 내밀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최소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엔 성공해야 해.]

[걱정 마십시오. 일단 오늘 밤부터 어제의 두 배 되는 인원을 보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공작이 가라는 듯 눈짓하자, 그는 약병을 갈무리한 뒤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코르벨라의 황제가 오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가.

남자는 습관처럼 혓바닥으로 입안을 쓸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벌써 몇 주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테무르는 쉬는 시간을 틈타 잠시 잠을 잤다. 한 시간여 남짓 잠을 잤을 무렵, 그의 예리해진 감각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해 냈다.

테무르가 번뜩 눈을 뜨자, 친위대장이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테무르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벽에 어슷하게 등을 기대며 잠긴 목소리로 느른히 물었다.

[보고할 게 있나?]

[예. 실은 코르벨라 황태녀 일행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잠기운에 풀어져 있던 테무르의 동공이 바짝 조여들었다.

[상세히 고해라.]

느른하던 말투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황자와 발할라 후계, 그리고 아뷔브 공자가 은밀히 궁을 나섰습니다. 발할라 후계는 수도 내의 발할라 상단 본부로 가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황자와 아뷔브 공자는 미행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위도 없이 나갔단 말이냐?]

[아닙니다. 코르벨라인 호위들이 함께였는데, 모두가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합니다.]

테무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럼 황태녀는?]

[황태녀는 아뷔브 공작과 함께 거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무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입을 가셨다. 창을 열었으나 후덥지근한 바람에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안팎에서 별 떨거지들이 다 모여드는구나.]

그는 사납게 짓씹듯 중얼거리다가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바닥이 훑고 지나온 눈동자엔 핏발이 서 있었다.

테무르는 들끓는 감정을 천천히 씹어 삼킨 뒤, 등 뒤에 선 친위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코르벨라의 황태녀를 내게 데려와라.]

형제들이 모두 분주해진 사이, 지브릴은 나이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나이젤은 로즈와의 대화를 통해 유추한 아이젠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젠의 독특한 후계 다툼 문화, 모아드 공작의 배신, 오고 있으나 아직은 시일이 꽤 남은 서부 군대, 부족한 병력, 매일 밤낮 이어지는 테무르에 대한 암살 시도.

로즈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쭉 읊던 나이젤은 짧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아이젠에서 후계 암투와 전쟁은 남성의 전유물인지라, 제아무리 황후라 한들 관여할 수도, 깊이 알 수도 없는 듯하더구나.”

“전쟁이 오로지 남성만의 것이니, 원군이랍시고 온 제가 그리 탐탁지 않았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로즈가 꼭 사과를 전해 달라 했단다.”

“황후께서 사과하실 일인가요? 뭐… 그리고 저라도 이런 때에 방문한 외부 세력은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아무튼 섭정과 따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황후께서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내가 한번 찾아뵐 생각이니, 그때 함께 가는 게 어떻겠니?”

지브릴이 나이젤의 제안을 고려해 보던 때였다.

들릴 듯 말 듯한 노크와 함께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시중인들이 들어서며 찾아온 이가 있음을 알렸다.

이윽고 들어온 자는 거대한 곰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우람한 체격과 굵은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였다.

지브릴은 앉은 자세 그대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고, 남자는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그의 뒤에 서 있던 작은 체구의 통역관이 대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섭정 전하의 친위대장입니다. 섭정 전하께서 코르벨라의 황태녀 전하께 만남을 청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괜찮으신지요?”

“나도 함께 가마.”

나이젤이 염려스럽다는 듯 곧장 말했으나, 지브릴은 그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아뇨, 외숙.”

그러고는 테무르의 친위대장을 돌아보며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일대일로 만나고 싶었는데 잘됐어요. 다녀올게요. 호위도 됐어요.”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걸어 친위대장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통역관과 시녀가 서둘러 그녀를 따라가자, 친위대장도 나이젤을 한 번 일별하고는 몸을 돌렸다.

황후 궁에서 나온 친위대장은 딱 제 팔뚝만 한 여자의 뒤를 따르며,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코르벨라의 차기 황제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머리카락을 틀어 올려 드러난 목은 과장을 조금 보태서 그의 팔목 굵기만 했다.

피비린내 나는 후계 암투가 일상인 아이젠에선 가시적인 강함이 대단히 중요했다. 상체 근육을 드러내기 위해 튜닉을 헐렁하게 입는 것이 관습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 원군이랍시고 온 눈앞의 여자가 못마땅하기는 친위대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브릴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을 모른 척하며 계속 걸었다. 재잘재잘 떠드는 코르벨라의 시녀들과 달리, 입에 무거운 추를 매단 듯한 아이젠의 시녀들은 그녀가 잘 따라오는지를 연신 확인하며 잰걸음을 걸었다.

지브릴은 시원함이 느껴지는 상앗빛 대리석의 향연을 감상하며 때론 계단을 오르고, 때론 복도를 지났다. 관광객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실은 지나온 모든 길을 기억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아치형 천장이 인상적인 복도를 지나자, 웅장한 사자의 석상이 양옆으로 서 있는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지브릴이 멈춰 서자, 내내 그녀 뒤를 따르던 친위대장이 성큼 앞으로 나오며 직접 문을 두드렸다.

그가 아이젠어로 무어라 고하자, 문 너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브릴은 통역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친위대장이 서둘러 열어 주는 문 너머로 한 발을 내디뎠다.

복도와는 다른 공기가 밀려듦과 동시에 굶주린 짐승의 눈빛을 닮은 새빨간 시선이 느껴졌다.

지브릴은 적의와 경계로 똘똘 뭉친 날 선 시선을 빤히 마주 보며 입술을 끌어당겼다.

재밌네, 라고 중얼거리며.

새파랗다.

테무르가 지브릴을 보며 느낀 첫 감상이었다.

온갖 푸른색을 보았으나, 단언컨대 저런 파랑은 처음 보았다. 아주 시린 색이다. 그럼에도 그 시선이 차갑기는커녕 뜨겁게 느껴졌다.

가까이에서 보자 그 체구가 가녀린 것이 더욱 드러났다.

키는 뒤에 선 친위대장의 가슴께에 닿을 정도였으며, 체구는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테무르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산 바르 모아드에게서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 그녀가 등장함과 동시에 물밀 듯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방으로 들어선 그녀가 입술을 당기며 웃더니 무어라 입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테무르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소파에 먼저 앉으며 자리를 권했다.

통역관이 서둘러 지브릴에게 말을 전하자, 지브릴은 느긋하게 걸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원색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 첨예한 상황에, 방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두 사람 앞에 다과를 내놓던 시녀들은 손을 잘게 떨었고, 하필 그들 가운데 앉아야 했던 통역관의 등은 진땀으로 축축해졌다. 친위대장마저 가슴을 수그리며 숨소리를 죽이는데, 테무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꿍꿍이로 여길 왔나? 코르벨라 황제가 친자매도 아닌 이복자매가 염려되어 너희를 보냈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고.]

통역관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통역을 어찌 하라고 이러세요…….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2)

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역하던 통역관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연유로 아이젠에 오셨습니까? 황후 폐하가 염려되어 오셨는지요?”

지브릴은 테무르의 신랄한 표정과 통역관의 공손한 말씨에서 아주 큰 괴리를 느꼈다. 남자의 표정으로 짐작하건대 결코 공손할 리가 없었다. 공손은커녕 필시 하대를 하고 있으리라.

지브릴은 비뚜름한 미소를 걸친 채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말했다.

“아이젠 황후의 편지에 대한 화답이라 전하라.”

순간 테무르가 낮은 웃음을 터트렸다. 통역관이 통역하는 동안 그의 웃음은 비웃음으로 번졌고, 지브릴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서늘해졌다.

[우습다. 그런 자들이 아주 은밀하게 수도를 휘젓고 다니나? 너를 제외한 나머지가 궁을 나섰다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잠시 흔들린다고 아이젠이 흔들린다 생각하면 오산이지. 너희에게 떨어질 이권 따위는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떠나라.]

통역관이 통역을 포기한 채 눈만 슴벅이자, 테무르가 그를 향해 날카롭게 일갈했다.

[무엇하나, 통역관! 돌려 말할 필요 없다. 내 말 그대로 통역하라!]

결국 통역관은 지브릴과 테무르의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통역했고, 그의 통역을 듣던 지브릴이 중얼거렸다.

“난 그쪽이랑 싸울 생각 전혀 없는데, 싸우러 온 줄 아네?”

통역관이 ‘이것을 통역해, 말아.’ 고민하는 사이, 지브릴은 팔짱을 끼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러곤 느긋하게 시선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대수로운 듯 날카롭게 곳곳을 훑었다.

창가에 점점이 묻은 검붉은 흔적, 홀로 색감이 맞지 않는 카펫, 흔한 장식장은커녕 소파와 책상을 제외하고는 어떤 집기도 없는 공간.

천천히 한 바퀴를 미끄러져 다시 원점처럼 테무르의 얼굴에 닿은 새파란 눈길이, 날카로운 눈매와 턱선을 담았다.

생각을 끝낸 지브릴이 눈을 들며 나직이 말했다.

“팔과 다리가 잘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기어이 목을 잘라야만 죽는 것들.”

통역관이 흠칫 떨며 그녀를 돌아보았으나, 지브릴은 테무르만을 직시하며 덧붙였다.

“내가 아이젠에서 관심 있는 것은 그 희한하고 기분 나쁜 존재들이지, 네가 아냐.”

통역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얼른 통역했고, 지브릴은 용건 끝났다는 듯 통역관이 통역하는 와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마치 첫 만남에서 테무르가 그랬던 것처럼.

친위대장과 참모 몇몇이 놀란 듯 눈을 치켜떴고, 테무르는 턱을 당긴 채 날카롭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브릴은 그러거나 말거나 몸을 돌린 뒤 문을 향해 걸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으로 걷는 그녀를 감히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

시녀들이 서둘러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는 슬쩍 테무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툭 말했다.

“야, 너.”

믿을 수 없는 호칭에 통역관이 발작하듯 놀라 엉덩이를 들썩였다.

한데 통역관이 통역하기도 전 테무르의 눈동자에 노기가 서린다. 의심을 확신으로 굳힌 지브릴이 눈을 길게 휘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말 다 알아듣지?”

“…….”

두 사람은 눈빛으로 전쟁을 하는 듯했다.

통역관은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못했고, 친위대장과 참모 몇은 콧김을 팍팍 내쉬며 지브릴과 테무르를 번갈아 보기 바빴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사이, 지브릴은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하며 인사를 건넸다.

“나한테 할 말이 더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젠 네가 직접 와. 감히 오라 가라 하지 말고.”

뭐… 인사받은 쪽의 심기는 영 불편한 듯 보이지만 말이다.

시녀들은 잰걸음으로 지브릴보다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 바빴는데, 왜냐하면 이 독특한 귀빈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르벨라와 달리 관노로 구성된 하와 궁의 시중인들은 오로지 시중드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감히 참견할 권리가 없었다.

시녀들은 지브릴이 방향을 바꾸면 바꾸는 대로 따라갔다가, 그녀가 다시 안내하라는 듯 눈짓하면 그제야 황후 궁으로 방향을 잡는 일을 반복했다.

시녀들은 잰걸음으로 걷다가 또 뒤를 힐끔 돌아봤다.

다행히 이번엔 잘 따라오고 계신다. 서로 눈을 마주친 시녀들은 자기들끼리 입 모양을 주고받았다.

[신기해.]

[그러니까.]

그들 상식에 ‘후계’란,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신 같은 남성이었다. 이를테면 테무르라든가.

한데, 그들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가.

여성치고 키가 작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아주 큰 편도 아니었다. 테무르와 비교하자면 그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거구 친위대장과 비교하자면 솔직히 고목 나무와 매미 정도의 압도적인 체격 차가 나 버렸다.

게다가 얼굴은 흰 수국처럼 뽀얗고 고왔으며, 몸은 낭창했다. 전쟁은커녕 큼직한 나방 한 마리만 봐도 질색하실 것 같다.

[하삼을 입으시고, 르와즈와 챠리를 걸치시면 정말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짙은 남색이나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도 잘 어울리실 거야. 황후 폐하께서도 그런 색이 어울리시잖아.]

자기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시녀들은 왠지 등 뒤가 허전한 느낌에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

없다.

없어!

시녀들은 울상을 지으며 재빨리 몸을 돌렸다. 감히 소리 내어 부를 수도 없으니, 그저 발로 뛰며 귀빈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이 애타게 찾던 귀빈은 어느 기둥 아래에 서 있었다. 기둥 곳곳엔 채 지우지 못한 검붉은 흔적이 묻어 있었다.

“정말 대놓고, 그것도 성실하게 암살 시도를 하는 모양이네.”

게다가,

“모두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듯하고.”

지브릴의 시선이 청소 도구를 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녀 무리에 닿았다. 그녀들은 불그스름한 물이 든 걸레를 쥐곤, 무감하게 움직였다. 매일매일 하는 청소라는 듯.

지브릴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기둥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을 무렵, 안내 시녀들이 급히 달려왔다. 어찌나 달렸는지 색색 내쉬는 숨이 거칠었다.

그러고도 한마디 투정도 하지 않는 모습에 미안해진 지브릴이 그들을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미안, 미안. 이제 안 그럴게.”

살짝 울상이었던 시녀들은 지브릴의 미소에 큰 눈을 끔뻑이더니 얼른 다시 방향을 잡았다.

지브릴이 얌전히 황후 궁에 도착하자, 데미안이 후다닥 달려왔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데미안은 나이젤을 통해 지브릴이 단독으로 테무르를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다.

“부른다고 쪼르르 가냐?!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

“어허! 쪼르르라니. 불경하다.”

“그 자식이 또 눈 부라리고 그러지 않았어?!”

“눈을 부라리면 어쩔 거야.”

“…하긴. 지브릴 코르벨라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

“딱 일대일로 만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었어. 외숙께서 같이 가시겠다는 걸 내가 만류했다.”

“뭐래? 빨리 꺼지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않아?”

“아니?”

“……?”

“대놓고 하던데.”

지브릴이 방으로 들어서며 재킷을 벗자, 시녀가 얼른 받아 들었다. 데미안은 저를 졸졸 따라오는 시녀를 손짓하여 물린 뒤, 지브릴이 앉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지브릴이 목을 옥죄는 셔츠 단추 두어 개를 툭툭 풀면서 물었다.

“자금은 얼마나 확보 가능해?”

무어라 말을 하려던 데미안은 멈칫하더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빠른 손길로 내용을 열어 확인한 지브릴이 이내 눈을 들며 웃었다.

“역시 데미안 발할라.”

“흠흠.”

“이것은 투자로 간주하니, 보상을 약속하겠다.”

“이 정도야, 뭐……. 암튼 암살자 건은 떠봤어?”

지브릴의 칭찬에 입술을 씰룩이던 데미안이 얼른 화제를 전환했다.

“떠봤지. 반응도 있었고. 한데 굳이 떠볼 필요도 없었겠더라.”

“무슨 말이야?”

“황태자 궁 곳곳에 암살자와의 혈투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 어느 정도냐면 말이야.”

지브릴은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짚으며 중얼거렸다.

“거긴 겉만 번지르르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어.”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또다시 전쟁터가 되겠지.

지브릴의 눈빛이 시퍼렇게 빛나는 것을 본 데미안은 그녀가 무언가 결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대게 이런 때엔 그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야, 지브릴.”

“……?”

“뭔진 몰라도, 위험한 짓은 하지 마라. 아니면 같이해.”

그의 충고에 지브릴은 그저 싱긋 웃을 뿐이었다.

그날, 로아와 엘빈은 저녁께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데미안과 그랬던 것처럼, 지브릴은 두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양쪽의 보고 모두 9할 이상이 모아드와 마와바타 가문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엔 로즈가 준비한 성대한 만찬을 함께 즐겼다. 물론 테무르는 참석지 않았다.

밤은 익어 가듯 깊어졌다.

시녀들은 이국의 귀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향을 피웠으며, 달빛과 새벽녘 햇살을 막아 줄 두꺼운 커튼을 쳤다.

삭삭 천이 스치는 가벼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문이 스르르 닫혔다.

눈을 감고 있던 지브릴은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부드러운 이불에 뺨을 비볐다.

“아으, 이대로 자면 좋긴 하겠다.”

입은 것 같지도 않은 실크 잠옷, 깃털을 채워 푹신한 침대와 배게, 은은한 향기, 거기다 깊은 잠을 불러 줄 피로함까지.

하지만 지브릴은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 망설임 없이 잠옷을 벗어 버렸다. 그러고는 한쪽 구석에 넣어 두었던 검은 의복으로 빠르게 갈아입었다.

그러는 사이 조금이나마 묻어 있던 나른함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허리와 허벅지를 단단히 조이는 가죽 벨트에 검 두 자루를 고정시키던 지브릴의 손길이 멈칫했다. 천천히 허리를 펴는 그녀의 눈길이 두꺼운 커튼 너머에 닿았다.

지브릴은 커튼을 빤히 쳐다보며 긴 머리카락을 솜씨 좋게 휘감아 올렸다. 검은 두건으로 화려한 머리카락을 가리며 성큼성큼 커튼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기습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커튼을 열어젖히며 문을 열었다.

새카만 어둠을 가운데에 둔 채, 옅은 하늘색 눈동자와 새파란 눈동자가 마주쳤다.

“데미안이 일렀군.”

지브릴이 발코니로 나오며 중얼거리자, 엘빈은 어깨를 으쓱였다.

“이르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팔짱을 끼며 동시에 같은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3)

하와 궁의 대리석은 한낮에 머금었던 빛을 토해 내기라도 하듯 어두운 밤에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그스름하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독특한 궁의 지붕 위로 검은 새들이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동시에 하와 궁을 떠받치는 천 개의 기둥 사이로도 날쌔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궁 너머에선 쇠붙이들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이미 요란했으며, 서서히 내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황후궁의 기도실에선 애끓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정말 희한한 전쟁이야.”

지브릴의 중얼거림에 엘빈도 동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확인해야지?”

“어떻게 싸우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그런 다음 시체를 확인하든, 아니면 맞붙어 보든 그건 상황 봐서 판단하고.”

지브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난간에 발을 올렸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내렸다. 소리도 없이 바닥에 착지한 두 사람의 신형이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밤이 되자 어김없이 지옥이 도래했다.

시중인들은 해가 지기 전 모두 황태자 궁에서 나갔고, 그 자리를 병사들이 채웠다. 밀실과도 같은 방, 테무르는 홀로 남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사방에서 날붙이 소리가 들린다. 고통에 겨운 비명과 신음이 들린다.

오랜 기간 대리석에 밴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늘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살아 있을 것인가.

살아 있다면, 그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할까. 샨 테무르 아이젠은 수많은 이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가치가 있는 자인가.

누구에게나 강인하게 보여야 했던 테무르는 무너질 것 같은 한숨과 함께 어깨를 늘어트렸다.

이 네모난 밀실이 마치 관처럼 느껴졌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버티길 한참,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순간 테무르는 짐승처럼 튀어 오르며 월도를 집어 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전하, 친위대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러자 짙은 죽음의 냄새가 훅 끼쳐 들었다.

친위대장이 얼굴을 훑어 닦으며 나직이 말했다.

[후원 밀실로 대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테무르는 두 번 묻지 않고 일단 움직였다. 밀실 밖으로 나오자, 날카로운 것들이 깨지는 파열음이 훨씬 선명하게 들렸다.

[어제에 비해 최소 두 배는 되는 인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황태자 궁의 후원을 향해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던 테무르가 그를 휙 돌아보았다. 친위대장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더니 제 가슴을 툭툭 쳐 보였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 말이 꼭 테무르 자신 대신 죽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테무르는 대답 대신 월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곤 몸을 낮추며 눈을 부릅떴다.

[이 우라질 것들이……!]

친위대장은 정원 둘레의 회랑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검은 것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테무르는 그를 향해 날아드는 단도를 월도로 쳐 냈다. 그러고는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암살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지를 박차고 도약하는 한 마리의 늑대처럼.

기괴하고 비정상적이다.

지브릴과 엘빈은 황태자 궁을 습격한 무리를 보며 그리 생각했다. 그들은 냉소적일 정도로 침착하게 놈들을 관찰했다.

암살자와 과거 오르센의 귀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고, 차이점은 귀신과 달리 암살자는 피아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맞붙어 보며 확인해야겠다.”

지브릴의 중얼거림에 엘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나저나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고 작정한 모양이야. 이렇게까지 밀려들다니.”

“황태자가 제 궁을 버리고 도망치면 진 것으로 간주한다니. 제멋대로인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별 이상한 규칙까지 있어.”

지브릴이 질린다는 듯 고개를 내저을 때였다.

“지브릴.”

엘빈이 그녀를 부르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시작점이자 종점인 자가 있었다.

그자의 무예는 남달랐다. 허투루인 움직임 없이, 일격에 적의 목을 베었다. 멀리서도 검이 예리하고도 적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그의 검 끝에 어린 것은 희미하긴 해도 틀림없는 오드였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검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빙붕처럼 보였다. 조금만 방심하면 죽음 같은 검은 바다에 삼켜질, 위태로운 빙붕.

지브릴은 문득 황후 궁 기도실에서 들려오던 애끓는 울음을 떠올렸다. 실타래처럼 딸려 온 기억 끝에 마틸다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냉철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지브릴이 어느 순간 입을 열었다.

“엘빈, 이 희한한 싸움이 여명과 동시에 멈춘다고 했나?”

“그렇다더군.”

“얼마나 남았지?”

“약 2시간.”

쌍둥이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둑하나, 그들은 시선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엘빈 코르벨라,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너나 걱정해라.”

엘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몸을 일으키며 검을 빼 들었다. 그러곤 동시에 검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늑대를 향해 날듯이 달렸다.

황궁으로 날아드는 그 어떤 검은 새보다도 빠르게.

지옥이 있다면 이와 같을까.

큰 상처를 입고도 신음 한번 없이 일어나 달려드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맞붙어 싸우던 병사 중 일부는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끝내 도망쳤다.

그러나 테무르는 절대 도망칠 수 없었다.

암살자는 어깨 한쪽이 완전히 날아갔음에도 침착했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데도 그저 칼을 든다.

갑작스럽게 팔이 사라진 탓에 균형을 잡기 어려운지 몸을 휘청이며 달려오는 모습에선 악기마저 느껴졌다.

테무르는 휘청이며 달려드는 암살자를 향해 월도를 휘둘렀다. 그제야 암살자의 몸이 허물어졌다.

거칠게 들이쉬는 숨마다 피가 배어 있는 것 같다.

정원을 가로지르려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차라리 회랑을 통해 갔어야 했다. 하나 이제 와 후회하면 무엇하겠나.

테무르는 미끌거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액체를 닦아 내며 어금니를 세게 물었다. 친위대장이 어떻게든 막아 보려 했으나, 사방에서 쏟아지는 적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어떤 진영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백병전은 열세인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전하,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원군이 오고 있을 겁니다!]

막 적의 목을 날려 버린 친위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하지만 그도, 친위대도, 테무르까지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때, 빈 공간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예기가 날아들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기를 피하기는 했으나, 테무르는 휘청이고 말았다.

그의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본 친위대장이 달려왔으나, 예기를 던진 자의 움직임이 한층 빨랐다. 놈은 한동안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전하!!!]

친위대장이 피를 토하듯 그를 불렀다.

테무르의 눈동자는 쓰러지면서도 적의 검을 노려보았고, 그 와중에도 허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쓰러져 땅에 처박히는 찰나의 순간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게 마지막인가.

이대로 죽는가.

테무르가 악에 받쳐 두 눈을 부릅뜰 때였다.

하늘로 향한 시야, 초승달 뜬 하늘 위로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았다.

날아서, 그에게 달려들던 죽음을 낚아챘다.

[컥—!]

테무르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의 목덜미까지 치고 들어왔던 차디찬 날붙이도 흙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처박힌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깜빡이자, 별안간 나타났던 새가 그를 향해 날카롭게 일갈했다.

“사촌!! 빨리 일어나!!”

얼른 정신을 차린 테무르가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자, 검을 든 채 전방을 주시하던 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었던 새파란 눈이 희미한 달빛에 번뜩였다.

“싸울 수 있지?!”

그녀는 싸울 수 없으면 가만두지 않을 기세로 물었다. 그러고는 테무르에게 등을 내보인 채 암살자들을 향해 검을 겨눴다.

어느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테무르였으나, 갑작스레 나타난 작은 등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제정신인가?’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곁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줄 테니까, 버텨.]

테무르와 눈높이가 맞을 정도로 키가 큰 사내는, 옅은 하늘색 눈으로 그를 일별하더니 마찬가지로 검을 들었다.

이방인들의 난입으로 잠시 주춤했던 암살자들은 다시 대열을 갖춰 달려들었고, 테무르는 더 생각할 겨를 없이 월도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가 암살자를 향해 검을 휘두름과 동시에, 그의 양옆에서 자세를 잡고 있던 지브릴과 엘빈도 검을 들고 싸웠다.

아주 가볍고, 적확하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방인을 경계하던 친위대장은 테무르와 더불어 무서운 기세로 암살자들을 도륙하는 둘을 보며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검은 새가 날아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 마리의 맹수였다고.

생각지도 못한 원군은 고작 둘.

밀려드는 암살자의 숫자에 비하자면 고작 두 사람의 원군은 기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둘은 고작 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테무르와 등을 맞대고 서서 빈틈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았다.

물론, 처음엔 테무르도 제 왼쪽 등 뒤에 서 있는 지브릴을 자꾸만 돌아보았다. 그에 지브릴의 신랄한 일갈이 곧장 튀어나왔음은 두말할 것 없었다.

“전방 주시 안 해?! 뒈지고 싶냐?!!”

“…….”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코르벨라어를 배웠으나, ‘뒈지고 싶냐.’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다. 맥락과 어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충 ‘죽고 싶으냐.’ 의 욕 버전이 아닐까.

게다가 그녀는 욕만으로 모자랐는지,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지금 내 등을 너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지 않게 잘해라, 알겠어?!”

희한한 오기가 돌게 만드는 발언이었다. 저도 모르게 ‘죽든 말든 내가 뒤돌아보나 봐라.’라는 생각이 치밀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그는 인정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브릴에 대한 우려는 정말이지 쓸모없는 것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4)

지브릴과 엘빈이 있는 한 등 뒤는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다. 절대 뒤에서 칼날이 날아오게끔 내버려 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의 뒤통수를 향해 쏘아진 화살도 모조리 쳐 냈다.

심지어 믿을 수 없게도 둘의 검엔 모두 각기 다른 색의 오드가 일렁이며 어려 있었다.

지브릴과 엘빈은 테무르와 등을 삼각형으로 맞댄 채 움직였다. 전투를 위해 잠시 삼각형을 어그러트리더라도, 그것은 정말 찰나일 뿐이었다.

둘은 공격보다는 철저히 방어에 목적을 두고 움직였다.

그들 두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수적 우위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목표물이 분명한 시간 제한 게임에선 집요하게 방어만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지브릴과 엘빈의 목적은 여명이 밝아 오는 순간까지 테무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테무르의 등 뒤가 안전해지자, 그의 친위대들도 제 역량을 내기 시작했다. 거기다 속속 원군도 도착하자, 사각형의 정원에 드리워졌던 절망이 서서히 걷혔다.

얼마나 혈투가 이어졌을까.

지브릴은 한데 엉겨 동시에 달려드는 암살자들을 보며 혀를 찼다. 시퍼런 날붙이가 제 목과 허벅지를 향해 날아드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브릴의 눈엔 모든 것이 느리게만 보였다.

“나도 칼이 두 개거든!”

지브릴은 기합처럼 포효한 뒤, 날아오는 검을 동시에 막아 쳐 버렸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친위대장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두 눈을 부릅떴다.

목덜미와 허벅지로 동시에 향하는 두 물체를 어떻게 모두 막아 낸단 말인가?! 짐승과도 같은 동체 시력…, 아니 짐승조차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게 가능한가?

더불어 놀랍게도 우악스러운 암살자들의 일격을 한 손으로 막아 내면서도 뒤로 밀리지 않았다. 도리어 밀려난 쪽은 암살자들이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은 적을 향해 맹수처럼 칼을 휘둘렀고, 휘청이던 암살자 둘은 그대로 절명했다.

암살자들의 숨통을 끊어 버린 지브릴은 반사작용처럼 뒤로 물러나 테무르, 엘빈과 등을 맞댔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근육이 내뿜는 열기가 등에서 느껴졌고,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왔다. 그녀라고 다를 바는 없었다.

지브릴은 얼굴을 훑어 내리며 등 뒤를 향해 물었다.

“둘 다 멀쩡하지?”

“물론.”

“…….”

엘빈에게선 곧장 대답이 튀어나왔으나, 테무르 쪽은 대답이 없었다. 전방을 주시하던 지브릴이 힐끔 등 뒤를 일별했다. 우람한 등은 마치 제방처럼 굳건했다.

대답하기 싫으면 말아라, 라고 생각한 지브릴이 지친 눈길을 돌려 버릴 때였다.

“…너희나 걱정해라.”

생각 외로 유창한 코르벨라어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허스키했다.

엘빈이 놀란 듯 그를 슬쩍 돌아보았고, 지브릴은 미끌거리는 손을 빠르게 문질러 닦으며 건성으로 답했다.

“네, 네.”

그러고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슬쩍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새파란 눈동자가 살짝 커졌다. 나락의 입구처럼 시커멓기만 하던 하늘에 어느덧 푸르스름한 빛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빛의 실타래가 얼기설기 세상을 감싸기 시작하는 밤과 새벽의 경계.

여명이었다.

“끝났네…….”

지브릴이 긴 숨을 천천히 내쉬며 중얼거림과 동시에 창백한 새벽빛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사위를 감쌌다.

그러자 동료의 시신을 넘어 달려들던 암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테무르의 친위대들도 멈칫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놀랍게도 암살자들이 물러났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던 것과는 달리, 흡사 도망이라도 치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잔뜩 힘이 들어갔던 근육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지브릴은 가만히 눈을 슴벅이다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전쟁이야.”

목구멍이 텁텁하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반대로 온몸은 끈적하게 젖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피로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엘빈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지나가자, 지브릴도 검을 갈무리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한편, 테무르는 월도 끝으로 땅을 짚은 채 눈을 감았다.

이 밤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잃었다. 그러니 살아남았다 한들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대로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버틸 수는 없다.

어떤 결심을 하던 테무르의 귓가에 한껏 낮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색이 좀 애매하지?”

“그런데 어쨌든 파랗긴 해.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시신이 그러하잖아.”

“하긴. 조금 옅긴 해도, 암살자들 눈동자 색이 균일한 것은 확실히 이상하지. 게다가 이 냄새. 진짜 특이한 냄새가 나.”

눈을 뜬 테무르가 소리 나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뭐… 하는 걸까요?]

친위대장도 눈을 껌뻑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브릴과 엘빈은 암살자들의 시신에서 뭔가를 찾거나 혹은 확인하는 듯 보였다. 그들의 손길과 눈길은 아주 냉철했다.

“내가 아이젠에서 관심 있는 것은 그 희한하고 기분 나쁜 존재들이지, 네가 아냐.”

테무르가 지브릴의 말을 떠올리는데, 마침 그녀도 허리를 펴며 그를 돌아보았다. 두건 속에서 삐져나온 금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오늘 밤도 이런 식으로 버틸 거냐?”

“…….”

테무르는 침묵했고,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녀 곁에 서 있는 코르벨라의 황자 또한 그를 빤히 쳐다보긴 해도 부러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들은 한참이나 더 암살자들을 확인하다가, 시신을 정리할 시중인들이 정원에 들어서자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코르벨라 황태녀와 황자가 암살자들 시신을 부러 확인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글쎄. 알고 싶은 게 있나 보지.]

[그래도 어찌 되었건, 간밤엔 그 두 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황자 쪽이야 그렇다 쳐도, 황태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는……. 허, 참. 뭐랄까요? 짐승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짐승이라…….

그보다는 경이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초인적이라는 말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테무르는 흐릿한 잔상을 남기며 종횡무진 움직이던 지브릴과 엘빈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나한테 할 말이 더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젠 네가 직접 와. 감히 오라 가라 하지 말고.”

그러다 실타래처럼 딸려 올라온 말까지 떠올린 테무르가 저도 모르게 실소를 내뱉었다.

지친 손길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그의 위로 새로운 날의 햇살이 비쳐 들었다.

지브릴과 엘빈이 황후 궁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젤과 데미안, 로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친 곳은?”

로아의 물음에 지브릴과 엘빈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우선 좀 씻어야겠구나.”

나이젤이 대리석 바닥에 선명히 찍히는 붉은 자국을 보며 말하자, 지브릴과 엘빈 모두 두말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잠시 후, 깔끔해진 모습의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밤새 서성이던 세 사람도 맞은편에 앉았다.

“냄새가 잘 안 가시네.”

지브릴의 중얼거림을 이해한 사람은 로아 뿐이었다.

“그러게. 무슨 냄새지? 비릿하면서도 이상하게 단 냄새가 나는데.”

“암살자들한테서도 이 냄새가 진동했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지브릴이 얼굴을 훑어 내며 나이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이젤이 입을 열었다.

“암살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니?”

“오르센 귀신과의 공통점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목을 베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와전된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리 보이는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엘빈이 설명을 거들었다.

“실제로 심장을 관통당한 자 또한 절명했고, 과다출혈로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과는 달리 정상 범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오드의 사용도 일절 없었고요. 생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뭐랄까요…….”

“비정상적일 정도로 맹목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것 같달까, 아니면 뭔가에 취한 것 같달까.”

지브릴과 엘빈이 서로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눈동자 색은 어떠하더냐?”

“파랑이긴 한데, 일족에 비해서는 옅어요. 하지만 확인한 모든 암살자의 눈동자 색이 균일했습니다. 푸른 눈동자가 드문 아이젠에서 말이죠.”

다섯 사람은 잠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지브릴이었다.

“저는 암살자들이 진화, 변형된 형태의 귀신이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실종된 여섯 명도 있을 것이고요.”

그녀의 발언에 나머지 네 사람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지브릴은 파란 눈을 빛내며 빠르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정보사 요원들과 아뷔브 공작령 관할 요원들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장’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으로, 모아드와 마와바타 가문의 사유지부터 탐문합니다.”

“알겠다.”

“오전부터 움직일게.”

“저랑 엘빈은 오전엔 잠을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데미안, 현지인들 의견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너야. 상단 사람들에게 모아드, 마와바타 가문 관련 소문을 좀 알아봐 줘.”

“알았어.”

잠시 후, 간략한 회의가 끝나자 지브릴은 어깨를 늘어트리며 깊고 긴 한숨을 천천히 몰아쉬었다. 나이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자, 로아와 데미안, 엘빈까지 일어났다.

“수고 많았다, 지브릴.”

나이젤이 고마움을 담아 인사하자, 지브릴은 힘없이 히죽 웃은 뒤 그를 배웅했다. 나이젤은 잊지 않고 엘빈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윽고 남자들이 모두 나가자, 지브릴은 물에 빠지듯 침대로 뛰어들어 그대로 잠이 들었다.

검은 바다에 잠긴 것처럼 새카만 잠에 들었던 지브릴이 눈을 뜬 것은 그날 정오 무렵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5)

지브릴이 깨자마자 달려온 로즈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황태녀. 나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황후 폐하. 그런 말씀 마세요.”

로즈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감사의 의미로 그녀에게 아이젠식 의복을 선물했다.

“여긴 몹시 더워서 몸에 딱 맞는 코르벨라식 옷이 적합하지 않아요. 하삼은 몸을 옥죄지 않으니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고로 선물은 기쁘게 받아야 하는 법. 그렇지 않아도 셔츠가 영 덥게 느껴졌던 지브릴은 흔쾌히 그녀의 선물을 받았다.

시녀들이 능숙한 손길로 지브릴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는데, 로즈의 말마따나 아이젠 식 의복은 더운 기후에 적합하여 몹시 쾌적했다.

아이젠식 드레스의 이름은 하삼으로, 코르벨라처럼 원피스가 아닌 투피스였다. 로즈가 선물한 하삼은 채도 높은 보라색이었다.

가슴과 허리를 감싼 천은 흐르지 않도록 살짝 조였으나, 허리 아래로는 물 흐르듯 치맛자락이 펼쳐졌고, 어깨에서 팔목에 이르는 천도 하늘하늘하게 늘어졌다.

남자들의 튜닉이 가슴 근육을 반쯤 드러낸다면, 여자들의 하삼은 허리선을 살짝 드러내었다.

여기에 머리카락은 정 가운데 가르마를 곱게 타 뒤로 땋아 내렸으며, 정수리에서부터 이마까지 길게 이어지는 챠리라는 액세서리를 달아 주었다.

모든 단장이 끝나자, 시녀들은 끝단에 자잘한 실금이 달린 르와즈를 그녀의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씌워 주었다.

시녀들은 뒷걸음질로 소리 없이 물러나며 연신 지브릴을 훔쳐보느라 바빴다. 로즈가 준비한 하삼은 마치 지브릴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로즈 역시 입술을 끌어올려 웃었다.

“무척 잘 어울려요, 황태녀. 어떤가요? 마음에 드나요?”

지브릴은 치맛자락 사이로 파고드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마주 웃었다.

“물론입니다, 황후 폐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황자와 로아, 그리고 발할라 후계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는데 모두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군요.”

그녀의 바람대로 선물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엘빈, 로아, 데미안이 순서대로 지브릴을 찾아왔을 때, 그들 모두가 아이젠식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후궁 시녀들 사이에서 코르벨라 황족들의 자태에 대한 소문이 마른 들에 번진 불길처럼 번졌다. 선물한 로즈마저도 ‘어쩜 모두 하나같이 아름다울 수가 있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 으레 이 땅의 무수한 혈육들이 그러하듯, 네 사람은 서로의 의복에 대해선 일절 입도 대지 않았다. 입을 대긴커녕 솔직히 뭘 입었는지 알게 뭔가.

로아마저도 하다못해 잘 어울린다는 칭찬조차 건네지 않았다. 가슴 근육의 반이 보이든 말든, 허리선이 보이든 말든, 서로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본디 혈육의 의복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라… 이상한 점 아니겠는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한참 보고를 하던 데미안은 말끝을 흐리며 눈앞에서 까딱대는 하얀 것을 바라보았다. 엘빈과 로아는 그냥 무시했으나, 결벽 비슷한 것이 있는 데미안은 결국 입을 열고야 말았다.

“…지브릴.”

“어?”

“아이젠 여성들이 맨발에 샌들을 신는 건 아는데, 너처럼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대놓고 까딱이지는 않지 않니?”

데미안의 지적에 지브릴은 소파에 반쯤 드러누우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밖에 나가면 안 그래. 여기서나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삭신 쑤시니까 딴소리 말고, 보고하던 거나 마저 해.”

데미안은 지브릴의 대꾸에 떨떠름해하면서도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가 이상하여 계속해 지브릴을 힐끔거렸다.

뭔가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잠시 뒤, 데미안이 느꼈던 이상함을 공감해 줄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

코르벨라 형제들은 입구를 장악하듯 선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고, 남자 역시 느긋한 눈길로 그들을 한 사람씩 훑어보았다. 로아, 데미안, 엘빈을 차례로 일별한 그의 눈길이 가장 뒤편에 서 있던 여자에게 닿았다.

“…….”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어그러졌다.

하삼을 입고 있는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그녀는 가슴 아래로 길게 늘어트리는 것이 원칙인 르와즈로 턱 아래에 리본을 묶은 상태였다. 왕리본으로 사탕 포장처럼 얼굴을 묶은 주제에 표정은 자신만만하기 이를 데 없으니… 역시 아주 이상한 자다.

테무르의 미묘한 표정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낀 데미안이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그치? 어디가 이상하긴 해.

그사이, 표정을 갈무리한 테무르가 입을 열었다.

“네 말대로 내가 직접 왔다. 잠시 시간 되나?”

그의 코르벨라어는 아주 유창했다.

지브릴이 입꼬리를 휘어 웃으며 느긋하게 답했다.

“물론이지.”

피는 피다.

코르벨라의 황족들과 테무르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본 친위대장의 감상이었다.

평생 단절된 채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야 얼굴을 마주한 사이건만,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서로 닮은 구석이 있었다.

우선, 외형이 닮았다. 피부색의 차이는 있으나, 이목구비의 생김으로만 보자면 로아 아뷔브와는 형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닮았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닮았다.

친위대장 눈에 코르벨라의 황족들은 테무르의 분위기를 각기 다른 인물로 의인화한 것처럼 보였다.

보통의 테무르는 엘빈 코르벨라와 같았고, 기분이 좋거나 어머니 앞에서의 모습은 로아 아뷔브 같았으며, 뭔가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데미안 발할라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범위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딱 한 사람 있었으니,

지브릴 코르벨라였다.

“…….”

친위대장은 하삼 자락 아래에서 쉴새 없이 까딱이는 발가락을 보며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건장한 체격의 형제들이 양옆으로 포진해 있음에도 존재감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그것이 간밤에 본 무예 때문인지, 괴상하게 턱에서 묶어 둔 르와즈 때문인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발가락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그는 이 혼란한 장면을 보면서도 흔들림 없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경외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런 이유로 오게 된 것이오. 우리가 궁을 비웠던 까닭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살자들의 본거지를 찾기 위함이었고.”

엘빈의 차분한 설명을 쭉 이어 듣던 테무르가 지브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엘빈의 설명에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흔들리는 리본이 영 거슬리기는 했으나, 애써 무시하며 물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계인 네가 직접 온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군.”

그러자 다리를 꼬고 있던 데미안이 발끈하며 사납게 눈을 치떴다.

말끝마다 ‘너, 너’거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브릴이 대꾸했다.

“네가 납득해야 할 일은 아니고.”

데비안 발할라는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렇잖아?”

데미안은 앙칼진 눈으로 테무르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 지브릴이 하는 일에 네 납득은 필요 없지.

테무르와 지브릴은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서로의 기운을 밀어내는 듯 보였다. 데미안이 일방적으로 지브릴을 응원하는 사이, 엘빈과 로아는 상황을 관망했다.

잠시 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브릴이었다.

“태어나 처음 본 사이인데 혈육의 정이니 뭐니,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에 테무르가 냉소적으로 픽 웃었다.

“나야말로.”

“그러니 네 납득을 바라고 긴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겠어. 대신, 이런 말을 해 주고 싶군.”

“…….”

지브릴은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상대를 온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일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과 신뢰, 혹은 이득이다. 더불어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지브릴이 부러 말끝을 흐렸다. 테무르는 창공처럼 시리게 빛나는 눈동자를 물끄러미 마주 보다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공동의 적이지.”

그의 말이 끝나자, 지브릴은 몸을 느긋하게 뒤로 기대며 속삭였다.

“내 적은 희한하고 기분 나쁜 존재를 만들어 낸 자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자야.”

“…….”

“혈육의 정? 아니. 내가 이곳에 온 까닭도, 어제 너와 함께 싸웠던 까닭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우린 그저 우연히 같은 적을 두었을 뿐이지.”

속삭이듯 말을 전한 지브릴은 천천히 팔짱을 끼더니 눈을 휘며 웃었다. 그러고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사촌? 잠시간 동맹하는 것이?”

테무르는 그 모습에 눈을 가늘게 떴다.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궁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피었는지도 모르게 피어 있었다던 코르벨라의 황제.

압도적인 무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황제에 등극했다던 사람.

“설혹 그녀가 오지 못한다면, 내 그것은 이해하마. 하나, 그녀가 오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구나.”

코르벨라의 황제와 눈앞의 황태녀는 필시 닮았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뭐랄까… 그녀에겐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상대의 경계를 알게 모르게 허물어 제 분위기로 소리도 없이 끌고 가 버린다.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치기 어린 부분을 아주 쉽게 건드는 것 같기도 했다.

엘빈에게는 쉽게 나오는 공대가 차마 그녀에게는 나오지 않는 까닭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닐까.

“동맹, 어떠냐고?”

새파란 눈동자엔 테무르가 결코 이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리란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테무르는 말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짧게 대답했다.

“좋다.”

“잘 생각했어!”

거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통하게 말하는데, 왜인지 칭찬을 받는 것 같다.

테무르는 휘휘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러고는 엘빈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까 내게 이야기했던 그 조사라는 것, 은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 주겠소.”

말을 마친 뒤, 테무르는 짧게 인사를 건네며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가 방을 나서기 직전, 낭랑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 밤에도 어제처럼 버틸 건가?”

걸음을 멈춘 테무르가 뒤를 돌아보았다. 지브릴의 표정엔 한 줌의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희한하게도 그 점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보통이었다면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그였지만, 마음이 평온해진 까닭에 입을 열었다.

“간밤엔 어쨌든 고마웠다.”

“…….”

“하나,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동맹이랍시고 어제처럼 함께 싸워 달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괜히 싸우다가 네가 여기에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양국 갈등으로 번질 테니 조용히 황후 궁에서 있어라.”

그러고는 지브릴이 무어라 입을 열려고 하자, 재빨리 몸을 돌려 버렸다. 황당해진 지브릴이 입만 벙끗거리는데, 테무르는 기습적으로 다시 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남겼다.

“그리고 르와즈 말이다.”

테무르가 제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키더니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묶는 거 아냐.”

“…….”

뭐랄까……. 아주 어린 동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다.

지브릴은 눈을 찌푸린 채 테무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몹시 언짢네?”

물론,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6)

그날 오후 모두가 각자의 할 일로 궁을 비운 사이, 지브릴은 홀로 정원을 서성였다.

과거의 귀신은 시신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것이었다. 하나 암살자들은…….

“틀림없이 산 사람이었어. 죽었던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완전히 살았다고 보기엔 뭔가에 홀린 듯, 취한 듯, 자아가 없어 보이기는 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인형 같은 느낌이 강했다.

“집단으로 약 같은 것을 먹었나?”

바로 그때였다.

예민한 감각에 기척이 느껴졌다. 지브릴이 인기척을 향해 재빨리 몸을 돌렸을 때, 그곳엔 검은 하삼을 입은 로즈가 서 있었다.

“황후 폐하.”

“홀로 서성이고 있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느라요.”

“괜찮다면… 잠시 걸을까요?”

지브릴은 눈을 잠시 슴벅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로즈는 헝클어진 지브릴의 르와즈를 조심스럽게 정리해 준 뒤,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웅장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회랑을 걸었다. 로즈는 가벼운 말을 쉴 새 없이 건넸는데, 지브릴은 그녀의 말에 일일이 대꾸를 하다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회랑 한편엔 화려한 색의 꽃나무가 만발했고, 저 먼 곳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들의 옷은 꽃나무처럼 화려했다. 지브릴 자신이 입은 옷 또한 그러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궁 어딘가에선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간밤 로즈의 아들인 황태자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당장 오늘 밤 살아남을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

지브릴은 그제야 이 궁의 주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홀로 외치기라도 하듯, 오직 로즈만이 검은 의복을 입고 있었다.

“…….”

지브릴은 탄식을 삼켰다. 변명하자면 모두가 대수롭지 않아서 그만 잊어버렸다.

그러는 와중에도 로즈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다.

“황후 폐하.”

“음?”

그녀를 바라보는 녹색 눈동자가 텅 비어 있다. 지브릴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황제 폐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인사를 드려도 될지요?”

지금껏 시간의 공백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수다를 늘어놓던 로즈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녀의 손을 그러잡고서 어딘가를 향해 걸었다.

거대한 침실.

향과 종.

지브릴은 죽음을 형상화한 듯한 장면에 숨을 죽였다.

로즈는 바싹 말라 버린 황제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쉐르칸, 코르벨라의 황태녀가 당신께 인사를 드려요. 우리 테무르를 돕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고마운 사람이에요.]

쉐르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로즈가 고개를 돌려 지브릴을 바라보았다. 이제 인사를 건네어도 된다는 무언의 의미에, 지브릴은 정중히 아이젠식 인사를 올렸다.

왼손은 오른 허리를, 오른손은 왼쪽 어깨를 감싸듯 잡은 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자, 로즈가 쉐르칸을 대신하여 그 인사를 받았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있는 방이기에, 귀빈인 지브릴이 그리 오래 있을 곳은 못 되었다. 로즈는 지브릴이 인사를 건네자 쉐르칸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그녀를 이끌고 방을 나섰다.

“고마워요, 황태녀.”

“아닙니다. 진즉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런 말 말아요. 나도 가끔 황제께서 저리 누워 계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곳의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니까요.”

“…….”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건만, 나는 아직도 이방인인 모양이에요.”

지브릴은 코르벨라란 이름을 짊어지고 홀로 이방인이 되어야 했던 로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인지 목이 메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말이 없었다. 그저 겉으로만 평온하게 보이는 궁을 무거운 마음으로 걸을 뿐이었다.

그러다 황후 궁의 기둥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지브릴은 코끝을 파고드는 기묘한 냄새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로즈도 덩달아 멈추며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

로즈의 표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리의 가장 선두에 모아드 공작 부인이 있었음은 두말할 것 없었다.

모아드 공작 부인은 노골적인 미소를 지은 채, 살랑이며 다가왔다.

[황후 폐하~!]

무시하고 지나가기엔 황후 궁이 아직 멀었다.

로즈는 지브릴을 가로막듯 앞으로 나서며 버티듯 섰다. 그러고는 이번엔 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두 눈을 부릅떴다.

[어머나, 아리따운 코르벨라의 황태녀께서도 함께 계시는군요?]

모아드 공작 부인은 대놓고 지브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목소리를 높였고, 뒤에 선 부인들도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트렸다.

[세상에! 정말 아름답네요. 코르벨라는 얼굴을 보고 후계를 뽑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 황태녀뿐인가요? 함께 온 황족들은 또 어떻고요? 하나같이 어찌나 낭창하고 예쁜지, 아주 좋은 눈요깃거리…….]

[감히!!!]

“……!”

지브릴이 놀랄 정도로 로즈가 화를 냈다. 로즈는 멀리서 온 조카들과 코르벨라를 향한 조롱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들썩이며 모아드 공작 부인을 향해 다가갔다.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

[생각과 더불어 교양조차 내버렸는가? 타국의 황족을 향해 그 무슨 무례란 말이냐.]

모아드 공작 부인이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입을 열려 하자, 로즈가 더욱 크게 화를 냈다.

[다리아 모아드!! 당장 제대로 인사를 올리지 못할까!!]

로즈를 조롱하던 부인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녀의 분노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뿐이다.

모아드 공작 부인은 바다 건너의 황족이 두렵지 않았다. 로즈 황후의 조카라면 더더욱.

그녀는 비웃음을 입에 걸친 채 몸을 돌리려 했고, 분개한 로즈가 무어라 더 외치려던 찰나.

지금껏 상황을 관망하던 맹수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풀을 밟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르와즈의 실금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소름 돋는 움직임이었다.

한데 그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 행동이었다.

새파란 눈동자의 이방인은 기척 없이 다가와 무람없이 모아드 공작 부인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

지브릴은 모아드 공작 부인의 목덜미 인근에서 고개를 멈춘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시퍼런 눈을 빛내며.

모아드 공작 부인 뒤에 서 있던 부인들은 이 기묘한 광경에 숨을 멈추며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본능과도 같은 두려움의 발로였다. 움직이기는커녕,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인간다움이라고는 조금도 묻어있지 않아서 기분에 따라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것 같았다.

모두가 압도되어 얼어붙은 그때, 지브릴의 매끄러운 입술이 열렸다.

“다리아 모아드.”

나직한 부름에 얼어 있던 공작 부인이 발작하듯 몸을 떨며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지브릴은 가슴 앞으로 흐른 그녀의 르와즈를 기습적으로 낚아채 당겼다.

몹시 무례한 짓이나, 황후에 대한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자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 이 무슨……!]

지브릴의 힘에 딸려 온 모아드 공작 부인이 기겁하며 소리치는 순간, 믿을 수 없게도 이방인이 웃었다.

혼을 빼놓을 만큼 매혹적으로.

동시에 그녀의 코앞에서 나긋하게 속삭였다.

“너였네?”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등골이 서늘할 만큼 무섭다.

모아드 공작 부인이 혼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온갖 것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니나 봐요.”

[…….]

“예의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심지어 겁도 없네?”

한 음절, 한 음절이 어찌나 신랄한지 필시 아주 대단한 욕이란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모아드 공작 부인은 목이 졸린 것처럼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었다.

“또 봐요.”

“…….”

“그런데 그땐, 도망치는 게 나을 거야.”

지브릴은 쥐고 있던 르와즈 자락을 스르르 놓으며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곤 지금과는 달리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공손한 태도로 로즈를 에스코트했다.

“가시지요, 황후 폐하.”

모아드 공작 부인을 위시한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맹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윽고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린 모아드 공작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몸을 쌩하니 돌렸다.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녀의 이마에 달린 챠리가 파르르 떨렸다.

한편, 그 시각 테무르는 업무 처리에 여념이 없었다.

밤사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한숨도 자지 못했더라도, 낮에는 섭정으로서의 일을 반드시 해내어야만 했다.

싸울 때 싸우고, 죽을 때 죽더라도 위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아이젠이 황제뿐 아니라 모든 가문의 수장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기에, 테무르 또한 불만은 없었다. 다만 힘이 들 뿐.

리더에게 이런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젠 사람들의 ‘일상 영위’에 대한 강박 중 일부였다.

아이젠 사람들은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상을 어그러트리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황제의 죽음이 임박하였어도 궁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것처럼.

그랬기에 테무르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치러질 사냥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자신이 오늘 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살아남는다 한들, 그 사냥제가 그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하…참, 사냥제 일정을 딱 한 달 뒤로만 미룰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태양신 강림일에 맞춘 일정이니 별수 없기는 합니다만……. 친위대장 말처럼 아쉽습니다. 분명 사냥제를 분수령이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전하. 차라리 그때… 좀 다친 척을 하신다거나 해서 아예 마할 숲에 안 들어가시는 건 어떠십니까?]

친위대장의 조심스러운 의견에 참모 중 한 사람은 떨떠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귀족들 앞에서 면이 안 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듣기만 하던 테무르가 조용히 지도를 꺼냈다. 그러고는 잠시 지도를 확인하다가 입을 열었다.

[진군하는 서부 병력 중 정예 부대만 빠르게 이동시킨다면, 사냥제 무렵엔 수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나?]

[아하! 음… 빠듯하긴 하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어보다 맞공격을 하시려고요?]

[그러다 정예 부대 병력이 당일에 소실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테무르는 참모들의 의견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 목소리를 낮춰 명령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7)

[지금 당장 진군하는 군대에 사람을 보내라. 은밀히 움직이되, 대놓고 수도로 진격하면 필시 마와바타 가문의 영지에서 전투를 치러야 할 테니……,]

말끝을 흐린 테무르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길을 그렸다.

[이렇게 우회하여 곧장 마할 숲으로 올 수 있게끔, 그리 전하라. 단, 반드시 사냥제 당일까진 도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며, 위험 없는 성공은 없는 법.

테무르의 눈빛에서 의지를 읽은 친위대장이 가슴을 부풀리며 힘있게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전하. 서부 기병대장인 아크바르는 절대 전하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입니다.]

친위대장이 방을 나서자, 참모 한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며 다른 것을 물어보았다.

[코르벨라 황태녀 일행은 어찌할까요? 귀빈이니 사냥제에 초청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날, 자칫 황태녀 일행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몹시 곤란해집니다.]

테무르는 소파에 기대 누워 발을 까딱이던 지브릴을 떠올렸다. 그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만약 그녀에게 위험하니 사냥제 막사에서 기다리라는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네 일이나 잘해. 남 일에 참견 말고.’

[…….]

그래, 딱 그렇게 말할 것 같다.

골치가 아파진 테무르가 찬물로 입을 가신 뒤, 빠르게 말했다.

[일단은 귀빈들 의상 갖추는 정도로만 준비해. 황후 궁에 부탁드리면 알아서 하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동맹은 좋은 것이다.

테무르의 사람들과 협업한 결과, 훨씬 많은 정보가 수집되었다. 테무르 휘하 정보 요원들은 이미 모아드 일파의 영지를 염탐하고 있었고, 그들의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측 정보를 덧입혀 보자 의심스러운 지점이 몇 군데로 좁혀졌다.

“필수 조건은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넓은 부지일 거다. 게다가 수도에서 너무 멀면 기동력이 떨어지니 가까워야겠지. 그렇게 추린 장소가 이렇게, 다섯 군데야.”

엘빈은 지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 숲이네?”

“은신하기 좋잖아. 섭정의 사람들과 논의한 결과이니, 섭정 또한 곧 이 내용을 보고 받을 것이고.”

“내일부턴 표시된 지점을 확인하기로 했어.”

엘빈과 로아가 차례로 말했고, 지브릴은 턱을 매만졌다.

“모아드, 마와바타 가문 소유의 지점부터 살펴 줘. 더불어 모아드 공작 부인 뒤를 미행해. 오늘 만났는데 그 냄새가 났어.”

“암살자에게서 난다던 그 냄새?”

“맞아, 오라버니. 그 비릿하면서도 이상하게 단 냄새. 그게 아주 진동하더라고.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야.”

“알겠어.”

“두 사람 모두 수고 많았어.”

지브릴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이번엔 데미안이 입을 열었다.

“모아드와 마와바타의 가신 가문들이 약 3년 전부터 노예를 꾸준히 사들였던 모양이야. 한데 이때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은밀히 사들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 그리고 꾸준히, 거의 매일 노예를 샀다고 했어.”

“거의 매일? 근 3년 내내?”

“상인들 사이에선 은밀히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래.”

“역시 소문이란 무서운 거야. 정말 군대를 만든 것 같네.”

지브릴이 어두워진 창밖을 돌아보며 중얼거리자, 로아가 걱정스럽다는 듯 입을 열었다.

“오늘 밤도 도우러 갈 생각이니?”

“…….”

지브릴은 침묵했다.

그때, 황후 궁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뎅, 뎅, 뎅.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아득하게 들리는 종소리가 몹시도 처량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곁에서 함께 울어 주는 이 하나가 없기 때문이리라.

서글프도록 검었던 르와즈의 끝단처럼.

조국의 이름을 짊어진 채 홀로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지옥이 도래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의 밤이 시작되었다.

사방에서 날붙이의 비명,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테무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사, 살려…….]

[으아아아아!!]

그의 미간이 엉망으로 일그러졌다. 주먹 쥔 손등에 핏줄이 불거지고, 호흡은 가빠졌다.

차라리 밤새 맞붙어 싸우는 것이 낫지, 관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은 미칠 것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표적이 되어 오늘 밤 죽어 버린다면, 관련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테무르는 핏발 선 눈을 부릅뜨며 거칠어진 숨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하나, 그럴수록 네모난 천장이 그를 향해 서서히 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종국엔 그를 완전히 압살시킬 것 같은 기묘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테무르는 낮은 신음을 터트리며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목덜미의 핏줄이 미친 듯이 펄떡이며 시퍼렇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누군가의 속살거림이 들려왔다.

이 지옥을 언제까지 견딜 거야?

이 지옥은, 네가 죽어야 끝나.

모두가 네가 죽어야 편해져.

너 또한 그럴 거야.

그러니 차라리,

죽어.

[…개소리.]

테무르는 이를 악물고 짓씹듯 말을 뱉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충혈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았다.

[절대 안 죽어. 개소리 지껄이지 말고 꺼져.]

누구에게 건네는지 모를 말을 사납게 뇌까린 뒤, 테무르는 죽음 같은 시간을 버텼다.

얼마나 그렇게 버텼을까.

이러다 미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때였다.

어딘지 가벼운 느낌이 드는 노크와 함께 문고리가 돌아갔다.

테무르는 문고리를 돌린 이가 분명 친위대장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친위대장이 아니었다.

“어우, 이런 곳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어제도?”

지브릴은 밀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없던 정신병도 생기겠군.”

엘빈도 탐탁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고, 로아는 팔짱을 낄 뿐 말이 없었다.

“청소는 언제 한 거지? 앉아도 되나?”

그 와중에 데미안은 제가 잠시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들을 멍하니 지켜보던 테무르가 혼이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들… 제정신인가?”

도대체 코르벨라 황궁은 어떤 모습일까.

테무르는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브릴 코르벨라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였고, 데미안 발할라는 이곳에선 절대 앉을 수 없다는 듯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너는 똥 밭도 구를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목욕해야 한다니까?”

데미안의 말에 심드렁하게 대꾸한 지브릴은 누운 상태로 벌써 몇 개째 초콜릿을 까먹고 있었다. 그러다 그나마 정상 범주에 속한 로아 아뷔브가 지브릴에게 말을 걸었다.

“앉아서 먹는 게 어떨까, 지브릴?”

“오라버니도 먹을래? 줄까? 많이 가져왔어.”

“난 괜찮아.”

“쿠키 먹고 싶네.”

“아뷔브에 돌아가거든 보내 줄게.”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테무르는 이들이 바깥의 쇳소리를 듣지 못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도 아니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가?

다들 제정신이냐는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않았기에,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자객들이 들끓고 있다.”

바스락바스락.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 이곳으로 밀려들고 있단 말이다!”

부스럭부스럭.

“알아. 많더라. 쩝쩝쩝쩝.”

테무르는 드러누워 입에 초콜릿을 잔뜩 밀어 넣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이가 제국의 황태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녀가 저와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테무르의 표정에 드러난 감정을 읽은 데미안이 떨떠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저 심정 이해하지.”

테무르는 그녀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엘빈과 로아, 데미안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제정신인가? 타지에 와서 개죽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란 말……!”

바스락바스락 부스럭부스럭.

그 와중에도 요란한 유산지 소리가 들려오니, 테무르는 환장하겠다는 표정으로 지브릴을 돌아보고 말았다. 엘빈과 로아도 저걸 어쩌겠냐는 표정으로 어깨만 으쓱였다.

지브릴은 초콜릿 다섯 알을 와앙 한 번에 입에 집어넣은 뒤, 우물거리며 씹어 삼켰다.

“…이 와중에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나?”

“그럼, 먹어야 잘 싸우지.”

“…그러니까 네가 굳이 여기서 왜 싸우느냐고.”

“로즈 코르벨라 아이젠을 위하여.”

“…….”

생각지도 못한 이름 앞에 테무르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주머니에 든 초콜릿을 기어이 다 먹은 지브릴은 그제야 일어나 앉으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러곤 허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태후 폐하 침대맡엔 네 초상화가 있어. 아이젠 황후께서 네 초상화를 보내실 때면 맨날 나한테 자랑하셨다고. ‘지브릴, 보렴. 우리 테무르가 이만큼 컸단다.’ 하시면서. 난 웃으며 ‘그러게요. 많이 컸네요.’라고 했지.”

그녀가 ‘많이 컸네요.’라고 말하기엔 둘의 체격 차가 몹시 많이 났고, 무엇보다도 테무르 쪽이 나이가 많았다. 그의 표정이 비뚜름하게 변하자, 지브릴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갈무리하며 말을 덧붙였다.

“그것도 그렇고. 동맹 맺었잖아? 네가 죽으면 나도 곤란해.”

“…….”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내가 싸우는 이유에 너를 위함은 1할도 없으니까. 더불어 나는 안 죽어. 네 걱정이나 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테무르가 뒤늦게 중얼거리는 사이, 지브릴은 제 형제들을 손짓하여 불렀다.

“아직은 밖이 조용한 것 같으니 이 틈에 작전 회의를 하자고. 오라버니, 지도 꺼내 봐봐.”

지브릴이 황태녀가 맞긴 한 것인지, 그녀의 부름에 황족들이 몰려들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지브릴이 고개를 쏙 들며 그를 향해 눈짓했다.

“뭐 해? 너도 빨리 와!”

테무르는 우람한 팔뚝으로 팔짱을 낀 채 떨떠름한 얼굴로 로아와 지브릴을 번갈아 보았다.

사실 전부터 몹시 거슬리는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오라버니’라는 호칭이 손위 남성 혈육을 지칭하는 것 맞나?”

“그런데?”

지브릴이 말간 얼굴로 되묻자, 테무르는 로아를 빤히 쳐다보았다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

그에 엘빈은 작게 고개를 내저으며 ‘좋지 않군.’이라고 중얼거렸고, 데미안은 지브릴의 입을 불안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지브릴이 로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로아 오라버니는 말이지. 천사야, 천사.”

“…….”

완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었으나, 숨은 의미가 아주 명징하게 느껴졌다. 데미안은 몹시 찜찜해 보이는 테무르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게 자꾸만 동감하게 되네.”

지브릴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오라는 듯 다시 테무르를 불렀다.

“섭정, 정도로 하자. 나는 황태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지브릴이라고 불러.”

“…….”

“섭정, 뭐 해? 빨리 와! 시간 없어.”

“…그거나 그거나.”

그가 못마땅하다는 듯 중얼거리면서도 코르벨라 황족들 틈에 끼어 앉은 때였다.

별안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먼지와 피로 얼룩진 친위대장이 들이닥쳤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8)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다섯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튀어 오르며 각자의 무기를 챙겨 들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훈련해 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밀실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엘빈은 그 와중에도 지도를 회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테무르는 친위대의 안내에 따라 회랑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런 그의 곁으로 네 사람이 함께 달리고 있었다.

언제고 미친 듯이 달리다 옆을 돌아보면, 오직 그를 위해 죽을 사람들밖에 없었다.

한데, 오늘 그의 곁에 선 이들은 달랐다.

제 목숨은 제가 알아서 챙기되, 함께 싸워주기는 하겠다니.

그때, 뒤편에서 달리던 엘빈 코르벨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도 죽지 말고 버텨라.”

그러자 오른편에서 달리던 로아가 외쳤다.

“여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지브릴도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무서우면 다들 내 뒤에 숨든지!!”

데미안의 냉소적인 반응이 곧장 따라왔다.

“뭐래, 진짜.”

테무르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 버렸다. 그러고는 어디선가 지브릴을 향해 날아든 화살을 있는 힘껏 쳐 낸 뒤, 제게 달려드는 암살자를 향해 월도를 휘둘렀다.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은 밤.

어김없이 피에 절은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든 밤.

테무르는 이방인들에게 등을 맡긴 채 죽음에 맞섰다.

그날 이후로도 코르벨라의 황족들은 밤만 되면 어김없이 테무르를 찾아왔고, 여명이 밝아 올 때까지 그와 함께 싸웠다. 테무르야 매번 돌아가라 이야기했지만, 황족들은(특히 지브릴) 들은 체 만 체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테무르의 친위대들은 대놓고 그들의 등장을 반기기에 이르렀다.

친위대장은 지브릴에게 도대체 어찌 연습했기에 오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검! 검! 검에 휘이이이익 두른 그거, 어떻게?]

손짓, 발짓까지 해 가며 지브릴을 이해시키려는 모습에 로아가 웃으며 통역하자, 친위대장은 머쓱한 얼굴로 뒷머리를 벅벅 긁었다.

[아이젠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로아를 통해 친위대장의 질문을 들은 지브릴이 가볍게 대답했다.

“재능이라고 전해 줘.”

태어나길 오드로 태어났으니 재능이 맞지. 하지만 간절해 보이는 친위대장에게 그리 통역할 수는 없었다. 로아는 난감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더니 이렇게 말해 주었다.

[집중과 노력이라고 대답하셨네.]

로아의 진중한 대답에 친위대장은 탄복한 듯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역시……! 집중과 노력!! 예, 감사합니다!!]

친위대장이 물러가고 로아가 몸을 돌렸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던 테무르와 엘빈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의 그 소리가 들려왔다.

부스럭부스럭.

세 사람은 동시에 같은 곳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지브릴 코르벨라는 오늘도 완전히 드러누운 채 ‘열량 보충’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 머리맡에 어슷하게 기대어 선 데미안을 향해 버럭 화를 냈다.

“아, 진짜. 데미안!! 뭘 그리 깔끔을 떨어? 그냥 앉아! 네가 서 있으니까 멀미 난다고!”

“네가 똥 밭을 구를 수 있다고 나까지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줄래?! 그리고 좀 그만 먹어!!”

테무르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생각했다.

저 모습이 익숙해지기에 이르다니.

그는 엘빈, 로아와 동시에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그렇게 테무르는 생과 사의 경계에 한 발씩을 올려 놓은 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는 모아드 공작의 입장에선 몹시 곤란한 일이었다.

[도대체, 도망칠 곳이라고는 없는!!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한 마리를 처리하는 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각하. 황태자 본인의 무예 실력이 출중한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 제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다 한들, 그놈이 불사신도 아니거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의 주위를 맴도는 무사 넷이 있는데, 그자들의 협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중 둘은 소드마스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드마스터?!]

[예. 검기를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여명이 되면 공격하지 못하니, 딱 그 시간만을 버티면 이긴다는 느낌으로 싸우는 통에…….]

모아드 공작은 더는 말하지 말라는 듯 손을 휘저었다.

[소드마스터건, 뭐건 그래 봐야 사람이다.]

[…….]

[베이면 살이 벌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사람 말이다.]

한때 신인 줄 알았던 쉐르칸도 결국 사람이지 않았나.

“바르!”

따뜻한 음성과 눈길이 떠오르자, 모아드 공작은 숨을 참으며 생각을 재빨리 털어 냈다.

이미, 그는 강을 건넜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애롭던 형을 배신한 배신자로 남을 것인가.

모아드 공작은 냉철한 표정으로 지도를 꺼내 펼쳤다. 그런 다음 심복을 향해 명령했다.

[가장 좋은 것은 테무르를 사냥제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가 그날까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사냥제에서라도 그를 죽여야 한다. 문제는 테무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터.]

[…….]

[내가 테무르라면, 분명 서부 병력 중 일부를 은밀히 불렀을 거다. 아마도 아크바르의 기병대겠지.]

[직선으로 달려오려면 마와바타 가문의 영지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회할 거다. 틀림없이 이곳, 비아 구릉 지대를 지나려 할 거야.]

모아드 공작은 심복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직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병력을 이끌고 비아 구릉 지대로 가라. 아크바르의 기병대를 전멸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진군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심복이 재빨리 방을 벗어나자, 모아드 공작은 새카만 머리카락의 이방인을 불러들였다.

[노예는 얼마나 남았나?]

[대략 이천 명 정도 남았습니다.]

[재료들이 그때까진 버티겠나?]

[둘은 간당간당하고, 넷은 버틸 만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천 명분의 약을 만들 정도는 됩니다.]

[천오백 정도는 버서커로 만들지 말고 일단 대기시켜라. 내 명령이 떨어지면 일시에 버서커로 만들 것이니, 약은 미리 준비해.]

[알겠습니다.]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 몸을 돌렸다. 그때, 모아드 공작이 별안간 입을 열었다.

[재료를 더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그에 외국인이 잠시 뜸을 들이다 나직이 속삭였다.

[코르벨라에 다녀와야 합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그가 나간 뒤, 모아드 공작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기울였다.

[코르벨라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나 책상맡에서는 어떤 답도 도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모아드 공작 역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전을 빠져나갔다.

온몸을 망토로 가리고 은밀히 움직였음은 두말할 것 없는 일이었다. 행여라도 이곳이 발각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마차 바퀴 자국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어느 지점이 될 때까진 걸어서 움직였다. 사철나무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을 한참이나 지난 뒤에야 마차에 오른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겠지?]

[예.]

[황태자 일파가 밀정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이니, 늘 각별히 조심하라.]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머리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음을.

나무 위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이가 새파란 눈을 빛내며 이를 갈았다. 원통하고도 서러운 냄새가 숲 전체에 진동했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가려진 음습한 건물을 노려보며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드디어 찾았다.”

\* \* \*

한편, 그 무렵 코르벨라 황궁.

업무 처리에 여념이 없던 카이사르가 고개를 들었을 땐, 어느덧 으슥한 밤이었다. 그는 긴 숨을 천천히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자 인식하지 못했던 피로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카이사르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방을 서성였으나 그럼에도 피로가 가시질 않자, 결국은 궁 밖으로 나갔다. 달빛에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정원 어귀를 얼마나 걸었을까.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마틸다 태후가 서 있었다.

“대공.”

“태후 폐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마틸다는 어둑하게 가라앉은 카이사르의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가 이내 시선을 떨구었다.

그러고는 차분히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물끄러미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마틸다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결국은 함께 가신 것이오?”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말이었으나, 카이사르는 알아들은 듯 가만가만 눈을 슴벅이다가 답했다.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끔 그러셨던 것처럼요.”

마틸다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다 사과했다.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힘든 법이거늘. …미안하오.”

카이사르는 마틸다를 마주 보며 싱긋 웃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돌아오실 겁니다.”

“…….”

“늘 그러하셨듯.”

그의 눈동자엔 믿음이 어려 있었다.

마틸다는 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다.

부디, 그러하기를.

그리고 모두가 무사하기를.

\* \* \*

“아……. 이 염병 같은 짓을 더는 못 하겠네.”

어김없이 정오 무렵이 되어 눈을 뜬 지브릴이 꽉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밤새 난투를 벌인 뒤 동틀 무렵에나 잠들기를 반복하다 보니, 생활이 엉망으로 변해 버렸다.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을뿐더러,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몸 곳곳 성한 곳이 없었다. 지브릴은 손바닥의 얇게 베인 상처를 찬 시선으로 보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더 누워 있어 봐야 좋을 것이 없었다.

두꺼운 커튼을 확 걷자, 눈을 찌를 듯 강렬한 햇살이 덮치듯 쏟아져 들었다. 지브릴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문까지 열어 버렸다.

한편에 마련된 차가운 물을 마셔 정신을 차린 그녀는 쏟아지는 머리카락을 건성으로 묶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방어는 할 만큼 했지. 오늘쯤 본거지를 찾았단 소식이 들려와야 할 텐…….”

혼잣말을 하던 지브릴은 말끝을 흐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정중히 문을 두드린다.

지브릴은 르와즈로 대충 어깨를 휘감은 뒤 말했다.

“들어와라.”

문을 열며 나타난 이들은 로아와 엘빈이었다. 지브릴은 형제들을 향해 짙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원하는 소식을 가져온 것이면 좋을 텐데.”

그에 엘빈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며 지도를 들어 보였다.

“그래. 딱 네가 원하는 소식일 거다, 지브릴.”

로아가 굳은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다.

“놈들의 본거지를 찾았어. 마할 숲과 붙어있는 마와바타 가문의 숲에 놈들의 본거지가 있었다. 예상대로 실종된 여섯을 이용하여 암살자들에게 주입할 약물 같은 것을 만들고 있더군.”

엘빈과 로아는 정보원들이 입수한 정보를 하나씩 보고했고, 그럴수록 지브릴을 둘러싼 기운이 물감 번지듯 다른 색으로 변해 갔다.

이윽고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으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을까.

지브릴은 천천히 얼굴을 훑어 내렸다. 손끝에 벤 피 냄새가 좀체 지워지질 않았다. 그녀는 상흔이 남은 손바닥을 내려보다가 음산하게 중얼거렸다.

“이런 짓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 줘야겠지.”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끔 그 뿌리를 완전히 들어내 버릴 것이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89)

코르벨라의 황족들과 테무르는 모아드 공작의 은밀한 공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히 시간을 낼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밤만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였으니까.

“3년간의 밀매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노예들의 숫자와 처리한 시신 숫자를 놓고 계산했을 때, 현재 모아드 공작이 보유한 암살자의 숫자는 대략 이천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의 논리적인 설명에 엘빈은 턱을 매만지다가 테무르에게 말했다.

“어제와 그제, 암살자의 숫자가 부쩍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사냥제에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

테무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리 예상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그래서 말인데…….”

그가 말끝을 흐리며 지브릴을 쳐다보자,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제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뒤로 빠져 있으란 말이라면 꺼내지도 말기. 내가 이 싸움에 뛰어든 까닭은 이미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아드 공작의 건물은 우리 측 사람들이 뒤져야만 해.”

뒤지고 심문하여, 반드시 숨은 뿌리까지 찾아내야 한다.

테무르에게 맡겼다가 과거와 같이 홀랑 타 버리기라도 한다면, 언제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테무르는 의지가 깃든 단단한 표정 앞에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한발 물러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자그마한 약도를 꺼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날, 나 또한 이 지긋지긋한 게임을 끝낼 거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지브릴이 나직이 찬성하자, 테무르는 픽 웃으며 비아 구릉 지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명을 받은 정예 기병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어. 곧 이곳을 지나겠지.”

“…….”

“그들은 늦지 않게 사냥제 당일 마할 숲에 도착할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일 거다. 인접한 숲에 놈들의 본거지가 있으니, 숲 전체가 전쟁터가 될 터.”

테무르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관련한 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렸다.

테무르는 뜨거운 불길과 심해의 어둠, 극지의 빙산 위를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심정이었다. 마음은 미친 듯 요동쳤고, 심장은 가만히 있어도 두근거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절대 내보일 수는 없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이들 또한 불안하긴 매한가지인 듯했다.

친위대장은 무조건 잘될 것이라며 제 가슴을 팡팡 쳐 대었고, 참모들은 비관적인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의 불안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그 불안이 전염된 듯, 테무르는 때때로 격랑에 휩싸였다.

한데 코르벨라 황족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일단 넷 모두 표정 변화가 조금도 없었다.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겠네.”

“그렇지. 타이밍만 잘 맞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는데.”

데미안 발할라와 로아 아뷔브는 지도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고,

“비아 구릉 지대에 매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엘빈 코르벨라는 지도를 내려다보다가 냉철하게 지적했으며,

“엘빈 말이 맞아. 비아 구릉 지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브릴은 엘빈의 말에 맞장구를 친 뒤, 지휘관처럼 지도를 내려다보며 방향을 가늠했다.

“음, 그러니까 당일에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곧장 여기로 가면 되겠군. 기병은 이쪽에서 온다고? 기병이 올 때까진 마할 숲에서 대기, 합류하면 곧장 마와바타 숲으로 이동해야겠네.”

그 어투와 표정은 자신만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 줌의 두려움도 묻어 있지 않았다.

테무르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멍하니 물었다.

“너희는… 두렵지 않나?”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에게조차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한데 묻고 나니 뭔가가 해소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이들의 반응에 묘한 기대감이 치밀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를 살피던 지브릴이 곧장 눈을 둥글게 뜨며 그를 쳐다보았다.

“이 싸움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으냔 말이다.”

테무르의 솔직한 물음에 지브릴은 픽 웃더니 그의 우람한 어깨를 툭 쳤다. 그러고는 언젠가 어머니가 해 주셨던 조언을 그대로 들려 주었다.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9할과 이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자신감 1할로 도전하는 거지, 거기에 두려워할 틈이 어딨어?! 그리고—.”

그녀의 새파란 눈이 길게 휘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해.”

막무가내라 들릴 정도로 유치한 말이었으나, 왜인지 그 말이 어떤 말보다 안심이 되었다.

테무르가 말이 없자, 지브릴은 그의 흔들어 댔다.

“빨리 작전 회의 하자고. 사냥제 때 이 지긋지긋한 게임을 끝내겠다고 했잖아.”

이 지긋지긋한 게임.

테무르는 그 말을 천천히 뇌까리며 그녀와 머리를 맞대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되었다.

사냥.

짐승을 잡는 일.

아이젠에서의 사냥제란, 태양과 사냥의 신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그래서 사냥제에 앞서 사냥감이 될 만한 짐승을 미리 숲에 풀어 놓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올해 사냥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사냥감이 예년과는 다르리라.

누가 사냥꾼이 될 것인가.

비참한 사냥감이 될 자는 누구인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사냥제를 위해 한껏 단장하고 나타난 귀부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나는 군인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올해 사냥제는 말만 사냥제지, 사실상 소규모 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섭정파 군인들과 모아드 공작파 군인들은 이미 마할 숲 곳곳에 몸을 숨긴 채, 전투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군인들은 중립파 귀족의 사병들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온 것이었다.

[곧 마할 숲의 강이 피로 물들 거예요.]

[저기, 황후 폐하께서도 오셨네요.]

누군가가 어딘가를 가리키자, 귀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곳엔 바싹 여윈 로즈 황후가 있었다. 최근 늘 검은 의복을 입고 지내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짙은 녹색의 하삼을 입은 채였다.

로즈는 테무르의 의복을 든 채 그의 막사로 향했다. 그는 친위대장과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참이었다.

[어머니.]

황후의 등장에 친위대장이 서둘러 자리를 피해 주자, 로즈는 옷을 살짝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다.

[금방이면 된단다.]

테무르는 부쩍 여윈 모습의 어머니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로즈는 자신보다 훌쩍 커 버린 아들의 어깨 위로 옷을 감은 뒤, 등 뒤에서 천천히 매듭을 지었다.

왈칵 눈물이 치밀 것 같았으나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아 냈다. 로즈는 담담한 표정을 가장한 채, 테무르를 마주 보았다. 그러고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테무르, 조심히 다녀오너라.]

과한 염려는 않을 것이다. 과한 인사 또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되어 버릴 테니까.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이니, 로즈는 잠시 다녀올 아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리는데, 별안간 아들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

[걱정 마십시오. 꼭 살아 돌아올 것이니.]

로즈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흘러 테무르의 손등을 적셨다. 그러나 끝내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로즈는 서둘러 눈물을 훔쳐 닦고는 아들의 품을 벗어나 그를 돌아보았다. 그러곤 다시 환히 웃었다.

[그래, 너는 그럴 거야. 넌 말이지… 네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단다.]

[…….]

[잘 다녀오너라, 내 아들.]

로즈는 아들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사냥제는 태양이 가장 밝은 정오에 맞춰 시작되었다.

둥, 둥, 둥, 울려 대는 큰 북소리에 맞춰 오늘 사냥에 나설 이들이 지정된 장소로 모여들었다.

하나같이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는 청년들이었다. 그중엔 산 하누만 모아드도 있었다.

하누만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섭정을 날 선 눈길로 노려보다가, 월도의 손잡이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지금껏 요행으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오늘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예, 공자.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아직 아크바르의 기병대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곁에 선 이의 동조에 하누만이 콧김을 내뿜으며 비소를 머금을 때였다. 아주 이질적인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누만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중얼거렸다.

[하… 저건 뭐야?]

하누만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곳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방인들이 있었다. 귀빈이니 사냥제에 참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이방인 중 한 사람이었다.

푸른빛의 아이젠 전통 기마 복장을 한 여성은 장대한 체구의 형제들 사이에서 유난히 가녀려 보였다. 희고 단아한 얼굴은 귀한 진주 같았다. 한데 그녀의 등엔 화살통이 메어 있었으며, 허리엔 검이 매달려 있었다.

[재밌네. 나방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대?]

하누만의 조롱에 곁에 선 자들이 킬킬거렸다.

그들의 저열한 웃음소리를 들은 지브릴의 눈썹이 급격히 치솟았다. 그녀는 곁에 선 엘빈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저것들이 지금 날 보고 비웃는 것 같은데.”

“음, 아마도.”

그러자 그들 뒤에 서 있던 로아가 엘빈을 툭 쳤다. 엘빈이 돌아보자, 로아는 작게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 굳이 지브릴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표정에 엘빈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그가 보기엔 지금이 딱 바람 잡을 적기였기 때문이다.

지브릴은 눈을 부릅뜨며 어깨를 활짝 폈다.

“엘빈, 욕이 들리는 대로 통역해.”

조져 버릴 테니.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0)

지브릴이 투지를 활활 불태우는 사이, 사제가 나타나 태양신을 위한 향을 피웠다. 매캐한 향내가 바람 사이로 옅게 스며들자, 말구종들이 말을 이끌고 나타났다.

오직 사제들이 성수로 키워 낸 말만이 성스러운 사냥제에 참가할 자격이 있기에, 모든 참가자들은 사냥에 앞서 말을 선택해야 한단다.

말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드세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격이 순하고 겁이 많은 말은 사냥감을 향해 돌격해야 하는 역할을 버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말구종들은 우악스러운 힘의 말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흘려 댔다. 그 모습을 보던 지브릴이 중얼거렸다.

“말 선택이라니, 익숙하네.”

우선권은 섭정에게 있었다.

테무르는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가장 거대한 말을 골랐다. 성격 드센 말답게 앞발을 치켜들며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나, 테무르는 굴하지 않고 말의 굴레를 휘어잡았다. 굴레가 잡힌 말은 이내 잠잠해졌고, 테무르는 쉽게 말의 안장에 올랐다.

“오~ 잘하는데?”

지브릴이 가볍게 감탄하는 사이, 사제가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서상 그녀 차례였기 때문이다.

행사에 앞서 사제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가능하겠느냐 물어보았고, 지브릴은 그때마다 가능하다고 대꾸했다.

“사람을 끝까지 못 믿네.”

지브릴은 망설임 없이 중앙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라버니, 괜찮겠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즈가 불안한 듯 말했다. 육중한 말의 덩치에 비해, 지브릴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젤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아무리 육중하다 한들, 말이 홀리에 비할까.

그사이 제단 앞까지 걸어 간 지브릴은 오늘 함께 싸워 줄 말을 고르기 위해 놈들을 쭉 훑어보고 있었다.

가장 사납고, 드센 놈으로 고를 작정이었다. 아투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비슷한 느낌이라도 나는 놈이 없나 살펴보는데, 달갑지 않은 기척과 함께 몹시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

지브릴이 삐걱삐걱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미묘하게 테무르를 닮은 청년이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이자가 모아드 공작의 핏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누만은 예의를 차린다는 듯 히죽 웃더니 개중 가장 왜소하고 작은 말을 가리켰다.

[저 말이 적당하실 것 같군요. 안장에 오르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토끼 한 마리 정도 잡아 드리지요.]

그러자 모아드 공작 무리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섭정파 무리들은 분을 터트리며 친위대장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코르벨라의 황태녀가 굳이 이런 행사에 왜 나온 겁니까!? 황자도 있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때에 괜한 기선 제압을 당하다니요!]

곧 치러질 전쟁을 위해서라도 이런 때엔 기세가 중요한 법인데!

하지만 친위대장은 그저 어깨만 으쓱일 뿐이었다.

[흠흠. 그런 말씀 미리 하지 마시고, 좀 두고 보시지요?]

그러고는 콧수염을 씰룩이며 저길 좀 보라는 듯 턱짓했다. 귀족들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도 다시 지브릴과 하누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귀족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사이, 지브릴은 하누만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가 가리키는 말을 힐끔 일별하고는 신랄하게 이기죽거렸다.

“나더러 저놈을 타란 말인가? 말 보는 눈하고는.”

[…….]

“너나 타.”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음절마다 어찌나 신랄한지. 표정 역시 냉소적이기 짝이 없어 통역하지 않아도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님이 명징하게 느껴졌다.

지브릴은 모아드 일파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과 하누만의 행동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아니, 식었다가 도로 타올랐다.

“어디서 같잖은 짓을 하고 있어?!”

괘씸함에 씹어뱉듯 중얼거린 뒤, 몸을 홱 돌렸다. 그러곤 가장 드세고 사나워 보이는 검은 말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나직이 명령했다.

“너, 이리 와.”

순간,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누만은 눈을 끔뻑이며 지브릴과 그녀의 시선 끝에 있는 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미쳤나? 지금 말을 개 부르듯 부른 거야?

여자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는 했지만, 이 무슨 괴이한 짓인가?

하누만이 등 뒤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이자, 그의 무리들도 똑같이 어깨를 으쓱이며 킬킬거렸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점은 테무르와 코르벨라 황족들의 반응이었다.

테무르는 시종일관 침착하게 그저 지브릴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침착한 것은 코르벨라 황족들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중 금안을 가진 자는 꼭 웃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다.

‘…웃어?’

하누만은 데미안의 웃음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묘했던 분위기는 결국 실체화되고야 말았다.

코르벨라의 황태녀와 마주한 말들이 마치 천적을 앞에 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일제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앞발을 치켜들고 투레질을 하며 말구종들마저 힘겹게 하던 전투마들이 말이다.

[저, 저게 무슨……!]

기마민족답게 말에 관해선 내로라하는 아이젠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그때, 지브릴이 다시 강하게 명령했다.

“이리 와!!!”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드의 파동이 공기를 타고 달려가 말에게 부딪혔다.

드센 기운을 마구 흘려보내던 놈은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분명 생김은 사람이나, 느낌이 사람이 아니다.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태초부터 각인되어 온 짐승의 본능이 당장 도망치거나 혹은 굴복하라 속삭였다.

결국, 말은 후자를 선택했다. 결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허…….]

친위대장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뱉으며 경외가 담긴 시선으로 지브릴을 바라보았고, 테무르 또한 놀란 듯 그녀를 응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부르는 것은 듣도 보도 못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모아드 일파는 당황하여 말이 다가오는 것이 우연일 뿐이라 중얼거렸는데, 그 말도 곧 자라처럼 목 안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다.

말은 정확히 지브릴 앞에서 멈춰 섰는데, 그 모습이 꼭 온순한 강아지 같았다.

야생마에 뿌리를 둔 아이젠 전투마는, 평생 길렀다 한들 결코 이런 식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은 가운데, 지브릴은 비스듬히 웃는 얼굴로 녀석의 콧잔등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능숙한 손길로 녀석의 주둥이를 옭아맨 굴레를 걷어 내었다.

굴레와 연결된 안장까지 순식간에 걷어 낸 지브릴은 그것을 곁에 서 있던 하누만의 가슴팍으로 던졌다.

[……!]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누만의 가슴에 명중한 안장과 굴레가 그의 발치로 떨어졌다.

하누만이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지브릴을 보자, 그녀는 생긋 웃더니 눈짓으로 그의 발아래를 가리켰다.

“도와줄 거면 그거나 좀 처리하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데미안이 결국 웃음을 터트렸다.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탓에 하누만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하나, 잔인하게도 지브릴의 행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을 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여 주기라도 하듯, 눈 깜짝할 사이에 말 위로 날아올랐다.

[……!]

황태자파든, 모아드 공작파든, 중립파든 할 것 없이 모였던 모든 아이젠 귀족들은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말 그대로, 그녀는 날듯이 말 위에 올랐다. 움직임이 깃털처럼 가볍게 보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말을 잡지도 않았다. 말을 조종하는 것은 오직 다리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사납기 그지없던 전투마가 그녀의 의사를 읽기라도 하듯 움직였다.

너른 행사장엔 오직 지브릴을 태운 말의 발굽 소리만이 울렸다.

지브릴은 온갖 시선을 여유롭게 받아 내며 테무르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를 향해 눈을 찡긋하며 속삭였다.

“어때, 기선 제압 좀 제대로 했나?”

결국 테무르는 헛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내젓고 말았다.

“기선제압 두 번 했다간 나라를 뒤집어엎겠군.”

물론 그 말은 진심이었다.

비아 구릉 지대에서 매복이 있을 수 있다는 엘빈의 지적은 정확했다. 문제는 전령이 기병대에 소식을 전하기도 전, 그들이 구릉 지대를 지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병력의 손실은 크지 않았으나, 문제는 그곳에서의 싸움으로 진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데 있었다.

정오가 되어 사냥제의 막이 오르자, 참가자들 모두가 마할 숲 초입으로 향했다. 테무르가 전방을 주시하며 곁에서 말을 몰던 지브릴에게 말했다.

“예상 도착 시각은 오늘 오후 4시다. 그때까지는 마할 숲, 우리 본진에서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도착하면 역공할 거다. 그러니 너흰 차라리 숲 밖에서 대기하다가 기병대가 오면 합류해라.”

“…….”

지브릴이 대답이 없자, 테무르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숨을 들이켜고 있었다. 마치 냄새를 맡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브릴은 뒤에서 따라오는 로아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그 역시 심각한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왜, 무슨 일 있나?”

테무르가 묻자, 지브릴은 말을 고르듯 눈을 내리깔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일단은 들어가서 판단하자고.”

그녀는 끝내 밖에서 기다리는 짓 따윈 하지 않을 작정인 듯했다. 테무르는 결국 그녀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알았다.”

“긴장 놓지 마.”

그리고 잠시 후, 숲에 들어서자마자 테무르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울창한 산림에 가려져 있던 짙은 피 냄새가 숲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끼쳐 들었기 때문이다.

짐승들의 목덜미에서 흐른 피가 땅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가운데, 그 남자가 있었다.

[산 바르 모아드.]

테무르가 짓씹듯 그를 부르자, 모아드 공작은 여유롭게 웃었다. 그를 숙부라 부르던 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1)

모아드 공작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섭정 전하.]

그때, 중립파 귀족 중 한 사람이 목소리를 냈다.

[모아드 공작, 이게 무슨 행동이오? 신성한 사냥제에 앞서 이미 죽은 짐승을 끌어다 놓다니! 대체 이게 무슨 경우요?!]

엘빈은 지브릴에게 그들의 말을 빠르게 통역해 주었다. 그의 통역을 듣던 지브릴이 별안간 위를 올려다보았다. 함께 고개를 든 엘빈의 눈이 가느스름해졌다.

족히 10m는 될 듯한 높은 나무 위에, 일족이 있었다.

마와바타 숲 신전 인근에 몸을 숨기기로 되어 있던 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숲 내부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음이 명징했다.

일족은 조용히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며, 자꾸만 마할 숲 안쪽을 가리켰다.

그때, 섭정파와 중립파 귀족의 항의를 받던 모아드 공작이 웃으며 노루의 사체를 들어 올렸다.

[올해 사냥감이 몹시 포악하더군요. 제 호위 무사 세 사람이 크게 다쳤지 뭡니까.]

[…….]

[자칫 깊이 들어가셨다가 몸 상하실까 저어되어 이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아드 공작은 귀족들을 쭉 돌아보며 손아귀에 잡힌 노루를 흔들었다. 다정한 말투와 그의 손을 타고 흐르는 시뻘건 피 사이엔 큰 괴리가 있었고, 그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자자, 이 사냥감들은 모두 갓 잡은 겁니다. 태양신께서도 귀하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터. 한 마리씩 가지고 일단 돌아가시지요. 아, 물론 그래도 사냥에 참가하시겠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섭정을 돌아보며 물었다.

[전하께서도 가지고 돌아가시렵니까?]

그에 테무르는 짙게 웃었다.

[어찌 감히 타인이 잡아 준 제물을 신께 바칠 수 있겠소?]

[…….]

[그리고 내가 잡고 싶은 건, 노루가 아니거든.]

날 선 기운이 몰아쳤다. 그럼에도 모아드 공작은 여유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던 이들을 시켜 귀족들에게 죽은 사냥감을 한 마리씩 가져다주었다.

중립파 귀족들은 떨떠름해하면서도 결국은 사냥감을 받아 든 채 몸을 돌렸고, 자리에 남은 자들은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었다.

이곳에서 이질적인 자들이 있다면 오직 한 무리, 코르벨라의 황족들뿐이었다.

모아드 공작은 살아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토끼 사체를 들더니 지브릴에게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공손히 두 손으로 토끼를 내밀었다.

[코르벨라의 황태녀 전하, 혹여라도 귀한 몸이 다치실까 염려됩니다. 이 짐승으로 호기심을 다스리시지요.]

“이 짐승으로 호기심을 다스리라는군.”

엘빈이 곧장 통역하였으나, 지브릴은 이미 상황으로 그의 말을 이해한 상태였다. 그녀는 공작 뒤에 선 하누만을 힐끔 일별하고는 중얼거렸다.

“아비나 아들이나 똑같군.”

아들은 웬 나귀 같은 말을 권하질 않나, 아비는 토끼 한 마리로 호기심을 다스리라네.

지브릴은 웃음조차 짓지 않은 냉랭한 얼굴로 모아드 공작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모아드 공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인지 제 발아래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독특하다 여겼던 짙은 파랑의 눈동자는 울창한 마할 숲과 동화되어 인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급기야 숲이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착각마저 일었다.

바로 그때였다.

[으아아아아악!!!!]

마할 숲 한편에서 죽음을 마주한 것 같은 비명이 들려왔다. 잎사귀에 햇살이 가려져 어둑한 숲 내부가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 바람에 놀란 새들이 푸드덕대며 요란한 날갯짓을 했다.

그와 동시에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가 빗소리처럼 연달아 들려왔다. 섭정 측 친위대가 일시에 검을 빼 들었고, 그에 맞서 모아드 공작 측 무사들도 검을 빼 겨눴다.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함이 두 무리 사이를 맴돌던 때, 모아드 공작 또한 서둘러 말에 올랐다.

그는 들고 있던 토끼를 바닥에 툭 내버리며, 잠시나마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황태녀를 응시했다.

[역시, 토끼는 탐탁지 않으신가 보군요. 그럼 각별히 조심하시길. 코르벨라 또한 사냥 중에 다치신 것까지 항의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다치시면 곤란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테무르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즐거운 사냥 되시길.]

그 말을 끝으로 모아드 공작은 말머리를 돌려 마와바타 숲을 향해 내달렸다. 하누만을 비롯한 이들 또한 저열한 웃음을 남기며 공작을 따라 멀어졌다.

[으아아악!!]

그러는 와중에도 소란한 비명은 계속되고 있었다.

테무르는 즉시 비명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친위대장, 무슨 일인지 확인하라!]

[예, 전하!]

친위대장이 서둘러 달려가려는 찰나, 누군가가 숲을 헤치며 나타났다. 그는 몹시도 다급한 얼굴이었다. 거친 숨을 죽을 것처럼 몰아쉬며, 그는 자신이 달려온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비명처럼 외쳤다.

[호, 호랑이입니다. 전하!!]

그에 친위대장이 버럭 소리쳤다.

[호랑이 몇 마리 때문에 이 소란을 벌인단 말이냐!!]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겉만 호랑이지, 보통 호랑이가 아니에요!!]

지브릴은 퍼뜩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일족 중 누군가가 버럭 외쳤다.

“놈들이 호랑이들에게 뭔가를 먹였어!!”

[으아아아아악!!! 사, 살려 줘!!!]

[대열이 무너지면 안 된다!! 도망치지 말고, 대열을 지켜!!!]

[아, 아아악!!]

장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병사들을 다독였으나,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맹수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의 인내심은 무너지고 말았다.

게다가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제아무리 호랑이라 한들, 놈들도 아무렇게나 살생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배를 불리기 위한 살생만을 하지 않나.

한데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들은 오로지 살생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이 확실했다.

네발 달린 짐승의 속도를, 인간이 어찌 이기겠는가.

대형 고양잇과 짐승의 유연한 움직임을, 인간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사람 머리만 한 앞발에 실린 힘은 일격에 인간의 목을 날리고도 남았으며, 앞발 사이에서 뻗어져 나온 날카로운 발톱은 인간이 든 쇠붙이도 순식간에 두 동강을 내 버렸다. 흉흉한 엄니와 어마어마한 치악력은 또 어떠한가.

게다가 놈은 고슴도치처럼 등에 화살이 박히고도 쓰러지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흉포하게 굴었으며, 나무를 타고 올랐다가 군열 사이로 착지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목을 노려라!!! 목을 노려서 쏴!!]

[조, 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놈에게 잘못 쏘았다간 아군이 화살을 대신 맞을 것이다.

[이잇! 이리 내!!]

장교는 버럭 화를 내며 병사의 화살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병사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호랑이를 향해 시위를 당겼다.

[…….]

하나, 병사의 말처럼 좀체 시위를 놓을 수가 없다. 화살촉이 놈의 목덜미를 향해 이리저리 움직였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 늑대 한 마리가 장교의 시야 안으로 뛰어들었다.

장교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늑대는 겁도 없이 호랑이의 목덜미를 향해 흉흉한 이를 드러냈다.

[저, 전하!!!]

장교의 외침과 동시에 테무르는 호랑이를 향해 직접 월도를 휘둘렀다.

호랑이는 시뻘건 피가 흐르는 이를 드러내며 몸을 낮췄다. 그러고는 갑작스럽게 제게 달려든 이를 향해 폭발적으로 도약했다. 양 앞발에서 튀어나온 흉흉한 발톱이 그대로 테무르를 갈라 놓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테무르는 놈이 공중에 뜬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힌 기마술로 빠르게 움직여 놈의 목덜미를 검으로 꿰뚫어 버렸다.

병사 수십 명을 도륙했던 짐승의 몸이 그제야 축 늘어졌다.

테무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검을 회수했다. 그리고 주위를 향해 일갈했다.

[전열을 갖춰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승은 그놈 한 마리가 아니었다.

[으아아아아악!!!]

어둑한 숲 저편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나무 위에 몸을 숨겼던 일족이 지브릴의 곁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최소 20마리는 되었어.”

그 말을 들은 데미안이 나직이 욕을 하며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한 마리로 이런 오합지졸이 되었는데.”

지브릴은 어둑한 눈으로 저 먼 곳과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러 대는 병사들을 노려보다가 빠른 판단을 내렸다.

“로아 오라버니.”

그에 로아가 곧장 그녀를 돌아보자, 지브릴이 말했다.

“오라버니와 나, 그리고 일족은 나무 위에서 호랑이를 잡는다. 엘빈, 데미안은 아래에서 섭정을 지원해.”

“알겠어.”

“알았다.”

지브릴은 섭정 주위로 빠르게 몰려드는 병사들을 일별한 뒤,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순식간에 나무 위에 도달한 지브릴은 표범처럼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고는 흔들림 없는 튼튼한 나무에 자리를 잡은 뒤 신중하게 활을 겨눴다.

미친 듯이 날뛰며 인간을 도륙하는 짐승을 향해서.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시위를 잡은 손가락도, 가느스름하게 뜬 파란 눈동자도 미동이 없다.

이윽고, 놈의 숨통이 날카로운 화살촉과 직선으로 이어진 바로 그 순간.

휙—!

팽팽하게 당겨졌던 화살이 어둑한 숲의 공기를 가르며 빠르게 호랑이에게 날아들었다. 지금껏 놈의 엉덩이와 등허리에만 꽂혔던 화살과 달리 어딘가에서 날아든 화살은 놈의 숨통을 정확히 관통했고, 짐승의 왕은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지브릴은 환호하는 기색도 없이 다시 움직였다.

심장이 기분 나쁘게 두근거렸다.

그간의 대치로 지친 것은 비단 섭정만이 아니었다. 발아래 병사들과 장교들 또한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많이 지친 상태임이 틀림없었다.

어두운 숲,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으르렁거림. 게다가 진짜 적은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 뒤에 숨어 있다.

“오후 4시.”

지브릴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다시 시위를 당겼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2)

마할 숲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자, 로즈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얼굴을 손바닥에 묻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나이젤이 로즈의 가는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을 거다, 로즈. 너무 걱정 말거라.”

하지만 로즈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만 갔다. 로즈는 얼굴을 들어 숲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기병대가 늦어요. 오늘 오후 늦게야 도착할 것 같은데……. 제발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요?”

나이젤은 믿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준 뒤, 역시나 숲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나 로즈를 향했을 때와는 달리, 숲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소리는 마와바타 숲이 아닌 마할 숲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소리가 일방적인 비명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제대로 맞붙어 싸우는 와중이라면, 저런 비명이 아니라 날붙이의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지금 마할 숲에서 병력을 잃으면 곤란하다. 아니, 솔직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되면 안 된다.

나이젤이 초조함을 감추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움직이려 할 때였다.

“각하!”

정보사 요원 중 한 사람이 급히 그를 찾으며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나이젤이 묻자, 그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양해를 구하고 바짝 다가왔다. 그러고는 나이젤의 귓가에 무어라 속삭였다.

“……?!”

그의 속삭임을 들은 나이젤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돌아보자, 그는 전한 소식이 진실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젤의 보랏빛 눈동자가 잠시 일렁였으나, 그는 이내 단호한 눈빛을 하며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오랜 세월 동안 산 바르 모아드는 쉐르칸 황제의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수족이었다. 비단 그가 피를 나눈 친형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모아드 공작은 타고난 무인이었다. 적의 숨통을 어찌하면 조일 수 있는지를 본능처럼 알아보는 자였으며, 이길 수만 있다면 자존심 같은 것은 시궁창에 처박은 것처럼 굴 수도 있는 자였다.

샨 테무르 아이젠 역시 모아드 공작 못지않은 무인이었으나,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연륜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작의 연륜을 커버해 줄 만한 참모는 없었다. 공작이 그런 자들부터 제 편으로 끌어들였으니.

호랑이 수십 마리에 전열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숲 곳곳에선 예기가 날아들어, 병사들을 지휘할 장교를 속속 죽였다. 더불어 소규모 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코르벨라의 새들이 예기를 날려 대는 자들을 화살로 죽이고 있었지만, 어디 그들의 죽음과 장교의 죽음이 같을까.

섭정의 군대는 전면전을 치르기도 전에 궤멸하고 있었다.

테무르는 호랑이의 목에서 검을 빼내며, 곁에 있던 엘빈에게 외쳤다.

“나가라, 엘빈 코르벨라!!”

“…….”

“지금 나가!! 정말 타지에서 개죽음당하고 싶은 거냐?!”

엘빈은 얼굴에 묻은 끈적한 액체를 손으로 훑어 낸 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상황은 명징했다.

귓가를 두드리는 비명, 병사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일부의 외침.

그가 모아드 공작이라면, 이런 상태의 적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지만…….

엘빈의 눈길이 죽어 쓰러진 호랑이의 눈동자에 닿았다. 멍하니 동공이 벌어진 놈의 눈동자엔 틀림없이 푸른 기운이 맺혀 있었다.

엘빈은 날아드는 예기를 확 쳐 낸 뒤, 퇴각하는 이들 틈으로 말을 몰았다. 그 모습을 본 테무르의 미간이 확 일그러지자, 엘빈이 나직이 말했다.

“아크바르의 기병대가 오면, 승산이 있는 것 아닌가?”

“…….”

“다시 시간 제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테무르는 옅은 하늘색 눈동자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주변의 소란한 소리가 일순 아득하게 멀어졌다. 엘빈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마주 보았다.

“지난 며칠,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겼어.”

“…….”

“그러니 오늘도 이긴다.”

그때, 그의 왼편에서 사나운 기색이 어린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설마 너,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야, 그런 거면 빨리 불어.”

데미안 발할라는 딱 지브릴 같은 말투를 구사하며 눈을 부라렸다.

“이건 네 싸움이야. 네가 졌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야. 그러니 그런 생각이면 나는 이대로 나갈 테니까, 빨리 불라고.”

그러자 머리 위에서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어떤 새끼가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해?!”

위를 올려다보지 않아도, 누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지 확실했다.

테무르는 크게 심호흡을 하여 가슴을 가라앉힌 뒤 월도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스스로 다짐하듯 외쳤다.

[뒤로 물러나 전열을 가다듬어라!!]

테무르는 진창 같은 곳을 내달렸다.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을 직접 다독이며, 최대한 고른 땅을 향해 달렸다.

장교 잃은 병사들도 직접 군을 진두지휘하는 섭정의 존재에 조금씩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버렸던 무기를 다시 들고, 투구를 고쳐 썼다.

반 토막 나 버린 병력이 간신히 모이나, 하던 때였다.

[섭정을 잡아라!!!]

어두운 숲 한편에서 우렁찬 포효와 함께 우레 같은 함성이 노도처럼 밀려들었다. 병사들을 앞세운 하누만이 목이 터져라 외쳐 대었다.

[샨 테무르 아이젠을 잡아!!!]

엘빈과 데미안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밀려드는 군인들을 보며, 지브릴이 씹어뱉듯 말했다.

“다들, 배에 힘 단단히 주고 버텨.”

교전이 이어질수록 마할 숲의 강은 피로 물들어 갔다.

하누만은 섭정의 군대가 궤멸 직전이란 소리에 직접 달려 나온 참이었다. 그 자존심 센 놈을 반드시 제 손으로 무릎 꿇리고 싶었다.

한데, 그리 만만치 않았다.

[절대로 진영을 벗어나지 말고 버텨라!! 버티면, 때가 온다!!]

장교들의 빈자리를 테무르의 존재감이 메웠다. 놈은 절대 뒤로 물러나 있는 법이 없었다. 종횡무진 전장을 누비며 압도적인 힘으로 모아드 공작파의 사병을 도륙했다.

그러는 사이, 하누만이 끌고 온 병력의 장교들이 속속 절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잇, 무슨 일이야?!!]

하누만 곁에 있던 장교가 절명하여 말에서 떨어지자, 하누만은 비명을 질러 댔다.

휙 고개를 돌려 나무 위를 보자, 그곳엔 놀랍게도 코르벨라의 황태녀가 있었다.

[—!!]

황태녀는 여유롭게 등 뒤에서 화살 하나를 빼 시위에 걸더니, 그대로 하누만에게 겨눴다.

[에잇!]

하누만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리며, 뒤를 돌아보기에 급급했다.

총대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뒤로 물러나자, 섭정 군대는 조금 더 힘을 냈다. 대열이 갖춰지자 서열에 따라 죽은 장교의 뒤를 이은 지휘관들이 생겨났으며, 병사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하누만의 군대는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뭉쳐야 산다!! 두려워도 물러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

산 바르 모아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궤멸 직전이었던 섭정의 군대는 놀랍게도 마할 숲을 넘어 마와바타 숲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신전이다.

제 아들보다 쉐르칸의 아들인 테무르가 훨씬 낫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놈이 제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

그러나 어찌하랴.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모아드 공작은 등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천오백에 이르는 자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눈에 서린 맹목적인 빛이 그토록 든든할 수 없었다.

모아드 공작은 제게로 휙 날아드는 화살을 날카롭게 쳐 내며 명령했다.

[가라. 가서, 섭정의 목을 꺾어 와라.]

그에 수풀 사이에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번지는 검은 물감처럼, 혹은 노도처럼 섭정의 군대를 향해 밀려들었다.

천오백의 암살자들과 맞붙는 순간, 전열이란 의미는 사라지리라.

위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활을 날리던 지브릴과 로아마저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주인 잃은 말을 아무렇게나 잡아탄 뒤, 테무르를 향해 달려갔다.

[으윽!]

친위대장이 한쪽 팔에 부상을 입고 신음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예 중의 정예인 친위대의 절반이 이미 절명한 상황이었다.

엘빈은 날아드는 암살자의 검을 세게 쳐 내며 눈을 가린 피를 닦아 냈다.

“진짜!!!”

데미안은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며 제 발을 잡아끄는 놈을 발로 차 버렸다.

성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누구의 피인지 모를 피를 뒤집어쓴 상태였다.

지브릴이 이를 갈며 어두운 숲을 노려볼 때였다.

“피해!!”

벼락같은 외침과 동시에 누군가가 그녀를 강하게 밀어 버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지브릴이 옆으로 밀려났다.

그녀가 눈을 희게 뜨며 뒤를 휙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테무르가 있었다.

문제는 그의 팔에 박힌 화살이었다.

“뭐 하는 짓이야?!!!”

지브릴은 화살을 보며 있는 대로 성을 냈다.

“미쳤어?!”

테무르는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은 채 화살을 팔에서 빼 버렸다. 그러고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채 나직이 말했다.

“나가라. 고마웠다.”

그러고는 지브릴이 무어라 답을 하기도 전에 외쳤다.

[검을 들 수 있는 자, 일어나라!!!]

지브릴은 그대로 서서 테무르의 등을 쳐다보았다.

테무르의 명령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기껏해야 백 남짓. 쏟아지듯 밀려드는 악귀 같은 것들은 그저 바다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브릴.”

데미안과 로아, 엘빈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 모두 어두운 시선으로 테무르를 보았으나,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했다.

지브릴은 검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늑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 대신 맞은 화살 때문에 피가 뚝뚝 흐르는 팔뚝을 하고도, 그자는 물러날 수조차 없었다.

혈육의 정? 웃기는 소리.

우정? 말도 안 되지.

한데 향과 종, 서글프도록 검은 르와즈의 끝단이 어른거렸다.

“지브릴.”

데미안이 다시 그녀를 강하게 불렀다.

문진처럼 문질러졌던 시야가 일순 돌아온 순간, 지브릴의 망막에 뭔가가 어렸다.

지브릴은 테무르의 등 너머, 밀려드는 시커먼 바다 너머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았다.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진 자 뒤로 포대에 감싼 인영이 들것에 실려 멀어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여섯.

지브릴의 새파란 눈이 바짝 조여들었다.

“당장 나가라니까!!!!”

그사이 테무르가 버럭 성을 내었다.

그러나 지브릴은 물러나기는커녕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3)

“지브릴!”

엘빈이 그녀를 부르자, 지브릴은 멀어지는 인영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일족의 어른들은 늘 내게, 넌 안전한 이능을 가져 다행이라고 하셨지.”

“……?”

“하지만 엘빈, 난 말이야. 늘 궁금했어.”

곁에서 듣던 로아가 강한 힘으로 지브릴의 어깨를 붙잡았다.

“뭘 하려고!!”

“오라버니, 저기 그자들이 일족을 데려가.”

“……?!”

“다들 늘어진 것을 보니 죽기 직전이겠지. 여기서 저자들을 놓치면 틀림없이 아뷔브를 찾아올 거야. 혹은 코르벨라의 귀족 중 일부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지.”

로아가 무어라 말하려는데, 지브릴이 중얼거렸다.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그 작은 중얼거림에 로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반드시 일족 전원을 구해 내고 모든 흔적을 지워내라.”

“지브릴!”

엘빈이 지브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둔탁한 뭔가에 막혀 밀려났고, 그의 누이는 마치 바람처럼 멀어졌다.

지브릴은 어느새 노도처럼 밀려드는 검은 바다와 위태로운 빙붕 사이에 서 있었다.

테무르는 갑작스레 앞에 나타난 지브릴의 등을 보며 눈을 치떴다.

“지브릴!!!!”

엘빈이 미친 듯이 그녀를 부르며 달려 나왔으나, 곧 뭔가에 막힌 듯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밀려났다.

로아와 데미안 역시 달려 나가려 했지만, 엘빈이 막힌 지점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친위대장이 멍하니 되묻는 사이, 테무르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달렸다. 저 작은 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왜인지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왈칵 눈물이 치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브릴 코르벨라!!!!! 당장 돌아 나와!!!!”

테무르가 있는 힘껏 무형의 기운에 몸을 부딪쳤다. 하지만 기운, 아니 오드가 그를 밀어냈다.

엘빈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제 검에 오드를 실었다. 이것이 오드라면, 오드로 갈라지리라.

그 모습을 본 테무르도 월도를 들고 오드를 모았다.

“지브릴, 너는 진짜!!!”

데미안은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악을 써 댔고, 로아는 지브릴의 오드가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한데… 그런 곳이 없었다.

지브릴은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세상은 보인다.

모든 것의 근원, 오드.

흙 한 줌, 물 한 모금에도 오드가 섞여 있다. 지브릴은 그것을 세세하게 읽을 줄 알았다. 어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

지브릴, 그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것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드를 만지면, 손을 대지 않고도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장 근원인 오드를 흩어 버리면, 그 어떤 강인한 자도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지브릴은 제게로 달려오는 이가 딱 천오백스물한 명이라는 것을 파악해 냈다. 그리고 멀어지는 새카만 머리카락의 남자까지, 천오백스물두 명.

이만큼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모아드 공작 부자의 오드에까지 손을 뻗었다.

이만큼은 코르벨라의 이름을 짊어지고 끝내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던 이를 위하여.

“지브릴 코르벨라!!!!!”

“지브릴!!!”

멀리서 테무르와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브릴은 픽 웃으며 눈을 떴다. 검은 바다가 지척에 있었다. 그들을 이루는 오드가 펄떡였다.

“아… 이 죄를 용서하실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브릴은 웃음을 거두며 천 개가 넘는 오드를 일시에 움켜쥐었다.

세상이 멈추었다.

하늘을 날던 새도, 바람도.

모든 것이 멈췄다.

그 모든 흐름이 멈춘 곳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멜로디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 빠르게 발을 놀렸다.

숲에 들어선 순간, 말 그대로 해일 같은 오드가 범람하는 것이 느껴졌다. 위험할 정도로 방대한 오드가 넘실거리며 움직였고, 순식간에 강하게 응축되었다.

멜로디는 본능적으로 이 위험한 오드의 중심에 지브릴이 있음을 느꼈다.

“지브릴, 지브릴…….”

멜로디는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방대한 오드를 응축했다가 터트리면, 지브릴은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엔 신단수도, 신관도 없다.

멜로디는 거의 날아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달렸다.

숨이 찬지도 몰랐고, 힘이 든지도 몰랐다.

그러다 그녀의 오드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검은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그 검은 바다의 지척에, 코르벨라의 아이들이 있었다.

멜로디의 푸른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렇게 보내 놓고, 너무 늦었다.

엘빈은 어떤 청년과 함께 일그러진 얼굴로 제 누이의 오드를 가르려 하고 있었고, 데미안은 울면서 오드의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로아는 빈틈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들 모두, 성한 곳 하나 없이 엉망이었다.

멜로디는 로아의 머리카락을 한 번, 엘빈의 등을 한 번 쓸어 주었다. 엘빈 곁에 선 청년도 힐끔 보고는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러고는 데미안의 눈물을 손으로 훔쳐 준 뒤, 지브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저 오드를 느낄 수만 있다더니.”

멜로디는 커튼을 걷는 것처럼 지브릴의 장막을 걷어 내며 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정면을 노려보고 있던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단단하게 굳어 있던 딸의 몸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순간, 멜로디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안 돼, 지브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지브릴의 오드가 일순 흩어졌다.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켜는 순간, 멜로디는 몸을 떼어 내며 지브릴의 눈을 마주했다.

지브릴은 벌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멍하니 그녀를 불렀다.

“…어머니?”

“안 돼.”

멜로디는 단호히 말한 뒤, 흐트러진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심장을 꾹 누르며 말했다.

“다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지브릴은 이것이 꿈인가 했다. 하지만 한 음절 한 음절마다 묻어나는 단호함과 절박함에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다.

제 심장 위를 덮은 따뜻한 손길에 이것이 현실임을 확신했다.

‘어머니가 왔다.’

차갑게 굳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브릴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럴게요.”

한숨과도 같은 말이 잇새로 흘러나옴과 동시에, 천 개가 넘는 생명을 움켜쥐었던 손이 흩어지며 멈춘 공기 새로 스며들었다.

멜로디는 흩어지는 오드를 느끼며, 그제야 엷게 웃었다.

그러고는 검은 바다를 향해 몸을 돌리며 검을 들었다. 그녀를 감싼 기류가 바뀌었다. 염려로 물들었던 눈동자는 맹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멜로디는 단번에 멀리 도망치는 자들을 알아보았다.

“어머니, 저기—.”

“봤어. 쥐새끼처럼 도망치는구나.”

화가 난 어머니의 음색에 지브릴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었다.

“준비해라, 지브릴.”

지브릴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늘어트렸던 검을 고쳐 쥐며 외쳤다.

“준비됐어요!”

모녀가 적을 향해 검을 겨눈 순간, 멈췄던 모든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고, 새가 날아올랐으며, 밀려들던 검은 바다가 모녀의 코앞에서 출렁였다.

“지브릴 코르벨라!!!”

흐름에 가로막혔던 테무르의 비명과도 같은 부름을 들으며, 멜로디와 지브릴은 반쪽짜리 일족 흉내를 내는 놈들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두 번의 공격은 없다.

일격에 적을 섬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뿐이다.

천 명이 넘은들 어떠하랴. 하나씩 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새 끝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목적은 오직 하나, 이번에야말로 어둠의 땅 깊숙이 숨어 있던 뿌리를 모조리 파내는 것뿐.

위태롭던 지브릴의 등을 보고 있었 테무르와 엘빈, 데미안과 로아는 별안간 나타나 검을 휘두르는 여자의 모습에 멍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익히 아는 셋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검을 든 채 파도를 향해 내달렸다. 누구도 그녀를 ‘폐하’라 부르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다.

반면, 테무르는 그 자리에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압도적이란 말은 그녀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이리라.

홀연히 나타난 여자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러나 춤처럼 보이는 검의 궤적엔 한 줌의 자비도 없었으며, 그녀의 춤이 지나간 자리엔 어김없이 적이 쓰러졌다.

그때, 막 적의 숨통을 끊은 여자가 휙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더니 놀랍게도 씩 웃었다. 그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로즈의 아들이구나.”

“너는 그녀를 모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순간, 홀연히 나타난 여자, 아니 코르벨라의 황제가 웃음을 거두며 벼락같이 외쳤다.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거니, 테무르 아이젠!!!!”

그것은 테무르를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결국은 이 검은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 여겼던 나약한 마음을 깨부수는 망치였으며, 차라리 죽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했던 무책임한 체념을 태우는 불길이었다.

테무르는 제 뒤에 선 병사들에게 있는 힘껏 외쳤다.

[전군!!! 적을 섬멸하라!!!]

그러고는 검을 치켜든 채 검은 바다를 휘젓고 있는 사촌들을 향해 내달렸다. 아이젠의 검은 늑대는 언제 힘이 빠졌었냐는 듯 월도를 휘둘렀다.

지브릴은 제 등 뒤로 달려들던 놈을 쳐 낸 테무르를 향해 씩 웃어 준 뒤,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설마 혼자 오셨어요?!”

막 적의 어깨를 밟고 넘으며 검을 내리꽂던 멜로디가 외쳤다.

“그럴 리가 있겠니?”

“그렇죠?! 그러셨음 지금이라도 나가려고 했어요!!”

멀리서 데미안이 빽 소리치자, 멜로디는 어깨를 으쓱였다. 천둥 같은 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멜로디는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새카만 머리카락의 남자를 주시하며 중얼거렸다.

“쥐새끼가 또 숨어 버리면 곤란하니 여기서 반드시 잡아야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4)

그와 동시에 수풀 사이에서 수십 기의 말과 사람이 나타났다. 가장 선봉에 있던 자가 몰고 온 말이 곧장 멜로디를 향해 내달리자, 그녀는 머리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단숨에 말의 갈기를 잡아 매달리듯 올라탔다.

[……!]

지브릴 코르벨라가 보여 주었던 것과는 또 다른 충격에, 친위대장은 졸도할 것처럼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멜로디 코르벨라는 거대한 말을 타고 검은 바다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언제 잡은 것인지 모를 긴 창과 같은 대검을 휘두르면서.

머리에 두건을 쓴 의문의 무인 수십 명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거대한 인해를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신형의 등을 따르면서도 한 줌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다.

지브릴, 엘빈, 데미안과 로아도 말을 타고 황제의 뒤를 따라 달리며 검을 휘둘렀다.

그들은 마치 쇄빙선 같았다. 압도적이었던 검은 인해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이로운 모습에 테무르의 군대가 거칠게 포효했다.

테무르와 병사들이 갈라진 바다 위로 쏟아지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아드 공작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합니까, 각하?!]

[아버지!!]

쏟아지는 불안한 음성에 공작이 버럭 화를 냈다.

[그만!!! 동요하지 마시오!!!]

[…….]

[기껏 백 명도 안 되는 원군이오! 아크바르의 기병대가 온 것도 아니니…….]

그러나 모아드 공작의 말끝은 흐려지고 말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슴벅였다.

왜 햇살이 길게 눕고 있는가. 키 큰 나무를 위에서 굽어보아야 할 햇살이 어찌하여 길게 누워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햇살은 어찌하여, 서글프도록 붉게 물들어 있는가.

“오늘 오후, 아크바르의 기병대가 도착할 것이니 그 전에 반드시 섭정을 죽여야 합니다.”

전령의 목소리가 경종처럼 뇌리에 울리는 순간, 먼 곳에서 아련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모아드 공작은 제 얼굴을 벌겋게 비추는 석양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대지를 두드리는 군마의 발굽 소리는 아이젠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아드 공작은 기병대를 이끌던 쉐르칸의 등을 떠올렸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했고, 용맹했다.

“바르야.”

형의 음성이 떠오른 순간이었다.

[각하!!!]

[아버지!!!]

빗발치는 외침이 그저 무용하게 느껴졌다.

다시 눈을 뜬 모아드 공작의 망막에 아크바르의 기병대를 상징하는 푸른 깃발이 맺혔다.

그리고 그 아래, 쉐르칸을 닮은 테무르가 있었다.

산 바르 모아드는 고개를 틀어 무서운 기세로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를 보았다.

[…저자는 형님이 보낸 사자인 겁니까……?]

아크바르의 기병대와 테무르가 검은 바다를 휩쓸며 모아드 공작을 향해 내달리는 동안, 홀연히 나타나 판세를 흔든 여자와 의문의 무인들은 도망가는 오르센 뱀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무섭게 질주했다.

오르센의 이방인은 후회했다. 그곳에 서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도망쳤어야 했다고. 눈 시퍼런 것들이 저토록 많다며 감탄할 것이 아니라, 냅다 달렸어야 했다고.

그는 제 주인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답습했다.

남자는 뒤늦게 목숨과도 같은 연구 자료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숲을 달렸다.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운 이끼에 넘어지길 수차례.

힘이 빠진 다리가 자꾸 휘청여 잠시 멈춰 숨을 몰아쉴 때였다.

분명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건만, 별안간 그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심장이 저 아래부터 빠르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가 놀라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힌 순간, 지금껏 그를 두근거리게 했던 시퍼런 눈동자가 마치 시퍼런 칼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남자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성난 코르벨라의 황제는 그런 그를 천천히 압박하며 다가왔다.

마치, 먹잇감을 모는 맹수처럼.

“사, 사, 살려 주십시오.”

남자는 재빨리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멜로디는 이 자리에서 놈의 숨통을 끊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밟아 누르며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고개를 처박은 그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눈을 맞췄다. 동시에 강제로 그의 입속에 거친 천을 밀어 넣었다.

“우, 우읍!”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테지만, 감히 죽을 생각 하지 마라.”

“……!”

“내가 충분하다 여길 만큼 네가 아는 것을 불기 전까진, 죽음이란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을 테니까.”

남자의 눈이 거칠게 흔들렸다.

도래한 지옥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것만 같았다.

\* \* \*

간절히 바라 헛것을 보았을까.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을 도와 달라 빌고 빌다, 결국 허상을 본 것일까.

마할 숲을 향해 달리던 한 무리의 사람들.

망토를 뒤집어쓴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할 숲의 어둠을 향해 진군했다.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명을 지키기 위해 온 자들 같았다.

저들이 테무르의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로즈가 속으로 빌며 그들을 바라보던 때였다.

선두에서 말을 달리던 자가 별안간 고개를 틀었다. 아주 멀어 눈이 마주쳤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으나, 바람에 휘날리는 망토 사이로 하얀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입술…….

“……!”

불그스름한 입술이 그녀의 이름을 담아 냈다.

‘로즈.’

그것은 아주 찰나 같은 순간이었다.

로즈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멜로디…….”

먼지를 휘날리며 순식간에 사라진 사람들의 선봉에 그녀가 있었을까?

간절히 바라 만든 헛것이어도 좋다. 허상이어도 상관없고, 귀신이라도 괜찮다.

로즈는 불안으로 들끓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할 숲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제발…… 제발 도와줘.”

잔인할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다.

로즈는 기다림에 지쳐 돌이 되었다던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야기가 틀렸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다면 돌이 아니라 재가 되었을 것이다.

발끝을 뭉근히 태우던 불길은 끝내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살라 버릴 기세로 그녀를 달구었다.

해가 서서히 기우는 동안, 그녀는 해시계의 기준처럼 움직임도 없이 서서 그림자를 키워 갔다.

어느덧 벌겋게 변한 햇살이 붉은 혓바닥으로 로즈의 뺨을 쓸어 올릴 때였다.

저 먼 곳에서 아득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로즈의 감은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스며 나와 흘러내렸다. 오라비가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지만, 로즈는 결코 눈을 뜨지 않았다.

더 깊은 지옥으로 무력한 자신을 내몰던 로즈를 깨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단어였다.

“저기 테무르가 오는구나, 로즈.”

테무르.

우주에서 가장 깊은 나락에 온몸을 묻고 있던 로즈가 그제야 눈을 떴다.

그 순간,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로즈의 세상이 바뀌었다.

창백하게 보이는 세상을 가로질러, 저 멀리 그녀의 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살아남은 그녀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길고 긴 사냥을 끝내고.

로즈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다가 지금껏 아껴 두었던 목소리를 내었다.

“테무르!!!!”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달렸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테무르 역시 곧장 말에서 내렸다. 그가 피로 젖었다면, 어머니는 심장을 사르는 불안이란 불을 뒤집어썼으리라.

테무르는 제게로 달려온 어머니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어머니!!”

로즈는 테무르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다. 울면서도 아들의 어깨를 더듬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던 그녀가 별안간 그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피 냄새가 실려 오는 죽음의 숲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어디에도 그녀가 찾는 이들은 없었다.

로즈는 떨리는 눈으로 테무르를 돌아보며 물었다.

“화, 황태녀… 황태녀와 황자, 로아와 데미안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급하여 테무르가 입을 열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멜로디가 왔지? 그렇지?!”

어머니의 떨리는 음색에 테무르는 엷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등 뒤를 돌아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곁으로 다가온 나이젤이 서늘한 눈빛으로 숲속을 응시하다가 물었다.

“모아드 공작은 왜 안 보이는 것이오, 섭정?”

그에 테무르는 천천히 눈을 슴벅이다가 답했다.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말입니다.”

주어가 빠진 말이었으나, 나이젤은 금세 알아들은 듯 조소를 입가에 걸었다.

산 바르 모아드의 목덜미를 문 성난 맹수의 이빨이 숲 어딘가에서 번뜩이는 것만 같았다.

\* \* \*

‘약을 더 만들려면 코르벨라에 다녀와야 한다.’

산 바르 모아드는 오르센 이방인의 의문스럽던 말을, 최악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야 말았다.

어찌하여 코르벨라의 황제가 이곳에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맹수를 건드린 것이 틀림없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적어라. 말귀를 못 알아쳐듣고 수작질을 하면…….”

시퍼런 눈동자를 가진 코르벨라의 황제가 친히 그의 목을 손끝으로 그어 주었다. 가느다란 손끝에 실린 힘은 미약했으나, 모아드 공작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코르벨라의 황제는 모아드 공작의 얼굴을 잡아 돌린 뒤, 미친 듯이 뭔가를 휘갈겨 쓰고 있는 오르센의 이방인을 보게 만들었다.

“자, 저자가 미친 듯이 쓰고 있지? 나는 너와 저놈이 쓴 걸 비교할 거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탈탈 털어 볼 거야. 너랑 저놈 둘 다.”

엘빈 코르벨라가 친절히 어머니의 말을 통역하는 사이, 죽은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몰골로 펜을 놀리던 오르센의 이방인이 퍼뜩 고개를 들었다.

“거짓말한 놈은 더 큰 벌을 받아야겠지.”

오르센의 이방인은 다시 황급히 고개를 처박고 글쓰기에 열중했다. 산 바르 모아드의 속도 꺼멓게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그보다 더 큰 벌이 어디…….

“…….”

마주한 시퍼런 눈빛 앞에 모아드 공작은 재빨리 펜을 들었다.

있다.

더 큰 벌이 분명 있다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멜로디는 찬 시선으로 놈을 바라봐 준 뒤, 한편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하프 여섯을 직접 살폈다.

“다행히 여섯 모두 살아 있습니다.”

멜로디는 그 여섯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들며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서럽고 원통한 울음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 어느 곳에서 걸음을 멈춘 멜로디에게 지브릴과 엘빈, 로아와 데미안이 다가왔다.

멜로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라붙은 핏자국과 상처에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준 뒤 나직이 속삭였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다.

고마워.

무덤 같은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속삭임이 차고 습한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5)

섭정과 모아드 공작의 전쟁은 섭정의 승리로 끝났다.

모아드 공작파에 붙었던 귀족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섭정에게 충성 서약을 하며 몸을 사렸다.

테무르는 공작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두 가문을 제외하고는 충성 서약을 받아 주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후계 암투가 왕왕 일어나는 아이젠에서는 가능했다.

할 일이 더욱 늘었다.

테무르는 부상당한 팔에 부목을 댄 채로 쉬지 않고 일했다. 로즈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서류 작업을 하는 아들을 먼발치에서 보다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쉐르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해 주고 긴 회랑을 걸어 황후 궁으로 돌아왔을 땐, 그녀 또한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왜 아니겠는가? 종일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았던가.

한데 로즈는 황후 궁에 들어선 뒤에도 좀체 앉지 못하였다. 궁을 서성이다가 하늘을 보고, 또 궁을 서성이다가 어둠을 헤아렸다.

“로즈.”

나이젤이 나직이 그녀를 불렀으나, 로즈는 듣지 못하였다.

머리 위를 비추던 달이 서서히 미끄러지다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을 무렵.

보다 못한 나이젤이 이제는 그만 서성이고 들어가 잠을 자라 이르려던 때였다. 풀벌레도 울음을 멈춰 적막한 정원에서 별안간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 순간, 표류하던 로즈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젖은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새카만 정원수의 실루엣을 가르고 날씬한 신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즈는 잠시 숨을 멈췄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희미한 빛이 어린 하얀 얼굴, 단아한 눈썹 아래 자리한 새파란 눈동자.

로즈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이복자매는 왜인지 그때에 비해 그리 늙지 않았다.

로즈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말은 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시간을 거슬러 만난 것 같은 그녀의 자매가 입술을 끌어올리며 싱긋 웃었다.

“안녕, 로즈? 너는 볼 때마다 예쁘구나.”

순간, 로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 어딘가에 눌러 사무치게 그리웠던 말도 아니건만, 왜인지 설움이 북받쳤다.

로즈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쏟자, 멜로디는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는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안쓰러울 정도로 바싹 마른 어깨에 마음이 아팠다.

로즈에게선 차가운 바람 냄새가 났다. 온기라고는 한 줌도 없는 몸을 하고서, 왜 이곳을 서성이고 있었을까.

“늦어서 미안해, 로즈. 내가 너무 늦었지?”

멜로디가 천천히 그녀의 등을 토닥이자, 로즈는 멜로디의 등을 마주 끌어안으며 서러운 울음을 토해 냈다.

“멜로디……. 멜로디.”

울음 섞인 자매의 부름을 들으며, 멜로디는 불현듯 깨달았다.

수십 년이 지나도, 로즈에게 있어 집이란 코르벨라였음을.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길러 내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코르벨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그리하여 어느덧 코르벨라의 상징이 된 멜로디 코르벨라가 달려와 그녀의 희생에 보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음을.

멜로디는 천천히 몸을 떼어 내며 눈물 젖은 자매를 마주 보았다. 자매의 귓가엔, 지난날 그녀가 선물했던 에메랄드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

멜로디는 화사하게 웃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잘 지냈어?”

장난기가 서린 음색에 로즈는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을 터트렸다. 멜로디는 그녀의 맑은 웃음을 마주 보다가 별안간 고개를 틀어 정원 어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생뚱맞은 말을 했다.

“태후께서 보셨다면, 민망하여 다신 내게 그런 자랑을 하지 않으실 거야.”

“……?”

로즈가 고개를 갸웃하며 멜로디의 시선이 닿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저 어둠으로 보이던 곳에서 장대한 체구의 청년이 윤곽을 드러냈다. 멜로디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테무르가 이렇게나 컸다오.’ 내게 늘 그리 자랑하셨지. 나는 그때마다 ‘많이 컸네요.’라고 했어. 문제는 작년에도 내게 그런 자랑을 하셨다는 점이야.”

“태후 폐하께서 제게도 그렇게 자랑하신다니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대답했어요. ‘많이 컸네요.’ 그러니 제가 섭정을 직접 본 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브릴이 키득키득 웃으며 끼어들자, 로즈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트렸다.

테무르의 난감한 표정을 본 데미안이 고개를 작게 내저었다.

“폐하와 지브릴이 함께 떡밥을 물었으니, 큰일 났네.”

테무르는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멜로디를 향해 다가갔다.

코르벨라의 황제는 도무지 제 어머니와 같은 연배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었다. 이제 갓 20대 중후반에 이른 것 같았으나, 딱 하나. 마주한 눈동자에 어린 기운은 결코 치기 어린 20대의 것이 아니었다.

테무르는 까마득히 높은 산맥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샨 테무르 아이젠입니다.”

멜로디는 제게 인사를 건네는 테무르를 물끄러미 보다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소, 아이젠의 섭정. 나는 멜로디 코르벨라요.”

테무르는 멜로디가 내민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섭정 대 황제로서 인사를 주고받은 멜로디가 손을 놓으며 장난스럽게 씩 웃었다.

“한데 나는 황제로서 온 것이 아니네만.”

“예, 압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데 그것이 진정 바라는 답은 아닌 듯, 멜로디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는 어디에서건 편안히 있을 수 있는 터라.”

“…….”

앞뒤 다 잘라먹은 말인데, 왜 수긍이 가는 것일까.

“너는 똥 밭도 구를 수 있을 거야.”

테무르가 데미안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사이, 멜로디는 고개를 획 돌려 로아를 바라보았다. 로아는 어딘지 체념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더니 그녀가 원하는 답을 들려 주었다.

“고모님.”

그러자 ‘이번에는 너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데미안을 휙 돌아보았다. 데미안은 몇 달 굶은 붕어처럼 요란하게 입을 뻐끔거리는 황제에게 얼른 원하는 답을 던져 주었다.

“이모님.”

“…얘네는 왜 하나같이 ‘님님’ 거리는지. 요만할 때는 귀엽더니, 크면서 귀염성이 다 사라졌어.”

“저희는 ‘어머님’이라 하지 않을 테니 넘어가 주시죠. 저희가 여기서 ‘엄마’ 하면 이상한 소문 납니다.”

“응, 그러렴. 어련하겠니.”

엘빈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자, 멜로디는 히죽 웃으며 테무르를 돌아보았다.

“…….”

테무르는 시퍼런 눈을 빛내는 코르벨라의 황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녀 등 뒤에 선 네 명의 사촌은 각자 떨떠름한 표정과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반응은 달랐으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았으며 또한 명확했다.

‘그냥, 얼른 듣고 싶으신 대답을 들려드려.’

게다가 방벽 같은 시퍼런 눈동자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고선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상한 의지마저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테무르는 난생처음 만난, 그것도 외관은 제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국의 황제를 향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이모…님?”

“그렇지, 그렇지.”

그에 코르벨라의 황제는 잇몸을 드러내며 만개한 웃음을 터트렸다. 도대체 어느 구석이 그토록 재미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테무르는 체념 어린 사촌들의 표정을 보며 그러려니 했다.

그러고는 참 오랜만에 소녀처럼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코르벨라 황제의 방문을 고깝게 생각하던 과거를 반성할 때였다.

일순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맴돌고 사라졌다. 테무르뿐만 아니라 멜로디와 로즈마저 눈을 슴벅이다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이었다.

뎅— 뎅— 뎅—

묵직하고 느릿한 종소리가 하와 궁 천 개의 기둥 사이로 울려 퍼졌다.

로즈는 미친 듯이 달렸다.

르와즈가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차지한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쉐르칸, 쉐르칸…….”

휘청이는 로즈를 테무르가 부축했다. 로즈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무렵, 모자는 황제의 침실에 도착했다.

두 사람의 등장에 황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의원들이 일제히 물러났다.

로즈는 비틀비틀 쉐르칸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가 쉐르칸에게 다가감과 동시에, 의원들은 뒤에 서 있던 테무르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새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

[경하드립니다, 폐하.]

경하라니.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던 아들의 걸음이 멎고 말았다.

로즈는 제 아들에게 쏟아지는 경하의 말을 들으며, 쉐르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늘 탄탄하던 가슴이 고목처럼 마르고 거칠었다. 그녀를 설레게 했던 사향 냄새 대신 알싸한 약 냄새가 가득했다.

로즈는 쉐르칸의 몸을 꽉 끌어안았다.

평생 제가 이방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 그건 다 이 사람 덕분이었다.

[쉐르칸, 쉐르칸…….]

로즈는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되뇌며 과거를 헤매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로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멜로디가 있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로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틀어 쉐르칸을 바라보았다.

바싹 마른 죽음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았다. 망자의 가슴에 고인 로즈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로즈.”

“…….”

“행복했니?”

그 물음에 로즈의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멜로디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겨 안았다. 로즈는 멜로디의 품에서 서러운 눈물을 토해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나는, 이 사람 덕분에 행복했어, 멜로디.”

그에 멜로디는 눈을 감았다. 여윈 그녀를 좀 더 세게 안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늘 네가 궁금했다.

갈림길에서 나와 함께 서 있었던 네가, 결국 코르벨라란 이름을 짊어지고 이방인이 된 네가 나는 늘 궁금했고…….

간절히 바랐지, 부디 행복하기를.

죄책감을 덜어 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으나, 진심이었어.

멜로디는 로즈의 등을 천천히 다독이며 눈을 감은 쉐르칸 황제를 애도했다.

향과 종, 검은 르와즈의 끝단이 구슬프게 침실을 울렸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6)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그사이 어김없이 피를 보았다. 제국의 축을 이루던 모아드 공작 일파가 숙청당했으며, 그로 인해 아이젠은 어수선했다.

새로 등극한 황제 테무르가 바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 타국의 황태녀 일행이 머무는 것은 괴이하다 여길 만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지브릴 일행은 급히 귀환할 준비를 했다. 사실 준비랄 것도 없었다. 올 때도 가볍게 왔으니 가는 것 또한 무거울 까닭이 있을까.

구해 낸 여섯은 살아남았고, 멜로디의 찰진 협박에 모아드 공작과 오르센의 뱀은 아는 모든 것을 철저히 토해 낸 뒤 죽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기 전날.

황제의 장례를 직접 준비하던 로즈도 이날만큼은 멜로디 곁을 떠나지 않았다. 테무르는 직접 오지는 못했으나,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멜로디와 사촌들을 챙겼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작 본인은 아버지를 잃고, 숙부를 죽인 뒤 잠시의 쉴 틈도 없지 않았나?

멜로디는 제 앞에 늘어진 산해진미를 멀거니 보다가 낮게 혀를 찼다. 잠시 생각을 하듯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테무르는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었다. 눈이 돌아가는 대로 서류가 쌓여 있었다. 잠시 잠이라도 자고 나면 정말 산더미 같은 서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도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땐,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날째 이어지고 있었다.

뉘엿거리는 벌건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뭔가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처음엔 새인가 싶었다. 그러다 그것이 새가 아니라 이국의 황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테무르는 진심으로 코르벨라 황궁이 궁금해졌다.

테무르는 재빨리 방 안의 사람들을 내보낸 뒤 얼른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자 요령 좋게 난간에 매달려 있던 멜로디가 방으로 쏙 들어오며 말했다.

“오오, 미안 미안. 도무지 들어올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더니 책상에 수북하게 쌓인 서류들을 보며 진저리를 쳤다.

“저런 게 많은 건 여기나 코르벨라나 다를 바가 없군.”

“…….”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그래야 나처럼 잠깐씩 휴가라도 다니지.”

“…….”

하지만 테무르는 답이 없었다.

멜로디도 제가 건넨 말을 되새기며 속으로 실소를 내뱉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숙부와 사촌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이 아닌가.

멜로디는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잠시 자리를 서성였다. 벌건 햇살이 묻은 테무르의 얼굴은 몹시도 지쳐 보였고, 그런 그에게서 지난날 그녀 자신이 보였다.

굳이 이렇게 찾아온 까닭도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닐까.

멜로디는 긴 숨을 내쉰 뒤 나직이 입을 뗐다.

“나는 나의 형제 중 한 사람을 죽였고, 또 한 사람을 유배 보냈다. 내 아버지이자 너의 외조부께선 당신의 아내 중 한 사람이자, 한때 황후였던 이에게 형벌을 내리고 돌아가셨지.”

테무르의 눈빛이 어둡게 그늘졌다.

“황제로서 황궁의 황좌에 앉았던 첫날, 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지. 아니, 생각보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 그럴 틈도 없었거든. 애도?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더구나.”

“…….”

“나는 어쩌면 그날, 사람의 마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의 남편, 카이사르가 없었다면 난 아마 지금쯤 인간도, 신도 아닌 어중간한 곳을 맴돌고 있었겠지.”

“…….”

“그랬다면 난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다. 로즈가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잊어버렸을 테고, 태후께서 내게 너를 자랑하시는 일도 없었겠지. 나는 누구도 믿지 못했을 거야. 더는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

멜로디는 테무르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다.

테무르는 젊은 얼굴 속에 깃든 관록의 황제를 그제야 마주할 수 있었다. 어찌하여 그의 외숙이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는지 이해했으며, 코르벨라가 그녀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뭉칠 수 있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때, 코르벨라의 황제가 싱긋 웃었다.

“아이젠의 황제. 내, 감히 그대에게 헌사해도 되겠소?”

테무르는 자세를 바로 했다.

“물론입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살피되 양옆으로는 넓게 보시오. 황제란 사랑하는 자이자, 조율하는 자이며, 선택하는 자요. 주변의 말을 귀담아듣고, 아무리 하찮은 자의 말일지라도 허투루 듣지 마시오.”

“…….”

“권위란 오만과 자만, 억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포용,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이를 늘 염두에 둠으로써 옳은 황제가 되기 위해 성심을 다하시오.”

테무르는 뭔가가 왈칵 치미는 것을 느끼며 숨을 참았다.

멜로디는 쉐르칸을 대신하여 한없이 무거운 짐을 얹은 테무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대의 외조부께서 내게 해 주셨던 말씀이오. 황제의 관을 씌워 주시며 이리 말씀하셨지.”

“…그리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더불어 한마디를 보태겠소.”

“말씀해 주십시오.”

멜로디는 테무르의 붉은 눈동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작게 속삭였다.

“그럼에도 끝내 사람으로 남으렴.”

“…….”

“웃고 싶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힘든 날엔 잠시 쉴 수도 있어. 황제는 신이 아니야. 그저, 많은 것을 짊어진 사람일 뿐이지.”

“…….”

“쉐르칸 황제, 네 위대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한다. 너 또한, 충분히 애도하렴. 그리고 어머니와 슬픔을 나누어라, 테무르.”

그에 테무르의 눈가가 벌겋게 변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리할게요.”

멜로디는 그런 그의 어깨를 다시 두드려 주었다.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코르벨라의 황제가 아니라 이모로서, 너를 도와주마.”

테무르가 숨을 천천히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멜로디가 별안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창을 돌아보았다. 그녀를 따라 창으로 고개를 돌린 테무르의 어깨가 움찔했다. 창 너머에 의문스러운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쟤들은 왜 저기로 온 거지?”

창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지브릴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존재에 눈을 희게 떴다. 테무르가 얼른 창문을 열어 주자 모녀가 동시에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 왜 거기로 오니?”

멜로디의 물음에 뒤따라 들어오던 데미안이 툴툴거리며 답했다.

“제 말이요, 폐하. 아니 멀쩡한 길 두고 왜 이런 곳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꼭 따라오면서 뭔 말이 그리 많아?”

데미안이 못 들은 척하자, 멜로디는 키득거리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옛날엔 ‘나도 데려가.’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니?”

“폐하!”

데미안의 앙칼진 외침에, 멜로디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러는 사이 엘빈은 테무르의 책상을 일별하며 진저리를 냈고, 지브릴과 로아는 테무르의 상처에 대해 물었다.

“많이 괜찮아졌으니 걱정할 것 없어.”

“암튼 고마웠다.”

지브릴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테무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내가 해야지.”

그러고는 고깝게 여겼던 귀빈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때, 멜로디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반색했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로아, 먹을 걸 가져왔구나? 얼른 열어 봐.”

“거봐, 오라버니. 가져오길 잘했지?”

“…이곳에서 주문해도 시종들이 가져왔을 것 같지 않니?”

로아가 떨떠름한 목소리로 되물었으나, 멜로디와 지브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꾸러미를 열며 신나 했다.

“아이, 진짜! 도대체 왜 바닥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데미안은 대충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멜로디를 보며 질색했고, 지브릴은 ‘너는 결벽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라고 중얼거렸다.

“누누이 말했지만, 네가 똥 밭을 구를 수 있다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거든!”

“여기 똥이 어딨어?”

“…그 똥 이야기 좀 그만하는 게 어떨까.”

지브릴과 데미안이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테무르 곁으로 다가온 엘빈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테무르는 엘빈을 마주 보다가 물었다.

“코르벨라 황궁은 늘 이렇게 소란한가?”

“그런 편이지.”

한데 왜인지 그것이 참 부러웠다. 테무르가 입술을 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멜로디가 외쳤다.

“너희 둘! 어서 와라!”

엘빈이 먼저 움직이자, 테무르도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 틈에 앉았다.

“아버님의 부고에 애도를 표하는 바야. 힘내.”

곁에 있던 로아가 작게 속삭였다. 테무르가 눈을 끔뻑이자, 로아 곁에 있던 데미안도 사나운 표정을 풀며 어색하게 말했다.

“나도 애도를 표하는 바야. 그리고… 보니까 황제로서 그럴듯해.”

엘빈은 그의 어깨를 묵직한 손길로 또 두드려 주었고, 지브릴은 콧잔등을 찡그렸다가 불쑥 말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라. 또 와 줄게.”

“…여기가 옆 동네쯤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자 지브릴을 비롯한 이들이 픽 웃어 버렸다.

테무르는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간질거리는 기분을 느꼈다.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막 지브릴이 그에게 음식을 권했다.

“뭐라도 먹어. 그래야 힘을 내지. 너 통 안 먹더라.”

테무르는 반사적으로 그녀가 내민 음식을 받았다.

“그럼에도 끝내 사람으로 남으렴.”

멜로디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맞은편에 있던 그녀는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는지 눈을 찡긋했고, 테무르는 결국 목 끝까지 차올랐던 말을 내뱉어 보고야 말았다.

“고맙다.”

그는 힘겹게 내뱉은 말이건만, 지브릴은 그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테무르는 다시 말했다.

“정말로 고마웠다.”

지브릴이 그를 바라보는 사이, 테무르는 주변에 몰려 앉은 이국의 사촌들을 한 명씩 돌아보며, 사람으로서 말했다.

“나를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어.”

곁에 앉은 로아는 다정하게 웃었고, 데미안은 쑥스러운 듯 콧잔등만 찡그렸다. 엘빈과 지브릴은 픽 웃었고, 멜로디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테무르는 아주 오랜만에 음식을 먹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녀와 더불어 아버지를 애도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와 궁을 방문했던 귀빈들은 올 때 그러했던 것처럼 훌쩍 떠났다. 태후가 된 로즈는 몹시 서글퍼했으나, 가는 이들의 걸음이 무거울까 염려하여 눈물짓지는 않았다.

테무르는 성곽에 서서 귀빈들의 모습이 점으로 변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뭐랄까요.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폐하.]

친위대장이 아쉬움이 묻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테무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그… 마할 숲에서 뵌 분 말입니다. 무인들을 잔뜩 몰고 오셨던…….]

[음?]

친위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혹… 코르벨라 황태녀의 숨겨진 자매… 그런 분 아니십니까?]

[글쎄…….]

[그래 보였거든요. 눈도 막 시퍼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두 사람이 딱…….]

[딱?]

친위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푸른 계보…를 이은 것 같달까. 뭐, 그리 보였습니다.]

[푸른 계보라…….]

테무르는 픽 웃으며 그들이 사라진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딱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멜로디와 지브릴뿐 아니라 왔던 모두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였고, 다정했다. 막대한 책임을 어깨에 지고도 그리 가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다.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정하게 그의 머리칼을 휘저었다.

\* \* \*

테무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휘저었던 바람은 멜로디 일행이 탄 배를 힘차게 밀어 주었다.

친위대장이 표현했던 ‘푸른 계보’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모녀의 수다에 질려 나자빠진 나이젤은 항해 내내 귀를 틀어막고 있다시피 했으며, 로아와 엘빈은 아예 자리를 피하기에 이르렀다.

딱 한 사람 데미안만큼은 툴툴거리면서도 모녀의 곁을 지켰고, 멜로디는 그런 데미안을 아주아주 귀여워해 주었다.

“나는 우리 데미안이 제일 귀엽더라. 꼭 사나운 여우 같아.”

물론, 빽빽 소리를 질러 대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 정말 폐하!!!”

지브릴이 배를 잡고 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테무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휘저었던 바람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코르벨라 땅에 닿았다.

그리고 항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남자의 금발을 부드럽게 휘저었다.

“대공! 저기!”

태후의 목소리에 카이사르가 퍼뜩 고개를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먼 곳에서부터 시원스럽게 달려오고 있는 한 척의 배가 보였다.

심장이 쿵, 쿵 큰 울림을 내며 뛰었다. 머리부터 번진 전율이 발끝을 내달렸다.

“오, 세상에…….”

태후는 두 손을 모아 쥐며 눈물을 글썽였고, 베델 공작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다.

발할라 부부와 아뷔브 공부인은 가슴을 활짝 펴며 사랑하는 이의 귀환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배가 좀 더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선두에 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카이사르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며 눈을 가늘게 떴다.

“카이사르!!!!”

낭랑한 외침이 해풍에 실려 밀려들었다. 카이사르는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환하게 웃었다. 바다보다도 푸른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

카이사르는 그제야 제가 오랜 기간 긴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푸른 하늘이 쏟아지는 것처럼 화창한 어느 날,

카이사르는 벅찬 가슴을 안고 읊조렸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묻은 그의 음성이 환한 햇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외전 — 푸른 계보. 完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7)

어느 늦은 밤.

코르벨라 수도 외곽에 위치한 대저택에 한 대의 마차가 들어섰다. 마차는 드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앞에서 멈췄다.

문지기가 얼른 마차의 문을 열자, 새카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딘지 급한 사람처럼 빠르게 마차에서 내리더니 한쪽 손을 허리에 얹으며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택에선 가면무도회가 한창이었기에, 척 듣기에도 경박스러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까마귀를 형상화한 듯한 검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가면 아래로 보이는 입술이 비뚤게 치솟았다.

“하, 씨. 기가 막히네?”

잇새로 씹어뱉듯 나오는 말투가 어찌나 사나운지, 문지기는 이 사람을 들여보내면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감히 말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남자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정한 느낌의 흰 가면을 쓴 남자였는데, 가면 뒤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갈색이었다.

흰 가면 남자는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마차에서 내려오더니, 까마귀 가면 남자에게 말했다.

“적당히 해. 지난번처럼은 곤란하다고.”

“그게 본보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야.”

대답은 까마귀 가면 남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차에서 내리던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는 아무 장식도 없는 검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검은 가면 너머로 화려한 금발이 반짝였고, 정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탄탄하고 건장한 체격에서 위압감이 흘러넘쳤다.

‘본보기……?’

그 말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한데, 문제는 까마귀 가면 쓴 남자의 반응이었다. 그는 히죽 웃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형, 멍청이들은 그 정도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자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것 같던 흰 가면이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럼 되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뒤처리도 지겨워.”

“그럴게.”

까마귀 가면이 재빠른 걸음으로 움직이자, 검은 가면이 느긋하게 그 뒤를 따랐고, 흰 가면은 두 사람 뒤를 지키듯 주위를 살피며 움직였다.

문지기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군지는 몰라도… 왜 저런 사람들에게 밉보였을까…….”

저들은 이 저택 안의 누군가를 조지러 온 것이 틀림없었다.

저택의 메인 홀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술에 절어 꼬인 발음과 맥락 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이미 무도회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기에 춤을 추는 이는 일부였고, 대부분은 홀의 한쪽에 마련된 거대한 테이블과 소파에서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중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남자가 술을 쭉 들이켜자, 가까이 있던 여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아까 하던 말 계속해 봐요! 황태녀 전하께서 그쪽한테 반했다고요?”

그러자 각자 떠들던 이들이 일순 조용해지며, 상석의 남자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가면 아래로 보이는 남자의 입술이 비릿하게 치솟았다.

그는 어깨를 몇 번이나 으쓱이며 여자에게 속삭였다.

“벌써 몇 번이나 나를 부르셨답니다. 그분도 결국은 여리디여린 여성이에요. 시찰을 나가실 때마다 내게 편지를 쓰시죠. 내가 그립다고.”

“어머, 황태녀 전하께서요? 의외세요!”

“내가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청혼서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야.”

남자는 모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은근히 높였다.

“전하께서는 내게 죽고 못 사시는데 말이야.”

“세상에!”

“사실… 조금 성가실 정도로 말이지.”

그러자 주변에 모인 남녀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터트렸다.

졸렬한 웃음이 자욱하게 깔리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나도 웃는 와중이라 소리가 묻힐 법도 하건만, 기묘하게도 그 웃음은 모두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느낌이 드는 웃음에 술에 취한 이들의 웃음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가면 속 남자의 미간이 와락 일그러졌다.

이 타이밍에 도대체 어떤 새끼가 저렇게 웃어?

남자가 사나운 눈으로 모인 이들을 쭉 훑어볼 때였다. 상석에 앉은 남자와 마주 보는 위치의 긴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가 테이블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꺄아악!”

“뭐, 뭐 하는?!”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지자, 인근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뒤로 빼며 소리를 질렀다.

주변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재빨리 튀어왔으나, 테이블 위를 느긋하게 걷는 남자의 기세에 밀려 감히 어쩌지 못하고 버벅대기만 했다.

까마귀 가면을 쓴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과 술잔을 발로 슬슬 걷어 내며 움직였다.

“아— 진짜. 구두가 더러워지네. 짜증 나게.”

앙칼지고 사나운 느낌이 물씬 드는 목소리, 결벽적으로 보일 정도로 반듯한 자세와 미끈하게 늘씬한 체형, 마지막으로 어둑한 불빛에도 화려한 금발까지.

눈치 빠른 사람 몇몇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고막을 긁듯 낮은 음성이 그들의 움직임을 옭아맸다.

“앉지? 아직 파티 중인데.”

사람들은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삐걱삐걱 고개를 돌렸다.

위압감 넘치는 남자가 테이블 끝에 의자를 두더니 여유롭게 앉았다. 그는 제 반대쪽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저쪽을 봐.”

그건 명령이었다. 술이 확 깬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남자의 명령에 따르는데, 상황 파악이 덜 된 누군가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도 결국 막혔다.

감히 뻗댈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 그를 내리눌렀다.

“아직 가면 안 되죠?”

“으억!”

놀라 뒤를 돌아보니 흰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다리라잖아.”

“예, 예. 그, 그럴게요.”

그 무렵, 자칭 황태녀 전하 연인은 다가오는 까마귀 가면을 향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즈음, 남자의 코앞까지 다다른 데미안이 친히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길쭉한 손가락이 가면을 걷어내는 순간,

“—!!!”

남자는 이것이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다.

가면 아래 감춰져 있던 기려한 얼굴엔 선득한 분노가 가득 어려 있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듯한 오싹한 기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두고 볼 데미안이 아니었다. 데미안은 손을 뻗어 남자의 나비넥타이를 확 잡아당겼다.

“예의도 없이 무슨 짓이야? 내 얼굴 봤으면 너도 얼굴을 보여 줘야 공평하잖아.”

“그, 그게……!”

“어디 보자—. 우리 전하께서 죽고 못 사는 놈이 누군지, 어디 보자—.”

데미안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흥얼거리며 놈의 가면을 우악스럽게 잡아 뜯었다.

“악!”

가면 안의 얼굴은 땀에 절어 번들거렸고, 술에 취한 눈빛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데미안은 놈의 멱살을 잡은 채 등 뒤를 휙 돌아보며 말했다.

“흐흐, 이놈이 제가 황태녀 전하께서 죽고 못 사는 놈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데미안 발할라의 악마 같은 모습에 테이블에 앉아 함께 키득거렸던 귀족들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발할라 소후작이 있다면, 함께 온 두 사람은 누구겠는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이 두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데미안에게 멱살을 잡힌 남자의 심정만 하겠는가? 그는 자신을 응시하는 검은 가면의 눈빛에 숨이 막혔다.

엘빈은 느릿하게 숨을 내쉬다가 나직이 말했다.

“글쎄. 지브릴에게 물어볼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가 발작하듯 반응했다.

“죄, 죄,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데미안이 놈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남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데미안은 기습적으로 남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며 얼굴을 디밀었다. 그러고는 아주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죽을죄, 잘 아네?”

“흐, 흐어. 바, 발할라 소후작 제발…….”

“제발, 뭐? 아!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그럼 그럴까?”

“…예?”

멍하니 되묻는 순간, 남자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위에서 악귀 같은 목소리가 발랄하게 들려왔다.

“죽을죄를 지었는데 죽이지 않으면 아량 아니냐? 그렇지?”

“…예, 예?!”

“넌 좀 맞자.”

그날, 남자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 \* \*

코르벨라 황궁은 평소에도 빈말로조차 차분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말 그대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엘빈의 신랄한 표현을 빌리자면 ‘쑥대밭’ 같았다.

현재 코르벨라는 도두 2세 시절의 전성기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것이 비단 황제만의 공은 아니었다. 참모진이 한마음 한뜻으로 황제를 보필하고, 각자의 몫을 해내고 있는 덕이었다.

대공은 보뱅 공가와 더불어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노령의 베델 공작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신료들과 황제 사이를 조율했다.

발할라 후작과 재무대신은 경제를 책임졌고, 아뷔브 공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며 무수히 많은 정보를 모아 왔다.

그들이 코르벨라의 황금기를 이룩하는 동안,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사촌들끼리 모여 유모들 혼을 쏙 빼놓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공부인. 공부인 덕분에 우리 데미안이 훌륭히 자랐어요.”

데이지의 감사에, 이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말아요, 후작. 내 덕이라니요.”

데이지와 이안은 그 뒤로도 한참이나 더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이안이 별안간 시종을 시켜 무거운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을 때, 시종장은 닥쳐 올 미래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이안은 손수 상자를 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품에서 옹기종기 모여 웃던 것이 정말 어제 같은데 청혼서라니요.”

“…….”

“…….”

“이 나이에 주책이지요. 왜 내가 설레는지.”

청혼서를 이리저리 살피던 이안이 호호 웃자, 나이젤과 아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구렁이처럼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문에 다다르자마자 빠르게 도주했다.

문밖에서 안쪽 상황을 주시하던 신료들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아뷔브 공작과 재무대신을 보고는 재빨리 함께 몸을 돌렸다.

언제든 도주할 수 있는 이들과 달리, 황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해야 하는 죄 많은 시종장은 그저 깊고 무거운 한숨만 연거푸 내쉴 뿐이었다.

최근 황궁이 쑥대밭이 된 까닭은 저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인 청혼서 때문이었다.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8)

코르벨라에서 청혼서란 남성 가문에서 여성 가문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 무수히 많이 쌓인 청혼서의 주인공은 황태녀 지브릴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리 정성스러운 청혼서가……!”

“…….”

“아참, 알테스 소후작이 대공을 뵙고 청혼서를 직접 드렸다던데. 대공, 말씀해 보세요. 그는 어떻든가요?”

대공의 표정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었다.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다. 내쉬는 숨결마다 극지의 냉기가 어려 있는 것만 같았다.

멜로디는 곁눈질로 카이사르를 힐끔 본 뒤, 이안에게로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멜로디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용인술이 뛰어났다. 백금발을 우아하게 틀어 올린 노부인은 ‘황태녀 청혼 사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하고도 완벽한 인물이었다.

우선, 그녀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다.

황권은 이미 공고하다. 그렇기에 지브릴은 권력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멜로디는 지브릴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녀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이안이라면 그런 사람을 정확히 볼 것 같았다. 물론, 선택은 지브릴이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안에게 도움을 청한 더 큰 이유는 바로 카이사르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그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때, 이안 곁에 있던 데이지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멜로디에게 몰래 눈을 찡긋거리더니, 나이젤과 아쉬의 뒤를 따라 집무실을 나갔다.

시종장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기둥에 딱 붙어 서자, 이안은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아들을 몰아붙였다.

“뭘 그리 기분 나빠 하느냐? 응?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그러자 지금까지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던 카이사르가 서늘한 목소리를 냈다.

“황실에서 황태녀의 혼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감히 저들 멋대로 추측하여 청혼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청혼서가 저리 많이 오는 것도 마뜩잖습니다.”

“황태녀의 혼기가 꽉 찼는데, 황실에서 어떤 언급도 없으니 저리 많이 오는 거야. 미리 황태녀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괜찮은 가문 몇 군데에 언질을 줬어야지. 엘빈 역시 마찬가지.”

“…….”

논리정연한 말에 카이사르가 입을 닫자, 이안은 눈썹을 까딱이더니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대공께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선황 폐하께 청혼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나요? 알테스 소후작이 딱 그대로 했거늘, 왜 그리 박대했습니까? 선황 폐하께서는 그저 웃으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오, 세다.”

멜로디가 작게 중얼거리는데 이안이 나긋하게 한 방을 더 먹였다.

“원래 준 대로 돌려받는 법 아닌가요?”

이안의 공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폐하께 청혼인지 모를 청혼을 하고 오는 바람에 내가 직접 찾아뵀던 기억도 나는군요. 어쩜 제 아버지와 그리 똑같은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물론, 우리 황자는 다를 것 같긴 하지만요.”

“어머니.”

소드 마스터면 뭐 하나.

“어디 보자, 쿠키도 생각나는군요. 그래, 그 쿠키.”

“…어머니.”

이건 뭐, 오드 어린 검을 나무 방패로 막는 격 아닌가.

하지만 공격만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멜로디는 이 일의 적임자로 이안을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참히 대검을 휘두르던 이안이 별안간 자애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정히 아들을 불렀다.

“카이사르.”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찌 네 마음을 모르겠니.”

이안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랏줄처럼 카이사르의 기운을 꽁꽁 묶어 버렸다.

“품 안의 자식이 장성하여 오롯이 홀로 설 때가 되었음을 기뻐하렴. 괜히 헛헛하다며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 괜찮은 이를 물색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선택지를 넘겨주거라.”

그러자 카이사르의 냉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갈무리되기 시작했다.

이안은 그제야 아들의 손을 놓으며,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분 나빠 할 이유가 없어요. 혼인이든 뭐든, 누가 하는 겁니까?”

“…….”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결국 결정은 황태녀의 몫 아니겠어요?”

작게나마 남아 있던 카이사르의 반발은 우스울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다.

딸을 잘 아는 아버지는 멍하니 눈을 깜빡이다가 결국 허탈한 웃음을 터트리고야 말았다.

“그리고 말이죠. 대공 못지않게 청혼자들 사이를 누비고 있는 세 녀석이 있는 것 같으니, 굳이 대공까지 나설 것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완벽한 결론을 가져올 겁니다.”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던 멜로디가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안의 완벽한 승리에 감탄하며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대공까지 나설 것 없다.’

이안의 지적은 정확했다.

코르벨라 사교계에서 데미안 발할라의 악명은 이미 자자했다. 그런데 그는 그 정도 악명은 애교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라도 하듯, 지브릴에게 청혼한 자들의 사생활을 탈탈 털어 댔다.

문제는 감히 그의 행보에 누구도 입을 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발할라의 위세 때문인가 하면, 그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깔끔한 뒤처리 때문이었다.

물론, 모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으니 말이 나돌 것도 없었지만.

더불어 엘빈 코르벨라와 로아 아뷔브의 공조 역시 한몫했다.

덕분에 지브릴은 산처럼 쌓이는 청혼서와는 별개로 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청혼자랍시고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곧 그녀의 여유도 박살이 나고 말았다.

최근 엘빈은 지브릴이 데미안을 진짜 죽여 버리지는 않을까, 진지하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로아는 빠른 시일 안에 지브릴이 데미안은 죽이고, 엘빈 역시 남단의 어느 무인도로 유배를 보내 버릴 것이라 확신했다.

“입 찢어 버리기 전에 다물어라.”

“으흡흡흡흡.”

“하, 진짜 이 새끼가 미쳤나…….”

지브릴이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 휘하의 기사들이 보았다면 오금 저려 하며 재빨리 도망쳤겠지만, 데미안은 이 모습조차 재미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멜로디의 재미를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데미안 발할라였다.

데미안은 제 얼굴을 한 번 우아하게 훑어 내더니, 신사의 표본처럼 자세를 가다듬고서 다정하게 말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황태녀 전하.”

그 순간 지브릴의 입술이 비뚤게 치솟자,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홀짝이던 엘빈이 말했다.

“데미안, 뒤로 물러나.”

엘빈의 경고에 데미안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지브릴이 휘두른 목검이 그가 있던 자리를 무섭게 가르고 지나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정통으로 맞았으면 팔이 부러졌으리라.

이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지브릴은 목검을 쥔 채, 책상을 뛰어넘으려 했다. 바로 그때.

똑똑.

정중하게 느껴지는 노크와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일지 보고하러 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촌 넷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소리도 없이 열리는 문 너머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는 얼굴만 보면 학자인가 싶을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정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탄탄한 체격이 그의 직업이 기사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지브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며, 목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루트비히 알테스?”

그녀의 날 선 목소리에도 루트비히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태도로, 늘 담당해 오던 일지 보고서를 지브릴의 책상 위에 올린 뒤 정자세로 섰다.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고 하신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브릴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루트비히를 올려보았다. 그는 제게로 쏟아지는 재미 들린 시선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데미안은 말할 것도 없고, 소파에 느긋하게 앉은 엘빈과 로아 역시 지브릴과 루트비히의 대치를 신이 나서 바라보고 있었다.

지브릴은 그들의 눈빛이 몇 달 굶은 붕어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 놈들에게 떡밥을 던져 줄 마음이 없었다.

불편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입을 떼려던 순간,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던 루트비히가 말했다.

“불편해하실 것 없습니다, 전하.”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

지브릴의 눈썹이 위로 치솟는 것을 본 루트비히는 그녀의 마음을 읽어 냈다. 사랑이란 참 오묘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습관까지 읽어 낼 수 있다.

알테스 영지를 시찰하러 온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지브릴은 푸른 빛이 도는 말을 탄 채 기사들을 이끌고 있었다.

하얀 이마 위로 흔들리는 금발, 가을을 휘감은 창공처럼 푸른 눈동자.

그녀는 알테스의 드넓은 대지를 박차고 달리며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살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모실 분이다.

그러려면 가까이 가야 한다.

루트비히는 그녀의 부관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황실 기사가 되었고, 1년여 전 끝내 지브릴의 부관이 되는 데 성공했다.

황태녀의 부관으로 임명되던 날, 루트비히는 제가 이 자리로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루트비히는 부드럽게 웃었다.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있던 지브릴의 눈썹이 다시 꿈틀거리자,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제 사정 봐주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것처럼 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부관이 사라지면 하셔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실 겁니다.”

“네 사정이 아니라 내 사정도 되니까 이러지. 청혼서라니, 제정신이야?!! 가서 회수해와!”

“회수하라 하시면 회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이냐는 질문에는…….”

“…….”

“제 진심이라 답하고 싶습니다.”

늘 거칠 것 없던 지브릴이 입만 벙긋거리다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

그러자 루트비히는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지브릴은 입술을 질겅질겅 씹다가 나머지 불청객 셋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도 다 나가!!!”

#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299)

루트비히는 복도 끝에 다다라서야 그와 함께 쫓겨난 황족 셋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형형하기 이를 데 없는 세 쌍의 눈빛이었다.

지브릴 앞에서는 그저 신이 나 보였던 데미안 발할라의 눈빛이 잘 벼린 칼날처럼 예리하고 서늘하게 빛났다.

하지만 눈빛이 변한 것은 루트비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브릴 앞에서는 한없이 정중하던 검은 눈이, 새카만 심연처럼 깊게 가라앉아 쏟아지는 시선을 물러섬 없이 받아치고 있었다.

“발할라 소후작,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 내게 말입니까?”

“예. 이젠 제게 붙인 미행을 그만 거둬 주시지요.”

루트비히의 말에 데미안이 잔인하게 웃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지브릴의 부관으로 보낸 지난 1년.

루트비히는 데미안의 이중성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테두리 밖에서 본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악랄한 사람이었다.

그가 애정을 가지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이었고, 그 한정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애정을 쏟았다.

데미안은 집요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황태녀에게 청혼한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황태녀에 대해 아주 작은 유언비어라도 퍼트리는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다니는 통에, 최근 사교계에선 침실에서조차 입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

루트비히라고 그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제 주변을 조사하고 다니는 자들이 성가시긴 했지만, 데미안 덕분에 지브릴이 편안하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데미안 발할라가 누군가. 그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는 사람은 베델 공부인과 황제 폐하 혹은 지브릴뿐이었다.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데미안의 고삐 풀린 미행을 언제까지 용인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루트비히는 잠시 데미안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입을 뗐다.

“황태녀 전하를 위한 일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브릴의 이름을 거론하자, 데미안의 눈이 바짝 조여들었다.

“하지만 전하께서 좋아하실 일인지는 모르겠군요.”

“…뭐?”

데미안의 기운이 사납게 일어났으나, 지브릴 코르벨라를 모시는 루트비히 눈엔 그저 앙칼진 여우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바짝 약이 오른 데미안이 루트비히를 향해 이를 드러내려 하자, 뒤에서 둘의 대치를 관망하던 로아 아뷔브와 엘빈 코르벨라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효과적인 중재자(?)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했다.

“한판 붙을 예정이니?”

한여름의 밤바람처럼 상쾌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에 두서없이 뻗치던 데미안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네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계단 아래 층계참으로 향했다.

로아와 엘빈마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살금살금 다가온 멜로디가 씩 웃고 있었다.

“폐하!”

루트비히가 실소를 내뱉을 정도로 데미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데미안이 언제 루트비히와 대치했냐는 듯 멜로디에게 가려 하자, 멜로디는 손을 들어 그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둘이서 한판 붙을 예정이면 일단 구경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멜로디의 시선이 루트비히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겠나, 알테스 경?”

멜로디는 제 옆을 천천히 따라 걷는 건장한 청년을 힐끔 보다가 씩 웃었다.

파란눈 일족의 자유로움을 물려받은 지브릴은 시중을 들기 위해 뒤를 따라다니는 시녀들의 존재마저 귀찮아했다. 어린 시절 유모를 따돌린 이유도 다 귀찮아서였다.

그랬던 딸이, 어느 날 보니 웬 커다란 청년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세 번째 보아도 그대로기에 알아보았더니 글쎄, 그를 부관으로 두었단다.

멜로디는 그 무렵부터 루트비히를 유심히 보았다. 데미안이 뒤늦게 하고 있는 뒷조사도, 사실 멜로디는 이미 끝내 놓은 상황이었다.

며칠 전의 대화로 유추하자면, 카이사르도 그 무렵 이미 뒷조사를 한 듯했다.

새카만 눈동자를 가진 루트비히는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브릴의 뒤를 따를 때, 그의 눈길은 늘 지브릴에게만 닿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지브릴이 편안할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보는 것은 무엇인지. 루트비히는 그것에만 골몰하는 사람 같았다.

멜로디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발할라 소후작이 붙인 미행은 오늘부로 사라질 거네.”

“아…….”

루트비히가 당황하여 말끝을 흐리자, 멜로디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참느라 수고했어.”

“아닙니다. 황태녀 전하를 위해서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하는 쪽에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멜로디는 뺨을 훑는 바람을 느끼며 물었다.

“지브릴은 뭐라고 하나? 경이 청혼서를 냈다는 걸 알 것 아닌가.”

“…….”

정면을 보던 멜로디가 슬쩍 루트비히의 표정을 살폈다. 묘하게 카이사르를 닮은 탓에, 무표정한 얼굴임에도 슬픔이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루트비히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멜로디는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다가 입을 열었다.

“계속 불편해하면, 자네는 어찌할 텐가?”

황제의 물음에 루트비히는 세상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발 디딘 대지가 사라지고, 머리 위로 이고 있던 하늘마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에 잠시 숨조차 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리 늦지 않게 답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저는 전하께 제 마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폐하. 청혼서를 내는 것은 제 마음이니 감히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게 무엇이든 전하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멜로디는 루트비히의 마음을 들으며, 며칠 전 카이사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말을 타고 대지를 달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검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 역시 그것을 좋아하니, 평생 좋아하시는 것을 곁에서 함께하며 제국을 수호하고 싶습니다.’ 그리 말하더군요.”

그 말을 하던 그의 표정은 어떤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 멜로디의 가슴 어딘가를 울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슬쩍 물었다.

“지브릴 생일이 곧인데. 자네는 무슨 선물을 할 텐가?”

그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감히 황제의 물음을 회피할 수는 없었기에 입을 열었다.

“그… 실은 전하께서 사용하시던 검이 예전만 못하다 하셔서…….”

“호오, 검을 선물하려고?”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닐까요?”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던 루트비히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번졌다. 멜로디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으려 입술에 힘을 주었다.

“아니야. 좋아할 것 같아. 지브릴이 주로 어디에서 검을 주문하는지는 알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 뒤로도 멜로디는 루트비히에게 몇 가지를 더 물으며 대화를 이어 갔다.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약간 안절부절못하는 느낌에 멜로디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시선이 관저, 더욱 정확히는 지브릴의 집무실로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멜로디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그를 보내 주었다.

“그만 가 보게.”

“아… 예, 폐하.”

루트비히는 기다리던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더니, 바람처럼 멀어졌다.

멜로디는 그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결국 키득키득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다가 건물 어귀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데미안과 엘빈, 로아를 향해 손짓했다.

데미안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오자, 멜로디가 가볍게 말했다.

“데미안, 루트비히 알테스에 대한 미행 결과를 보고해라.”

그녀의 명령에 데미안은 군기 든 병사처럼 곧장 정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쉬이 답하지 못했다. 데미안의 침묵을 지켜보던 멜로디가 웃었다.

“괜찮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데미안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다.

“…폐하.”

“알테스 경에게 붙였던 미행을 거두렴.”

“…….”

“너도 알 거야. 이쯤에서 물러날 일이란 걸.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아니라 지브릴이 화를 낼 거야.”

데미안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그 순간 멜로디의 눈빛이 확 바뀌었고, 그것을 본 엘빈과 로아가 표정을 굳히며 뒤로 물러났다.

멜로디는 이미 저보다 두 뼘은 커진 데미안의 머리를 마구 쓰다듬으며 깔깔거렸다.

“오구, 누나가 먼저 결혼할까 봐 걱정스러워?”

멜로디가 데미안의 발작 버튼 누르는 것을 본 로아와 엘빈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빽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폐하!!”

멜로디는 시뻘게진 얼굴로 씩씩대는 데미안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았다.

“흐음, 나는 귀가 여러 개라서 말이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쌀쌀맞은 우리 데미안이 아주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는 여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네, 네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폐, 폐하!!”

빠르게 멀어지던 로아와 엘빈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잠시 황제와 데미안의 대치를 바라보던 그들의 입가에 웃음이 맺혔다.

“그렇단 말이지?”

엘빈의 중얼거림에, 로아가 고개를 기울이며 턱을 매만졌다.

“이건… 지브릴이 알아서 할 것 같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데미안의 연애 소식을 들은 지브릴 코르벨라라.

엘빈은 정말 소름이 돋기라도 한 듯 팔을 문질렀다.

한편, 잡생각을 밀어내고 업무에 몰두하던 지브릴은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뻗었다.

때는 해가 늘어지는 오후.

지브릴의 가느다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

오른손이 닿는 자리엔 늘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것이 거기에 왜 있는지, 누가 가져다 둔 것인지, 어떻게 그녀 입맛에 딱 맞는지.

그런 의문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당연히 존재했다.

허공을 휘저은 지브릴이 고개를 들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깜빡이다가 설렁줄을 당겼다. 즉시 달려온 시녀가 그녀의 명을 기다리는데, 지브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그 음료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늘 가져다 놓던 음료를 가져와라.’라고 말하려던 찰나였다.

언제 익숙해졌는지 모를 기척이 느껴짐과 동시에 열린 문 너머에서 루트비히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손엔 지브릴이 찾던 바로 그 음료가 들려 있었다.

“…….”

루트비히는 말문이 막힌 지브릴 앞에 음료를 내려놓았다.

물방울이 맺힌 투명한 컵에 어렸던 푸른 시선이 점점 위로 향했다. 이윽고 검은 바다처럼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루트비히는 급히 오느라 거칠어진 숨을 참으며 웃었다.

부디, 그녀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 \* \*

그 무렵, 테무르는 때아닌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곁에 있던 친위대장이 슬그머니 말을 건넸다.

[폐하, 코르벨라의 황태녀와 우리 쪽 귀족들이 결혼하는 게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테무르는 두껍게 쌓인 청혼서를 차르륵 넘겼다.

[하지만 코르벨라엔 하렘 문화가 없어. 이자들은 누구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황태녀의 남편이 되고 싶다고 나선 것 아닌가.]

[어? 하렘이 없습니까? 하지만…….]

친위대장은 황후를 포함하여 아내를 셋이나 두었던 우르바시 황제의 경우를 말하려다가 말을 아꼈다. 그는 테무르의 외조부니까 말이다.

코르벨라 문화가 익숙지 않은 것은 테무르 또한 마찬가지인지라 턱을 매만졌다.

[일단은 어머님께 여쭤보아야겠군.]

테무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친위대장은 수북한 청혼 서류를 투박한 손길로 챙겼다. 양손으로 들기 벅찰 정도의 서류에 친위대장이 웃음을 터트렸다.

[역시, 그날 코르벨라 황태녀가 아이젠 군마를 개 부르듯 부르는 모습에 귀족들이 다 반했던 겁니다! 크으으, 저도 그런 장면은 처음 봤지 뭡니까?]

그날을 떠올린 테무르의 입가에도 웃음이 어렸다.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모녀와 코르벨라 황족들이 떠오르자, 문득 바다 너머의 그곳이 몹시 궁금해졌다.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일까?

[폐하! 코르벨라 황족들이 어찌 사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참에 우리 다 함께 가 보면 안 됩니까?]

신이 난 친위대장의 목소리가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속으로 스며드는 어느 오후였다.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 — 황태녀 청혼 사태 完